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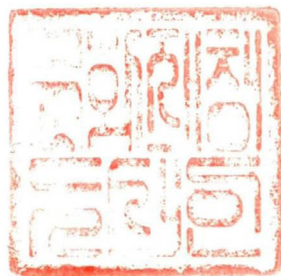
東廟의 建築

동묘(東廟)는 중국 한말(漢末)의 무장 관우(關羽)를 숭배하여 서울 흥인지문(興仁之門) 밖에 세운 묘(廟)를 이른다. 관우의 묘는 관제묘라 하며 그의 충(忠), 용(勇), 인(仁), 의(義)에 따른 훌륭한 공적을 후세의 제왕들이 존경하여 작위를 내리고 신격화함에서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관우는 중국 삼국시대(三國時代)1) 촉국의 한수정후(漢壽亭侯) 관제(關帝)를 이른다. 관우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삶에 대한 사적은 민간에서 전승되어 원조(元朝)에까지 이르렀다. 오늘날에도 중국과 대만에서 그의 충의(忠義) 정신은 민중의 모범으로써 도덕적 사회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인들은 관우를 무의 성인(武聖)으로 존경한다. 상인들 또한 사업의 신으로 숭배한다. 관우는 실존 인물이지만 중국인들에게 주요 신령으로써 관제(關帝), 관성제군(關聖帝君), 문형성제(文衡聖帝) 따위로 불리어지며 숭배되고 있다.

문화재청 자료관



EM024558



東廟의 建築















目次

1. 연혁	8
2. 입지 및 배치	18
3. 건축양식	24
4. 실측자료 해설	34
1) 평면	34
2) 기단 · 계단 · 초석	37
3) 기둥	40
4) 창방	43
5) 공포	44
6) 가구	48
7) 처마	53
8) 지붕	57
9) 수장	62
10) 단청	66
사진	70
도면	138
자료	304
부록	333
동묘소장 유물	334
관우상 및 관왕묘비 해설	335
동 · 서무 내 비문	338
Abstract	348

1. 연혁(沿革)

동묘(東廟)는 중국 한말(漢末)의 무장 관우(關羽)를 숭배하여 서울 흥인지문(興仁之門) 밖에 세운 묘(廟)를 이른다. 관우의 묘는 관제묘(關帝廟)라고도 하며 그의 충(忠), 용(勇), 인(仁), 의(義)에 따른 훌륭한 공적을 후세의 제왕들이 존경하여 작위를 내리고 신격화함에서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관우는 중국 삼국시대(三國時代)¹⁾ 촉국의 한수정후(漢壽亭侯) 관제(關帝)를 이른다. 관우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삶에 대한 사적은 민간에서 전승되어 원조(元朝)에까지 이르렀다. 오늘날에도 중국과 대만에서 그의 충의(忠義) 정신은 민중의 모범으로서 도덕적 사회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인들은 관우를 '무의 성인(武聖)'으로 존경한다. 상인들 또한 사업의 신으로 숭배한다. 관우는 실존 인물이지만 중국인들에게 주요 신령으로서 관제(關帝), 관성제군(關聖帝君), 문형성제(文衡聖帝) 등으로 불리며 숭배되고 있다.

관우는 160년(중국 동한(東漢) 연희(延熹) 3)에 하중부 해량 상평리 하빙촌(지금의 運城市 常平村)에서 태어났다. 관우의 세거지는 「한전장군장무후관성제군조묘비명(漢前將軍壯繆侯關聖帝君祖墓碑銘)」과 『역대신선통감(歷代神仙通鑑)』 권9에 해량(解梁)으로 나타나 있다. 조부의 이름은 심(審)이며, 자(字)는 문(問)이라고 비석에 새겨져 있으며 『역경(易經)』과 『춘추(春秋)』로 자식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조부의 학문을 이어받은 그의 부친은 이름을 의(毅)라하고, 자(字)를 도원(道遠)이라 했으며, 효심이 두터웠다고 한다.²⁾

관우의 본명은 장생(長生)이며 후에 운장(雲長)으로 고쳤다. 관우(160~219)는 신성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으로 충의를 겸비하였고, 『춘추(春秋)』를 즐겨 읽었다. 청년 시절에 관우는 민중을 보호하고자 난폭한 무리를 죽여 없애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뜻은 모두 비석에 새겨져 민간에서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다. 당시에는 포악한 무리들이 왕실과 결탁하고 있었으며, 관부조차 그들을 떠받들고 있었다. 관우는 마침내 고향을 떠나 분탁군(奔豚郡)으로 갔다. 탁군에 이르러 관우는 유비(劉備)와 장비(張飛)를 만났다. 세 사람은 결의를 맺어 함께 먹고 자며 형제간의 애정을 두텁게 쌓았다. 관우와 장비는 위험을 무릅쓰고 유비를 따라 정처 없이 떠돌며 전쟁을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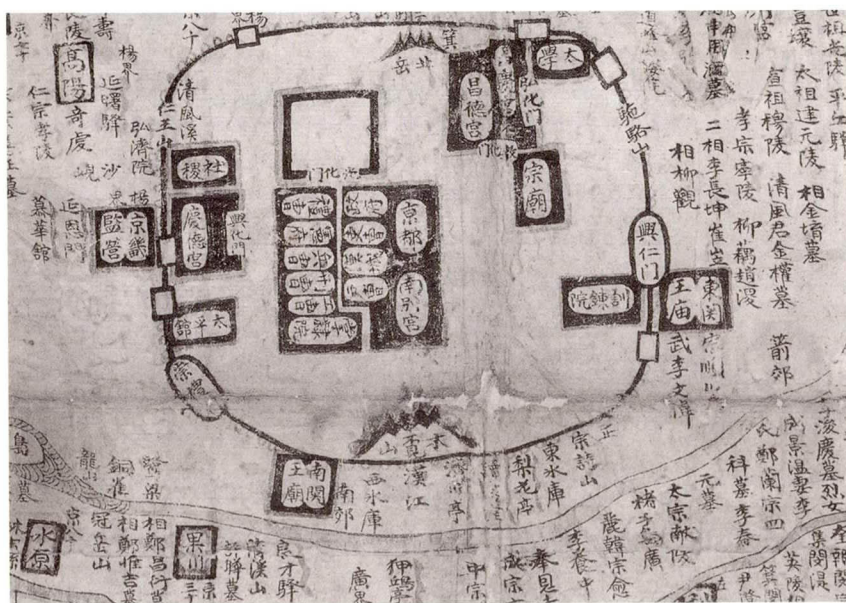
진수(陳壽)가 펴낸 『삼국지(三國志)』 「촉지(蜀至)」에 관우의 전기 1편이 전해지고 있다. 이 편은 대략 1700년 전에 쓰인 역사서로 관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관우와 유비, 장비는 먼저 별도의 관아를 세우고, 군대를 편성하여 다스렸고, 하비성(下鄙城)을 수비하며 태수의 일

1) 三國時代 : 중국은 동한말(東漢末) 정치가 부패하여 환관들의 당고지화(黨錮之禍 : 後漢의 桓帝때에 宦官들이 정권을 차단하고 있었다. 陳蕃, 李膺 등의 우국지사들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며 환관들을 공격하였다. 환관들은 도리어 그들을 조정을 반대하는 黨人이라 하여 종신 금고에 처했다. 이를 두고 黨錮之禍라 함.)가 있었다. 이어서 황건적(黃巾賊)의 난과 동탁(董卓)의 난이 일어나 일대 혼란에 빠진다. 한(漢)의 종실은 유언(劉焉)이 주목(州牧)이 되며 대가 끊어진다. 정권과 군 통수의 대권이 환관들에게 넘겨진 결과 군벌들이 할거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은 내전의 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 최강의 세력은 조조(曹操)와 원소(袁紹)가 쥐고 있었다. 동한 건안원년(建安元年, A.D. 196)에 조조는 하정(許昌)에 이르러 헌제(獻帝)를 잡아들이고, 천자(天子)를 사이에 두고 제후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였으나 세력이 원소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은 관도(官渡)와 적벽(赤壁) 전투 후 위(魏), 촉(蜀), 오(吳) 삼국으로 정립되었다. 삼국은 40여 년 동안 내전의 국면으로 대치하였고, 앞뒤로 멸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마염(司馬炎)이 삼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하여 진조(晉朝)를 이루었다.

2) 柴澤俊, 『中國古代建築 解州關帝廟』, 文物出版社, 2002, 北京, p.3.

을 처리하였다. 200년(중국 동한(東漢) 건안(建安) 5)에 관우는 조조(曹操) 군에 포로가 되었는데 조조는 관우를 존중하여 장군으로 삼고 예의를 갖추어 극진히 대하였다. 안량(顔良)이 조조를 공격하였을 때 장요(張遼)와 관우가 앞장서서 격퇴하였다. 관우는 적진을 뚫고 나아가 안량의 목을 베었다. 조조는 이 일로 즉시 관우를 한수정후(漢壽亭侯)로 봉했다. 조조가 비록 두터운 예로써 대하였으나 관우는 유비의 은혜를 생각하였고, 생사를 함께하기로 한 맹세와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다. 조조는 더욱 많은 상을 내려 관우를 붙잡아 두려고 했으나 사양하는 글을 남기고 떠났다. 그가 가는 길에 목을 베려 하였으나 마침내 무사히 촉한으로 돌아갔다. 유비는 그의 공훈을 높이고 양양태수로 봉하였고, 익주로 도읍을 정한 다음에는 관우에게 형주(荊州)를 맡겨 지휘하도록 하였다.

관우는 실수로 팔에 화살을 맞아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끊임없이 통증에 시달렸다. 의원이 이르기를 '화살촉에 독이 있어 뼈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팔에서 제거하여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관우는 뼈를 깎아 독을 치료할 때 담소를 나누며 견디어냈다고 한다. 219년(중국 동한(東漢) 건안(建安) 24) 유비는 한중왕(漢中王)이 되어 관우를 전장군(前將軍)으로 봉하고 절월(節鉞)³⁾을 주었다. 관우는 변성에서 조인을 공격할 때 구제를 금하였다. 그때 큰 장마비로 갑자기 물이 불어 넘쳤으며, 관우는 군대를 지휘하여 7군을 물 속에 몰아넣고 포로를 금하였으며 방덕의 목을 베어 위세가 화하(華夏)에 떨쳤다. 이후 관우는 손권(孫權)이 이끄는 남군태수 미방(糜芳)과 공안장군 부사인(傅士仁)에게 군자 보급을 차단당했다. 손권은 강릉(江陵)에 남아 관우의 처자를 사로잡아 관우 군이 흩어지도록 하였다. 손권은 재차 공격하여 임저(臨沮 : 지금의 湖北 遠安)에서 관우와 그의 아들 관평(關平)을 살해하였다. 촉(蜀)의 후주(後主) 유선(劉禪)은 260년(중국 경요(景耀) 3) 9월 관우를 장무후(壯繆侯)로 추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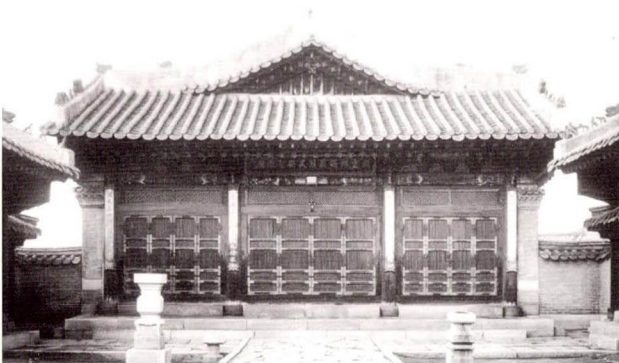
3) 절월 : 옛날 중국에서 임금이 절도사(節度使)나 종도(征討)에 오는 장군에게 주던 (부절符節과 부월符鉞)로써 생살권을 상징하였음.

『삼국지(三國志)』 관우전에는 청년시절 관우는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러 강호를 떠돌고 있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유비를 따르면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위하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시종 충의를 잃지 않고 살았다. 나관중(羅貫中)은 진수(陳壽)의 『삼국지』에 서술된 위(魏)·촉(蜀)·오(吳) 3국의 역사를 『삼국지통속연의(三國志通俗演義)』로 고쳐 쓰면서 관우의 사적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많은 독자들은 관우를 받들어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관우고사 또한 민간에 깊이 전승되어 점차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출신을 떠나 모든 면에서 정상의 입지에 오른 대장부로 여기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공자(孔子)의 문묘(文廟)처럼 무묘(武廟)를 세워 관우를 숭배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관왕묘(關王廟)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원했던 명(明)나라 장수들의 요구와 명조(明朝)의 정치적 의도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동묘(東廟)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명의 사신 만세덕(萬世德)이 신종(神宗)의 요청을 전해와 1601년(조선 선조 34)에 건립되었다.⁴⁾ 처음에는 서울의 남쪽과 동쪽에 관왕묘가 세워졌다. 한말에는 관제신앙(關帝信仰)이 고조되어 서울의 서, 북에도 관왕묘가 세워졌으나 현재 동묘만 남아 있다.

4) 『文獻備考』卷61 禮考 關帝廟條

『惺所覆藁』卷16 勅建顯靈關王廟碑 ‘관공(關公)은 원래 영령(英靈)이 비범(非凡)하여 임진왜란 시 귀국(貴國)에 음조(陰助)가 지대하였으므로 묘(廟)를 세워 공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



△ 남묘 정전 (일제시대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동묘 정전 (일제시대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북묘 본당 정면 (일제시대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평양 관제소 (일제시대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신종은 관왕묘 건립 요청 서신과 함께 건축기금 4천금을 보내왔다. 선조는 명의 종용에 마지못해 흥인지문 밖에 그 터를 제공하였다. 명의 만세덕은 숭례문 밖에 세우기를 주장하고 입지 선정까지 하였다. 선조는 숭례문 밖에 이미 관왕묘가 있으므로 흥인지문 밖에 세움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숭례문 밖에는 이미 남묘(南廟)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같은 영(靈)을 중첩해서 건립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또한 서울의 지세는 동쪽 변이 허술하여 옥우(屋宇)를 건립하고, 배수로를 파서 지맥을 눌러야 한다고⁵⁾ 명의 사신 만세덕에게 일렀다.⁶⁾

동묘의 건립은 조정대신들의 관왕(關王) 숭배에 대한 이의가 많아 3년이나 되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1599년(조선 선조 32) 6월 경리도감 윤근수(尹根壽)에 의해 동묘 건립 장소가 흥인지문 밖 영도교(永渡橋) 옆으로 정해졌다. 건설 공사는 군인들의 부역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사관은 헛된 관묘(關廟) 공사에 시달리는 민생을 개탄하고 있다.⁷⁾

동묘 건립 공사는 전후 어려운 여건 속에 진행되었다. 1600년(조선 선조 33) 1월의 병조에서는 관왕묘 축조를 위한 인력 수급에 관해 '관왕묘 축조 공사에 매월 2백 명의 군인이 부역을 하고 있으므로 당직 근무 군사가 부족하다. 부득이 경기·강원·충청도의 군사를 데려다 쓰고자 여러 번 요청하였다. 현재 교대 일수가 다가오지만 계속해서 인력을 수급할 방법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 3도의 군사는 사실상 다시 부르기가 어려우므로 황해도에 전례를 따라 각기 1개월분 양식과 2백 명을 보내어 교체시키고자 함이 어떨지 문의한다.'라며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조는 관왕묘 축조 인력의 교체를 허락하지 않으며 부진한 공사에 대해 '관왕묘 공사는 시작한지 여러 달이 지났는데 어찌하여 마치지 못하고 있는가? 이제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외지의 군사를 불러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 선조는 1600년 1월 18일에 '민원이 극도에 달하면 부역을 징발하여 공사를 시킬 수 없으며, 농사철이 되면 기존의 인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관왕묘의 역사를 우선 중지시킴이 상책이라 여겨진다. 다시 비변사와 의논하여 조처하기 바란다.'며 관왕묘 건설에 대한 일시적 중지까지 거론한다.

1600년 1월 29일에는 이항복과 이산해가 관왕묘 건립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산해는 관왕묘의 역사가 지나치게 거창하다고 하자 선조는 동묘의 규모가 남관왕묘와 같은지 묻는다. 도승지 윤희서가 남묘에 비해 훨씬 거창하다 이르며 농사철이 다가왔으므로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자 선조는 중지하기 어렵다고 지시하였다.

1601년(조선 선조 34) 6월 19일에는 동묘 공사의 부진함에 대해 '동관왕묘는 중국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건립할 수밖에 없었다. 공사가 기해년(1599) 8월에 시작되어 20개월이나 지났고, 한달에 2백 명의 인원이 일하고



△ 성주 관왕묘
(일제시대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개성 관제묘
(일제시대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 『宣祖實錄』 卷112, 32年 閏4月 乙酉條

6) 『宣祖實錄』 卷112, 32年 閏4月 戊寅條

7) 『宣祖實錄』 卷112, 32年 6月 己亥條 '관묘 사업은 크게 헛된 일이다. 이미 잘못되었으나 일찍이 금지하지 못해 동쪽 교외에 크나 큰 토목 공사를 일으켜 단 한 사람의 백성도 편안치 못하게 되었다.'

있다. 목재와 철물 등 많은 자재가 투입되었으나 아직도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군이 철수한 후에도 백성들이 쉬지 못하여 소동과 원망이 일고 있다. 전후 감독관들은 중국 장수를 핑계하며 일부러 일을 지연시키면서 추하고 외람된 짓을 많이 저질렀다. 관의 일을 맡은 사람이 감히 사사로운 일에만 힘쓰고, 공무는 돌보지 않아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속이니 과실을 따져 문책하기 바란다.⁸⁾ 라며 사헌부에서 책임자들의 처벌을 거론한다.

동묘 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1601년 8월에 준공된 듯하다. 준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사는 보이지 않으나 임무 수행자들에 대한 포상철회를 헌부에서 거론한 것⁹⁾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이미 준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묘는 1601년 건립 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듯하다. 이후 불과 11년이 지난 1612년(조선 광해군 4)에 ‘동·남관왕묘(東·南關王廟)는 이미 창건하였으니, 우리로서는 그 신(神)을 모독할 것까지는 없을 듯하다. 낙서된 벽과 파괴되고 오염된 곳은 모두 수리하고, 물상(物像)이 파괴된 곳 또한 수리하여 엄히 수호하도록 해야 한다. 관왕묘의 제례는 독소(蠲所)의 예에 의하여 매년 봄가을 경칩일(驚蟄日)과 상강일(霜降日)에 관원을 보내 거행한다. 수직관을 달수에 따라 승진시키는 일은 이미 사목(事目)이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거행하도록 한다. 빗물이 새어서 무너진 곳, 낙서로 오염된 곳, 물상이 파괴된 곳은 모두 해사로 하여금 속히 수리하게 한다. 수직 군사는 병조로 하여금 사목에 따라 선정하여 보내고, 이탈 없이 수호할 것이며 잡인의 문란한 출입을 하나하나 본조에 보고하여 치죄하도록 한다.’¹⁰⁾라는 기록과 같이 훼손된 곳이 나타나 수리를 하게 되었다.

1671년(조선 현종 24) 실록에는 관왕묘 소상(塑像)에 물기가 흘러내려 자국이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울의 백성들은 피눈물이 흘러내렸다고 앞을 다투어 전했다고 한다.¹¹⁾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1601년의 창건 이후 유지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은 내부에 안치되어 있는 소상이 우수에 노출되었음으로 보아 이미 지붕에 누수가 발생할 정도로 퇴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수리기록은 1677년(조선 숙종 23)에도 있다. 실록에는 ‘무안왕(武安王)¹²⁾의 충의는 참으로 천고에 드문 것이다. 이제야 한번 들려서 유상(遺像 : 전해지는 조각상)을 본 것은 세상에 드문 훌륭한 인물이라 느끼는 감동에서이며 또한 무사들을 격려하고자 함에서다. 단지 한 순간의 흥미로운 관람의 즐거움을 얻고자 함이 아니다. 여러 장사(將士)들은 이 뜻을 본받아 충의를 더욱 다져 국가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쪽과 남쪽 관왕묘의 파손된 곳은 고치도록하고 관원을 보내 제사를 올리도록 한다.’¹³⁾라는 기록이 있다. 고종은 관왕묘에 대해 특별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1885년(조선 고종 22) 11월에는 친군우영(親軍右營)과 별초신영(別抄新營), 관왕묘 공사를 감독한 우영사(右營使) 이하의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

8) 『宣祖實錄』 卷138, 34年 6月 乙酉條

9) 『宣祖實錄』 卷140, 34年 8月 壬辰條 ‘임진 왜란 이후 상을 내림이 과다하게 남발되었다. 약간의 노고만 있어도 관료의 급료를 갑자기 올려주었다. 뛰어난 인재가 밝혀지지 않았고, 체통이 바로서지 못하고 있다. 관왕묘 조성에 따라 상을 내림을 보건대 너무 과다하여 괴이하게 여기고 있다. 관왕묘는 처음에 중국 장수들의 요청으로 영조를 시작한 일이다. 공사를 맡은 관원이 근신하지 않아 3년 동안 원성이 높았다. 마침내 공론이 일어 책임자들이 파직당하거나 처벌을 받았다. 이후의 관원은 요행히 처벌을 면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인데, 어찌 도리어 상을 줄 수 있는가. 포상의 어명이 내려지자 여론은 울분에 차있다. 그러니 명을 도로 거두기 바란다. 상이란 주어서 안 될 사람에게 주어도 안 되지만, 역시 주어야 할 사람에게 안 주는 것도 잘못이다. 관왕묘를 3년 동안 지은 것이 비록 완만하기는 하였으나 그 노고가 없지 않다. 경리(經理)가 직급 승진을 청해 왔을 때 이미 허락한 상태라 식언할 수 없다. 더 이상 논할 것이 없으므로 철회를 하라할 수 없다.’

10) 『光海君日記』 卷54, 4年 6月 甲子條

11) 『顯宗實錄』 卷24, 12年 10月 乙未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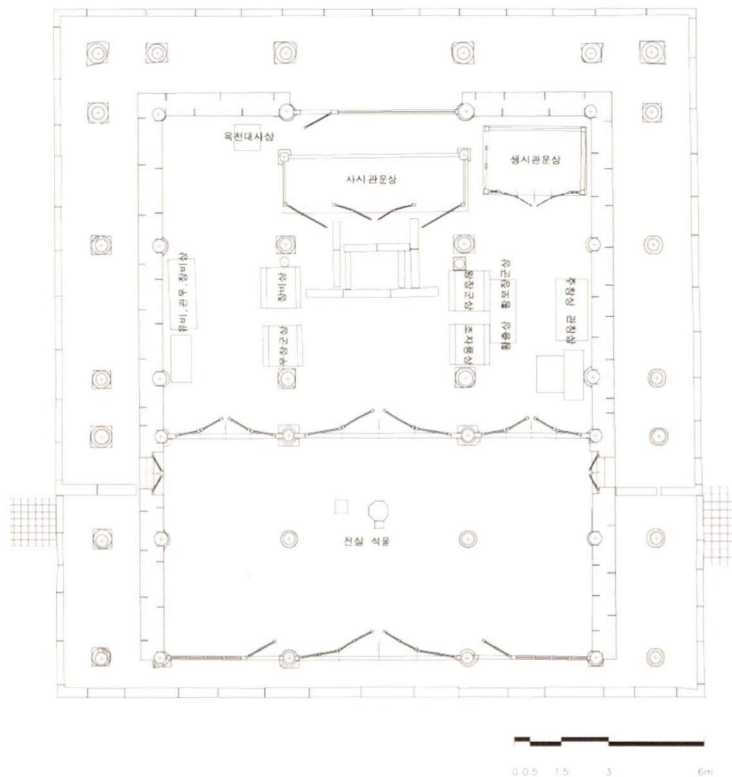
12) 關羽는 武安王, 關帝, 關聖帝, 關雲長, 關王, 漢壽亭侯, 武聖, 關聖帝君, 文衡聖帝 따위로 신격화 되어 불리어지고 있다.

13) 『顯宗實錄』 卷23, 17年 2月 癸未條

어 표창을 하였다.¹⁴⁾ 특히 고종은 1901년에 이르러서 국가 운명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관우의 충의정신을 어느 때보다 더욱 함양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¹⁵⁾ 1905년에는 진전중건도감(眞殿重建都監)과 영정모사도감(影幀模寫都監)의 비용으로 288,696원, 상호도감(上號都監)의 비용으로 15,184원, 관왕묘를 높이는 비용으로 5,277원을 탁지부(度支部)의 제의와 관련하여 책정하였다.¹⁶⁾

이상과 같이 동묘는 임진왜란 직후 중국의 요청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1599년에 착공되어 3년간의 부진한 공사 끝에 1601년에 준공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수리 정비가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실록에 나타나 있는 동묘 건축에 관한 주요 사건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934년에 발행된 『경성부사(京城府史)』에 의하면 서울에는 남묘, 동묘, 북묘, 서묘(송의묘)외에 성제묘, 현성묘 및 2개의 현성전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⁷⁾ 그러나 이미 북묘는 1908년에, 서묘는 1909년에 동묘에 합사되었으며¹⁸⁾, 이러한 이유로 현재 동묘의 정전내부에는 여러 상이 함께 봉안되어 있다. 어칸에는 본래 동묘의 사시관우상(死時關羽像)과 그 앞으로 왼편에는 장비와 우장군이, 오른편에는 왕장군과 조자룡상이 있으며 우협칸에는 북묘와 합사할 때 옮겨온 생시관우상(生時關羽像)과 그 앞으로 왼편에는 황보장군과 황충, 오른편에는 주창과 관평상이 있다. 좌협칸에는



△ 정전 내 제상(諸像) 배치도

14) 『高宗實錄』 卷22, 11年 22月 丙辰條

15) 『高宗實錄』 卷41, 38年 8月 25日 '법전(法殿) : 고종은 1897년부터 경운궁 복구사업을 시작한다. 여기서의 법전 즉 正殿은 경운궁 중화전을 이르고 있다.)을 아직 짓지 못함은 나라의 재정 때문이지만 오래 끌 수 없는 문제다.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을 궁내부에서 임명토록 한다. 더불어서 관왕묘를 세우고 공경스럽게 제사지낸 지 300여 년이 되었다. 그의 순수하고 충성스러우며, 지조 있고 의로운 영혼은 천년토록 사라지지 않고 넘실하게 남아 있다. 바르고 굳센 기백은 천하에 가득 차 말없이 오가며 우리나라를 도와 여러 번 신령스러운 위엄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우러러 경모하는 성의를 최대한 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역대에 걸쳐 지내온 예법이 있으므로 당연하다. 관왕에 대해 황제로 칭호를 높이는 제반 의식절차를 장례원(掌禮院)에서 계획을 세워 날짜를 정하고 거행하도록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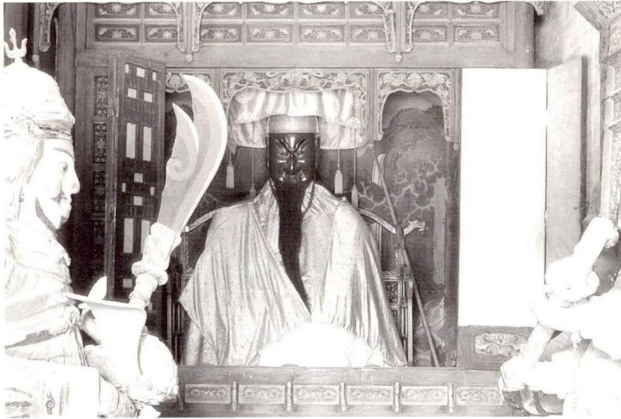
16) 『高宗實錄』 卷42 39年 8月 2日

17) 경성부, 『京城府史』 제1권, 1934, pp.368-373.

18) 경성부, 『京城府史』 제1권, 1934, p.372.

〈표 1〉 東廟建築主要事件年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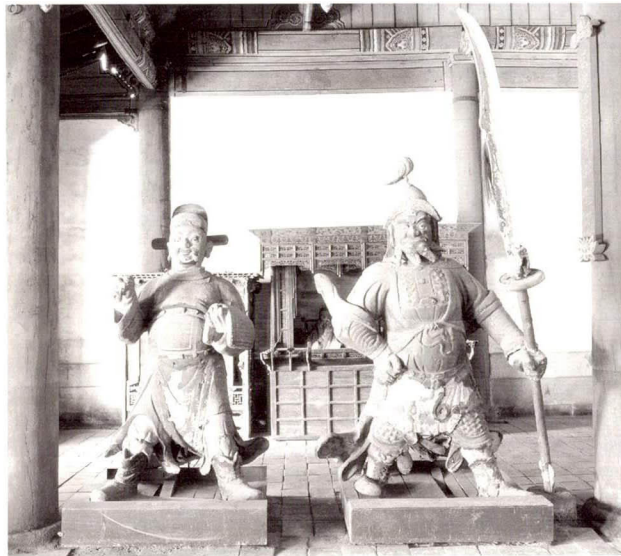
年度	王朝年月	건축 관련사건 기사 요약
1598	宣祖 31년4월	정원이 관왕묘 수축 물력조달에 대해 아뢰.
1599	宣祖 32년4월	관왕묘 설립에 관한 일로 정원에게 하교함.
	宣祖 32년6월	관왕묘 기지를 흥인지문 밖 永渡橋 곁에 정함.
	宣祖 32년7월	이호의가 관왕묘 공사중지와 관련자 파직을 청함.
1600	宣祖 33년1월	관왕묘 공사에 매월 2백 명 투입.
	宣祖 33년10월	관왕묘 수직에 관해 비망기로 이름.
	宣祖 33년10월	호조에서 관왕묘 역사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해 아뢰.
1601	宣祖 34년1월	관왕묘 조성청을 설치함.
	宣祖 34년6월	관왕묘 공사 지연 문책.
	宣祖 34년6월	관왕묘 공사 작년 11월부터 중지, 금년 2월에 시작함.
	宣祖 34년7월	관왕묘 일로 정언 윤안국이 사직을 청함.
	宣祖 34년8월	관왕묘 공사 관련 은상을 거둘 것을 청함.
1612	光海君 4년6월	관왕묘 수리함.
1614	光海君 6년2월	관왕묘의 도형을 부른다.
1618	光海君 10년11월	관왕묘와 양 경략의 비각 점검과 수리를 전교함.
1627	仁祖 5년7월	임금이 관왕묘에서 명나라 사람들에게 식량 등 하사함.
1639	仁祖 17년2월	동묘, 남묘를 보수함.
1671	顯宗 12년10월	관왕묘 소상에 물기가 흘러내린 흔적이 있음.
1691	肅宗 17년2월	무안왕의 사당 보수 비망기를 내리다.
1692	肅宗 18년2월	무안왕 경모시 2수를 지어 내림.
	肅宗 18년9월	어제 목판을 동묘, 남묘에 걸도록 함.
1703	肅宗 29년6월	동묘에 치제하게 함.
1711	肅宗 37년6월	관왕묘에 거동하여 배례를 행하기로 정함.
1725	英祖 1년3월	관왕묘 선무사에 치제함.
1746	英祖 22년8월	관왕묘 배알시 복색과 의주를 묻다.
1759	英祖 35년9월	관왕묘에 역립하다.
1781	正祖 5년5월	관왕묘의 제품과 의식을 이정함.
1785	正祖 9년11월	武安王廟碑를 동묘와 남묘에 세움.
1786	正祖 10년2월	관왕묘의 악장을 사용함.
1832	純祖 32년2월	동묘에 將臣으로 하여 전작례를 행하도록 함.
1871	高宗 8년9월	동·남 관왕묘의 작헌례 거행시 찬례 이하 관리들을 표창함.
1874	高宗 11년8월	동묘를 참배함.
1878	高宗 15년2월	동묘, 남묘 현관수리 등 감독이하 표창함.



△ 생서관우상



△ 사서관우상



△ 우장군 · 장비상



△ 왕장군상 · 조자룡

서묘와의 합사 시 옮겨온 유비 · 관우 · 장비의 상과 옥천대사상이 있다.

여러 기록에 의하면 서울에는 동묘 이외에도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관왕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신(軍神)으로서 제사를 지내던 관왕(關王)은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당초의 숭배목적에서 벗어나 중국민간신앙의 영향으로 재신(財神)으로서의 신앙대상으로 바뀌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에까지 관왕묘가 세워지게 되었다.¹⁹⁾

남묘는 1899년 화재로 소실된 후 재건되었으나 다시금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1957년 다시 재건되었다가 지금은 동작구 사당동으로 이건되었다.²⁰⁾ 현재 서울에 동묘와 남묘 외에 명륜동의 관성묘, 방산동의 성제묘, 예장동의 와룡묘, 장충동의 관성묘 등의 관왕묘가 남아 있다.²¹⁾

동묘는 1936년 5월 23일 보물 제237호로 지정되었으며,²²⁾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42호로 다시 지정되었다.

1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육백년사』 제2권, 서울특별시, 1978, pp.660-661.

2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육백년사 (문화사적편)』, 서울특별시, 1987, p.269, 홍대형, 『한국의 건축문화재 - 서울편』, 기문당, 2001, pp.448-449.

21) 홍대형, 『한국의 건축문화재 - 서울편』, 기문당, 2001, pp.323-327.

2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洞名沿革 Ⅶ』, 동대문구편, 서울특별시, 1982, p.168.

동묘에 대한 근래의 보수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	담장 개축공사
1966년	담장 보수공사
1967년	담장 보수
1971년	정전 보수 (바닥전돌 교체, 벽전돌 일부 교체, 기단석 드잡이 보수, 부식목재 교체, 지붕 해체 번와 보수, 외부 단청)
1973년	남문 보수, 중문 보수
1974년	동무 해체 복원, 서무 해체 복원, 남문 해체 복원, 협문 보수, 일각문 해체
1975년	정전 보수, 중문단청, 관리사무실 신축, 남문 배수로 설치, 매표소 신축
1982년	담장 보수, 안내판 보수
1983년	담장 보수
1996년	정전, 동·서무 기와고르기
1998년	정전(벽체 줄눈, 외부 퇴칸 단청), 남문, 담장 보수
2004년	남문 보수

(김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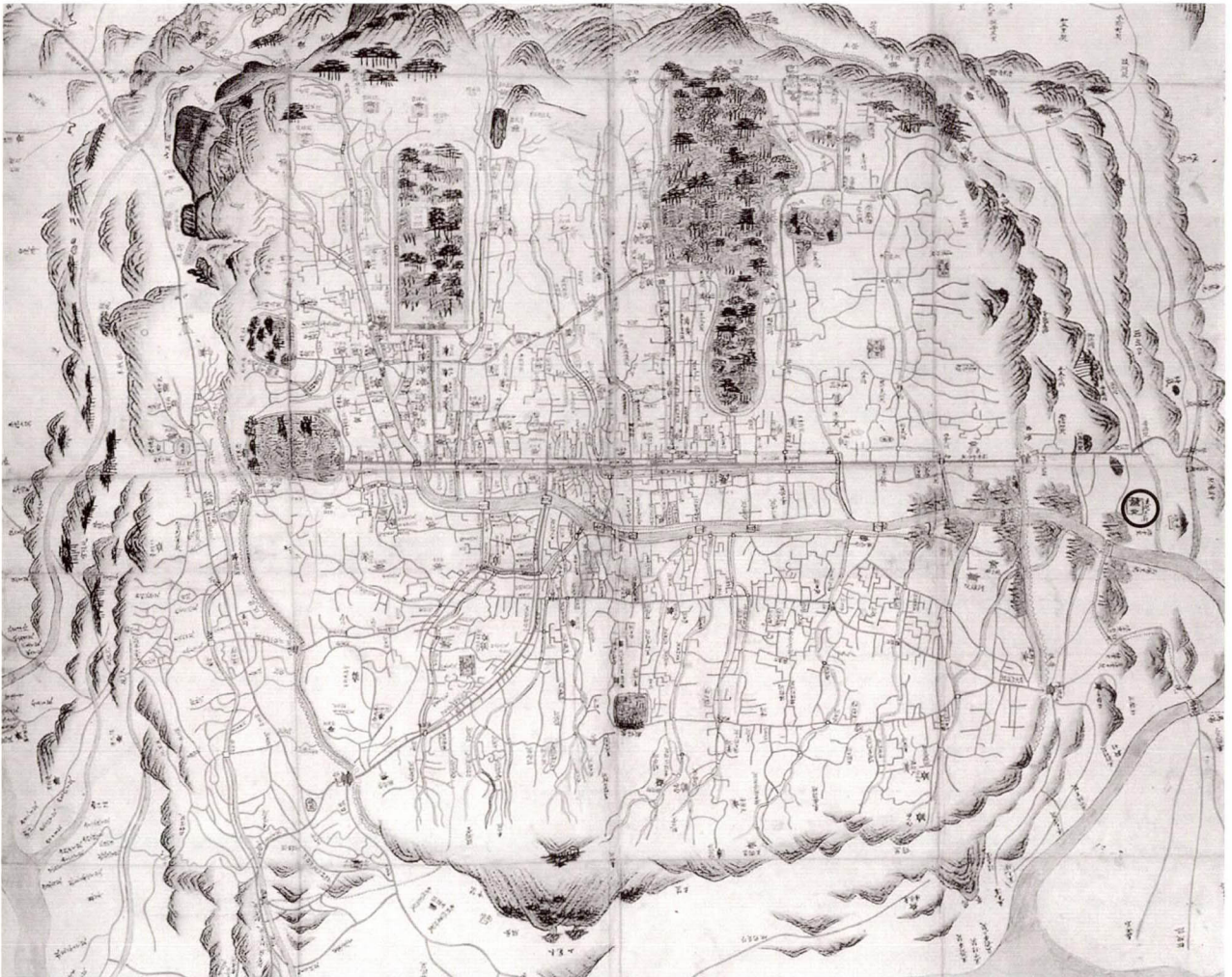
〈표 2〉 參考表. 關羽의 官職과 爵·號

生前	時代	王朝	年代	官職爵位
	後漢	獻帝	미확인	別部司馬
			建安3年(A.D.198)	中郎將
	蜀漢	劉備	建安4年(A.D.199)	下邳太守
	後漢	獻帝	建安5年(A.D.200)	偏將軍
			建安5年(A.D.200)	漢壽亭侯
	蜀漢	劉備	建安13年(A.D.208)	襄陽太守 蕩寇將軍
			建安19年(A.D.214)	董督荊州事
			建安24年(A.D.219)	前將軍(節鉞을 받음.)
死後		劉禪	景耀3年(A.D.260)	壯繆侯
	唐	德宗	貞元18年(802)	義勇武安王
	北宋	眞宗	大中祥符7年(A.D.1014)	賜額“義勇”武安王
		哲宗	紹聖3年(A.D.1096)	顯烈王
		徽宗	崇寧元年(A.D.1102)	忠惠公
			崇寧3年(A.D.1104)	崇寧至道眞君
			大觀2年(A.D.1108)	武安王
			宣和5年(A.D.1123)	義勇武安王
	南宋	高宗	建炎2年(A.D.1128)	將繆義勇武安王
		孝宗	淳熙14年(A.D.1128)	將繆義勇繆安英濟王
	元	文宗	天曆元年(A.D.1328)	顯靈義勇繆安英濟王
	明	武宗	正德4年(A.D.1509)	忠武
		神宗	萬曆10年(A.D.1582)	協天大帝
			萬曆23年(A.D.1605)	義烈
			萬曆42年(A.D.1614)	三界大魔大帝神威遠鎮天尊關聖帝君
	清	世祖	順治元年(A.D.1644)	忠義神武關聖大帝
		高宗	乾隆33年(A.D.1768)	靈佑神勇
			乾隆41年(A.D.1776)	忠義神勇
		仁宗	嘉慶18年(A.D.1813)	忠義仁勇
		宣宗	道光年間(A.D.1821~1850)	忠義仁勇威顯
		文宗	咸豐3年(A.D.1853)	忠義仁勇威顯護國
			咸豐4年(A.D.1854)	忠義仁勇威顯護國保民
			咸豐5年(A.D.1855)	忠義仁勇威顯護國保民精誠綏靖
		繆宗	同治9年(A.D.1870)	忠義仁勇威顯護國保民精誠綏靖翊贊
		德宗	光緒5年(A.D.1879)	忠義仁勇威顯護國保民精誠綏靖翊贊宣德忠義神武關聖大帝

2. 입지(立地) 및 배치(配置)

동묘는 중국 축나라의 유명한 장수인 관우(關于)를 모시고 제사하는 사당으로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38-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숭인동(崇仁洞)은 조선시대 숭신방(崇信坊)의 숭(崇)자와 인창방(仁昌坊)의 인(仁)자를 따서 부르게 되었다. 숭인동은 1914년 3월 13일 경기도령 제3호로 도내 각면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할 때 처음 만들어졌다. 1911년 경성부가 5부(部) 8면(面) 제도를 실시할 때 5부에 속하지 않던 도성 외의 지역으로 숭신방의 영미동(眉洞), 미전동(米塵洞), 신리(新里), 남교동(藍橋洞)의 일부와 인창방의 신설계(新設契), 남교(藍橋), 장거리(場巨里), 동묘동(東廟洞)을 병합하였다.

1943년 6월 경성부령(京城府令) 제163호에 의한 출장소제도가 폐지되고 새로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따라 동부출장소가 동대문구와 성동구로 나누어 질 때 숭인동은 동대문구에 속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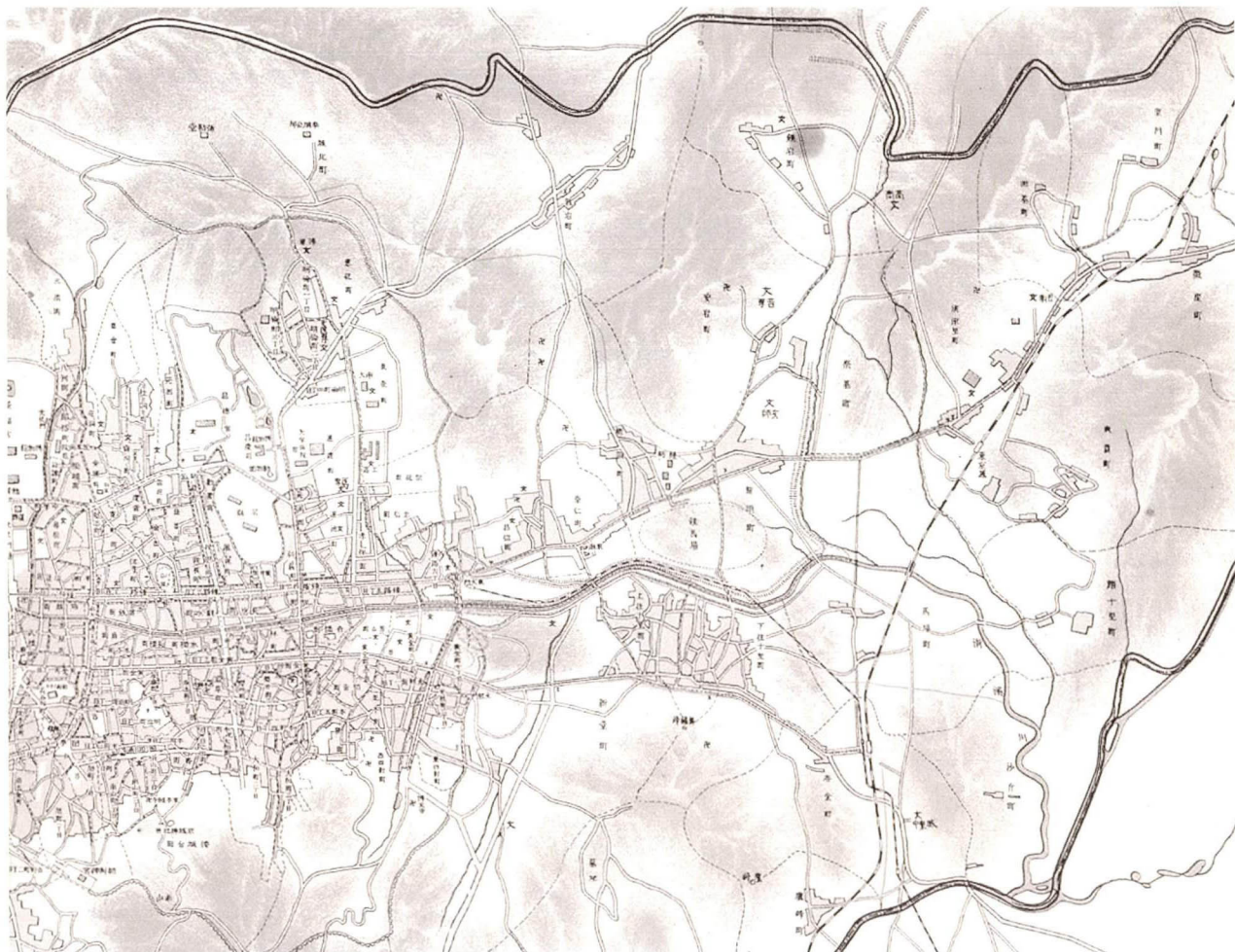
△ 동묘위치(한양도성도(1770년대, 호암미술관 소장) 사용)

1970년 5월 18일 서울시 조례 제614호에 의하여 동장정원(洞長定員) 및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을 때 송인1, 2동으로 나누어졌으며, 다시 1975년 10월 1일에 대통령령 제7816호로 구관할구역의 변경이 있을 때 동대문구의 창신동, 송인동 전지역과 신설동의 일부지역이 종로구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묘가 위치하고 있는 송인2동은 왕산로(旺山路)와 청계로(淸溪路), 난계로(蘭溪路) 등 3개의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송인1동과 창신동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청계로를 경계로 하여 중구 홍인동 및 성동구 하왕십리동과 마주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난계로를 중심으로 동대문구와 분구의 경계가 되고 있다. 북쪽으로는 낙산의 능선을 따라서 성북구와 접해 있다. 동묘가 있는 마을을 동묘가 있다고 하여 동뫼골 또는 동묘동이라 하였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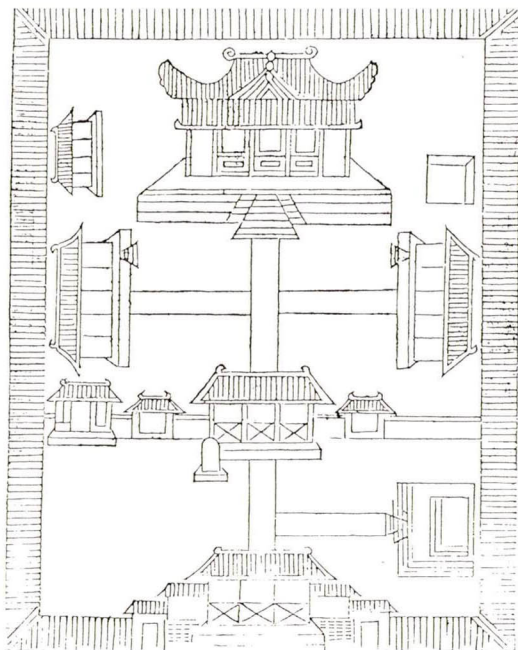
동묘가 이곳에 입지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선조실록』를 살펴보면, 4월 29일 무인조(戊寅條)에는 ‘…관왕묘의 건립에 관한 일을 전일 주선하도록 하여 홍인문 밖의 조산 근처에 설립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남대문 밖에 설립하겠다고 하니 전일의 하교대로 도모할 수 없어서인가? 어찌하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洞名沿革攷 VII』 동대문구편, 서울특별시, 1982, pp.163-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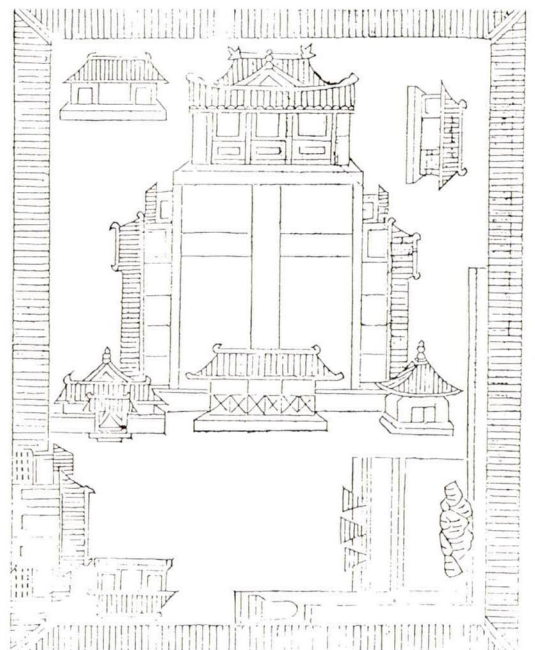


△ 동묘 부근 지도(최신대 경성지도(1939) 부분)

여 분명하게 못하는가? 남대문 밖에는 이미 관왕묘가 있으니, 또 세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 모름지기 동대문밖에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이다 ... 혹시라도 동대문 밖이 불가할 경우에는 혼련원 근처가 좋겠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이전부터 동묘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동대문 밖으로 입지를 정하였으나 여러 이견이 있어 입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동년 윤4월 7일 을유조(乙酉條)에는 ‘...상이 이르기를, “관왕묘를 무엇 때문에 다시 세우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한 문 밖에 두 개의 묘(廟)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사체에 어떠한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는 묘당 건립을 일삼기 때문에 각사(各司)마다 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옥문관(玉門館)에 또 새로 짓는다고 하니, 이로 보면 한 곳에만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변동시키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중지시킬 수 없겠는가? 일단 설립한 뒤에는 다시 고치지 못할 것이니, 지금 잘 헤아려 해야 한다. 전에 유황상이 우리나라는 도성 동편이 허한 듯 하니 건물을 세우고 못을 깊이 파 지맥을 진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말한 것과 서로 부합하니 만약 부득이 설립해야 한다면 동문 밖에 세워야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 동쪽에 관왕묘를 설치하는 이유를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동묘의 부지만이 아니라 동묘를 세우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99년(조선 선조32) 6월 22일에는 ‘...관왕묘를 동대문 밖 영도교 곁에 정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 결국 동대문 밖에 부지를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년여에 걸친 공사를 통하여 동묘를 준공하게 되었다.



△ 동묘도



△ 남묘도

동묘의 배치와 관련하여 1876년(조선 고종 13)에 발간되었다고 하는 『해동성적지(海東聖蹟誌)』에 「남묘도(南廟圖)」와 함께 「동묘도(東廟圖)」가 실려 있다. 동묘는 현재 장방형 대지 위에 좌우 대칭으로 질서있고 위계적으로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엄격한 직선축 위에 남문과 중문, 정전이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남문과 중문 사이에는 좌측에 관리사와 창고가 위치하고 있고, 우측에는 토단 위에 화장실이 자리잡고 있다. 중문과 정전 사이에는 동무, 서무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좀더 밀집된 중심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정전의 측면과 후면에는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만든 벤치와 식수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면의 주변으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정전과 중문 동무와 서무는 판석 보도가 깔려 있으며 중문과 남문 관리사무소 사이에도 판석이 깔려있다. 「동묘도」를 보면 현재에는 남아 있지 않은 건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중문의 좌·우로는 담장이 펼쳐지며 협문이 좌·우에 각각 하나씩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1976년에 공원화되면서 담이 철거되어 현재 중문의 측벽에 담장의 흔적만이 남아 있다.²⁾

이 담장의 서쪽으로 정면 3칸 건물이 보이지만 지금은 없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리원판의 사진 가운데 1927년 촬영된 동묘전경 사진에는 낮은 맞배지붕 건물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작성된 동묘 배치도를 보면 중문 서편으로 건물이 있으리라 추정되는 곳에 건물 표현은 없으며 단지 점선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함께 앞에서 언급한 1927년의 사진에 의하면 정문의 협문 옆으로 담장과 이어져 행각이 보이지만 「동묘도」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일제시대에 작성된 동묘 배치도에 역시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현재 이 위치에는 매표소가 있다.

그 외 정전 서편으로도 정면 4칸 규모의 건물이 있으나 역시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³⁾ 정전 동편에는 사각형의 한단 낮은 시설이 있다. 현재 이 위치에는 망료위가 있으나 그 규모는 「동묘도」에서 보다는 현저히 작으며,

2) 허 승, 「동묘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p.34.

3) 중앙박물관 소장 일제시대에 작성된 동묘의 배치도에도 건물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20세기 초에 동묘에 대한 정비가 있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동묘 중문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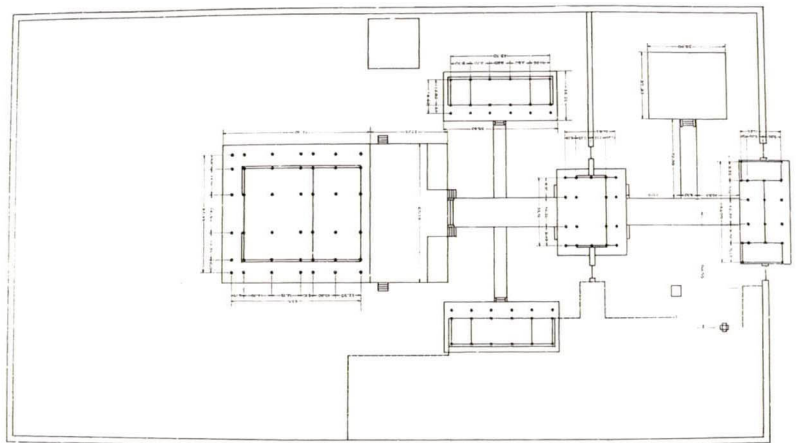


△ 동묘전경사진(국립중앙박물관 소장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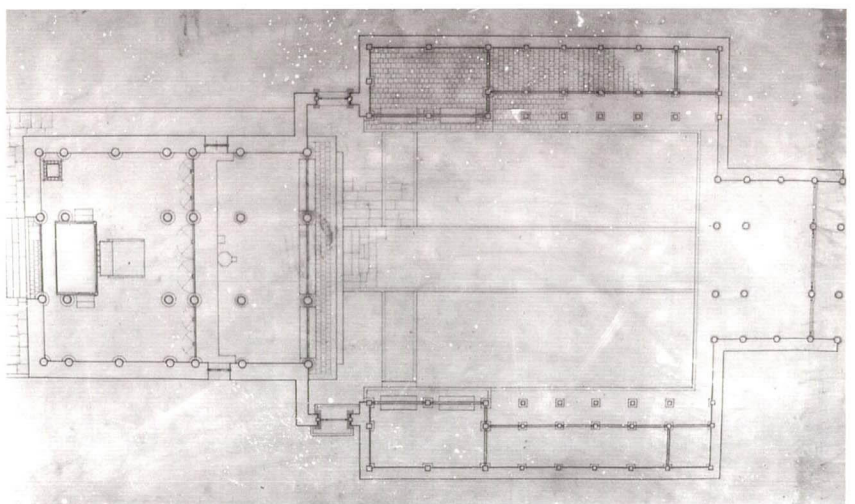
형태 또한 다르다. 현재 정전 주변으로는 배드민턴 코트가 그려져 있어 시민들의 새벽운동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동묘도」의 중문 앞으로는 비석이 하나 있었지만, 현재 이 위치에는 금잡인비(禁雜人碑)가 세워져 있다. 또한 그 옆으로는 하마비가 세워져 있으나 이것은 원래 동묘 밖 지금의 동대문 적십자사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⁴⁾

남문과 중문에 의해 한정되는 진입공간의 동편에는 「동묘도」에 의하면 2단의 대가 있다. 지금의 화장실이 있는 곳이다. 기단의 두 모서리에는 석수(石獸)가 놓여 있으며 중앙 계단의 소맷돌 끝에도 역시 석수가 놓여 있으나 한개 만이 있어 정전 기단의 석수와 비교하여 볼 때 원래는 두개의 석수가 놓여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동묘의 배치는 서울에 있었던 또 하나의 관왕묘인 남묘의 배치와 비교하여 볼 수 있다. 「남묘도」를 살펴보면 동묘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문과 정전이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고 이 축에 대하여 주요 건물들이 좌우로 대칭하여 배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묘의 경우 남문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치우쳐 세워져 있어 전체적인 대칭성을 해치고 있다.



△ 일제시대 동묘배치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자료)



△ 일제시대 남묘배치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자료)

4) 허 승, 「동묘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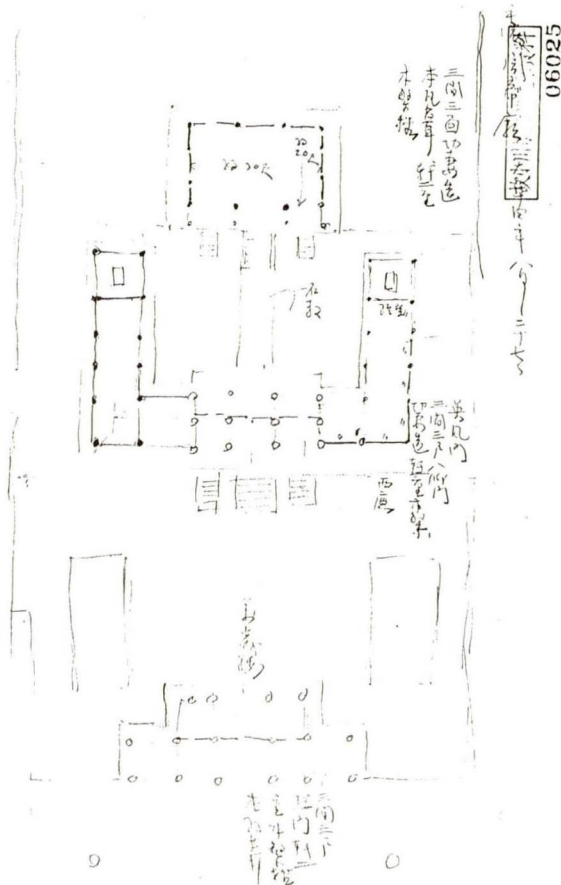
5) 경성부, 『京城府史』제1권, 1934, p.370.

이러한 남묘의 배치는 1898년(조선 광무3)에 화재로 소실된 후 1902년(조선 광무6)에 재건되어 바뀌게 되었다. 일제시대에 작성된 남묘의 배치도에 의하면 남문 없이 중문과 정전이 주축을 이루고 이 축에 대하여 동무와 서무가 대칭으로 서로 마주보며 배치되었으며 각 건물들은 벽과 담장으로 이어져 있었다.

관왕묘의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료로는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에 의해 1929년에 조사된 평양 관제묘에 대한 야장이 있다. 이 야장에 의하면 역시 남문-중문-정전이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며 이 축에 좌우대칭 되어 동무와 서무가 정전의 앞으로 마주보며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중문 앞으로도 두개의 건물이 이 중심축에 대하여 좌우대칭 되어 마주보며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영역은 남문과 중문,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2동(棟)의 건물로 이루어진 진입영역과 중문과 정전, 동·서무로 이루어진 제향영역이 전·후로 놓이며 좌우대칭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렇듯 동묘를 비롯한 관왕묘는 일반적인 사묘건축(祠廟建築)에서와 마찬가지로 평지에 입지하여 남북으로 강한 축을 형성하였고 좌우대칭의 성격을 가지며 배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배병선)



△ 평양관제묘 조사 야장

3. 건축양식(建築樣式)

1. 정전(正殿)

동묘의 정전은 중국 촉한시대의 유명한 장군인 관우에게 제사지내기 위하여 세운 사당으로 원래 명칭은 동관왕묘(東關王廟)이다. 전체적으로는 정면 5칸, 측면 6칸으로 측면의 길이가 정면보다 길어 일반적인 우리나라 건물의 평면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실제로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 건물인 본실과 정면 5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인 전실 그리고 연결 통로 1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을 제외한 3면은 개방된 퇴칸(헌량)으로 되어있다. 이 건축형식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이며 1963년에 보물 제142호로 지정되었다.

동묘 정전의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본실 건물과 정면 5칸, 측면 1칸의 전실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건축에서는 흔하지 않으나 북방지역의 수신묘, 해주 관제묘, 곡부 공묘 등의 고대 사묘들에서 보인다.

이에 비하면 전주 경기전의 모습은 왕릉의 정자각과 같은 형식으로 주목된다. 이는 전주 관제묘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 동묘 정전 전면

지붕의 형태는 매우 독특하다. 박공면이 전면에 설치되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에서 흔하지 않는 방식이다. 또한 원래에는 청기와로 지붕을 덮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 이러한 형태의 지붕은 일반적으로 지붕면이 정면에 오는 것과는 다르나 조선의 왕릉의 정자각(丁字閣)에서 유사한 형식을 찾아볼 수 있다. 정자각의 경우 보통은 정면을 향하는 지붕의 형태가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어 동묘 정전의 형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동구릉(東九陵) 안에 있는 현종과 명성왕후의 능인 숭릉(崇陵)의 정자각은 팔작지붕이 ‘丁’자 형으로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어 외관상으로 동묘의 정전과 유사하다. 이처럼 ‘丁’자형의 지붕형태를 보이는 왕릉의 정자각과 동묘정전은 제향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상의 유사성을 갖고 있으므로 ‘丁’형 지붕형태는 사묘건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건물의 벽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묘의 정전은 정면을 제외한 3면을 창방 하부까지 전돌로 쌓은 벽으로 구성해 내부를 어둡게 함으로써 내부에 보안된 관우상에 대한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기둥과 기둥사이에 흙으로 벽을 만드는 일반적인 건축물들과는 다르나 종묘의 정전과 향교의 대성전 등 사묘 건축물에서는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이 외에도 건물 앞으로 의식을 행할 수 있는 넓은 기단과 본실의 전면으로 예비공간인 전실을 두는 것 역시 사묘건축에서 흔히 보이는 특징이다.

또한, 동묘 정전을 여타 관왕묘와 비교하여 보면, 벽면 3면을 전돌로 쌓아올려 폐쇄적으로 꾸미는 방법이 동묘 뿐만 아니라 남묘와 평양 관제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평면형식 역시 남묘와 유사한데 남묘는 관우의 상을 모시는 본실을 정면 3칸, 측면 4칸으로 구성하고 그 앞으로 전실을 두고 있다. 다만 동묘와 남묘와의 차이점은 동묘가 본실 주변으로 회랑을 두르고 전실의 측면 규모를 2칸으로 한 정도이다. 이는 동묘가 국가의 주도하에 세운 건물이었기 때문에 남묘보다는 격식을 갖추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건물의 입면은 전실의 전면지붕 합각면 끝까지의 전체높이가 10.443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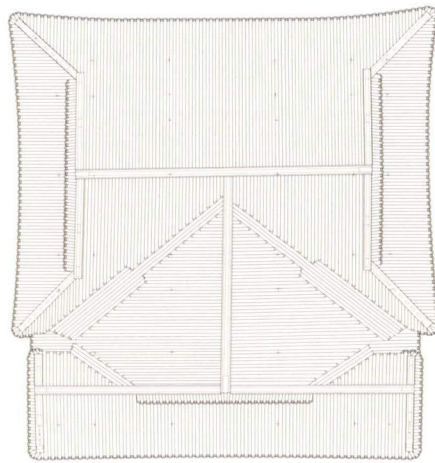


△ 숭릉 정자각 전경

- 1) 『광해군일기』 卷33, 10年 11月 乙丑
영은문과 관왕묘는 모두 청기와로 지붕을 덮었지만 벗겨져 적색으로 변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 새로 지은 궁궐(인경궁)의 취두, 용두, 잡상은 모두 벗겨져 적색으로 변했으니...
- 2) 장기인은 처마끝에서 용마루까지의 지붕면의 높기와 벽면의 높이는 입면도에서 거의 같은 높이로 나타나는 것이 어울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V 『목조』, 보성각, 2003. p. 70.)



△ 정전 정측면(남동)



△ 동묘 정전 지붕 평면



△ 정전 어칸 기둥(전면)

로, 처마끝에서 합각면 끝까지의 지붕부 높이와 기단면에서 처마끝까지의 벽부 높이비는 1.17:1이다. 본실은 용마루까지의 전체높이가 10,759mm이며 처마끝에서 용마루까지의 지붕부 높이와 기단면에서 처마끝까지의 벽부 높이비는 1.02:1로 지붕부의 높이와 벽부의 높이가 거의 같다.

평면의 비례를 살펴보면 정면길이는 17,551mm로 영조척으로 환산하면 56척이 되며, 측면길이는 19,292mm로 마찬가지로 62척이 되어 환산하면, 측면의 길이가 정면의 길이보다 길고 그 비는 1:1.1 정도가 된다. 그러나 전실을 제외한 본실만으로 그 비례를 살펴보면 정면길이는 56척, 측면길이는 40척이며 그 비는 1.4:1로 $\sqrt{2}$ 비율에 거의 가깝게 된다.

주칸은 전·후면의 어칸이 18척, 협칸은 13척, 퇴칸 6척이며, 측면의 중앙 2칸은 각각 13.5척, 퇴칸은 6척이다. 주칸 길이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규모, 기능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주칸 길이의 설정은 대개 2가지 경우가 있다. 첫번째는 매칸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매 칸의 길이를 달리 설정하는 방식이다. 그 중에서 건물평면의 중심에 해당되는 어칸의 주칸 길이를 다른 주칸보다 넓게 설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어칸의 주칸을 다른 칸보다 넓게 설정하는 것은 중앙부분을 강조³⁾하여 두드러지게 하고자 한 의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조선후기의 건물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어칸을 기준으로 1칸에 대한 가로:세로의 평면비를 확인해보면 전실은 1.48:1, 본실은 1.33:1의 비례를 갖는다. 이 외에도 대부분 칸의 평면형태는 정방형이 아니지만 본실의 각 모서리 칸은 정방형의 비례를 갖는다. 이 위에는 추녀가 45°방향으로 걸려 있으며 그 뒷뿌리는 대들보와 하중도리에 철물로 고정되어 있다.

건물 내부는 후면 고주 앞으로 네모기둥을 별도로 세우고, 석조좌대 위에 감실을 설치하여 관우상을 모시고 있다. 바닥은 사각형의 전돌을 가지런히 깔아 마감하였다.

기둥은 모두 44본이 사용되었는데 평주가 30본, 내진고주가 12본으로 본실의 경우는 '回' 형으로 내·외진 구조를 이루며, '=' 형의 전실이 본실의 전면으로 붙어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런 평면적 특성으로 기단은 전면의 월대, 전실기단, 본실기단으로 이어지는 3단으로 구성되었다. 월대는 전면 양모서리에 사각형의 화단을 설치하여 전체적으로 '丁' 자형의 모양이 되었다. 월대 및 기단의 바닥면은 사각형의 전돌로 마감하였다. 기단의 전면으로는 계단과 그 앞으로 창도가 이어지는데 계단에는 구름이 새겨진 소맷돌을 설치하고 1단의 장대석을 놓아 계단을 구성하였다. 소맷돌의 좌·우 바깥쪽으로도 역시 장대석을 1개씩 놓아 계단을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3열의 계단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계단과 이어지는 월대 위에는 양 끝에 석재 이수를 놓았다. 화단을 나누는 장대석 끝도 이중의 곡선으로 처리하여 마감하였다.

초석은 모두 원형의 주좌를 가지고 있는 다듬은 초석이나 초석면은 원

3) 중앙칸을 강조하는 수법은 중국에서는 청대 이후 한층 강조되었다.

李允鉾, 이상해 외 역, 『중국고전건축의 원리』, 시공사, 2000. p. 171.

형과 사각형의 것이 사용되었다. 초석은 평평하게 놓인 듯하나 일부 초석의 높이가 다른 것이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한 높이 차이는 기둥의 길이를 짧게하여 맞추고 있다.

기둥은 관우상이 봉안된 좌대 후면 모서리에 세워진 2개의 사각기둥을 제외하면 모두 원형의 기둥을 비교적 잘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기둥의 길이는 직경에 비하여 평주의 경우 1: 12의 값을 가지며 이는 기둥 직경에 대한 기둥의 길이비가 1:8~1:10정도의 건물에 많은 것에 비하여⁴⁾ 비교적 가늘고 긴 편이다. 기둥의 높이는 초석을 포함하여 어칸에서 4,406mm로 약 14척 정도이며 정면어칸의 18척, 협칸의 13척과 비교하면 주고와 주칸의 비는 어칸에서 1:1.28, 협칸에서 1:0.93이 되어 비교적 주칸에 비해 기둥이 낮은 편이다.⁵⁾ 전실 전면 동측의 2개의 기둥 중간에는 차일을 걸 때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원형의 쇠고리가 박혀있다.

기둥 상부에는 창방을 끼우고 주두를 올려 놓았는데 굽받침이 없는 주두를 사용하였다. 창방 위에는 역시 굽받침이 없는 소로를 올려놓고 주심도리를 받치고 있는 장혀를 받고 있는데, 창방과 장혀 사이에는 공간이 떠 있으며 전면과 후면은 비워 두었으나 측면은 벽을 채웠다.

동묘 정전의 가구는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그 평면적 특성 상 전실과 본실을 분리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다.

4)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발언, 1998, p.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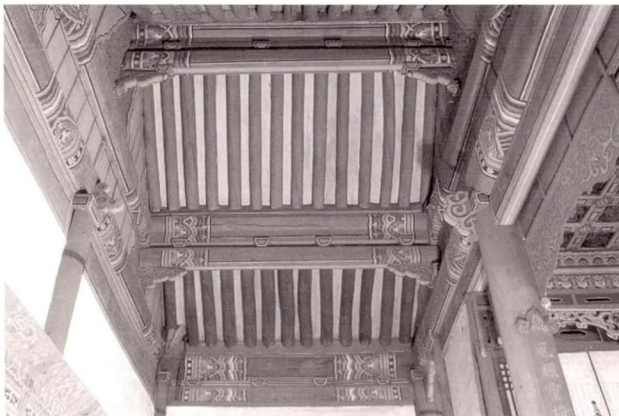
5) 박언곤은 주칸에 비하여 주고가 낮은 것을 주심포 형식 건축물의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박언곤, 『한국건축사강론』, 운문당, 1998, p.160.)



△ 정전 전실 내부 가구



△ 정전 전실 내부 종보



△ 정전 전실 내부 가구



△ 정전 전실 내부 종보

전실은 평4량 구조로 평주 사이에 대들보를 걸치고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설치하고 주두를 얹은 후 중보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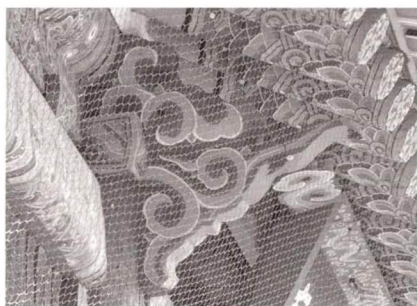
동자주에는 초각 장식된 보아지를 끼워 놓았으며 보 사이에는 뜬창방이 건너질러 있다. 종도리 위에는 수평으로 서까래를 얹어 마무리하였으며 전실과 본실 사이의 칸에도 각재를 수평으로 놓아 연결하였다. 본실은 7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후 칸은 퇴보로 연결되었고 고주 사이에는 덧보가 결구되었고 그 위에 장여와 대들보가 맞보로 결구되었다. 맞보 위에는 포대공이 짜이고 포대공 사이에는 뜬창방이 건너질러 연결되었는데 그 위에 중보가 올려졌다. 중보 위에는 큼직한 파련대공을 올리고 그 위에 행공첨차를 끼워 창방으로 건너질러 연결하였다. 이 건물에서 많이 사용된 이중첨차(뜬창방)는 관영건축에서는 흔히 보여지는 형식이다.

전실과 본실 사이에는 평주 사이에 보를 얹어 전실의 대들보와 본실의 덧보와 맞보형태로 서로 연결하고 있으며, 본실 전면과 전실의 후면 주심도리 사이에는 평서까래를 걸었다.

전실의 가구 구조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전실이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층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진평주에서 내진고주 사이에는 층량없이 덧보가 끼워져 있고 서까래는 내진고주 위의 대들보 위에 걸리고 있다. 이것은 중문에서 층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동묘 정전은 기둥의 머리에 익공을 끼운 익공형식의 건물로⁶⁾ 익공의 초각형태는 크게 그 끝을 길게 내민 것과 짧게 사절된 것의 2가지가 사용되었다. 외부로 향하는 대부분의 익공은 기둥 중심에서 2척 정도 길게 내밀어진 수서형의 익공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실 후면, 본실의 전면 내부와 전·후면 고주에는 짧게 사절된 것이 사용되었다. 또한 익공 외에도 외부로 드러나는 위치에 있는 보아지, 창방머리, 보머리 등에 초각으로 장식하여 건물의 권위를 높여 주고 있다. 익공형식의 건물에는 추녀가 있는 경우에 45°방향으로 귀한대의 익공이 끼워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 건물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종묘처럼 익공이 출목되거나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건물은 출목하지 않은 초익공으로 구성되었다.

보의 단면비례를 살펴보면 전실의 대들보는 300mm×382mm로 3:4의 비를 가지며, 중보는 213mm×283mm로 3:4의 비를 갖는다. 본실의 대들보는 364mm×450mm로 4:5, 중보는 311mm×362mm로 6:7, 덧보는 214mm×



△ 전면 익공



△ 전면 창방 뿔목

6) 익공형식은 일반적으로 주심포나 다포에 비하면 격식이 낮은 건물에 사용되나 종묘 등 대부분의 사묘건축에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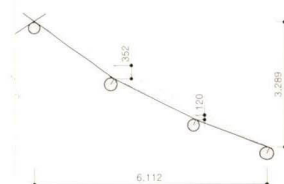
278mm로 그 비는 3:4이다. 이것은 이 건물에서 보의 단면비는 3:4의 값을 갖는다는 이론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실과 본실 사이에는 창방 상면에 맞추어 우물천장을 설치하였다. 반자에는 황색과 흰색의 두 마리 학을 그려 넣었으며 반자틀에도 단청을 하여 화려하게 꾸몄다. 본실에는 어칸에만 우물천장을 설치하였는데 전면 어칸의 반자에는 황색으로 두 마리의 봉황을 그려 넣고 반자틀에도 역시 단청을 하여 화려하게 꾸몄고, 후면 어칸의 반자에는 5개의 연꽃을 그려 넣었다. 또한 본실 내부의 석조좌대 상부에는 정면에 문을 달고, 나머지 3면에는 벽을 설치하여 실을 꾸미고 그 내부에 관우상을 모시고 있는데, 관우상의 머리 위 천장에는 팔각의 틀을 짜고 두 마리의 황색 봉황을 새겨 넣었으며 좌대 앞 기둥 상부에는 낙양을 달아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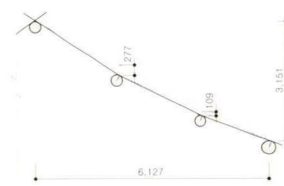
지붕의 서까래를 보면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물에는 단연과 장연의 두 개의 서까래가 걸리는 것과는 달리 이 건물은 도리마다 서까래가 걸리고 있다. 이러한 예는 범어사 대웅전, 정수사 법당 등에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건물의 형식을 구분할 때 도리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도리 사이에 걸리는 서까래의 수로 이야기하므로⁷⁾ 도리마다 서까래가 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조법식에 의하면 서까래의 기울기를 정함에 있어 법칙이 있는데 이를 정전의 본실에 적용시켜 보면 주심도리 상부에서 종도리 상부까지의 수직거리는 3.151mm이며 전·후 주심도리 중심거리는 12.239mm로 수직거리는 주심도리의 중심거리에 대하여 1/3.89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영조법식」의 방식에 따른 값인 1/4과 매우 근접함을 알 수 있다.⁸⁾

또한 종도리와 주심도리 상부면을 이어주는 가상선과 상중도리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이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상중도리 상부면까지의 거리는 지붕 전면과 후면이 각각 352mm, 277mm 정도이다. 이는 『영조법식』에서 제시하는 1/10의 값인 315mm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중도리와 주심도리의 상부면을 이어주는 가상선과 하중도리 중심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이 만나는 점으로부터 하중도리 상부면까지의 거리는 지붕전면과 후면이 각각 120mm, 109mm 정도이다. 이는 『영조법식』에서 제시하는 1/20의 값인 157mm와는 30%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영조법식』에서는 도리 간격이 일정하지만 동료 정전의 본실에서는 하중도리와 주심도리의 간격이 그 밖의 도리 사이의 간격보다 짧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처마의 내민 길이는 전실 정면에서 1.401mm로 측정되며, 부연 내민 길이와 서까래의 내민 길이비는 616mm:785mm 즉, 1:1.28의 값을 가지며 기둥하부 중심에서 부연 끝까지 이루는 처마의 내민 각도는 17°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목조건축물이 갖는 30°내외의 값⁹⁾ 보다는 현저하게 작은 각도이다. 이외 본실의 좌측면은 1.768mm로 부연의 내민 길이와 서까래의 내민 길이비는 563mm:1.205mm 즉, 1:2.14이며 처마의 내민 각도는



본전 종단면(남측)



본전 종단면(북측)

△ 서까래 기울기

7) 김도경·주남철, 『송 영조법식 대목작제도 주해(7)』, 『건축사9506』, 건축사협회, 1995, p. 96.

8) 『영조법식』에는 “절옥(折屋)의 제도는 거고 1마다 1치를 꺾고, 가(架)마다 위에서부터 반씩 체감하는 것이 표준이다. 거고가 2저라면 먼저 척단 위에서 아래로 요첨방까지 평행선을 긋고, 그 위의 첫 번째 봉에서 2자를 꺾는다. 또 위에서부터 첫 번째 봉의 단 위에서 요첨방까지 평행선을 그으면서 두 번째 봉에서 1자를 꺾는다. 숫자가 많으면 봉마다 아래로 요첨방까지 평행선을 내리고, 봉마다 상본의 반을 줄인다.”고 적고 있다.

李允鉉, 이상해 외 역, 『중국고전건축의 원리』, 시공사, 2000, p. 260.

9)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V 『목조』, 보성각, 2003, p. 292.

22°이다. 우측면은 1,703mm로 부연과 서까래의 내민 길이비는 551mm:1152mm로 1:2.09가 되며 처마의 내민각도는 21°이다. 후면은 1,749mm로 부연과 서까래의 내민 길이비는 562mm:1187mm로 1:2.11의 비례가 되며 처마의 내민 각도는 역시 21°이다. 이러한 작은 처마내밀기는 건물의 기둥 등 그 부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데 이는 현재 그 결과 건물 우측편의 기둥하부가 들이치는 빗물에 의해 일부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동무·서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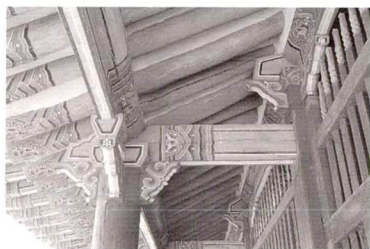
동무와 서무는 모두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집으로 우리나라 건축의 동서무와 형식은 같으며 건립 당시에는 장랑이라 한 듯하다. 공포의 형식은 익공인데 대부분의 보편적 형식과 달리 초익공에서 창방을 두지 않고 첨차처럼 처리한 것으로 사묘건축에서 간혹 보이는 방식이다.

풍기의 소수서원 문성공묘에서는 이와 거의 비슷한 형식의 공포를 볼 수 있고 일신재와 직방재는 첨차 형태가 간략화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구조이다. 또한 대구향교의 내삼문, 안의향교의 동재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식의 공포를 볼 수 있다.

기단은 1단으로 장대석을 두르고 바닥면에는 사각형의 전돌을 깔아 마감하였으나 건물의 내부에는 전돌을 깔지 않았다. 건물의 여간 앞으로는 4분 타원 모양으로 큰 돌을 세우고 하단에 작은 북 모양의 돌을 붙여 놓은 소맷돌을 두어 계단을 구성하고 그 앞으로 돌을 깎 창도를 두어 중문에서 정전에 이르는 창도와 수직으로 만나게 하였다.

초석은 모두 사각형의 것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모두 18본이 세워졌는데 전면의 6본은 직경 250mm 정도의 원형 기둥이며 그 외의 기둥은 260×260mm 크기의 사각기둥이다. 기둥머리에는 창방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초각한 첨차모양의 부재를 이용하여 주심도리



△ 퇴칸 가구(서무)



△ 동무 전경



△ 서무 전면

하부의 장혀를 받치고 있다.

익공은 수서형으로 초각하였으나 그 내민 길이가 길지 않고 그 끝을 사절하여 마무리 하였다.

가구는 1고주 5랑 가구이며 전면으로 고주를 세우고 여기에 맞보형식으로 대들보와 전면 뒷보를 맞물려 걸었다. 건물 전면에는 회랑형식의 퇴칸이 놓여 있으며 고주에는 벽면이 구성되었다. 대들보의 위로는 4분변작법에 의해 초각을 한 대공을 ‘+’자로 세우고 그 위에 주두를 올려놓았다. 주두 위로 중도리와 종보를 얹었다. 종보의 중앙에는 3개의 판재로 구성된 구름모양의 판대공을 놓아 중도리를 받고 있다. 대공의 가운데에는 소로를 놓고 첨차모양의 부재를 대공에 수직으로 끼운 후 상부의 장혀와 중도리를 받고 있다.

평면은 남·북으로 한 칸씩, 중앙에는 3칸의 실을 두어 모두 3개의 실로 구성되었으며 남측 실에만 벽체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홍살로 벽을 대신하였다. 남·북측 실에는 판문을 달았으며 중앙실에는 살문을 달았다. 전면을 제외한 삼면은 정전과 마찬가지로 대들보 높이까지 전돌을 쌓아 화방벽으로 마감하였는데 중앙부분은 지붕모양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북측실의 후면 상부에는 살창을 내었다. 현재 동무의 남측실은 비어 있으며 중앙실에는 두개의 연월도와 의식할 때 쓰이던 것으로 여겨지는 북이 보관되어 있다. 북측실에는 “무안왕묘비”가 있는데 서무에도 북측실에만 “동묘비”가 보관되어 있다.

지붕은 양성으로 용마루를 구성하고 양 끝으로 용두를 놓았으며 내림마루는 암키와를 5장 쌓아 구성하였고 별다른 장식을 하지 않았다. 지붕의 맞배면에는 풍관은 두지않고 박공판을 두 개의 판재를 겹쳐 시설하였으며 박공널을 맞댄 부위에는 지내철로 장식하였다.

처마의 전면은 부연이 있는 겹처마이지만 후면은 부연이 없는 홑처마로 하였다. 그 내민 길이는 전면이 1,340mm, 후면이 1,150mm이다.

3. 중문(中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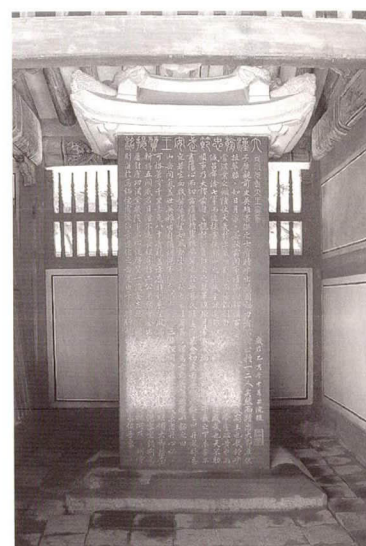
중문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기단은 1단으로 장대석을 쌓아 사면을 둘렀으나 동묘 내의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바닥면을 전돌로 마감하지는 않았다. 초석은 모두 다듬은 원형 초석이다. 기둥은 모두 원형기둥으로 18본이 사용되었으며 그 직경은 330mm 정도이다.

건물의 가구는 2고주 7랑 가구이며 건물의 전·후로는 퇴를 구성하였다. 전면고주의 위치에는 매 칸마다 판문을 두었다. 측면으로 전면 퇴에는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았으나 후면 퇴에는 판벽을 설치하였고, 중앙의 2칸에는 정전과 마찬가지로 화방벽을 만들었는데 벽 하부는 사각형의 돌로 쌓



△ 무안왕묘비명



△ 동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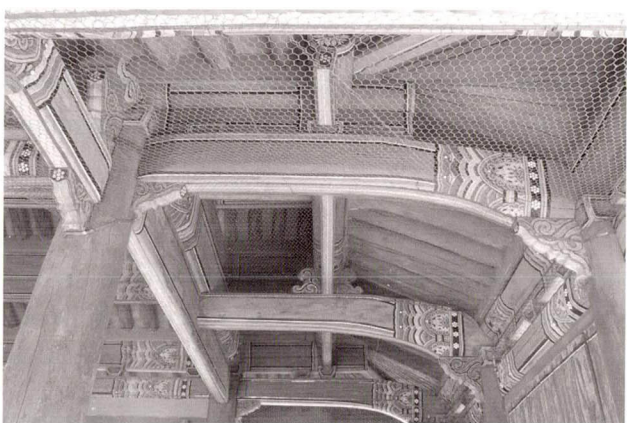
△ 중문 전면



△ 중문 동측면



△ 중문 상부가구



△ 중문 충량

아 올렸고 상부는 전돌로 쌓았다.

익공은 수서형으로 길게 내밀어진 출목이 없는 초익공이다.

전면 고주와 후면 고주 사이에는 대들보가 걸려있으며 그 하부로는 창방이 덧보형태로 결구되어 있다. 전·후면 평주와 고주 사이에는 뒤틀보가 끼워져 있다. 대들보의 위에는 3분변작법에 의해 동자주를 세우고 보방향으로 화려한 초각된 보아지를 결구하였으며 도리방향으로는 뜯창방과 장혀가 결구하였다. 동자주 위로는 주두를 놓고 종보와 중도리를 걸었다. 종보의 중앙에는 화려한 파련대공을 놓고 역시 대공에 수직방향으로 뜯창방을 걸었으며 뜯창방의 위로는 소로를 놓고 장혀와 중도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헐칸에는 정전에서와는 달리 충량을 사용하여 외기를 구성하였다.

서까래는 일반적으로 장연과 단연으로 구성되는 것과는 달리 정전과 마찬가지로 도리마다 따로 걸려 상연, 중연, 하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마는 부연이 있는 겹처마로 그 내민길이는 전·후·좌·우 네 방향에 대하여 1,650mm정도로 그 값이 일정하다.

지붕에는 양성으로 용마루를 만들고 그 끝에는 취두를 놓았으며, 내림마루와 추녀마루 역시 양성으로 만들고 내림마루 끝과 추녀마루 처음 부분에는 용두를 두고 추녀마루 끝에는 2개씩의 잡상을 놓았다. 또 사례의 끝에는 토수를 끼워 장식하였다.

4. 남문(南門)

동묘의 남문은 전면 5칸, 측면 2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중앙의 3칸은 지붕을 높이고 문을 설치하였으며 좌·우 퇴칸은 실을 만들었는데 후면과 외측면에는 전돌로 화방벽을 설치하였고, 전면으로는 홍살을 설치하고 내측면에는 살문을 달았다. 현재 그 내부는 비어있다.

기단은 1단의 장대석을 두르고 바닥면을 사각형의 전돌로 마감하였다.

초석은 모두 사각형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중앙 3칸은 전면과 후면의 기둥만 직경 360mm의 원형기둥을 사용하고 중앙열에는 300mm×300mm의 사각기둥을 사용하였다. 좌·우 퇴칸은 외측으로 190×190mm 크기의 사각기둥을 세우고 북측으로 기단면까지 실을 넓혔다.

중앙 3칸의 가구는 고주가 없는 5량가구이다. 전·후 평주에 주두없이 대들보와 도리를 걸고 대들보 위에 4분변작법에 의하여 동자주를 올려놓았으며 동자주 위에는 종보와 중도리를 걸었다. 중도리 하부에는 뜯창방을 설치하여 중도리를 받도록 하였다. 종보의 중앙에는 3개의 판재로 이루어진 파련대공을 두고 대공과 수직방향으로 뜯창방을 끼웠으며 그 위에 중도리를 설치하였다.

좌·우 퇴칸의 가구는 매우 특이하다. 대들보를 전면기둥과 중앙의 기둥 사이에 걸고 그 위에 주심도리를 올려 놓았으며, 대들보의 중앙에 동자주를 세우고 그 위에 중도리를 올려 놓았다. 중도리와 전·후 주심도리에는 각각 서까래를 걸었다. 또한 중앙의 기둥과 후면 기둥 사이에도 역시 주두 없이 작은 대들보를 걸어 전·후 대들보가 중앙의 기둥에서 맞보형태로 결구되었다. 후면 대들보의 1/3지점에는 동자주를 세우고 후면의 중도리를 결구하였으며 이 중도리와 전면의 중도리 사이에 종보를 걸었다. 종보 위에는 가운데보다 앞으로 치우쳐 동자주 형태의 대공을 세우고 그 위에 중도리를 결구하였다. 도리의 단면형태는 중도리와 후면 중도리는 납도리이고 그 외에는 굴도리를 사용하였다.

서까래는 장연과 단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마는 중앙의 3칸은 부연이 있는 겹처마이지만 좌·우 퇴칸은 부연이 없는 홑처마이다. 처마의 내민길이는 1,810mm로 동묘 내 건물 중에서 가장 긴 처마내밀기를 가지고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중앙의 3칸에는 양성을 바른 용마루를 두었으며 양끝에 취두를 놓았다. 내림마루 역시 양성을 발랐으며 끝에는 용두를 놓고 있다. 좌·우 퇴칸은 중앙의 3칸보다 낮게 맞배지붕을 설치하였으며 양성바름 없이 기와로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만들고 별다른 장식은 하지 않았다.

중앙 3칸에 설치된 문 가운데 어칸에 설치된 문은 전체가 판문이며, 좌·우 협칸의 문은 상부에 홍살을 설치하였다.



△ 남문 전경

(배병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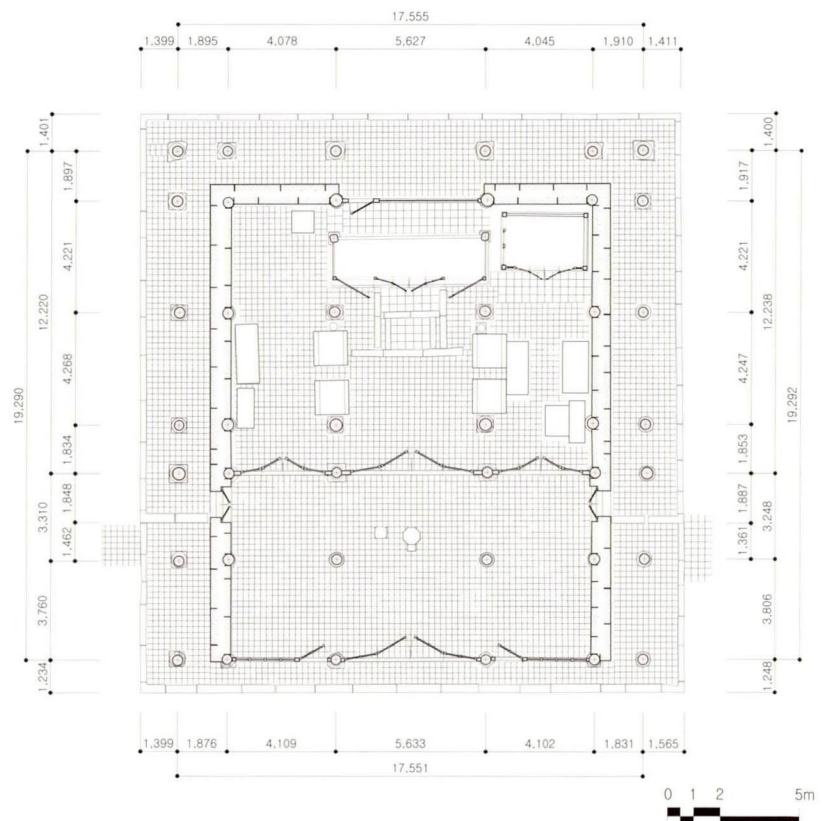
4. 실측자료 해설(實測資料 解說)

1) 평면(平面)

동묘 정전(正殿)은 전체 정면 5칸, 측면 6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면은 크게 정면 5칸, 측면 4칸의 본실과 정면 5칸 측면 1칸의 전실 및 연결 통로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실은 팔작지붕이며 전실은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각각 다른 형식의 건물을 붙여서 하나의 평면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개의 건물을 합쳐 만들었으므로 정면보다 측면 칸수가 많아 전후 방향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정전 전면 어칸과 협칸은 출입문과 광창을 설치하여 깊은 내부 공간의 채광을 돕고 있다. 후면 어칸은 상부에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 하부에 판벽과 우측의 판문이 마련되어 있다. 좌우 측면과 후면 양측 협칸은 모두 두꺼운 화방벽을 쌓아 내진주를 감싸고 있다.¹⁾ 화방벽을 쌓은 좌우 측면과 후면에는 개방된 퇴칸 회랑을 두르고 있다.

본실은 전후, 좌우에 반 칸 퇴를 두르고 있어 내진과 외진칸으로 구분할 수 있는 독립적인 평면형식을 갖추고 있다.²⁾ 좌우측면의 기단에서도 높이차를 두어 본실과 전실을 구분하고 있으며, 좌우측면 화방벽에는 본실 전



- 1) 사묘 건물 정전은 일반적으로 정면에 개방된 전랑을 설치하고, 좌우측벽과 배면 벽을 화방벽으로 구성하고 있다.
- 2) 벽체로 칸이 나누어지는 민가를 제외하고 전각 건물의 평면은 일반적으로 퇴칸의 위치와 정면, 측면의 칸수로서 형식을 구분한다.

△ 평면 실측도

면 내진 귀기둥 바로 앞에 홍예문을 구성하여 전실 정면과 별개의 출입이 계획되어 있다. 본실 전면의 어칸과 협칸에는 4분합 띠살문이 설치되어 있어 전실과 구획을 나누며 출입과 채광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퇴칸 회랑을 포함한 전체 건물의 전면 전장은 17,551mm이고 측면 전장은 19,292mm이나 측면에서는 본실과 전실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본실의 측면 전장은 12,238mm, 전실의 측면 전장은 3,806mm, 그리고 연결통로 부분은 3,248mm이다. 정전 평면은 정면과 측면의 길이가 1 : 1.1 정도의 비례를 이루어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표 1〉과 같이 주칸 실측치를 통하여 영조척을 계산해 보면 전면은 56.0척, 측면은 61.5척으로 영조척 1척을 313.55mm로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³⁾ 본실과 전실로 구분하여 주칸 거리를 살펴보면 본실 전면은 좌측 퇴칸 1,866mm, 좌측 협칸 4,100mm, 어칸 5,652mm, 우측 협칸 4,082mm, 우측퇴칸 1,913mm로 어칸 18.0척, 협칸 13.0척, 퇴칸은 6.0척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측면은 전퇴칸 1,896mm, 전협칸 4,216mm, 후협칸 4,226mm, 후퇴칸 1,882mm로 협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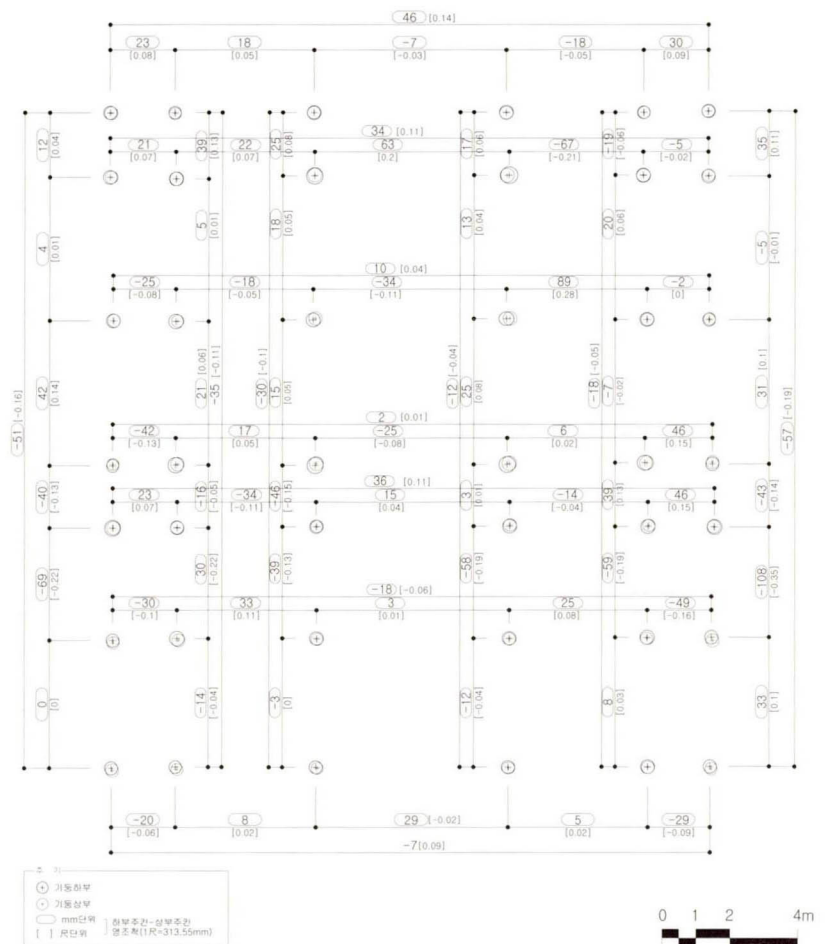
3) 동묘 정전에서는 상부 주칸과 하부 주칸의 거리 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주칸을 기둥 상부로 하여 포작과 가구 계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둥 상부 주칸을 기준으로 하여 영조척을 추정하였다. 기둥 하부 주칸으로 영조척을 추정하면 1척은 314.10mm가 된다.

〈표 1〉 주칸 실측 분석표

위 치			주칸거리		추정완척	영조척		영조척환산치수	
			하부	상부		하부	상부	하부	상부
본 실	전 면	좌측퇴칸	1,889	1,866	6.0尺	314.8	311.0	6.01척	5.95척
		좌측협칸	4,066	4,100	13.0尺	312.8	315.4	12.94척	13.08척
		어 칸	5,667	5,652	18.0尺	314.8	314.0	18.04척	18.03척
		우측협칸	4,068	4,082	13.0尺	312.9	314.0	12.95척	13.02척
		우측퇴칸	1,959	1,913	6.0尺	326.5	318.8	6.24척	6.10척
	후 면	좌측퇴칸	1,910	1,880	6.0尺	318.3	313.3	6.08척	6.00척
		좌측협칸	4,045	4,063	13.0尺	311.1	312.5	12.88척	12.96척
		어 칸	5,627	5,634	18.0尺	312.6	313.0	17.91척	17.97척
		우측협칸	4,078	4,060	13.0尺	313.7	312.3	12.98척	12.95척
		우측퇴칸	1,895	1,872	6.0尺	315.8	312.0	6.03척	5.97척
	우측면	전 퇴 칸	1,853	1,896	6.0尺	308.8	316.0	5.90척	6.05척
		전 협 칸	4,247	4,216	13.5尺	314.6	312.3	13.52척	13.45척
		후 협 칸	4,221	4,226	13.5尺	312.7	313.0	13.44척	13.48척
		후 퇴 칸	1,917	1,882	6.0尺	319.5	313.7	6.10척	6.00척
	좌측면	전 퇴 칸	1,834	1,874	6.0尺	305.7	312.3	5.84척	5.98척
		전 협 칸	4,268	4,226	13.5尺	316.1	313.0	13.59척	13.48척
		후 협 칸	4,221	4,217	13.5尺	312.7	312.4	13.44척	13.45척
		후 퇴 칸	1,897	1,885	6.0尺	316.2	314.2	6.04척	6.01척
전 실	전 면	좌측퇴칸	1,876	1,896	6.0尺	312.7	316.0	5.97척	6.05척
		좌측협칸	4,109	4,101	13.0尺	316.1	315.5	13.08척	13.08척
		어 칸	5,633	5,604	18.0尺	312.9	311.3	17.93척	17.87척
		우측협칸	4,102	4,097	13.0尺	315.5	315.1	13.06척	13.07척
		우측퇴칸	1,831	1,860	6.0尺	305.2	310.0	5.83척	5.93척
	우측면	전 협 칸	3,806	3,773	12.0尺	317.2	314.4	12.12척	12.03척
	좌측면	전 협 칸	3,760	3,760	12.0尺	313.3	313.3	11.97척	11.99척
평 균						314.10	313.55		

13.5척, 퇴칸은 6.0척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실의 경우 전면은 좌측 퇴칸 1,896mm, 좌측 협칸 4,101mm, 어칸 5,604mm, 우측 협칸 4,097mm, 우측 퇴칸 1,860mm로 본실의 전면과 같은 척을 적용하였으며 측면은 1칸이므로 주칸 거리 3,773mm는 12.0척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실과 전실의 연결부분 주칸거리는 3,356mm로 10.5척에 해당한다.

전체 정전의 평면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6.0척을 기둥 간격을 결정하는 모듈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좌우측면과 후면에 구성된 퇴칸 회랑이 6.0척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칸은 18.0척으로 6.0척의 정수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실에서 어칸 18.0척과 더불어 측면에 사용한 13.5척은 관우상을 모시는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공간은 4 : 3의 비례를 이루고 있다. 다만 전면의 좌우협칸에 사용된 13.0척의 경우 측면에 사용된 13.5척과 일치하지 않고 또한 기본 척도로 사용된 6.0척의 정수배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분석이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실은 측면이 22.5척으로 실제 전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12.0척이고 연결통로 부분 10.5척을 포함하고 있다. 12.0척은 기본사용척도 6.0척의 정수배로 볼 수 있다. 연결통로 부분에 해당하는 10.5척은 계획 척도라기보다는 전실과 본실



△ 상·하부 주칸 비교도

의 지붕이 다르게 구성되어 이를 연결하면서 형성되는 공간의 크기로 보여진다. 실제로 좌우측면에서 이 부분 기단 높이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본실 기단을 기둥으로부터 6.0척 정도 내밀도록 하고 있다.

전실 어칸 간격 5,633mm는 전실 어칸 좌측 기둥 최대직경 383mm에 대해 14.7배 정도로 되어 있다. 한편 기둥 높이 4,185mm에 대해서는 1 : 1.34의 비례로 나타난다. 본실 어칸 간격 5,667mm은 본실 어칸 기둥의 굵기 407mm에 대해 대략 15.3배 정도이며 높이 4,003mm와 1 : 1.42의 비례를 이루고 있다. 협칸은 전실의 경우 어칸보다 좌측면은 1,524mm, 우측면은 1,531mm 작아졌으며 협칸 간격 4,109mm과 4,102mm는 기둥 굵기의 약 10.5배에 해당하며 기둥 높이가 4,185mm와 대략 1 : 1에 가까운 비례를 이루고 있다. 본실의 경우 협칸은 어칸보다 좌측면은 1,601mm, 우측면은 1,599mm 작아졌으며 협칸 간격 4,066mm와 4,068mm는 기둥 굵기의 약 10배에 해당하며 역시 기둥 높이가 3,976mm와 거의 같은 비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퇴칸은 전실의 경우 협칸보다 좌측면 2,233mm, 우측면은 2,271mm 작아졌으며 퇴칸 간격은 기둥 굵기 382mm에 대해 4.9배 정도로 나타난다. 본실은 퇴칸이 협칸보다 좌측면 2,177mm, 우측면 2,109mm 작아졌으며 퇴칸 간격은 기둥 굵기 402mm의 약 4.7배에 해당한다.

정전 정면 기둥 간격은 처마기둥 높이에 대해 대략 0.5(퇴칸) : 1(협칸) : 1.3(어칸)의 비례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처마기둥 굵기에 대해서는 퇴칸 5배, 협칸 10.5배, 어칸 14.5배 정도의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조된 지 오래된 건물이므로 정확한 수치를 축출하기 어려우나 대략 기둥 간격은 굵기나 높이와 비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2) 기단(基壇) · 계단(階段) · 초석(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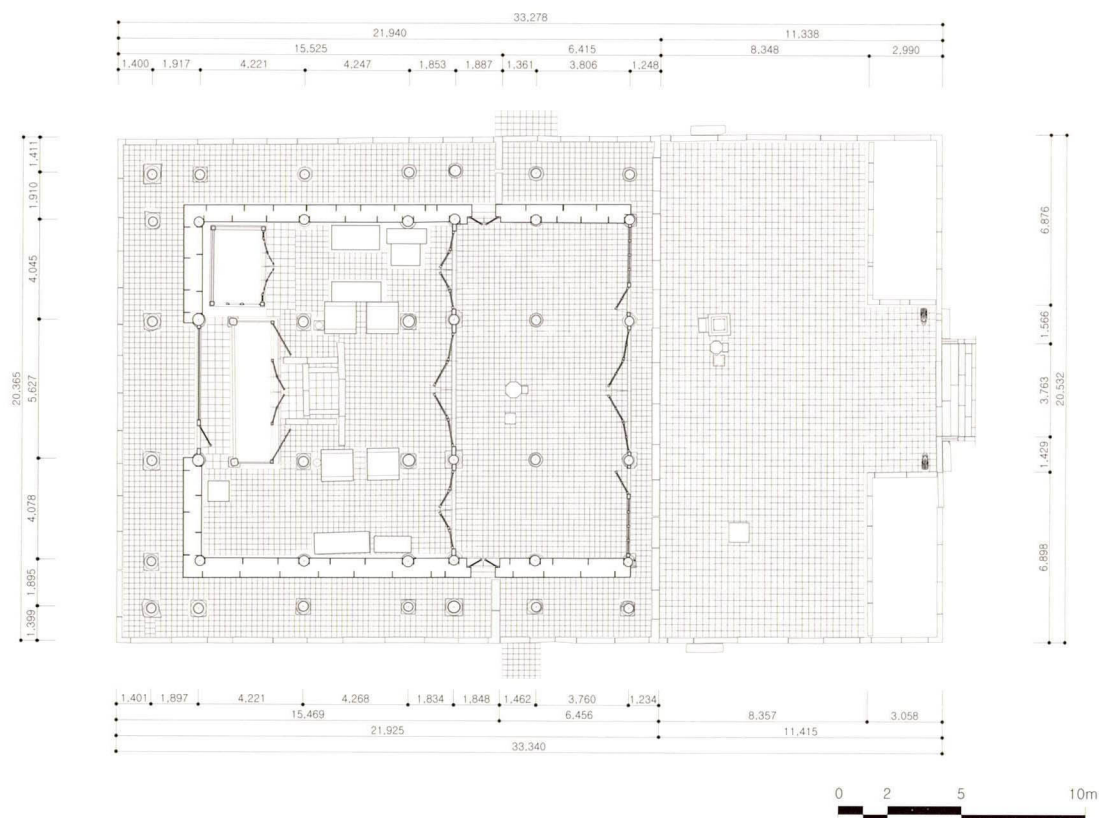
(1) 기단(基壇)

기단은 전면 월대 위에 2층의 건물기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대는 장대석을 1단 쌓고 바닥면에는 사각형 전돌을 깔아 마감하였다. 건물 기단은 전실을 포함한 하층기단과 전실을 제외한 본실의 상층기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2단으로 장대석을 쌓고 바닥면을 월대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전돌을 깔아 마감하고 있다. 상층기단은 하부장대석을 크게 하여 하층기단보다 바닥면을 높여 층단을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기단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건물로 진입하면서 월대-전실-본실로 이어지며 1단씩 위계를 높였다. 월대의 전면 양 모서리로는 화단을 구성하여 전돌이 깔린 바닥면은 丁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의 각변 길이는 월대를 포함하여 전면 20,532mm, 후면 20,365mm, 동측면 33,278mm, 서측면 33,340mm이다. 월대를 제외한 건물 하층기단의 길이는 동측면 21,940mm, 서측면 21,925이며, 상층기단의 길이는 동측면 15,525mm, 서



△ 기단부



△ 기단부 평면도

측면 15,469mm이다. 전체적으로 동측면과 서측면의 길이는 거의 같으나 전면과 후면의 길이는 조금 차이가 있어 전면이 167mm 길게 나타나 있다. 평면의 길이비를 계산하여 보면 월대를 포함한 기단은 1 : 1.63, 건물의 하층기단은 1 : 1.07, 상층기단은 1.21 : 1 정도가 나온다. 월대의 면적은 232.6㎡ (70.5평)이며, 월대를 포함한 기단전체의 면적은 681.1㎡ (206.4평)이다.

건물기단의 각 방향 평균 내민길이는 처마기둥으로부터 전실 전면 1,241mm, 본실 전면 1,868mm, 후면 1,401mm, 동측면 1,411mm, 서측면 1,399mm이다. 동·서측면과 후면은 거의 동일한 길이로 내밀었으나 전면으로는 전실의 경우는 보다 짧고, 본실의 경우는 보다 길다.

지면으로부터 측정한 기단 높이는 월대의 전면 동측이 428mm, 서측 427mm이며, 하층기단의 높이는 동측 578mm, 서측 621mm이다. 월대에서 하층기단까지의 높이는 전면 동측 106mm, 서측 167mm로 동측 6cm정도 낮다. 상층기단의 하층기단면으로부터 측정한 높이는 전면 동측 163mm, 서측 124mm로 서측이 조금 낮다. 상층기단 후면 동측의 지면으로부터 측정한 높이는 643mm, 서측은 663mm로 동측이 조금 낮다.

가장 낮은 지면으로부터 측정한 기단 레벨(level)을 살펴보면 월대 전면 동측 428mm, 서측 450mm, 후면 동측 344mm, 서측 392mm, 하층기단 전면 동측은 594mm, 서측은 650mm이다. 상층기단 전면 동측은 757mm, 서측은 774mm이며 후면 동측은 742mm, 서측은 805mm이다. 이는 월대를 포함한 기단이 전체



△ 월대 전경

적으로 후면 동측으로 경사져 있음을 의미하며 그 최대값은 월대에서 약 10cm, 상층기단에서 약 6cm 정도이다.

(2) 계단(階段)

계단은 전면 중앙과 동·서 측면에 각각 1개소씩 모두 세 곳에 설치되어 있다. 전면 중앙 계단은 지면보다 129mm 정도로 한단을 높인 포석 위에 폭 3,763mm로 디딤돌을 놓고, 양측에 소매석을 세워 마감하였다. 계단옆박이 돌은 이수를 조각하지 않았으며 4분 타원 모양으로 큰 돌을 세우고 하단에 작은 북 모양의 돌을 붙여 놓았다. 옆면에는 구름무늬를 새겼다. 디딤돌은 높이 236mm, 너비 346mm의 장대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계단 좌·우로는 디딤돌로만 구성된 계단을 놓아 참도를 구성하였다.

전면 중앙 계단의 월대 상면까지 전체 높이는 299mm이며 폭 3,763mm에 대해 1/126 정도로 매우 넓게 계획되었으며 좌·우측 계단의 폭은 1,429mm, 1,566mm으로 가운데 계단에 대해 2/5 정도의 비례를 이루어 상대적으로 좁게 보이고 있다.

계단앞 월대바닥면에는 이수조각이 진입방향에 가로로 놓여 좌·우측 계단 일부를 가로막고 있다.

월대 서측면의 계단은 하층기단 끝에서 1,100mm 떨어진 위치에 길이 1,482mm, 폭 335mm, 높이 127mm의 크기로 설치되어 있다. 월대 동측면의 계단은 전실 기단 끝에서 1,226mm 떨어진 위치에 1개의 장대석 디딤돌로 놓여 있다. 길이는 1,368mm이며 폭 377mm, 높이 250mm로 비교적 널찍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3) 초석(礎石)

건물에 사용된 초석은 모두 42개이며 대부분 사각형 또는 원형의 초석면 위에 원형으로 주좌를 깎아 올린 원형초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중 사각형 초석면을 갖춘 것은 모두 22개이며, 원형의 초석면을 갖춘 것은 20개이다. 원형의 초석면을 갖춘 것은 주로 벽체가 구성되는 곳에 사용되었으나 일부 동측 회랑에도 사용되었다. 또한 처마 기둥 초석에는 주좌 측면에 벽체 방향으로 고막이가 조각되어 있으며, 특별히 화방벽을 마감하는 모서리 기둥의 초석은 가로 772mm, 세로 380mm, 높이 515mm의 크기로 고막이를 크게 만들어 보강하고 있다.

주좌 아래 초석면은 각각 크기가 달라 일정치 않으나 대체로 600mm에서 800mm 내외의 사각형으로 제작되어 있다. 한편 초석면이 주좌와 같은 원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경 550mm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사각형 초석면의 1변 길이는 기둥 굵기 390mm 내외에 대해 대략 2배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원형으로 되어 있는 초석면은 기둥 굵기에 대해 1.5배 정도의 직경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주좌는 실측도에서 지름 509~597mm, 높이 15~230mm로 그 크기가 다양



△ 정전 계단 소맷돌



△ 정전 계단 용두

4) 『營造法式』에서는 주좌 아래 방형 초석면의 1변 길이를 기둥 굵기의 2배로 결정하고 있다.



△ 전면 어칸 평주 초석



△ 정전 퇴주 초석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중 전실 내부 후면기둥과 본실 내진주 초석에서 주좌의 높이는 15~110mm로 매우 낮다.

초석 형태가 비교적 정형으로 제작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본실 정면 어칸 기둥 초석에서 보면 주좌 높이 206mm는 밑의 사각형 초석면 1변 길이 700mm에 대해서는 대략 1尺당 3寸의 비례로 구성되어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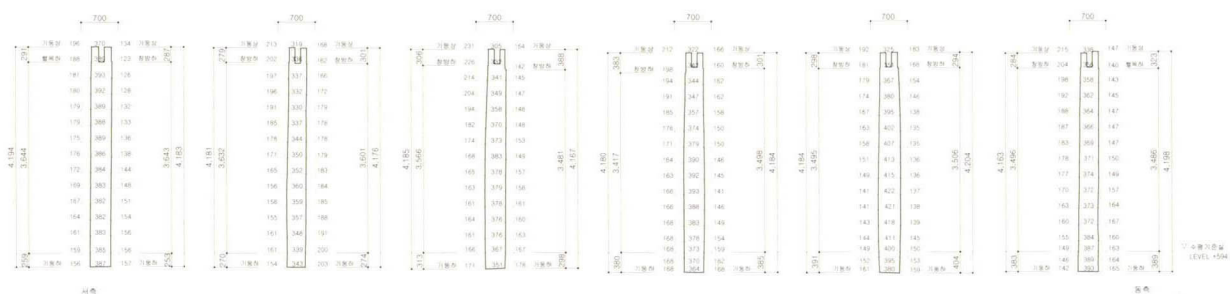
본실 정면 어칸 기둥 초석에서 주좌 윗면 원의 지름은 633mm이며 기둥 굵기 494mm에 대해 70mm 정도 원주를 따라 여유 폭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 주좌 윗면의 지름은 기둥 외주면에서 2寸 내지 2.5寸 정도 넓게 제작되어 있다고 보이며, 기둥에 대해서 주좌 윗면 지름은 1.3배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다.

3)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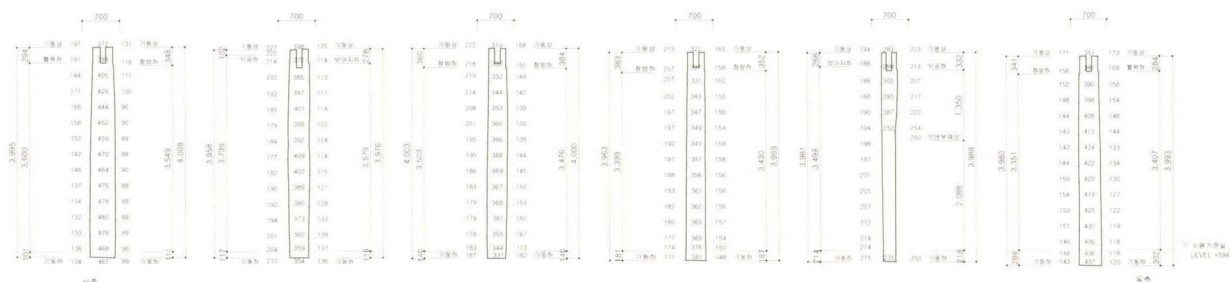
동묘정전에 사용된 기둥은 모두 원기둥으로 전실에 12본, 본실에 30본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 관우상을 모시는 좌대 뒤로 2본의 각을 죽인 사각기둥이 있다. 본실의 내진주 12본은 모두 고주이며 그 외는 평주이다. 전실과 본실을 하나의 건물로 본 종단면 상에서 기둥은 7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면 전실 전후 처마기둥과 본전의 내진 기둥 3본과 전후 처마기둥 2본으로 배열되어 있다. 본실에서의 내진고주는 전후 하중도리 열과 종도리 아래 중앙 고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고주는 전후 고주와 높이가 같고 맞보형식으로 연결된 대들보의 이음부를 받고 있다. 건물에 사용된 기둥은 일부 배흘림을 볼 수 있으나 대부분 민흘림기법으로 되어 있으며, 그 정도는 기둥에 따라 다르다.

정전 전실 전면 어칸의 동측 기둥은 특히 배흘림이 잘 남아 있는 기둥으로 휨이나 비틀림이 적게 발생되어 형상이 바르다. 배흘림은 기둥 하단에서 1,485mm 되는 위치에서 393mm로 최대 직경을 이루는 곡면으로 나타나 있다. 최대 직경 위치는 기둥 전체 높이 4,184mm에 대해 대략 1/3 정도 된다. 기둥 하단으로는 14mm를 깎아 내려갔으며 기둥 전체 높이에 대해 1/300 정도의 비례로 이루어져 있다. 기둥 상단으로는 최대 직경 위치에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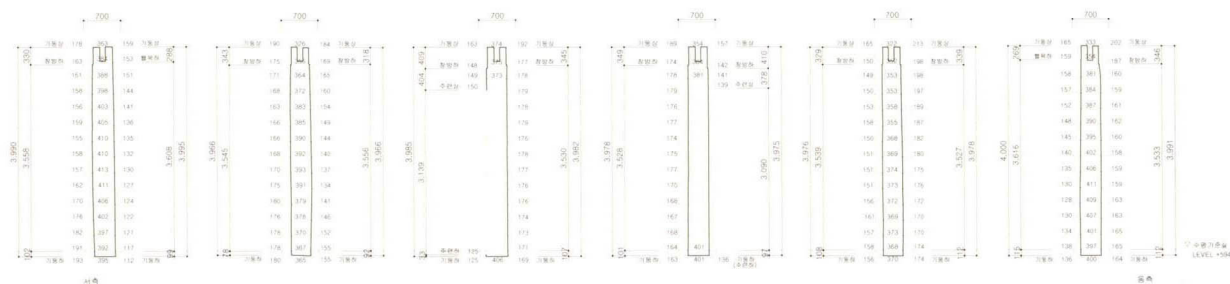
5) 『營造法式』에서 주좌의 높이는 밑에 초석면 1변 길이 매 1尺당 1寸으로 결정하고 있다.



전실 전면 기둥



본실 전면 기둥



후면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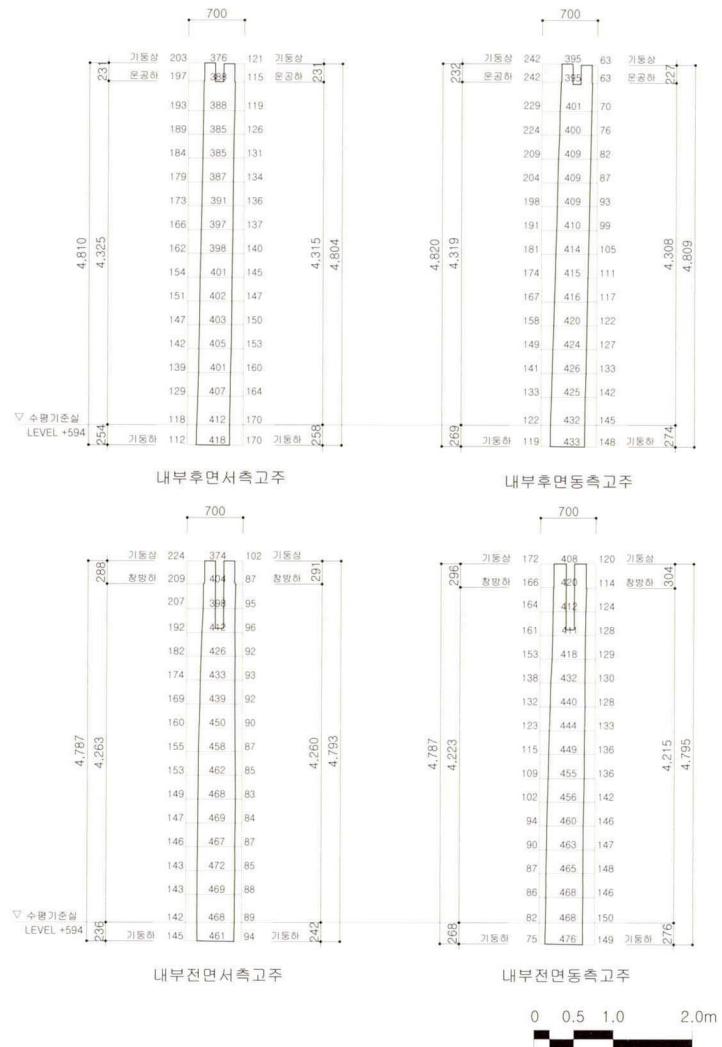


△ 전·후면 기둥 실측도

점차 21mm를 훑어 냈으며 기둥 전체 높이에 대해 1/200 정도의 비례를 보인다.

기둥의 크기는 전실 내부기둥의 경우 하부지름 평균값은 399mm, 상부는 평균 359mm이지만 전실 후면 모서리 기둥이 2본이 비교적 다른 기둥보다 굵으며 각각 422mm와 434mm로 최대값을 갖는다. 본실 내부기둥은 하부직경 평균이 430mm, 상부는 평균 393mm이며 특히 전·후면 내진 어칸 기둥 4본과 2열 모서리 기둥 2본이 다른 기둥에 비해 굵으며 494mm의 최대값을 갖는다. 기둥은 굵기를 보면 본실에서 전실보다 약 30mm 정도 더 굵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회랑기둥의 하부지름 평균값은 375mm, 상부는 372mm이다. 회랑의 경우는 본실 전면과 이어지는 동·서 기둥 2본이 다른 기둥에 비해 비교적 굵으며 468mm의 최대값을 가지고 있다. 또, 퇴칸 회랑의 기둥은 전실기둥에 비해 24mm정도 가는 기둥을 사용하고 있다.

기둥 길이는 전실 내부기둥의 경우 4.127~4.204mm 정도이다. 본실 내부기둥은 전면 평주의 경우 3.952~4.007mm 정도이며, 내부 고주의 경우 4.781~4.836mm 정도이다. 본실 후면 고주의 경우는 하부에 초석이 벽체와 함께 높게 설치되어 있다. 고주의 길이는 다른 고주보다 짧으며 4.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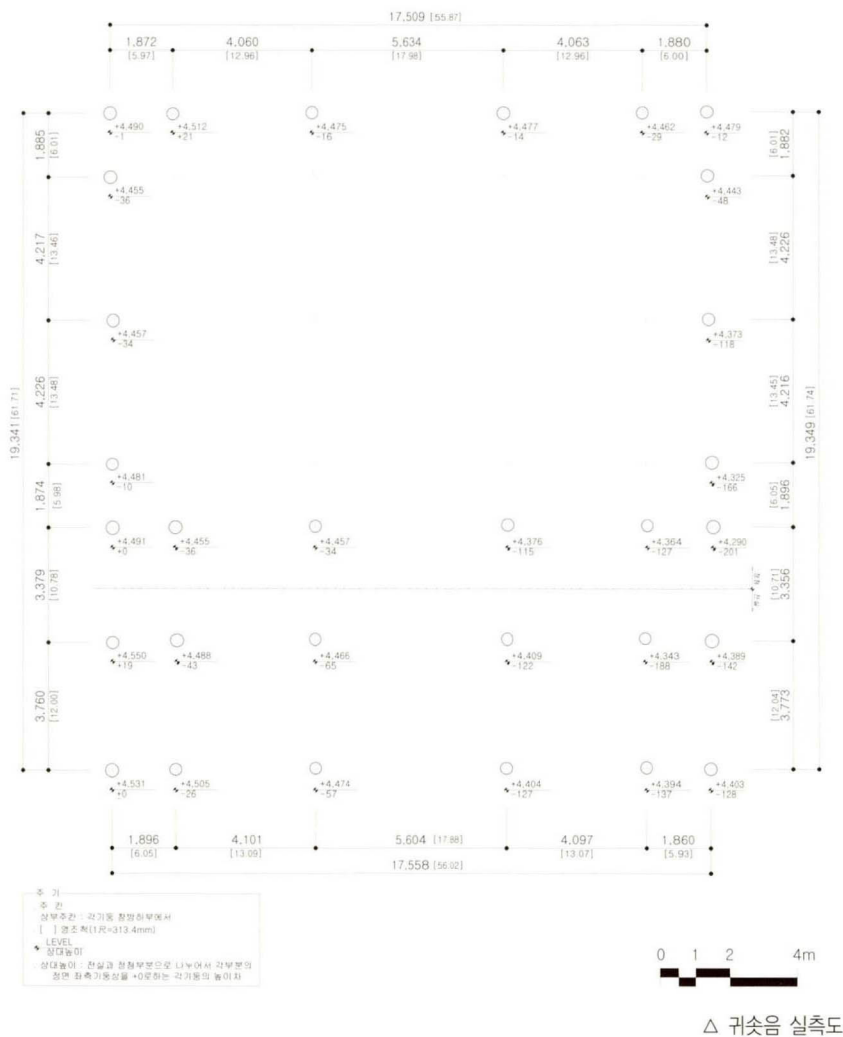


△ 내부고주 실측도

4,374mm 정도이다. 퇴칸 회랑 기둥의 경우는 3,966~4,198mm 정도이며 최대 길이와 최소 길이차가 23.2cm이며, 이는 초석의 높이차에 의한 것이다. 또 본실 내부 좌대 뒤의 사각기둥은 각각 4,783mm와 4,786mm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안솔림은 전실의 경우 대부분 기둥이 동남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찾아보기 힘들지만, 본실은 모서리 기둥이 5~32mm 정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귀솟음정도는 전실에서 어칸 기둥과 비교하여 전면 서측은 57mm, 동측은 -1mm 정도이며 후면 서측은 84mm, 동측은 -20mm 정도로 나타나고, 본실에서 전면 서측은 34mm, 동측은 -86mm 정도이며 후면 서측은 15mm, 동측은 2mm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건물이 동측으로 기울어지며 변형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귀솟음의 정도를 정확히 판별하기는 어려우나 원래는 귀솟음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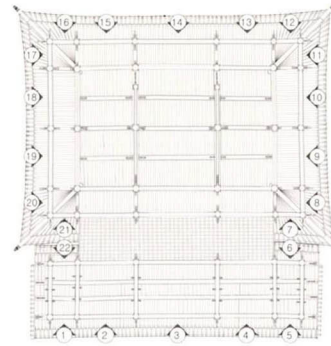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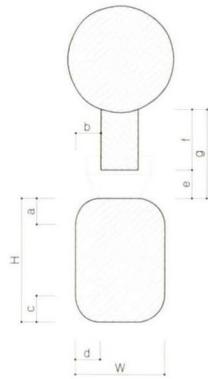
4) 창방(昌枋)

동묘정전의 창방은 크게 전실과 본실에 사용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실 창방은 평주와 종도리 밑에 결구된 뜬창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주에 결구된 창방은 폭 225~236mm, 높이 281~350mm 정도이며, 종도리 밑에 있는 뜬창방은 폭 213~239mm, 높이 259~272mm 정도로 평주에 결구되어 있는 창방보다 약간 작은 단면의 부재를 사용하고 있다.

본실 창방은 평주, 고주와 상중도리, 종도리 밑에 결구된 뜬창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주창방은 폭 240~284mm, 높이 335~395mm, 고주창방은 폭 223~230mm, 높이 289~303mm 정도이며, 상중도리 밑의 뜬창방은 폭 230~274mm, 높이 280~349mm, 종도리 뜬창방은 214~290mm 정도이며 상부로 올라갈수록 단면이 작은 부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칸에서 보다 큰부재를 사용하였다.⁶⁾ 단면 형태는 높이값이 큰 장방형의 단면에 모서리를 둥글게 한 형태이며, 기둥과 결구되는 부분에는 소매걸이를 하여 기둥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6) 장혀 두께 105mm에 대해서 전면 평주에 있는 창방의 단면(234×350mm)은 2.23×3.33 배이며, 춤 175mm(材契)에 대해서는 대략 1材0.8契×2材의 규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실 배면에 있는 창방 단면은 장혀 두께로 환산해 보면 2.24×2.67배로 나타나며, 장혀 춤(材契)에 대해서는 대략 1材1契×1材1.5契 정도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뜬창방은 2.2×2.5배 수장폭(장혀두께)이며, 1材0.8契×1材1.2契로 환산되고 있다. 본전인 본실의 창방은 처마기둥에 284×395mm, 고주창방 230×293mm, 상중도리 밑에 있는 뜬창방 230×290mm, 종도리 뜬창방 214×290mm로 각각 크기가 다른 단면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평주에 사용된 창방은 2.7×2.8수장폭(장혀두께), 대략 1材1.8契×2材의 규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주창방은 2.2×2.8수장폭, 1材1契×2材 정도의 규격으로 환산된다. 뜬창방은 위치에 따라 약간씩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략 2.2×2.8수장폭, 1材1契×2材 정도의 규격으로 볼 수 있다. 창방의 부재 규격은 수장폭보다 材契 단위에서 적은 오차를 보이고 있다.



KEY-PLAN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a		53	82			33	52	65	85	57	68	68	58	48	62	68	67	65	63	68	57	63	
b		75	63			63	50	68	69	55	64	64	63	78	78	63	65	68	65	69	68	60	
c		78	83			35	58	70	60	62	77	89	68	83	72	90	58	91	68	65	83	73	
d		73	67			42	52	75	63	73	75	67	65	93	80	76	70	80	79	67	67	71	
W		236	234			225	248	240	235	260	240	240	225	284	245	230	234	250	248	235	243	230	
H	284	295	350	290	290	290	332	325	326	330	333	333	342	395	335	336	332	338	329	315	335	289	
편수 확기	좌	L					50	195	215	295	225	225	225	63	227	165	200	220	192	220	190	227	
		W					180	130	150	138	125	130	140	225	128	145	135	128	140	125	145	140	
	우	L						190	263	300	220	208	225	72	225	185	195	90	170	185			
		W						150	150	135	140	130	156	242	118	135	130	173	145	140			
좌	e	83	86	86	86	87	74	90	85	95	83	90	93	83	80	92	86	75	80	76	93	62	88
	f	172	182	168	157	158	184	170	165	172	180	178	177	172	158	176	174	172	178	174	177	173	174
우	g	255	268	254	243	245	258	260	250	267	263	268	270	255	238	268	260	247	258	250	270	235	262
		e	80	87	87	86	87	92	71	88	75	90	85	82	92	90	87	79	85	79	90	83	65
	f	171	180	187	173	163	178	172	166	167	172	175	178	175	160	175	174	172	176	178	170	176	171
		g	251	267	274	259	250	270	243	254	242	262	260	260	267	250	262	253	257	255	268	253	241

△ 창방 실측표

전실 평주에서의 창방뿔목은 측면에서 거의 도리와 같은 길이로 길게 빼내고 소로를 놓아 장혀를 받고 있으며, 종보에서의 뜯창방뿔목은 평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장혀를 소로 없이 받고 있다. 창방뿔목 하부는 초각을 넣어 보아지 형태로 만들었다. 전실 창방뿔목의 내민길이는 평주에서 685~776mm 정도이며, 뜯창방에서 767~892m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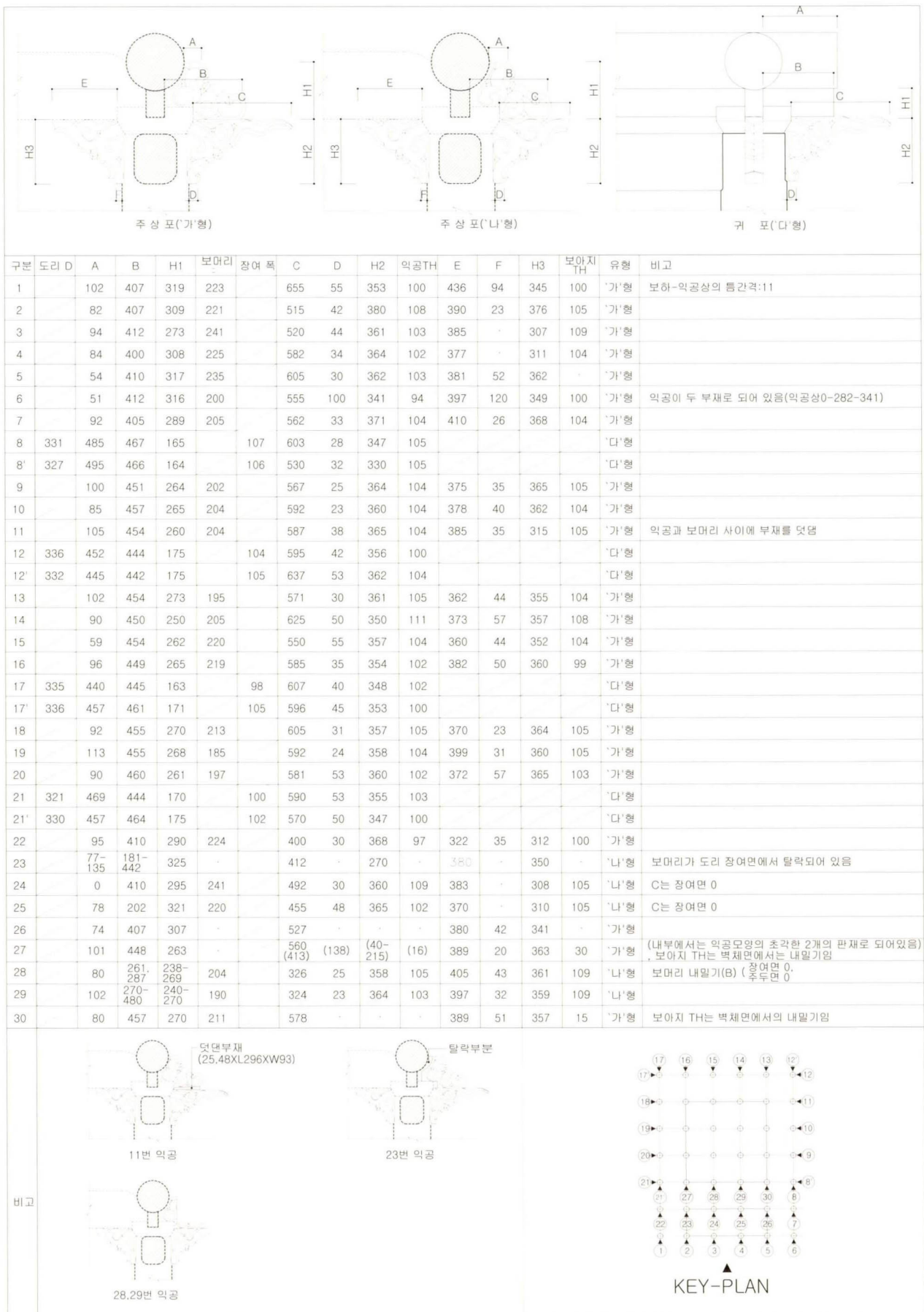
5) 공포(栱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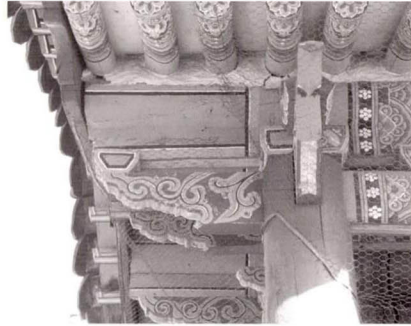
(1) 익공(翼工)

동묘 정전에 사용된 공포는 익공계형식으로 초익공의 공포이며, 창방과 주두 하부에 직교로 짜여 기둥 상부 결구를 보강하고 있다. 익공 내부는 보의 하부를 받치는 보아지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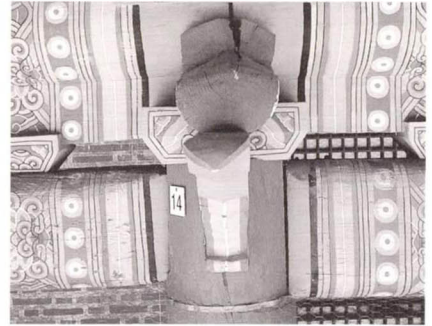
익공 쇠서는 두가지 형태가 사용되었다. 하나는 가늘고 길게 깎고 바탕면에 당초무늬를 새겨 넣었으며 바로 위의 보머리를 받도록 짜여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쇠서 끝을 사절하여 보아지와 같은 모양을 한 것으로 주로 전실 후면 평주와 본실 전면 어칸 평주에 사용되었다.

익공의 내민길이는 쇠서가 긴 경우는 전실에서는 400~655mm 정도이며 전실 전면 서측 우주에서 최대값인 655mm, 전실 후면 서측우주에서 400mm의 최소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본실에서는 530~637mm 정도이다. 쇠서끝을 사절한 경우는 전실에서 412~455mm 길이로 본실에서의 324~326mm보다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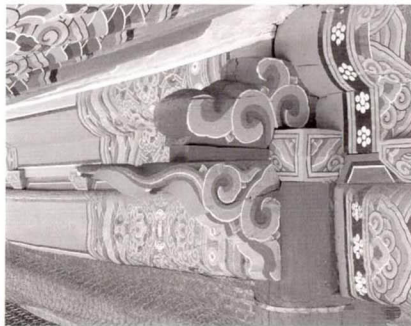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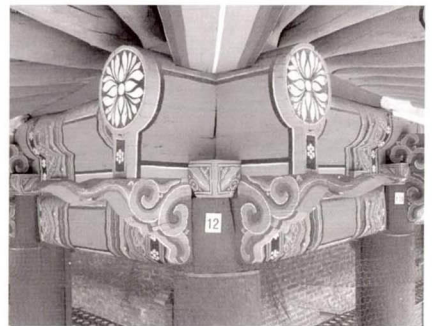
△ 정전 전실 창방 뿔목



△ 정전 후면 기둥 상부 결구



△ 익공 상세



△ 귀익공 상세

(2) 주두(柱頭)

주두는 기둥 위에 놓여 도리 및 장혀와 보를 받는 부재로 사용하고 있다. 동묘 정전에서는 기둥 위 뿐만아니라 종보의 아래에도 주두를 사용하고 있다. 전실 평주, 본실 평주, 본실 고주, 종보를 받치는 주두는 크기에 있어서 전실 보다는 본실이, 종보의 것보다는 기둥 위의 것이 조금 크다.

전실 평주의 주두 크기는 평균 상부 406×398mm, 하부 346×350mm, 높이 156mm이다. 운두는 90mm, 굽높이 66mm이며 굽에 대한 운두의 높이비는 1 : 1.36 정도로 굽보다 운두가 높다.⁷⁾ 또한 주두 폭에 대한 높이비는 단면에서 1 : 0.39 정도이다.

전실 종보 밑 주두의 크기는 상부 325×317mm, 하부 257×257mm, 높이 149mm이다. 운두는 87mm, 굽높이는 62mm로 굽에 대한 운두의 높이비는 1 : 1.40 정도이다. 또한 주두 폭에 대한 높이비는 단면에서 1 : 0.47 정도이다.

본실 평주의 주두 크기는 상부 425×405mm, 하부 360×367mm, 높이 149mm이다. 운두는 81mm, 굽 높이는 68mm로 굽에 대한 운두의 높이비는 1 : 1.19 정도이다. 또한 주두 폭에 대한 높이비는 단면에서 1 : 0.41 정도이다. 본실 고주 주두의 크기는 상부 448×444mm, 하부 383×383mm, 높이 151mm이다. 운두는 90mm, 굽높이는 62mm이며 굽에 대한 운두의 높이비는 1 : 1.44이다. 이 주두는 다른 주두에 비하여 운두가 비교적 높다. 또한 주두 폭에 대한 높이비는 단면에서 1 : 0.39 정도이다. 본실 종보 밑 주두의 크기는 상부 327×327mm, 하부 279×282mm, 높이 147mm이다. 운두는 86mm, 굽 높이는 61mm로 굽에 대한 운두의 높이비는 1 : 1.41 정도이다. 또한 주두 폭에 대한 높이

7) 주두의 크기는 장혀 두께 105mm에 대해 약 3.8배의 넓이로 제작되어 있다. 수장목을 부재 규격 설정 단위로 사용하는 청식(淸式)에서는 주두의 넓이를 '3과'로 규정하고 있다. 청식에서는 주두 아귀와 양측의 살이 같은 폭으로 제작되고 있다. 동묘 정전에서는 아귀 양측의 살이 청식의 주두에 비해 1.5배 정도씩 크게 제작되어 있다. 장혀 총 175mm(材)에 대해서는 대략 34分(1/15材) 정도의 크기로 제작되어 있으며, 『영조법식(營造法式)』에서의 32分보다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장혀가 빠져지는 홈 바깥으로 살이 1分씩 크게 제작되어 있는 셈이다. 주두의 높이는 수장목에 대해 1.47배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材의 1/15 단위인 分에 대해서는 13.2分이 된다.

구분	전실 평주주두	전실 종보호 주두	정청 외진주 주두	정청 내진주 주두	정청 공포하 주두	포대공 주두	방주 주두
평면							
양시							
㉠ 입면							
㉡ 입면							
㉢ 단면							
㉣ 단면							

△ 주두 상세도

비는 단변에서 1 : 0.52 정도이다.

(3) 소로(小累)

동묘 정전에 사용된 소로는 크게 그 형태에 따라 이갈소로와 사갈소로
의 두가지로 구분되며, 이갈소로는 평이갈소로로 그 크기가 거의 동일하다.
사갈소로는 양옆갈따기사갈소로 크기에 의해 두종류로 나뉜다.

이갈소로는 전실과 본실 주심도리 및 종도리, 중상·중하도리 밑에서 창방위에 놓여 도리를 받는 장혀를 지지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사갈소로는 전실 화반과 본실 종도리 밑 대공에 끼워져 사용되고 있다.

이갈소로의 크기는 상부 215×181mm, 하부 114×112mm, 높이 117mm 정도이며 장방형이다. 운두는 51mm, 굽높이는 66mm 정도이며 굽에 대한 운두의 높이비는 1 : 0.77로 주두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운두가 굽보다 낮다.⁸⁾

사갈소로는 전실의 소로가 상부 149×149mm, 하부 89×89mm, 높이 93mm 정도 크기의 정방형이다. 운두는 48mm, 굽높이는 45mm 정도이며 굽에 대한 운두의 높이비는 1 : 1.1 정도로 운두가 굽에 비하여 조금 높다. 본실의 소로는 상부 184×184mm, 하부 114×114mm, 높이 107mm 정도 크기의 정방형이다. 운두는 51mm, 굽높이는 56mm이며 굽에 대한 운두의 높이비는 1 : 0.9 정도로 전실에 사용된 소로와는 달리 운두가 굽보다 낮게 사용되었다.

8) 상부 소로 면의 크기는 수장폭(105mm)에 대해 약 2배 정도의 규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로 면의 높이는 수장폭의 1/2 정도이며, 하부 굽은 2/3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材分(175/15mm)으로 보면 소로 면은 18.6分 정도의 규격으로 나타난다. 소로 높이는 약 10.2分 정도가 된다. 상부 소로 면은 4.4分 정도이며 하부 굽은 5.8分 정도로 나누어져 있다. 하부 굽을 빗 깎은 크기는 4.5分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전설처마도리장여 하 평이갈소로	전설화반 앙열갈따기사갈소로	정청처마도리장여 하 평이갈소로	하중도리장여 하 평이갈소로	상중도리장여 하 평이갈소로	중도리장여 하 평이갈소로	중도리대공형공청차상 앙열갈따기사갈소로
면							
양							
면							
면							
면							
면							

△ 소로 상세도

6) 가구(架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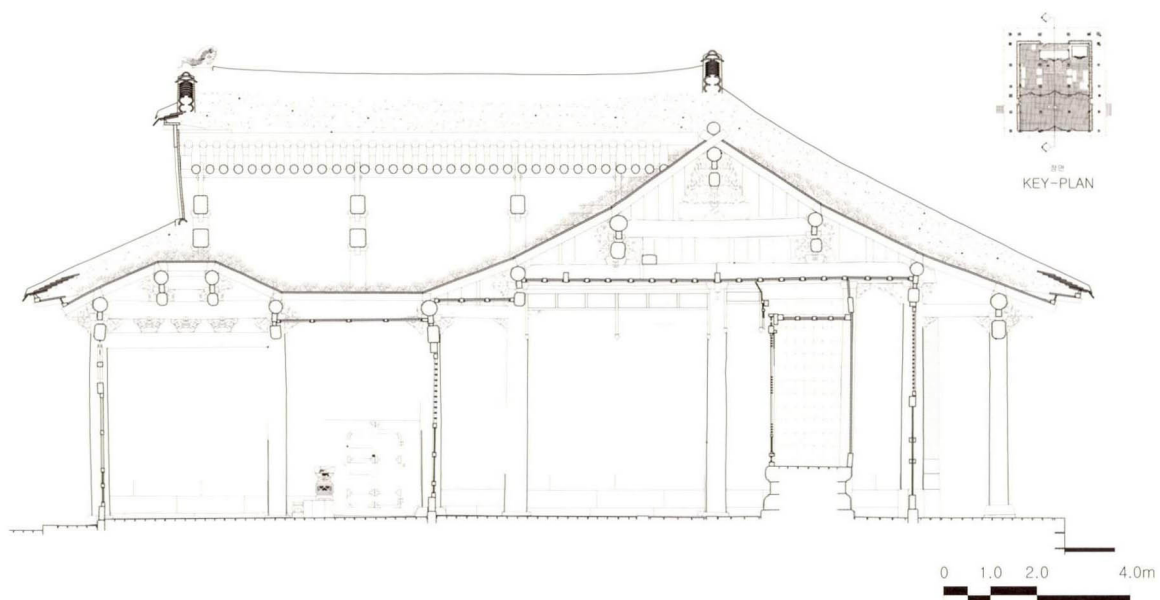
동묘 정전의 가구는 맞배집으로 된 전실과 정자각으로 지어진 본실이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어 특이하다. 전실은 중도리를 생략하고, 4량가(梁架)로 만들어 전후 중도리 사이에 평서까래를 설치하였다. 보는 대량과 종량을 걸었으며, 종량은 대량 위에 화반대공을 세우고 뜬창방과 주두, 장혀를 걸고 중도리를 받치고 있다.

본실 가구는 7량가로 되어 있으며 전후 퇴량과 맞보형식으로 짜여진 대량, 종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실 정자각의 전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1칸반을 지붕가구에서 앞쪽으로 돌출시켜 놓았다. 가구는 5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자주에 대량과 종량이 걸구되어 있다. 전면 맞배집과 후면 본실 팔작집 사이의 칸은 각각의 주심도리 위에 평서까래를 걸어서 연결하고, 그 위 중간에 동자주를 세워 보와 도리 가구를 연결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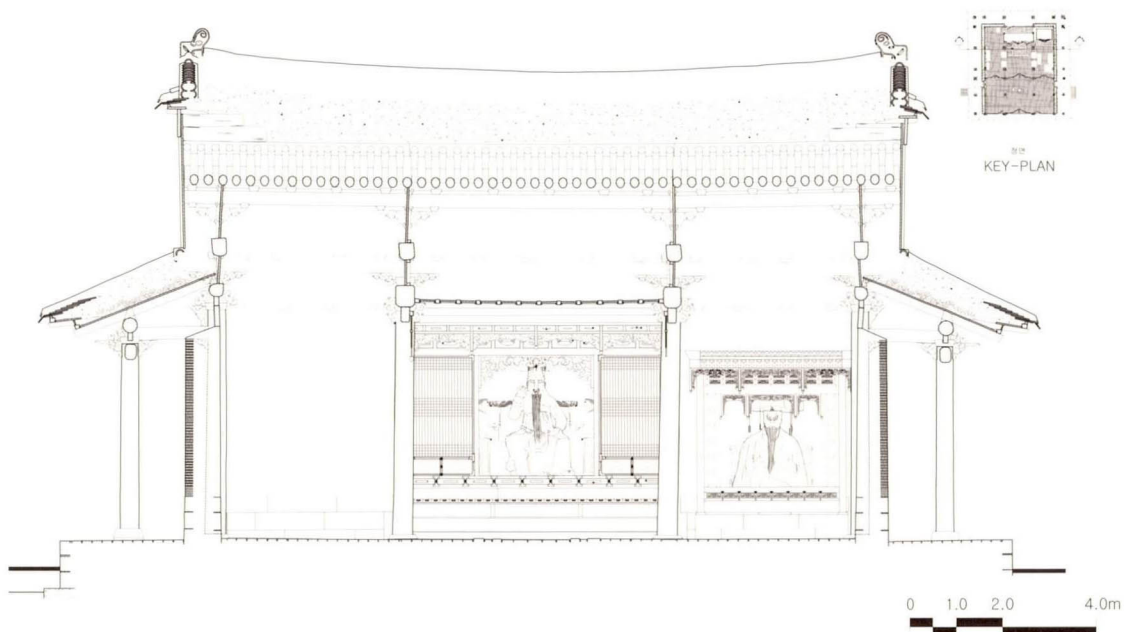
본실 정자각에서 돌출된 전실은 어칸의 지붕가구를 앞쪽으로 연장하여 맞배지붕 위에서 합각을 세워 마감하였다. 합각 가구 외에 좌우 협칸과 퇴칸 부분에는 전후 건물의 처마서까래와 부연이 서로 맞닿아 있으며 회점골로 모이는 지붕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가구는 전면 맞배집과 후면 정자각 형식의 본전을 연결해서 하나의 지붕가구를 이루고 있다.

(1) 보(樑)

전실에서 보는 대량과 종량 2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량은 전후 기둥 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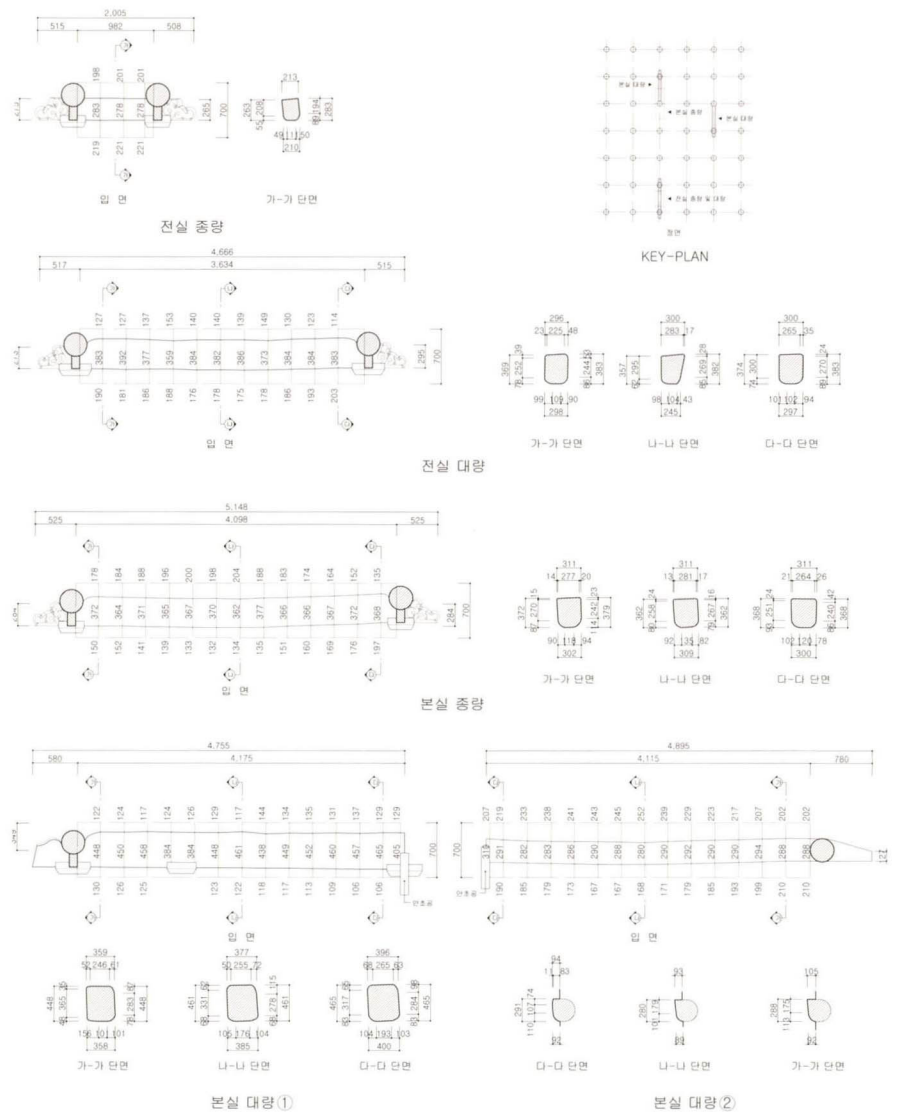
△ 종단면도



△ 횡단면도

3,769mm 사이를 연결하고 있으며 $300 \times 382\text{mm}$ 의 단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량의 단면 춤 382mm는 길이에 대해 약 1/10 정도가 된다.

종량은 $213 \times 283\text{mm}$ 의 단면으로 1,092mm의 도리 간격에 설치되어 있다. 단면 춤(283mm)은 길이에 대해 약 1/4 정도로 대량에 비해 비대한 크기로 나타나고 있다. 전실은 본전 지붕가구가 '丁'자 형태로 연결되어 나온 합각부를 지지하는 4량가로 짜여 있다. 종량은 4량가로 구성되면서 중간에 대공이 세워지지 않았으며 상부 적심 부위에 합각가구가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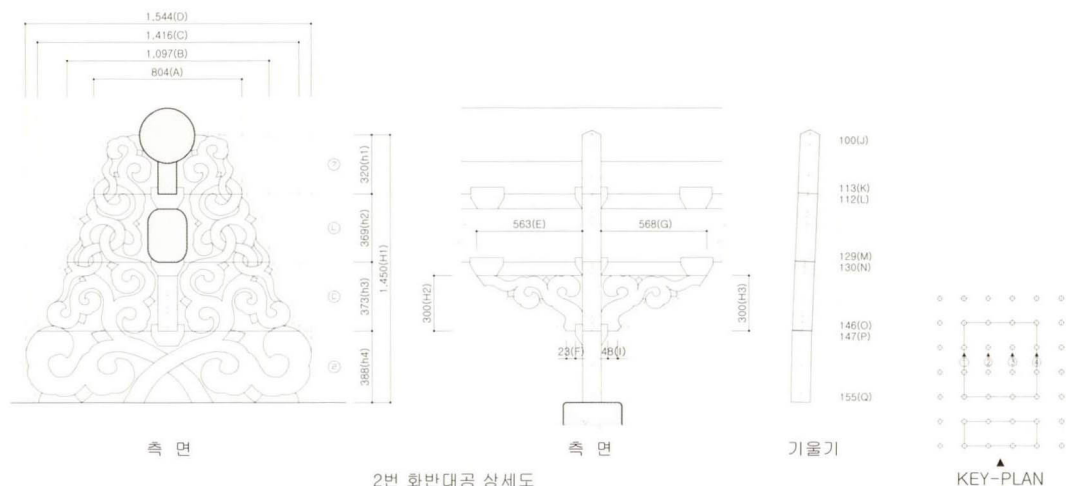
△ 보실측도

본실의 보는 전후 퇴량과 중앙 고주를 중심으로 대량 2개가 앞뒤로 연결된 맞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에 종량이 놓여 있다. 퇴량은 위치에 따라 각각 단면 크기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퇴량의 단면 축은 기둥 간격 1,903mm에 대해 약 1/7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⁹⁾

대량은 직경 290mm 내외의 자연재를 한쪽 면만 반듯하게 치목해서 사용하였다. 기둥 간격 4,359mm에 대해 대량 단면은 1/15 정도 크기의 비례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빈약하게 보인다. 부재 단면의 빈약함에 대해 대량 하부에는 고주 상단에 창방과 같은 높이로 인방재를 덧대어 보강하고 있다. 이 대량하부를 받치고 있는 인방재는 일반적으로 고주 상단에 결구되는 보아지를 기둥간 전체에 걸쳐 연량한 통부재 형태로 나타나 있다. 보머리 쪽으로 나와 있는 뿔목은 보아지와 같은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

종량을 받치는 대공은 대량의 중간에 세워져 있다. 종량 받침 대공은 대량 중간에 상부 하중을 전달하고 있다. 대량은 종량과 대공의 가구로 보아

9) 수장쪽에 대한 퇴량 단면 규격은 2×2,6배로 나타난다. 분(1/15材)에 대해서는 18,4×23,6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A	B	C	D	H1	h1	h2	h3	h4	TH				E	F	H2	G	I	H3	J	K	L	M	N	O	P	Q	기울기	방향
										①	②	③	④																
①	801	1,093	1,411	1,538	1,445	319	368	371	387					563	23	300	568	48	300	100	121	122	155	156	177	177	169	2.8°	→
②	804	1,097	1,416	1,544	1,450	320	369	373	388	108	107		108	110			568	48	300	100	113	112	129	130	146	147	155	2.2°	→
③	802	1,094	1,412	1,540	1,446	319	368	372	387	105	109	108	110				558	25	294	100	105	106	90	91	79	78	92	1.2°	→
④	805	1,099	1,419	1,547	1,453	321	370	374	388					563	22	305				100	106	106	119	118	132	134	99	1.8°	→

△ 종도리 화반대공 실측표

중앙부에서 집중 하중을 받아 처짐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아지가 대량 단부에만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불합리하여 전후 기둥 칸 전체에 걸쳐 장혀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종량은 전후 상중도리 칸 4,205mm에 걸쳐 단면 311×362mm 크기로 설치되어 있다. 종량이 받치고 있는 가구는 중앙에 종도리와 전후 보머리에 중도리로서 3량가로 이루어져 있다. 종량의 단면 좁은 길이에 대해 대략 1/12 정도의 비례로 나타나며 대량보다 큰 규격으로 사용되었다.¹⁰⁾

보머리는 양측 면에 당초무늬가 새겨져 있고 줄기의 윤곽을 따라가며 조각해 놓았다. 보머리에 새겨진 당초무늬는 대공이나 보아지와 함께 연속되어 있어 통일감 있게 보인다.

(2) 대공(臺工)

대공은 보와 보 사이 또는 보와 도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부재이다. 대공의 형태는 짧은 기둥으로 제작된 동자주나 판재로 이루어진 판대공, 공포로 짜여진 포대공 따위로 나타나 있다. 판대공과 포대공은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른 조각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물의 시대양식을 판별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동묘 정전에는 당초무늬가 조각된 판대공이 사용되었다.

대공은 종도리 아래에 사용된 종대공과 대량 위에 놓여 종량을 받고 있는 중대공 두가지 종류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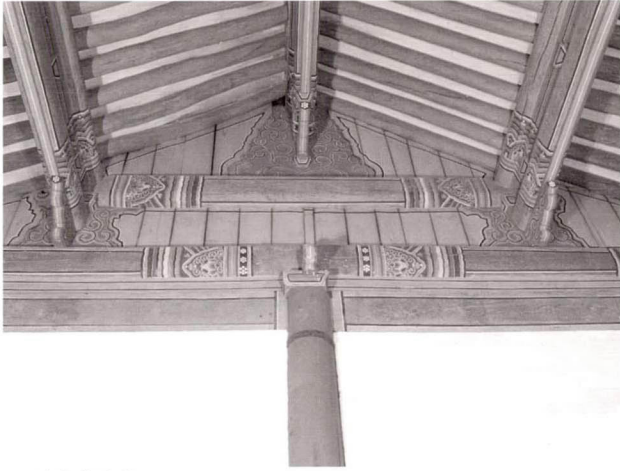
종대공은 모두 4개가 사용되었으며 중대공은 모두 8개가 사용되었다.

종도리 아래에 사용된 종대공은 위에서부터 종도리, 종도리장혀, 뜯장혀,



△ 정전 본실 정면 하중 도리

10) 종량 단면 311×362mm는 수장폭 105mm에 대해 2.96×3.45배 크기로 나타난다. 材分에 대해서는 26.7×31分 정도의 규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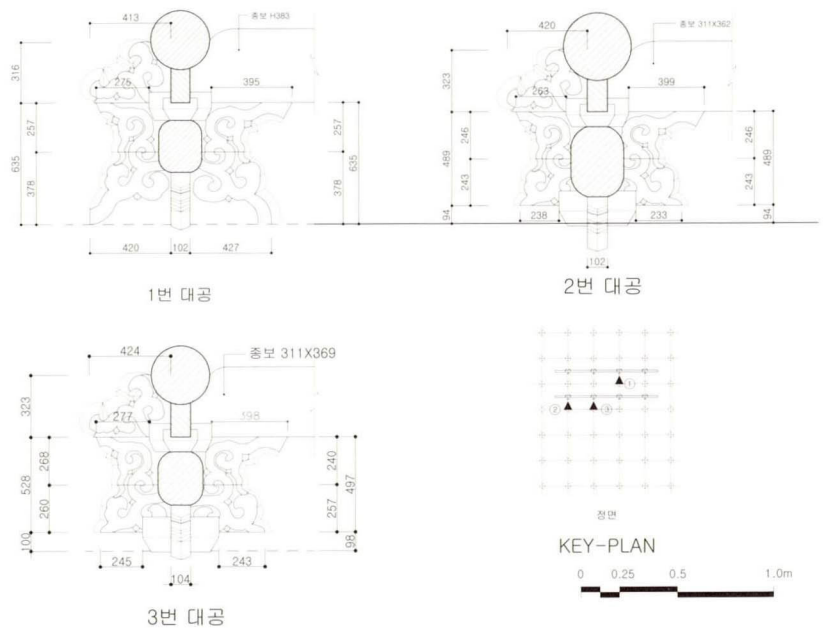
△ 전실 측벽대공



△ 본실 중대공

튼장혀를 받고 있는 초각한 부재와 직각으로 결구되어 있으며 상하 4개의 부재를 중첩하여 만들었다. 그 전체 크기는 높이 1,450mm, 폭 1,544mm, 두께 105~110mm 정도이다.

중량을 받치고 있는 중대공은 상중도리 장혀와 보머리를 받치는 채주두가 상단에 놓여 있고, 그 밑에 튼창방과 직각으로 결구되어 있다. 판대공의 전체 폭은 949mm 이며 본실 처마기둥 굵기(413mm)에 대해 대략 2.3배 정도의 크기로 제작되어 있다. 두께 105mm는 수장폭과 같은 크기로 나타나 있다. 높이는 하중도리와 상중도리 사이에 연결된 서까래 물매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635mm로 되어 있고, 상하 2개의 부재를 중첩하여 만들었다.



△ 대공 실측도

(3) 도리(道里) · 장혀(長舌)

정전에 사용된 도리는 전실에 주심도리, 종도리와 두가지와 본실에 주심도리, 하중도리, 상중도리, 종도리로 구성되어 있다. 도리는 모두 단면형태가 원형인 굴도리로 이루어져 있다.

도리는 전실에서 주심도리 297~318mm, 종도리 299~306mm의 직경으로 이루어져 있다.¹¹⁾

본실에 사용된 도리의 직경은 주심도리 321~355mm, 하중도리 287~317mm, 상중도리 295~354mm, 종도리 291~299mm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측치로 볼 경우 대체로 주심도리는 종도리나 종도리보다 단면이 큰 부재를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하중도리는 전면의 도리가 큰 단면의 부재를 사용하였으며 상중도리에서는 어칸의 도리가 다른 도리에 비하여 큰 단면의 부재를 사용하였다.¹²⁾

각각의 도리 높이와 간격은 실제적인 지붕가구의 물매를 결정짓는 것으로 전실에서 주심도리와 종도리 수평간격은 1,274~1,400mm 정도이며 수직간격은 576~622mm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종도리와 종도리 수평간격은 1,089~1,102mm 정도이다.

본실에서 주심도리와 하중도리 사이의 수평간격은 1,735~1,912mm 정도로 전면쪽이 조금 넓고, 수직간격은 676~825mm 정도로 역시 전면의 경우가 조금 높다. 하중도리와 상중도리 사이의 수평간격은 2,138~2,251mm 정도이며, 수직간격은 1,012~1,089mm 정도이다. 상중도리와 종도리 사이의 수평간격은 2,023~2,169mm, 수직간격은 1,400~1,521mm 정도이다. 하중도리와 상중도리 사이의 간격과 상중도리와 종도리 사이의 간격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평균값이 2,195mm와 2,093서로 비슷한 것으로 보아 도리의 수평위치 결정방법은 사분변작법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도리는 모임지붕을 제외한 지붕가구에서 좌우 측면에 이르면 내밀기가 형성된다. 전실처럼 맞배지붕일 경우에는 측면에서 도리를 내밀어 박공을 만든다. 도리 내밀기는 캔틸레버 구조를 이루므로 내민 길이는 부재 단면과 비례적인 관계의 법칙이 성립된다. 전실 박공에서 도리 내밀기는 1,082mm이며, 종도리 직경은 285mm로 이루어져 있다. 내밀기는 도리직경에 대해 3.8배 정도의 길이로 짜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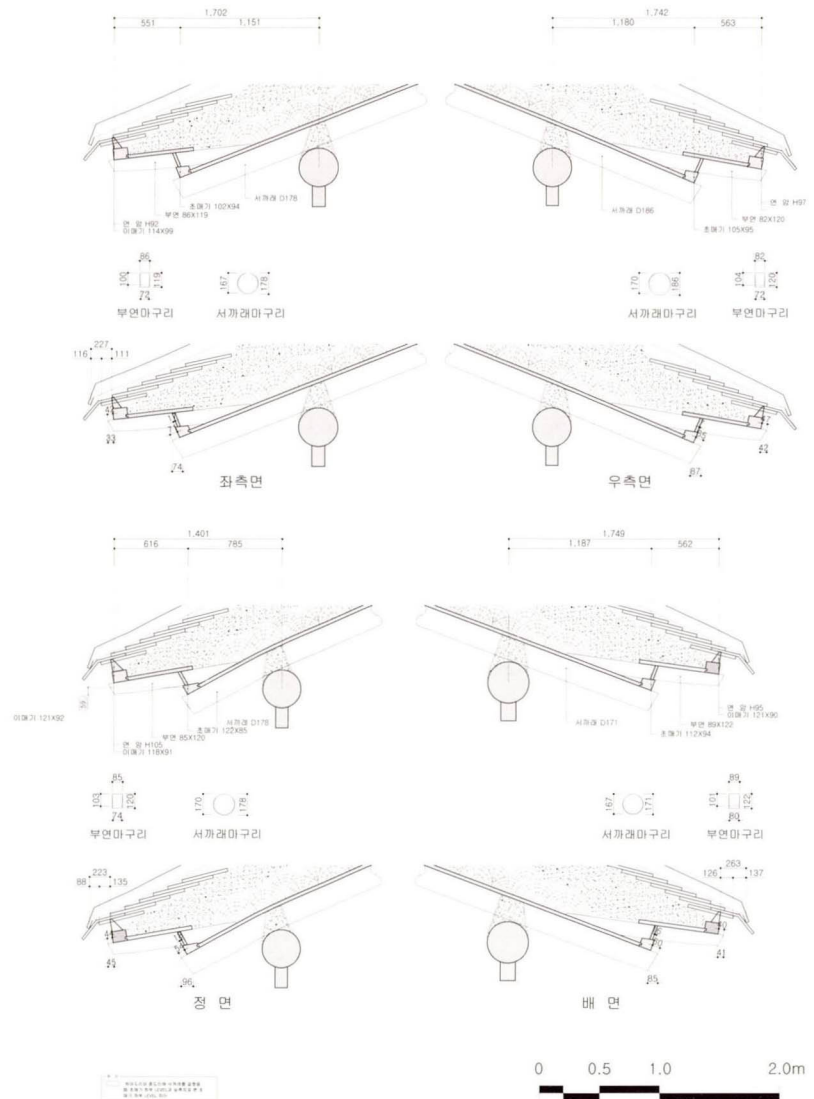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는 본실에서 도리 내밀기는 좌우 측면 합각 부분에서 나타나 있다. 내민 길이는 좌우측에서 각각 다르게 측정되고 있으나 짧은 쪽에서 769mm로서 종도리 직경 291mm에 대해 2.64배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7) 처마

전실과 본실 모두 부연을 갖춘 겹처마이며 그에 따라 모서리에 설치된 추녀 위에는 사례를 두었다. 본실은 모서리에 선자연을 사용하였고 양곡을

11) 도리 굵기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전실의 주심도리 직경 318mm는 수장쪽에 대해 3배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다. 종도리 굵기는 수장쪽에 대해 2.85배 정도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다.

12) 주심도리는 수장쪽에 대해 3.2~3.3배 정도의 직경으로 제작되어 있다. 종도리와 종도리 직경은 대략 수장쪽의 2.77~2.92배 크기로 나타나고 있다.



△ 서까래 및 부연 실측도

조절하기 위한 갈모산방을 설치하였다.

전체 처마내밀기의 실측치를 살펴보면 전면이 1,401mm, 후면이 1,749mm, 동측면은 1,742mm, 서측면은 1,702mm 정도이다. 주심에서 초매기 선단까지의 거리는 전면이 785mm, 후면이 1,187mm, 동측면이 1,180mm, 서측면이 1,151mm 정도이며 초매기 선단에서 이매기 선단까지의 거리는 전면이 616mm, 후면이 562mm, 동측면이 563mm, 서측면이 551mm 정도로 전면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연의 내민길이가 크다. 서까래와 부연의 내민 길이비는 전면에서 1: 0.78, 후면에서 1: 0.47, 동측면에서 1: 0.48, 서측면에서 1: 0.48이다. 전면의 경우를 제외하면 비교적 일정하게 처마를 내밀었다고 생각된다.

전면의 안허리곡은 초매기에서 152mm, 이매기에서 137mm 정도이며, 동측면은 초매기에서 298mm, 이매기에서 428mm 정도이다. 서측면은 초매기에서 334mm, 이매기에서 460mm 정도이며, 후면은 초매기에서 288mm, 이매기에서 381mm 정도이다. 안허리곡 정도를 비교하여 보면 서측면이 비교적 크게 나

타나고 있다.

전면의 초매기 앙곡은 173mm 정도이며, 동측면 710mm, 서측면 516mm, 후면 510mm 정도이다. 이매기에서는 전면 179mm, 동측면 950mm, 서측면 673mm, 후면 688mm 정도이다.

(1) 서까래(椽木)

전실에는 주심도리와 종도리에 걸쳐 1개 부재의 서까래만이 있으며 전면에 총 67개, 후면에 22개가 각각 사용되었다. 서까래의 크기는 직경 178mm 정도의 것을 사용하였고 마구리를 사절하고 끝건기를 하여 마구리 지름이 170mm 정도가 되도록 하였다. 서까래의 배치간격은 대략 240~340mm 정도로 배치되어 있다.¹³⁾ 서까래의 물매는 1: 0.47 정도이다.

본실에는 주심도리와 하중도리, 하중도리와 상중도리, 상중도리와 종도리에 각각 1개씩의 서까래가 하연, 중연, 상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까래의 수를 살펴보면 평연이 본실 전면에 2개, 후면 46개, 동측면 27개, 서측면 28개로 총 103개가 사용되었다. 선자연은 전면에 20개, 후면 18개, 동측면 20개, 서측면 20개로 총 78개가 사용되었다. 서까래의 크기는 직경 171~186mm 정도이며 마구리를 사절하고 끝건기를 하여 마구리 지름은 167~170mm 정도가 되도록 하였다. 서까래의 배치간격은 후면이 261~385mm 정도로 평균 310mm의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동측면은 284~357mm 정도로 평균 305mm, 서측면은 247~325mm 정도로 평균 295mm의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¹⁴⁾ 서까래의 물매는 전면이 1: 0.39, 후면에서 1: 0.42, 동측면에서 1: 0.41, 서측면에서 1: 0.41의 경사도를 갖으며 후면의 경사도가 조금 급하게 나타나고 있다.

(2) 부연·평고대·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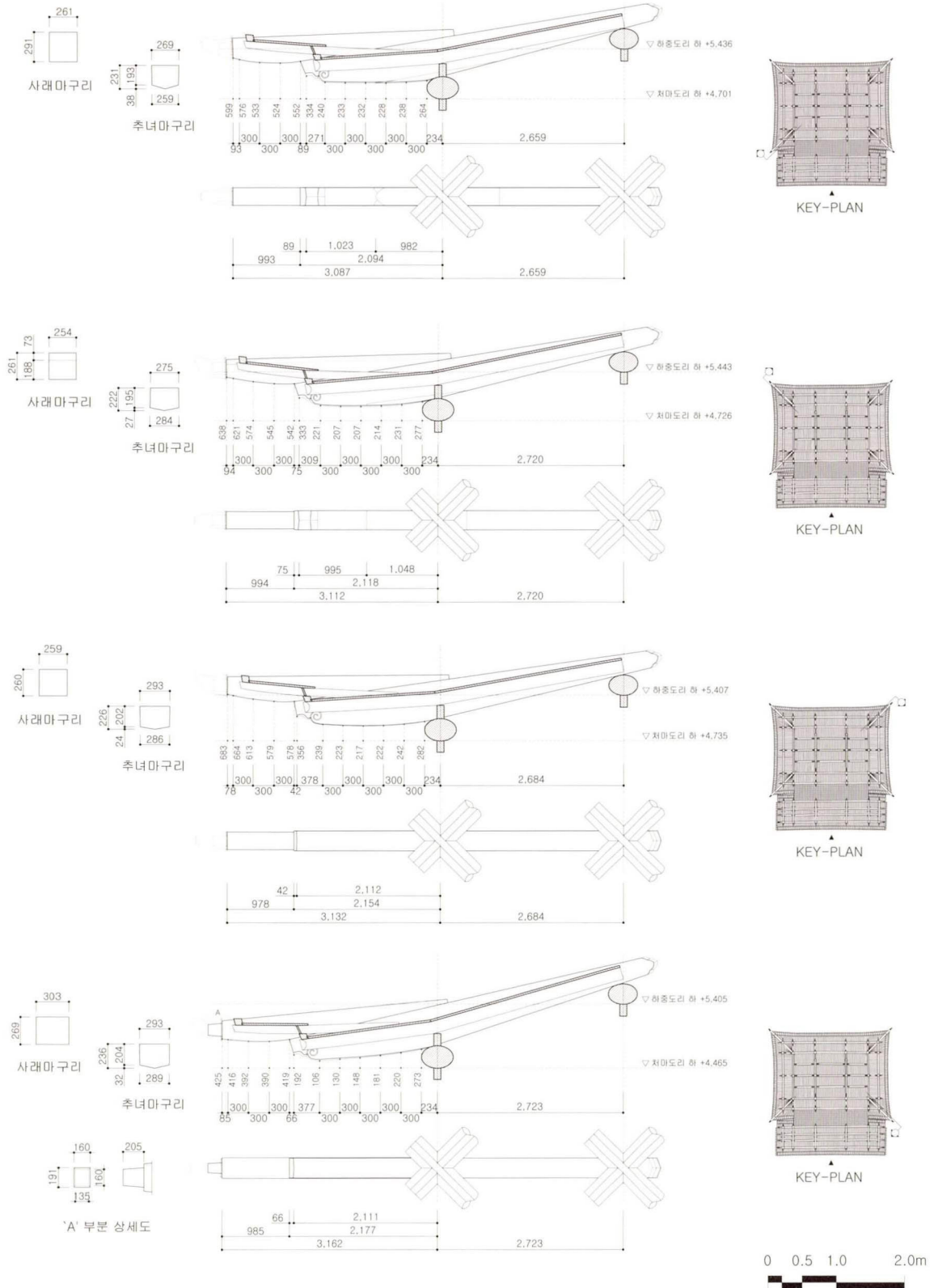
동묘 정전은 겹처마이기 때문에 초매기와 이매기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하연 위에 초매기를 걸고 그 위에 부연을 설치한 후 부연위에 이매기를 놓은 다음 연함을 놓아 기와를 엮었다.

전실 처마의 초매기는 폭 122mm, 높이 85mm 단면의 부재를 사용하였으며 서까래 끝단에서 54mm 정도 들여 놓았다. 이매기는 부연 끝에서 44mm 정도를 들여 놓았으며 폭 118mm, 높이 91mm 정도의 부재를 사용하였다. 부연은 폭 85mm, 높이 120mm 정도의 부재를 끝건기 하여 사용하였다. 부연 위에는 개판을 깔고 부연과 부연 사이에는 착고막이를 설치하였는데 그 위치는 평고대 끝에서 18mm 정도 안쪽으로 들인 위치이다. 연함은 이매기 끝단에 맞추어 설치하였으며 높이는 105mm 정도이다.

본실 처마의 초매기는 폭 102~112mm, 높이 92~94mm 정도의 부재를 사용하였으며 서까래 끝단에서 60~71mm 정도 들여 놓았다. 이매기는 부연 끝에서 40~47mm 정도 들여 놓았으며 폭 114~121mm, 높이 90~99mm 정도의 부재를 사용하였다. 부연은 폭 82~89mm, 높이 119~122mm 정도의 부재를

13) 서까래 배치 간격은 서까래 굵기에 대해 1.7배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14) 서까래 배치 간격은 전실과 마찬가지로 서까래 굵기에 대해 1.7배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 추녀·사래 실측도

양볼을 따내고 끝건기를 하여 사용하였다. 부연 위에는 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개관을 깔고 부연과 부연사이에는 착고막이를 설치하였으며 그 위치는 평고대 끝에서 6~17mm 정도 안쪽에 있다. 연합은 역시 이매기 끝단에 맞추어 설치하였으며 높이는 92~97mm 정도이다.

(3) 추녀·사래

동묘 정전에는 본실의 네 모서리에 추녀와 사래가 설치되어 있다.

추녀는 뒷뿌리를 하중도리 왕지부 위까지 내어 철물로 고정하였다. 추녀 폭은 전면 동측이 293mm, 서측이 269mm이며, 후면 동측이 293mm, 서측이 275mm 정도로 동측면의 추녀가 조금 굽다. 추녀의 머리부분 처리는 모를 접어 계눈각을 초각하고 마구리를 사절하여 마감한 일반적인 형식이며, 뒷뿌리는 초각하여 마무리 하였다. 추녀 끝 단면의 마구리는 높이가 222~236mm 정도로 폭이 넓은 장방형 형태를 하고 있다.

본실에서 추녀 내밀기는 건립 이후 세월이 경과하면서 처짐 등에 따른 변형으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내밀기 크기는 2,094~2,177mm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처짐 크기에 비례해서 내밀기 크기가 줄어들게 되므로 내민길이가 2,177mm로 가장 긴 전면 동측 추녀의 가구상태가 가장 잘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래는 부연이 있는 겹처마에서 추녀 위에 설치되는 부재이다.

사래는 폭 254~303mm 정도, 마구리 높이 260~291mm 정도의 사각부재로 머리부분에는 용두형태의 토수를 끼워 놓았다. 추녀 끝에서 부터의 토수가 끼워지는 마구리면 까지의 내민길이는 993~985mm 정도이며 추녀와 마찬가지로 전면 동측이 가장 긴 985mm로 나타나고 있다.

추녀 내밀기에 대한 사래 내밀기의 비는 1: 0.45 정도이다.



△ 정전 추녀부

8) 지붕

동묘 정전의 지붕은 다른 건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지붕형태를 하고 있다. 전실은 맞배지붕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실은 팔작지붕의 형태이다. 본실의 팔작지붕이 전실의 맞배지붕보다 높으며 본실지붕의 높이에서 전실 방향으로 연결지붕이 이어져 전체적으로 丁자형의 팔작지붕에 一자형의 맞배지붕이 붙어 工자형 지붕모양이 되었다.

지붕 경사도와 면곡은 전면 맞배지붕은 46%, 26mm 정도이며, 후면 팔작지붕 54%, 203mm, 동측면 51%, 29mm, 서측면 44%, 7mm 정도로 후면의 지붕 경사가 가장 급하며 그 면곡 역시 가장 크다. 최대 면곡이 발생하는 지점은 대략 지붕 안쪽으로 2/3지점이다.

(1) 지붕마루

용마루는 적심도리 위에 산방을 포개 올리고 적새 기와를 쌓아 올리므로 양측 합각 부위에서 높아지는 곡선을 형성하게 된다.

본실의 용마루는 높이 872mm의 양성바름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양단에 취두가 놓여져 있다. 용마루의 길이는 14,503mm이며, 용마루 곡선은 지붕 중앙부에서 474mm가 깊어진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실 지붕의 합각을 이루는 내림마루는 용마루보다 낮은 589mm 정도 높이의 양성바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내림마루에는 일반적으로 하단에 용두가 놓여지는데, 동묘 정전 본실에는 중간에 1개가 더 놓여져 2개로 구성되어 있어 특이하다. 내림마루 역시 중간부위가 아래로 가라앉은 곡선을 이루며, 그 길이는 평균 339mm 정도로 나타난다. 그 길이는 6,084~6,327mm 정도이며 배면 서측 내림마루에서 가장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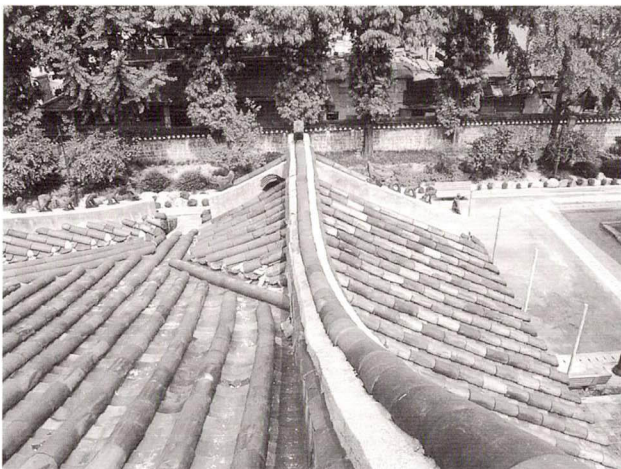
추녀마루는 팔작지붕에서 합각부 하부 지붕 모서리를 마감 짓는 것으로 본실 추녀마루는 평균 419mm 높이의 양성바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추녀마루에 나타나는 곡선은 양단을 있는 직선에서 최대 125mm 깊이를 갖고, 그 길이는 4,166~4,592mm 정도로 본실 전면 동측 추녀마루가 가장 길다.

일반적으로 주요 전각의 추녀마루 위에는 용두를 비롯해서 잡상이 놓여진다. 본실 잡상은 현재 각 부위별로 종류와 개수가 달라 본래의 법식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창덕궁 인정전을 비롯해서 덕수궁 중화전에 이르기까지 궁궐 정전의 잡상은 대개 처마기둥 높이 2尺당 1개 수량으로 설치되어 있다.¹⁶⁾

정전의 예로 미루어 짐작컨대 잡상은 동묘 본실에서도 당초에는 법식에 따라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실 처마기둥 높이는 3960mm 내외로 나타나 있으므로 본래 잡상은 7개(홀수)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면 우측 추녀마루에 7개의 잡상이 남아 있으며 종류와 각각의 형태도 다른 부위보다 양호한 편이다.

본실과 전실로 지붕이 丁자 형태로 이어지는 곳에 역시 용마루를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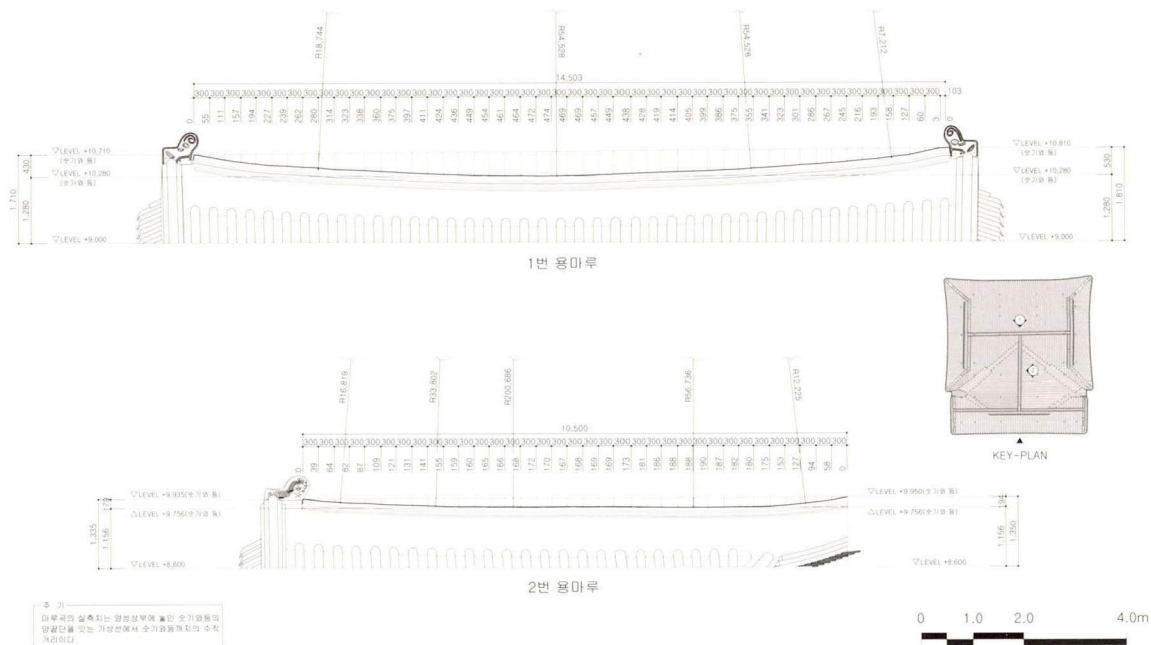
16) 김덕문, 『中和殿 實測 修理調査報告書』, 문화재청, 2001, p.232.



△ 전실 우측 용마루



△ 좌측 지붕골



△ 용마루 실측도



△ 전실 우측 내림마루 용두



△ 전실 우측 정면 내림마루 잡상

하였다. 그 전체 길이는 10,500mm, 높이 924mm 정도로 양성바름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끝에는 취두를 놓고 그 아래쪽으로 내림마루를 만들어 정면을 향하는 합각면을 구성하였다. 최대곡은 전체길이의 후반 2/3 지점에서 188mm의 값을 갖는다.

전실 용마루는 본실에서 이어져 형성된 합각면 내림마루가 양끝에서 맞배지붕의 용마루가 되는 형태이다. 그 길이는 동측 9,659mm, 서측 9,682 mm, 높이 883mm 정도로 양성바름하여 만들어져 있으며 그 끝에 용두를 놓았다. 또한 내림마루가 용마루로 바뀌는 부근에서 최대곡을 가지며 그 정도는 동측 982mm, 서측 899mm이다.

(2) 합각·박공

합각은 팔작지붕 측면 상부에서 맞배지붕의 박공형태로 세워져 지붕가구를 마감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으로 동묘 정전에서는 정면, 동측면, 서측면의 3곳에 만들어져 있다. 합각은 기본적으로 합각박공과 풍판, 목기연,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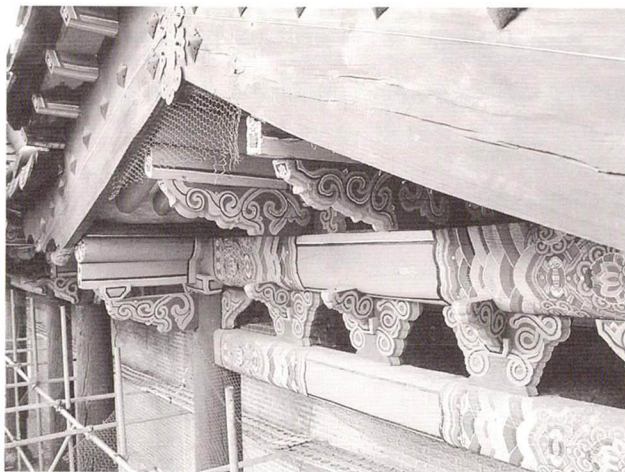
네철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 합각의 크기는 하면폭 8,313mm, 높이 2,003mm 정도로, 두께 70mm, 폭 347~424mm 정도의 박공판을 사용하였으며, 깊이 최대 63mm 정도의 곡을 두었다. 또한 박공판이 연결되는 부위에는 폭 182mm, 높이 398mm, 두께 1mm의 지내철을 사용하였으며 못으로 고정하고 얇은 철판으로 제작된 100×98mm 크기의 방환을 씌워 장식을 겸하고 있다. 박공판 위로는 목기연을 두고 목기연위에 두께 43mm의 목기연개판을 목기연 끝에서 26mm 들여 깔고 그 위에 높이 86mm의 연합을 올려놓았다. 목기연의 크기는 폭 87mm, 높이 105mm 정도의 부재를 사용하였으며 박공널에서 228mm 내밀었다. 마구리는 아랫면으로 24mm 들여 사절하였으며 6mm 정도 훑어 올렸다. 양볼은 12mm 정도 접어 올렸다.

박공판 아래로는 세로로 판재를 잇고 60×85mm의 줄대를 사용하여 풍판을 만들었는데 사용한 판재하나의 크기는 대략 231~289mm 정도이다.

동·서측 합각의 크기는 평균 하면폭 8,522mm, 높이 2,898mm 정도이다. 박공은 두께 70mm, 폭 480mm 정도 규격의 판재로 제작되어 있다. 박공판하단은 위아래 양단을 잇는 직선에서 깊이 54mm 정도의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상단 역시 지붕 곡선에 따라 곡선으로 제작되어 있고, 홈을 파서 목기연을 끼워 설치하고 있다. 목기연은 단면 85×105mm 크기로 약간 작은 부연 형태로 제작되어 있으며 그 끝을 평균 25mm 정도 들여 사절하였다. 또한 양볼을 5mm 정도 접어 올렸으며 그 바닥은 4mm 정도 훑어 올렸다. 박공판으로 부터는 230mm 정도 내밀었으며, 그 위에 두께 44mm의 목기연개판을 목기연 끝에서 25mm 들여 덮고, 높이 96mm의 연합을 올려놓았다. 풍판은 크기 208~379mm 정도의 판재를 세로로 잇고, 이음새에 60×85mm의 띠장을 덧대 붙여 세워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마감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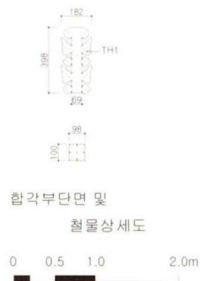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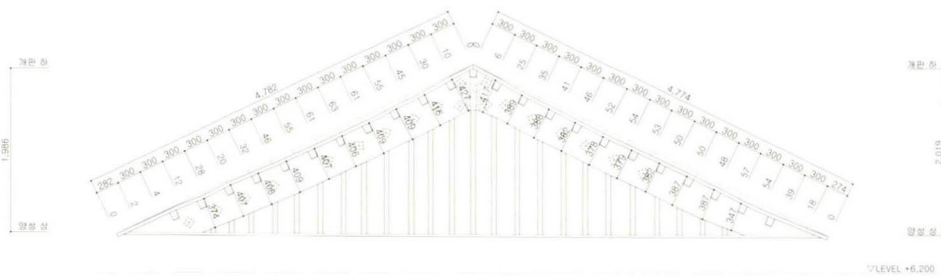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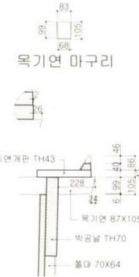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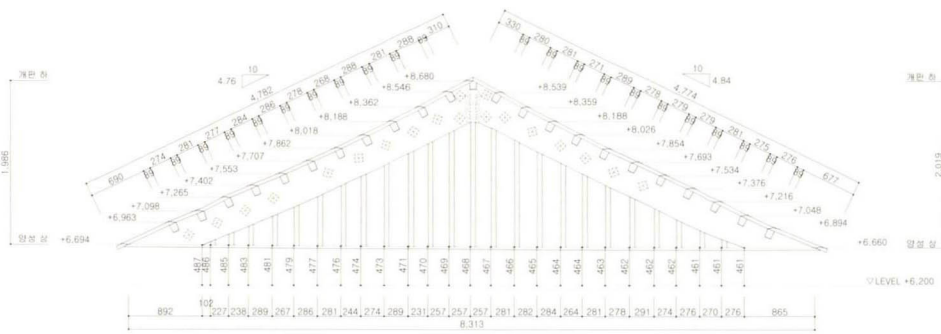
박공판은 못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얇은 철판으로 제작된 동측면 98×91, 서측면 105×107mm 크기의 방환을 씌워 장식을 겸하고 있다. 합각 상단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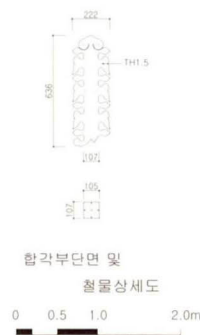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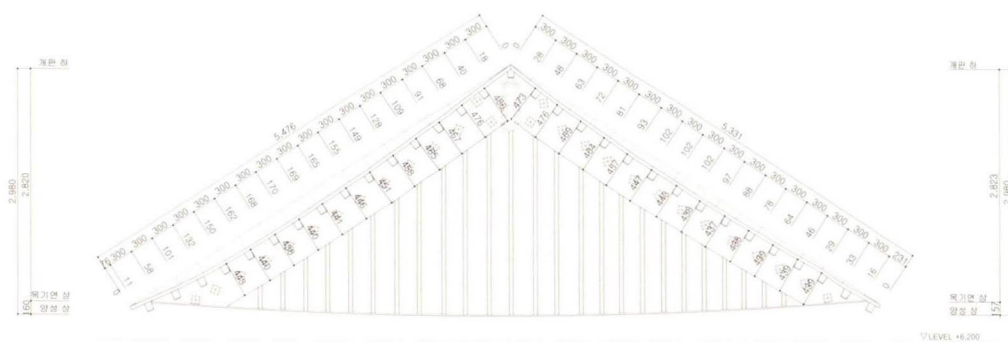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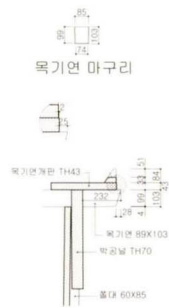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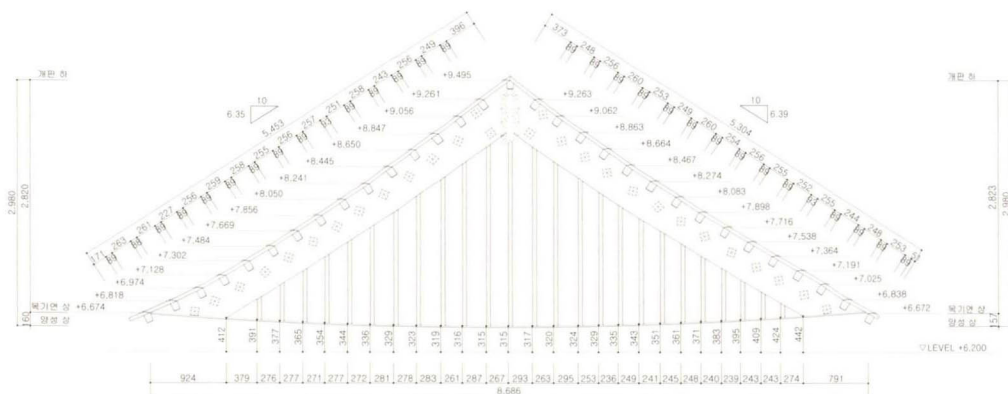
△ 전실 좌측 박공부 상세



△ 전실 박공부 계눈각



△ 합각부 실측도(정면)



△ 합각부 실측도(측면)

공널이 맞대어 짜여지는 부분에는 지네철이 두께 1.5mm 철판으로 폭 222~225mm, 길이 636~740mm 정도 되는 지네 모양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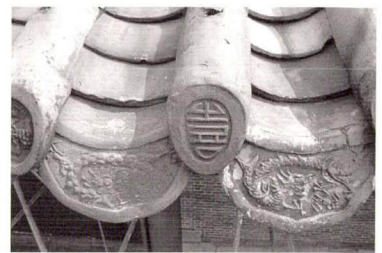
그 외에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는 전실 좌우 측면 박공은 풍판 없이 박공판으로만 마감되어 있다. 박공판은 두께 77mm, 폭 340mm 정도의 판재를 상하로 포개 이어 하나의 부재로 만들어 놓았다. 박공판 윗면으로는 단면 84×115mm 크기의 목기연을 끼워 설치하였으며, 그 끝을 42mm 들어 사절하고 7mm 정도 양볼을 접어 올렸으며, 그 바닥은 14mm 정도 훔쳐 올렸다. 박공판으로부터는 253mm 정도 내밀었으며 그 위에 두께 39mm의 목기연 개판을 목기연 끝에서 49mm 정도 들어 덮고 높이 91mm의 연합을 올려놓았다.

또한 서로 맞댄 부위에는 폭 282mm, 높이 791mm, 두께 1mm의 지네철을 대어 장식하고 있으며, 이음새에는 크기 112×112mm의 방환을 배치하였다. 또한 각각의 판재 하단 끝에 계눈각을 따로 새겨 넣어 2개의 박공판을 포개 놓은 것처럼 보인다.

(3) 기와

기와는 1996년에 실시한 기와공사로 상당부분 신와로 교체된 것으로 여겨지며 일부 남아있다. 솟기와 가운데 구와는 본실 동, 서측면과 후면에 주로 남아 있으며, 암기와는 전부 신와로 교체되었다.

주로 사용된 솟기와는 폭 200mm, 길이 360mm, 두께 27mm 정도의 것, 폭 178mm, 길이 362mm, 두께 30mm 정도의 것 등 두 가지이며, 암기와는 폭 303mm, 길이 396mm, 두께 18mm 크기의 기와이다.



△ 막새기와 상세

막새기와의 경우 솟막새에는 희(喜), 무궁화, 2종의 봉황 등 모두 4가지 문양이 사용되었는데 희(喜)를 새긴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암막새는 당초, 2종의 용, 박쥐, 연꽃 등 모두 5가지 문양이 사용되었는데 이 가운데 용문양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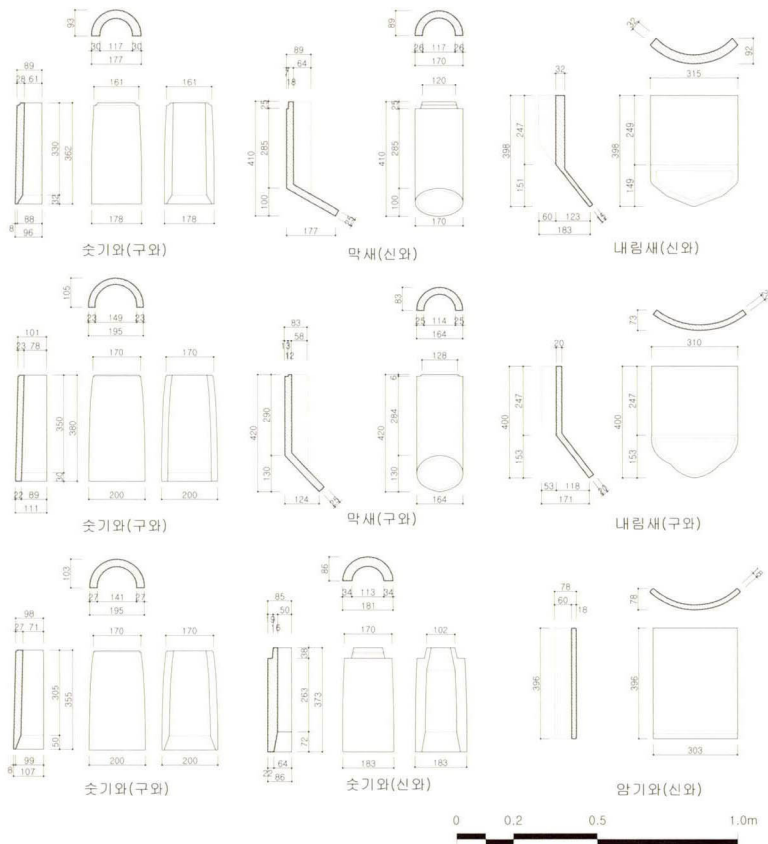
이외에 용마루에는 모두 5종류의 용두가 사용되었으며, 취두 또한 2종류로 나타나고 있다.

9) 수장(修粧)

(1) 벽체(壁體)

동묘 정전의 벽체는 정면을 제외한 3면은 화방벽으로 구성하였는데 하부에 장대석을 3단으로 쌓고, 창방 하단까지 벽돌(塼)로 쌓아 올렸다. 벽돌은 장대석위로 5단을 줄눈없이 쌓았으며 그 위로 줄눈을 넣고 각 모서리에는 장대석을 한단 더 쌓아 보강하였다.

화방벽은 일반적으로 벽체 중간 정도까지 설치된 경우와 달리 창방 위



△ 기와 실측도

치까지 벽체 전체에 설치되어 주로 능원이나 선원전 등 묘제건축에서 나타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두 개의 건물을 지붕가구에서 연결하고 다시 벽체로 통합하여 하나의 내부공간을 형성한 점이 특이하다.

전실과 본실 사이의 측면 벽체에는 화강석으로 제작된 홍예문을 설치하였다. 홍예문은 하부 장대석 벽체 위에 화강석 기둥을 좌우 양측에 세우고, 상부에 1매석으로 제작한 홍예석을 올려놓았다. 홍예 크기는 지름 1,000mm 정도이며 반원이 안 되는 145°의 원호로 제작되어 있다.

(2) 창호(窓戶)

전실 정면에 사용된 창호는 75×86mm 단면의 각재로 울거미를 짜고, 26×26mm 굵기의 문살을 마름모꼴로 세운 띠살문으로 되어 있다. 문살 모양으로 보아 창호지를 바르지 않았으며 채광을 위한 광창으로 제작되었다고 보인다. 하부에는 2단으로 궁판을 구성했으며, 띠살 중간에 다시 띠장을 걸어서 문살을 2단으로 나누고 있다. 좌우 헐칸에 사용된 문짝 크기는 1,045×2,463mm로 가로 : 세로 비율이 1 : 2.4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후미 본실 정면에는 다시 정자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창호지를 바르지 않았으나 궁판이 3단으로 높게 구성되어 있다. 울거미는 85×105mm 단면의 각재로 짜여 있으며, 궁판 띠장은 약간 가는 규격의 85×93mm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우 헐칸에 설치된 문짝은 790×3,093mm로 가로 : 세

로 비율이 1 : 4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 어칸 문은 협칸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짝은 가로 세로 1 : 2.7의 비례로 이루어져 있다.

정전 후면에는 중앙 어칸에서 중방 하부 벽체를 판벽으로 구성하고 한쪽에 판문을 달았다. 중방 상부에는 정자살 창문을 채광을 위한 불박이창으로 설치해 놓았다. 판문은 울거미를 61×74mm 각재로 짚으며 상하 중간에 200mm 간격으로 띠장 23×40mm를 걸어서 판재를 고정시켜 막아놓았다. 중간 띠장 상하부 궁판에 다시 2개씩 띠장이 덧대어져 있으나 맞춤부에 철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본래의 창호 맞춤 가공기법도 볼 수 없는 관계로 후에 보강된 부분으로 판단된다. 판문은 가로 세로 942×1,895mm 크기로서 1 : 2의 비례로 제작되어 있다. 울거미와 띠장 등 창호 틀에는 다른 문짝들과 마찬가지로 맞춤부에 모두 철판을 덧대서 보강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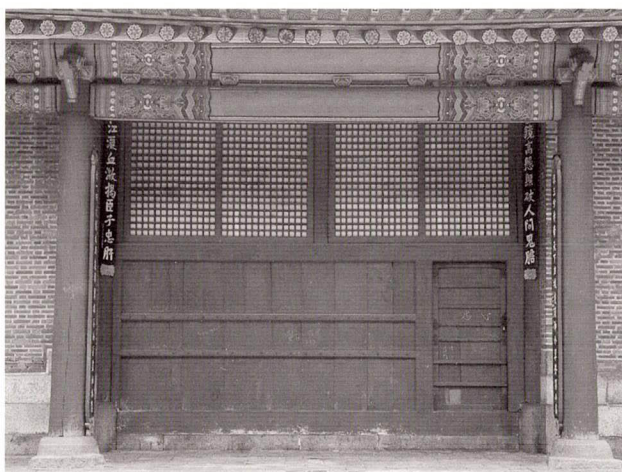
후면 어칸 상부에 나타나 있는 정자살창은 가로 2,403mm, 세로 1,894mm로 크게 울거미를 짜고, 다시 중간에 중깃을 세워 문얼굴을 2칸으로 나누어 문살을 짜 넣었다. 문얼굴의 가로 세로 비는 1.3 : 1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불박이창으로 여닫는 기능이 없으므로 돌쩌귀를 비롯해서 문고리 같은 철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문짝나누기도 하나의 중깃을 세우는 방식으로 최적의 기능만을 강조하여 처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시관음상을 봉안한 감실에는 좌대 상부 양측에 띠살문이 1,425×2,604mm 크기로 설치되어 있다. 울거미는 45×61mm 각재로 문 크기에 비해 가는 부재로 짜여 있고, 아래 넓은 궁판에는 중간에 세로로 띠장을 세워 칸을 나누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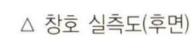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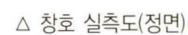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생시관음상을 봉안한 감실에도 좌대 위에 완자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 완자문은 4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면 벽을 닫아 가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짝은 550×1,990mm의 크기로서 34×66mm 정도의 각재로 울거미를 짚으며, 하부에 299mm 높이로 띠장을 걸고, 궁판을 넣었다.



△ 전면 어칸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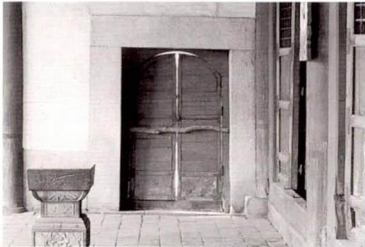


△ 후면 어칸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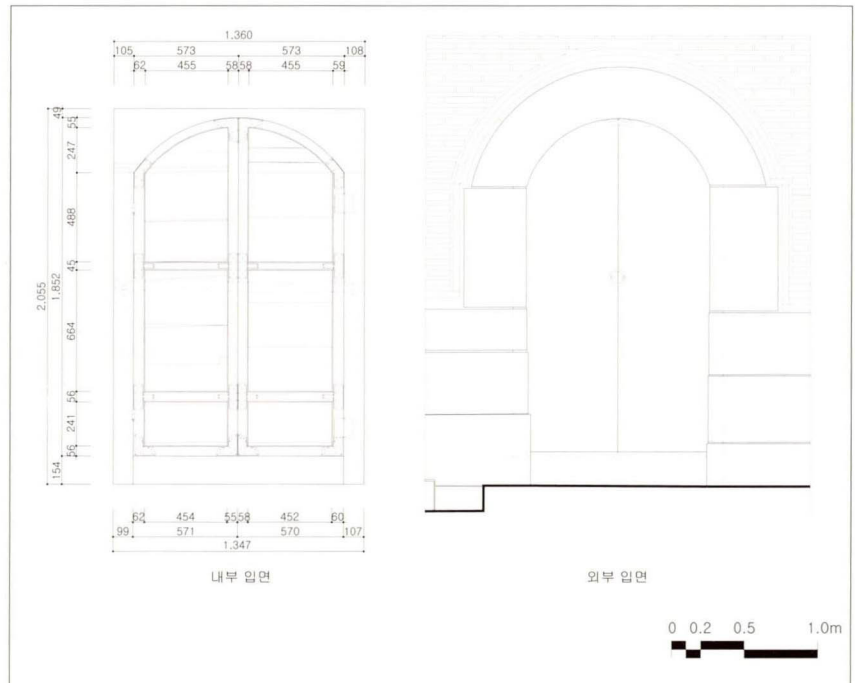




△ 정전 홍예문 외부 전경



△ 정전 홍예문 내부 전경



△ 측면 벽체 홍예문 상세

(3) 천장(天障)

천장은 전실과 본실을 연결하는 칸과 본실 어칸에 우물반자가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위는 연등천장으로 처리되어 있어 지붕가구가 노출되어 있다.

연결 칸 우물반자는 66×66mm 각재를 반자들을 전후 789mm, 좌우 725mm 간격으로 걸고, 소란을 25×25mm 각재로 붙인 다음 두께 30mm의 반자판을 올렸으며, 반자판에는 2마리의 두루미를 그려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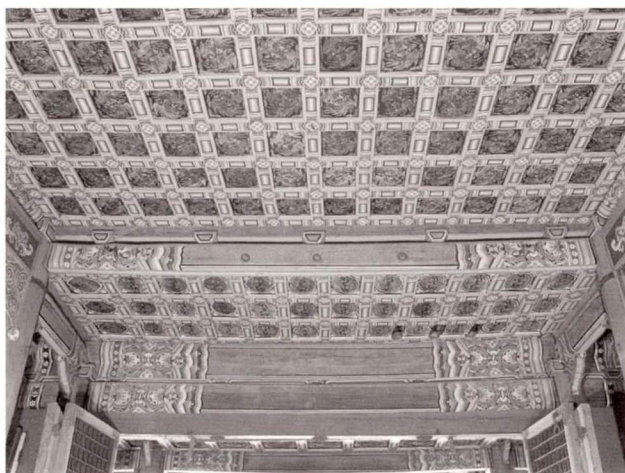
본실 어칸의 우물반자는 85×85mm 각재를 전후 459mm, 좌우 438mm 간격으로 설치하고, 소란을 25×25mm 각재로 붙인 다음 두께 30mm 판재를 반자판으로 올렸다. 반자판에는 관우상 전면으로 한쌍의 봉황을 그려 넣었고, 후면으로 연꽃 5송이를 그려 넣었다.

10) 단청(丹靑)

외부와 전실 내부 단청은 본실 내부와 달리 후에 다시 도채된 듯 뇌록 등 색상과 시공기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모로단청 형식을 띠고 있으며, 외부도리 및 창방 문양은 장구머리초를 구성하였다. 내부반자는 네 종류의 문양 중에서 세 곳에 쌍 두루미 또는 봉황을 황색과 백색으로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각 부재별로 단청을 살펴보면 기둥은 석간주가칠만을 하고, 주의를 구성하지 않았다. 주두는 녹실, 황실로 틀을 짜고 그 안에 녹화를 베푼 후 양쪽으로 녹박지를 두어 안정감을 주었다. 육색, 삼청 결연을 하고 상단 모서리에는 사등분 육색주화를 두었다. 소로는 주두와 마찬가지로 녹실, 황실로



△ 본실 어칸 천장 우물반자



△ 본실 협칸 천장 연등 천강

틀을 짜고 그 안에는 녹화를 그렸다. 녹화간 딱지 위치에 삼색항아리를 두었는데 그 위에 민주점을 찍지 않았다. 하엽 바탕색에 상단모서리 양쪽으로 사등분 육색주화를 구성하였다.

익공은 보머리 초각과 함께 당초문에 오금을 주어 틀었다. 좌우로 전개될 때 생기는 골에 장식은 육색 배주기(꽃싸)을 그려서 푸른 기운의 녹색에 조화하였다. 바탕 공터에는 대체로 석간주 색을 칠해 매워놓았다.

창방과 도리는 같은 문양을 사용하였다. 창단과 하엽 광두정 직휘로 겹직휘 하였으며, 낙은동을 구성한 장구머리초를 그렸다. 녹실, 황실의 둘레 실에는 삼청 버전본 문양으로 감싸안아 독특한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중앙 비녀장을 삼청으로 묶었다. 온바탕에는 하엽, 반바탕에는 석간주로 바탕색을 넣어 보색대비 하였다. 인휘에는 육색, 삼청, 황, 석간주로 하고 삼색 휘골장식을 하였다. 쇠첩에는 양청 삼빛을 하고, 녹실다음에 육색, 늘휘를 넣고 황실, 먹당기 마감하였다. 연단에는 육색 연화로 구성하였다.

내부 도리·창방에는 먹직휘, 장단직휘 다음에 연화머리초를 구성하였다. 연화 석류동 주문양에 장단, 삼척, 황, 녹, 석간주를 인휘로 하였으며 휘골장식에는 삼색항아리를 두고 쇠첩, 녹실, 황실, 먹당기로 마감하였다. 뿔목도리는 반주화 머리초이다. 먹직휘에 육색반주화를 주문양으로 하고 사판 녹화를 두른후 황실직휘에 붙여서 삼청 반질림이 들어왔다. 녹실, 황실로 녹화를 감싸고 녹실, 황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골 장식에는 삼청 이색항아리를 두었다. 육색, 삼청, 늘휘 후 쇠첩, 녹실, 황실 먹당기를 하였다.

대량은 병머리초로 구성하였다. 하엽 광두정직휘에 온바탕 머리초와 반바탕 머리초를 두었는데 바탕색은 하엽과 석간주로 보색대비 하였다. 통상적으로 직선질림을 두는 곳에 삼청 버전본을 그려서 부드러운 감을 주었으며 비녀장을 녹실, 황실로 묶었다. 반바탕 반머리초의 주문양은 육색 반주화머리초로 하였으며, 인휘를 육색, 삼청, 황, 녹, 석간주의 오휘를 두고 삼색휘골 장식 후 쇠첩에 양청 이빛을 하였다. 쇠첩 후 녹실 다음에는 다시 육색 늘휘를 도채하고 황실 먹당기하였다.

서까래에는 속녹화 위에 칠판 육색 입면연화를 그리고 삼청둘레 주화를 연꽃 사이에 그려 넣었다. 연화 위에 석류동을 놓고 그 위에 석간주 향아리를 놓았다. 육판 둘레 녹화의 중앙 녹화 사이 딱지 위치에는 삼색향아리를 넣어서 단조로움을 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둘레에는 녹실, 황실로 감싸 돌렸고, 측면실은 둘레실을 관통하여 녹화까지 오도록 하였다. 육색, 삼청, 석간주 인화에 휘골장식은 삼색향아리를 두고 쇠첩, 녹실, 황실, 먹당기로 마무리하였다.

부연개판은 방석초로 구성하였다. 중앙에 사판 육색 주화를 그렸으며 주화의 모양은 하낭배 양쪽으로 더 길게 하여 6개의 둘레 녹화를 두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부연은 녹화머리에 육색, 삼청, 석간주 늘휘를 두었으며 하엽, 쇠첩, 녹실, 황실 먹당기하였다. 밑면은 쇠코녹화를 주문양으로 하였는데, 이는 좁은 폭에 그려 넣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부연착고는 녹실 위에 녹화를 그리고 양쪽에 녹딱지를 두었으며 녹실만으로 둘레를 돌린 다음 먹기화로 마감하였다.

전실 반자는 쌍 두루미를 단색으로 표현하였다. 한쪽은 백색선으로 다른 한 쪽은 황색선으로 그렸고, 머리와 부리를 별도 채색하여 단조로움을 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실 반자는 쌍 봉황을 황색선으로만 묘사하였다. 섬세하고, 또 살을 쳐서 변화를 주었다. 테두리에는 풍혈모양으로 겹황실을 써서 경계를 지었다. 네 모서리에는 색구름을 대칭으로 배치하였으며 황색 실선으로 표현하며 구분하였다. 본실 후면 반자에는 육색 연화를 다섯 개 배치하였으며 중앙에 황색, 우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육색, 장단, 삼청으로 오색연화를 구성하였다. 중앙의 화심에는 연화와 보색관계의 색을 방울로 그렸으며 세곳으로 그 빛을 넣고 세 방향에 사분으로 구분하였다.

(한 욱)

東廟의 建築



사진
도면
자료















정전 전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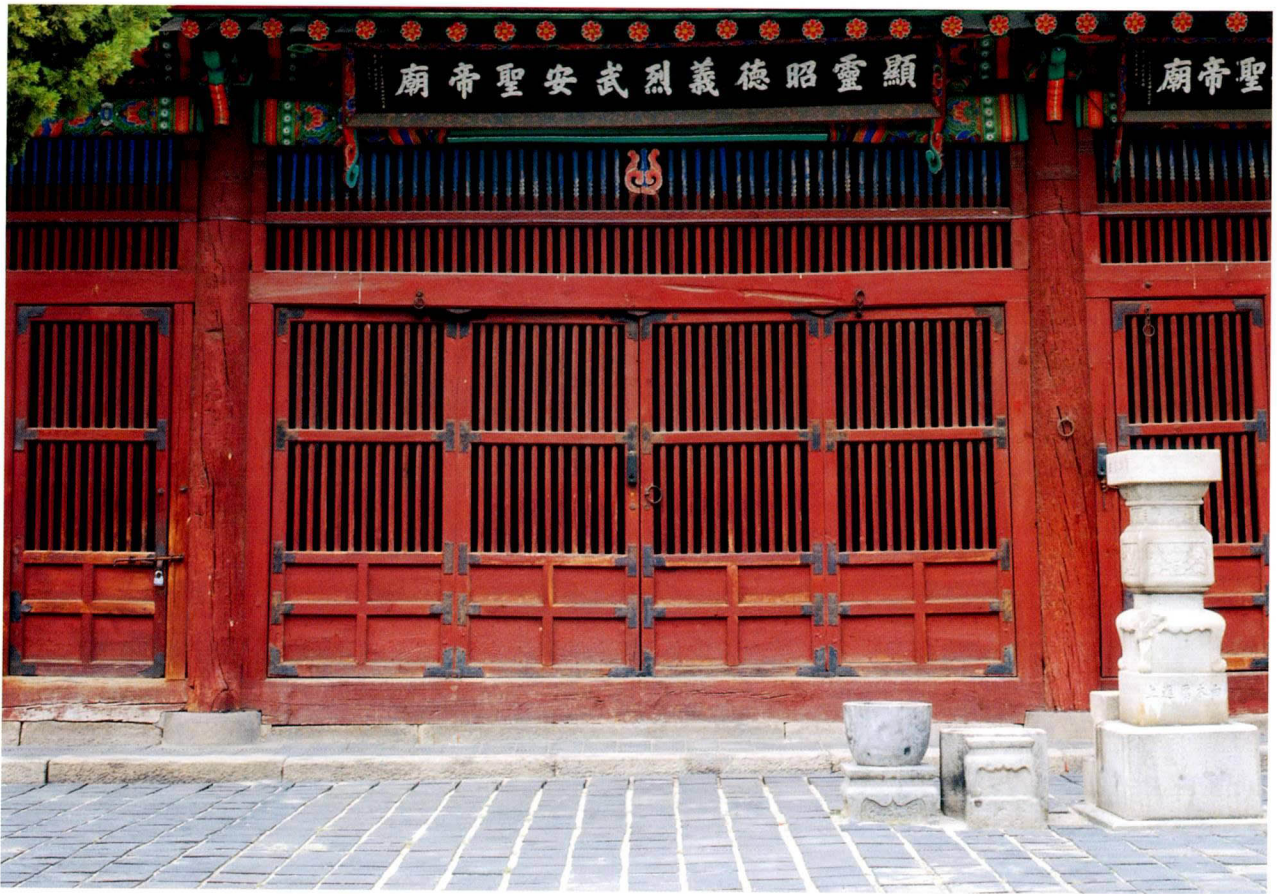
정전 후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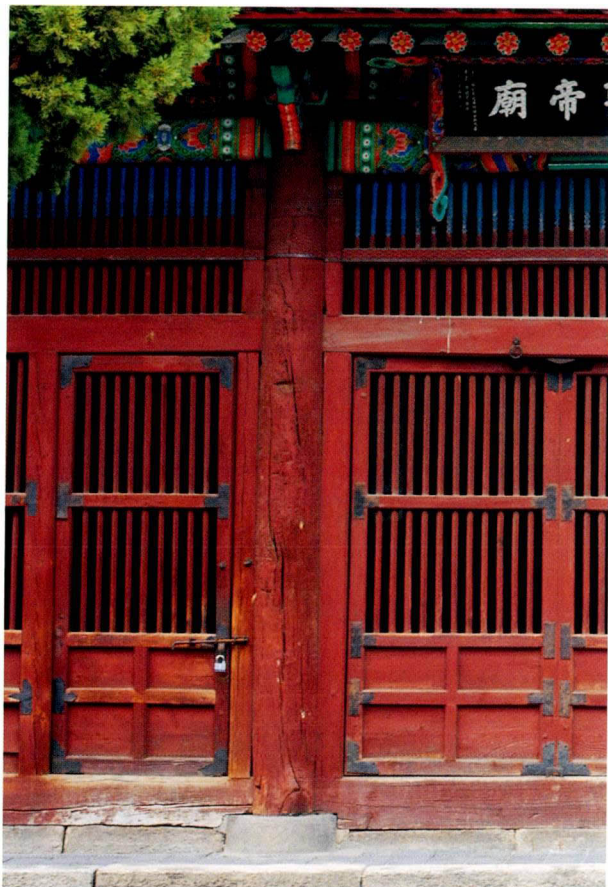
정전 동측면 전경



정전 서측면 전경



정전 전면 어칸 구성



정전 전면 어칸기둥(좌측)



정전 전면 퇴칸 및 귀기둥(우측)



정전 어칸 평주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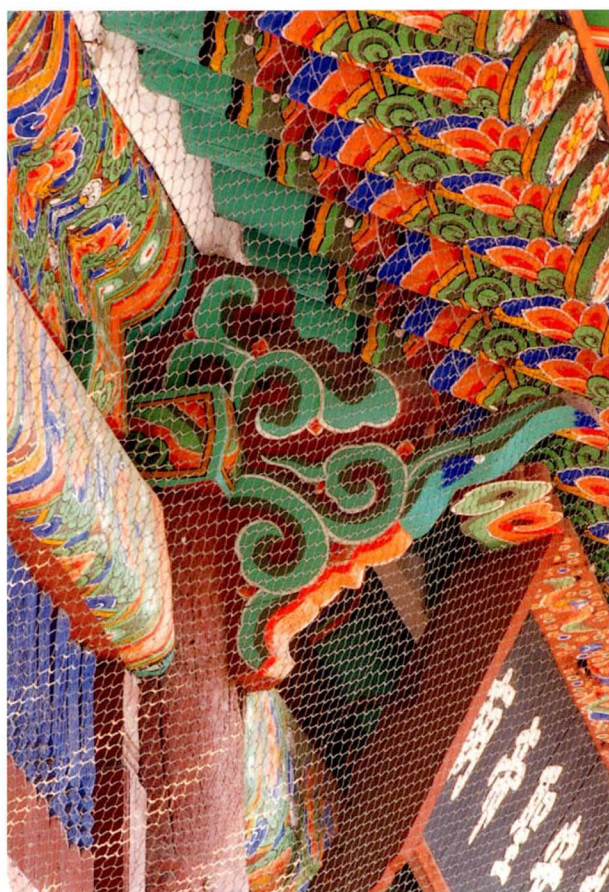
정전 전면 우주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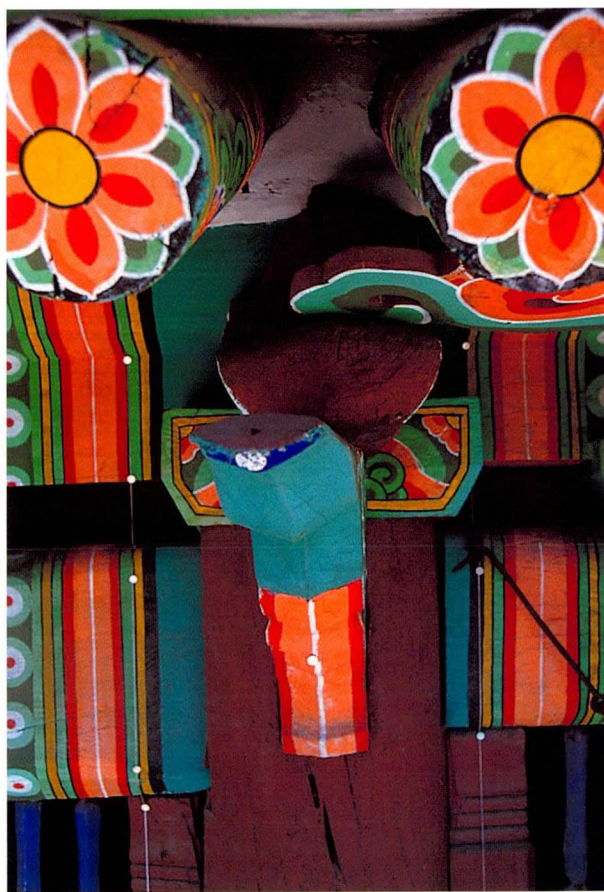
정전 전면 퇴주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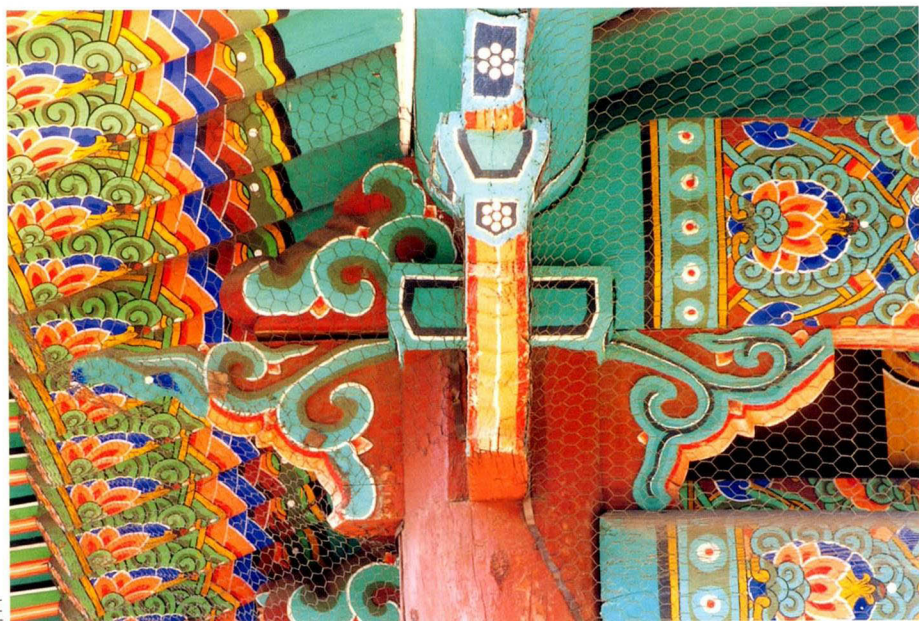
정전 전면 공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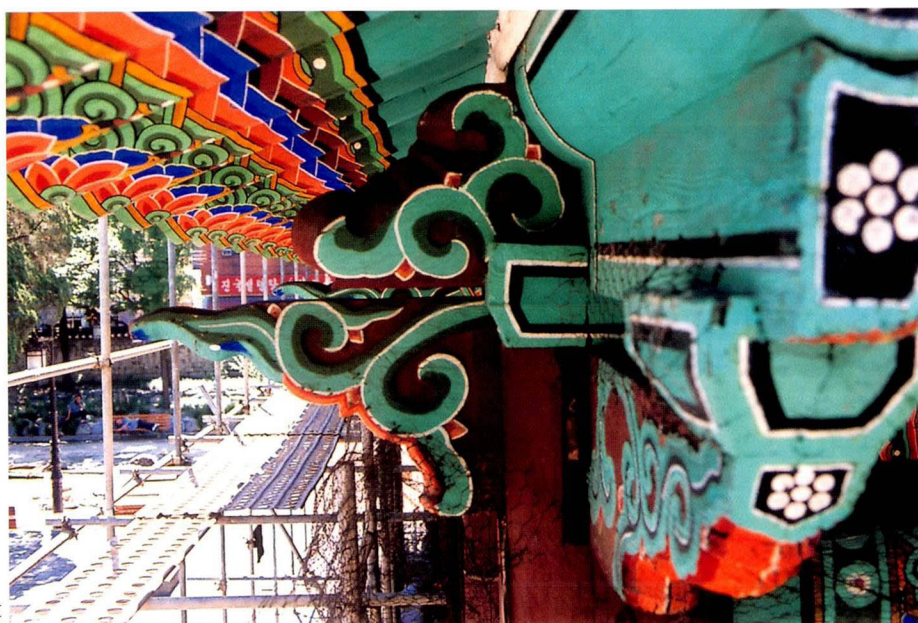
정전 전면 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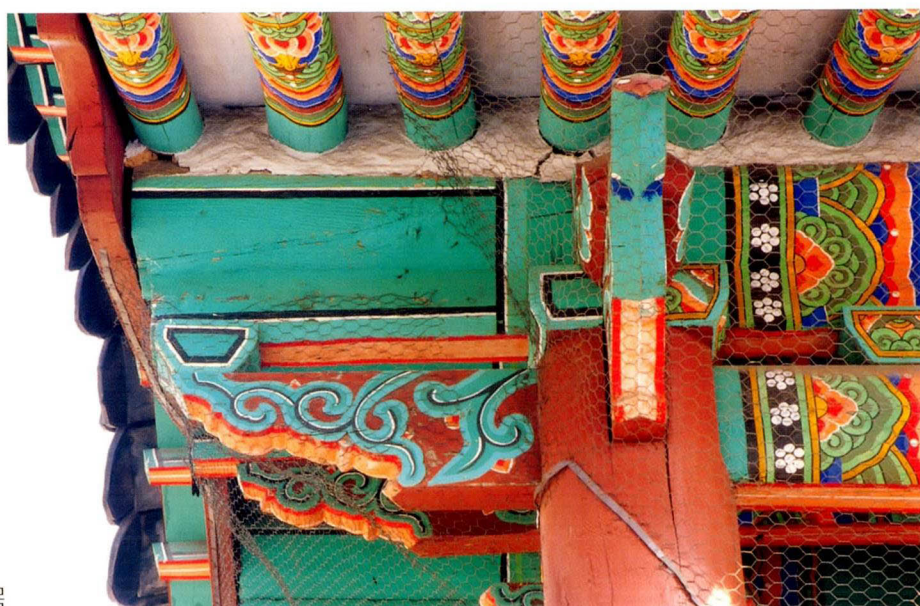
정전 전면 익공 상세



정전 전면 귀공포



정전 전면 퇴칸 귀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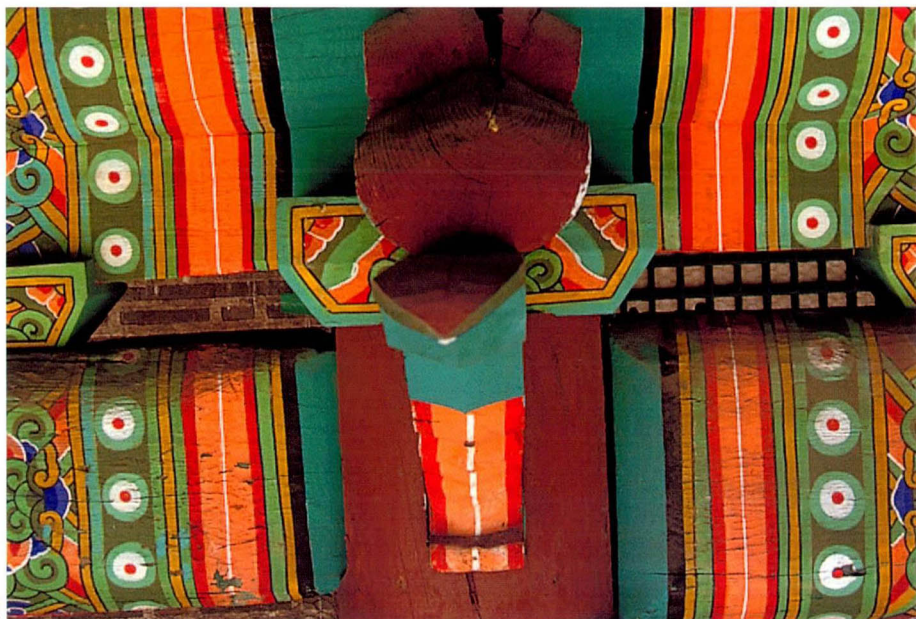
정전 전면 창방 뿔목



정전 어칸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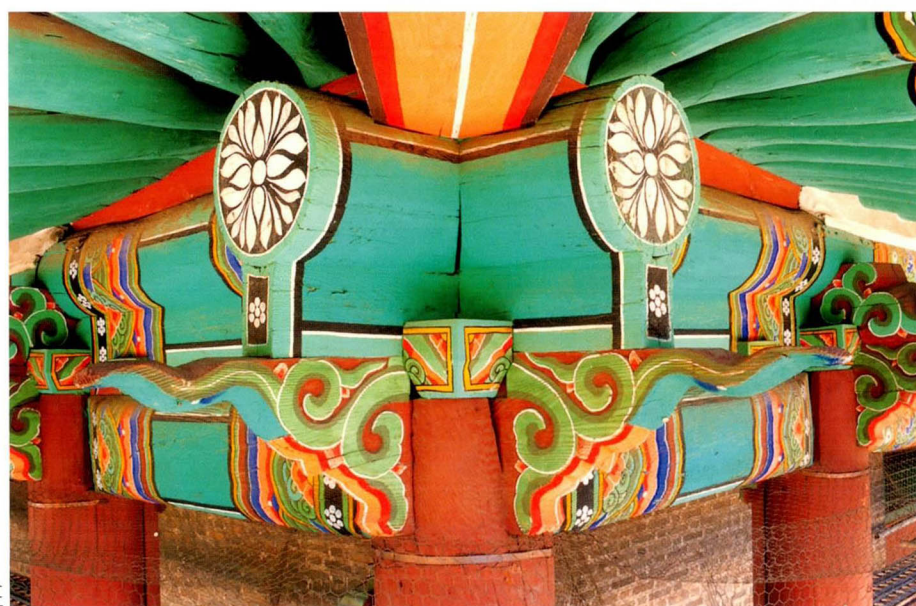
정전 후면 공포대



정전 후면 익공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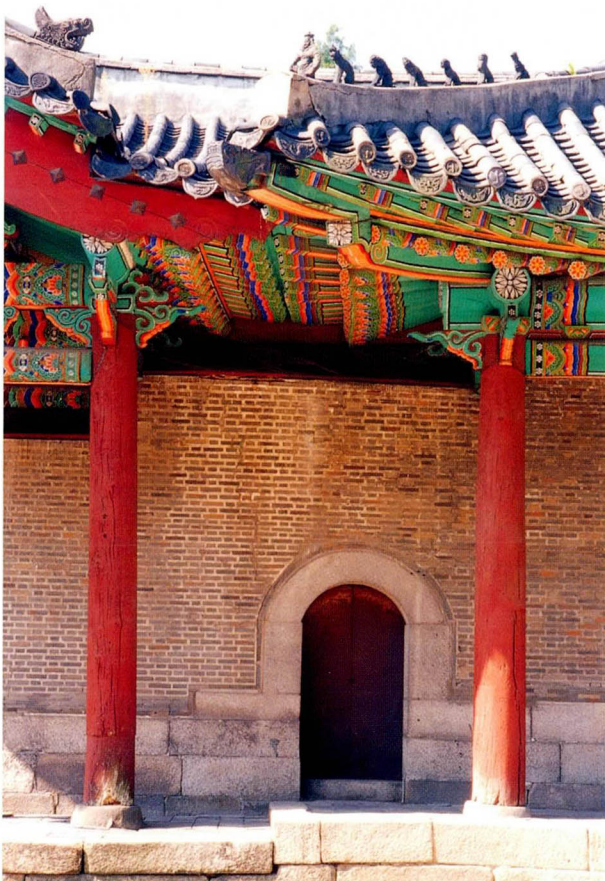
정전 후면 익공 측면



정전 후면 귀공포



정전 본실 서측 입면



정전 본실과 전실 연결부



정전 전실 서측 입면



정전 측면 지붕 연결부



정전 측면 지붕 양시



정전 지붕 추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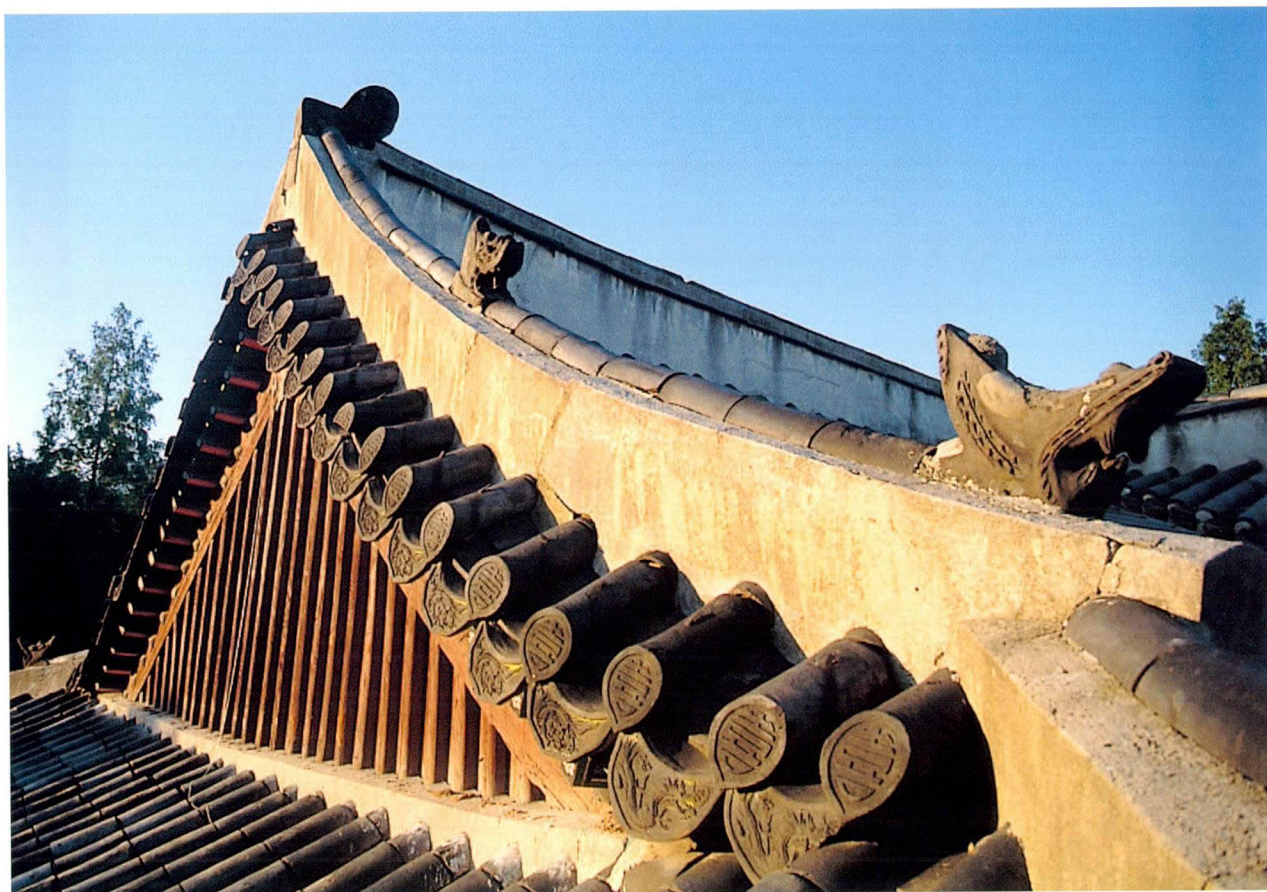
정전 전면 합각부



정전 전실 측면(서측)



정전 본실 측면 합각부



정전 본실 측면 합각부 및 내림마루



정전 전실 좌측 용마루



정전 전실 좌측 지붕골



정전 내림마루 잡상



정전 본실 용마루 취두



정전 본실 용마루 용두



정전 지붕 기와 상세



정전 석물



등롱대석 상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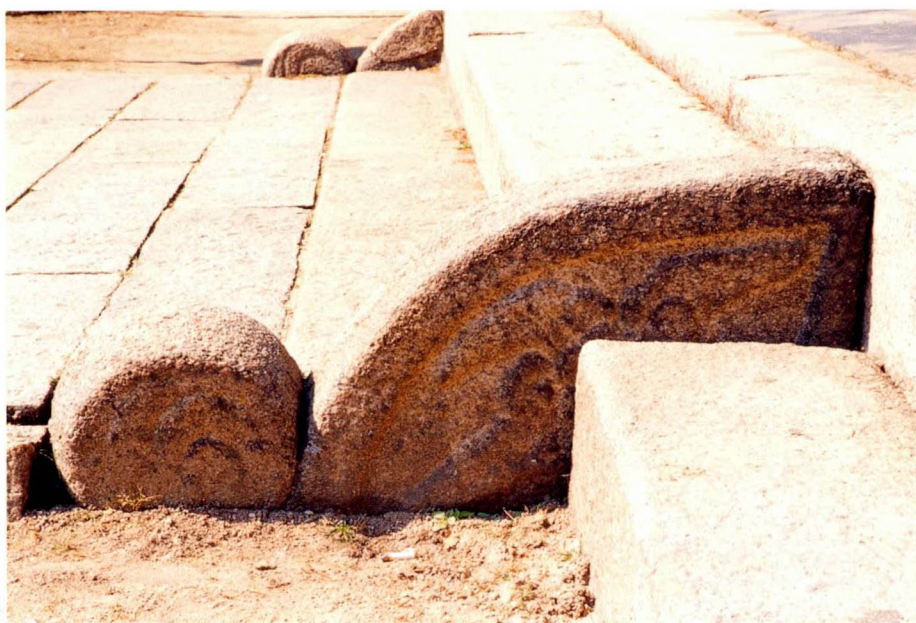
등롱대석 상세2



등롱대석 상세3



등롱대석 옆 석물



정전 계단 소맷돌



정전 계단 이수



정전 앞 석물



此地故漢家郡國提封無恙千本靈藏護風雲

古訓張氏安民水居於此

振漢天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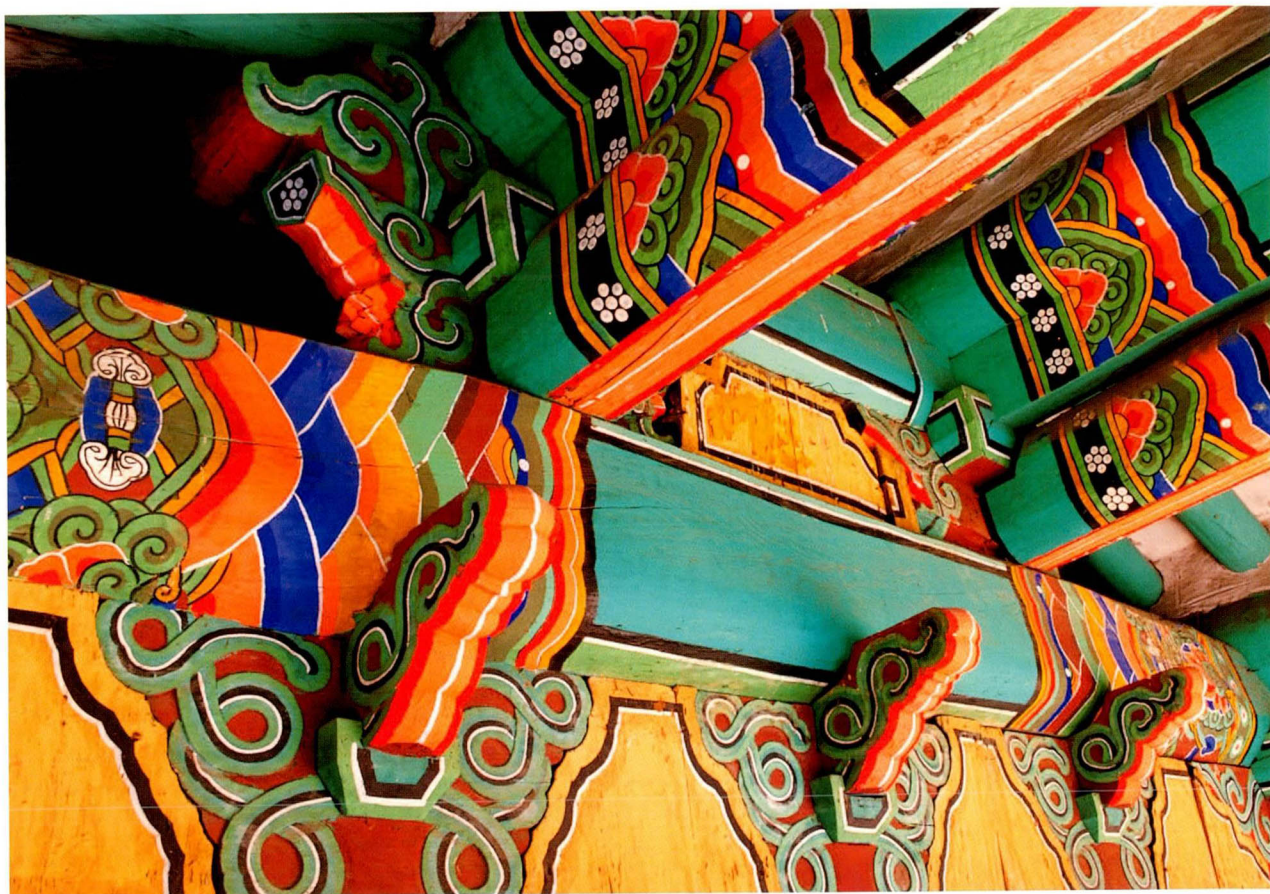


生平好左氏春秋乎右能通六月王師申命討

大正九年十月朔日







정전 전실 내부 가구 상세



정전 전실 기둥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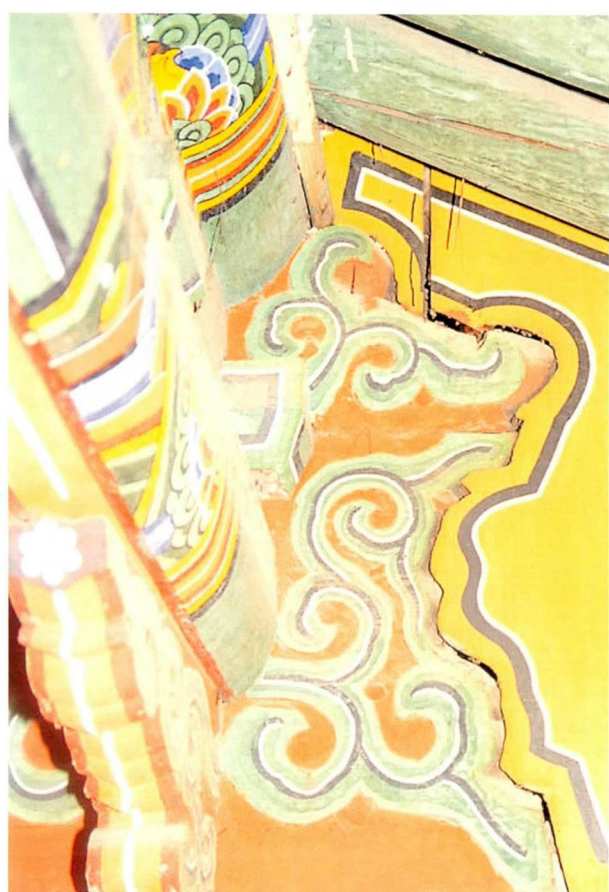
정전 전실 대들보 결구



정전 전실 내부 종보



정전 전실 내부 기둥 결구



정전 본실 내부 종대공



顯聖殿

廟王安武德昭靈廟

千秋義氣

此地故漢家鄧國提封無恙于平雲氣後風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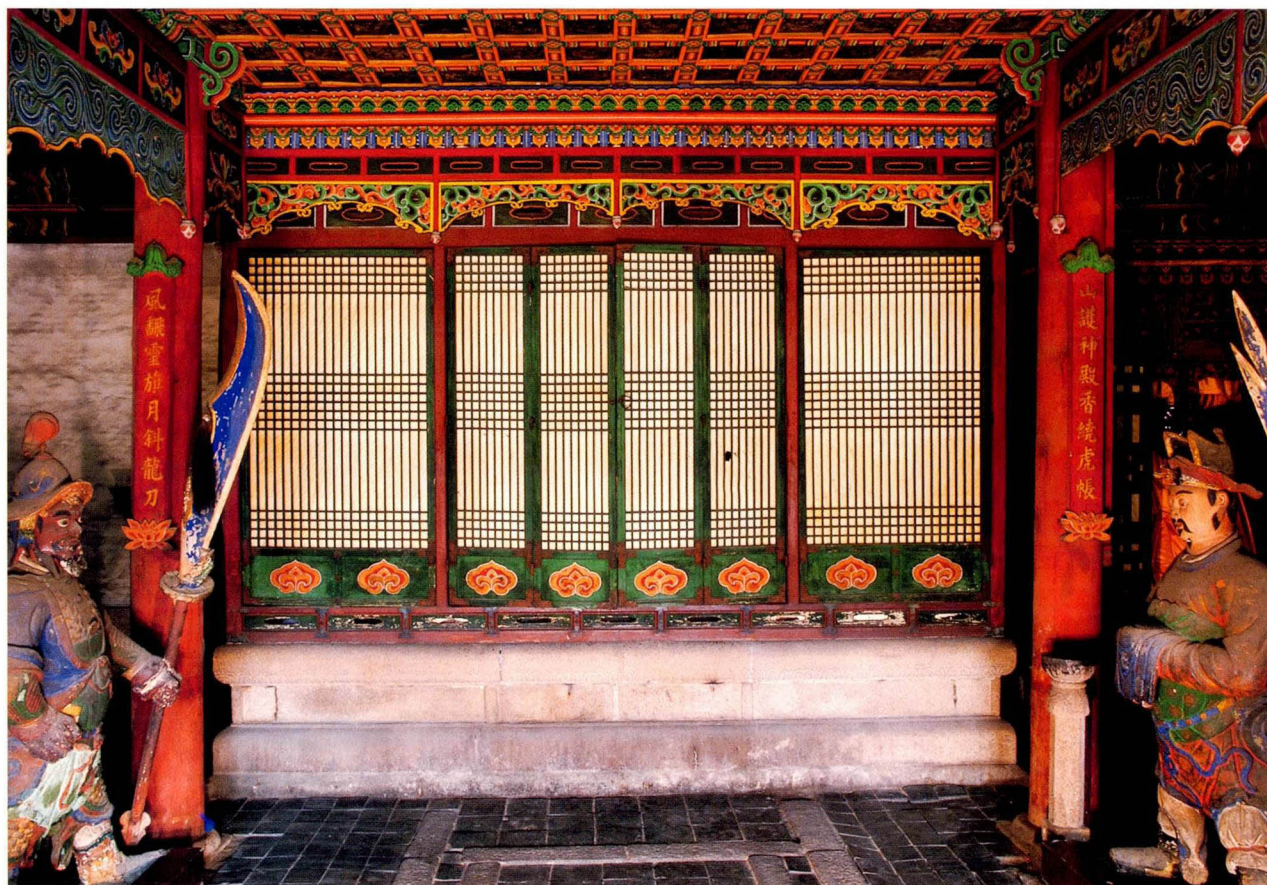


정전 내부 본실 어칸



정전 내부 본실 협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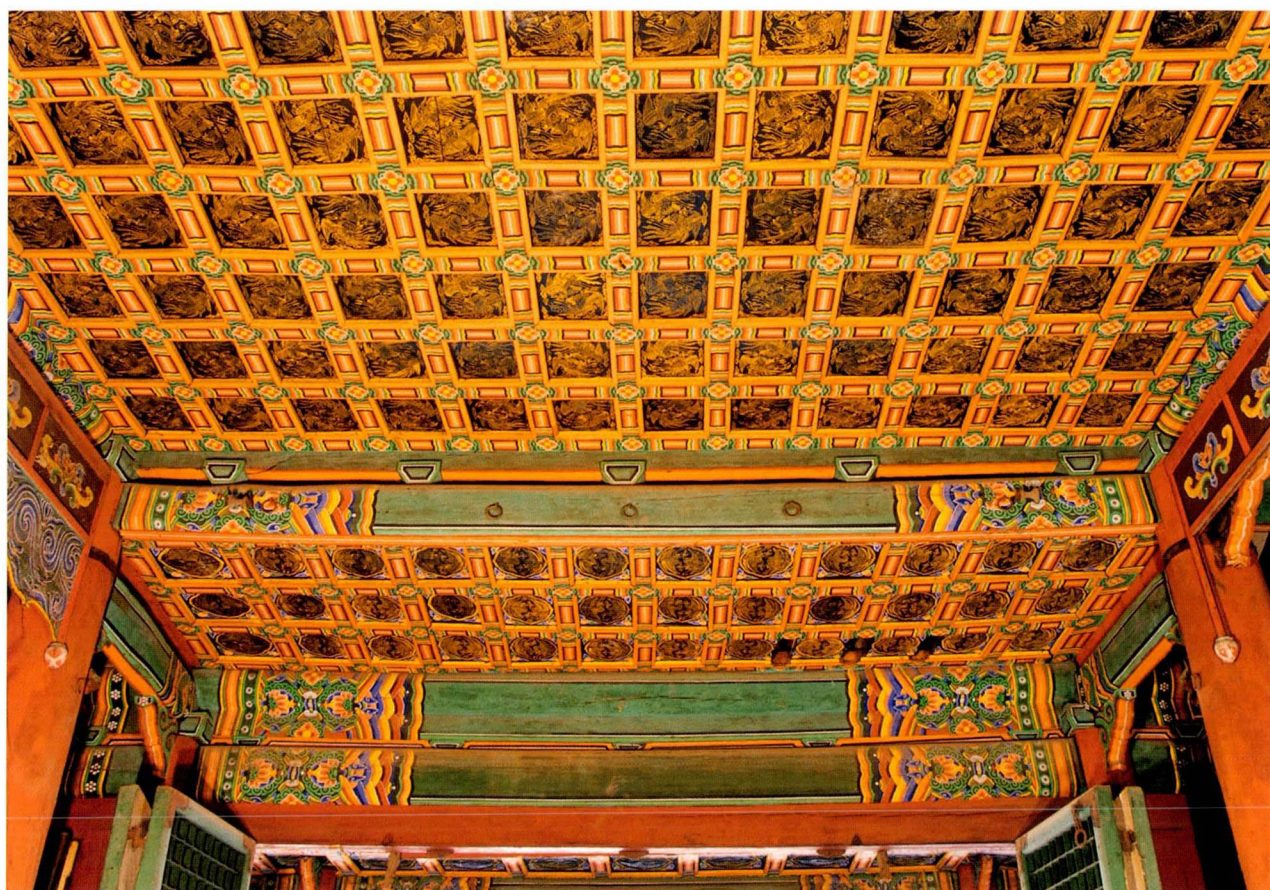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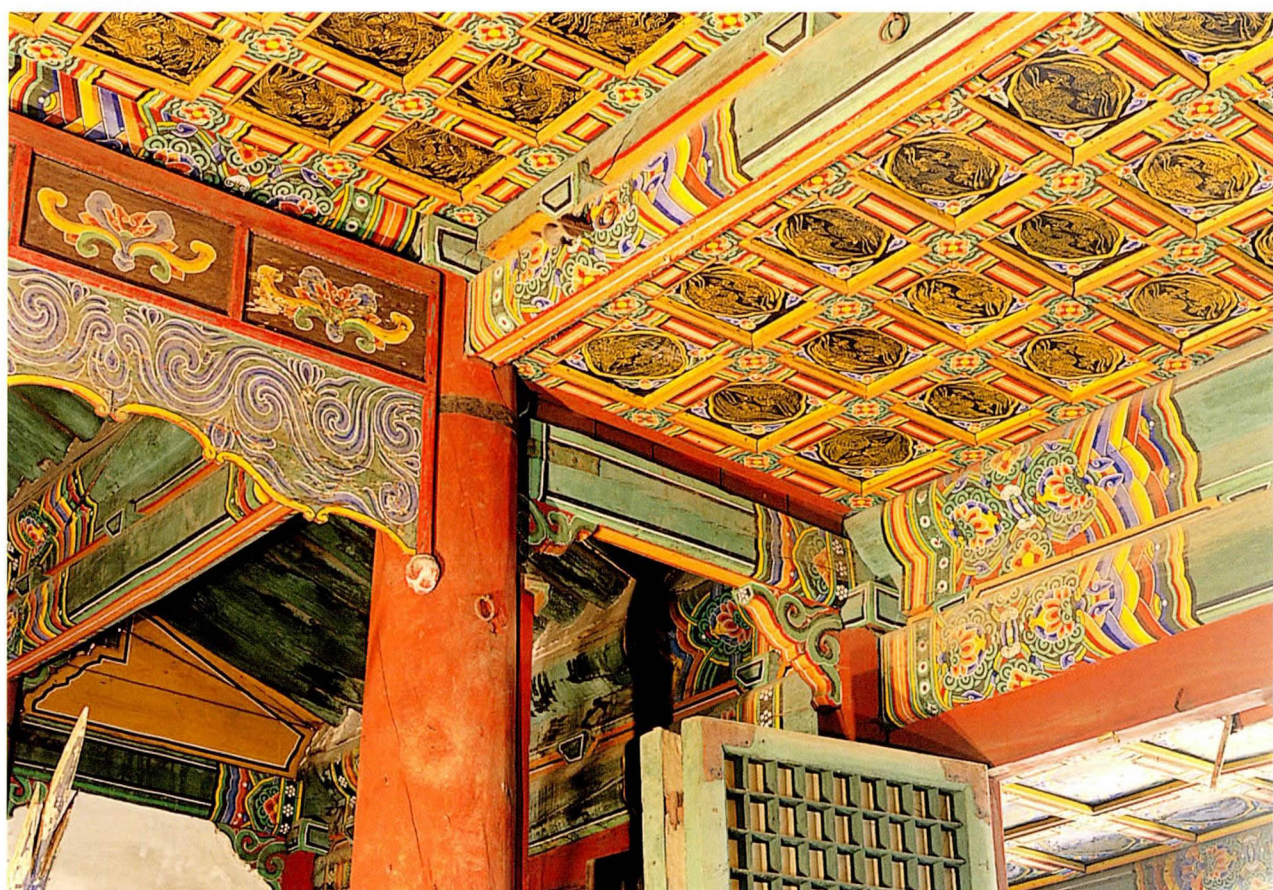
정전 본실 아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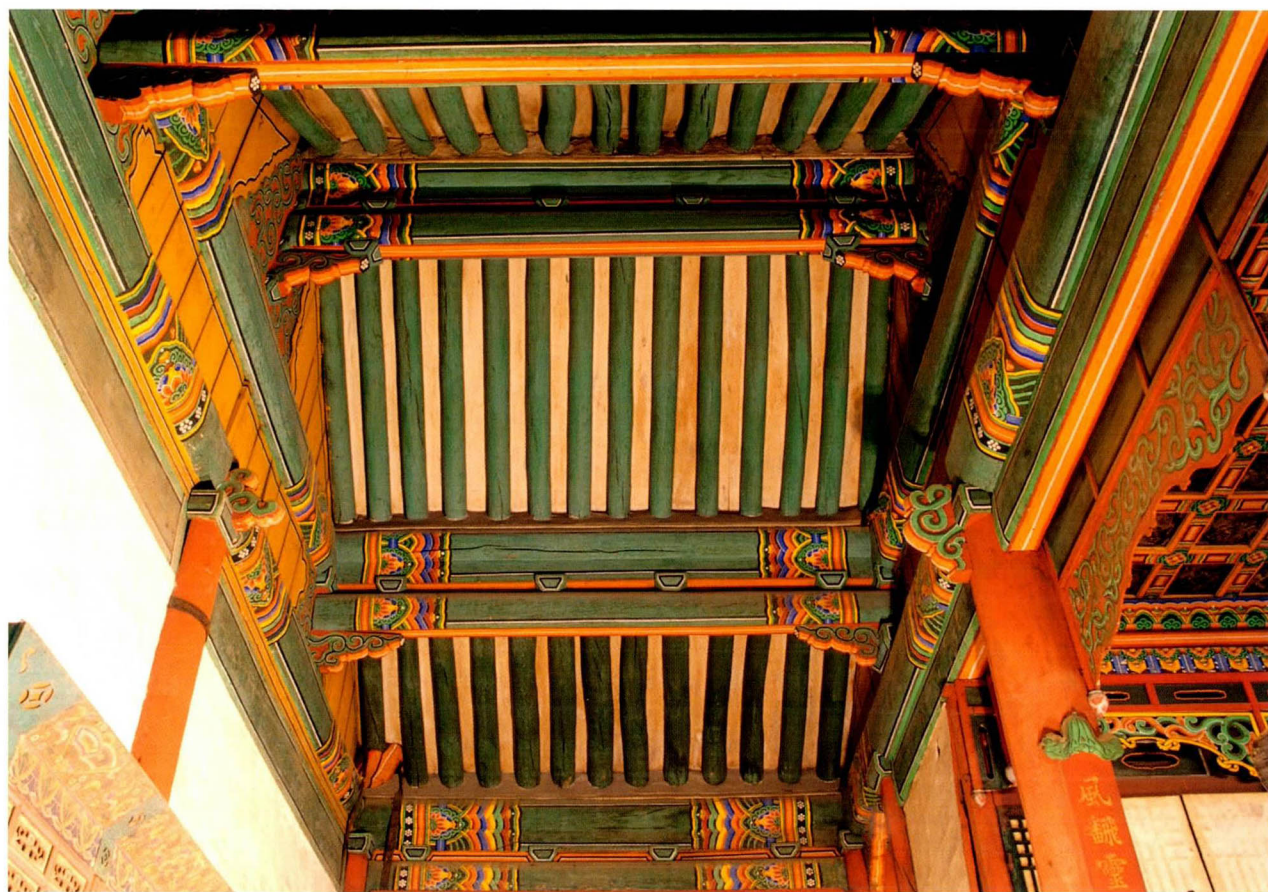
정전 생시관우상



정전 본실 내부 어칸 천장



정전 본실 내부 어칸 천장



정전 본실 내부 협칸 천장



정전 본실 내부 측벽 상부 가구



정전 본실 천장 상부가구



정전 본실 천장 상부 측벽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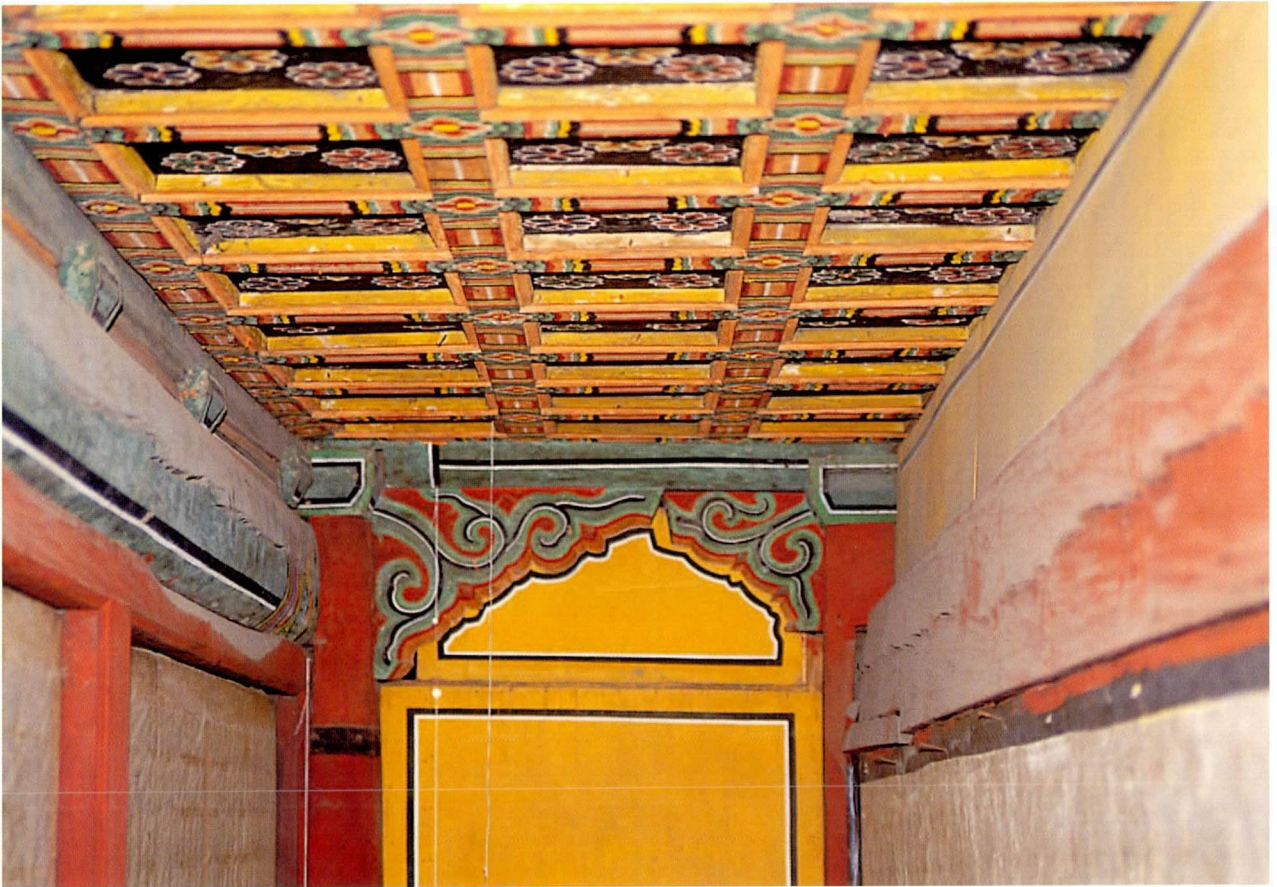
정전 본실 종도리 창방 및 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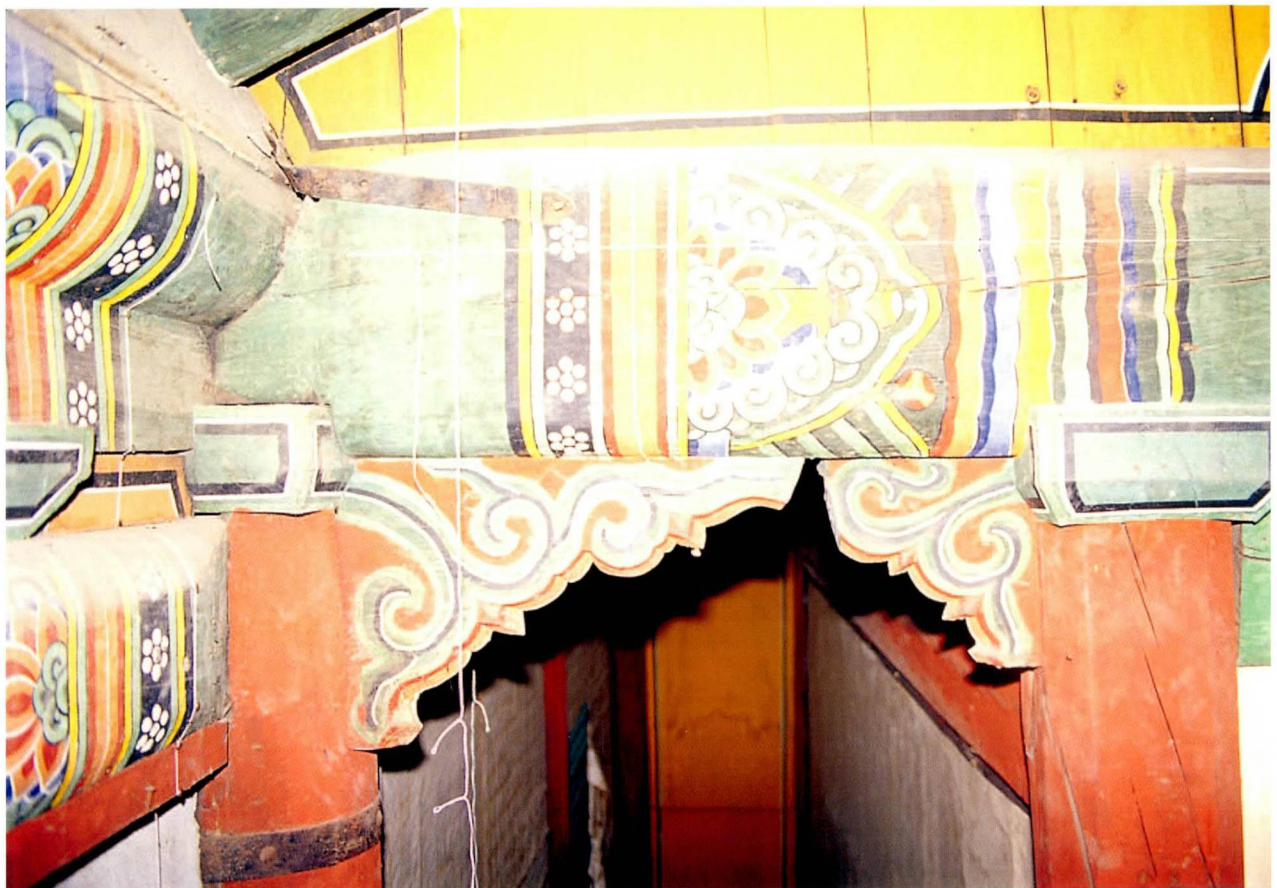
정전 본실 좌측 대공



정전 본실 정면 하중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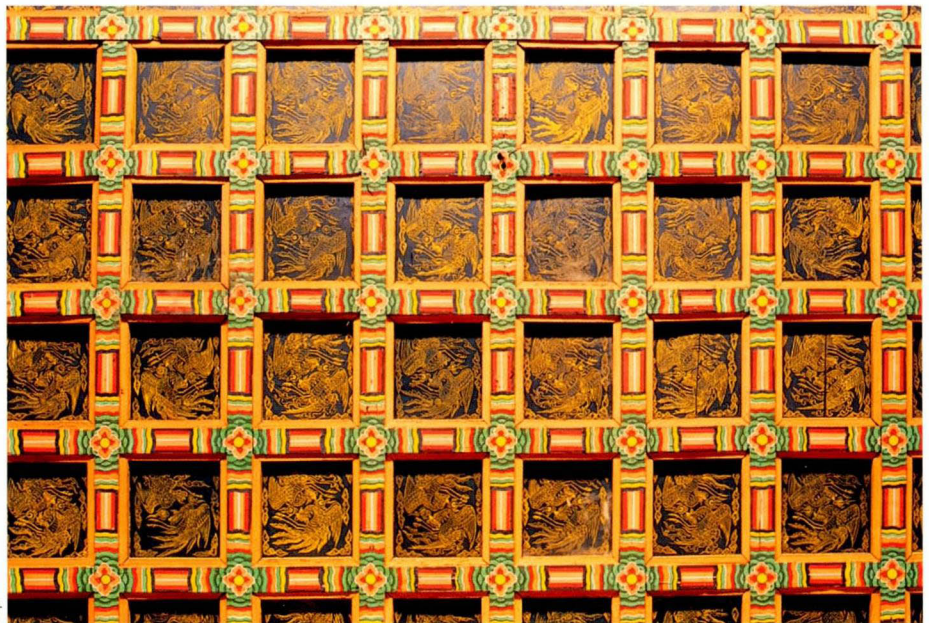
정전 본실 후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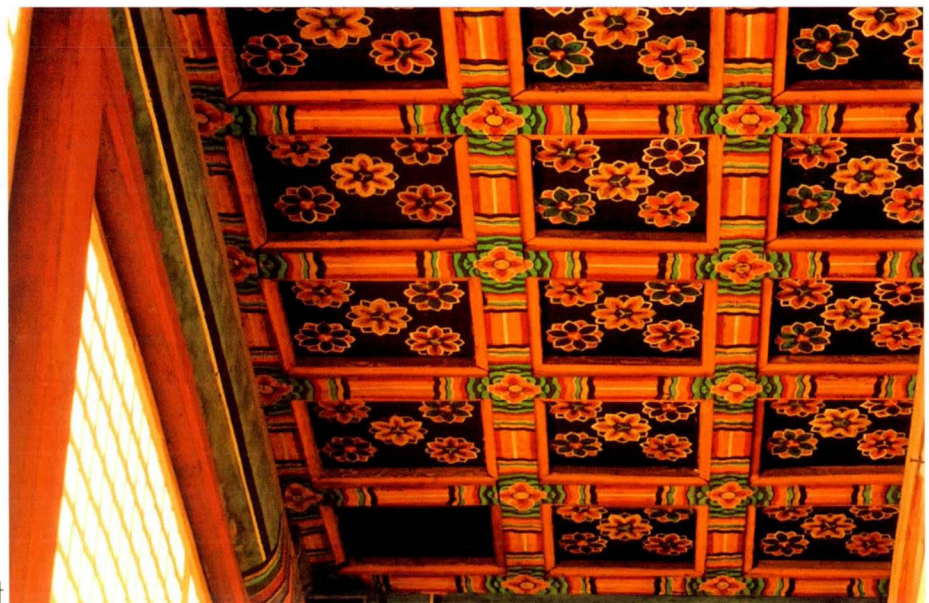
정전 본실 내부 후면 보아지



정전 전실 반자



정전 본실 어칸 반자



정전 본실 퇴칸 반자



정전 사시관우상



정전 우장군상



정전 장비상



정전 생시 관우상



정전 왕장군상



정전 조자룡상



정전 옥천대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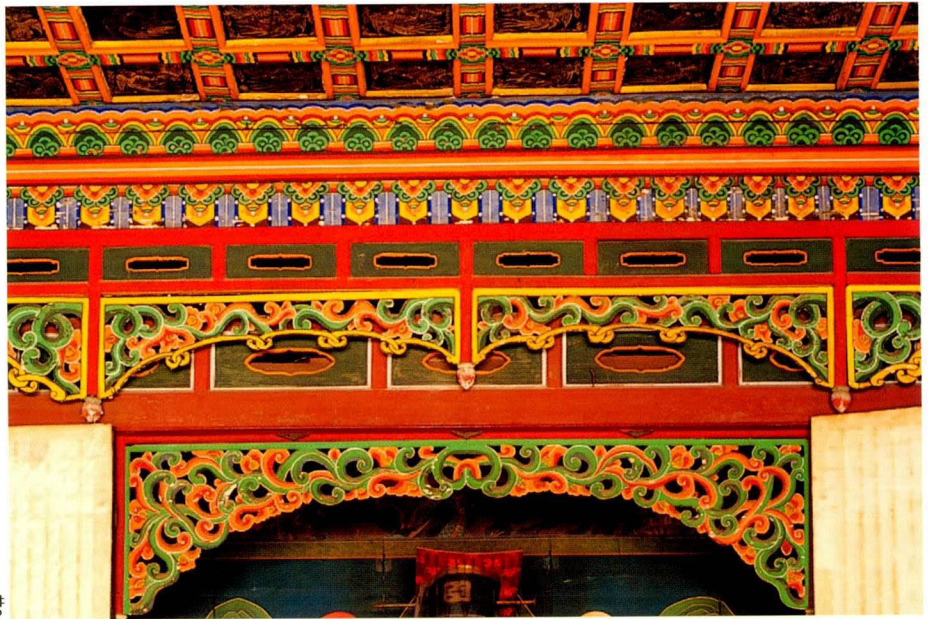
유비 · 관우 · 장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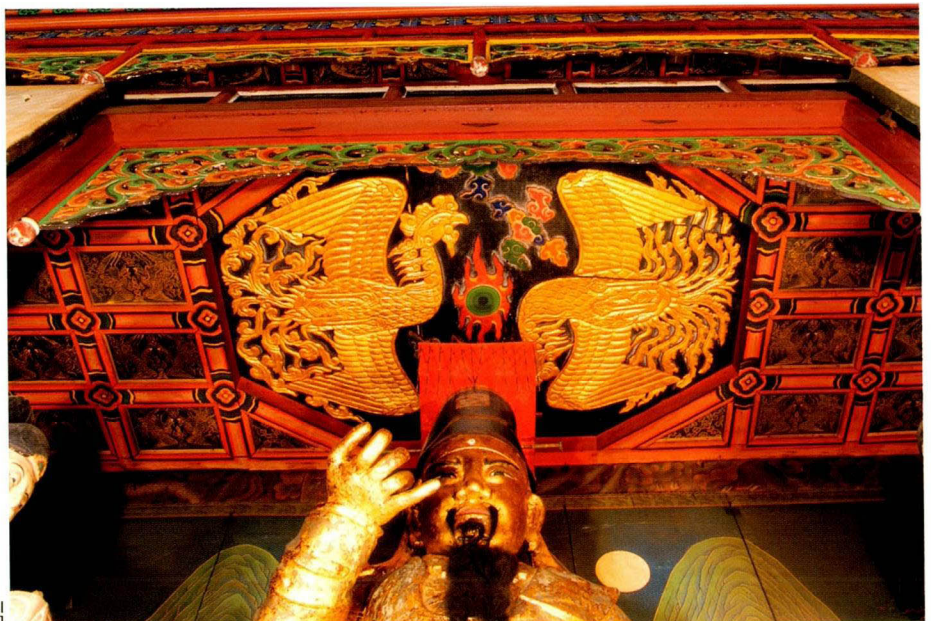
정전 전실 내부 등룡대석



정전 전실 석물 상세



정전 사시관우상 상부 낙양



정전 사시관우상 천장 장식



정전 사시관우상 의자 장식



정전 전면 어칸 현판



정전 전면 협칸 현판



정전 본전 어칸 현판



정전 전실 어칸 현판



정전 본실 어칸 좌측 주련



정전 본실 어칸 우측 주련



정전 전실 어칸 좌측 주련



정전 전실 어칸 우측 주련



동무 전면



동무 정측면(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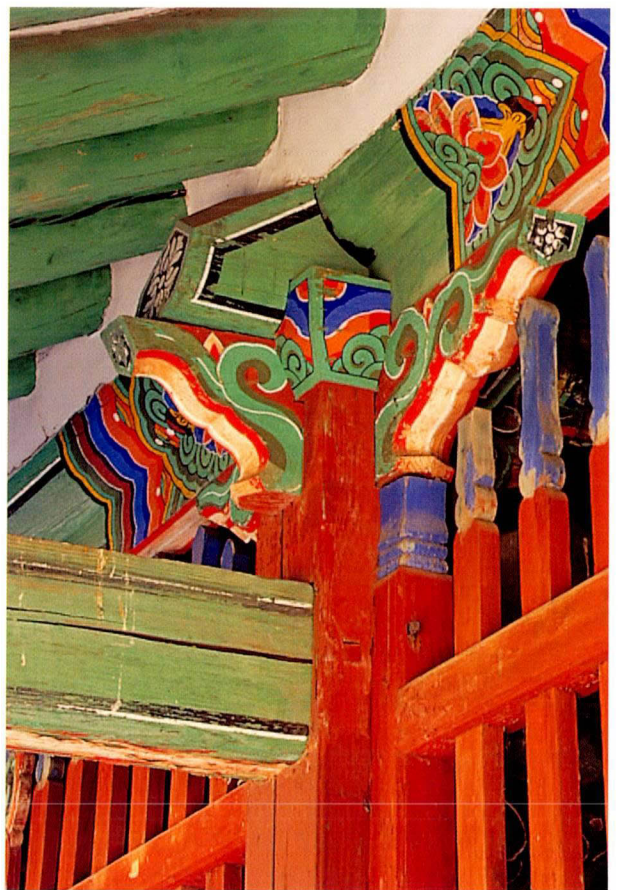
동무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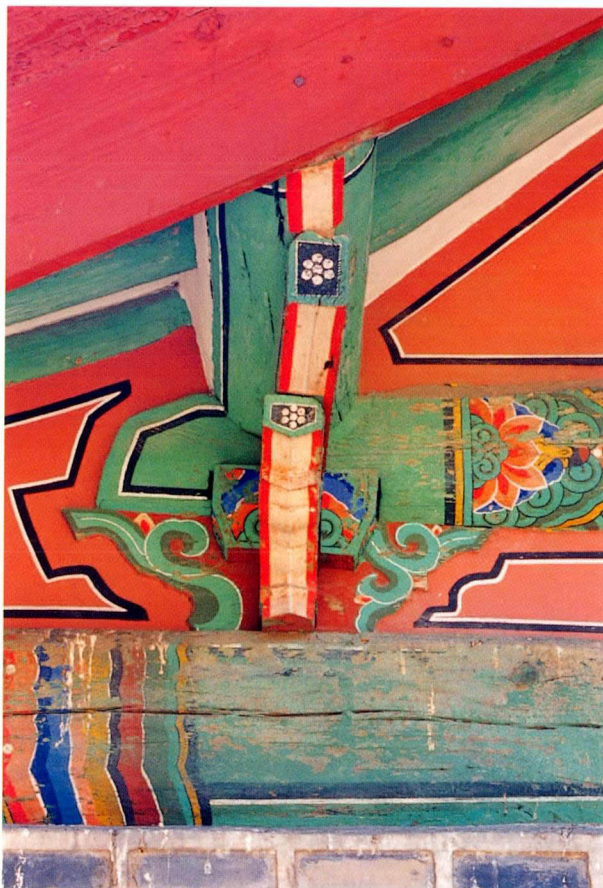
동무 퇴칸 가구 상세



동무 퇴칸 귀공포



동무 전면 공포



동무 측면 가구 상세



동무 내부 석비



동무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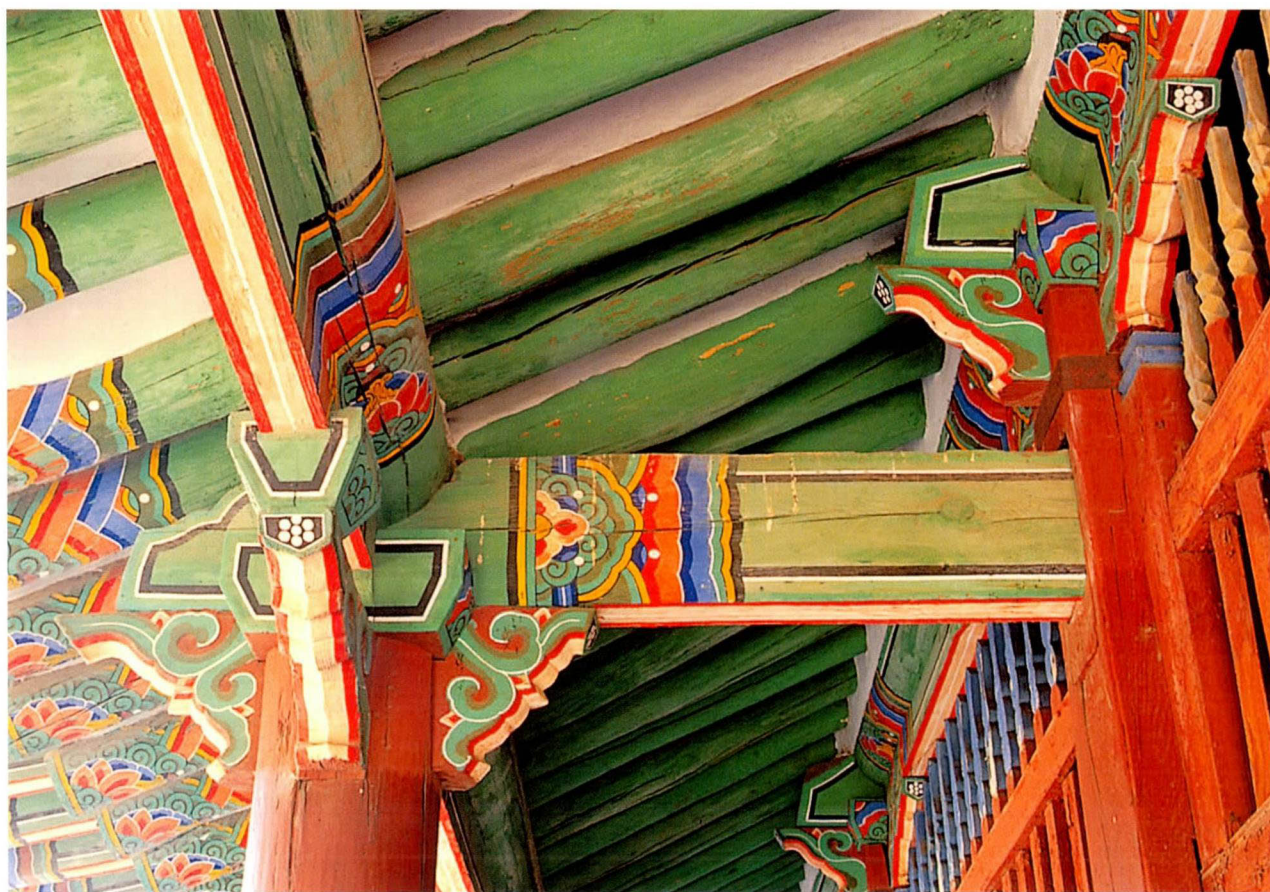
서무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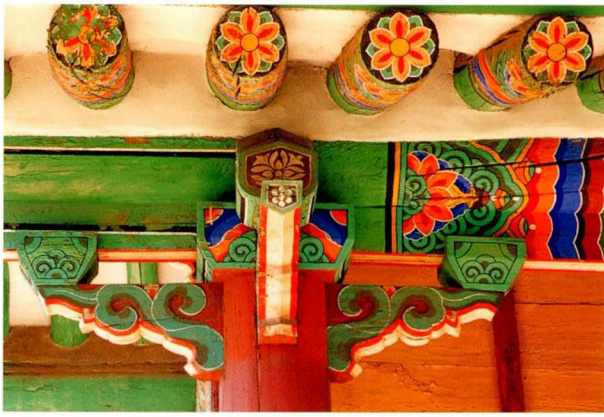
서무 남측면



서무 후면 좌측면 벽체 구성



서무 퇴칸 가구 구성



서무 귀포 정면



서무 계단 소맷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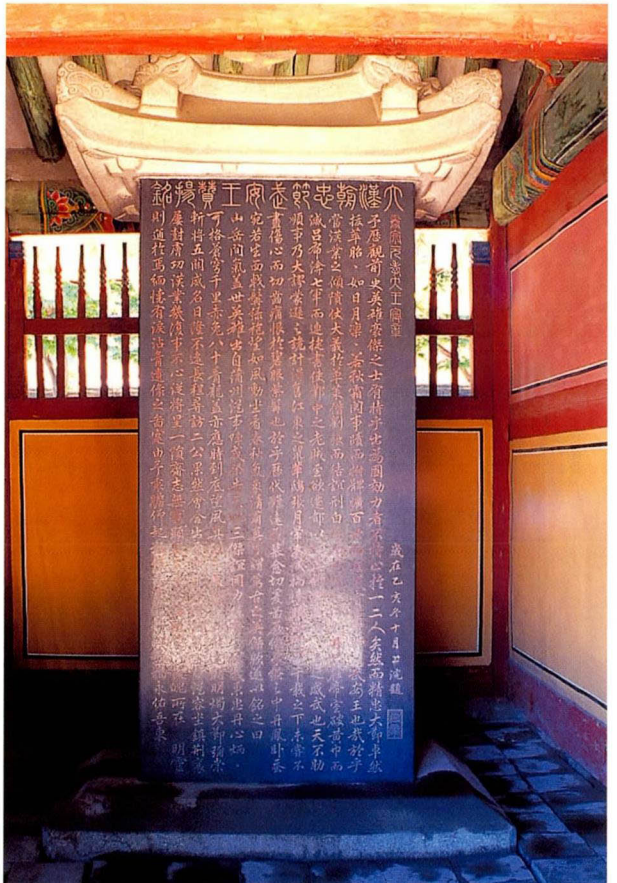
서무 퇴주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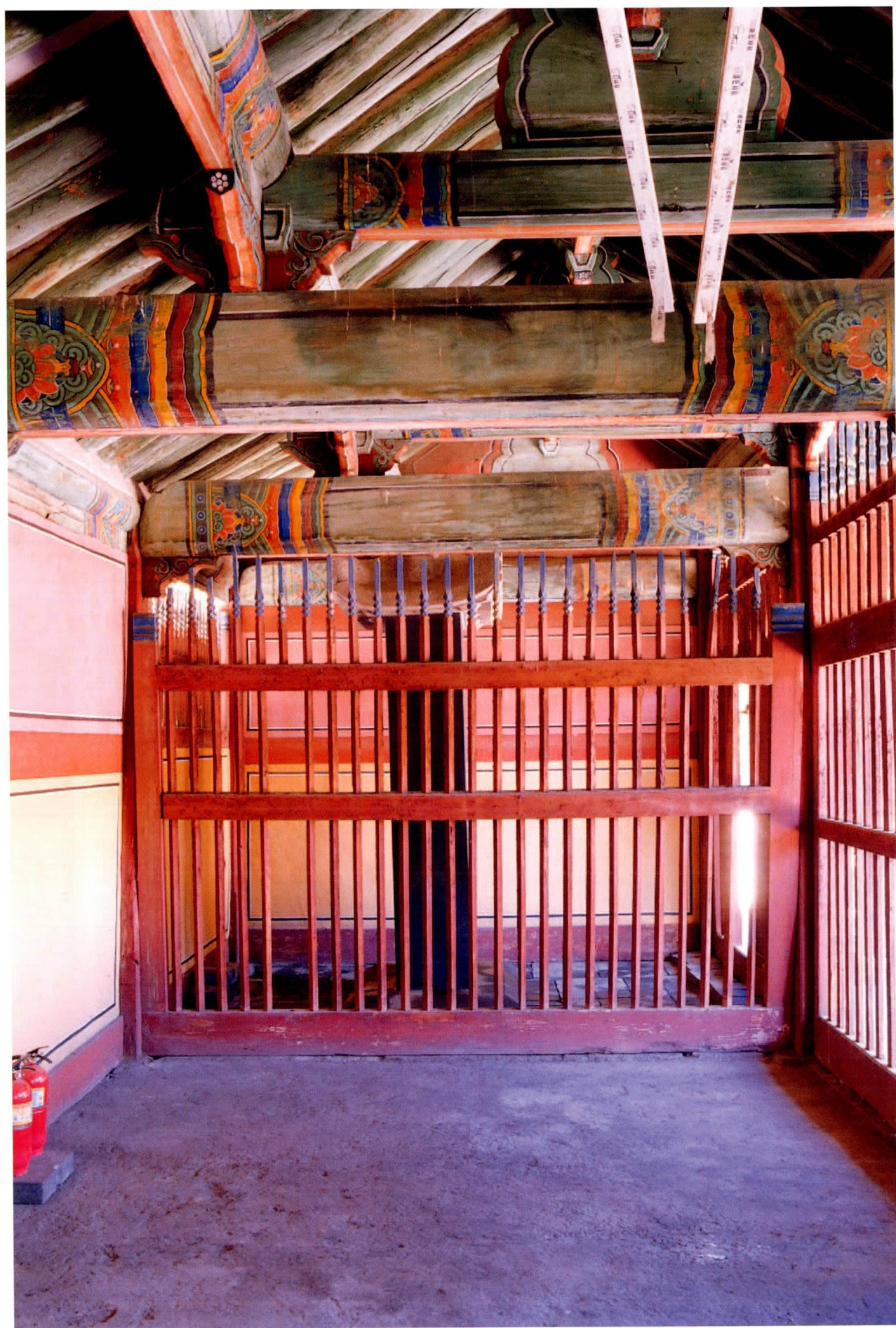
서무 평주 초석



서무 퇴칸



서무 내부 석비



서무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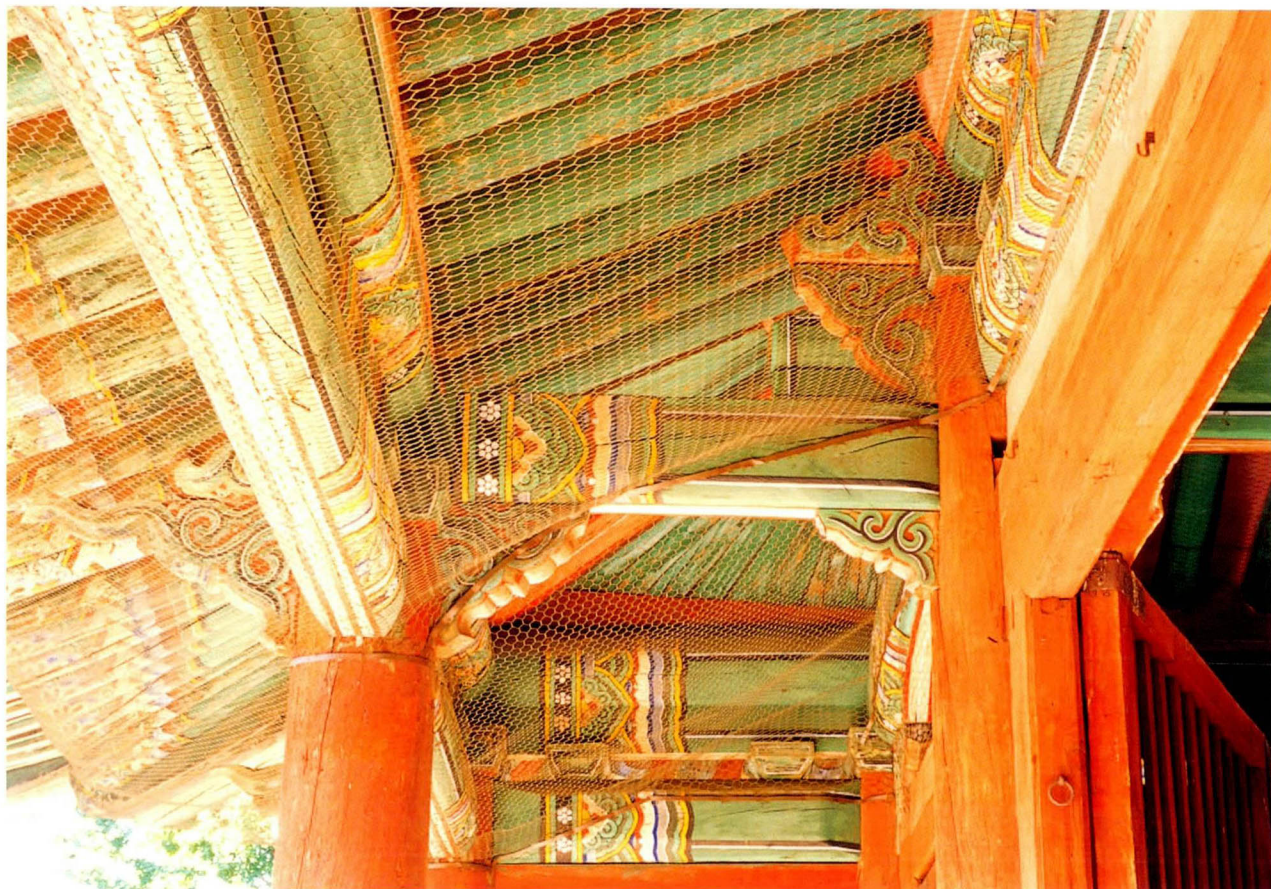
중문 전면



중문 동측면



중문 후면



중문 전면 퇴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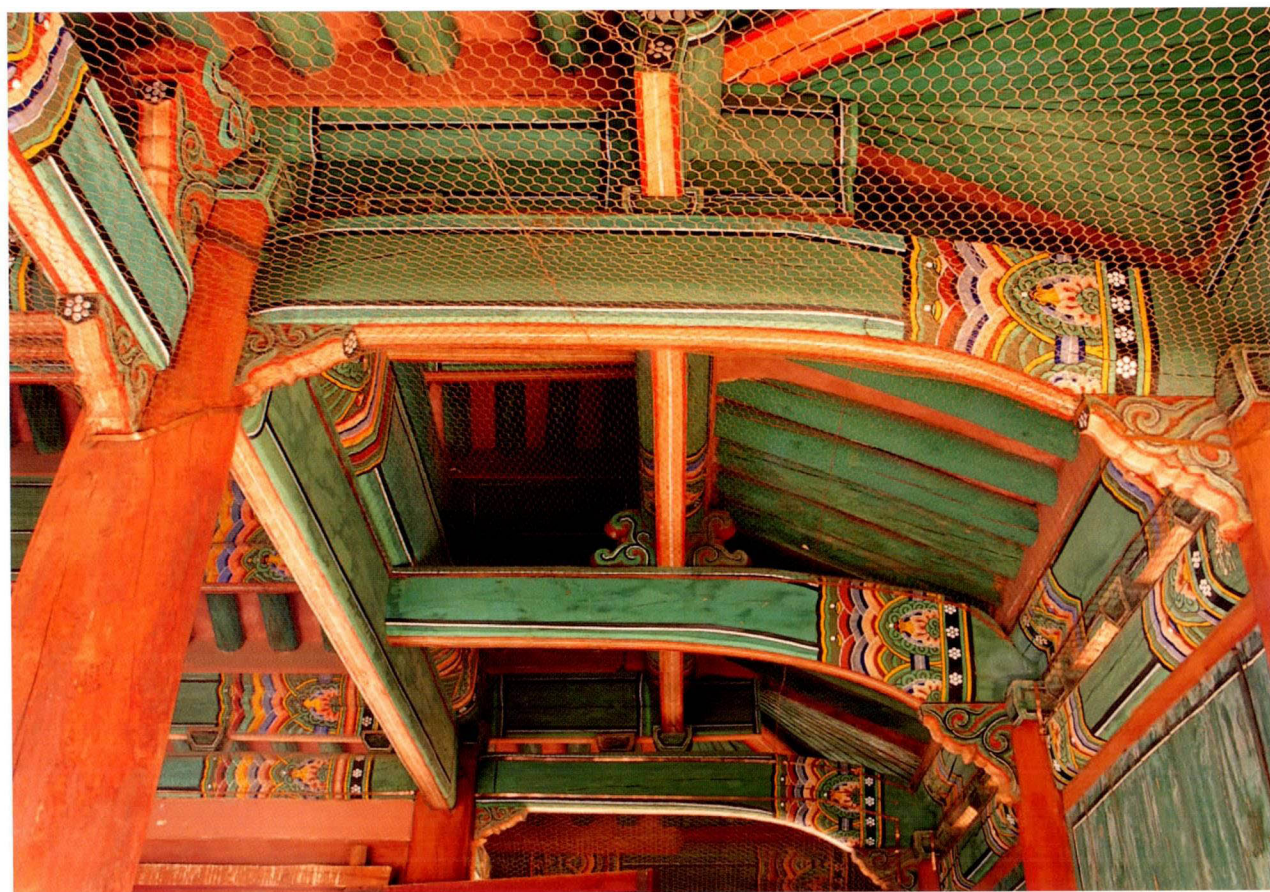
중문 후면 퇴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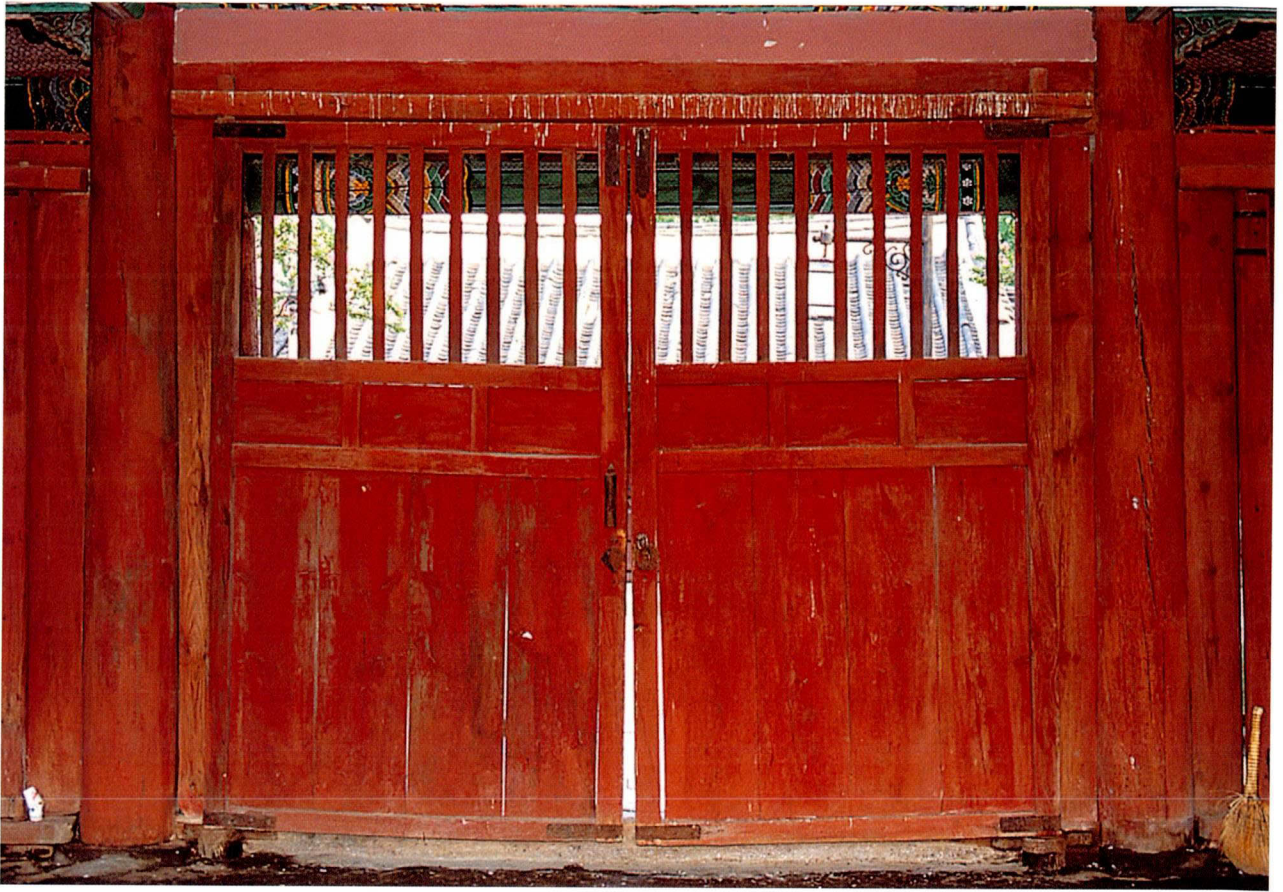
중문 상부 가구 구성



중문 상부가구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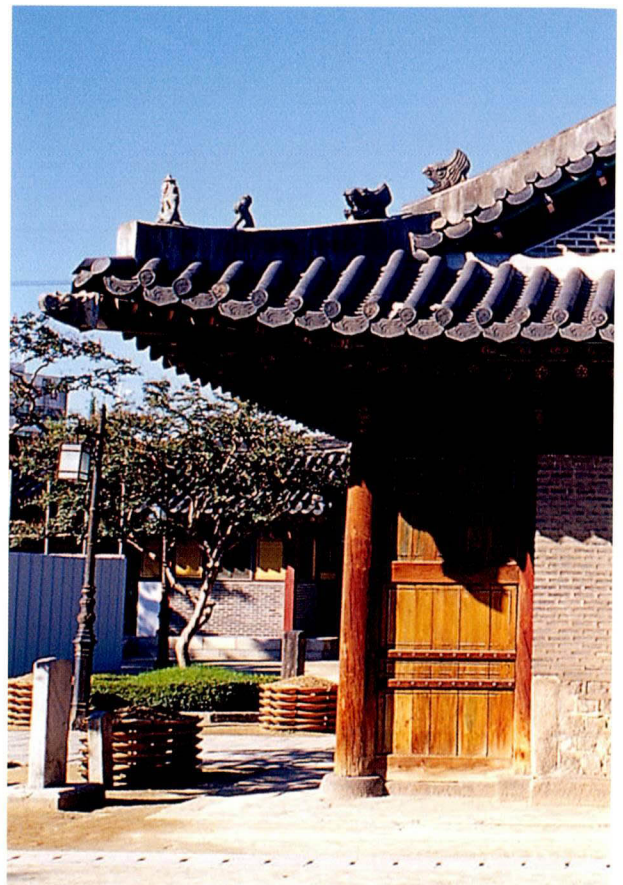
중문 중량



중문 어칸 판문



중문 퇴칸 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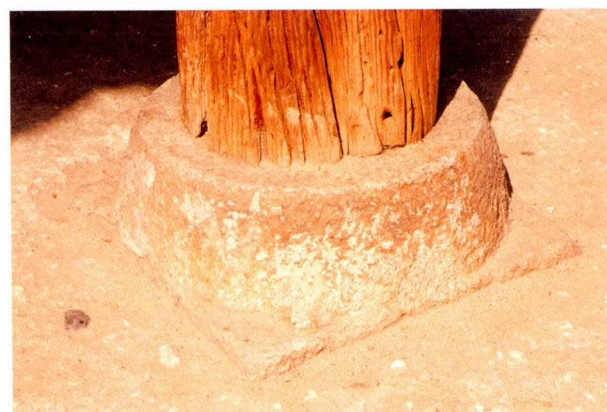
중문 측면 판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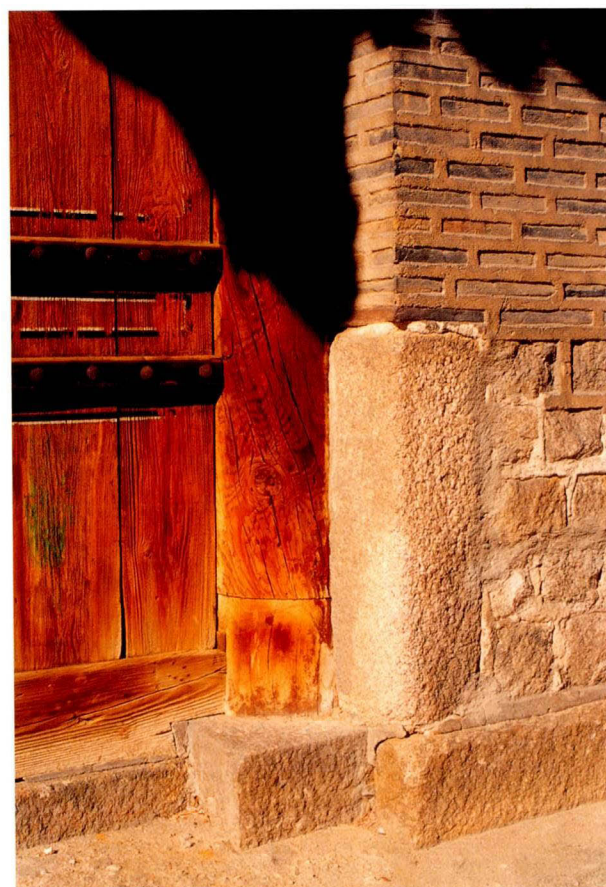
중문 초석열



중문 초석



중문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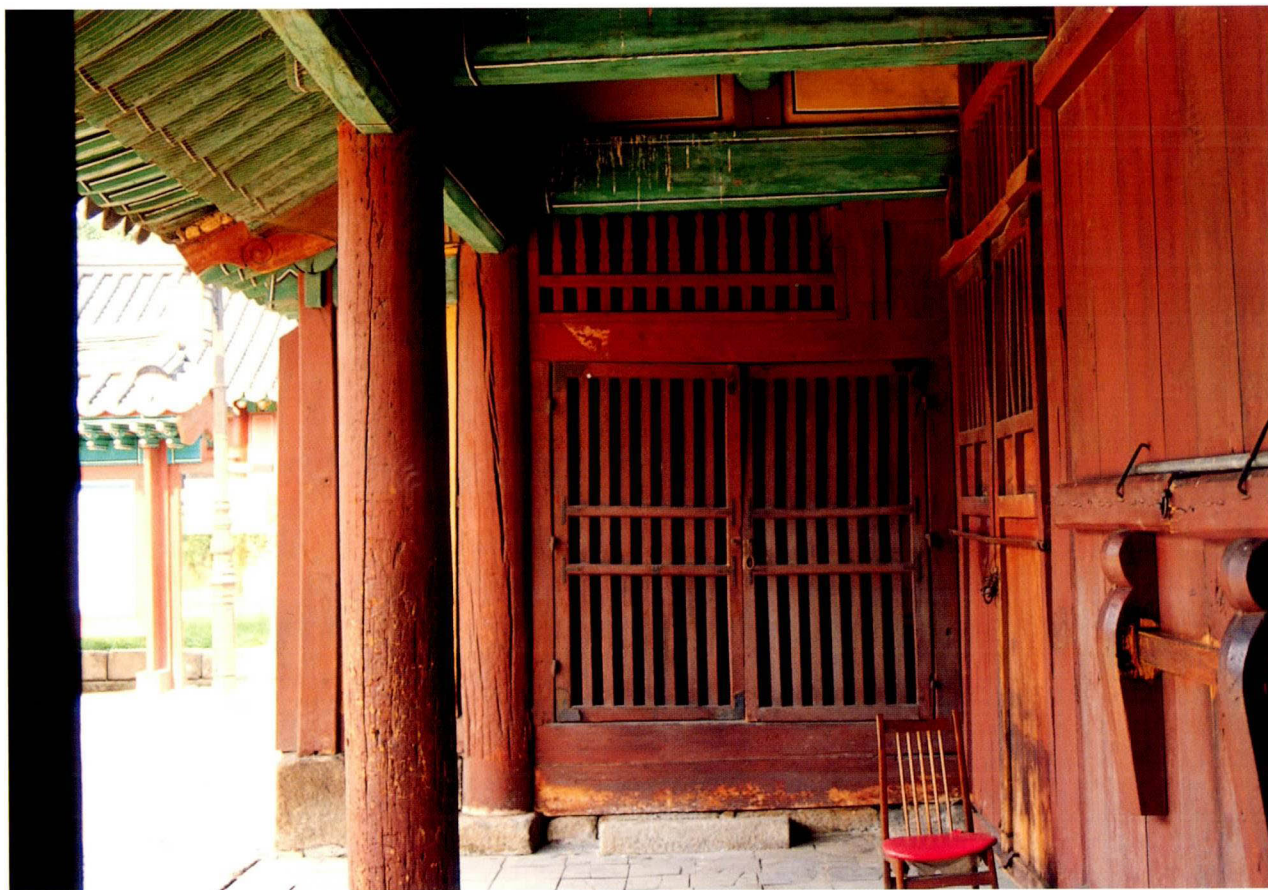
중문 화방벽 모서리 상세



남문 전경



남문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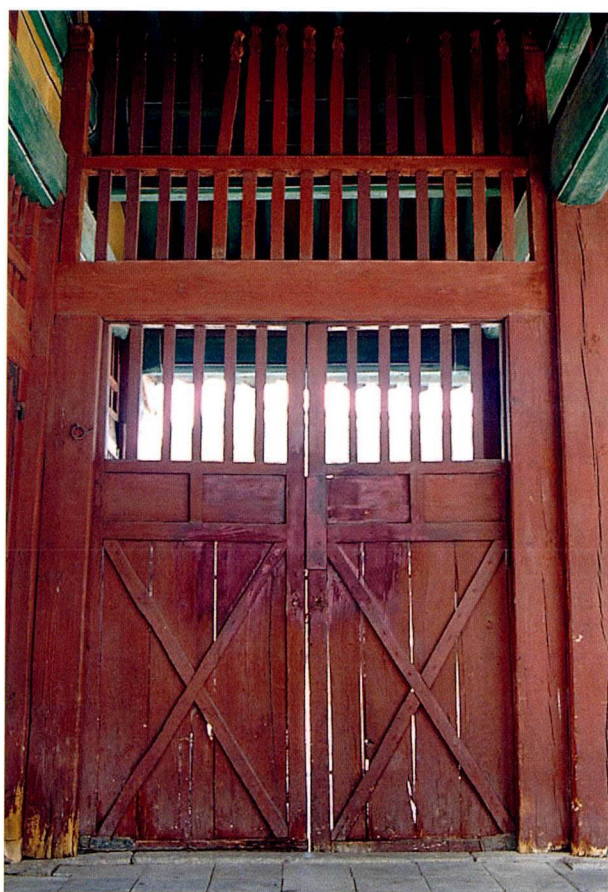
남문 내부



남문 내부 상부가구



남문 어칸 판문



남문 엽칸 판문



남문 좌측 엽문

남문 내부 상부 가구



남문 박공부



남문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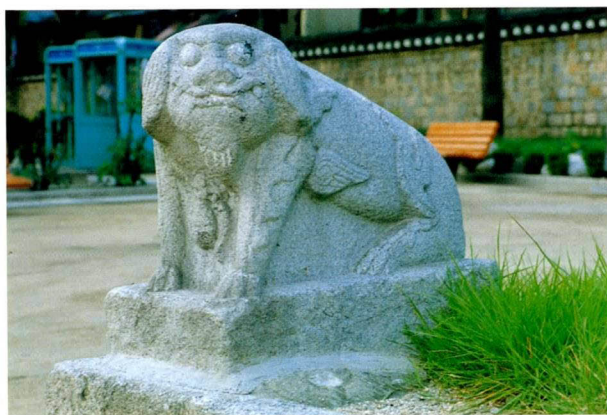
건물지 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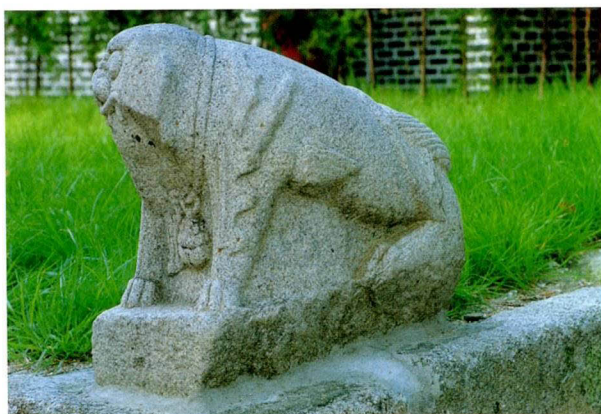
건물지 전면계단



주변 석물



건물지 좌측 석수



건물지 우측 석수



건물지 계단 옆 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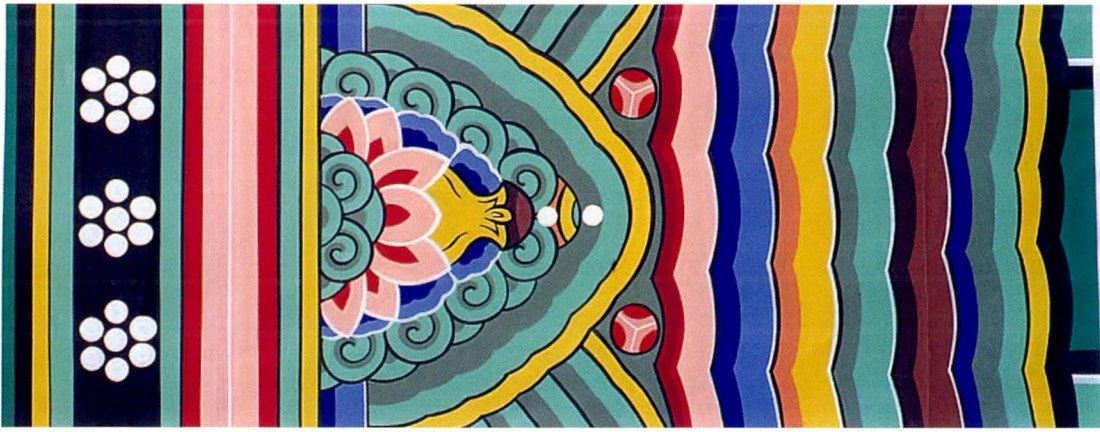
주변 석물



금잡인비



하마비



중보



대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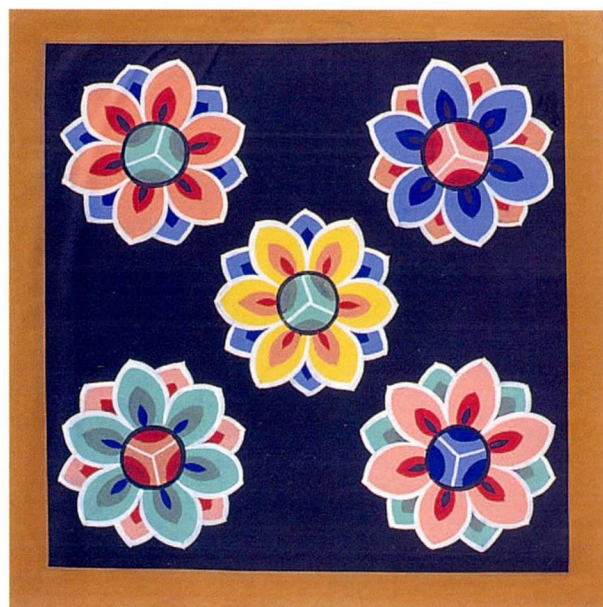
도리 · 장방



외부도리 · 장방



정전 본실 여칸 전면 반자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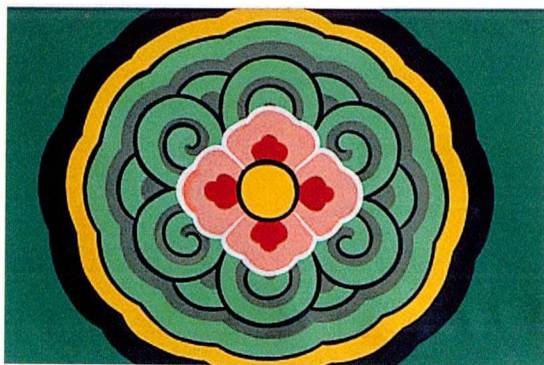
정전 본실 여칸 후면 반자판



정전 본실 여칸 반자판



정전 전실 상부 반자판



부연개판



이매기



초매기



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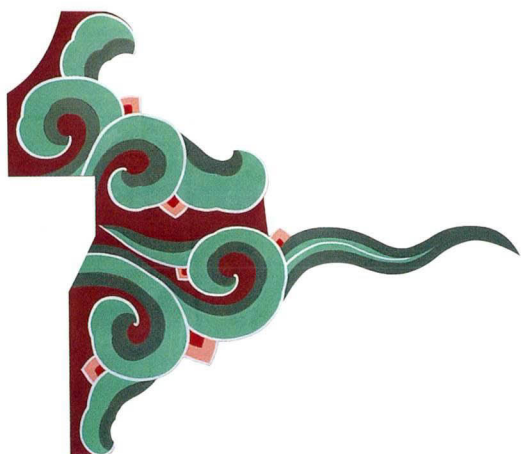
부연



주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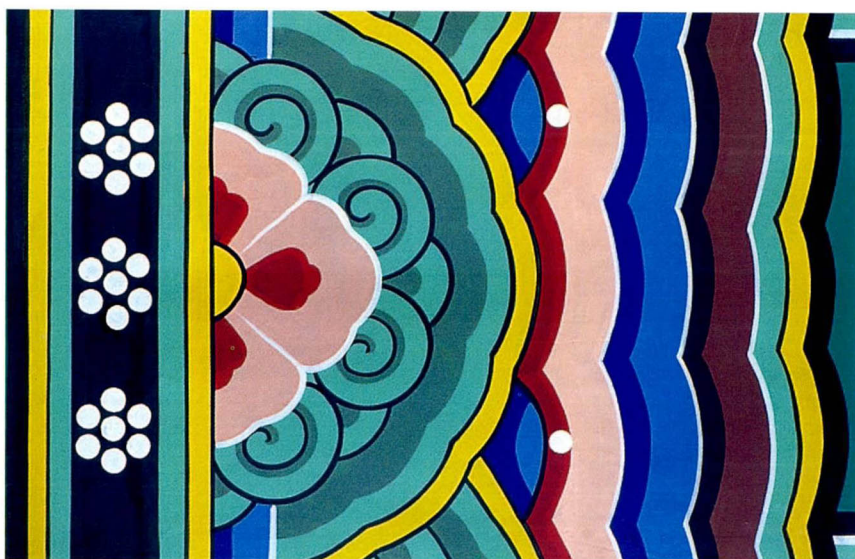
부연 착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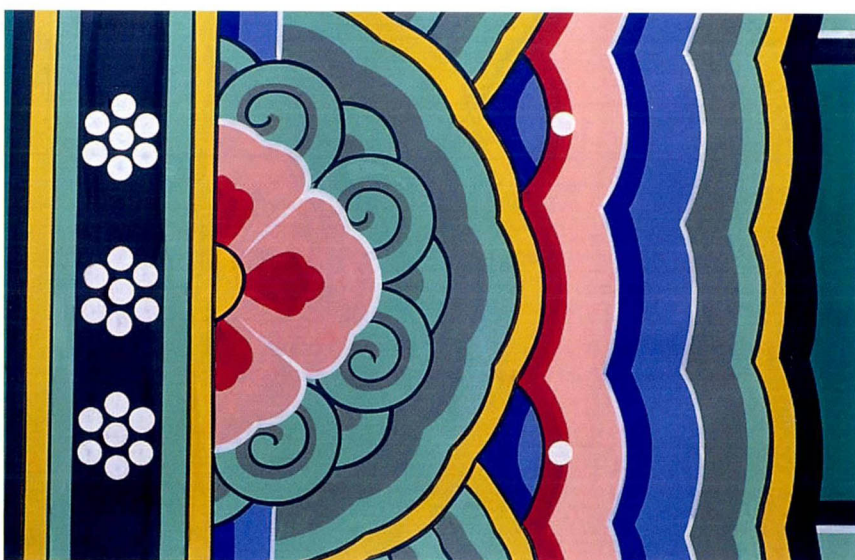
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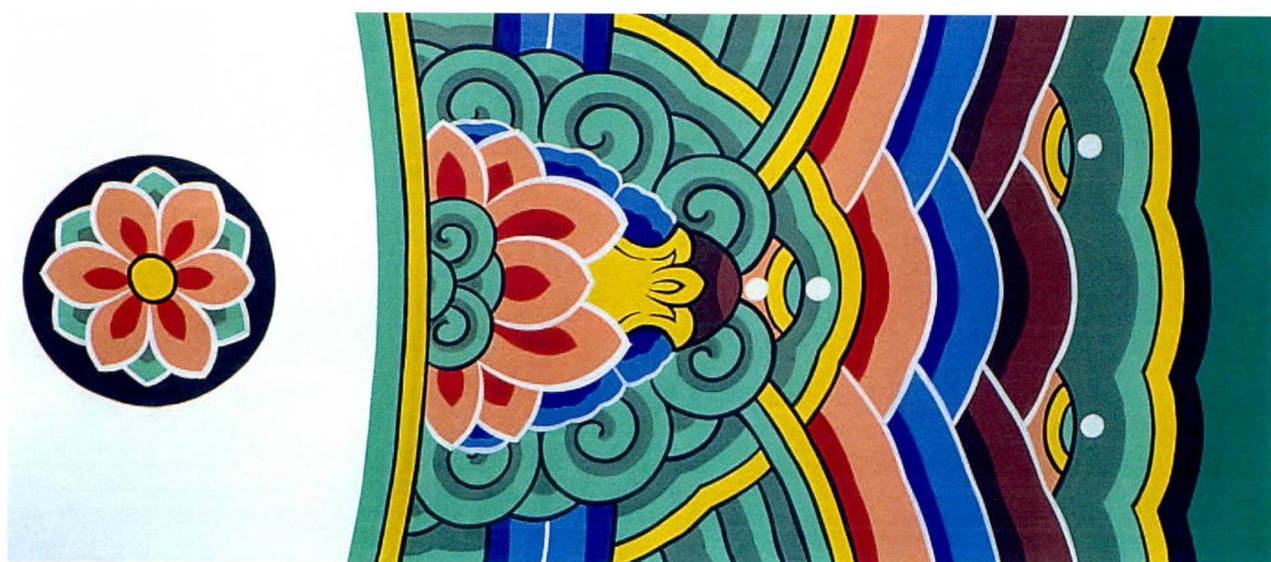
낙양궁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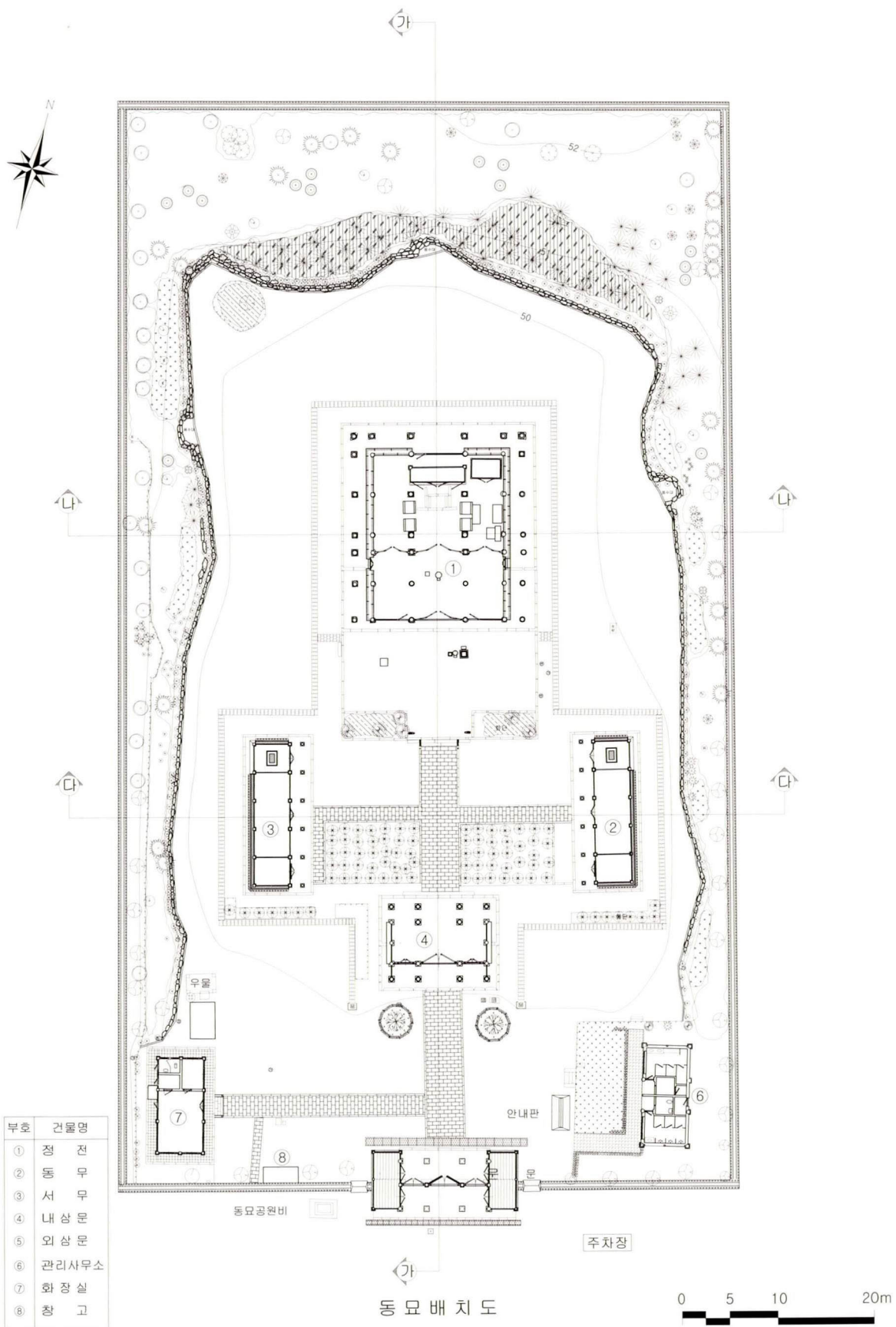
장혀 · 도리 뽕목



창방



서까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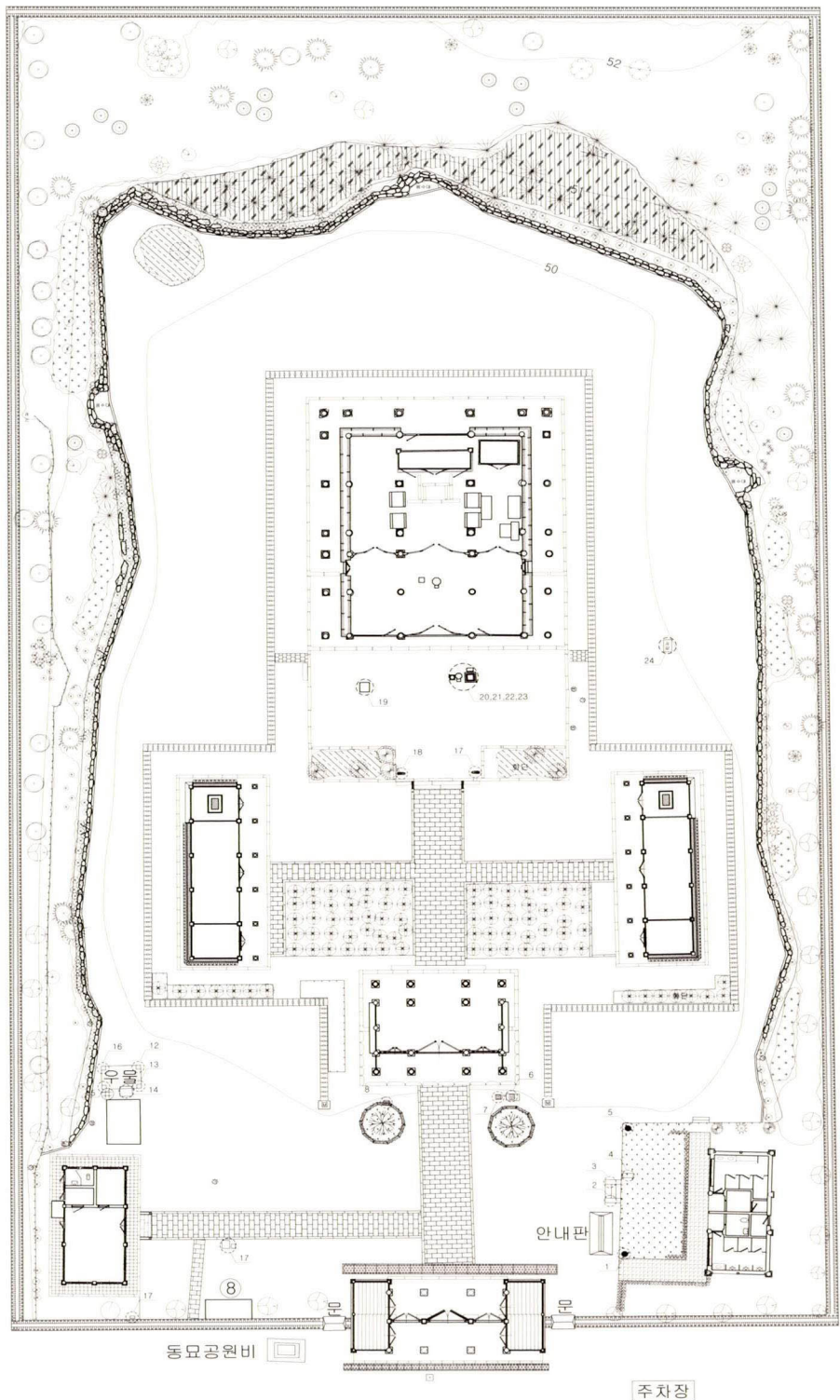


수목 수량표

성상	수목명	단위	기존수목
산목	소나무	주	50
	향나무		7
	교목계		57
관목	메타세퀘이어	주	21
	은행나무	"	32
	느티나무	"	20
	대추나무	"	1
	배롱나무	"	2
	목련	"	9
	모란	"	84
	단풍	"	13
	꽃사과	"	19
	행두나무	"	2
	고용나무	"	5
	산수유	"	2
	이태리포플러	"	6
	벽오동	"	2
	라일락	"	9
	사철나무	"	2
	교목계		229
관	산철쭉	주	874
	대나무	"	2896
	회양목	"	578
	피마자	"	10
	무궁화	"	13
	눈주목	"	11
	측백	"	48
	취종나무	"	48
	관목계		4478
수목총계			4764
초화	맥문동	분얼	7744
잔디			64.79 M2

석물집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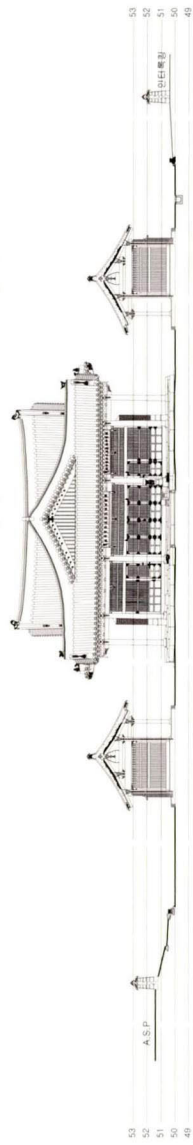
구분	명칭	수량	비고
1~24	석물	24개소	



석물 및 식재현황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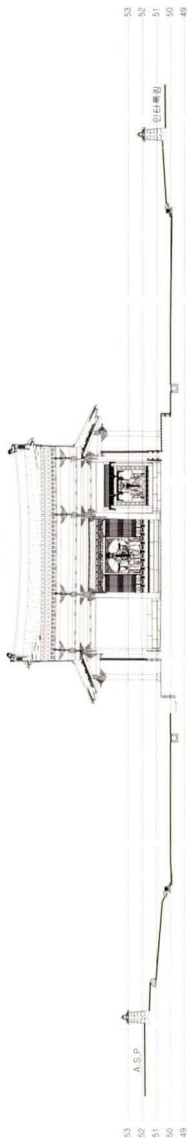


서 무 정 전 문 무



다-다 단면도

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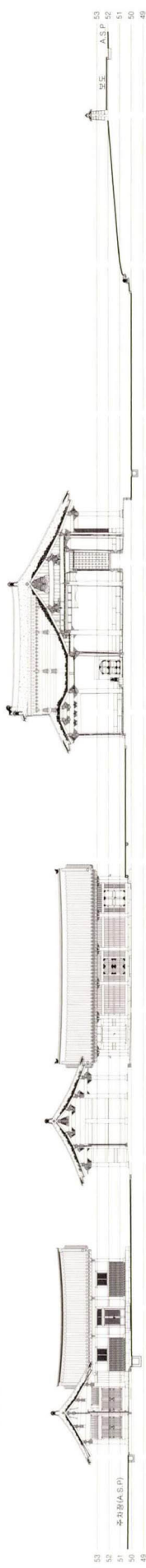


나-나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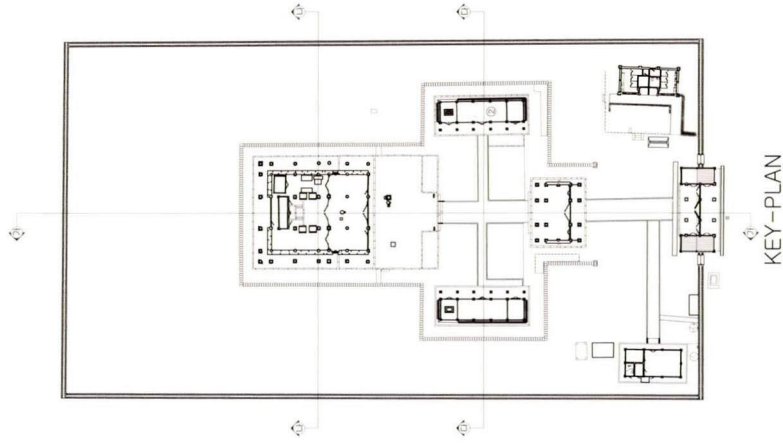
외 상 문 관리사무소

내 상 문

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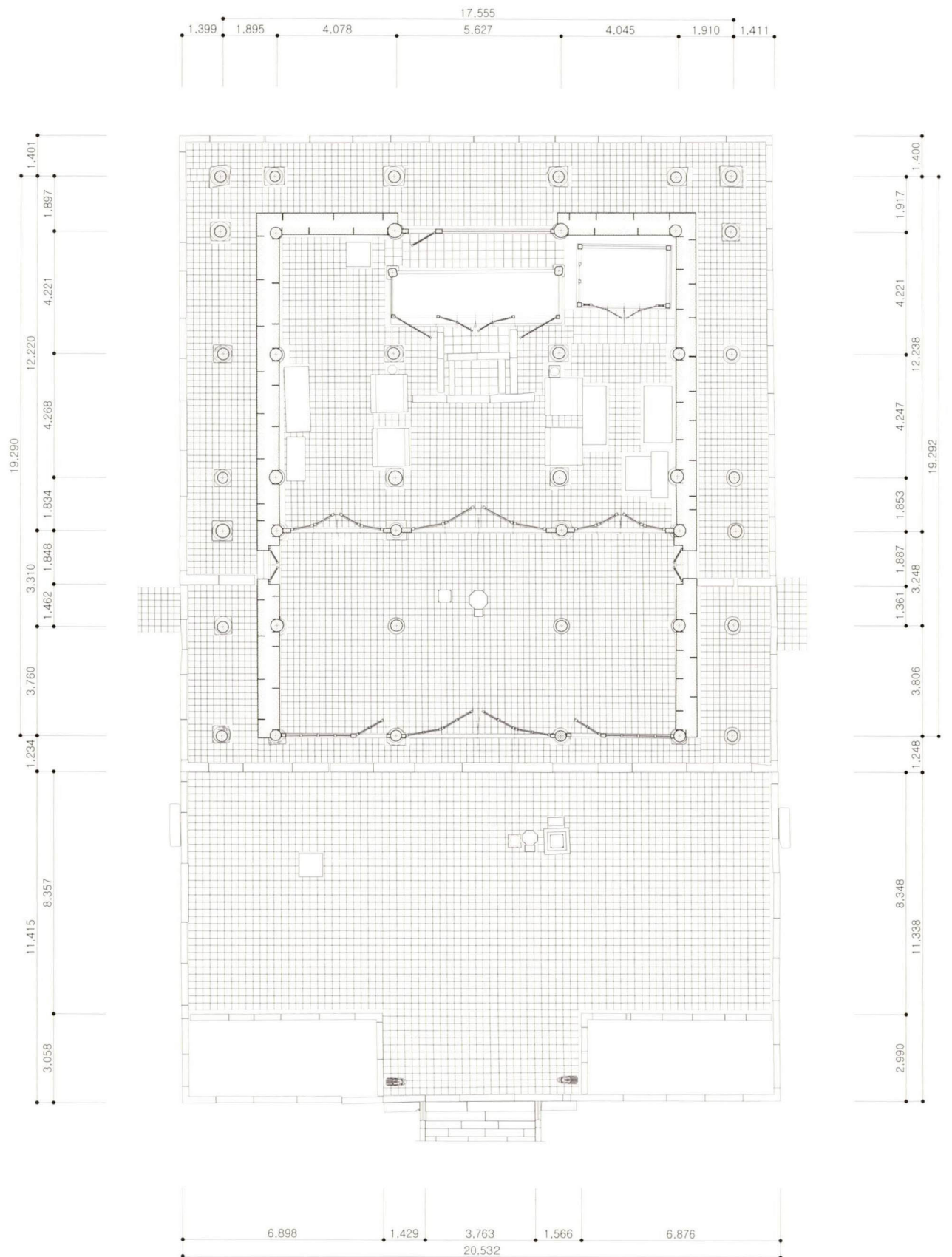


가-가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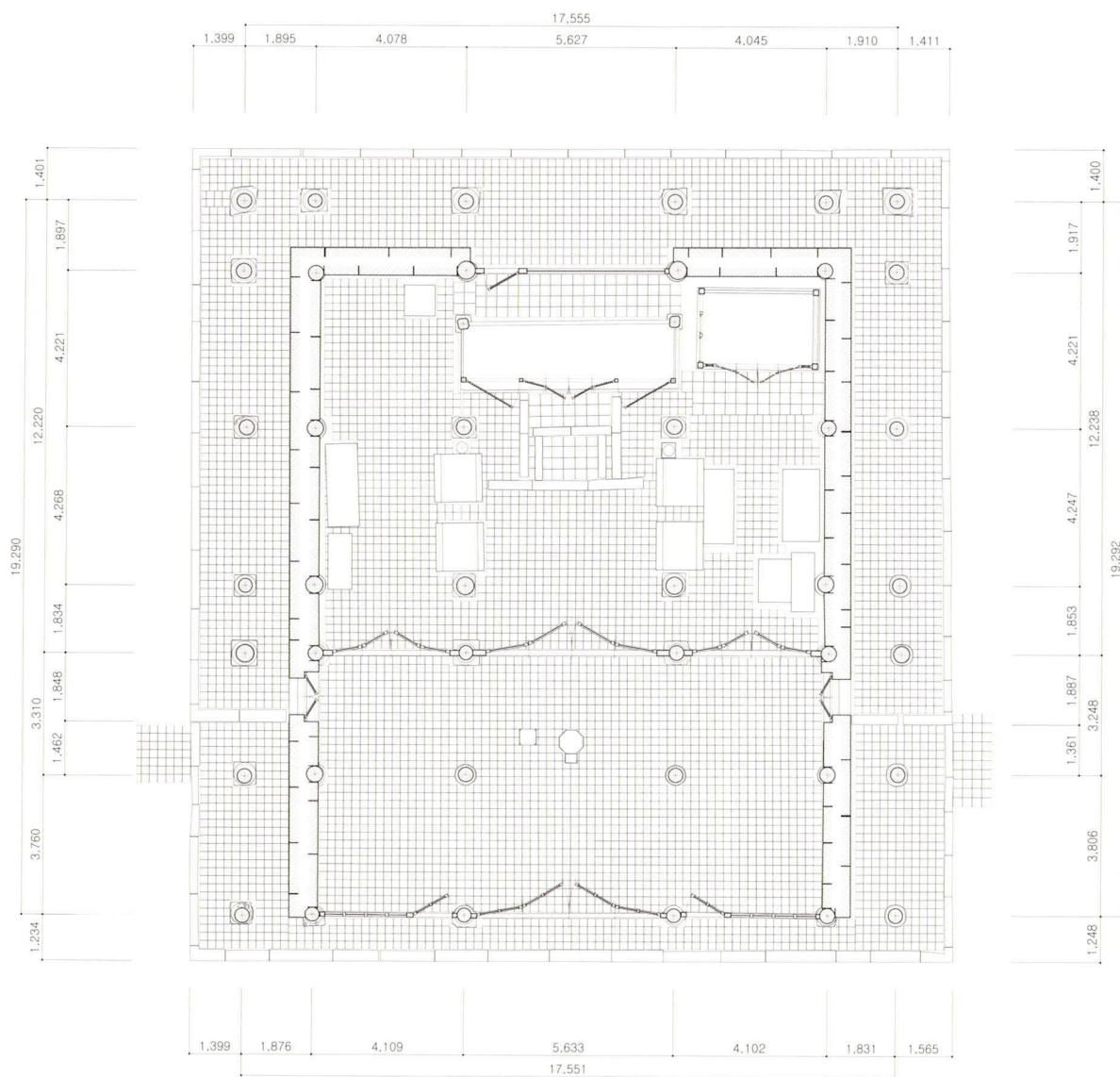
대 지 단 면 도





0.5m

0 1.0 2.0 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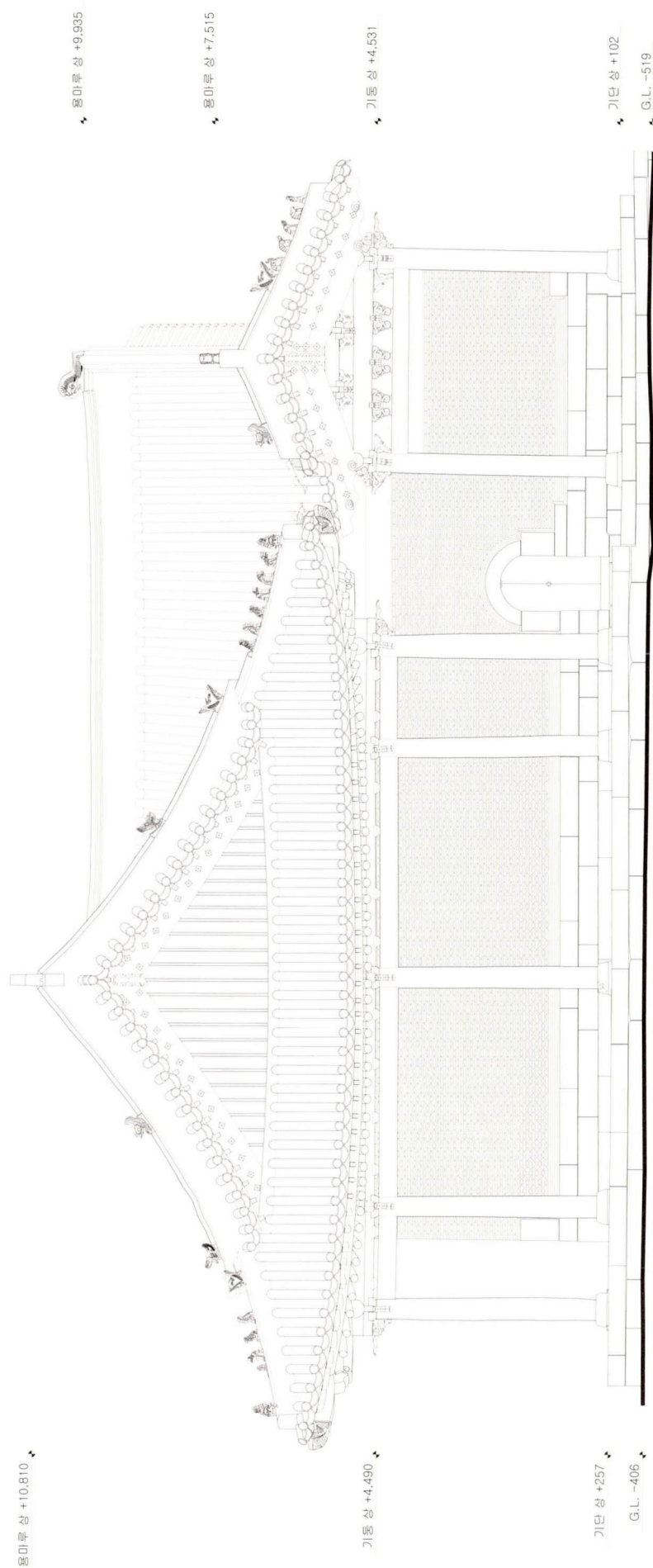


하부 주칸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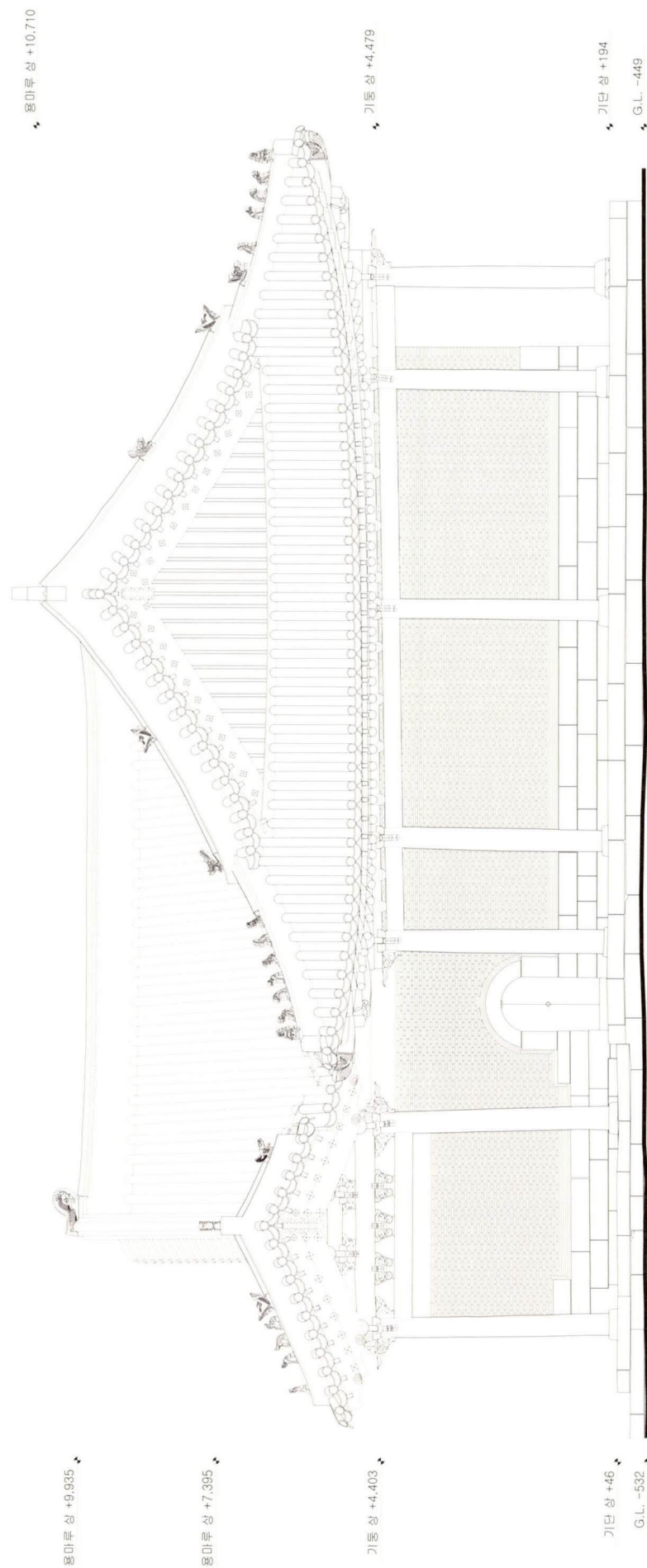


내
편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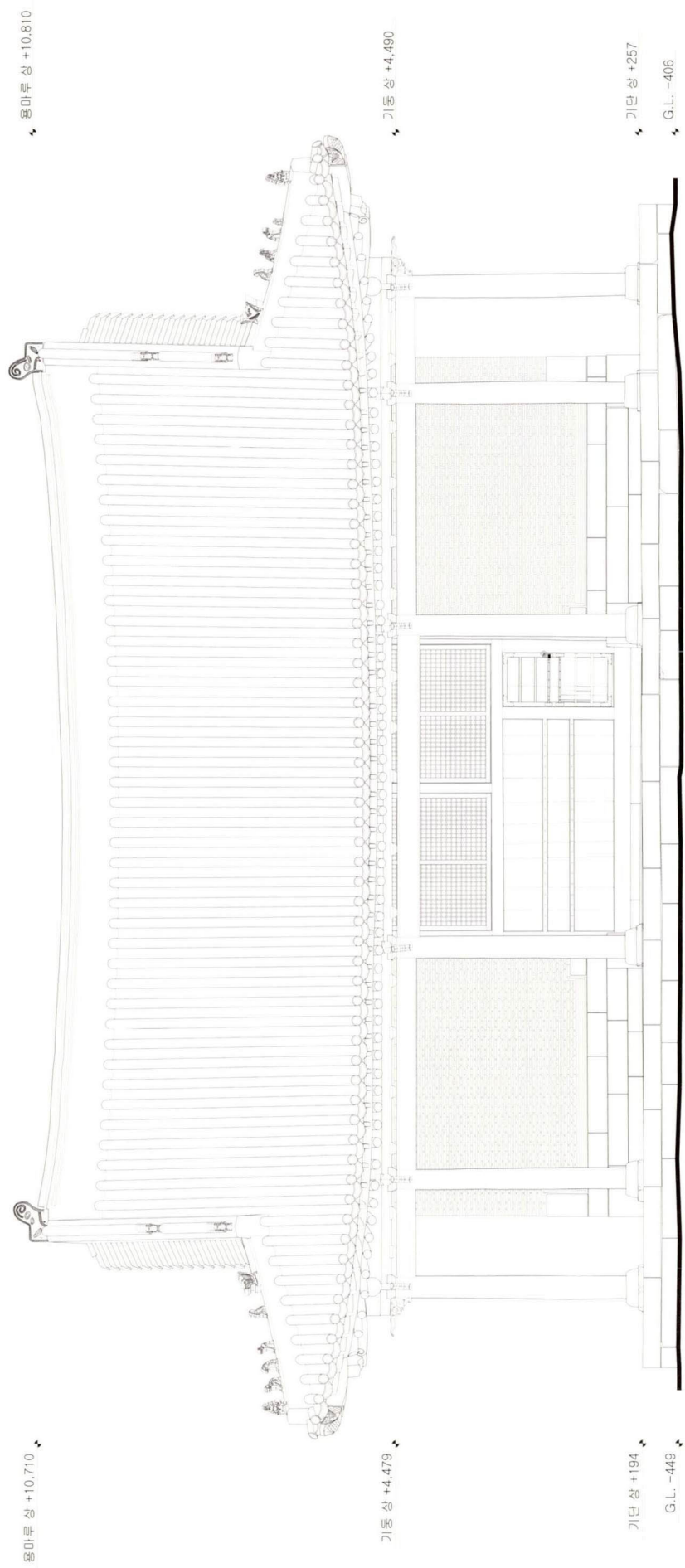


0 1.0 2.0 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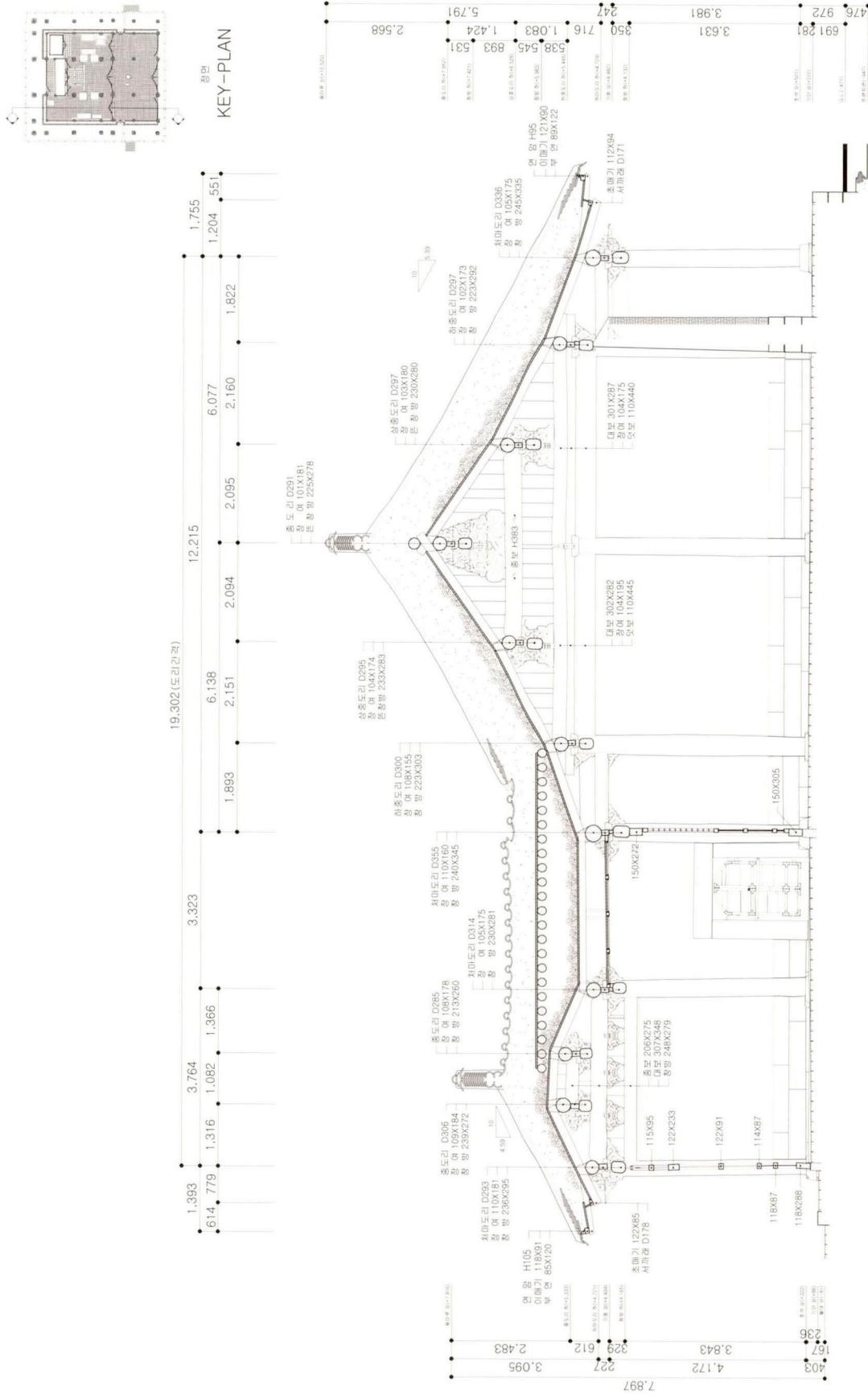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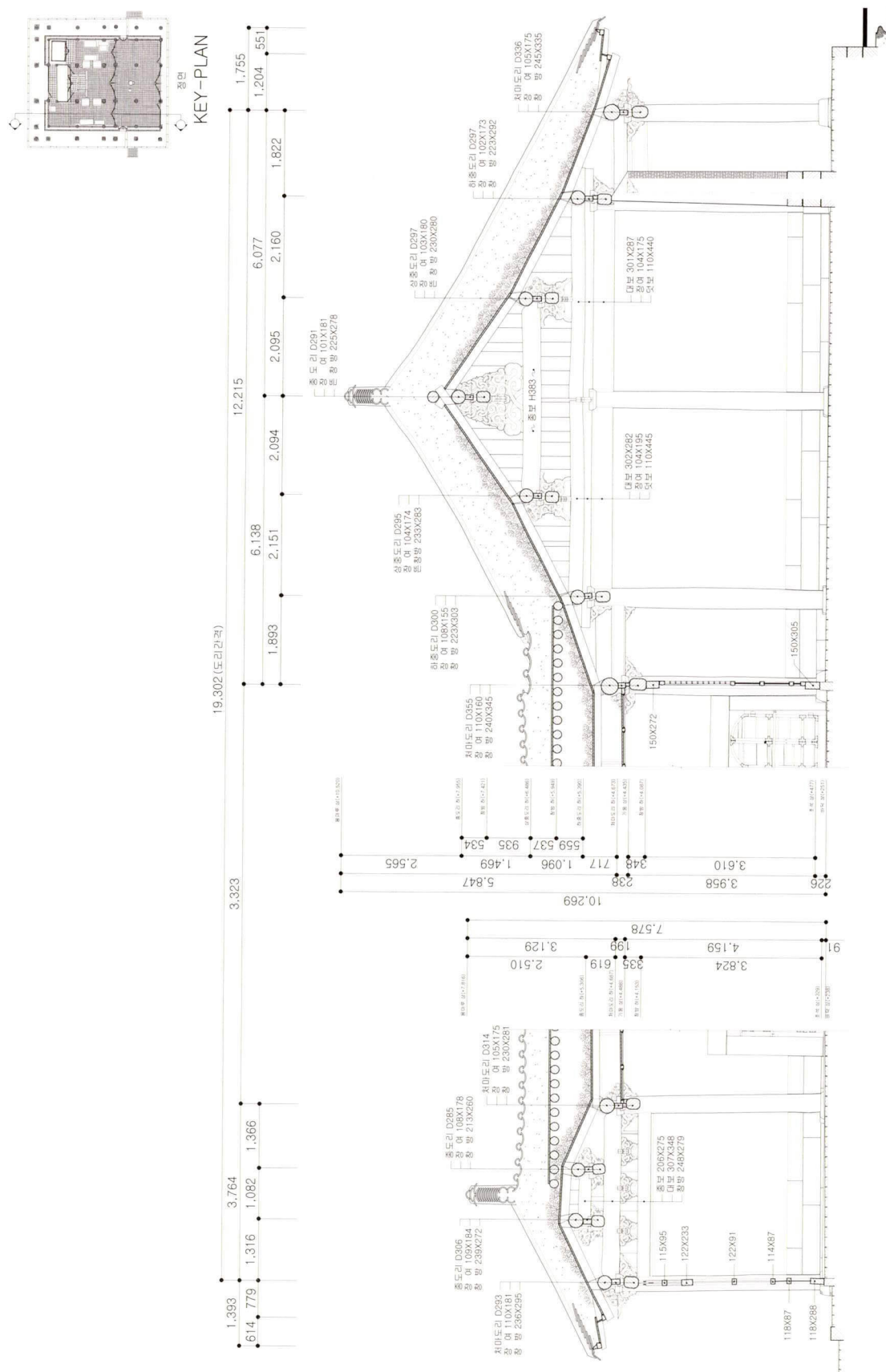


아 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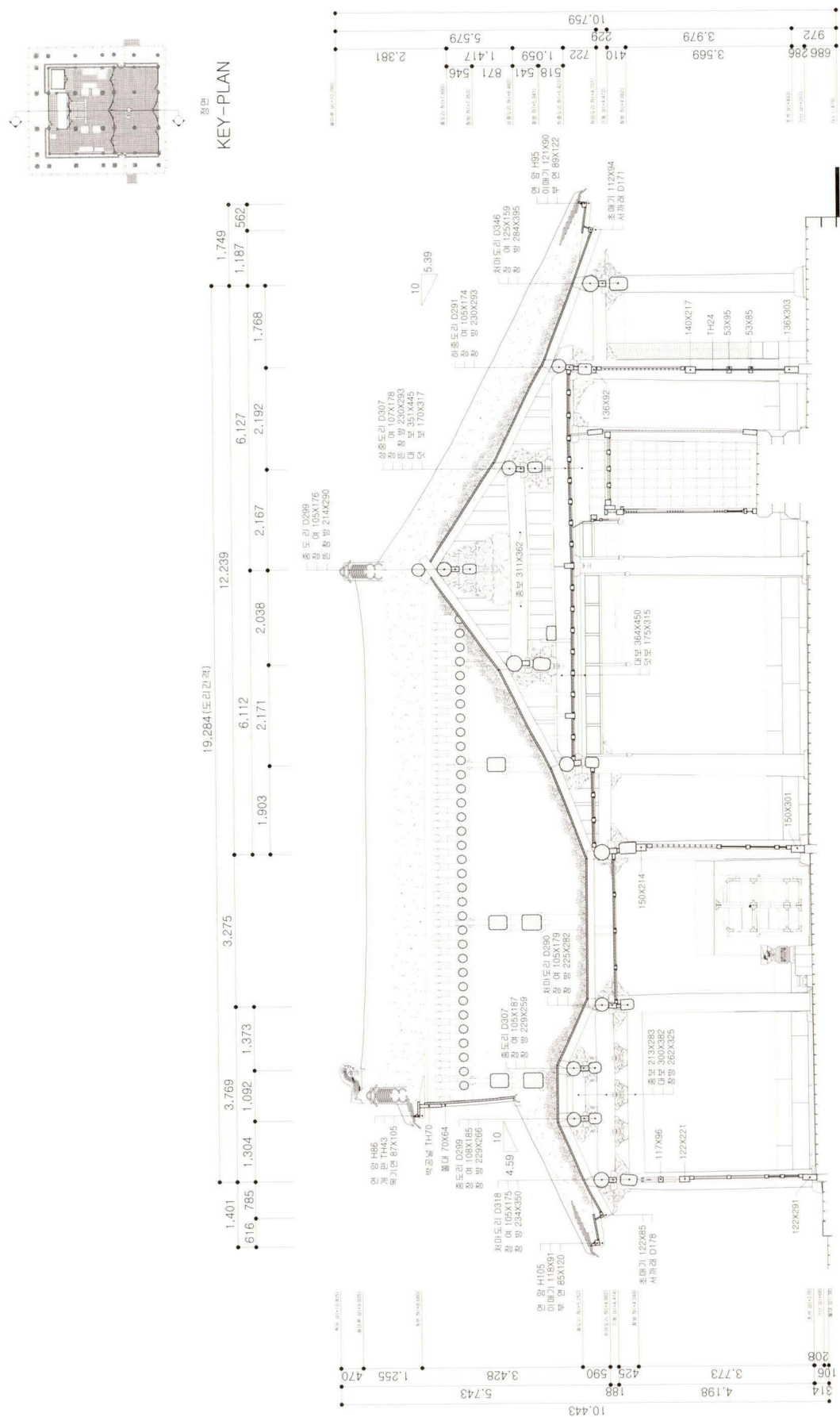
남
면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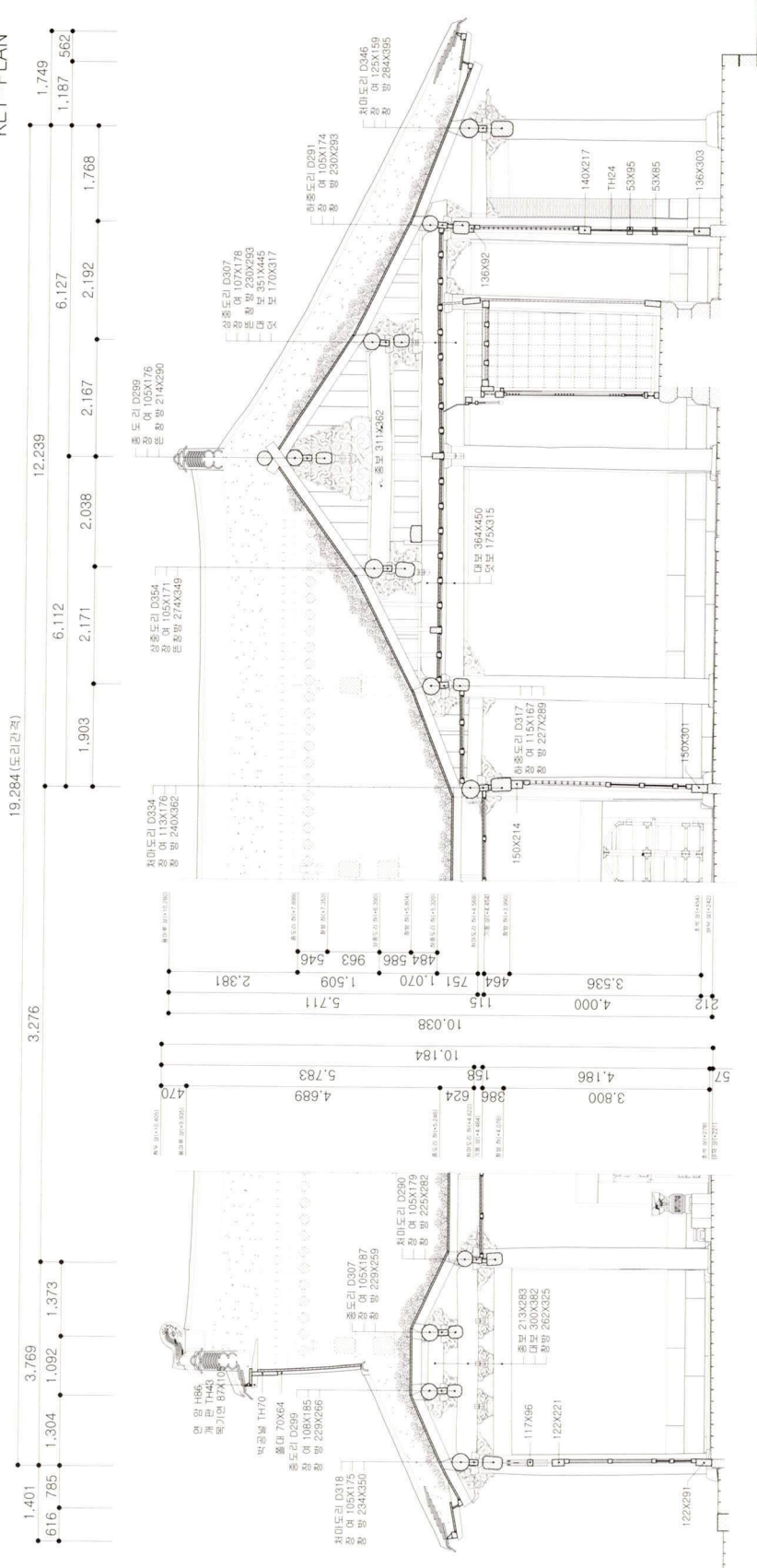


다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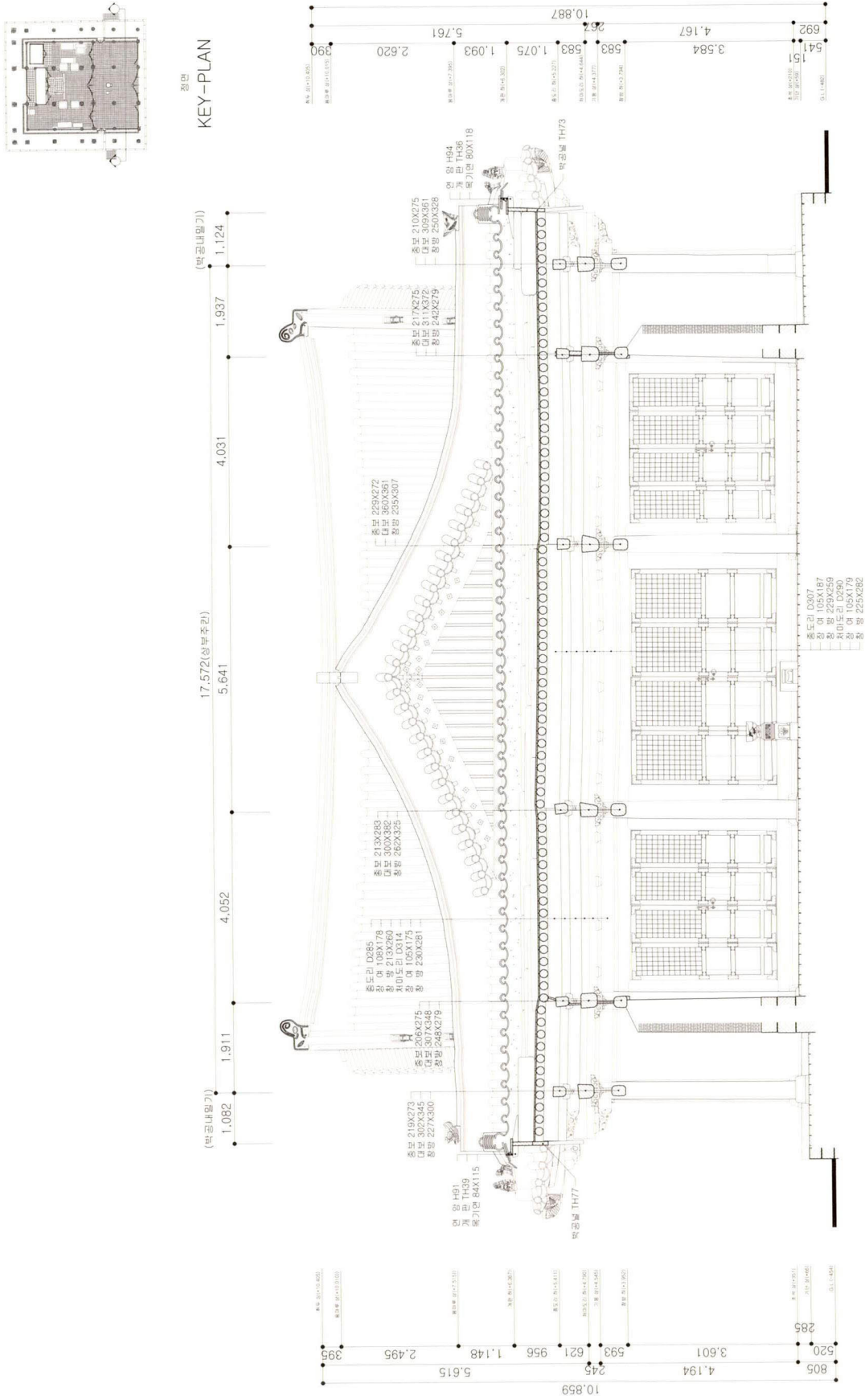
MAY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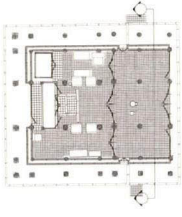
K10 25 2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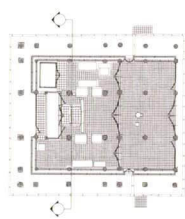
0 1.0 2.0 4.0m

(1) 4 5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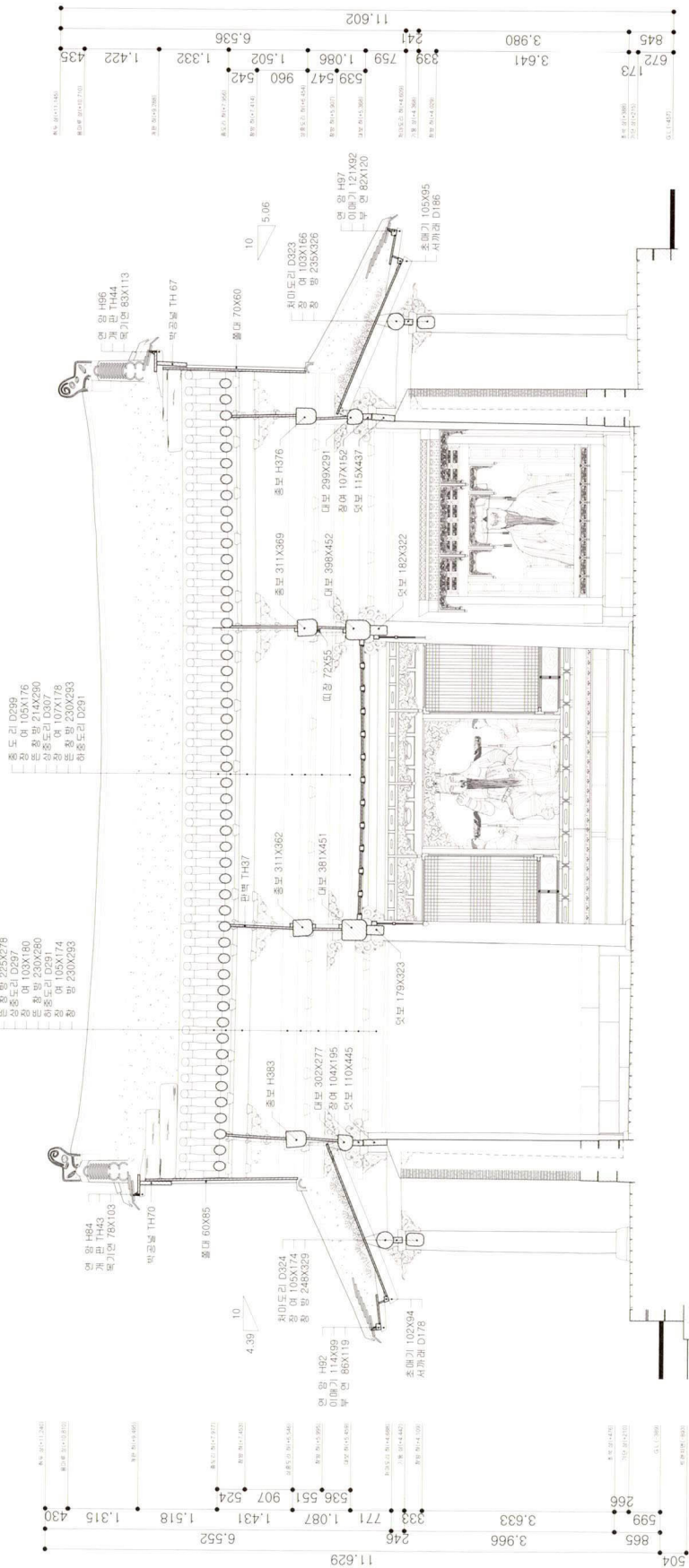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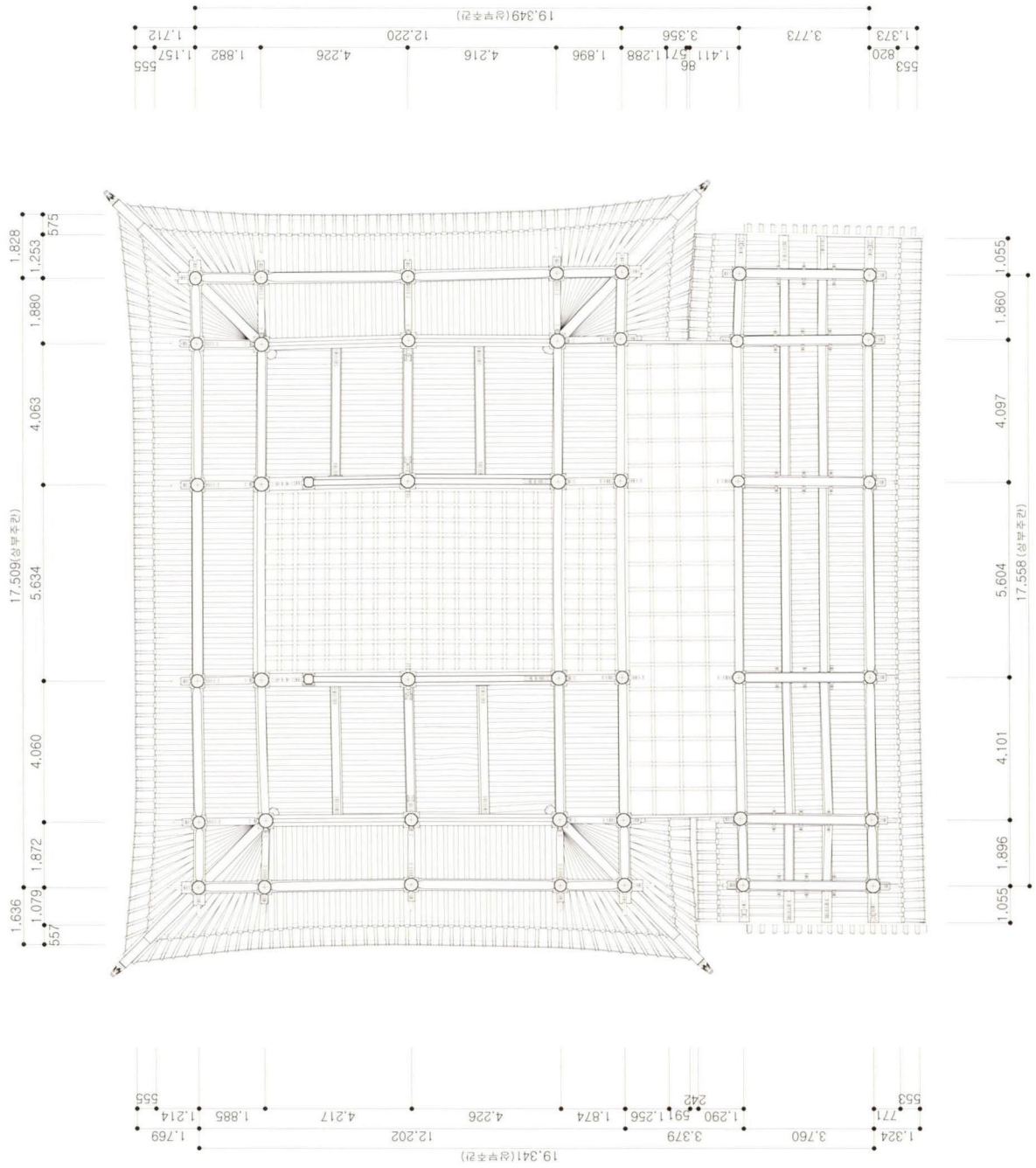


장면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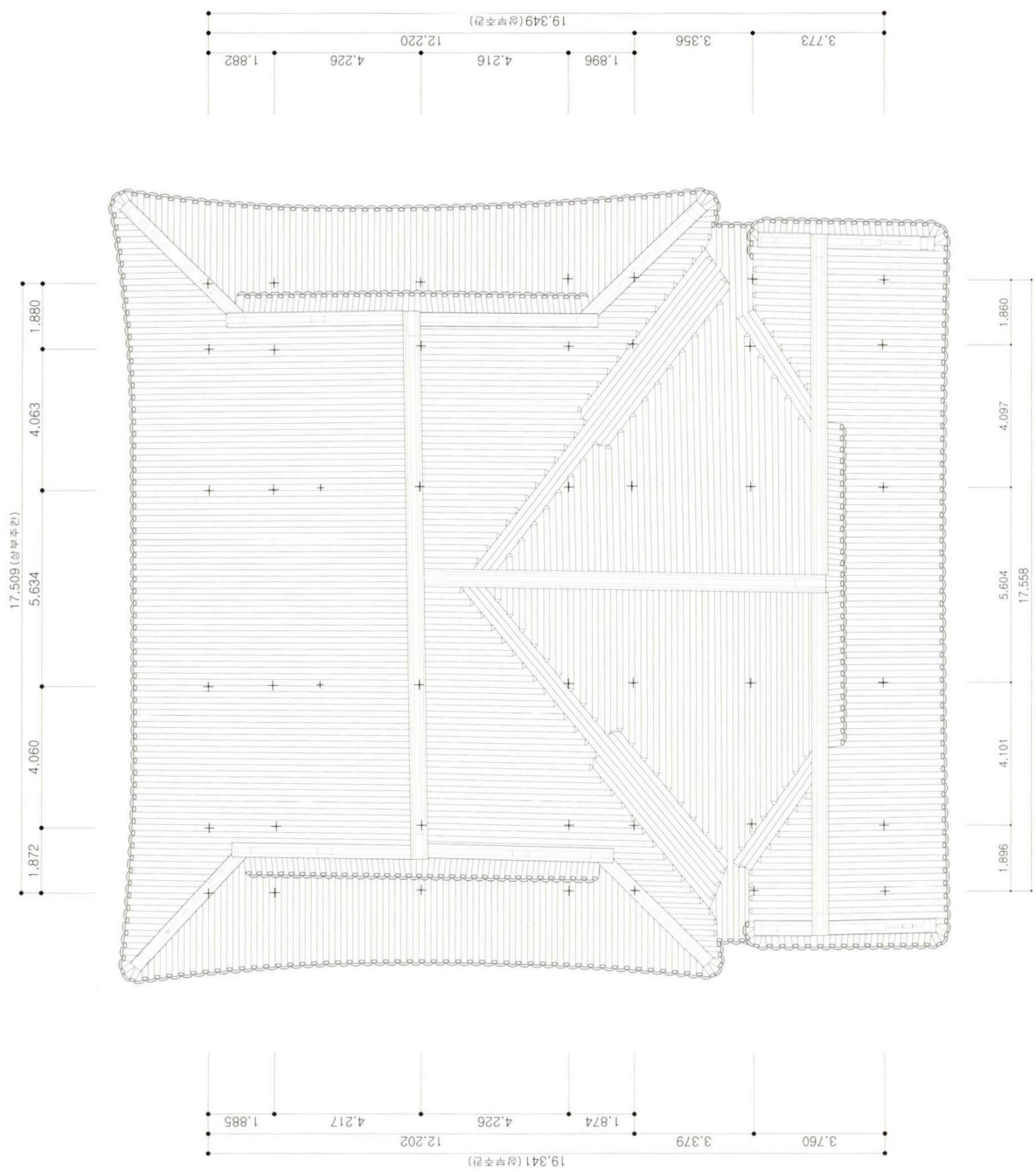


남
면
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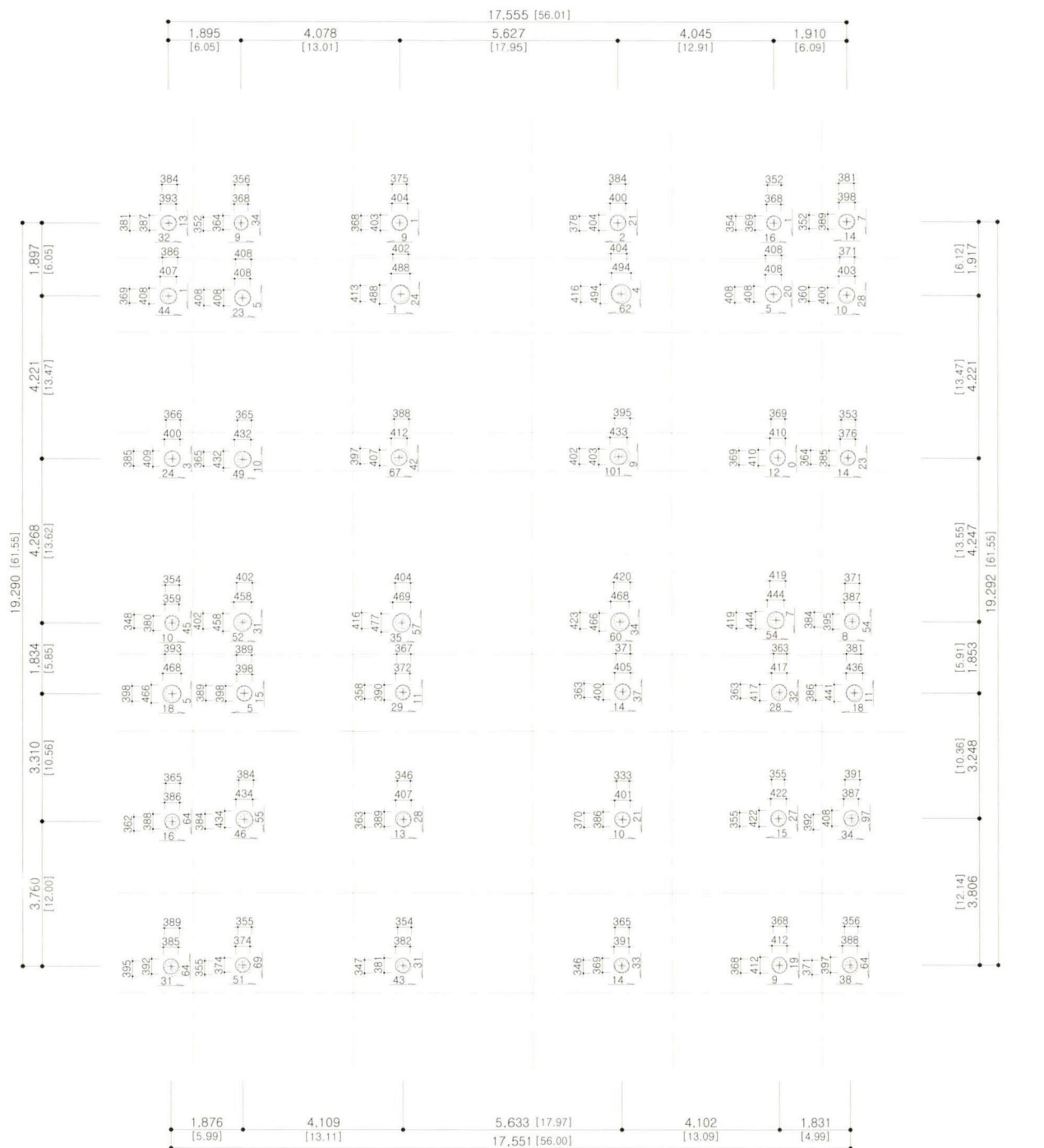


양 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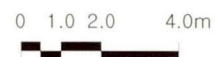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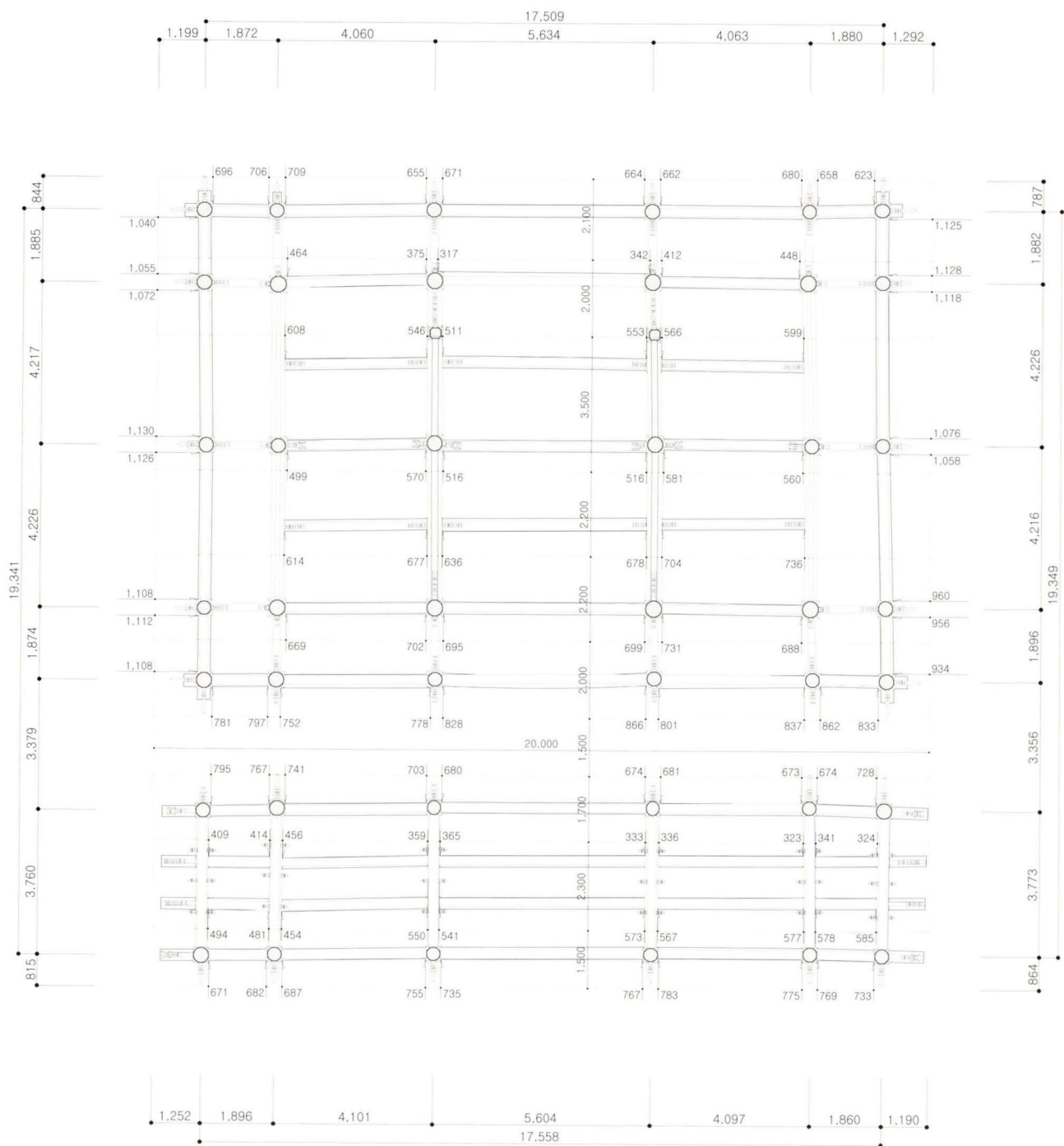
도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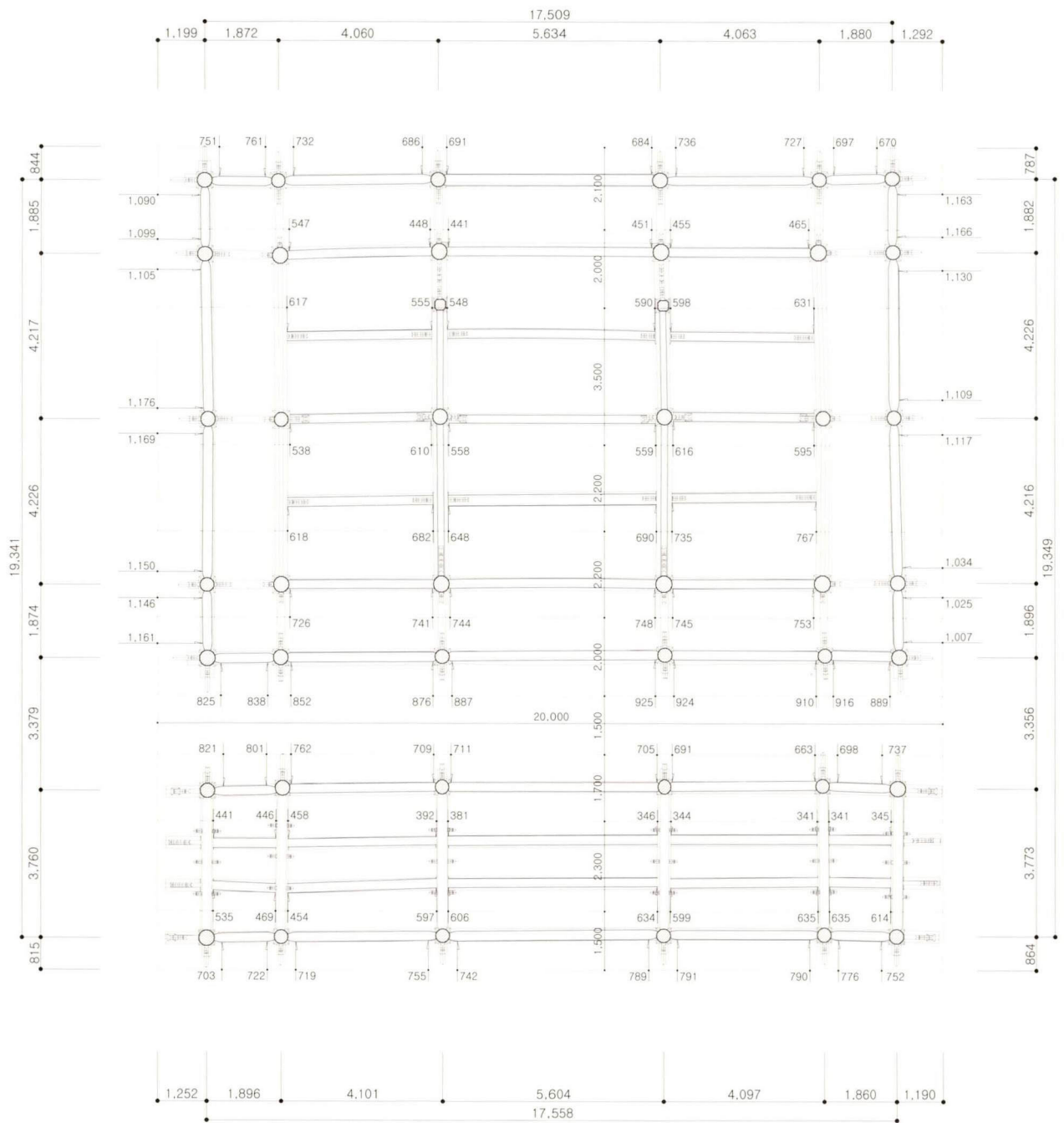
기둥 크기 및 기둥기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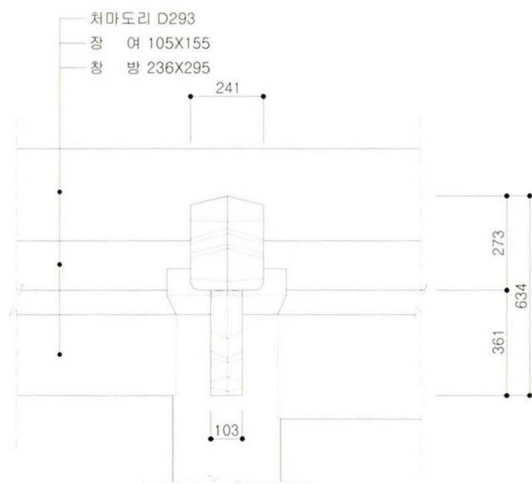
도리 변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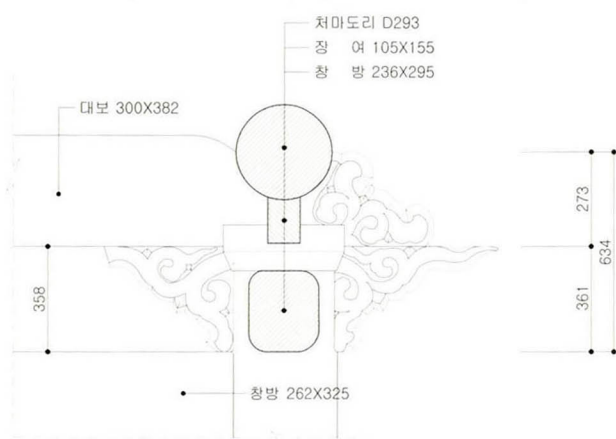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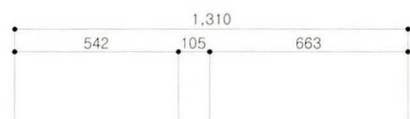


창방 변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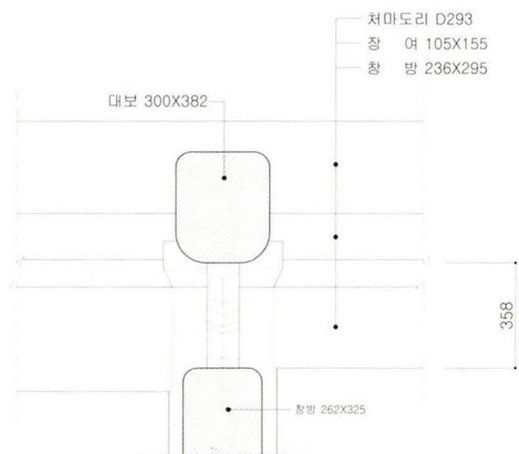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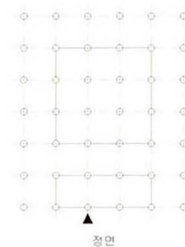
외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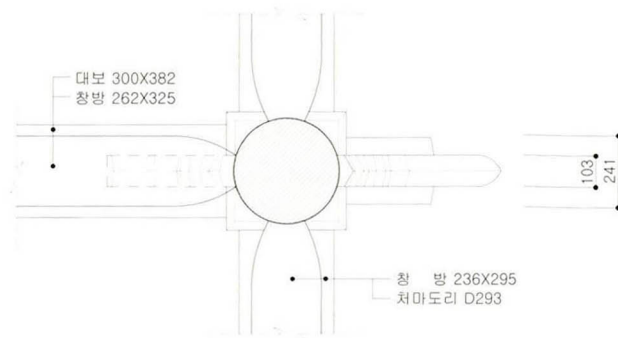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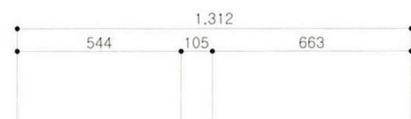
측 면



내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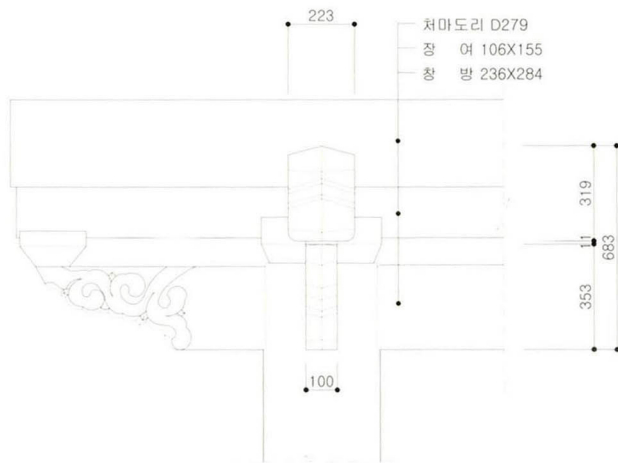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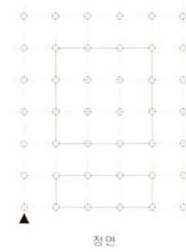
양 시

정면 익공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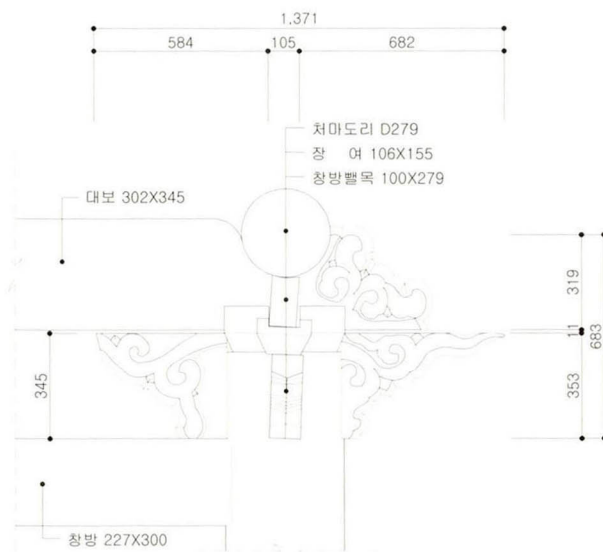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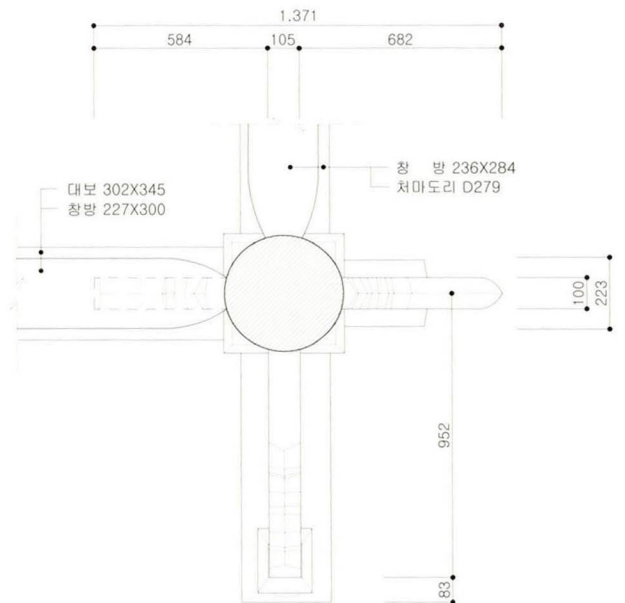
외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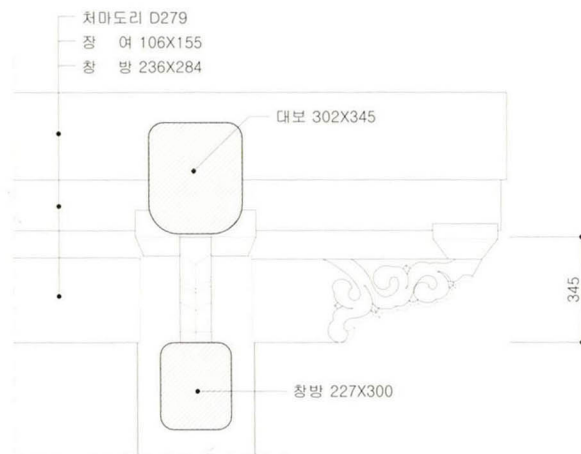
KEY-PLAN



측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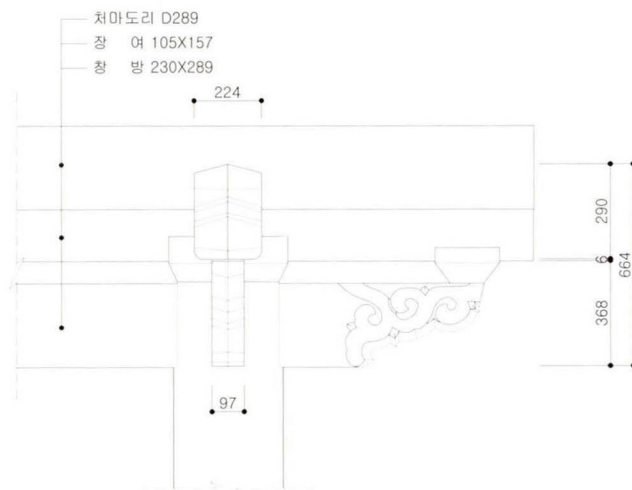
양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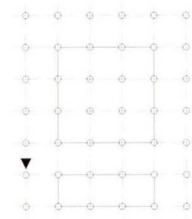
내 부

정면 귀익공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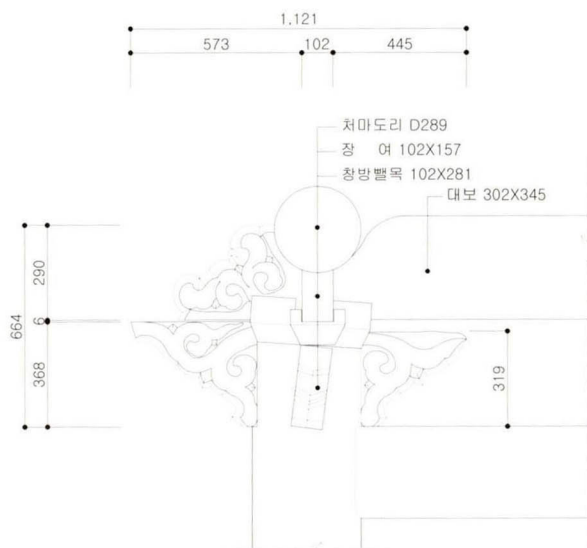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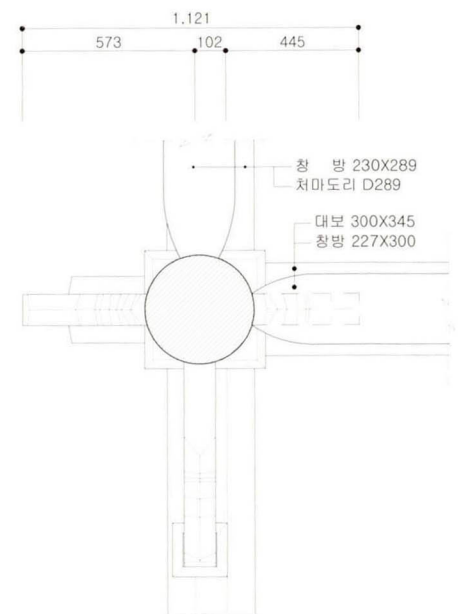
외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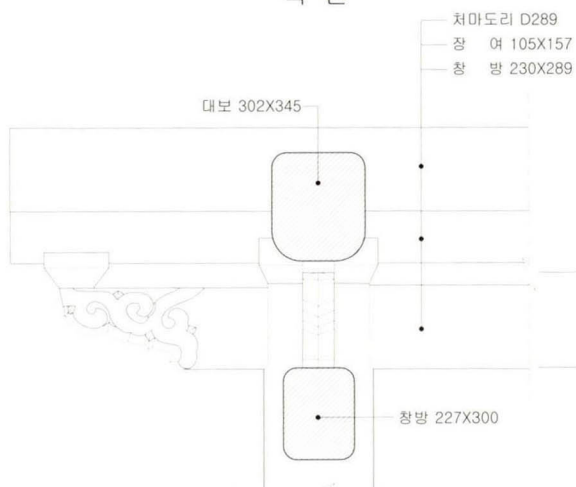
정면
KEY-PLAN



측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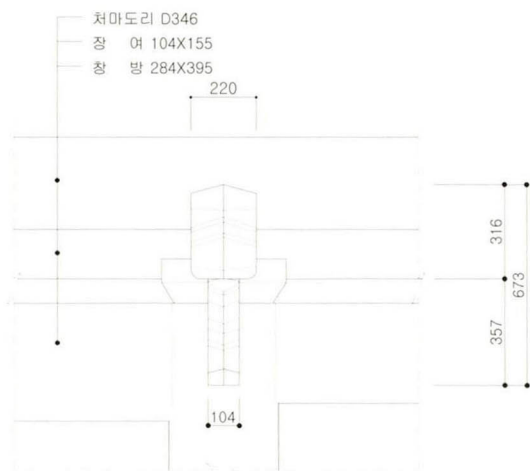
안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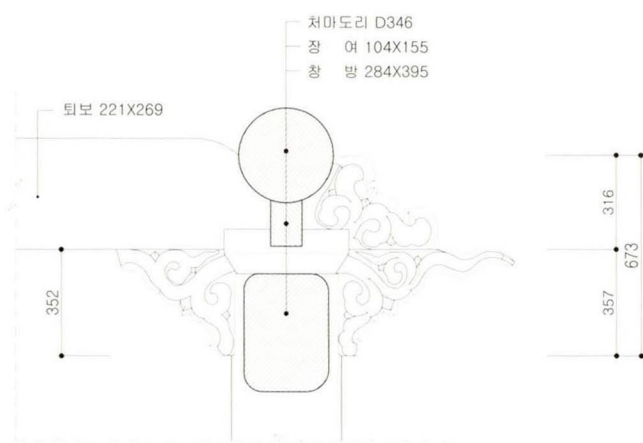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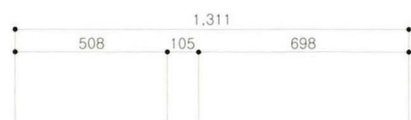
내 부

측면 익공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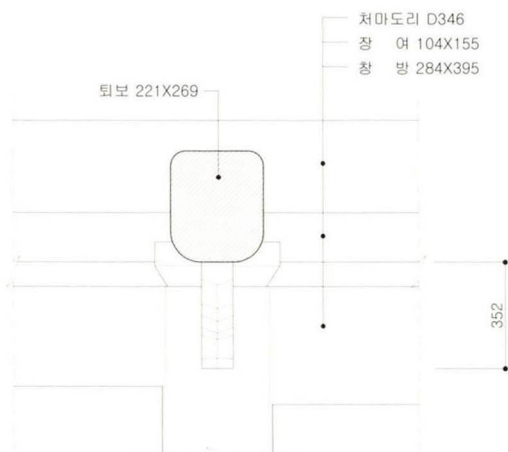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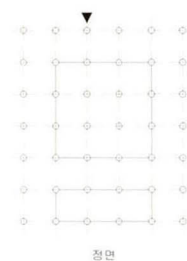
외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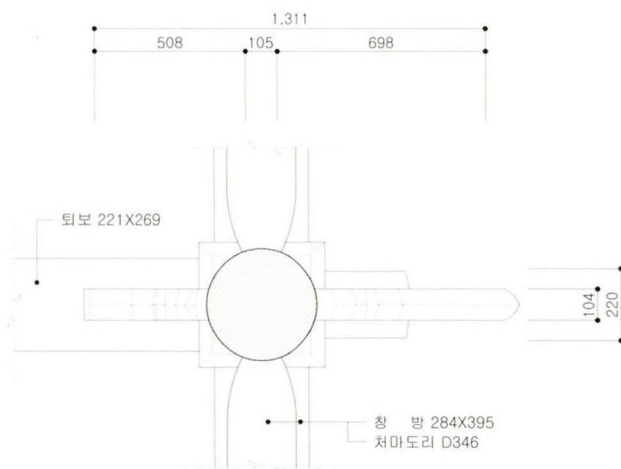
측 면



내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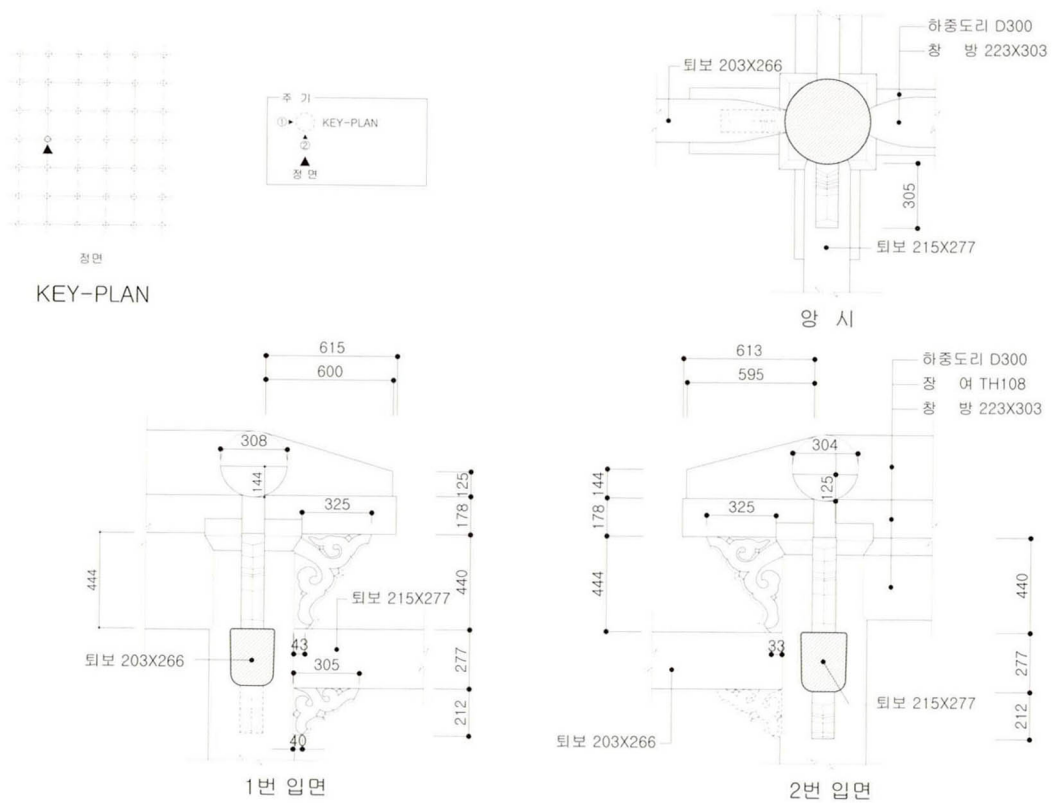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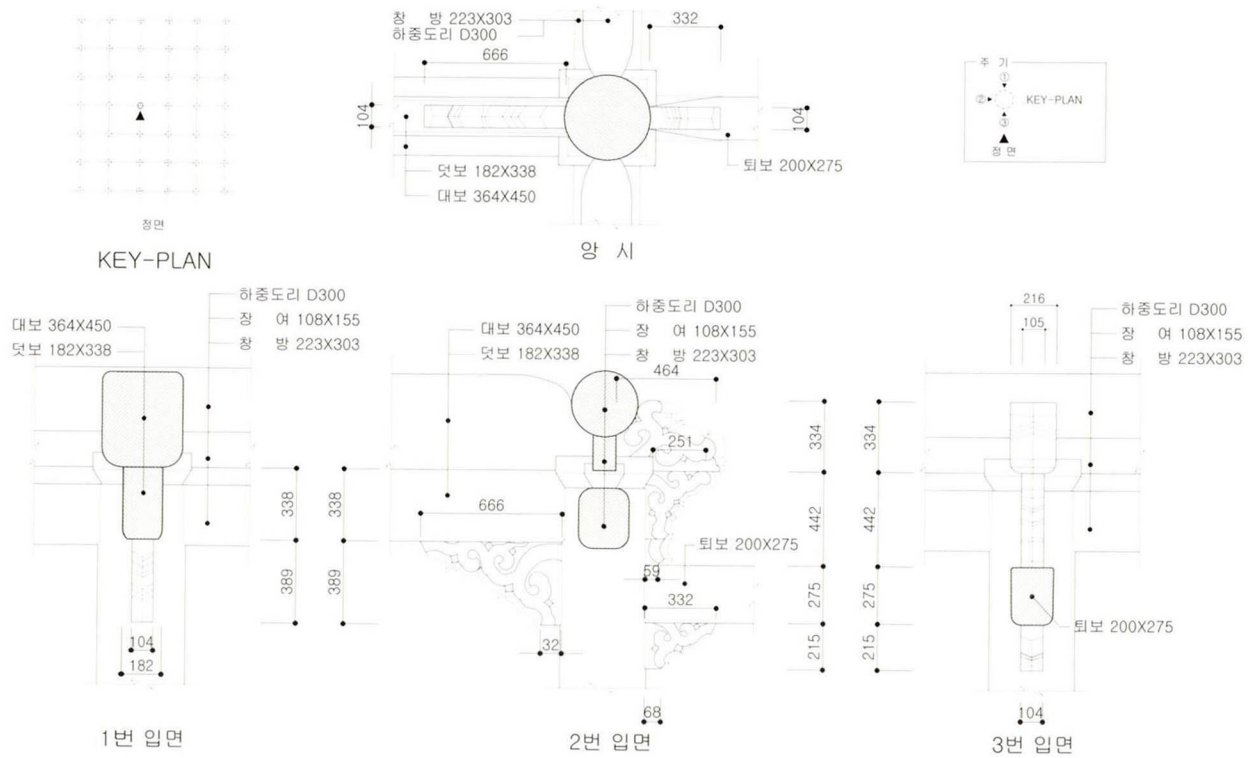
양 시

배면 익공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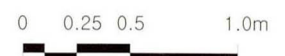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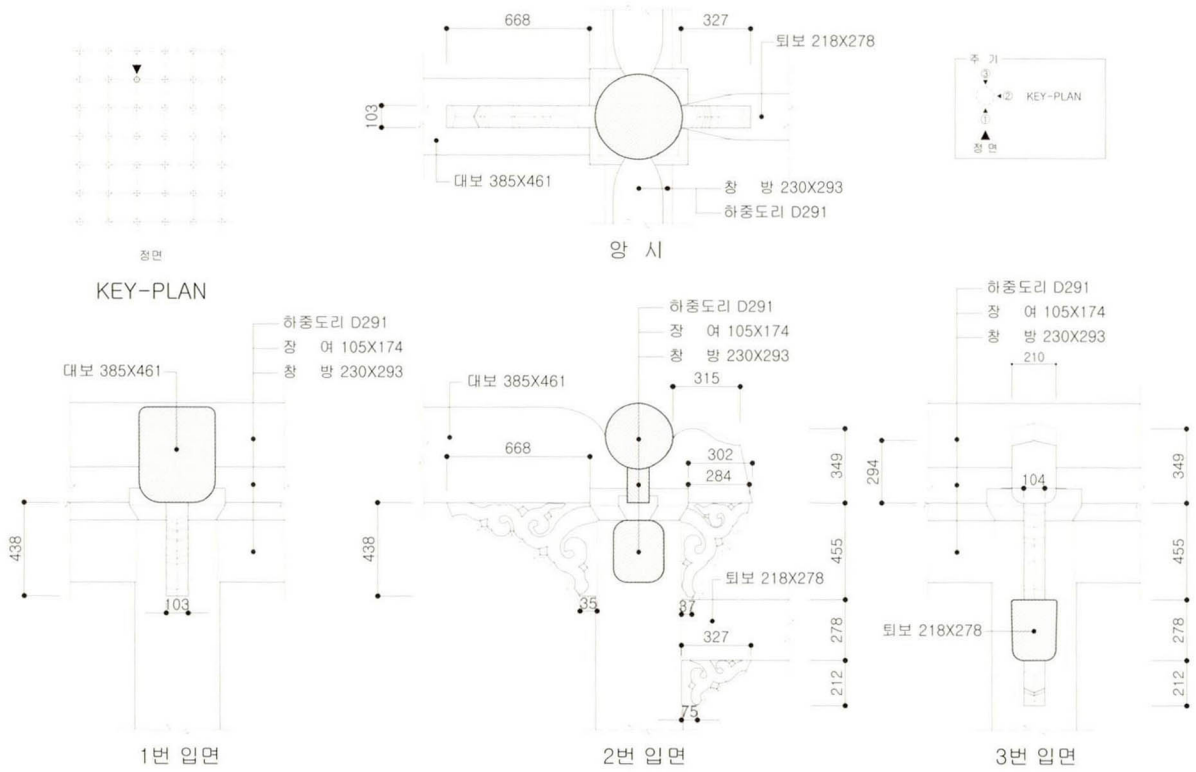


정청 대량 보아지 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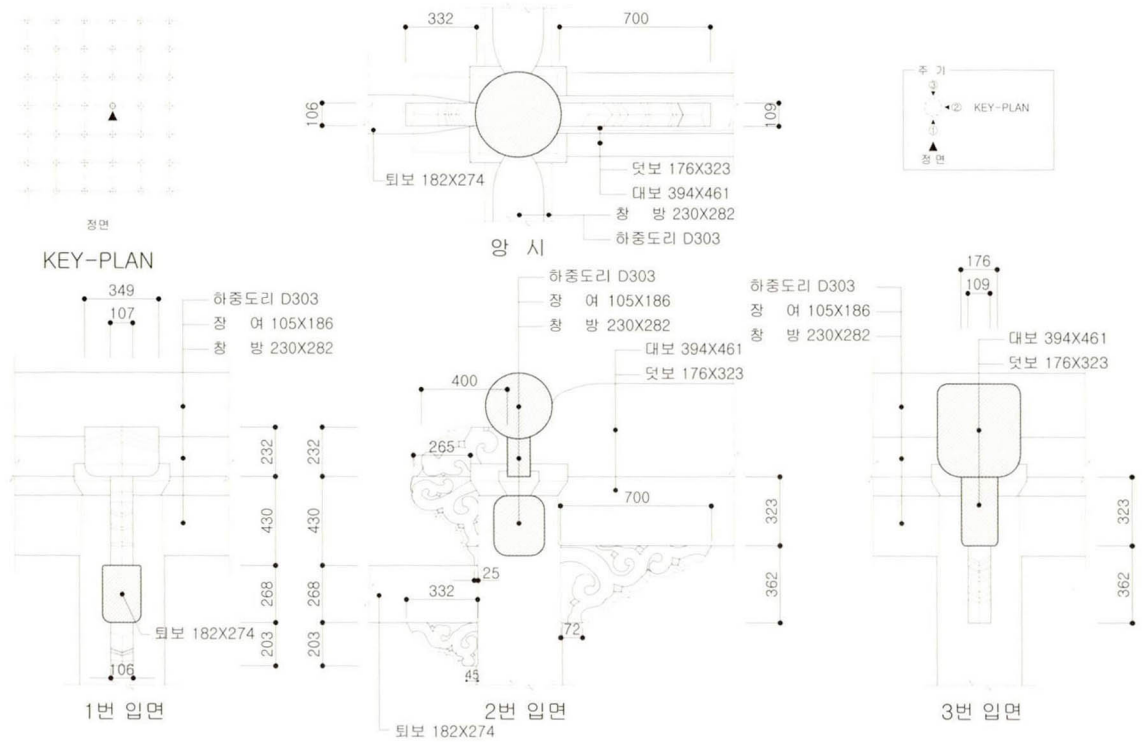


정청 대량 보아지 상세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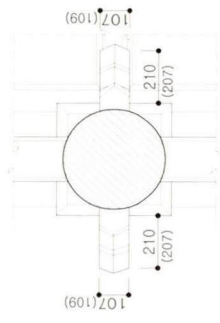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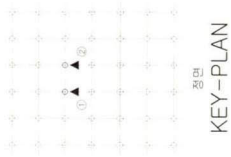


정청 대량 보아지 상세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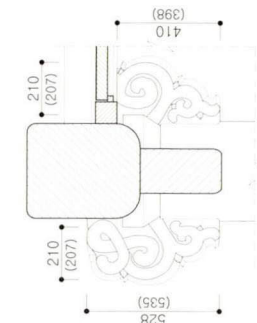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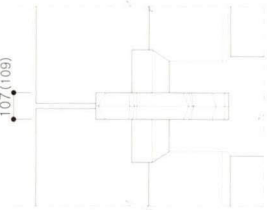


정청 대량 보아지 상세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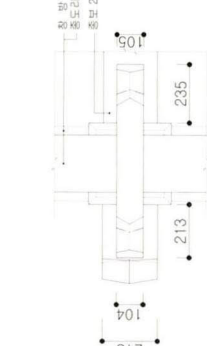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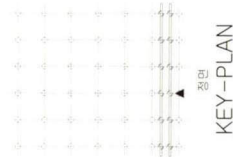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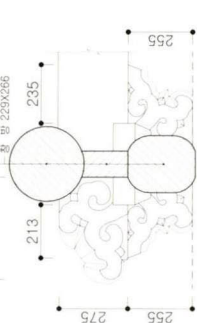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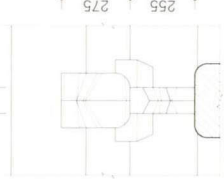
정면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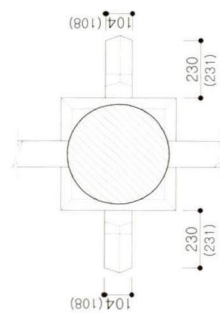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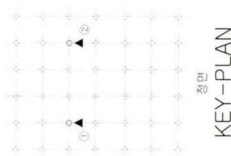
정면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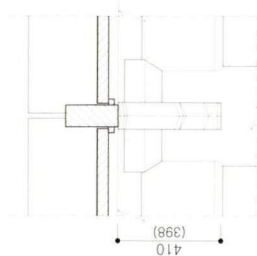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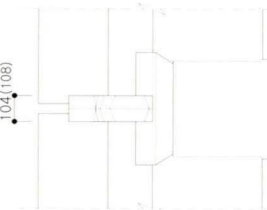


정면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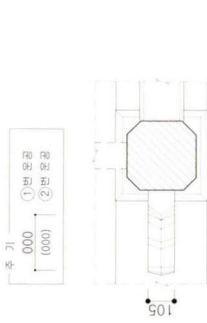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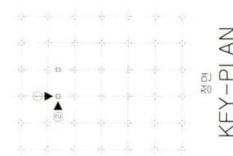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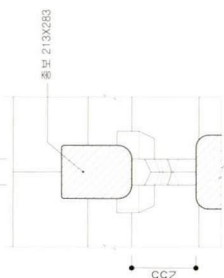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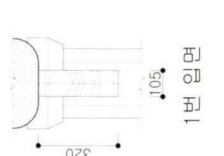
정면

정면



정면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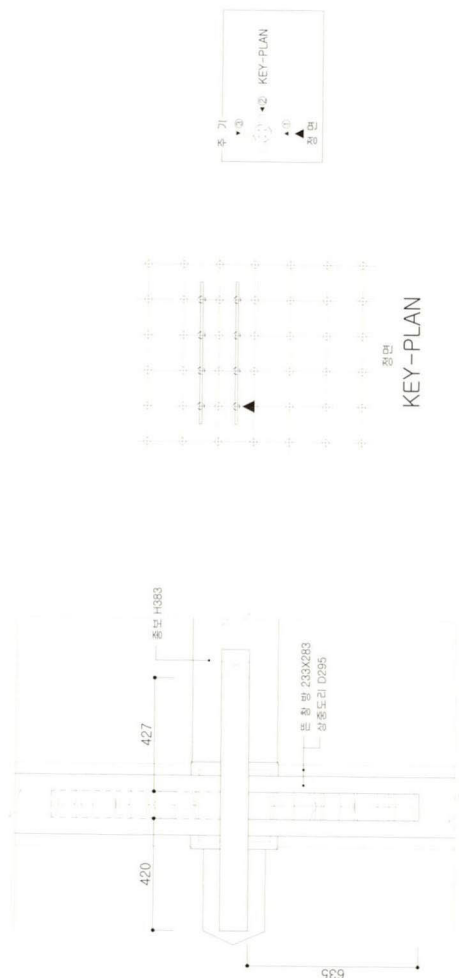
정면

정면

전체 종량 보아지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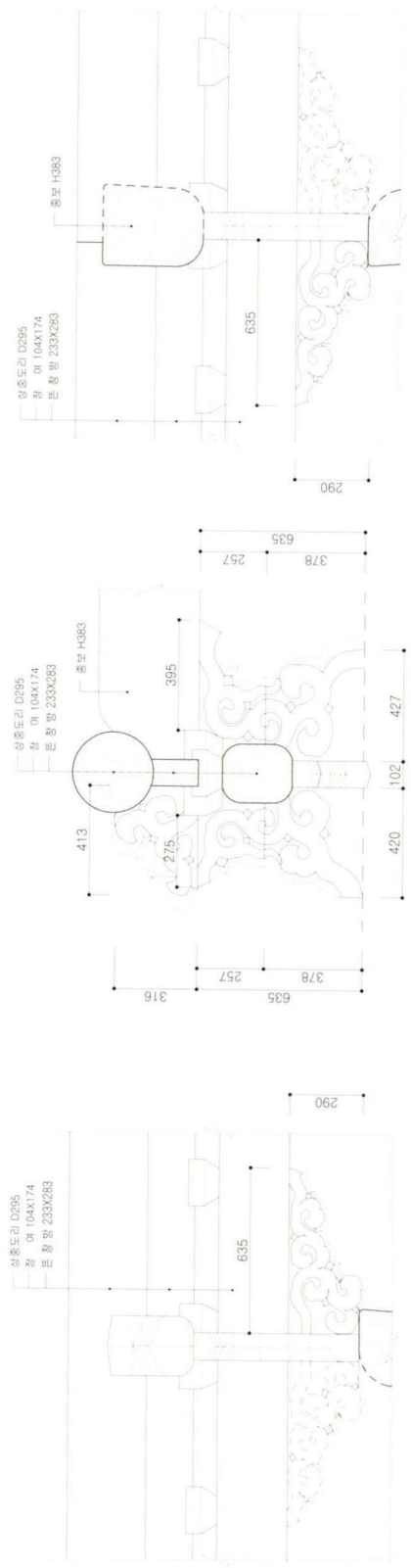
셋기동 대량보아지 상세도





전실 화반 상세도

양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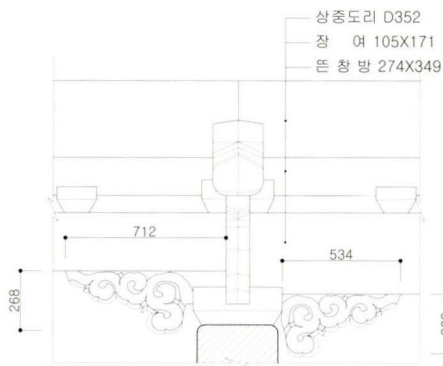
1면 입면

2면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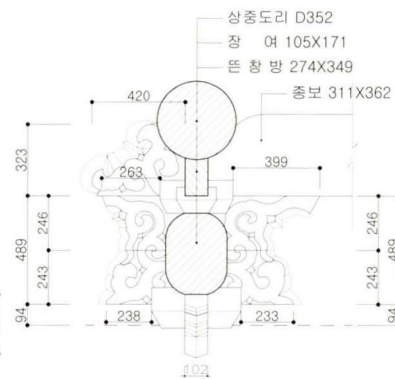
3면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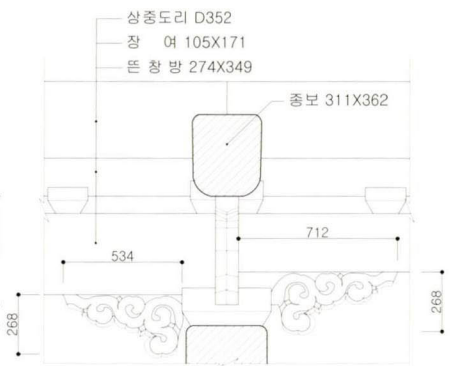
상중도리 대공 상세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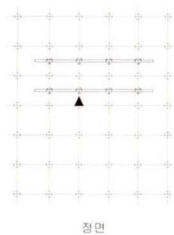
1번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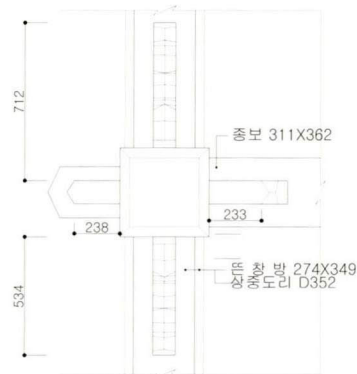
2번 입면



3번 입면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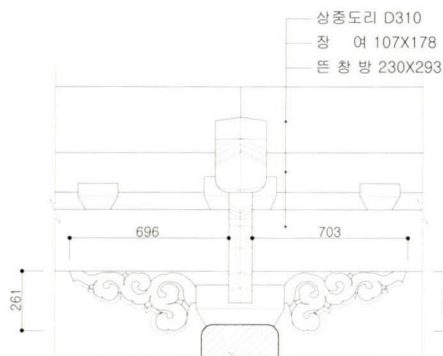


양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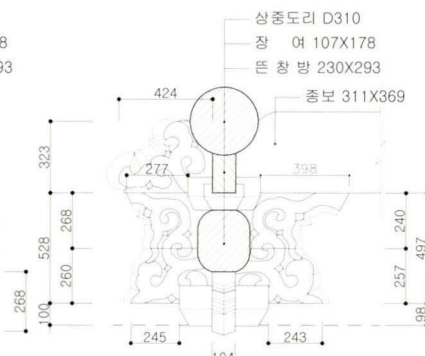


상중도리 대공 상세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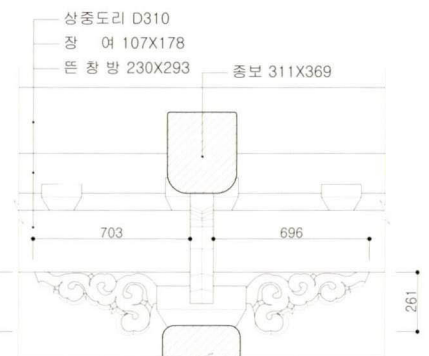
0 0.25 0.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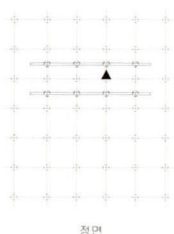
1번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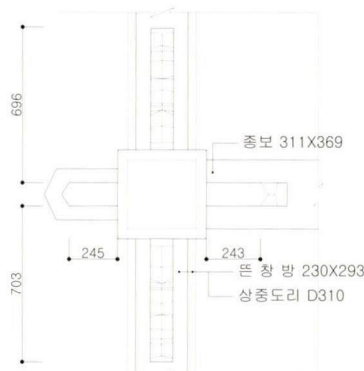
2번 입면



3번 입면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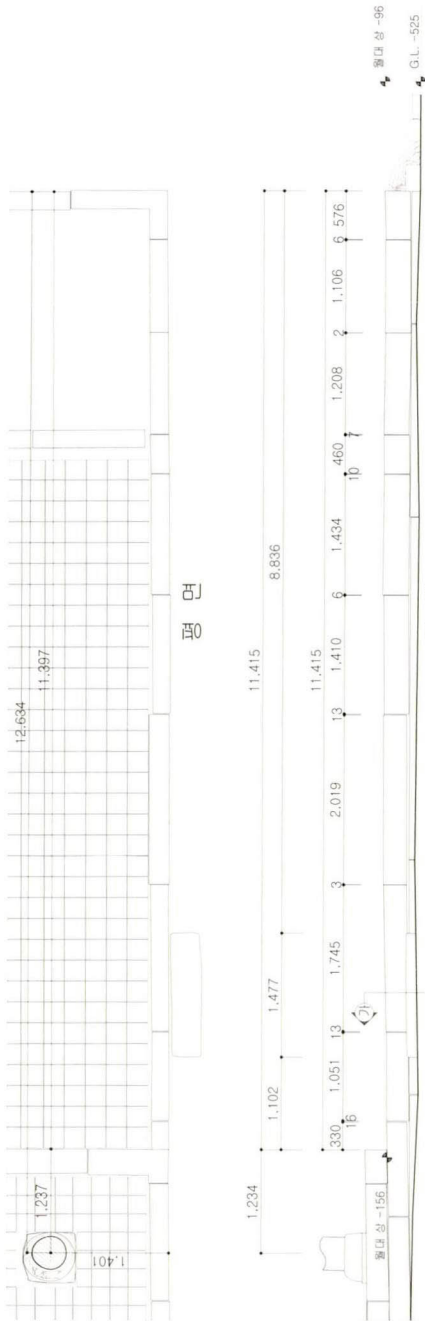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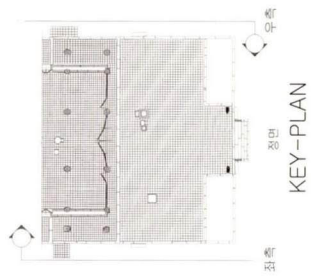
양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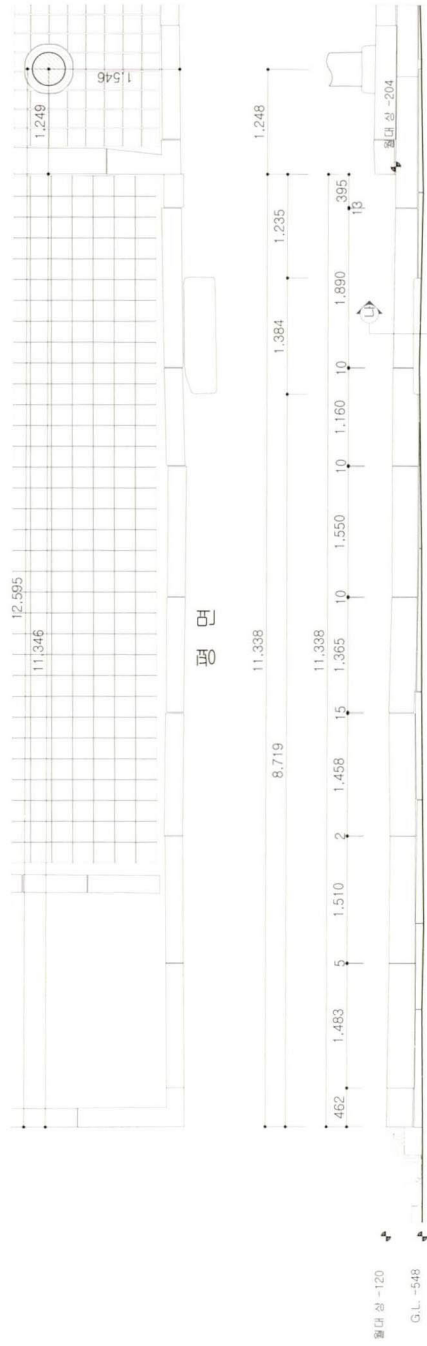
상중도리 대공 상세도 (3)

0 0.25 0.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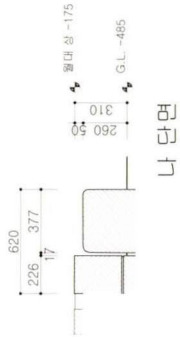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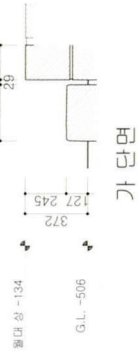




좌측면 월대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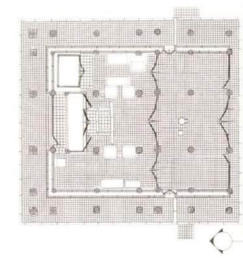


우측면 월대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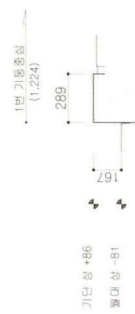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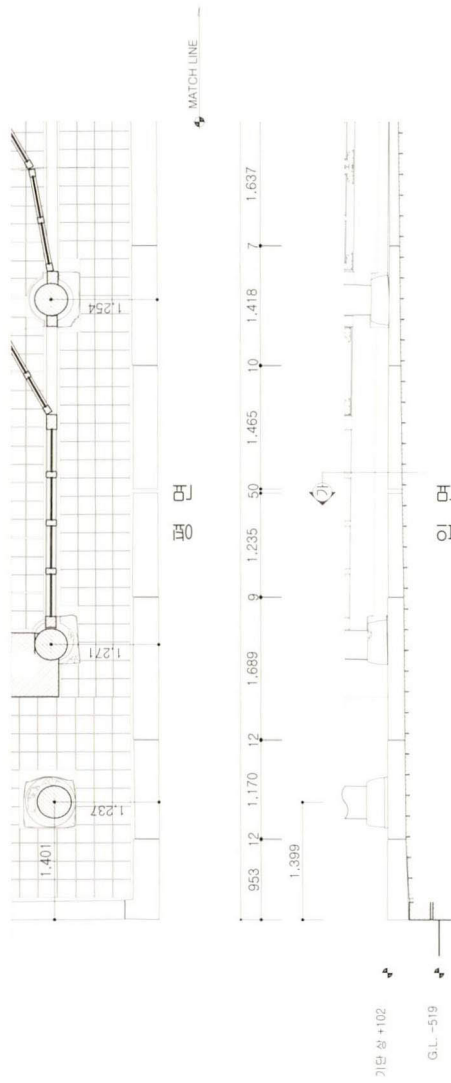


월대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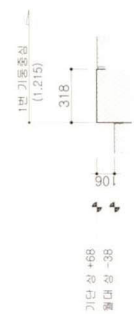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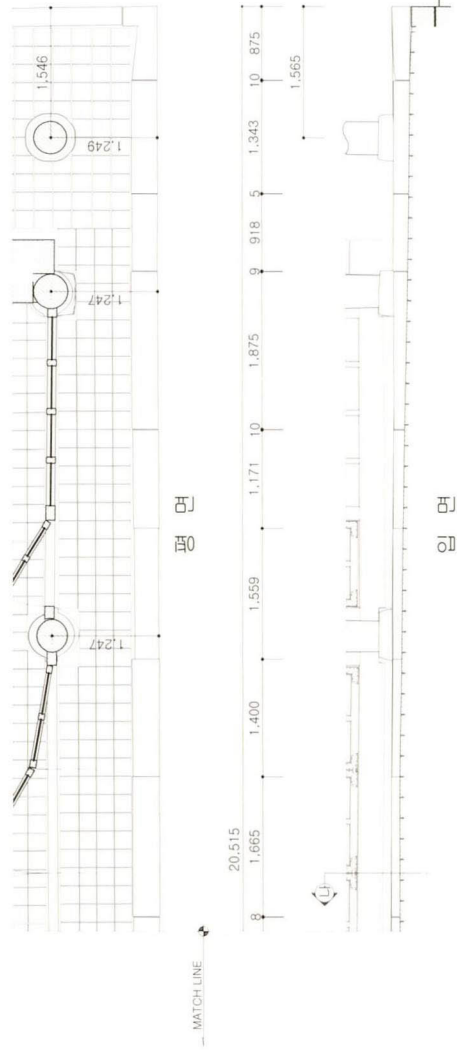


高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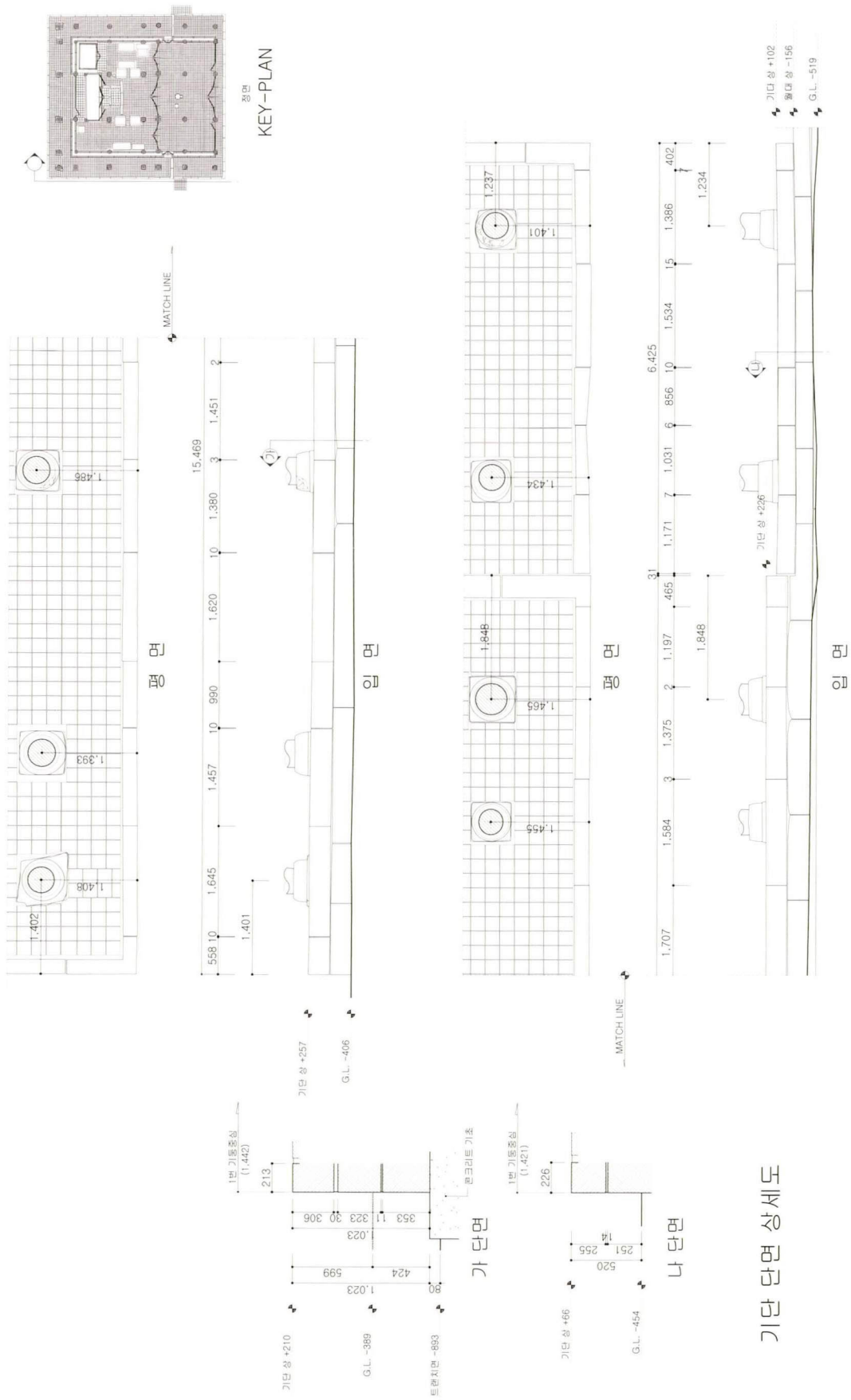
西
古
丁

나세고고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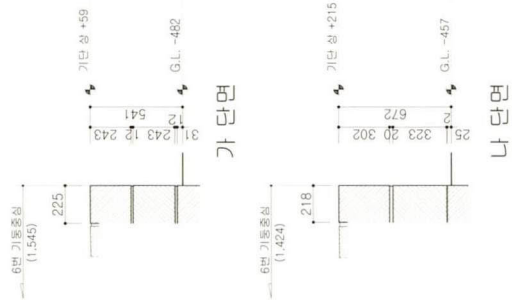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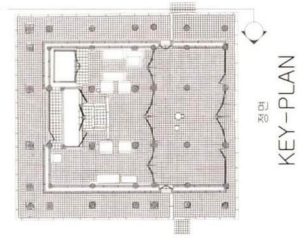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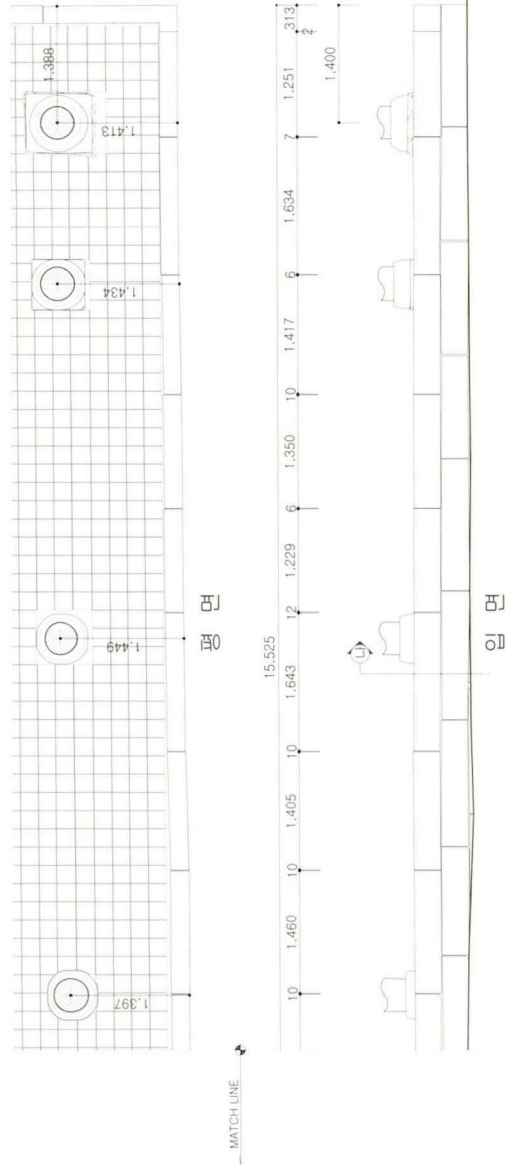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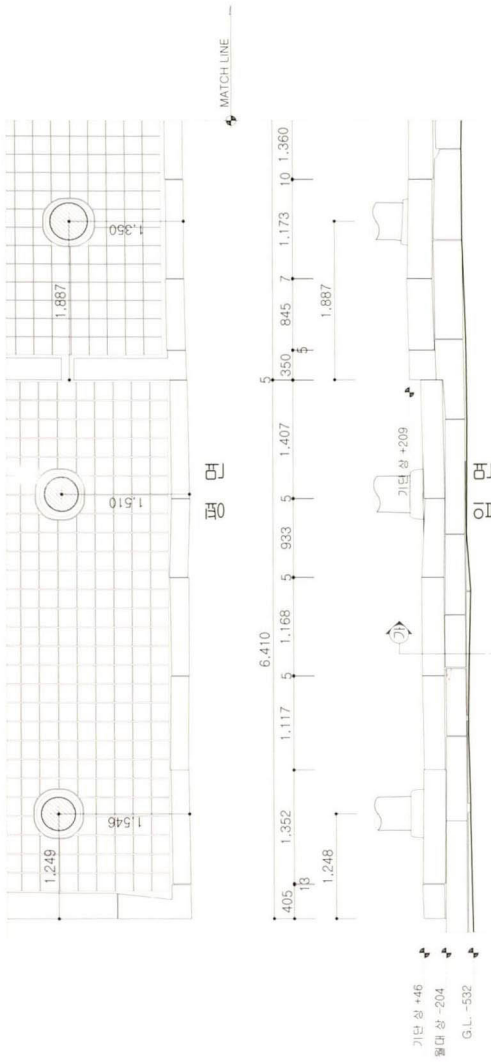


정면 기단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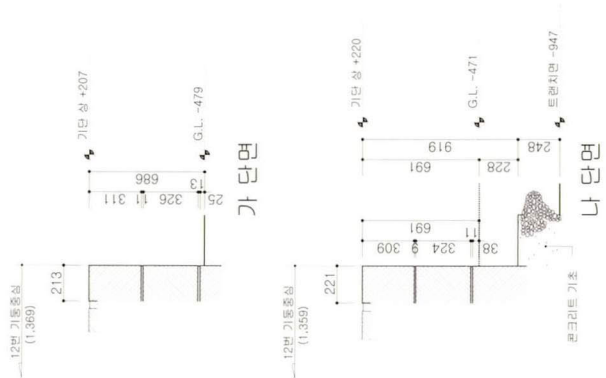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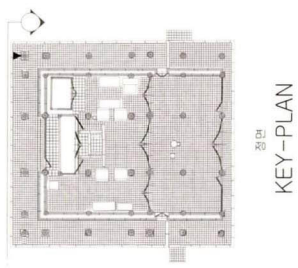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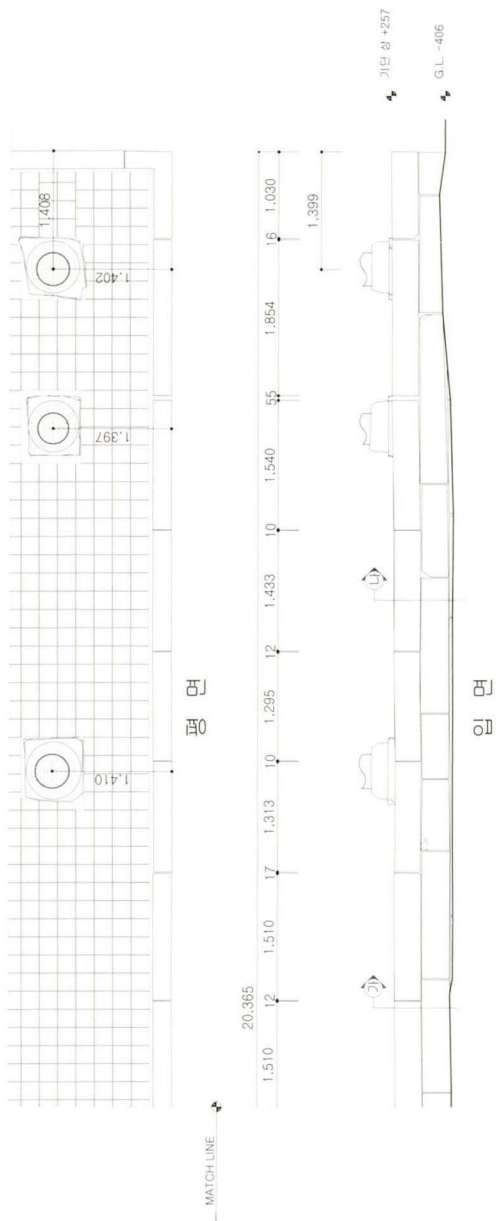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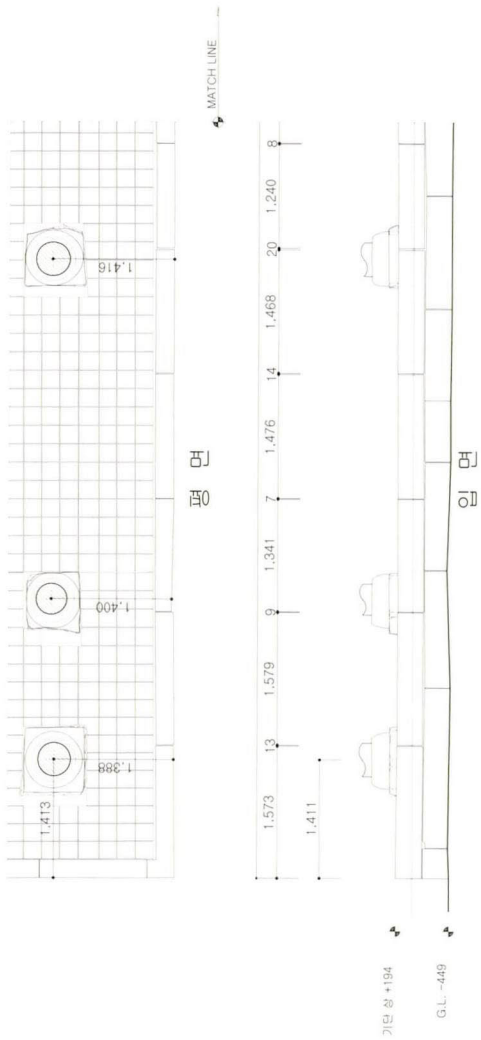
좌측면 기단 상세도



기단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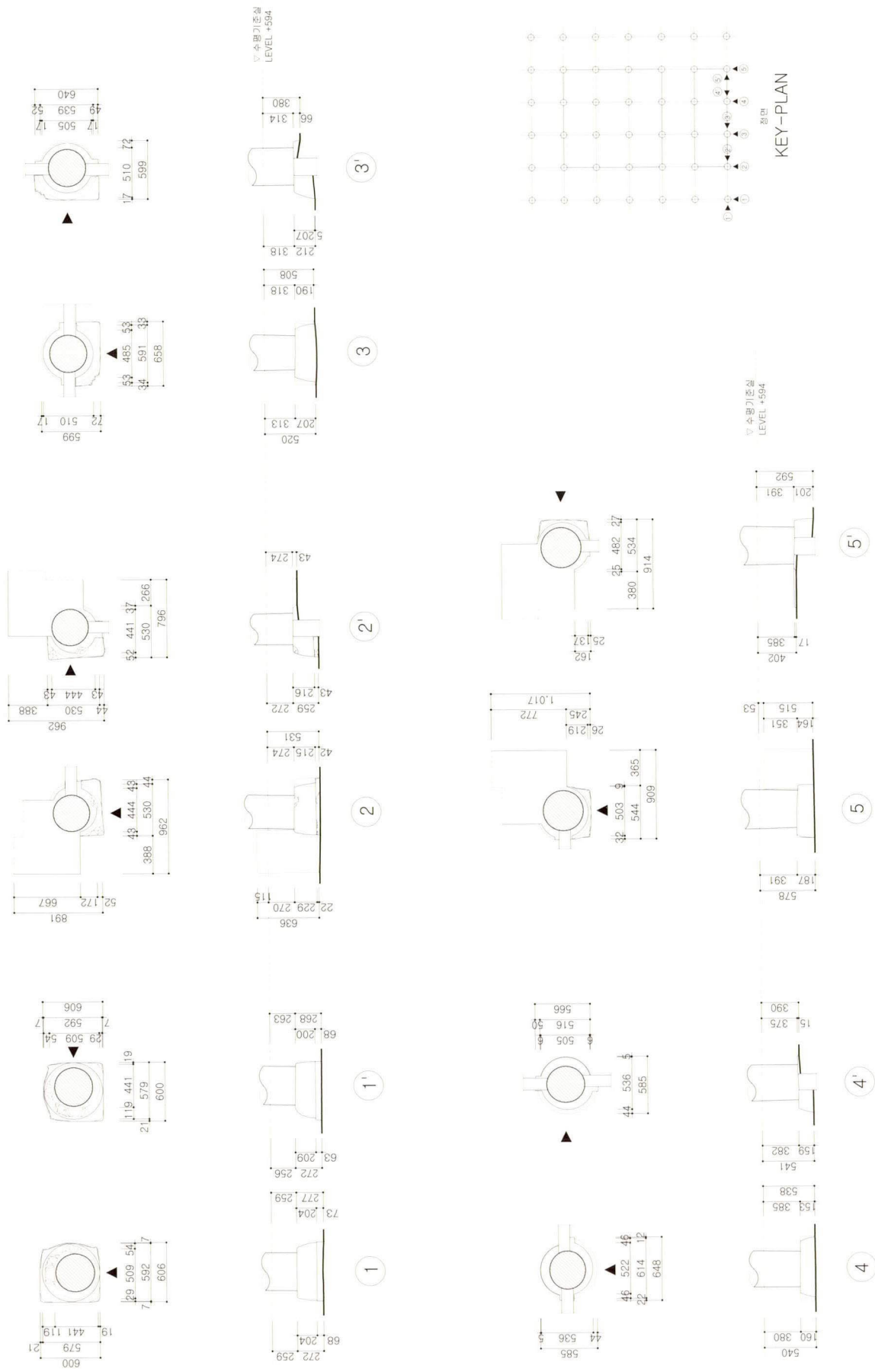
우측면 기단 상세도



기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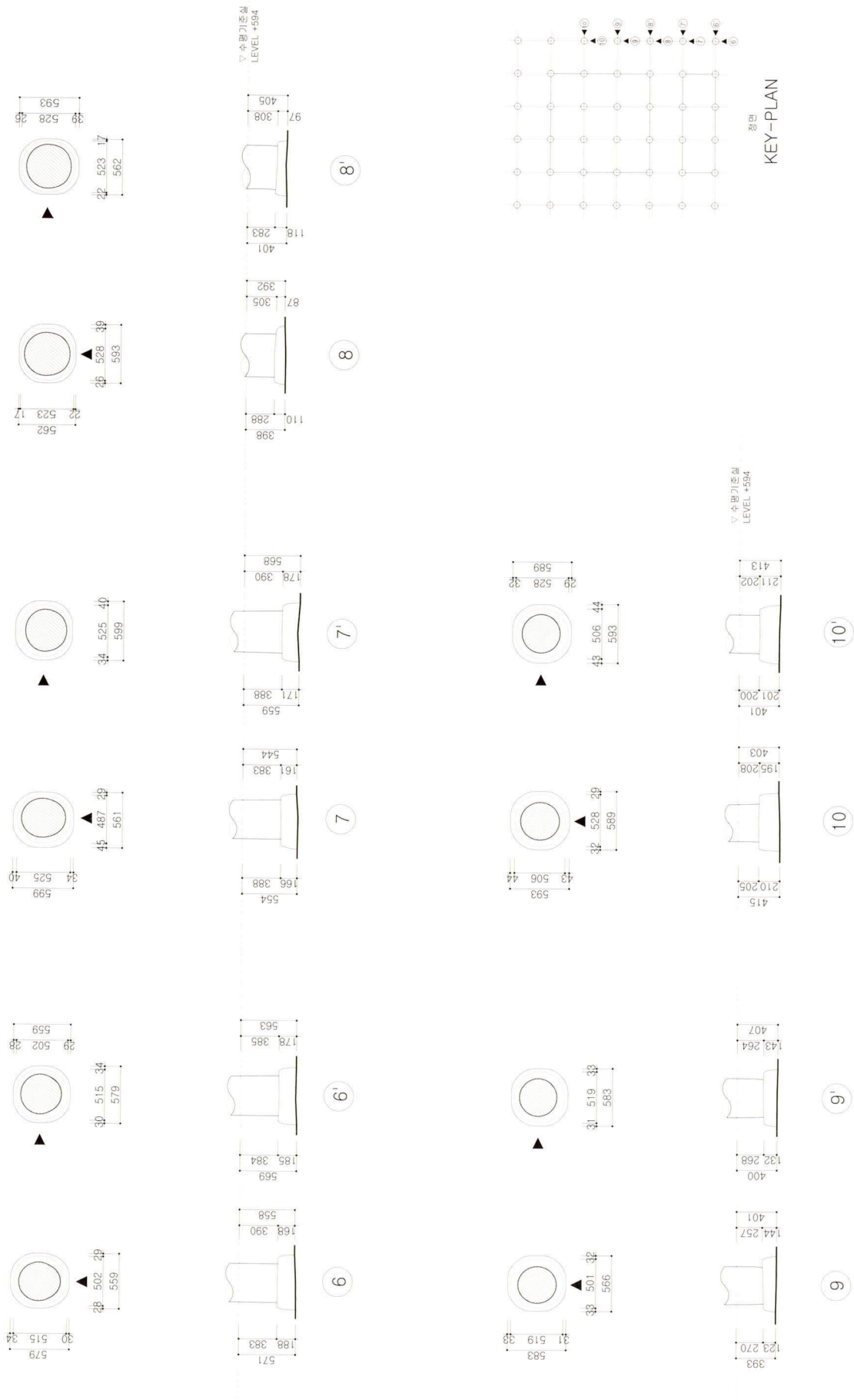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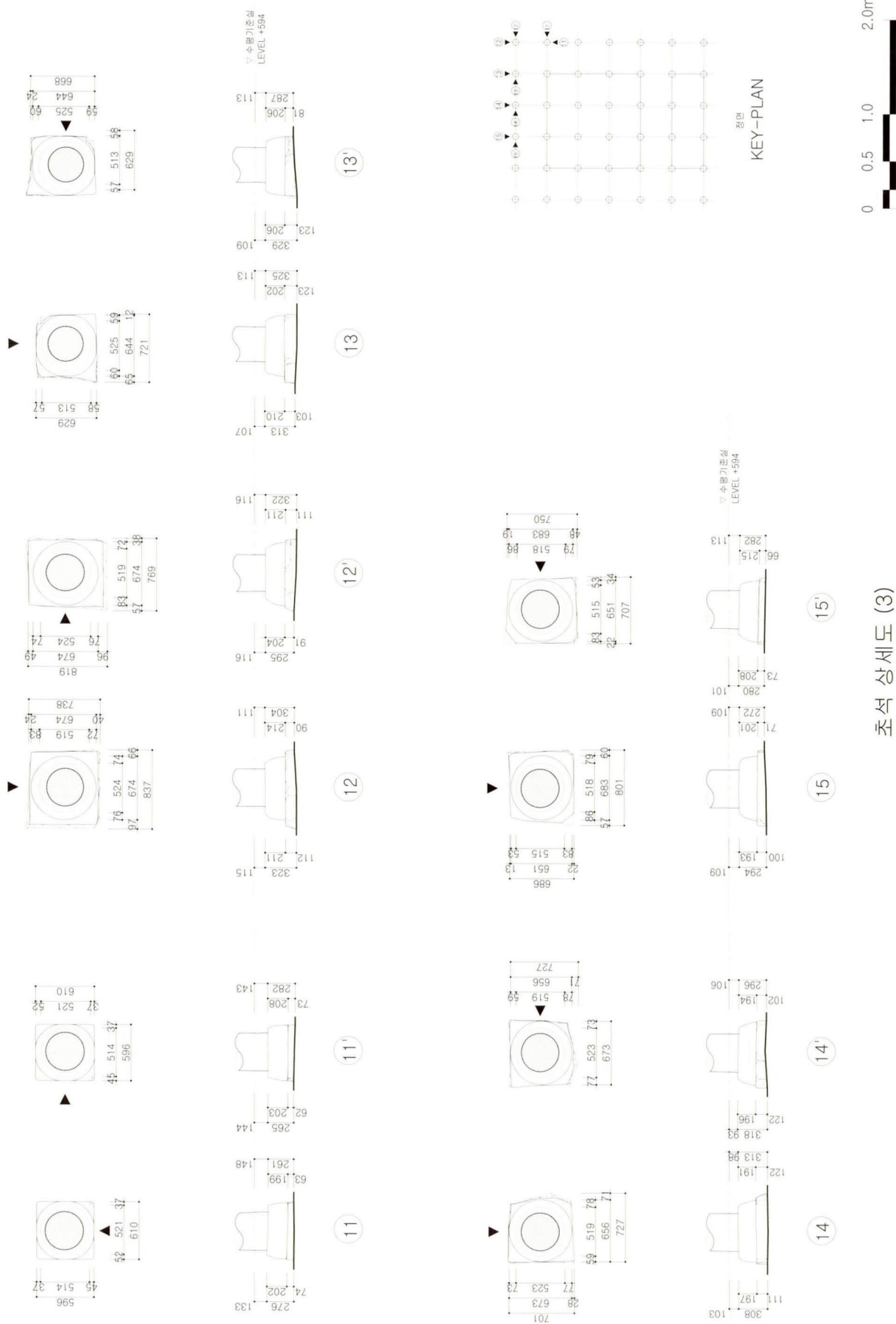
다산기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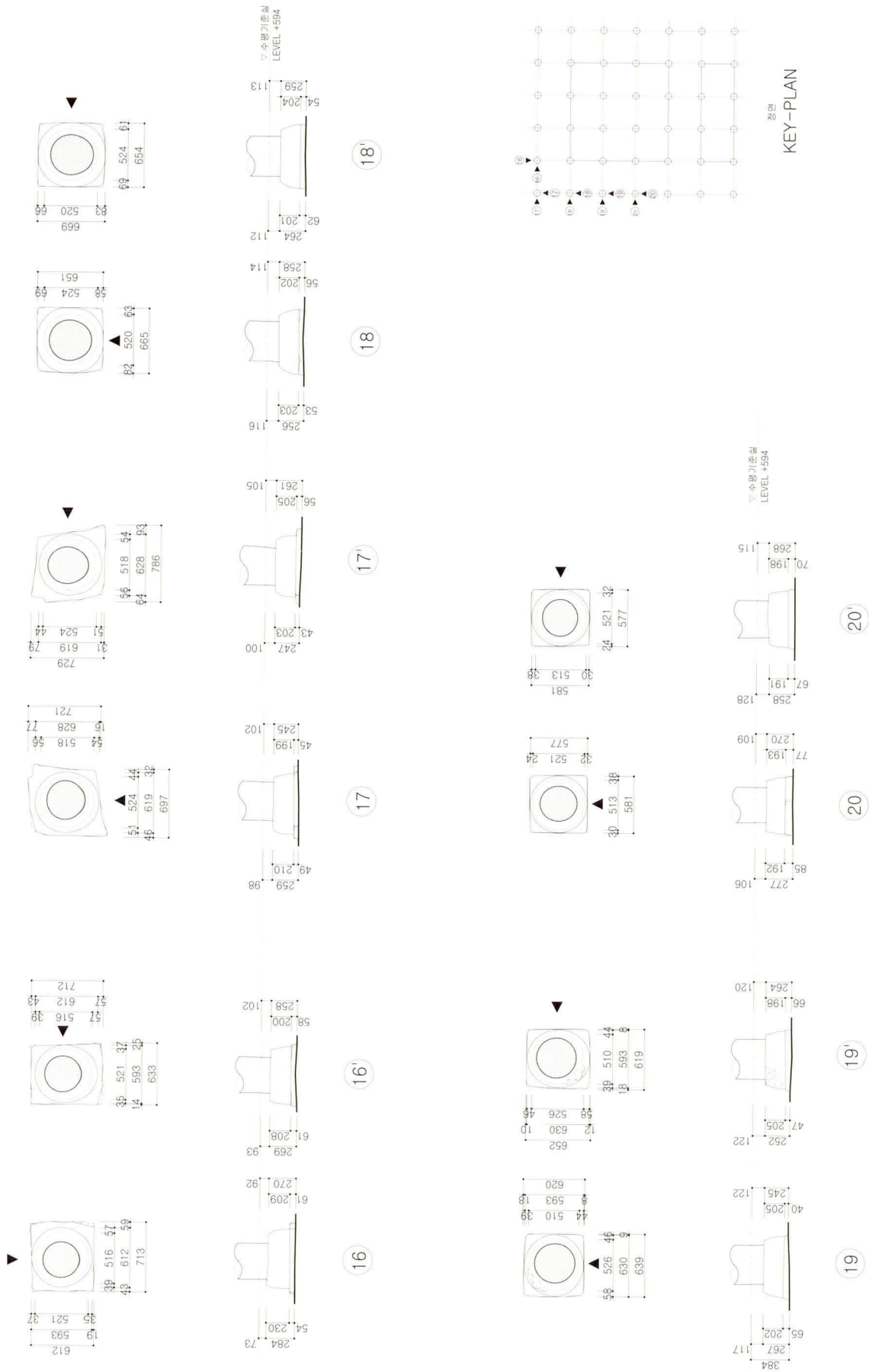
조석 상세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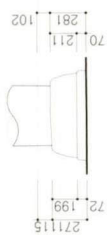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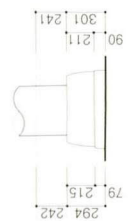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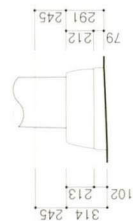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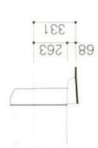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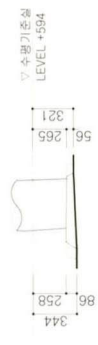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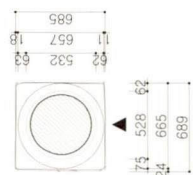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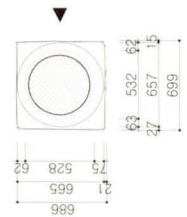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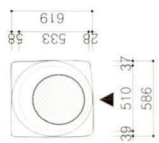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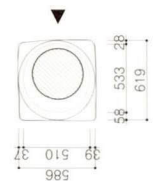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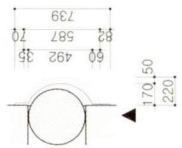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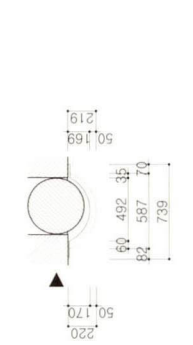




조선상세도 (3)



조선 상세도 (4)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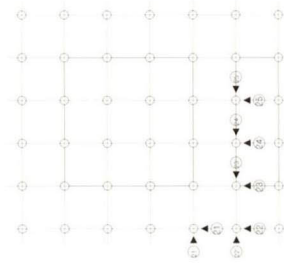
23'

2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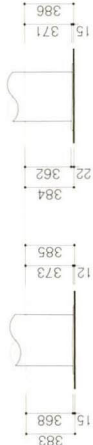
21'

21'



KEY-PLAN

▽ 수평기준선
LEVEL +594



25'

25'

24'

24'



조선 상세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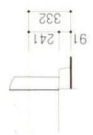
34



34'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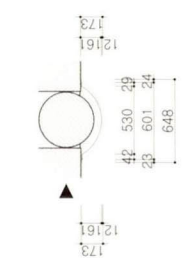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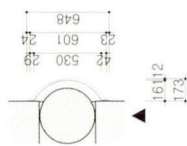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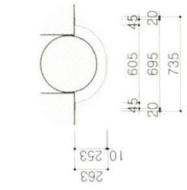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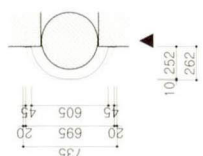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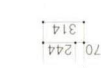


LEVEL +594

KEY-PLAN



31



31'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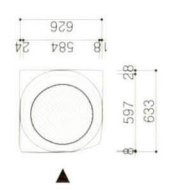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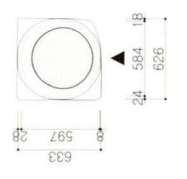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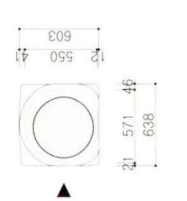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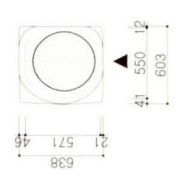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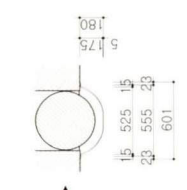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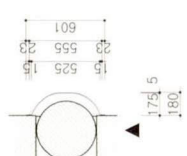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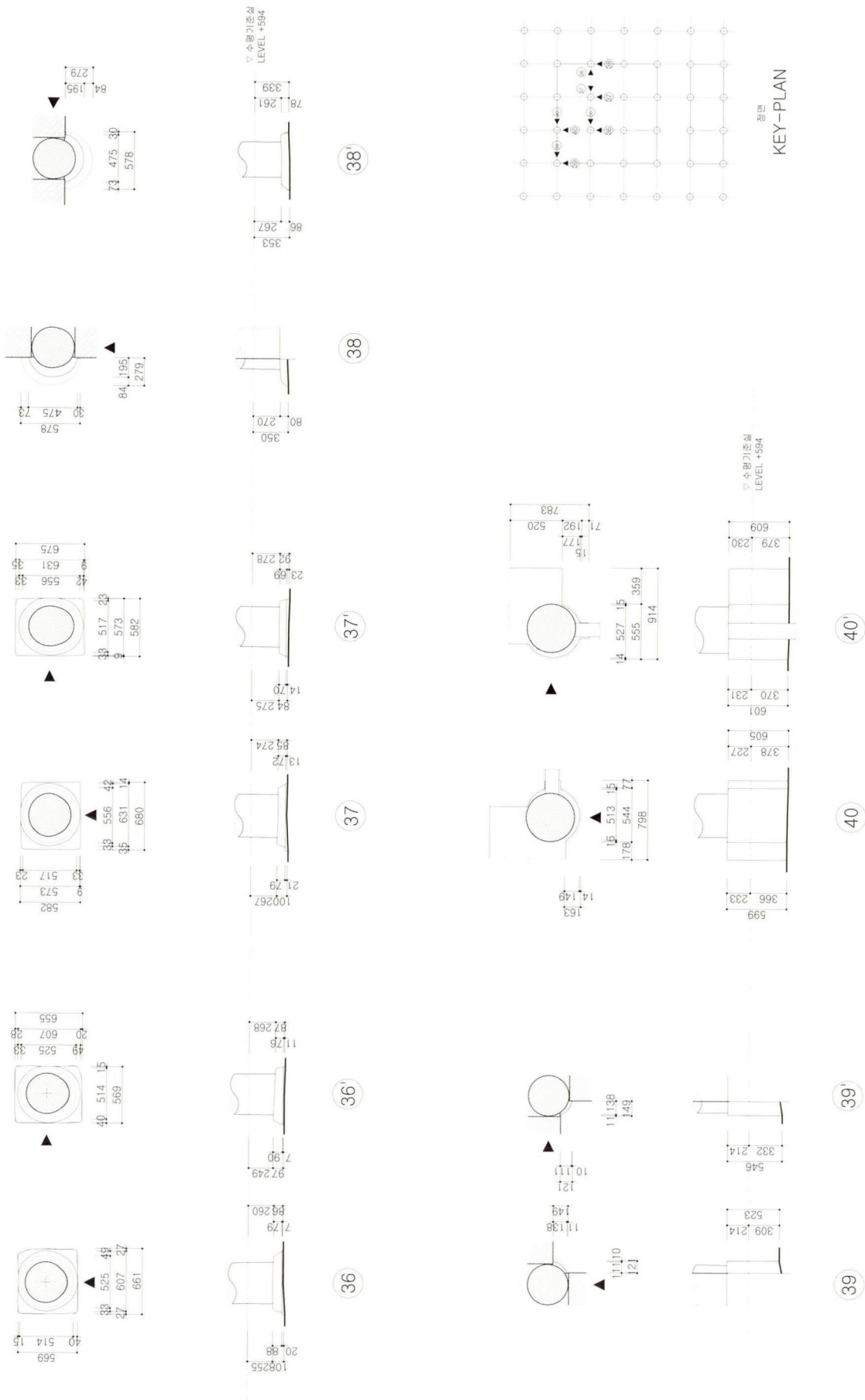


33



33

▽수평기준선
LEVEL +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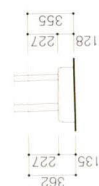


조석 상세도 (8)

조석 상세도 (9)

0 0.5 1.0 2.0m

43



43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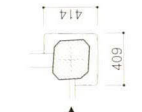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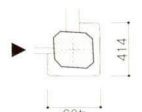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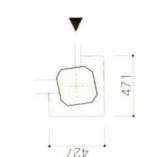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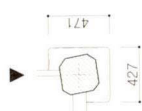


44



▽ 수평기준선
LEVEL +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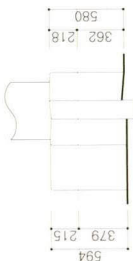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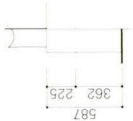
4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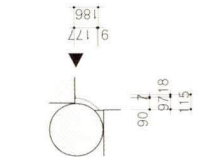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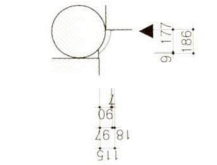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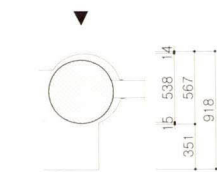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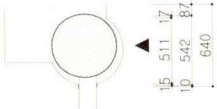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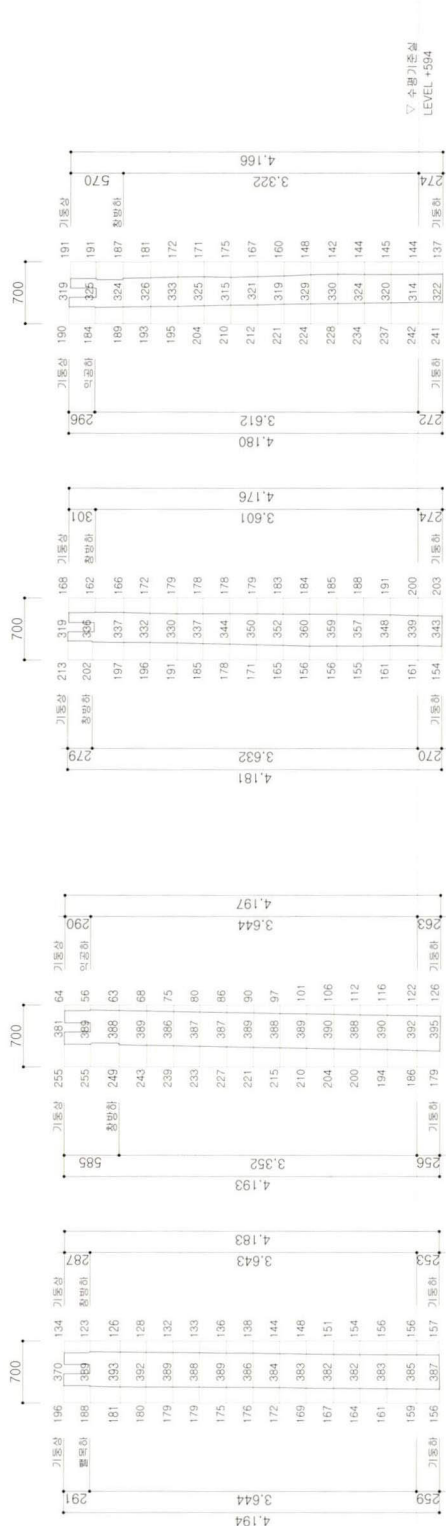


42



▽ 수평기준선
LEVEL +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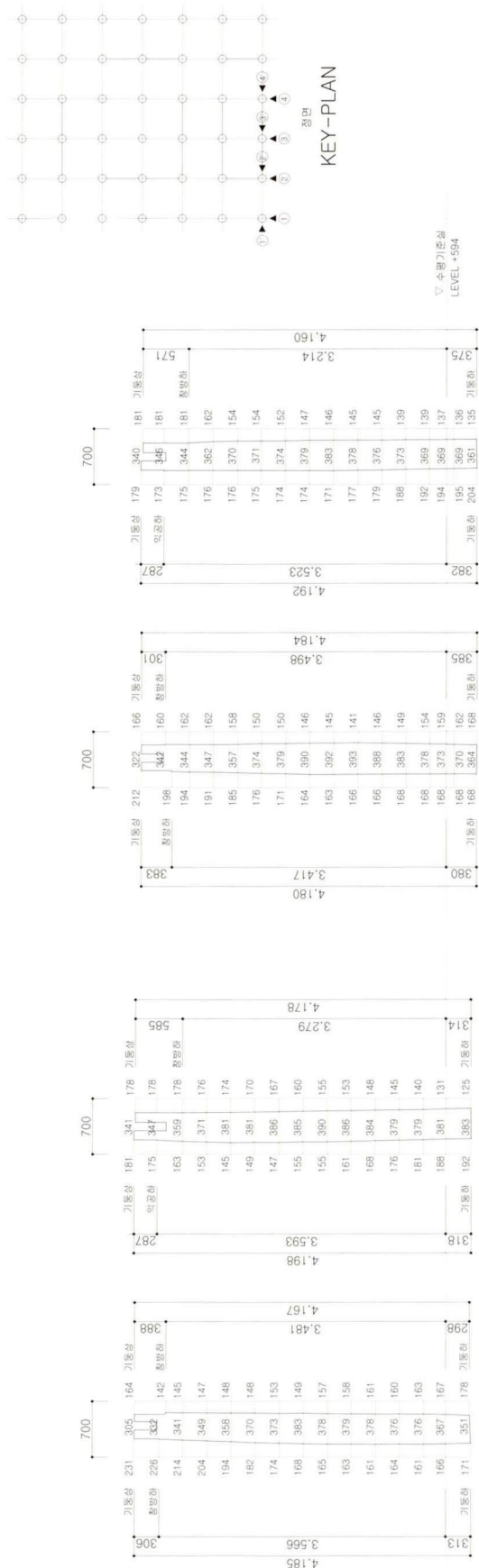


1

1'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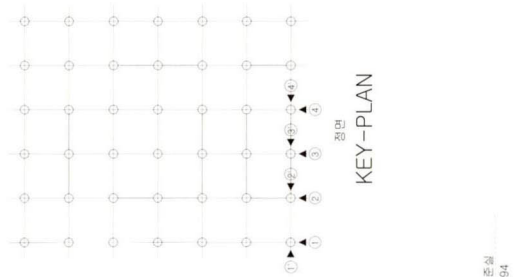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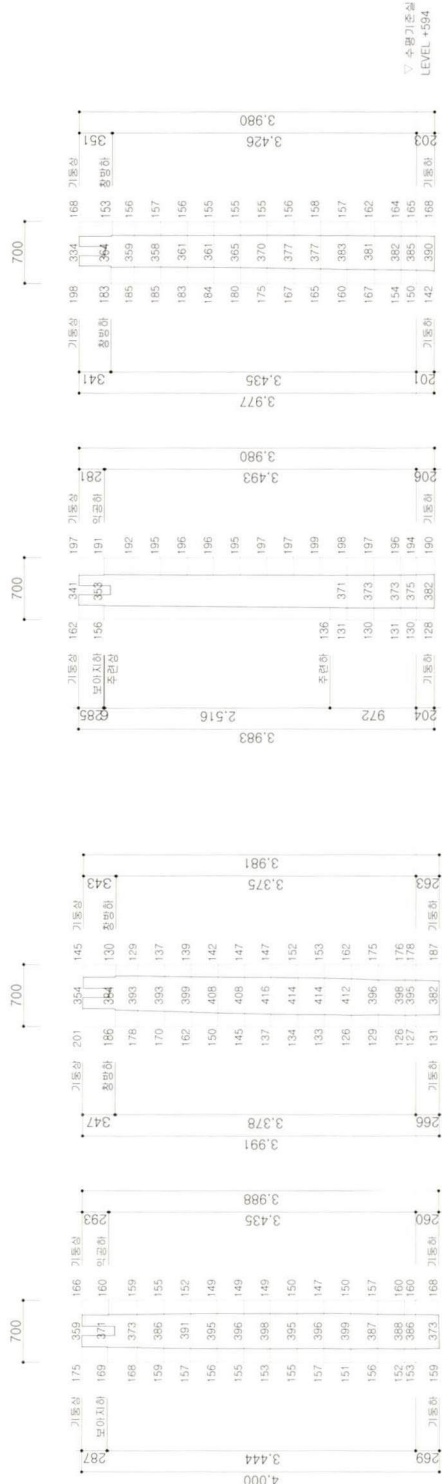
4

4'

익동 상세도 (1)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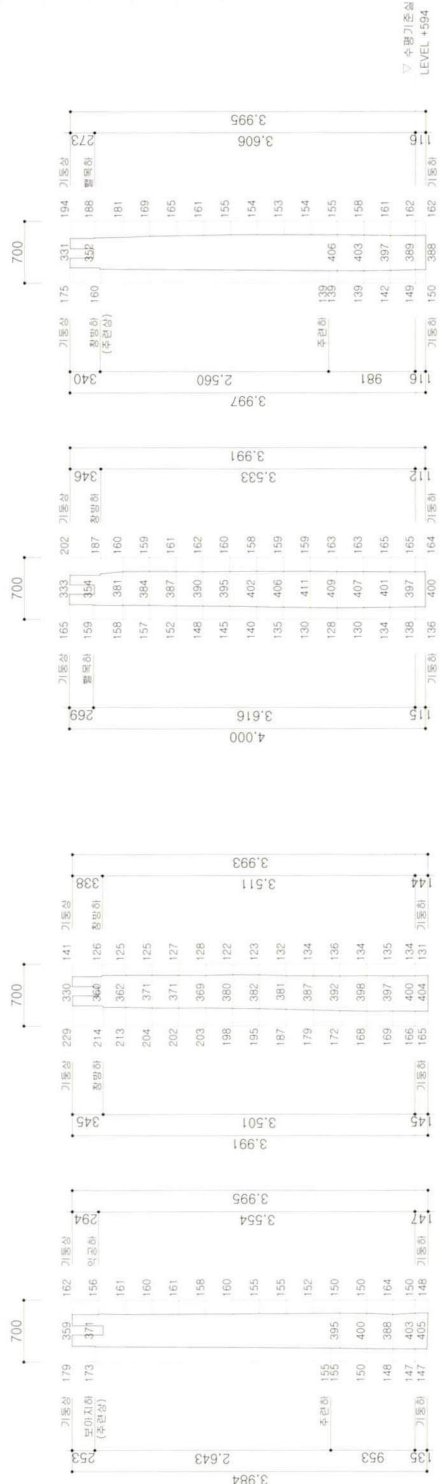


9

9'

10

10'



1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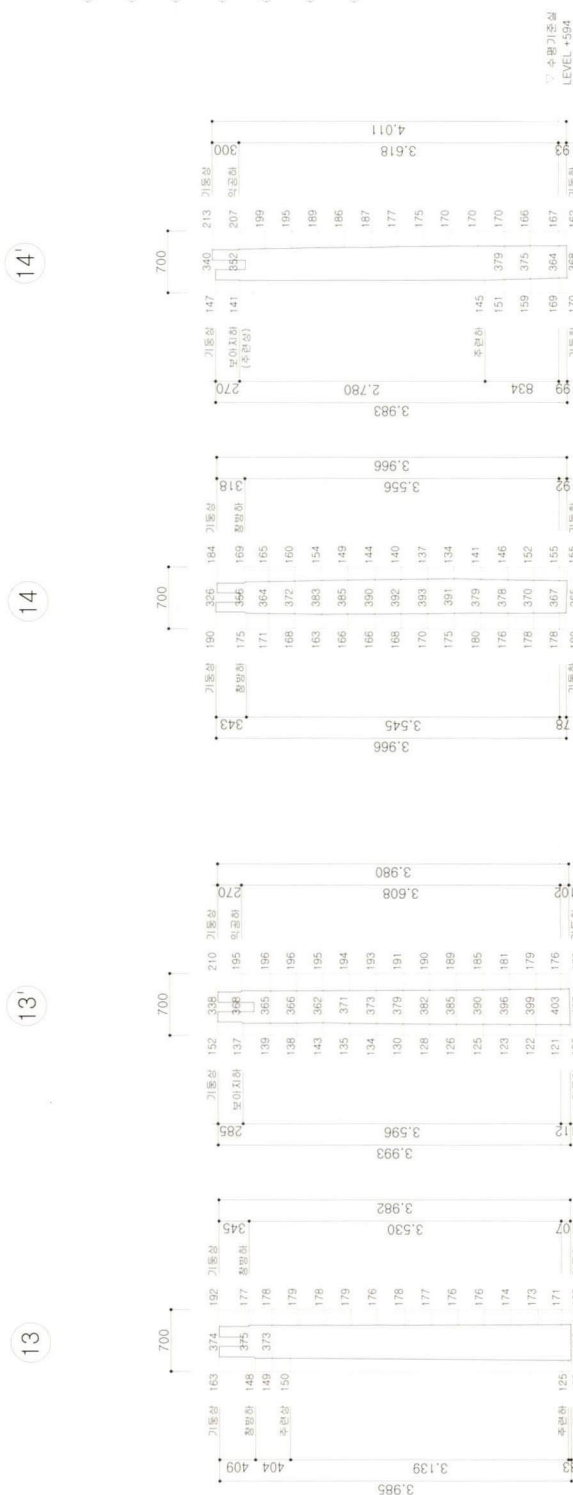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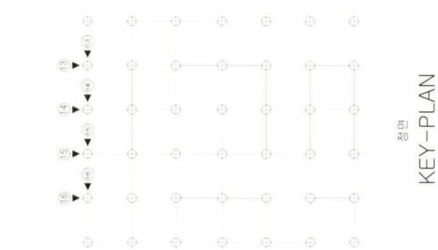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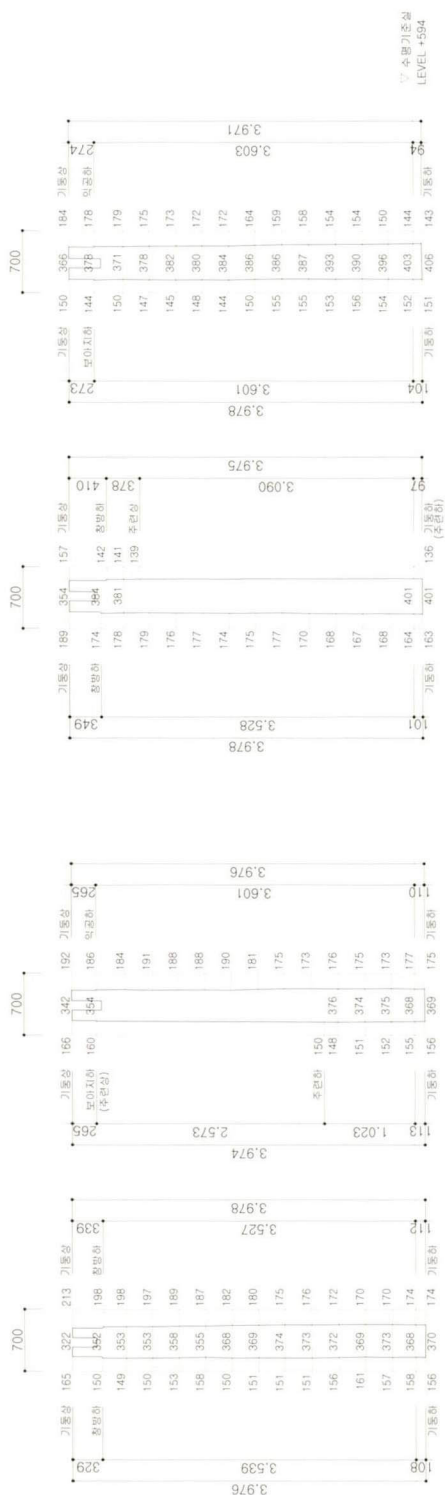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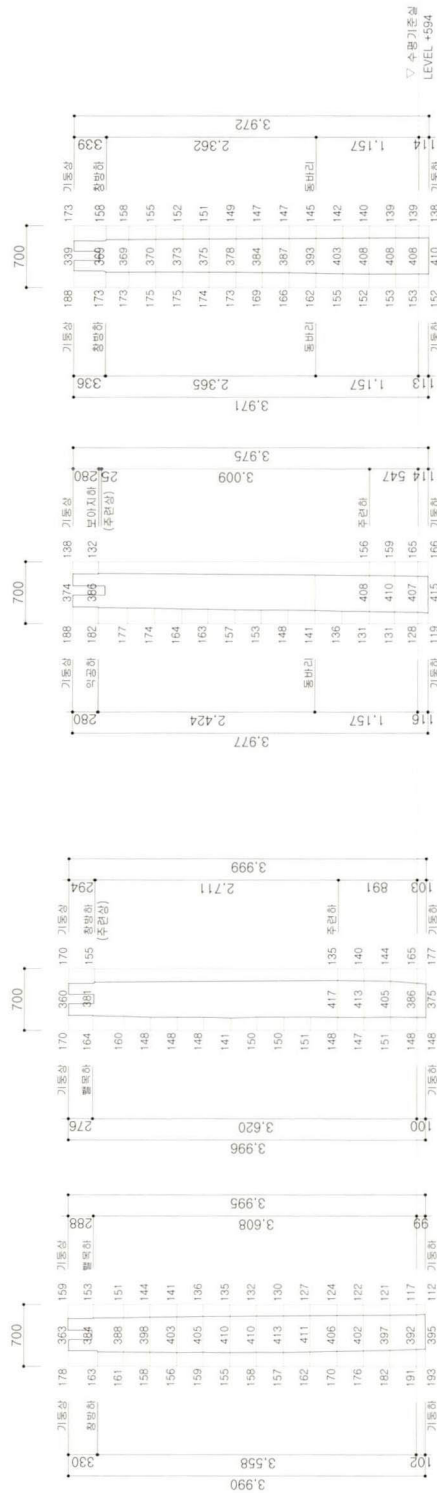
12'

KEY-PLAN

기둥 상세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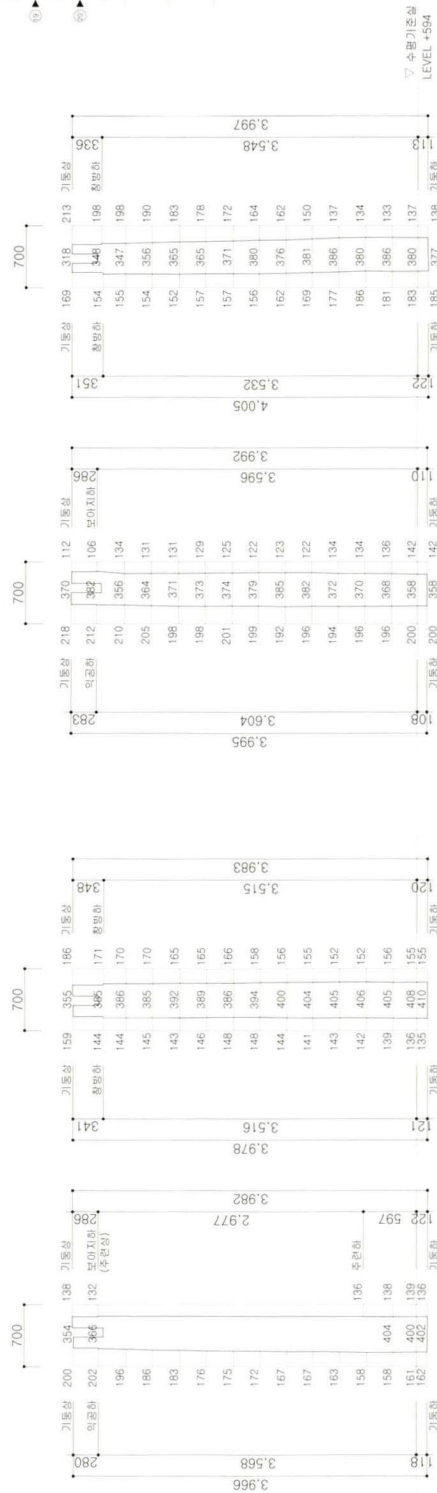
17

171

18

18

KEY-PLAN



19

19'

20

20'

기동상세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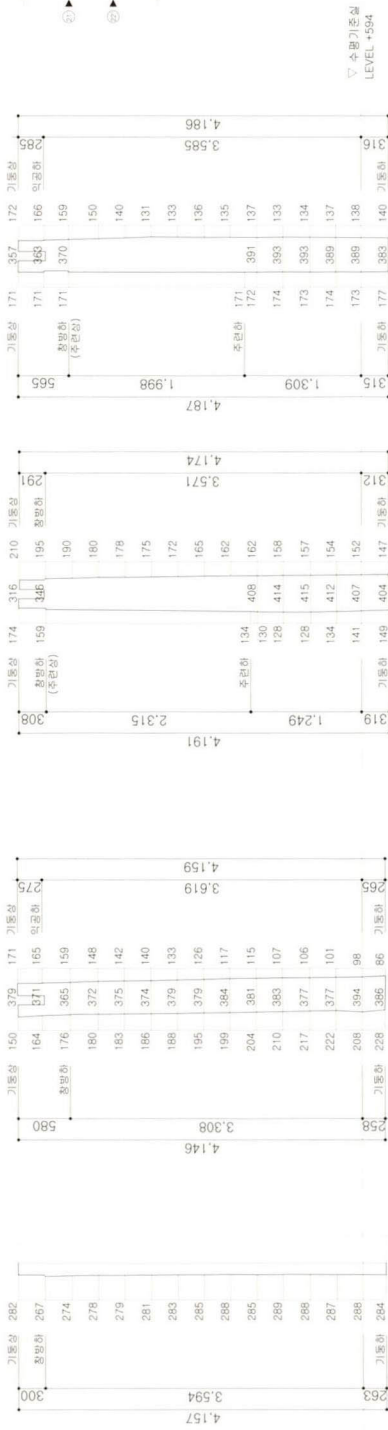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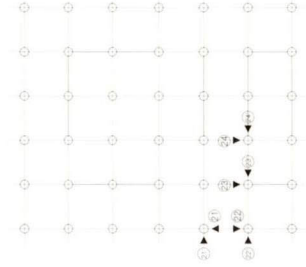


21

21

22

2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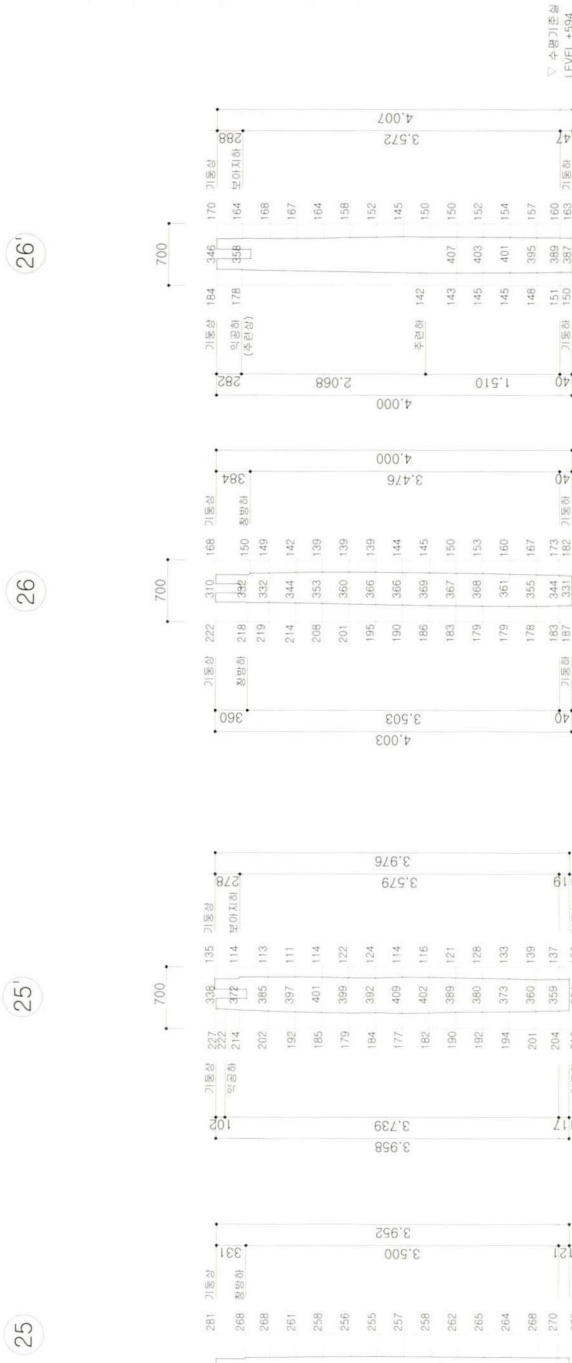
23

24

24

기둥상세도 (6)



▽ 수평기준선
LEVEL +594KEY-PLAN
R0
R1

10

▽ 수평기준선
| FVFI +594

기동상세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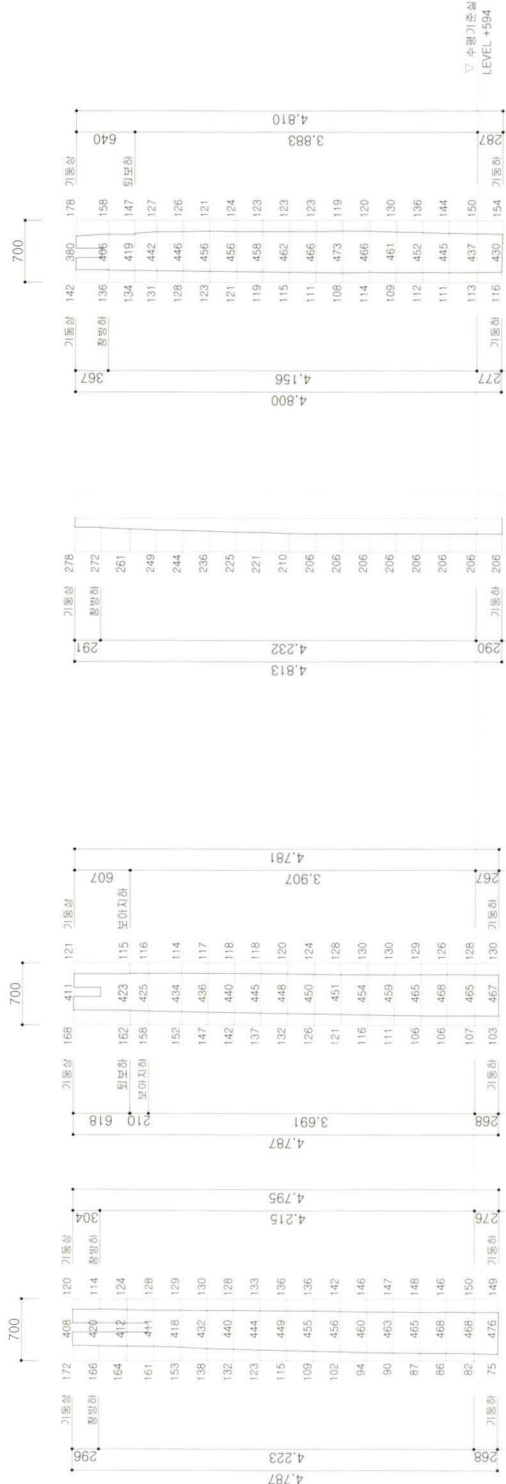




KEY-PLAN

82
20▽ 수평기준선
LEVEL +594▽ 수평기준선
LEVEL +594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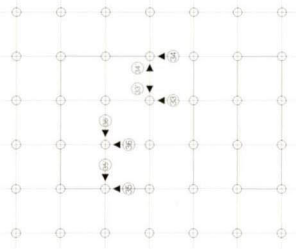


33'

33'

34'

34'



KEY-PLAN

LEVEL +594

35'

35'

36'

36'

기둥 상세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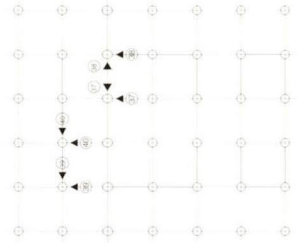


37

37

38

38



KEY-PLAN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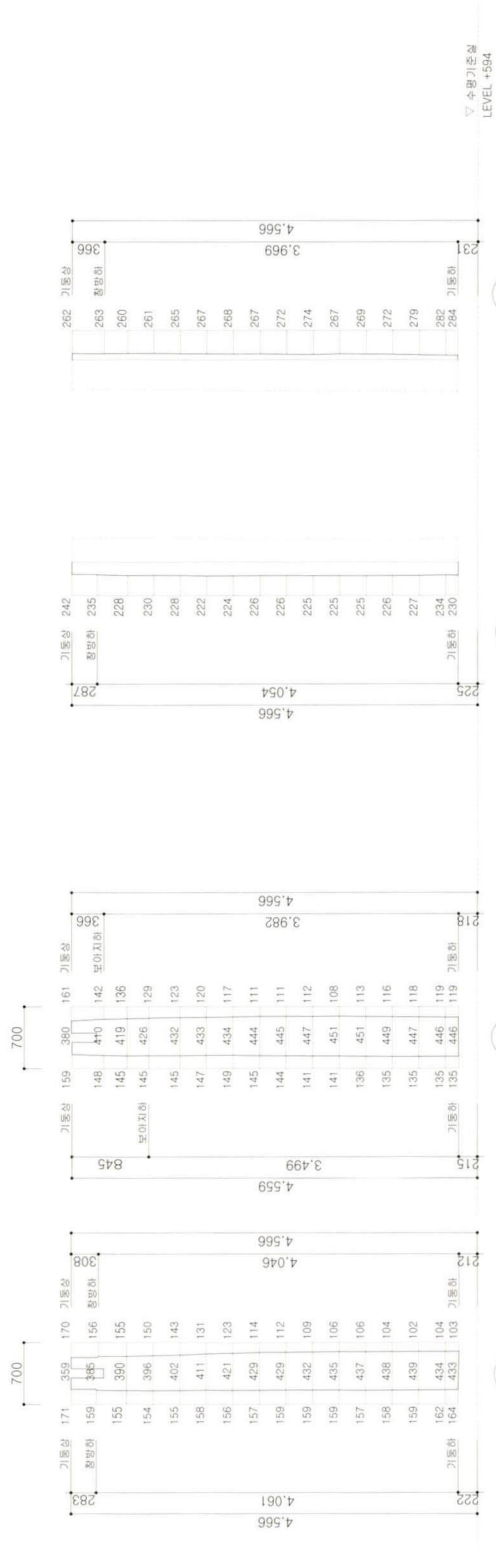
39

40

40

1F 상세도 (10)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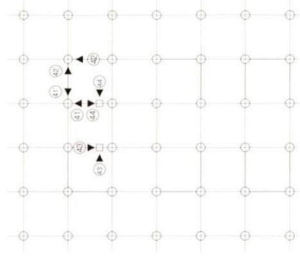


42'

42'

41'

41'



정면
KEY-PLAN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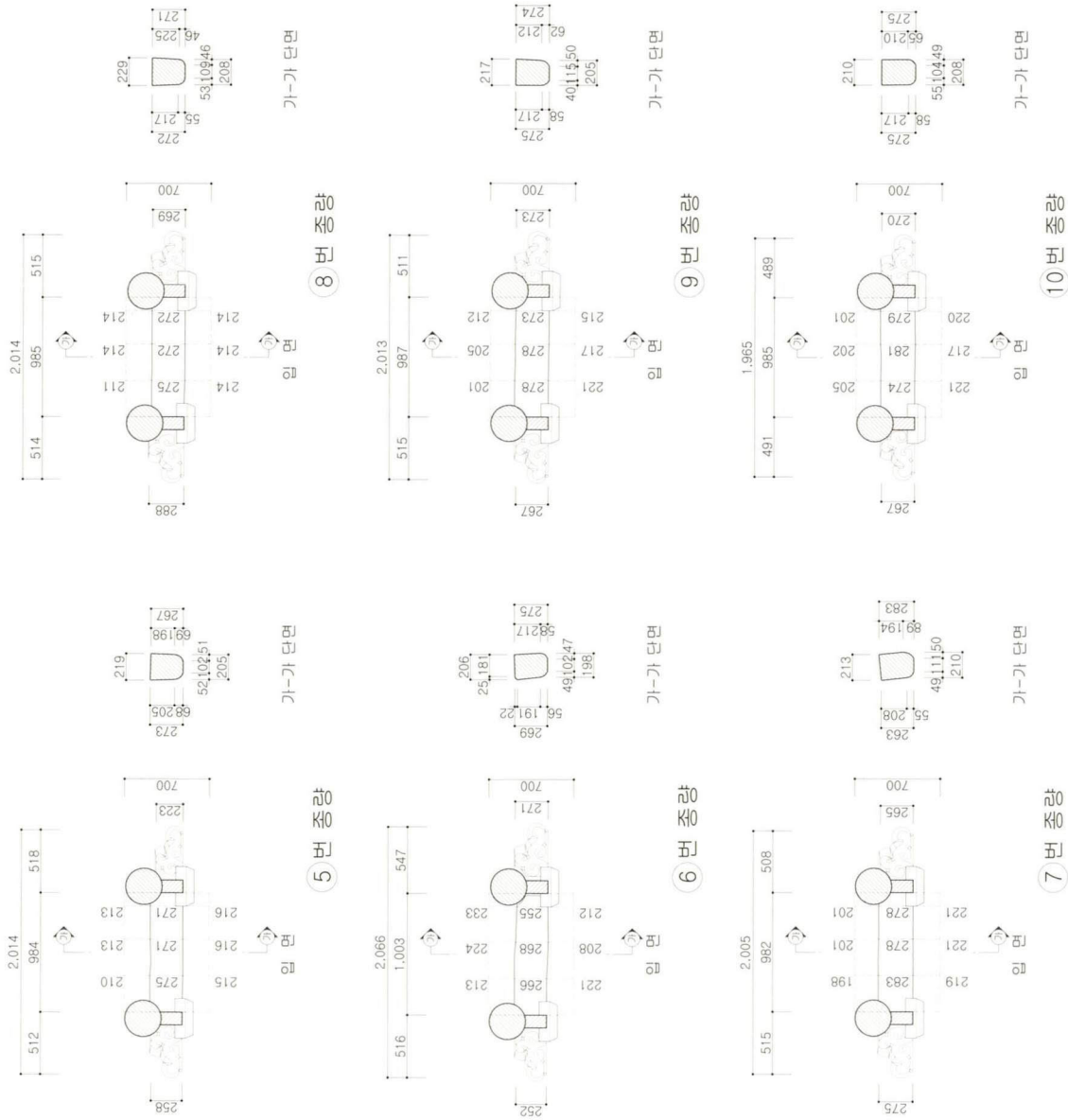
44'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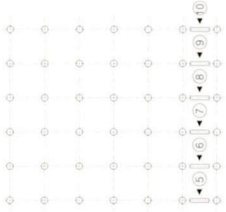
43'

기둥 상세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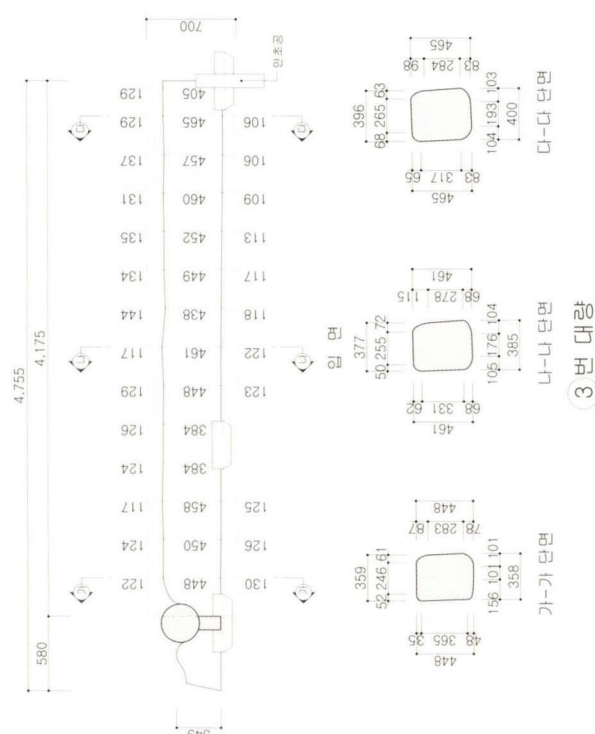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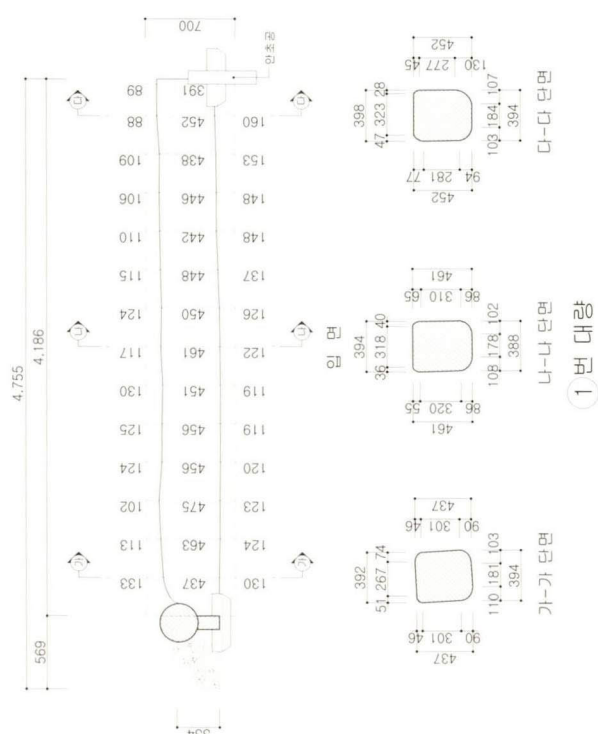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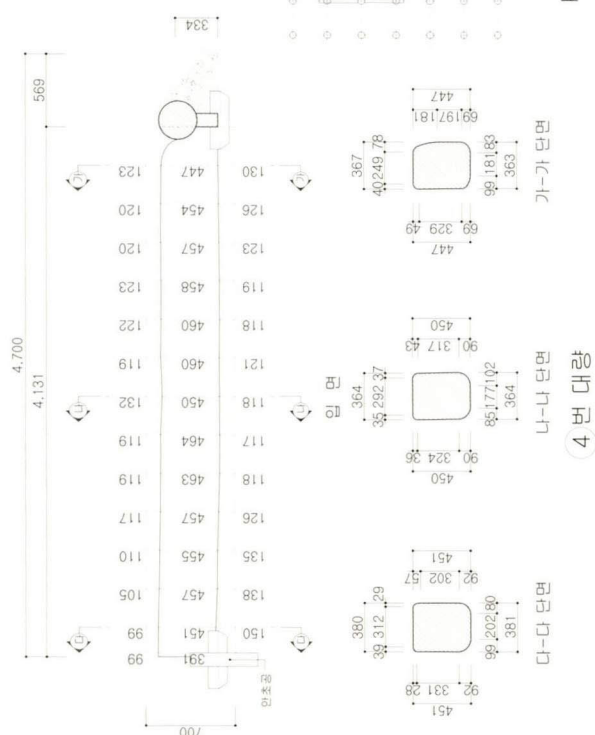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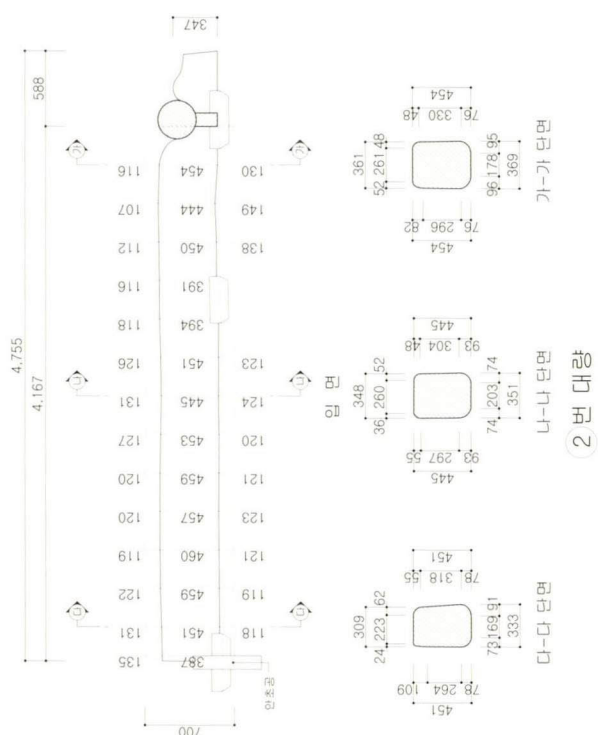


東廟 상세도 (2)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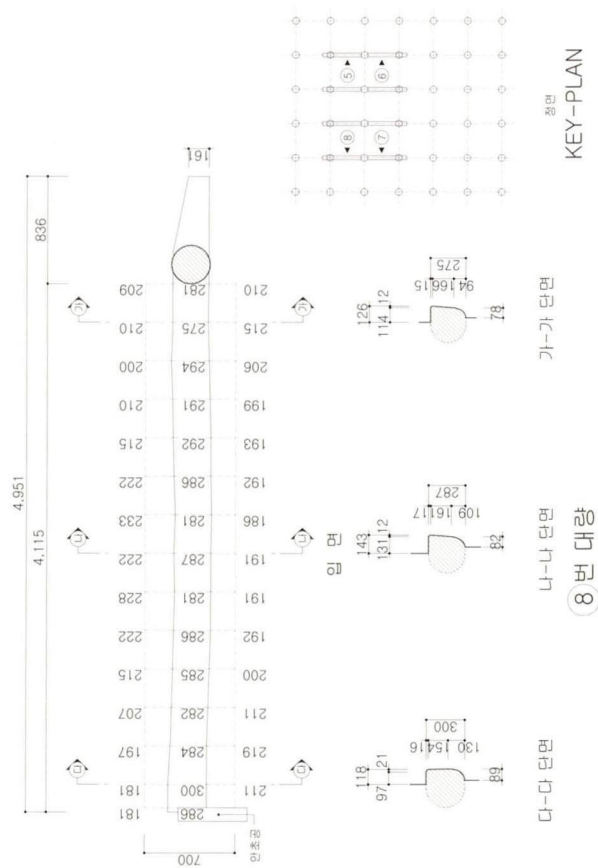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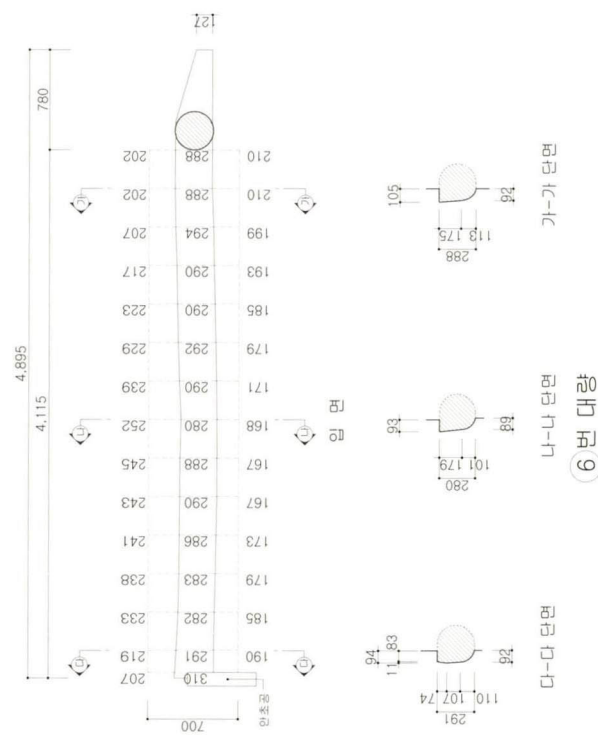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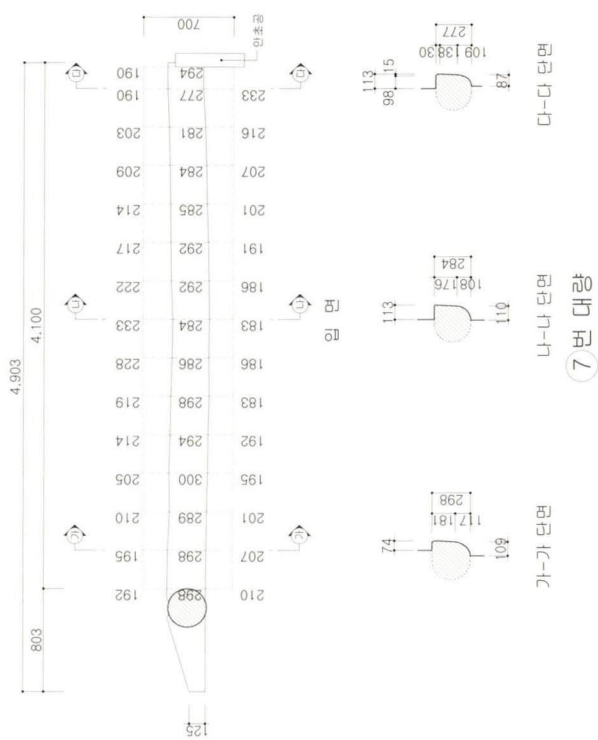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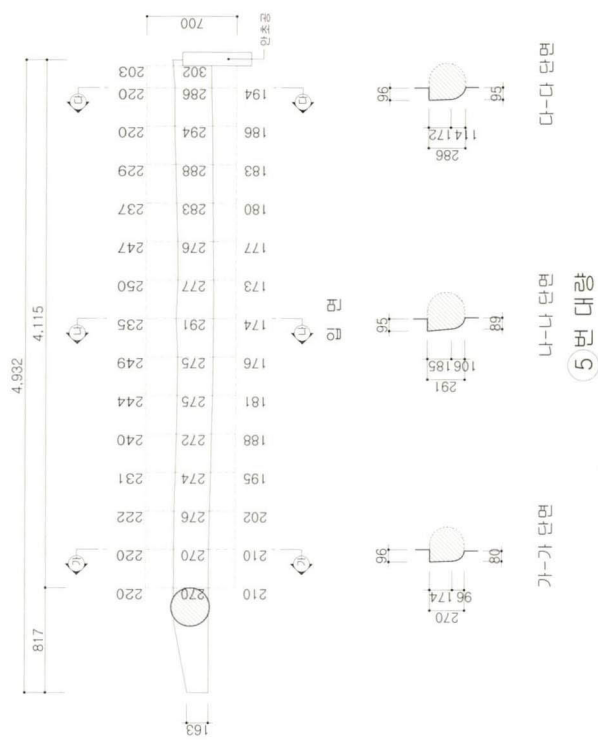




대량 상제도 (1)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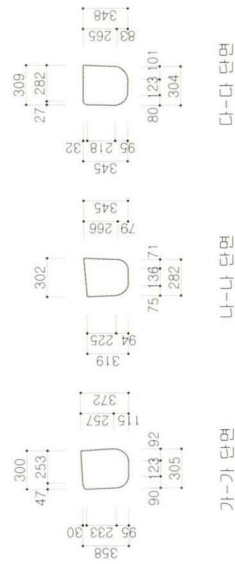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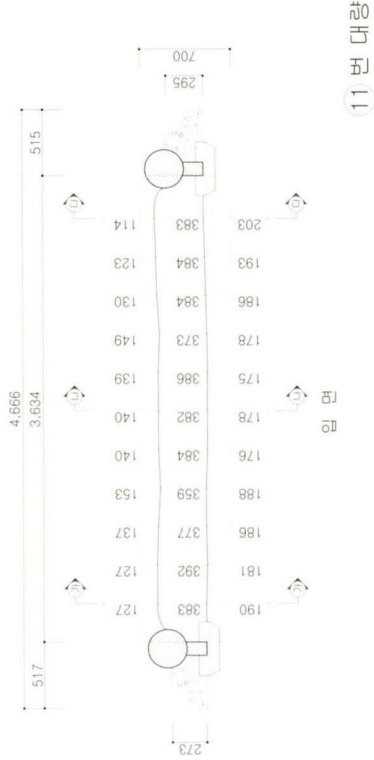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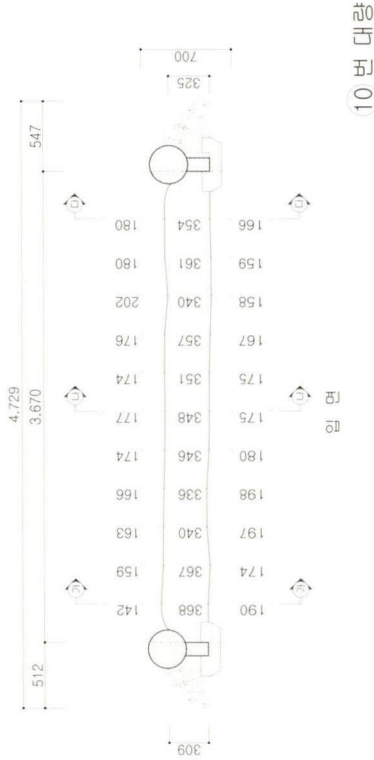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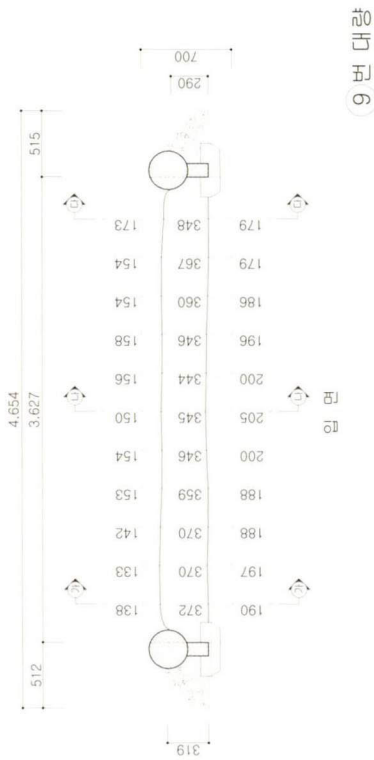




대량 상세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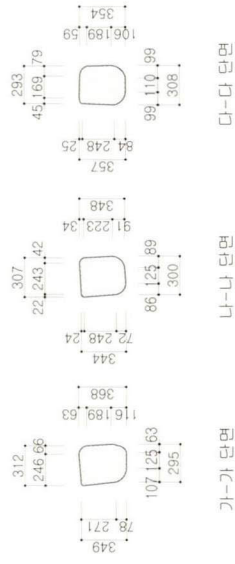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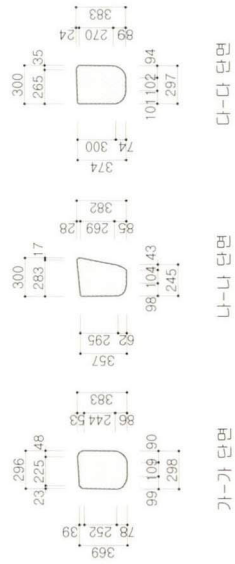
나-나 단면

다-다 단면



나-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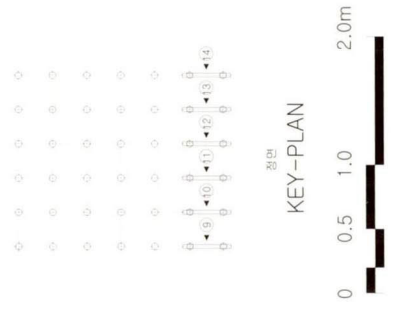
다-다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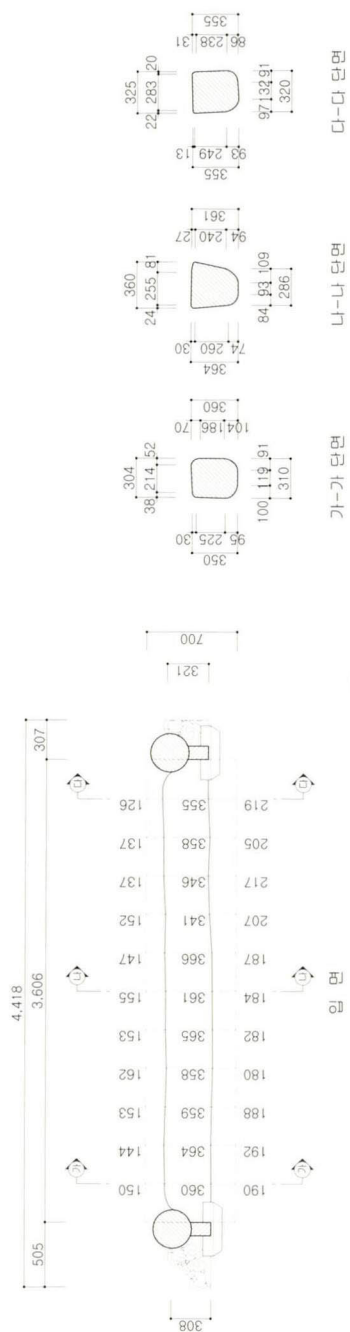


나-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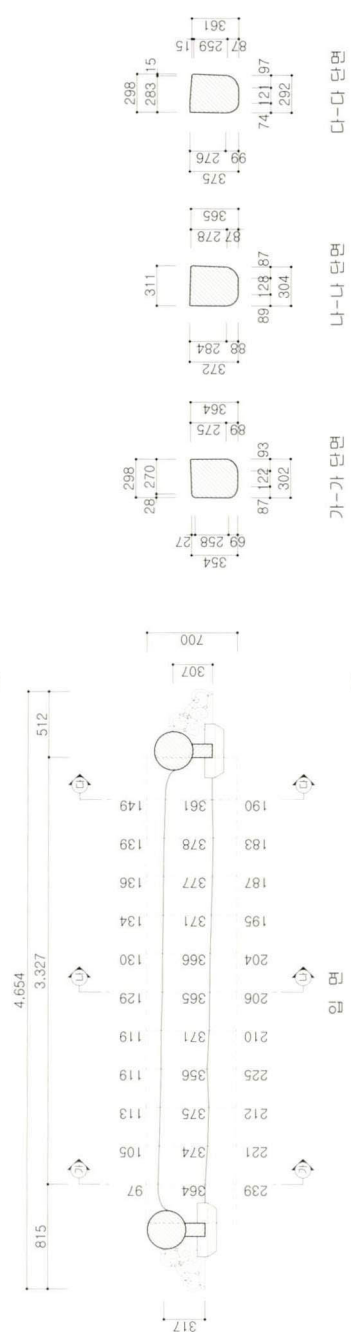
다-다 단면

대형 상세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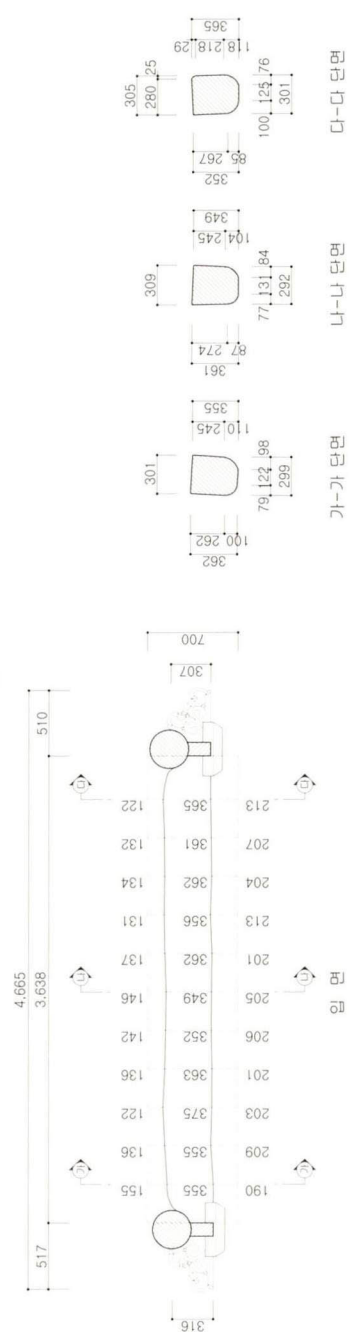




1255



13 14 15



14 51 CH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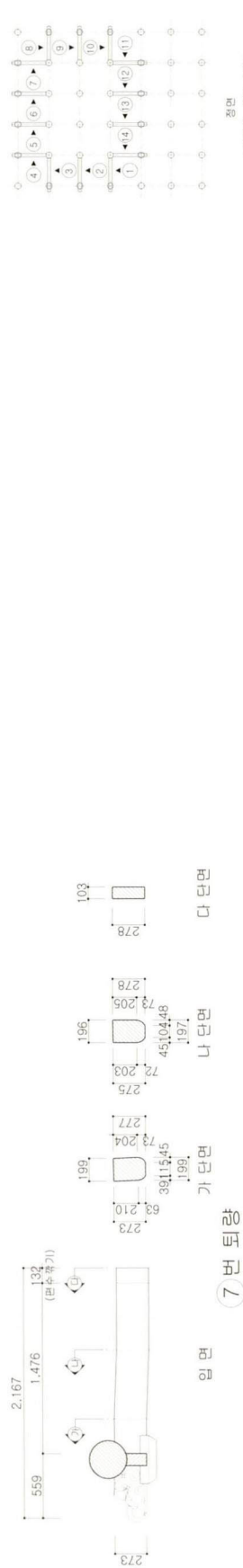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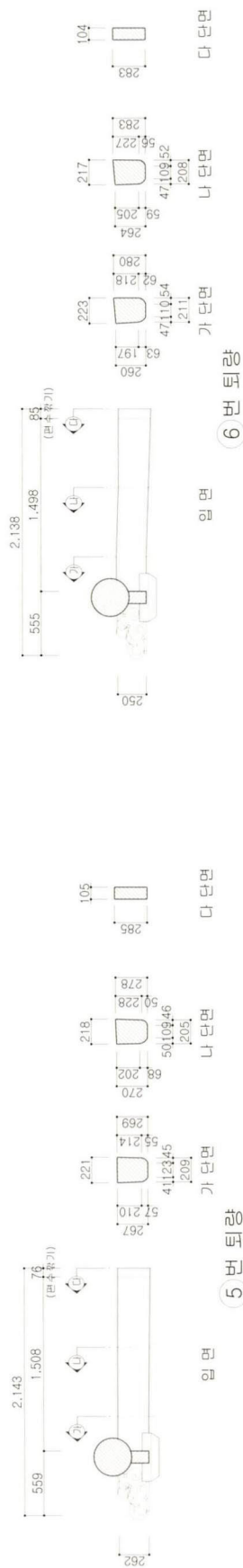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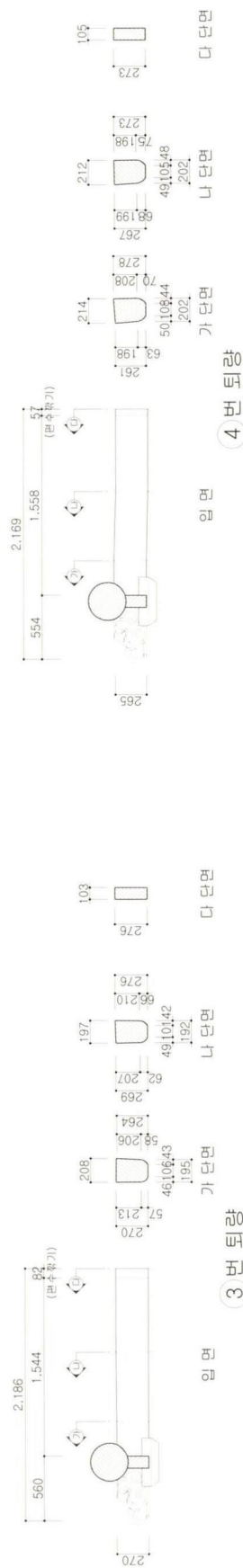


102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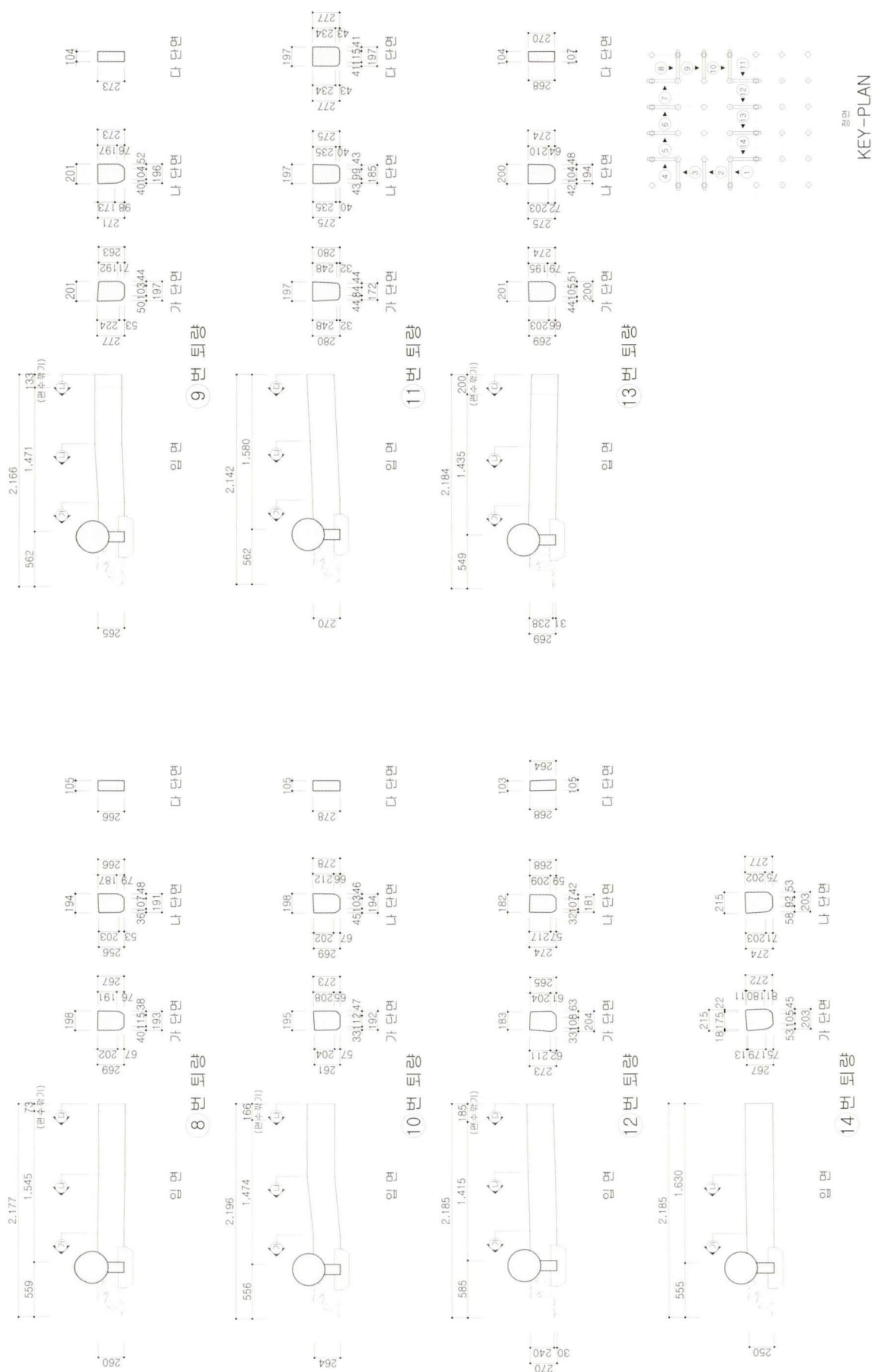
대중교통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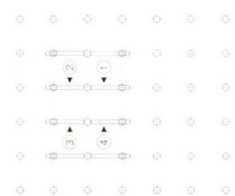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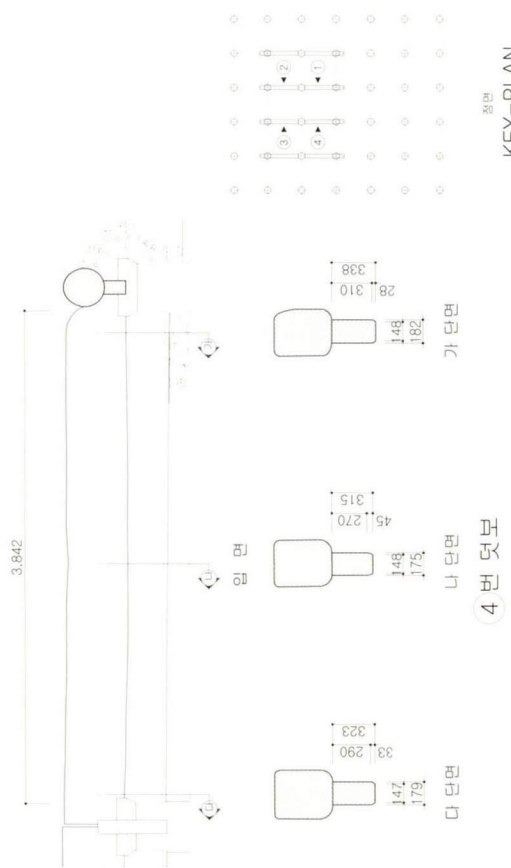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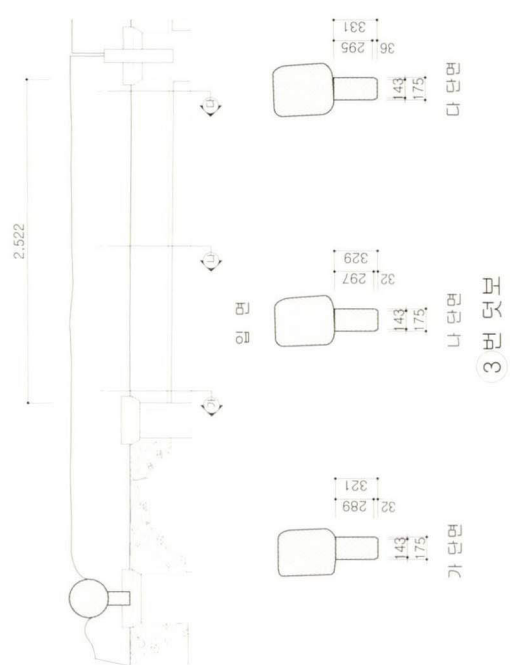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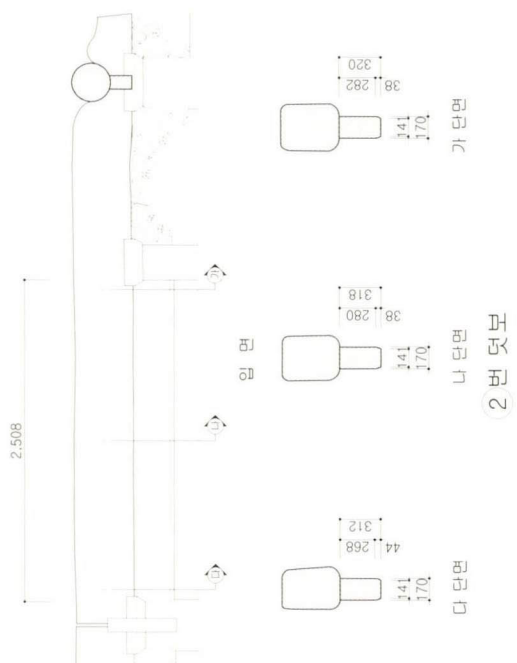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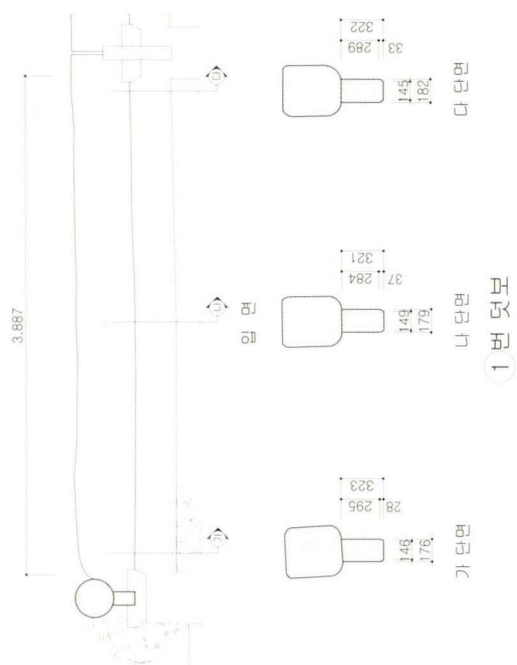
퇴량 상세도 (1)

정면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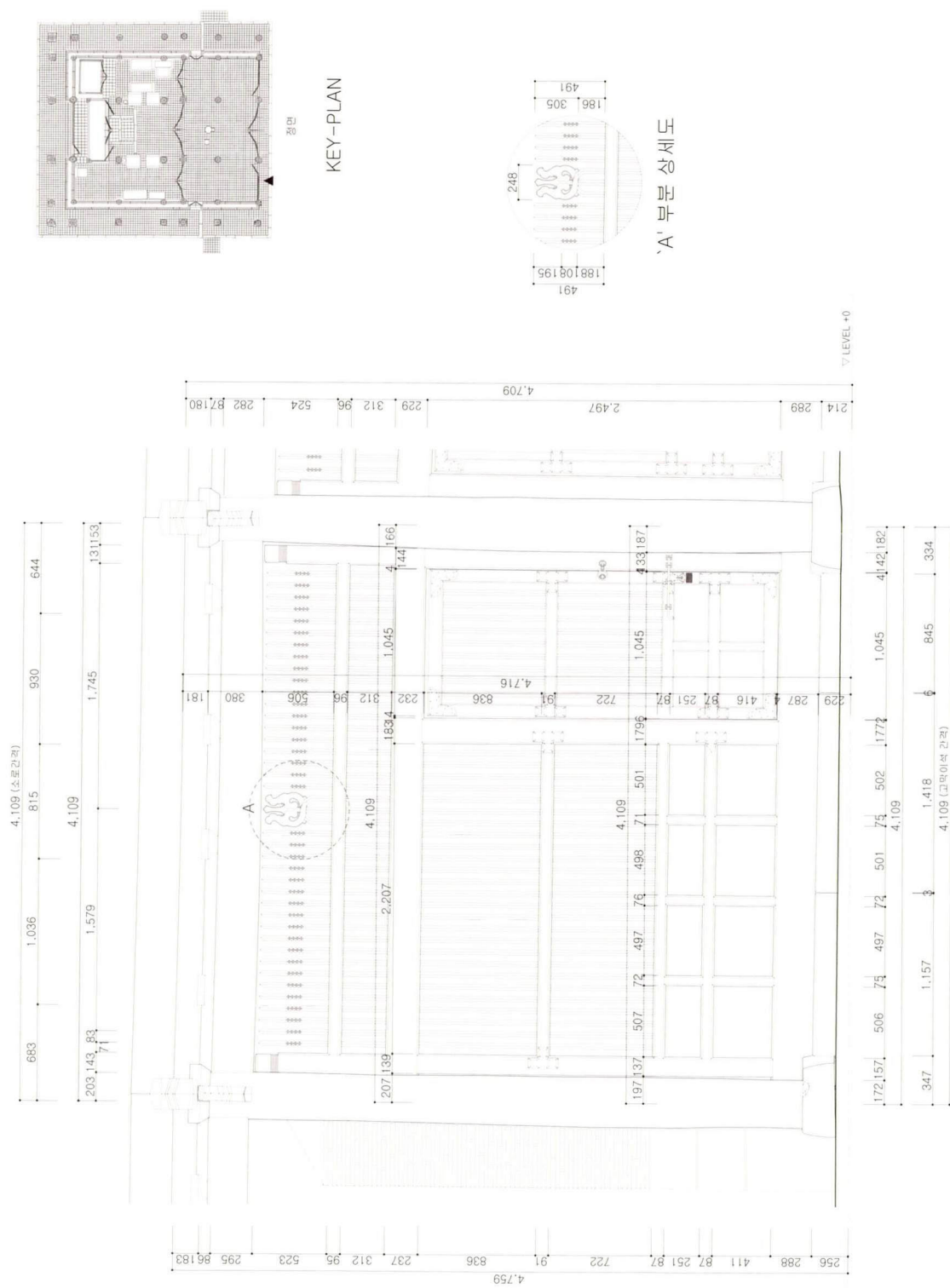




퇴량 상세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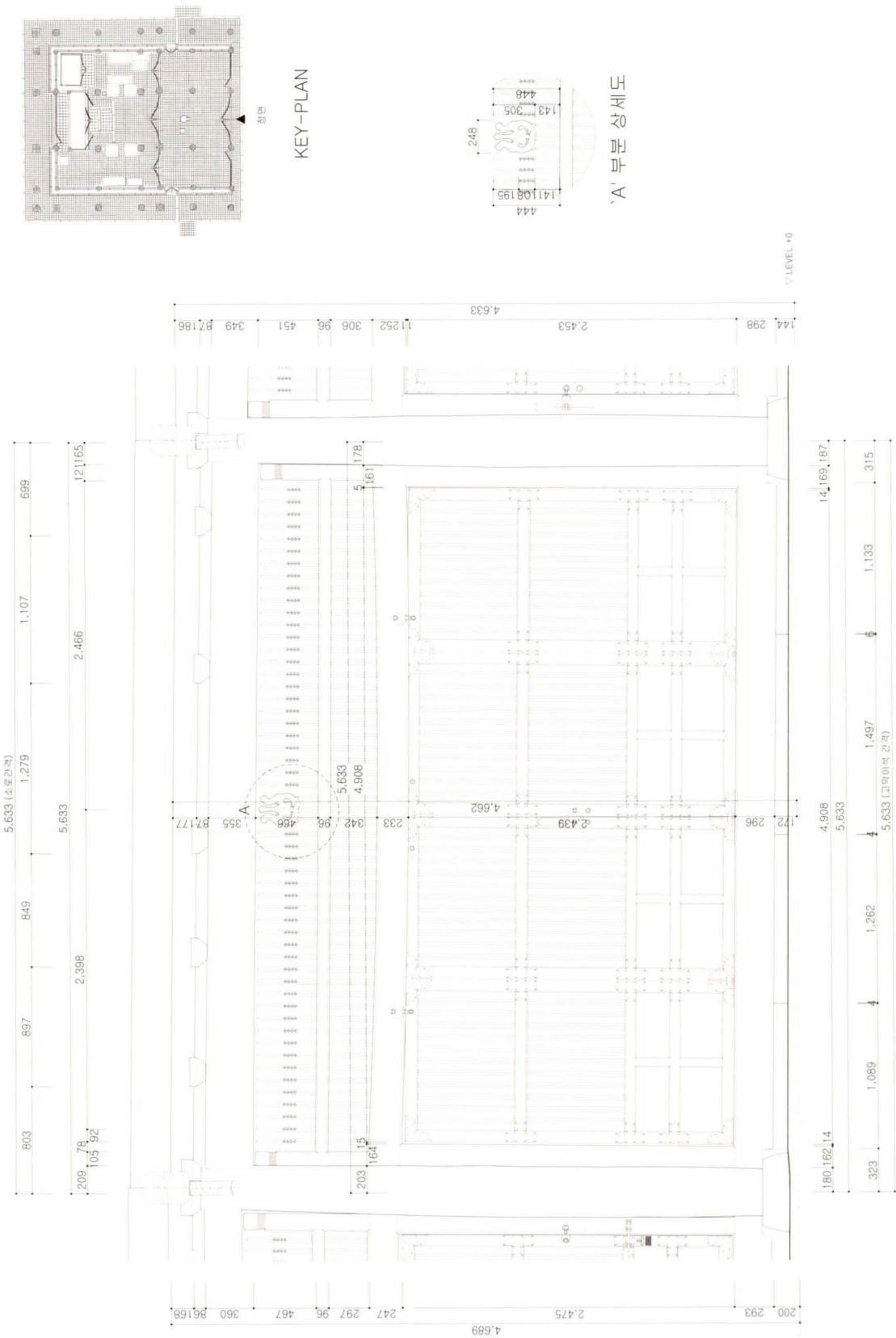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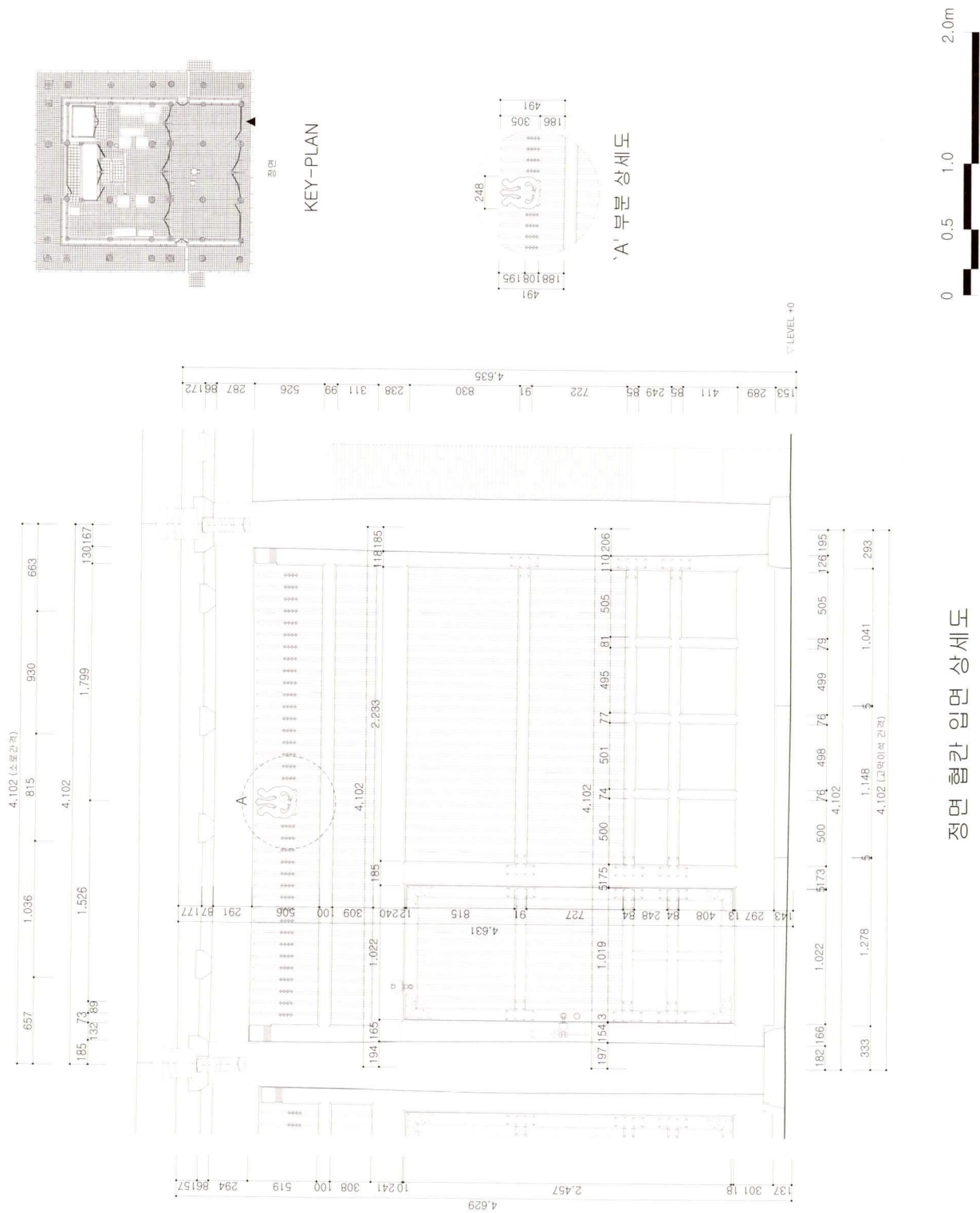


나세창
김이
김이
김이



정면 어칸 일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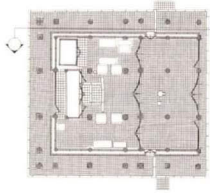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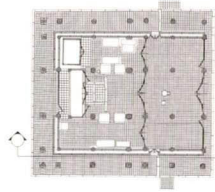
정면 평면 입면 상세도

나
사
민
인
제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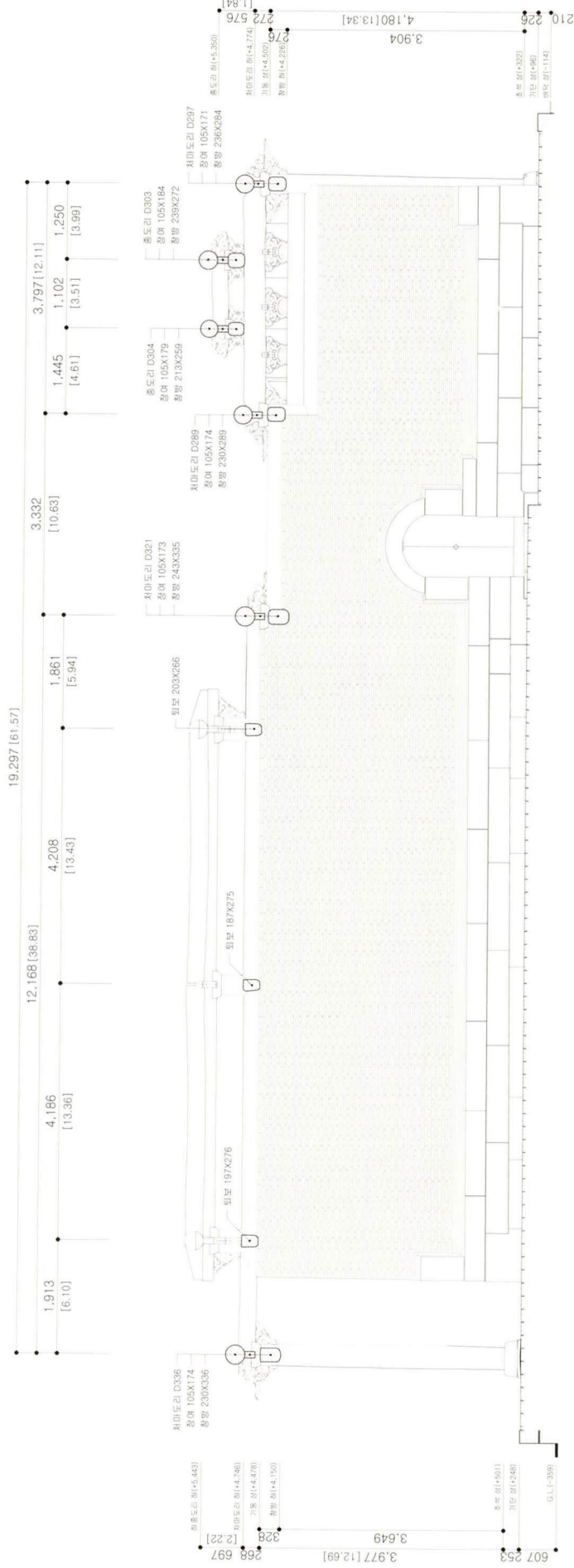


KEY-PLAN





정면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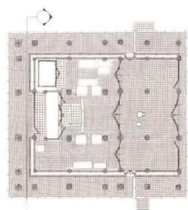
참고
정면도면
각기둥: 창방(105X173, 4.4m)
창방: 창방(105X173, 4.4m)

좌측 입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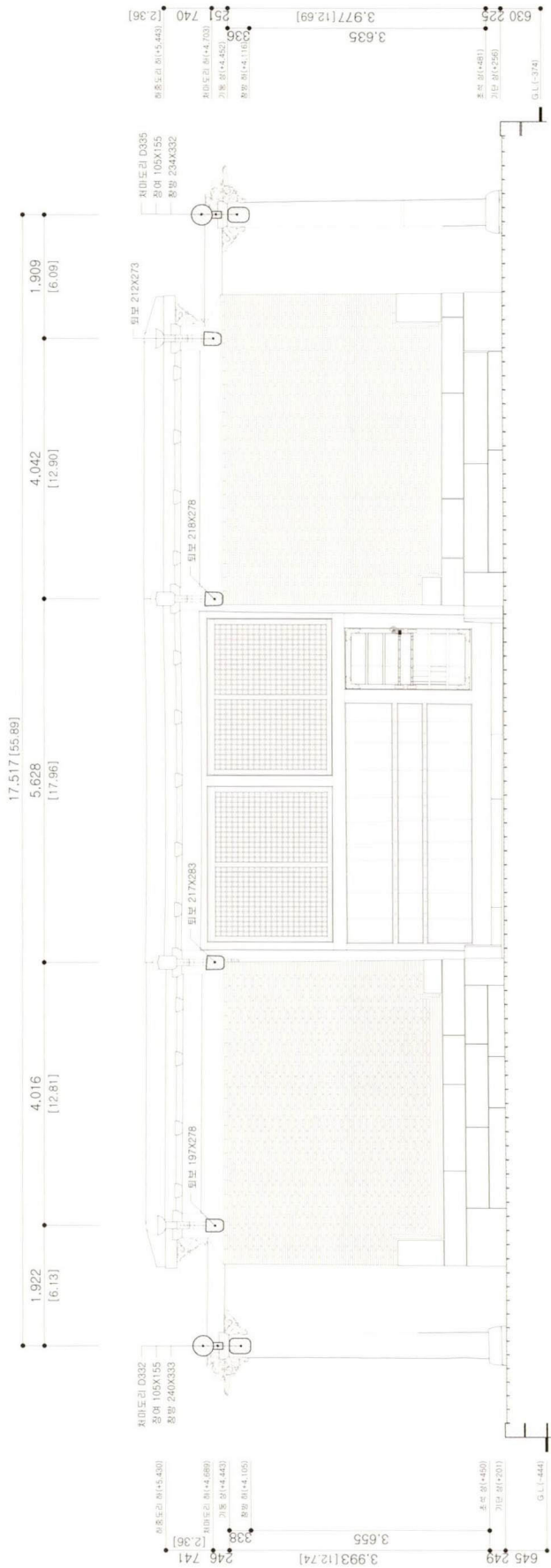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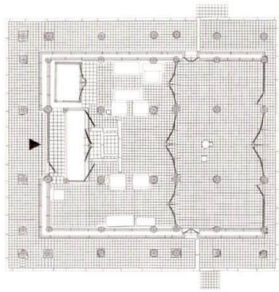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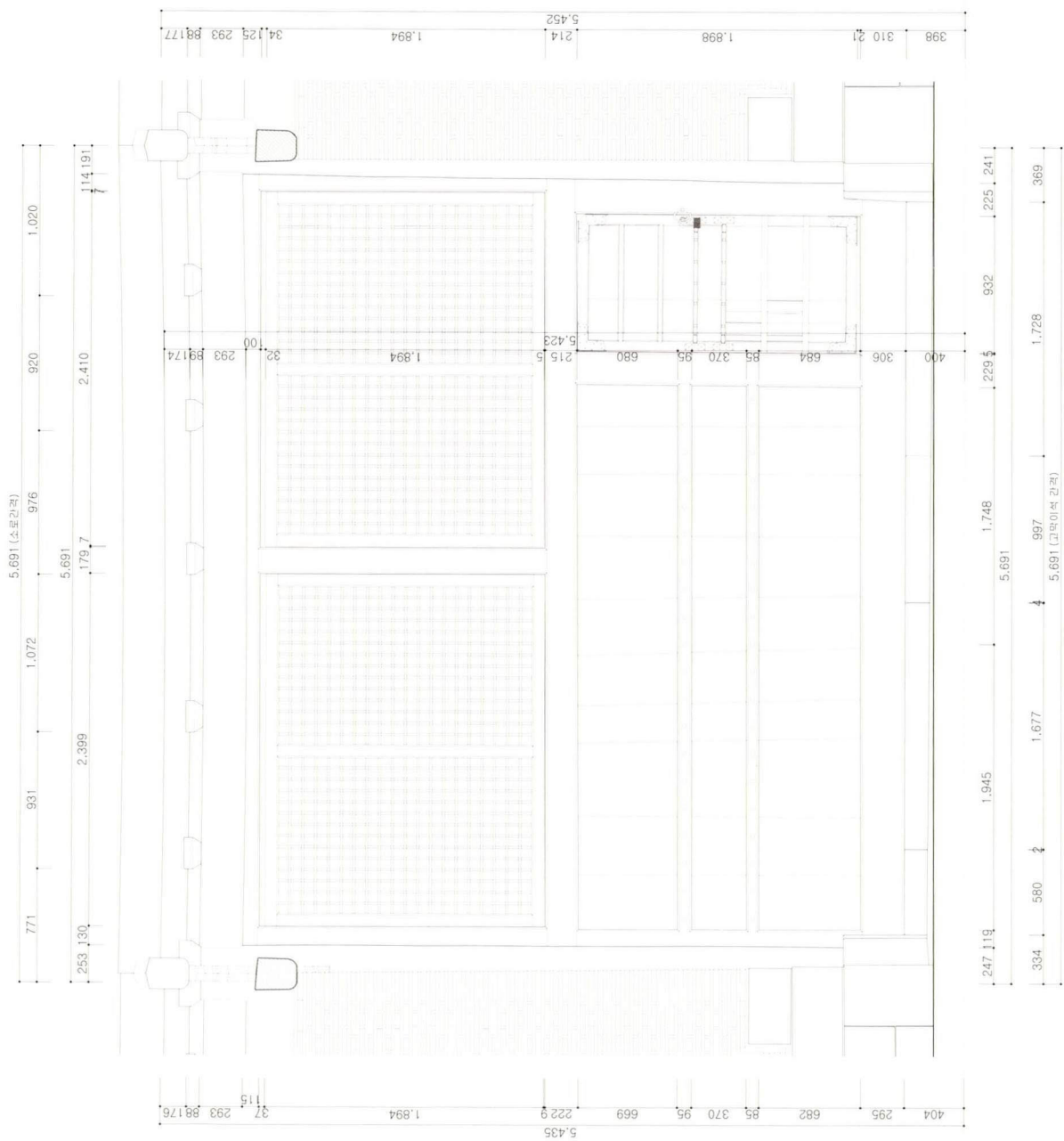
후면 입면 상세도

단위: mm
출처: 본 연구팀의 측량 결과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실제 현장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 1/100 (가로: 313.4mm)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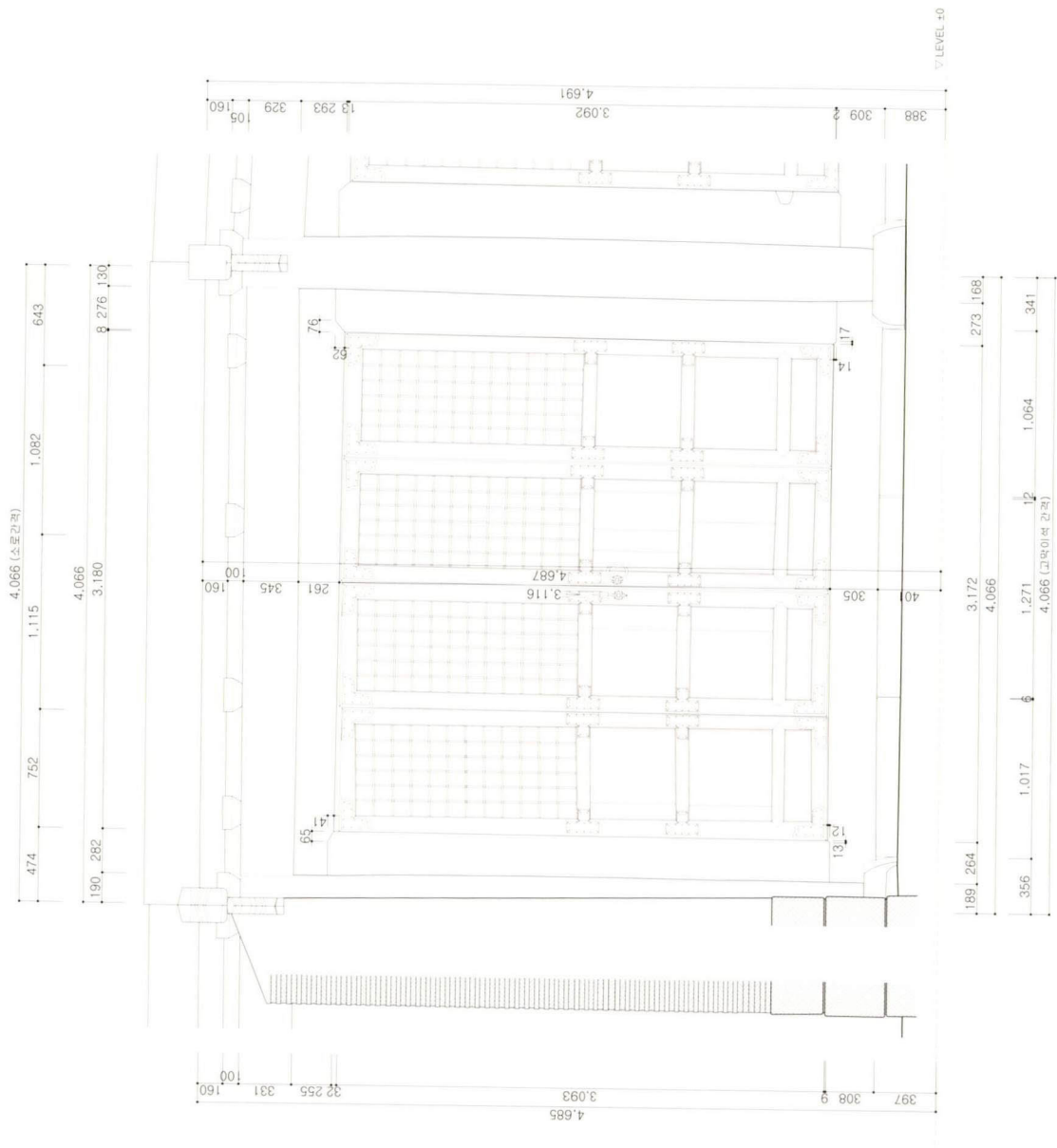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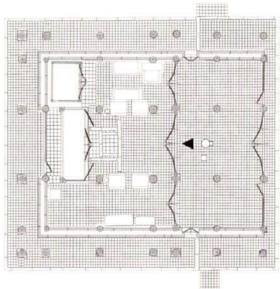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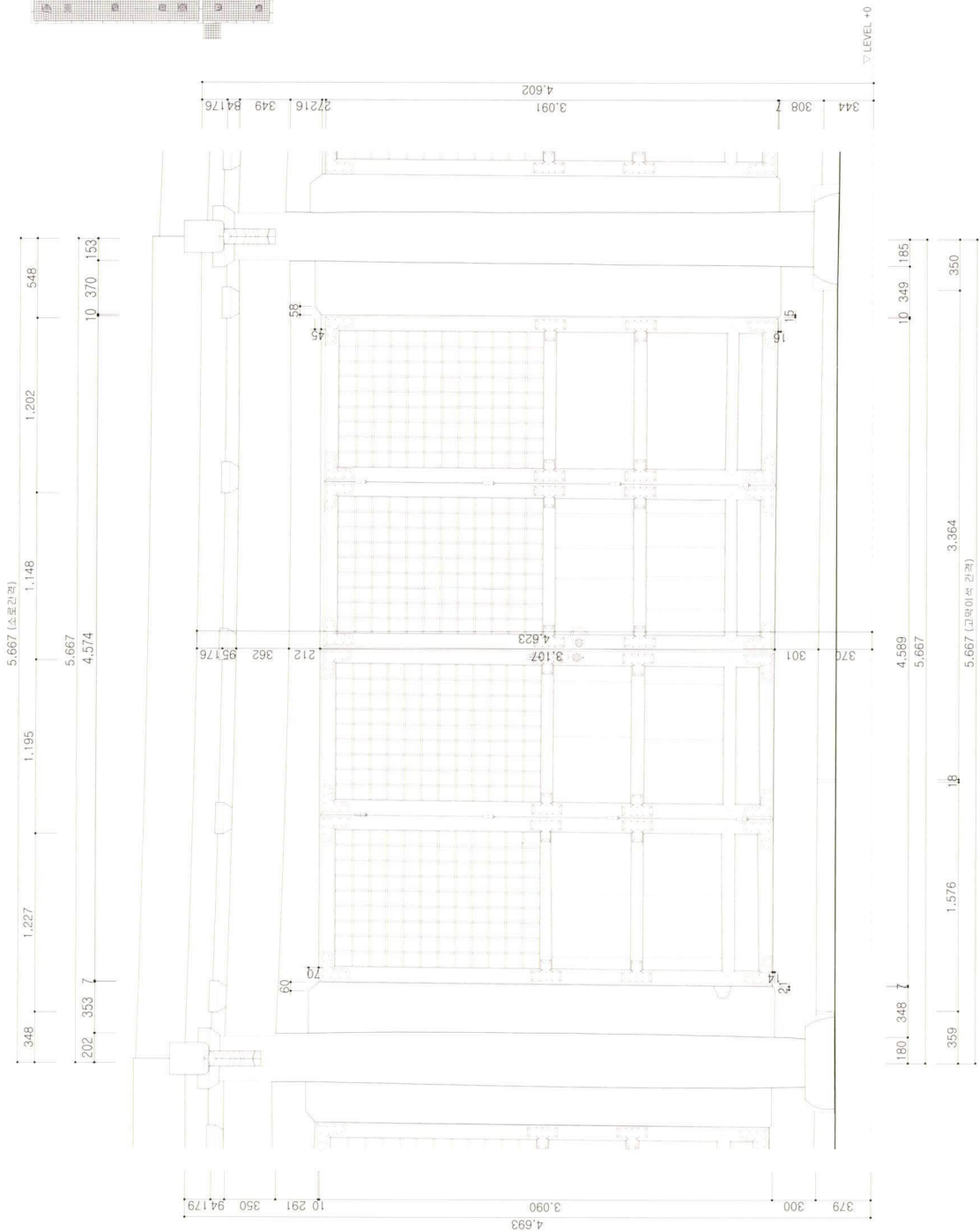
외부 후면 어칸 입면 상세도





내부 본심 일면 상세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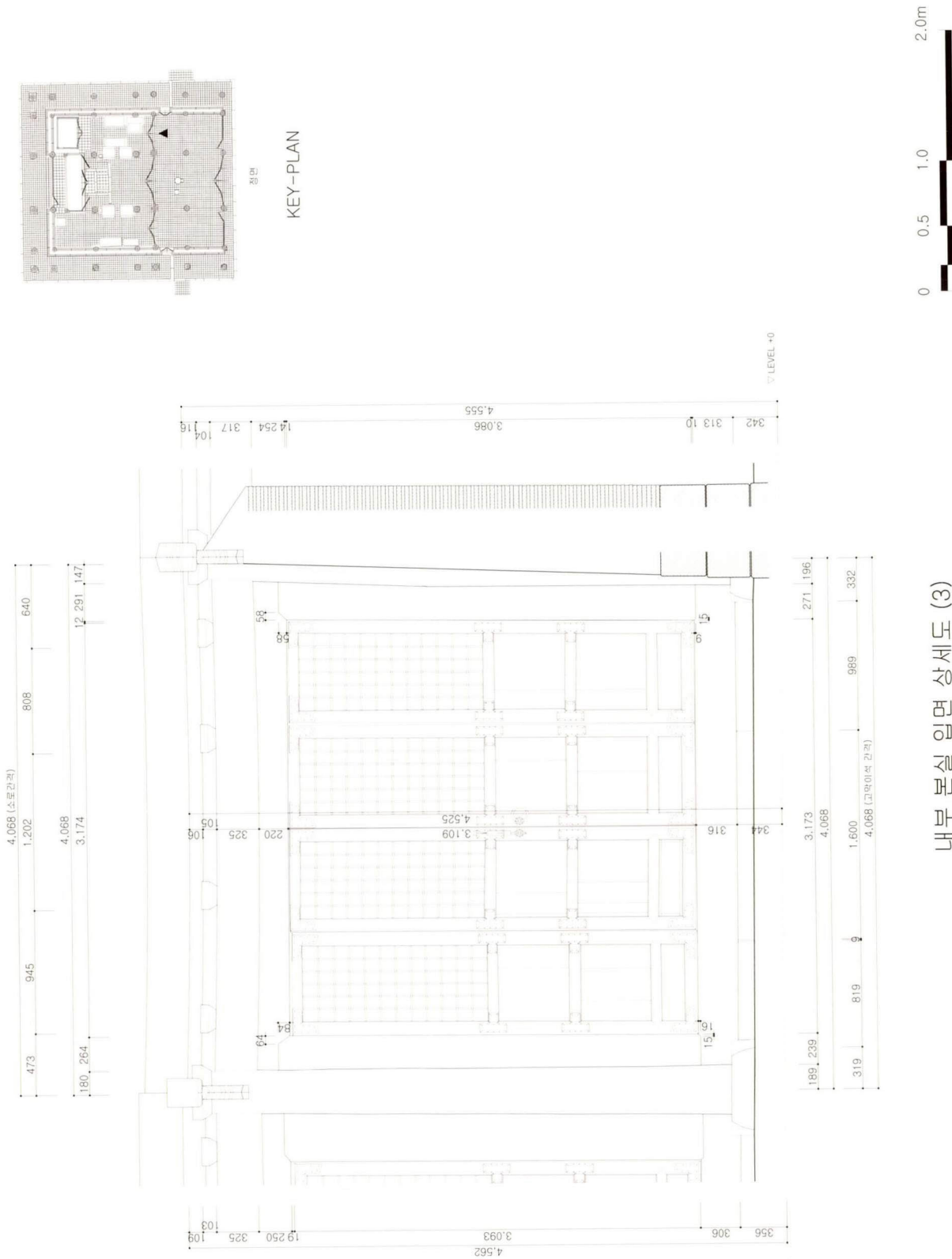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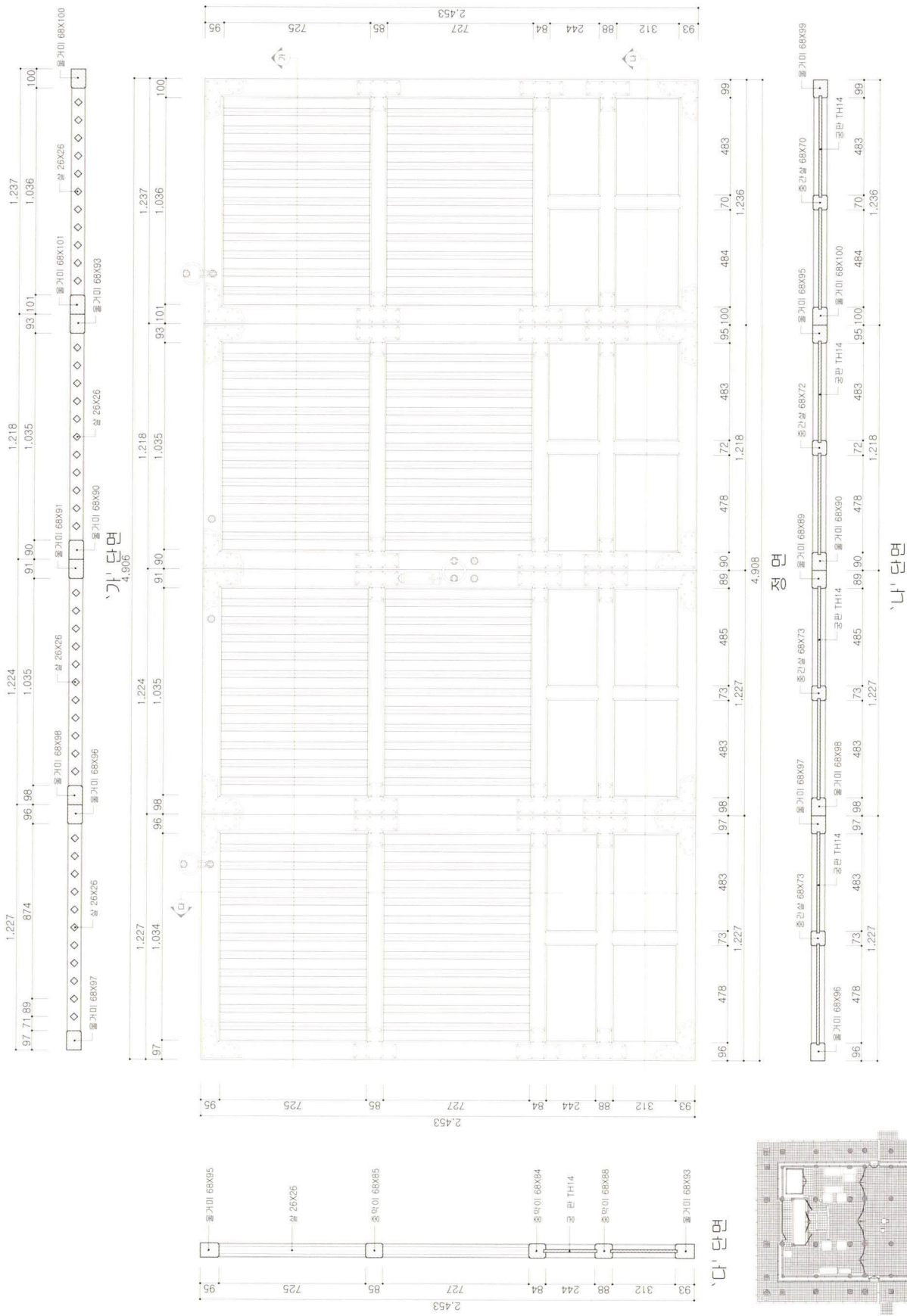
정면
KEY-PLAN

내부 정면 입면 상세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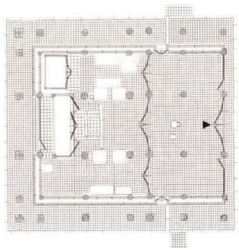
내부 본식 일면 상세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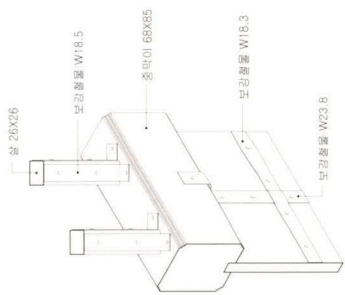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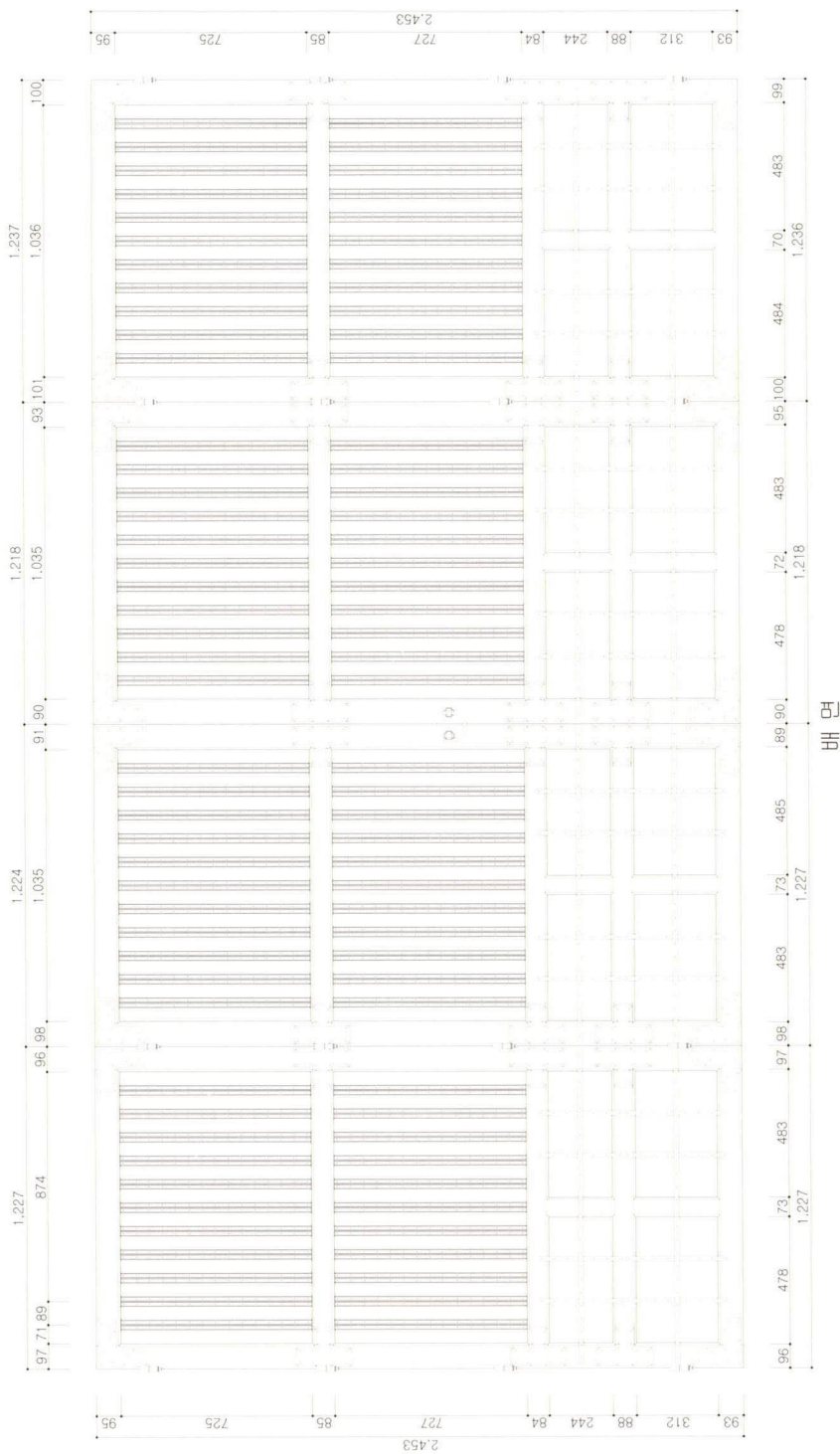


외부 정면 어칸 창호 상세도(전면)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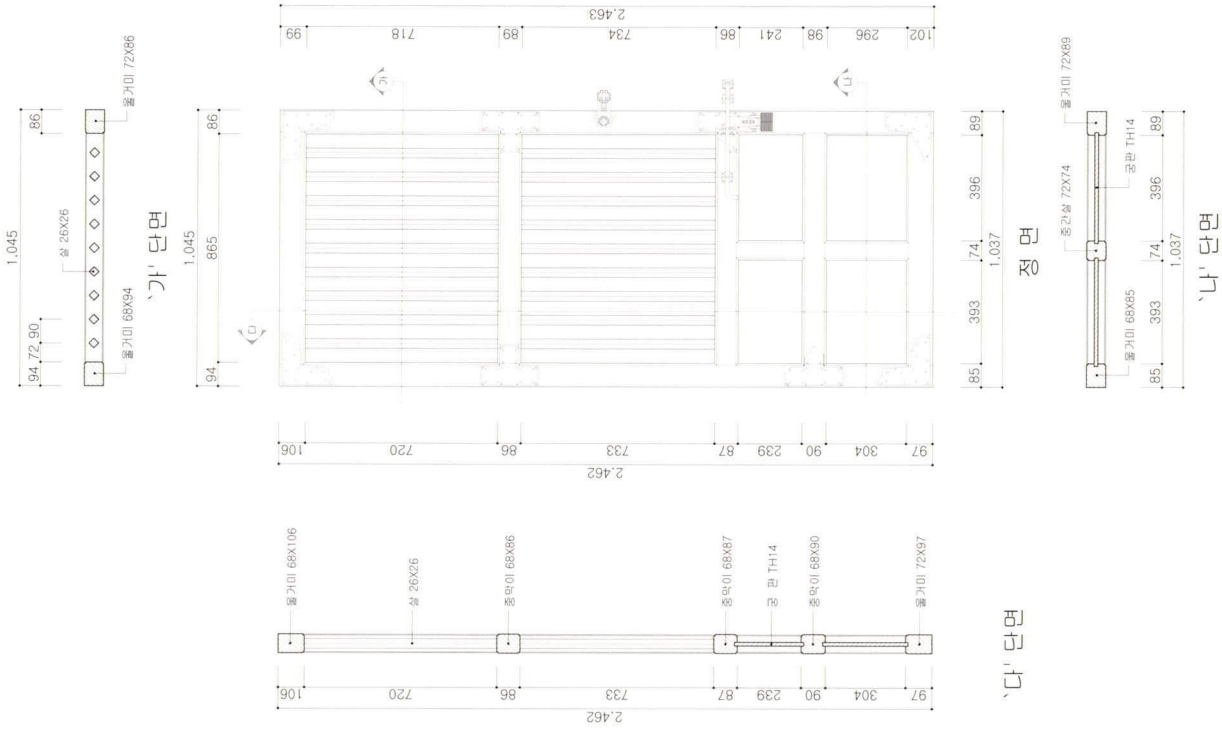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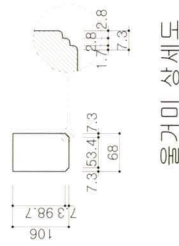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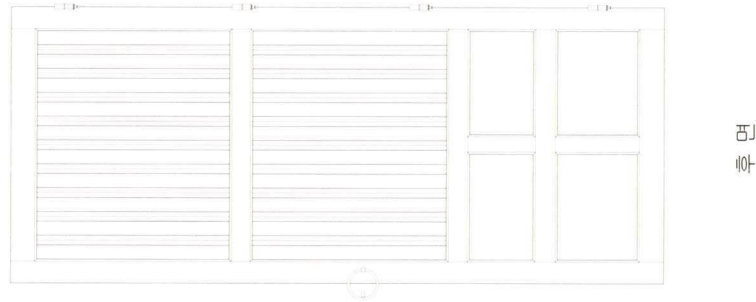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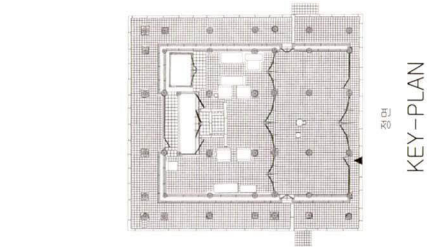


외부 정면 어칸 창호 상세도(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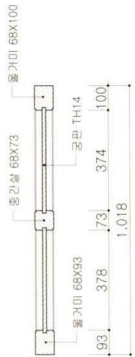


외부 정면 서측협칸 창호 상세도



외부 정면 동쪽행칸 창호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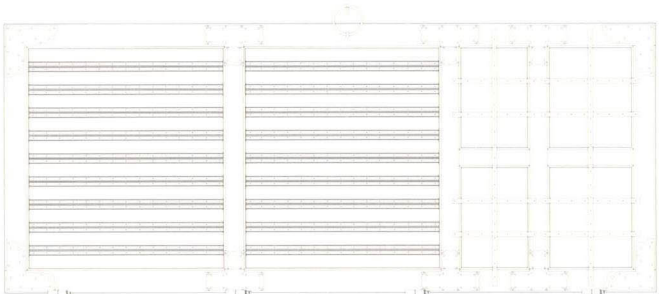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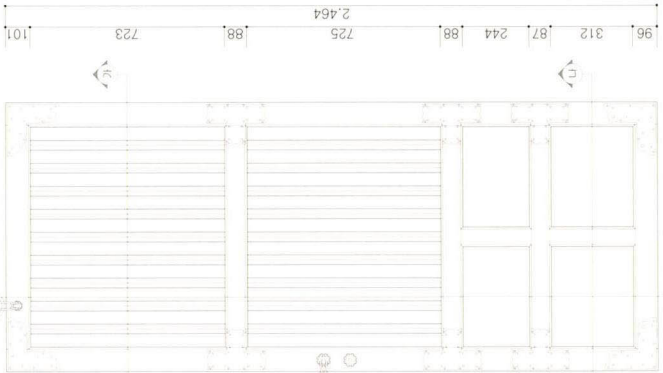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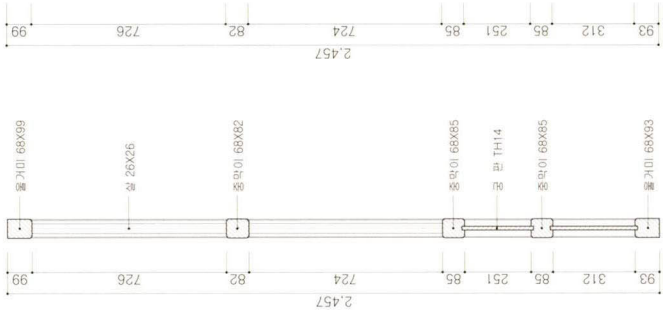
단면,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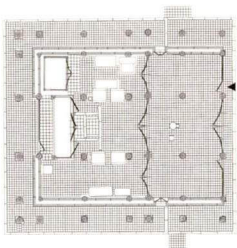
배면



단면,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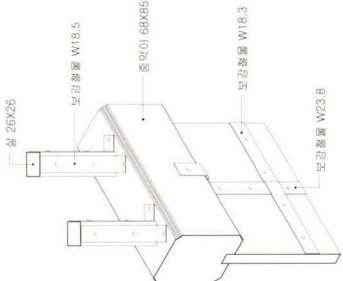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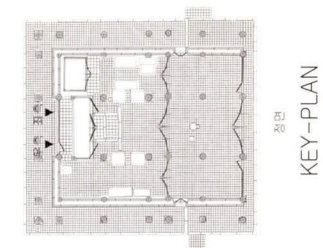


올거미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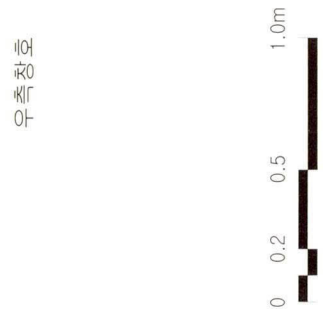


보강철물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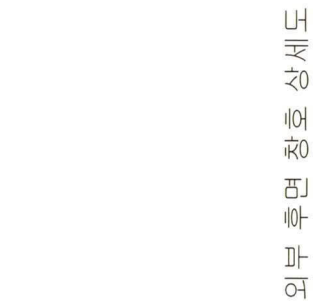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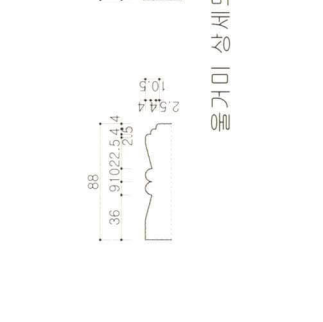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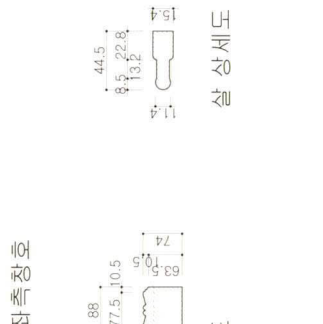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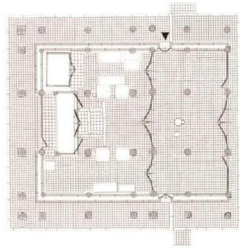


0 0.2 0.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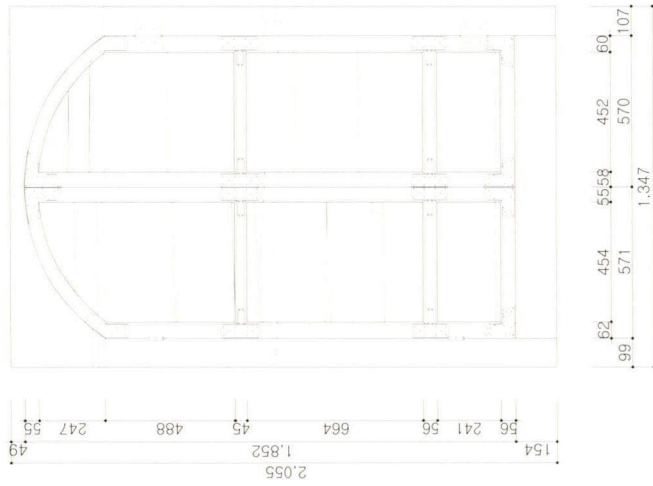
너
뜻
으로
하여
뜻
으로
핑
하여
파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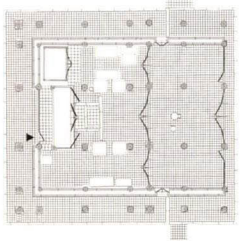
정면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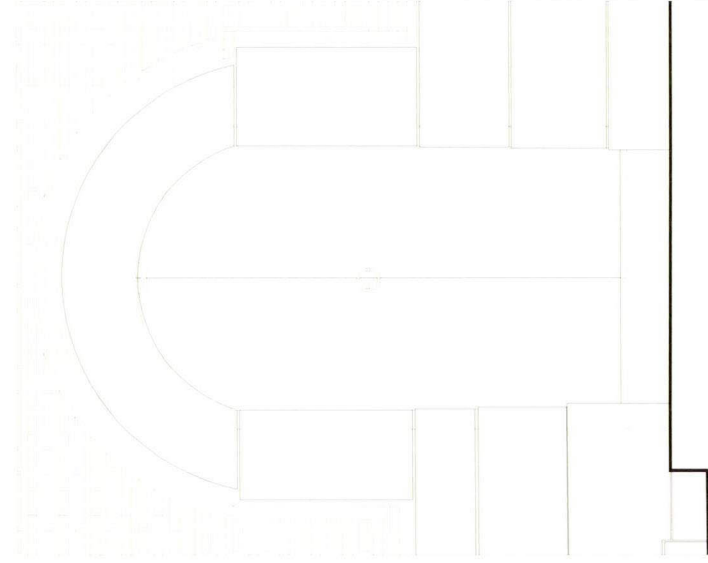
내부 입면

동쪽면 창호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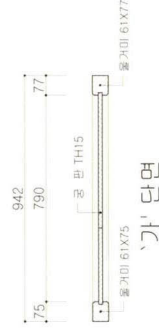
정면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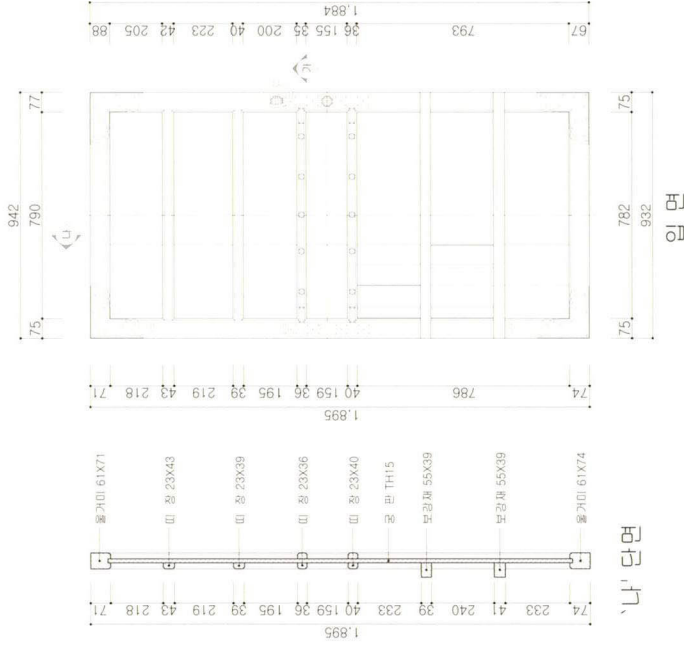


외부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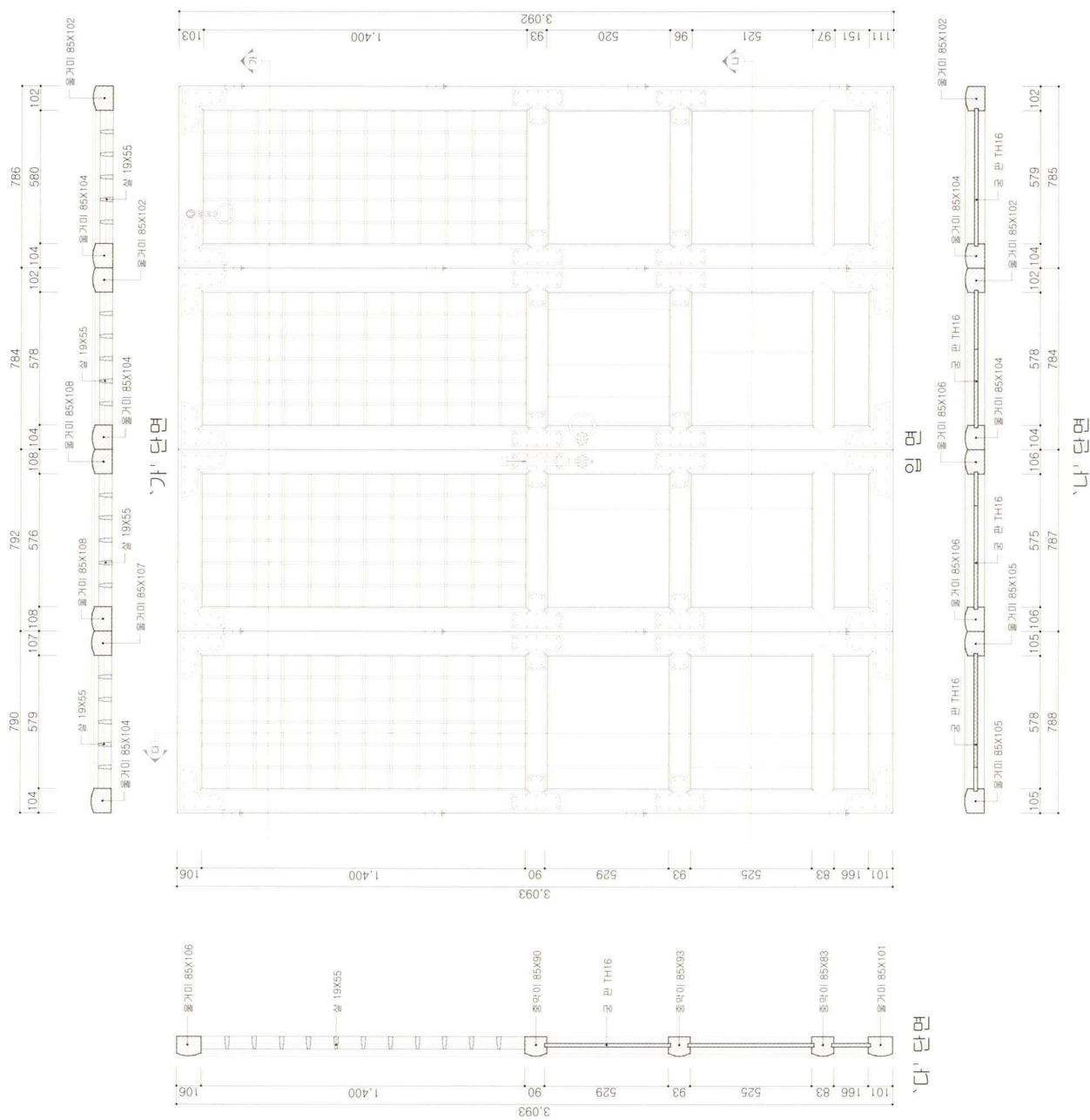
서쪽면 창호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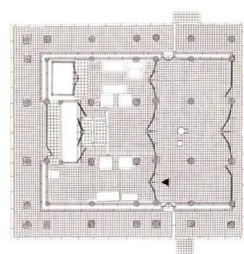
가,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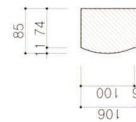
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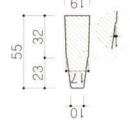
다
세
소
하
하
한
시
하
하
하
하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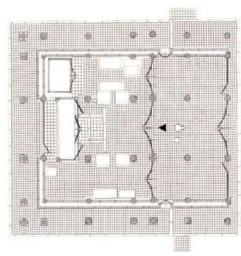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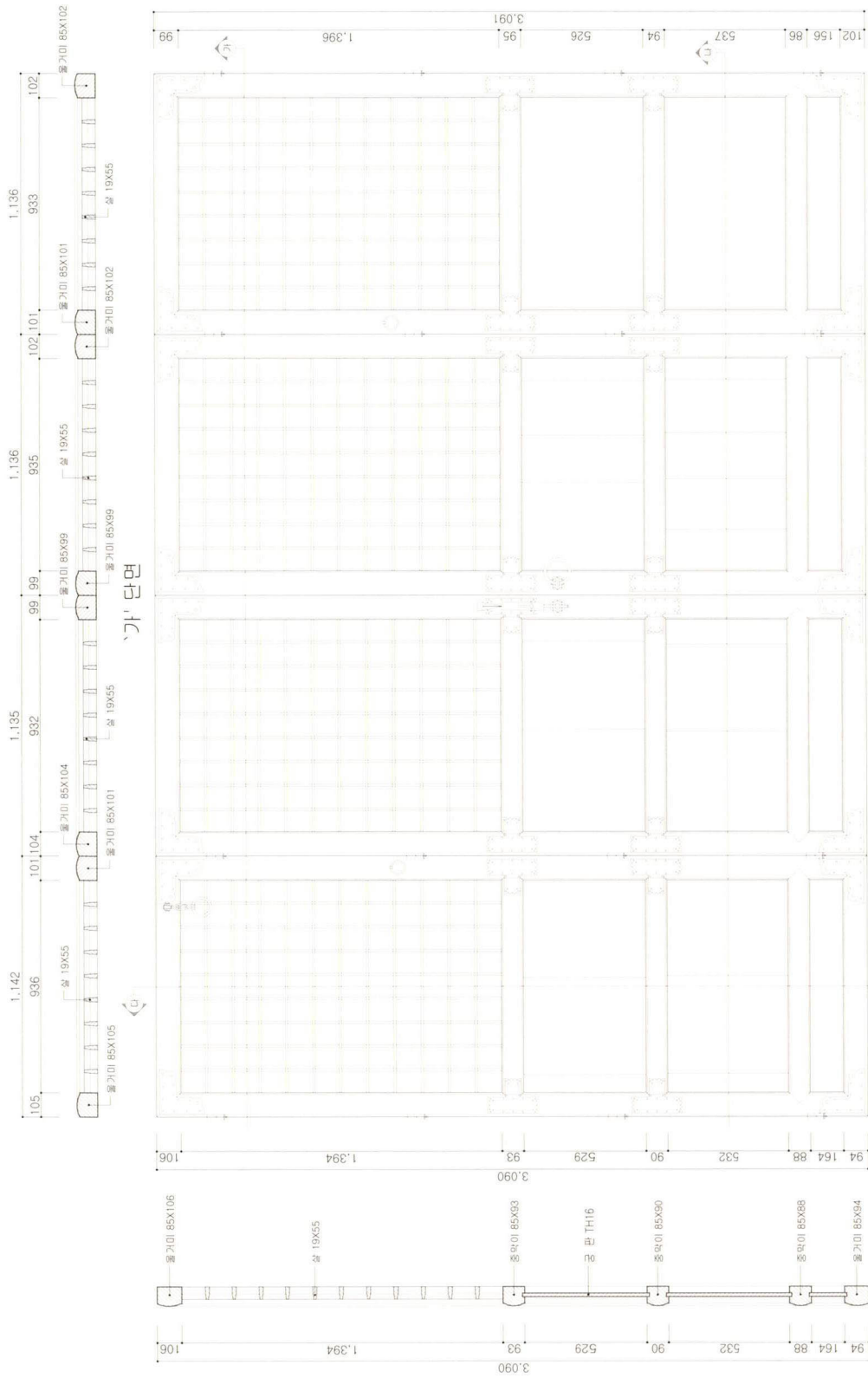


올겨미 상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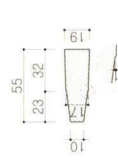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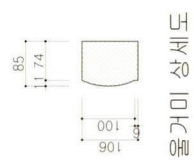


도상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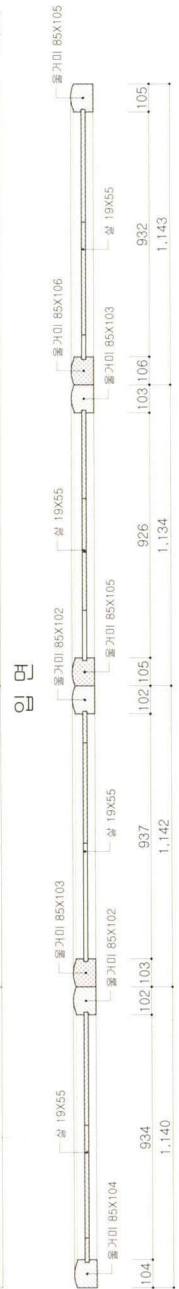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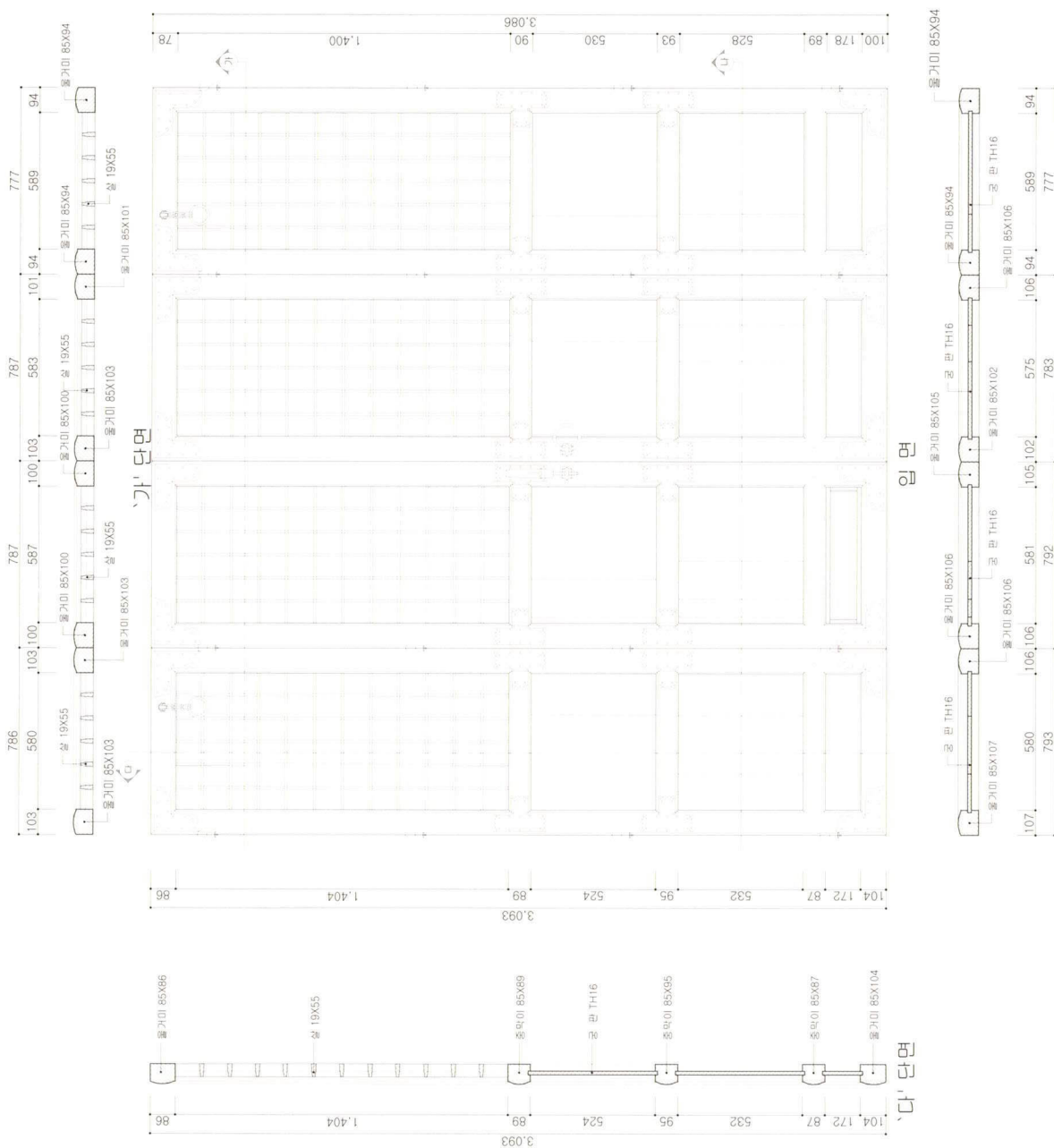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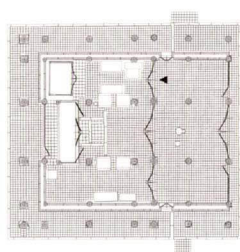


본전 정면 어칸 창호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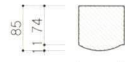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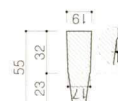
나
자
어
자
내
하
아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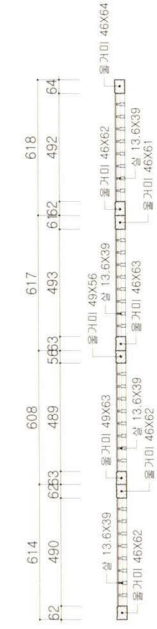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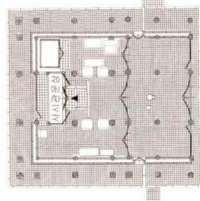


도움거미 상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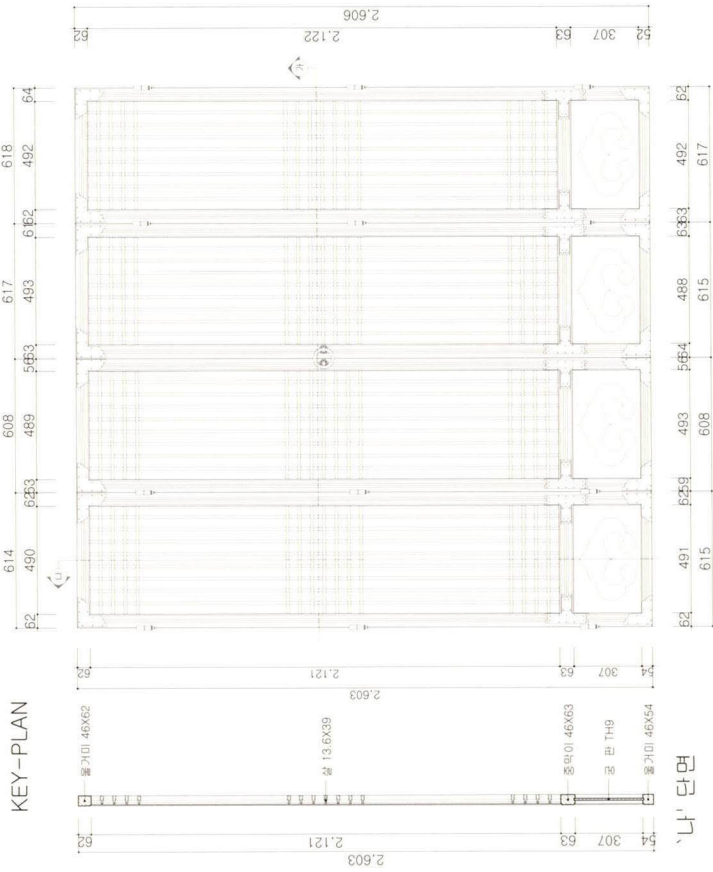
도
상
세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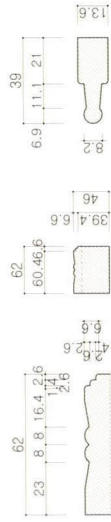


정면

KEY-PLAN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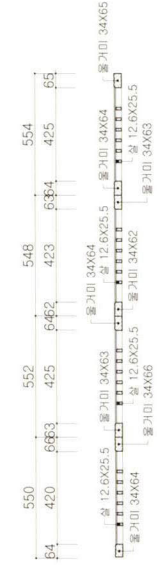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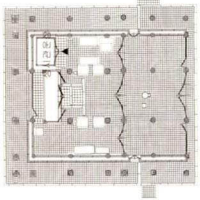


물거미 상세도

상 상세도

사시관운상 중앙창호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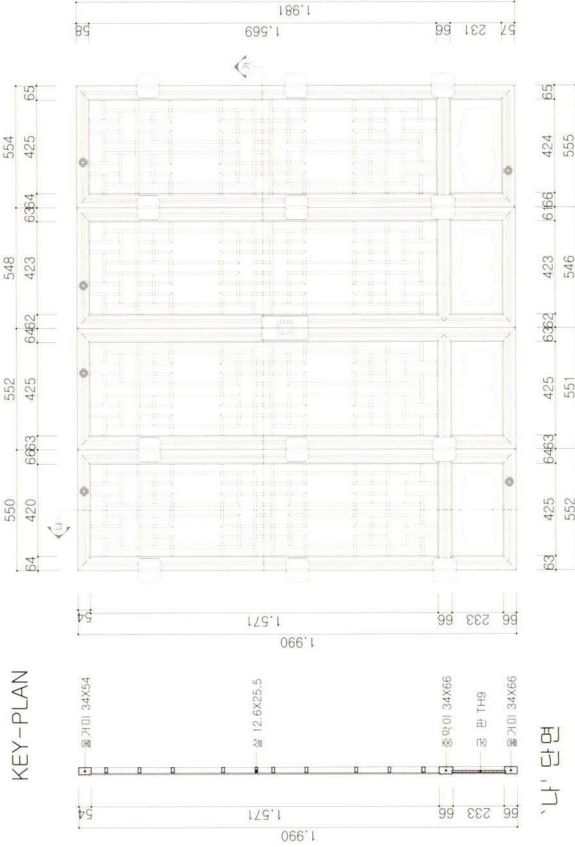
0 0.25 0.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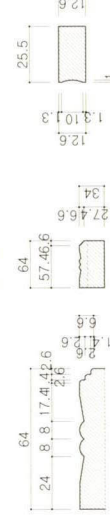
가' 단면

정면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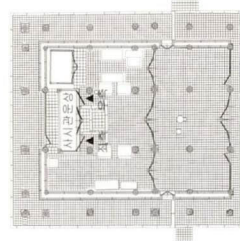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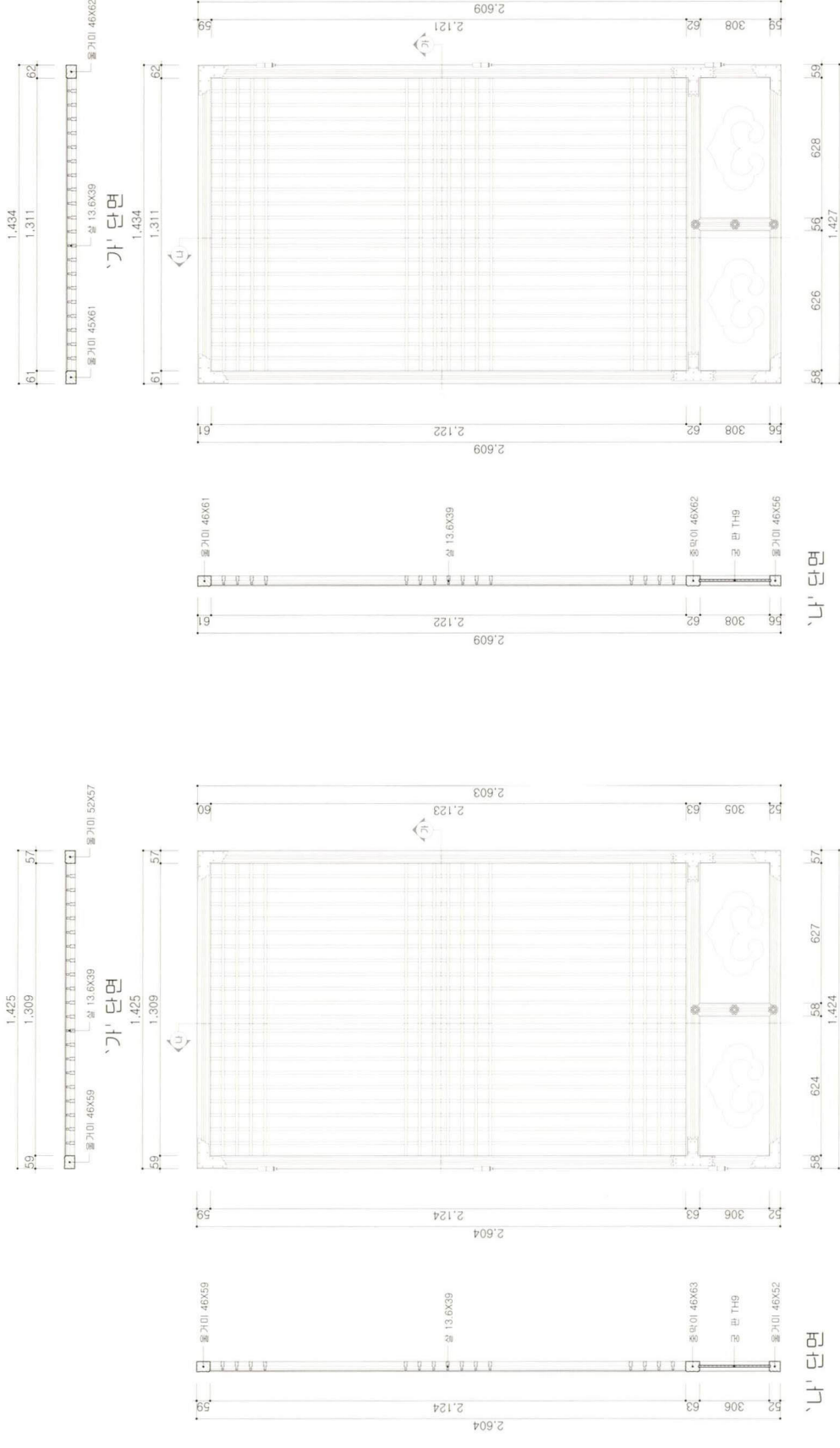
입면



물거미 상세도

상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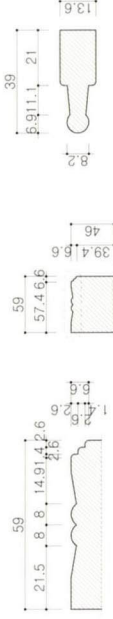
생시관운상 중앙창호 상세도



정면
KEY-PLAN

입면
좌측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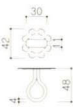
입면
우측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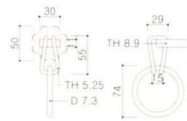
상세도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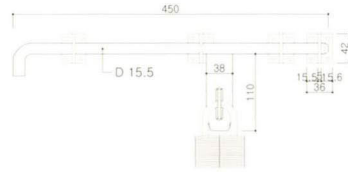




배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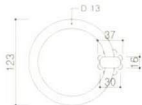
외사슬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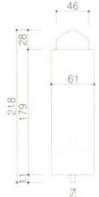
1번 창호 철물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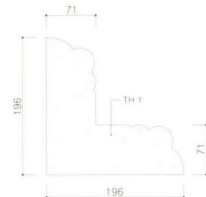
배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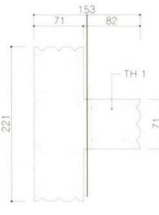
단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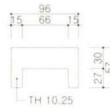
자물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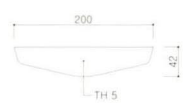
자쇠



정자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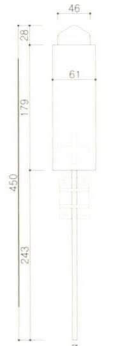


하부원산



상부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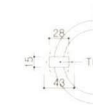
2번 창호 철물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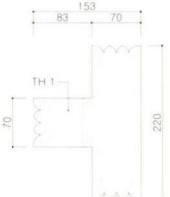
자물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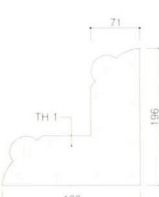
자물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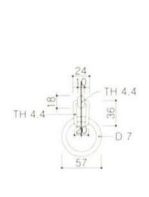
단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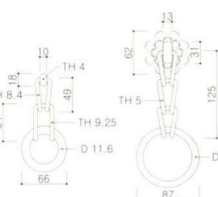
정자쇠



자쇠



외사슬고리



삼사슬고리

3번 창호 철물 상세도

4번 창호 철물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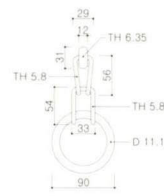
5번 창호 철물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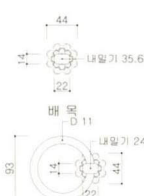
자물통



돌쩌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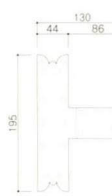
이사슬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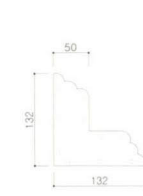
단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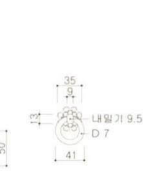
돌쩌귀



정자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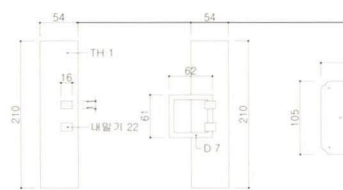
자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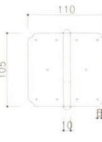
단고리

6번 창호 철물 상세도

7번 창호 철물 상세도



약과형양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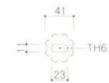
약과정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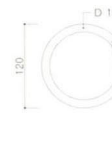
국화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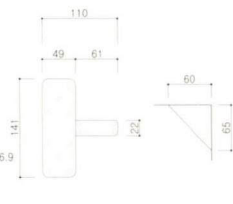
원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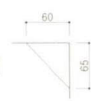
국화쇠



단고리



정자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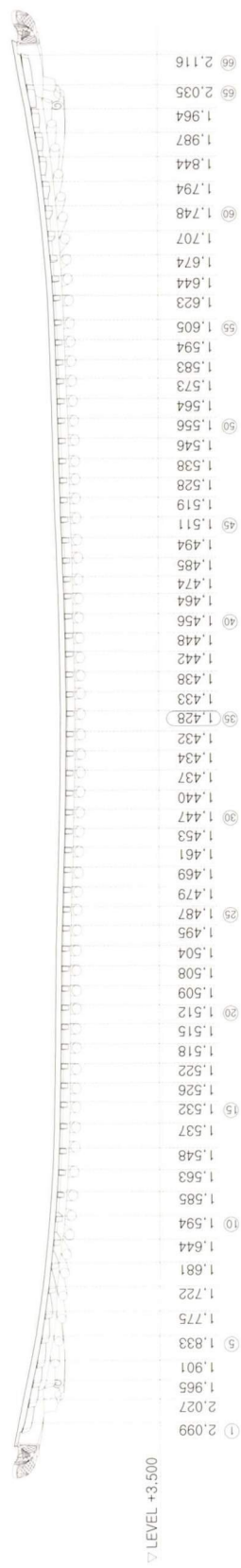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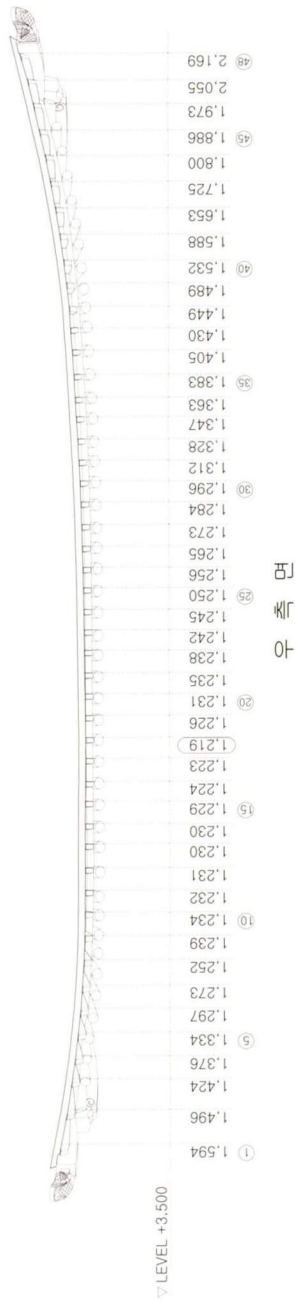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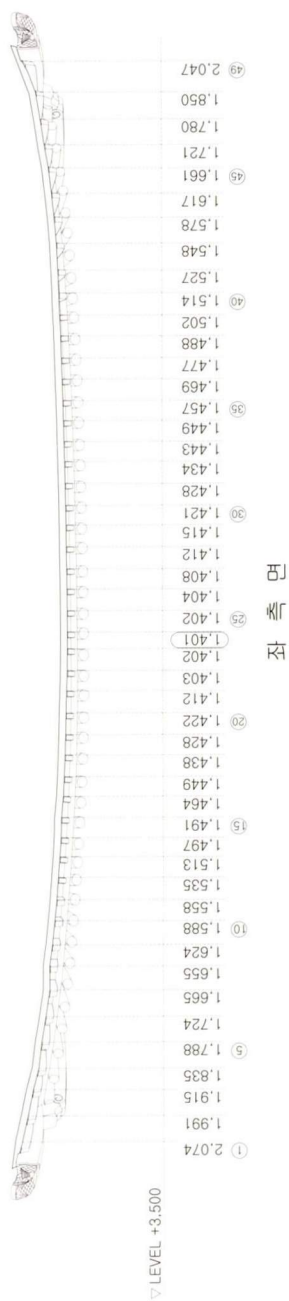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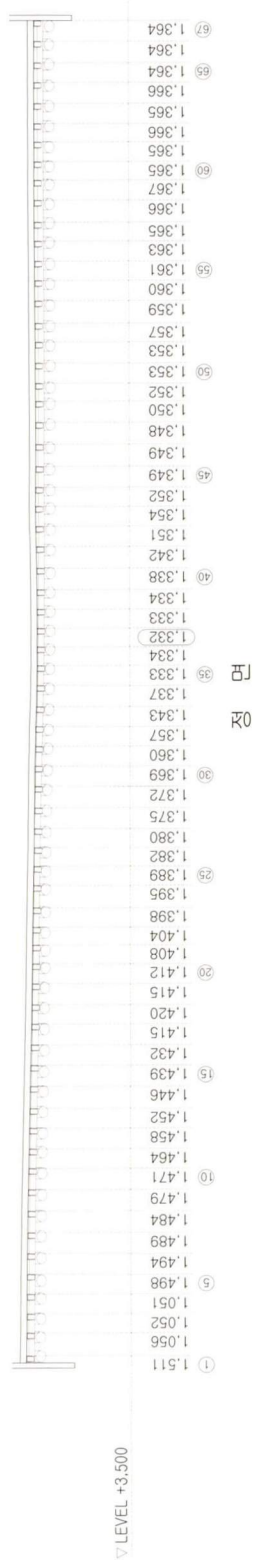
원 산

8번 창호 철물 상세도

9번 창호 철물 상세도

창호 철물 상세도

0 0.1 0.2 0.4m



주 기

○ 서까래 부연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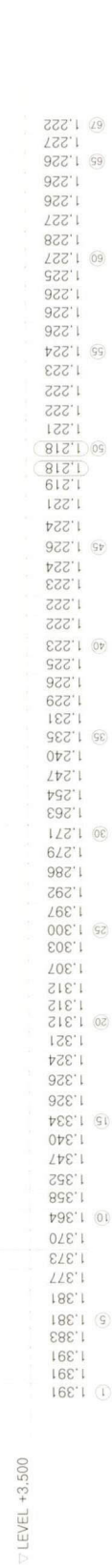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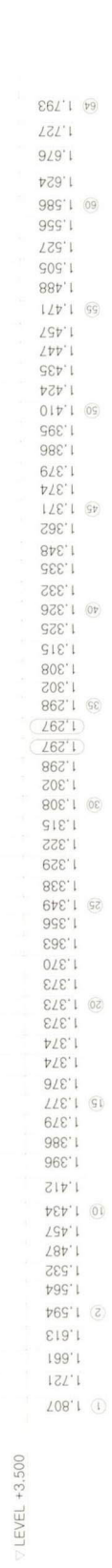
양곡 최소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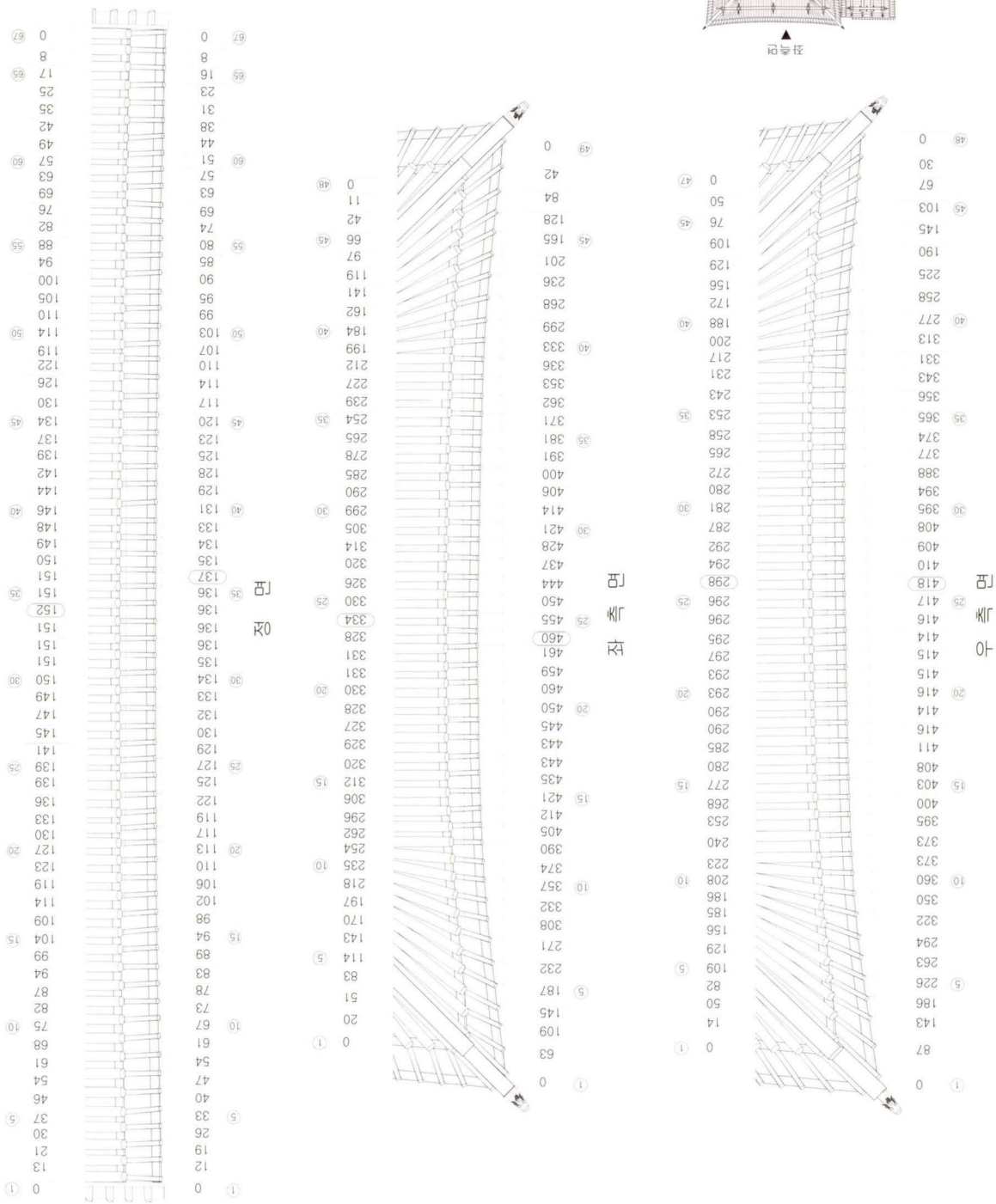
초대기 양대 선별



수치
○ 서까래 부면 단층
○ 양극 최소 치수

이매기 안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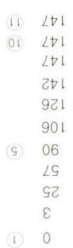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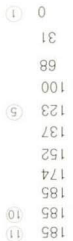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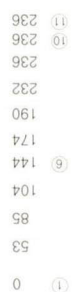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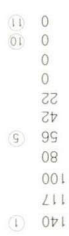




주 기
○ 서까래 부면 단면
○ 안하리 곡선도 (1)



0 1.0 2.0 4.0m



구 분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24-25	25-26	26-27	27-28	28-29	29-30	30-31	31-32	32-33	33-34
서까래 간격	79	295	271	296	262	331	318	297	308	320	309	276	315	298	290	312	315	307	298	291	253	264	302	331	263	281	296	315	304	289	316	276	297	304
구 분	34-35	35-36	36-37	37-38	38-39	39-40	40-41	41-42	42-43	43-44	44-45	45-46	46-47	47-48	48-49	49-50	50-51	51-52	52-53	53-54	54-55	55-56	56-57	57-58	58-59	59-60	60-61	61-62	62-63	63-64	64-65	65-66	66-67	67-68
서까래 간격	293	284	274	282	280	283	340	298	309	268	307	316	342	300	240	318	297	285	303	315	292	313	287	280	285	267	283	305	295	300	312	290	280	96



구 분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24-25	25-26	26-27	27-28	28-29	29-30	30-31	31-32	32-33	33-34
부연 간격	104	337	279	289	294	302	307	316	316	311	285	305	288	325	309	298	307	283	307	293	274	261	287	326	278	276	316	305	288	292	291	312		
구 분	34-35	35-36	36-37	37-38	38-39	39-40	40-41	41-42	42-43	43-44	44-45	45-46	46-47	47-48	48-49	49-50	50-51	51-52	52-53	53-54	54-55	55-56	56-57	57-58	58-59	59-60	60-61	61-62	62-63	63-64	64-65	65-66	66-67	67-68
부연 간격	291	274	272	280	288	315	316	296	293	280	306	322	323	309	264	296	308	275	330	297	285	293	275	325	293	271	288	270	295	309	288	292	338	3

정 면

구 분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24-25	25-26	26-27	27-28	28-29	29-30	30-31	31-32	32-33	33-34	34-35
	서까래 간격 415 340 352 353 352 288 302 298 310 368 385 304 310 293 298 328 296 311 284 312 308 316 314 280 296 330 309 297 316 303 284 305 316 319																																	
구 분	35-36	36-37	37-38	38-39	39-40	40-41	41-42	42-43	43-44	44-45	45-46	46-47	47-48	48-49	49-50	50-51	51-52	52-53	53-54	54-55	55-56	56-57	57-58	58-59	59-60	60-61	61-62	62-63	63-64					
	서까래 간격 261 334 305 315 296 296 335 278 338 303 299 281 326 298 310 310 305 304 287 350 332 298 319 335 313 354 405 374 410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부연 간격	328	303	310	380	389	373	360	363	377	345	332	385	333	296	302	302	308	297	297	306	313	315	292	304	310	308	308	292	310	295	312	302	302	
구 분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	㋂	㋃	㋄	㋅	㋆	㋇	㋈	㋉	㋊	㋋	㋌	㋍	㋎	㋏	
부연 간격	318	296	310	315	287	300	312	327	288	317	317	305	305	301	312	302	310	290	311	310	337	349	363	371	393	376	387	376	372	370	472			

배 면

주 기
○ 서까래 부연 반호
○ 선자면

서까래 부연 간격 실측도 (1)



구분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24-25
서까래 간격	405	377	363	315	337	303	312	309	306	286	259	273	316	289	304	338	306	297	325	287	305	316	289	317
구분	25-26	26-27	27-28	28-29	29-30	30-31	31-32	32-33	33-34	34-35	35-36	36-37	37-38	38-39	39-40	40-41	41-42	42-43	43-44	44-45	45-46	46-47	47-48	
서까래 간격	306	340	288	306	306	315	296	329	298	321	302	306	353	279	296	330	324	292	324	278	347	325	345	



구분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24-25
부연 간격	382	388	320	385	378	390	354	316	352	306	329	301	283	296	310	288	319	298	315	325	297	321	247	312
구분	25-26	26-27	27-28	28-29	29-30	30-31	31-32	32-33	33-34	34-35	35-36	36-37	37-38	38-39	39-40	40-41	41-42	42-43	43-44	44-45	45-46	46-47	47-48	48-49
부연 간격	317	296	325	319	286	325	320	292	307	294	315	309	325	306	322	339	391	382	353	375	338	362	417	520

좌 측 면

구분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서까래 간격	440	329	305	300	331	318	300	265	288	274	385	366	293	326	314	321	317	294	320	314	315	288	339	
구분	24-25	25-26	26-27	27-28	28-29	29-30	30-31	31-32	32-33	33-34	34-35	35-36	36-37	37-38	38-39	39-40	40-41	41-42	42-43	43-44	44-45	45-46	46-47	
서까래 간격	313	333	302	294	334	334	308	283	343	303	346	343	351	283	272	308	341	302	344	365	362	355	418	



구분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24-25
부연 간격	504	464	336	352	353	342	376	354	342	325	330	348	298	329	291	340	305	323	317	308	332	299	301	315
구분	25-26	26-27	27-28	28-29	29-30	30-31	31-32	32-33	33-34	34-35	35-36	36-37	37-38	38-39	39-40	40-41	41-42	42-43	43-44	44-45	45-46	46-47	47-48	
부연 간격	300	309	318	334	308	302	312	326	284	338	357	324	313	342	337	382	388	386	385	372	387	350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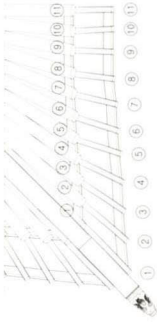
우 측 면

주 기
○ 서까래 부연 번호
● 설치면

서까래 부연 간격 실측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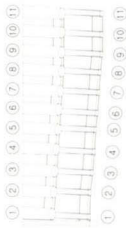
구 분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서까래 간격	367	307	313	305	327	334	300	335	279	301	68



구 분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부연 간격	580	415	410	411	334	381	373	391	332	287	59

‘가’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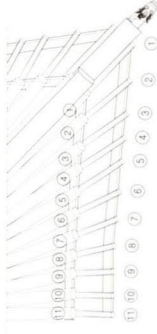
구 분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서까래 간격	92	324	307	320	293	292	272	291	279	290	275	90



구 분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부연 간격	460	291	309	325	245	303	293	270	289	307

‘다’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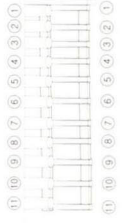
구 분	98	283	280	283	292	328	314	339	320	408	392	2-1
서까래 간격												



구 분	20	280	350	366	379	400	425	345	353	477	499	2-1
부연 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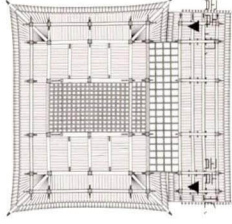
‘나’ 부분

구 분	105	292	319	278	285	310	301	287	280	243	235	78	2-1
서까래 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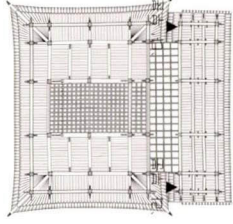


구 분	40	343	314	309	264	324	316	267	249	248	364	2-1
부연 간격												

‘라’ 부분



KEY-PLAN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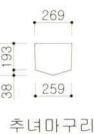
서까래 부연 간격 실측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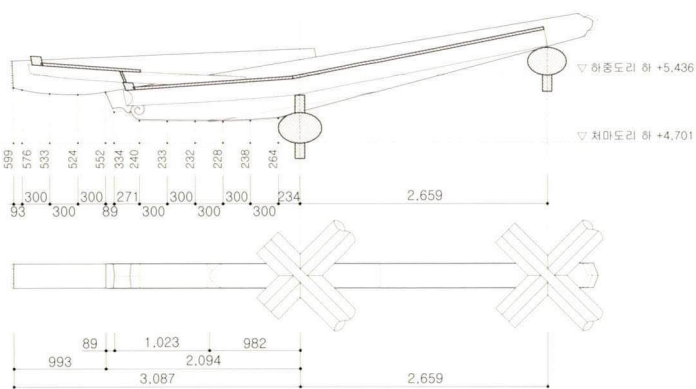
주 기
○ 서까래 부연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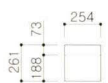
사래마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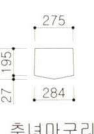
추녀마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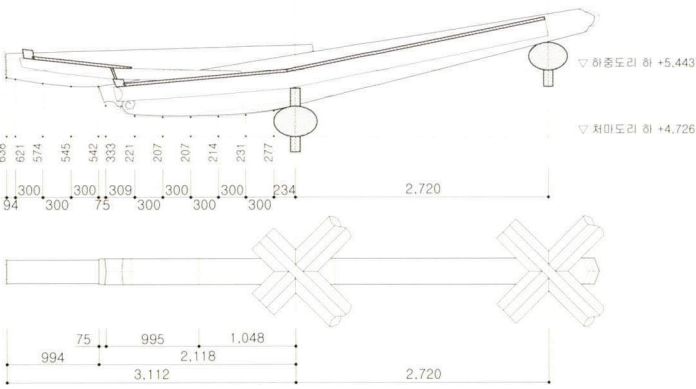
KEY-PLAN



사래마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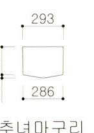
추녀마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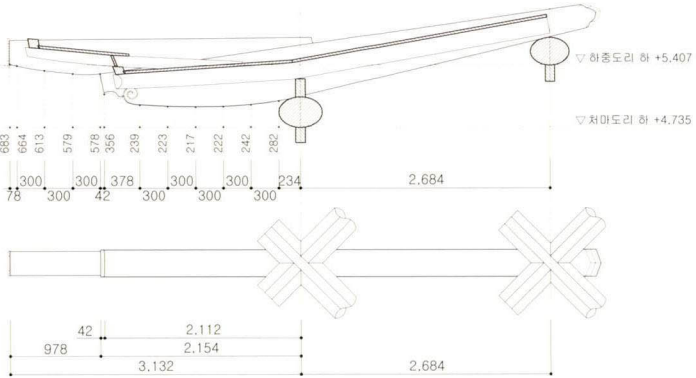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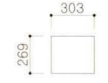
사래마구리



추녀마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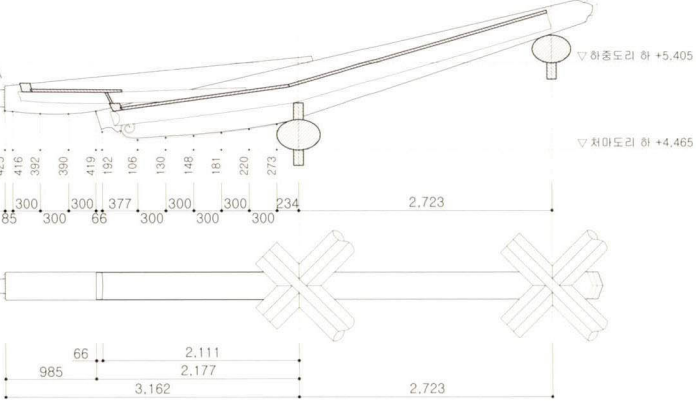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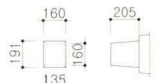
사래마구리



추녀마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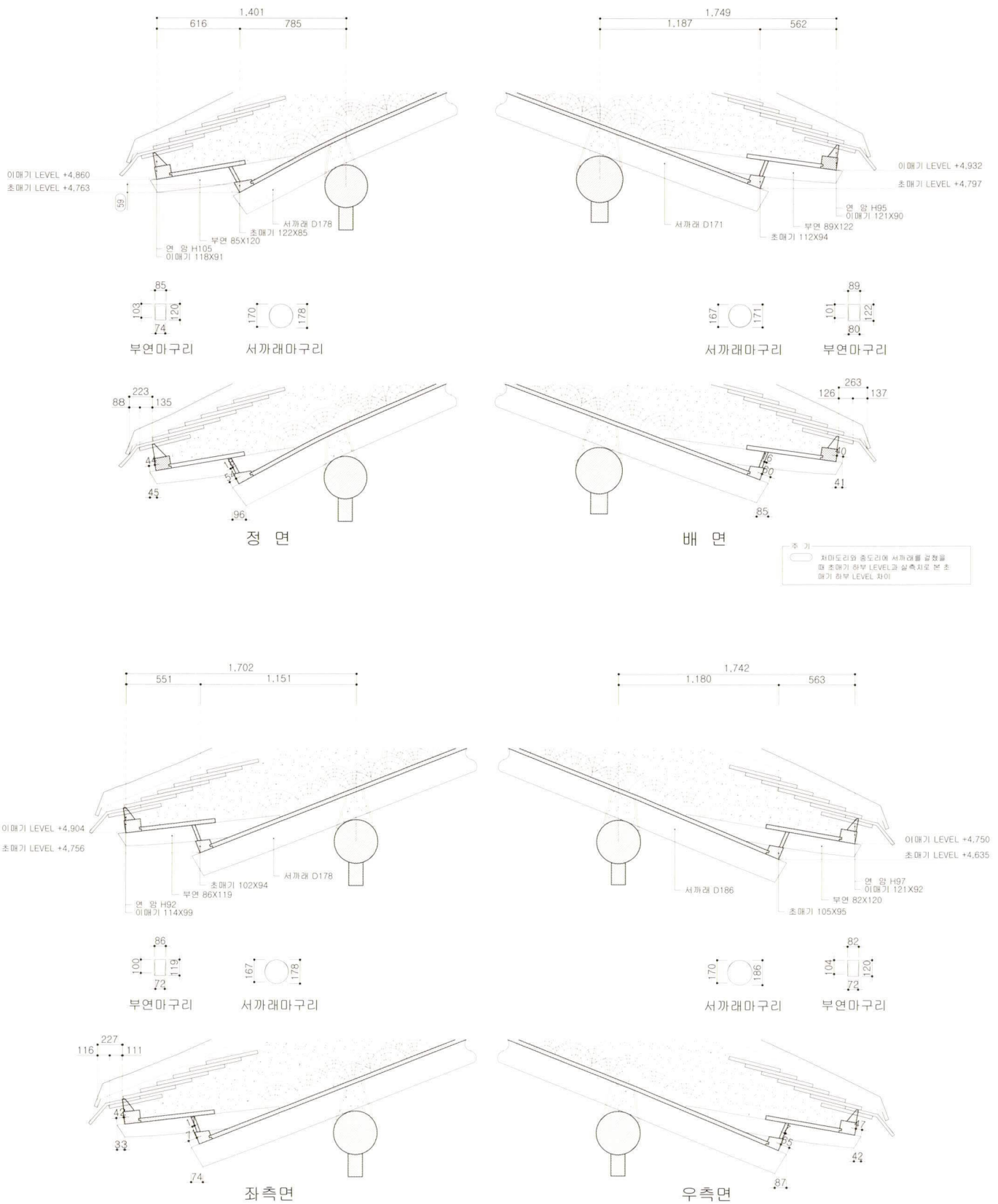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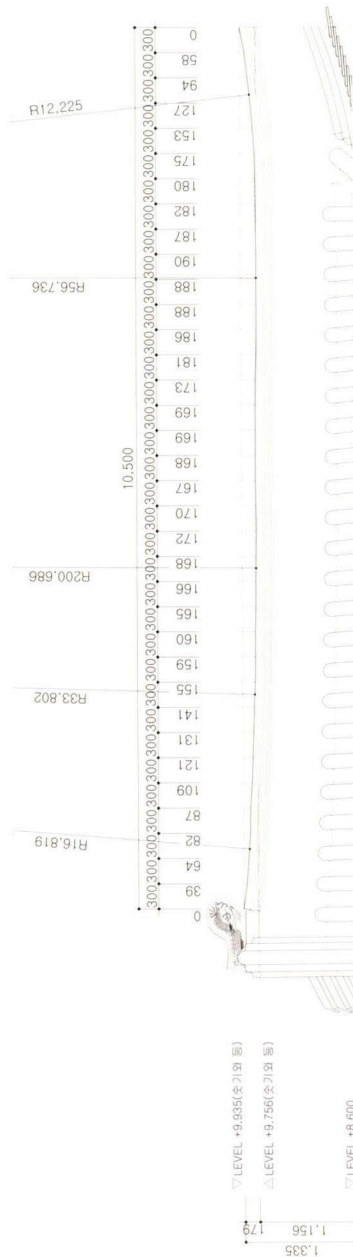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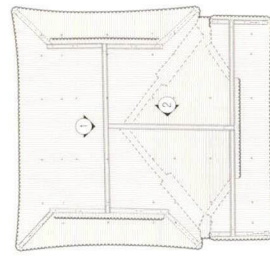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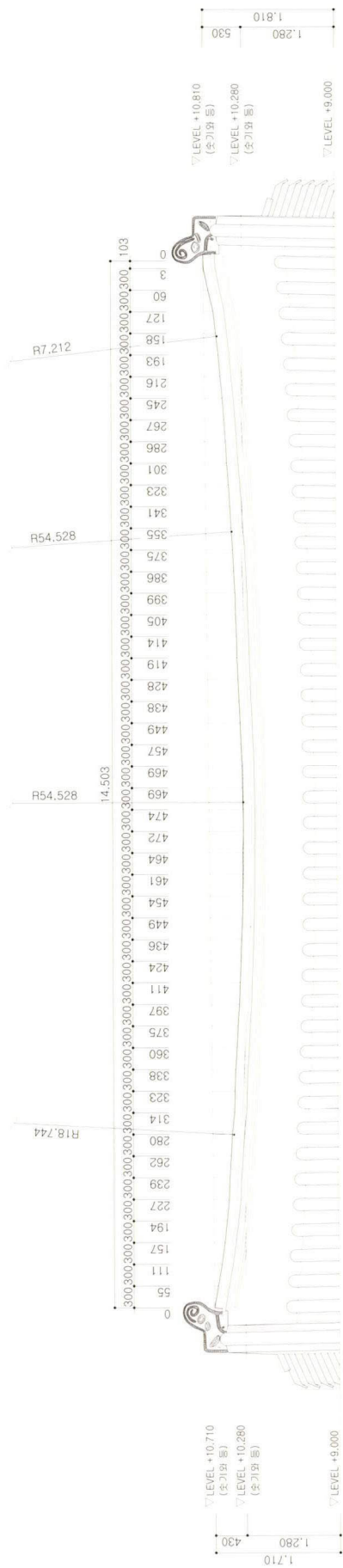


'A' 부분 상세도

추녀·사래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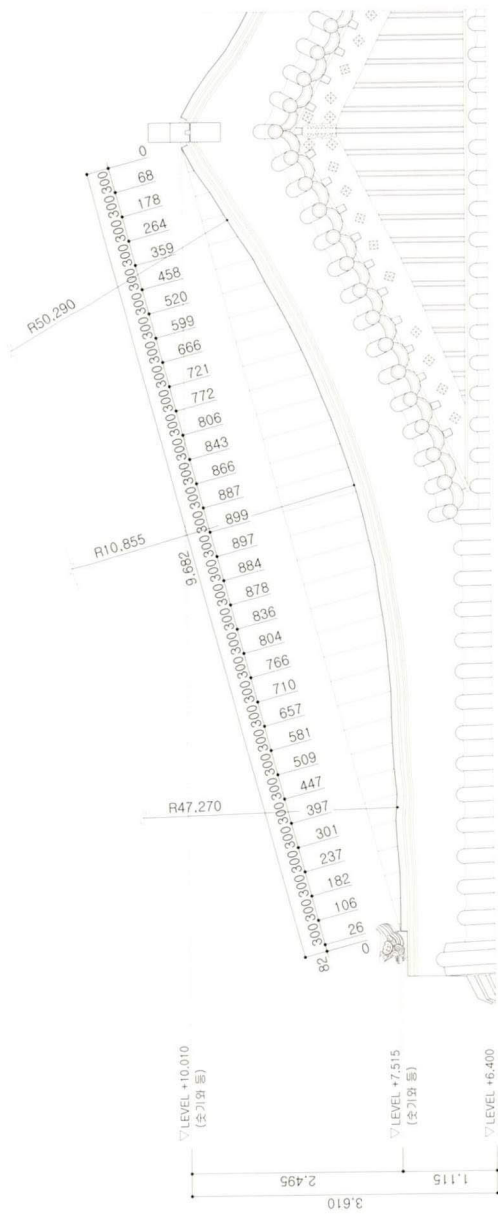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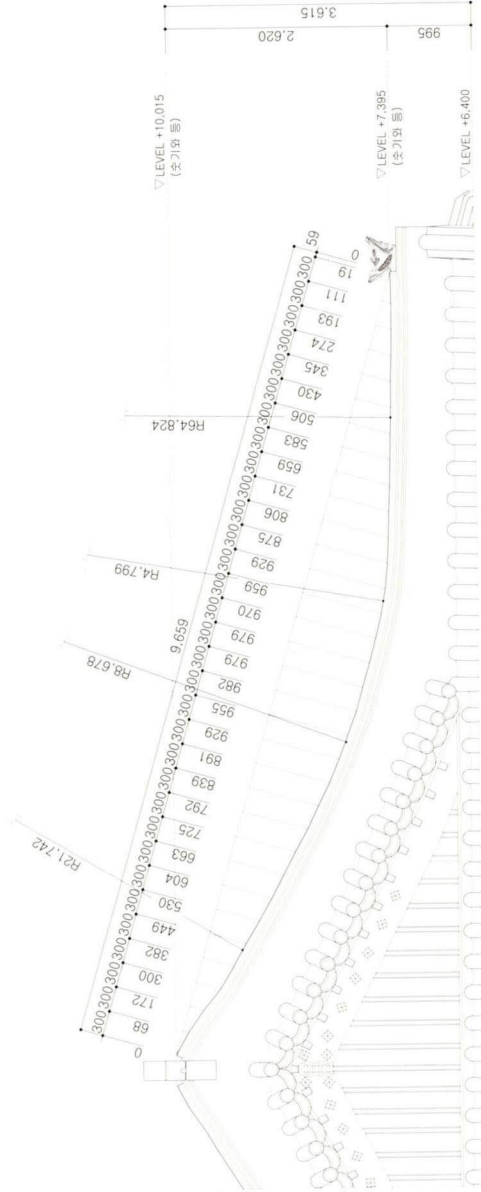
주 기
이 부속의 실측치는 양정상부에 놓인 수기외 등의
양물건을 잇는 가선선에서 수기외들까지의 수직
거리이다.



지붕마루 곡선도 (1)



3번 용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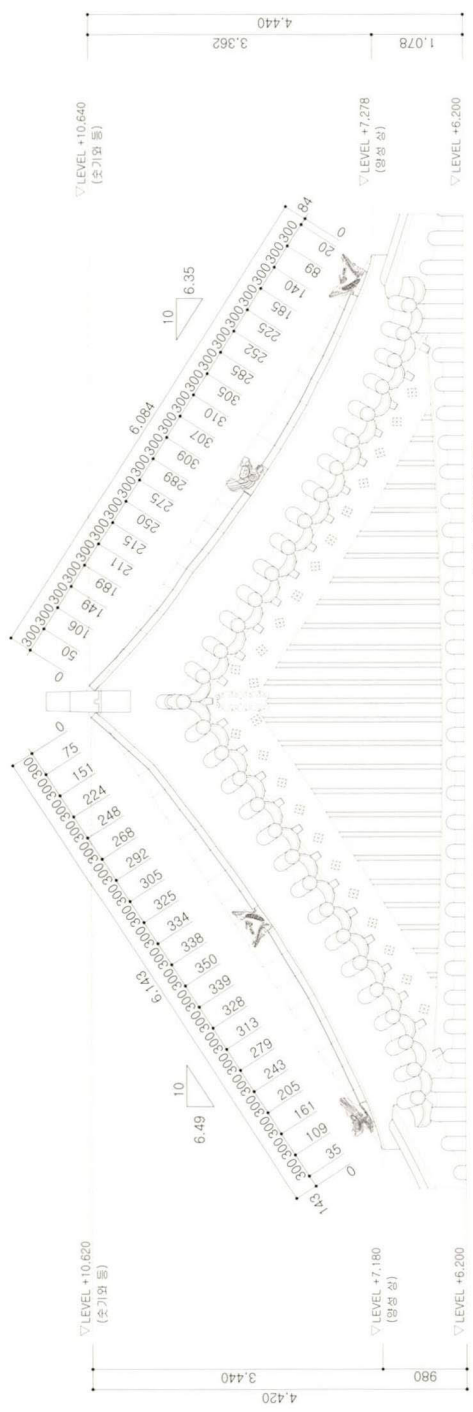


4번 용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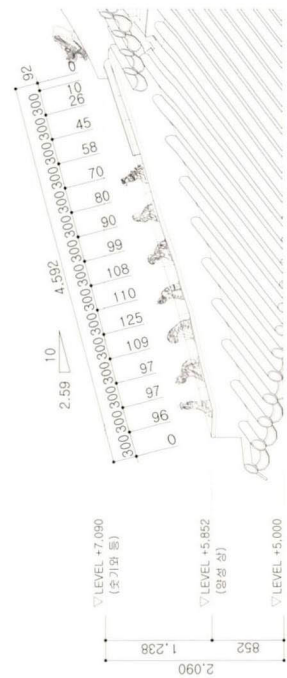
주 기
미루국의 설계치는 임성상부에 놓인 수기여들의
왕관단을 잇는 가성선에서 수기여들까지의 수직
거리이다.

지붕마루 곡선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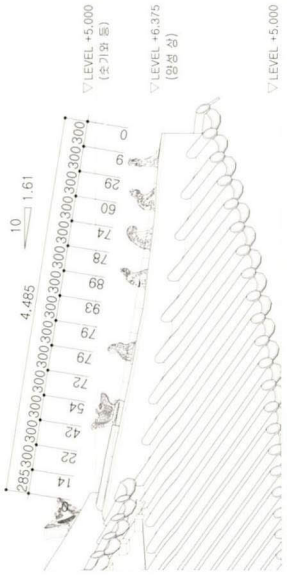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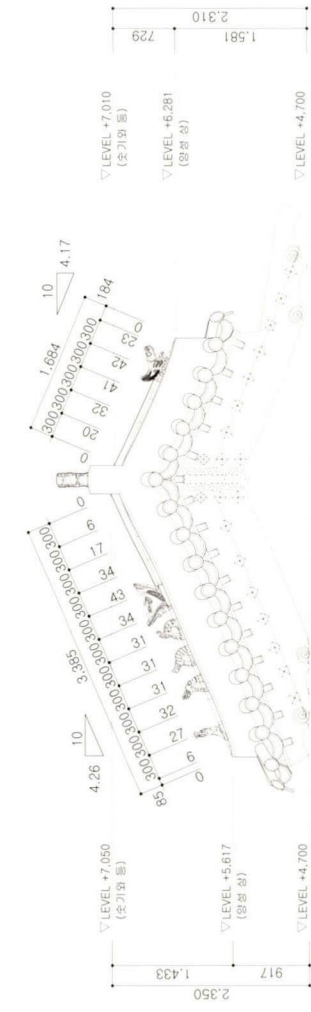
5번 내림마루



6번 내림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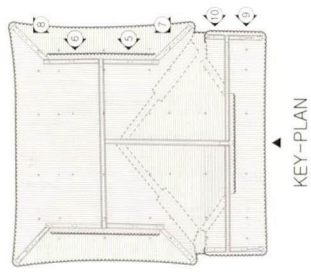
7번 추녀마루



8번 추녀마루



9번 내림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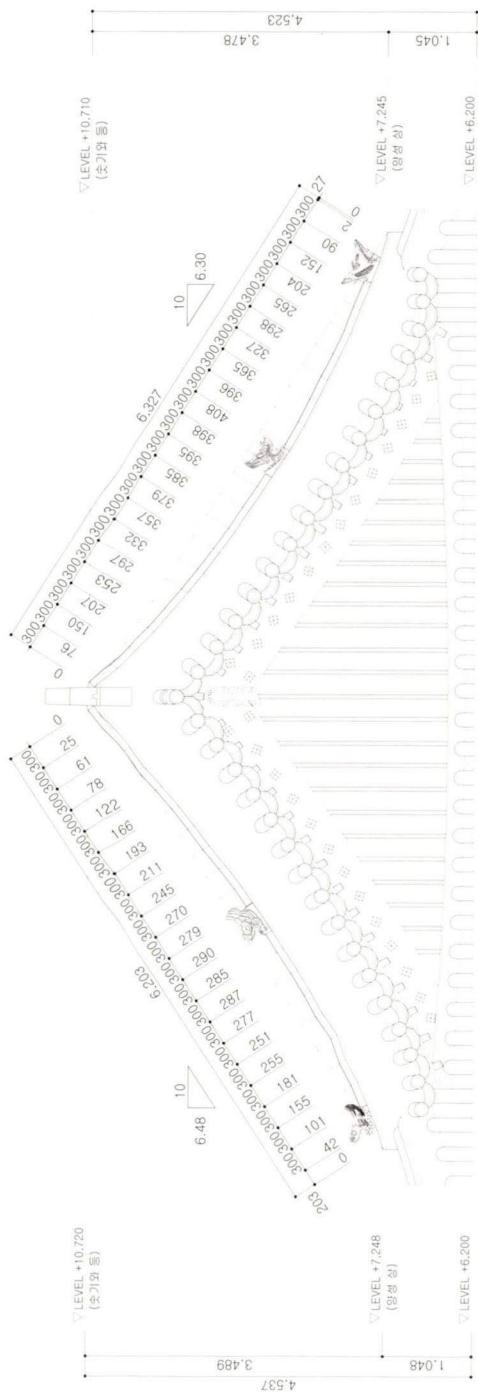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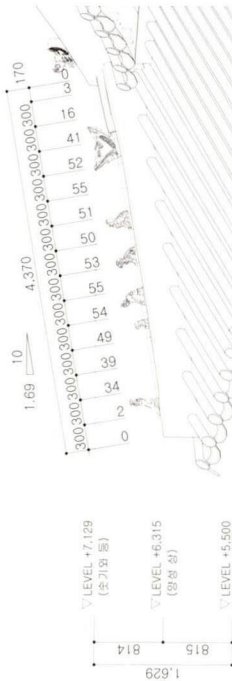


지붕마루 곡선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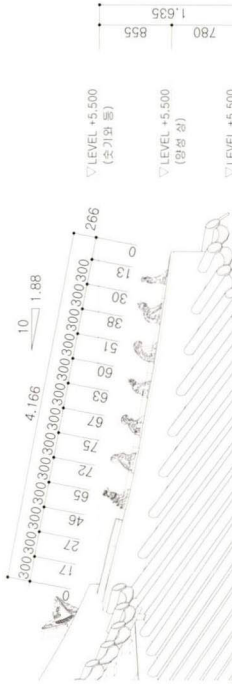
주 기
마루의 선속치는 양성상부 문서리의 양과단을
있는 가장자리에서 양성상부까지의 수직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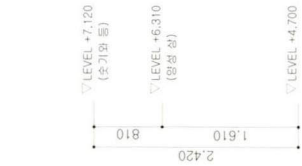
11번 내림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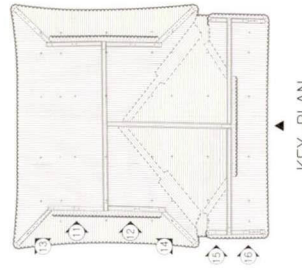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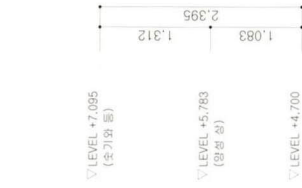
12번 내림마루



13번 추녀마루



14번 추녀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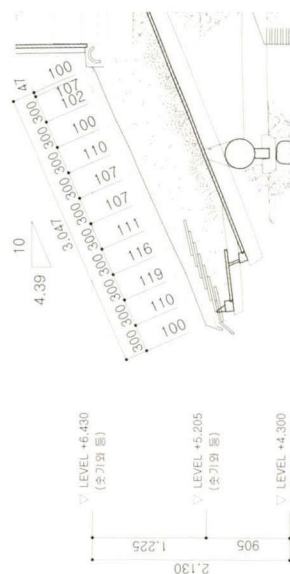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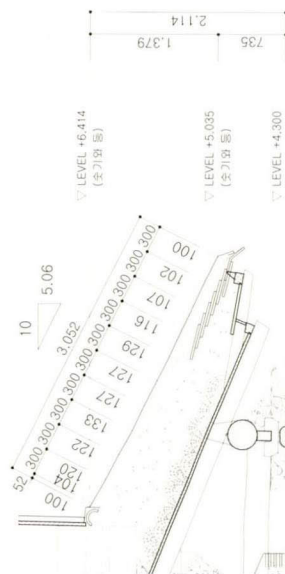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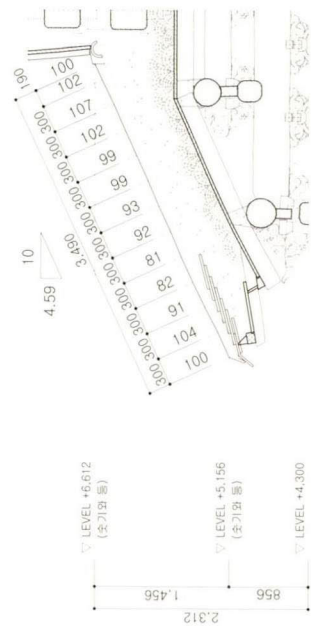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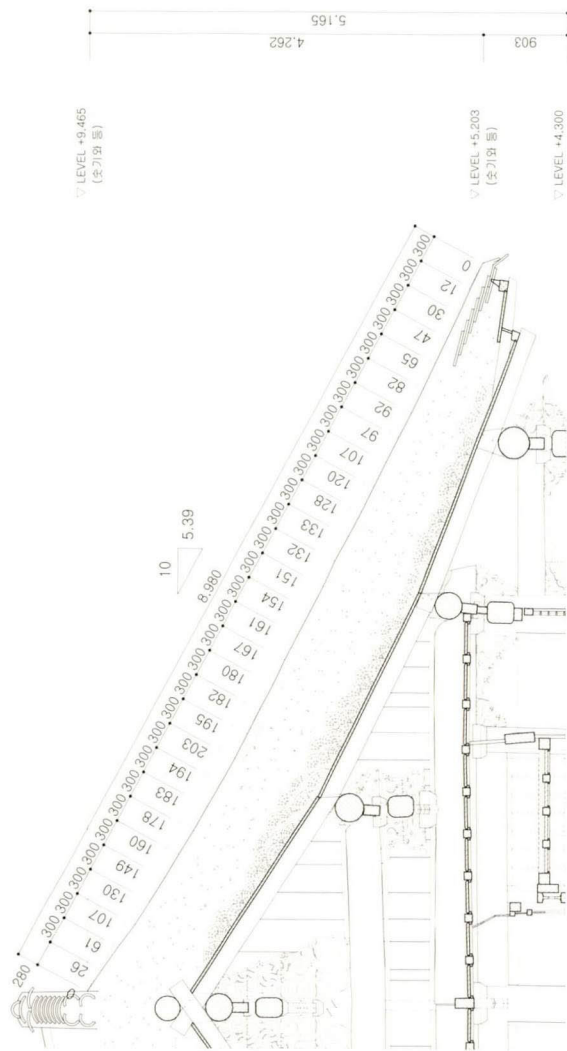


16번 내림마루

주 기
미루리의 실측치는 행정상부 문서리의 양끝단을
잇는 가장선에서 행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이다.

지붕마루 곡선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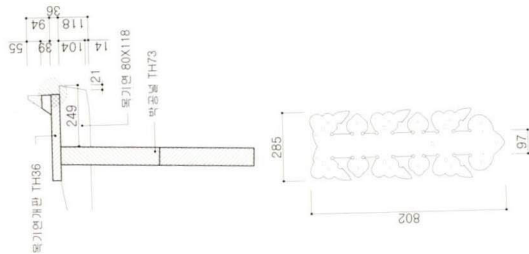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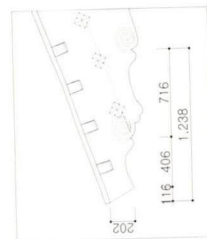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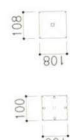
주 기
기외벽은 수기와등의 양끝단을 잇는 가상선에서
수기와 등까지의 수직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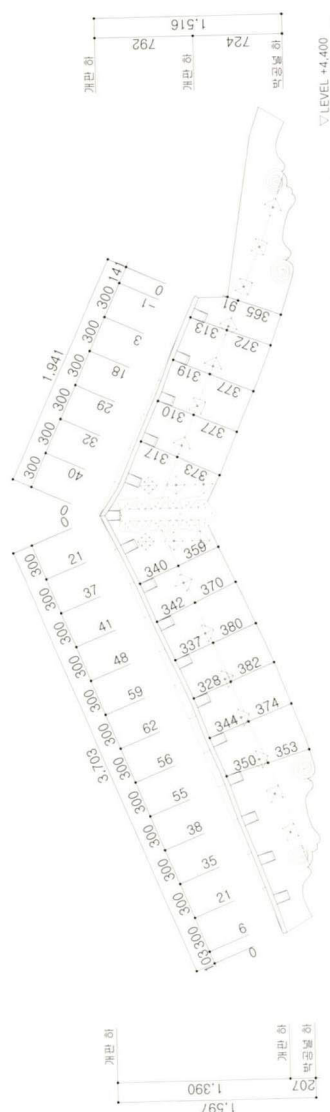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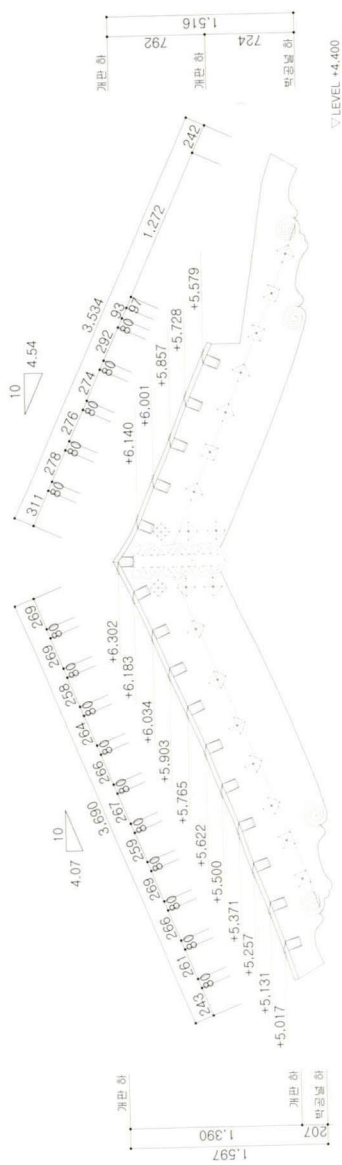
지붕기와 곡선도



나
타
라
고
하
는
것
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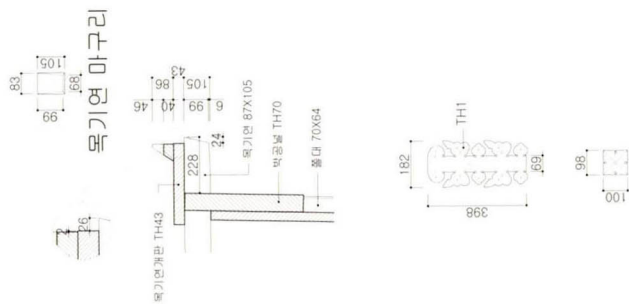
복합계통상세도



나
세
초
파
터
하
름
키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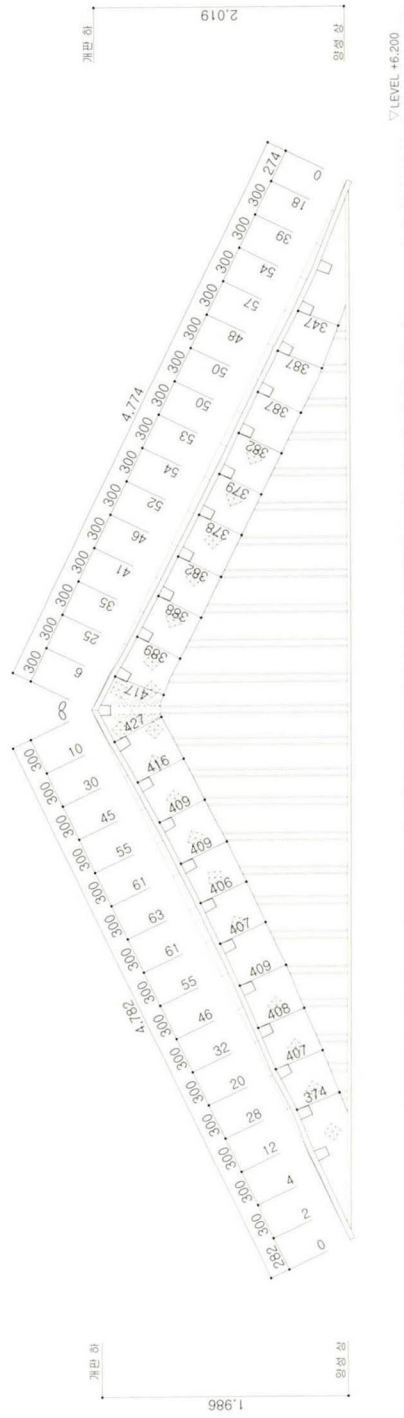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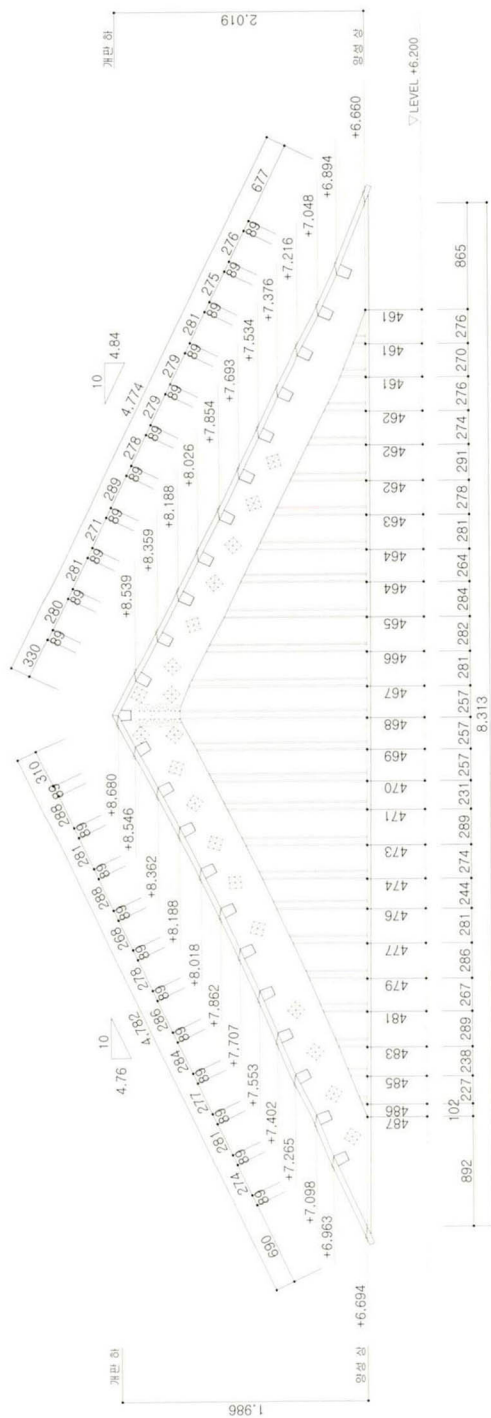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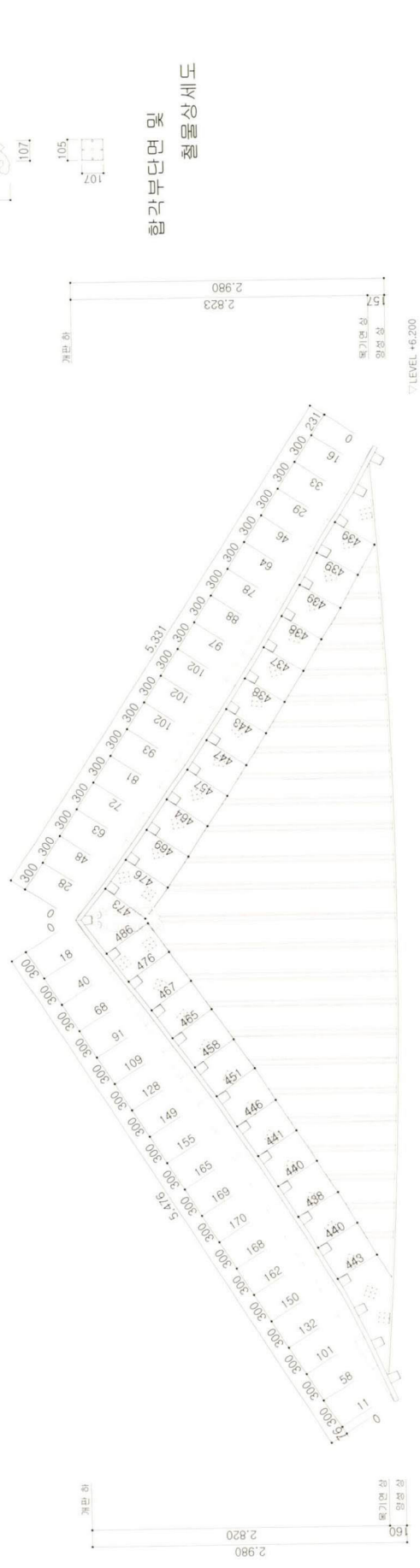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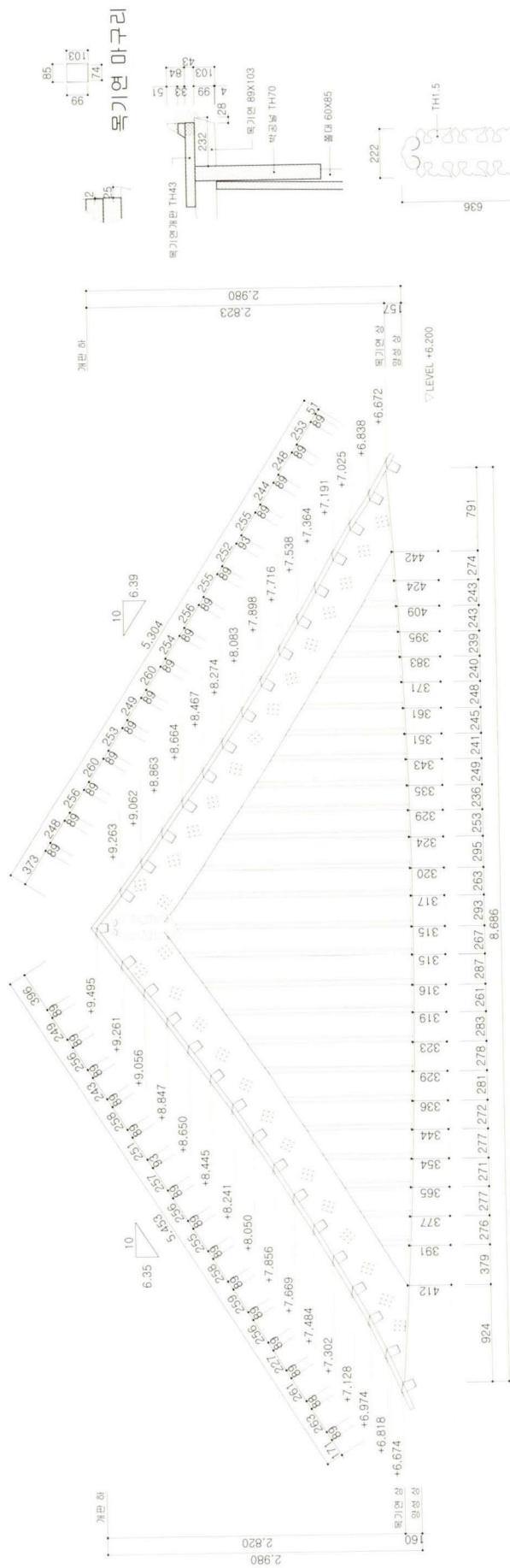


합각부단면 및
철물상세도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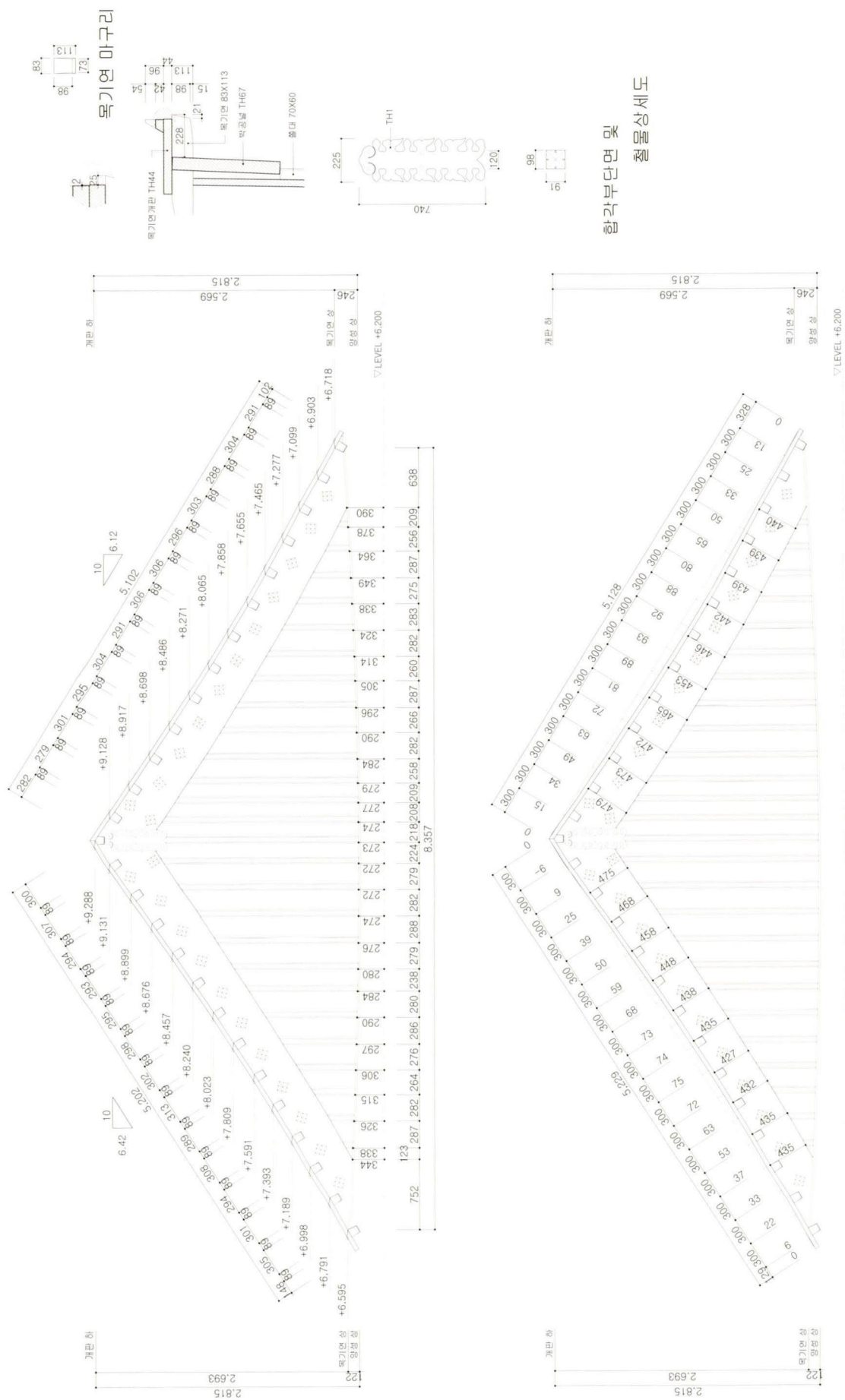


정면 합각부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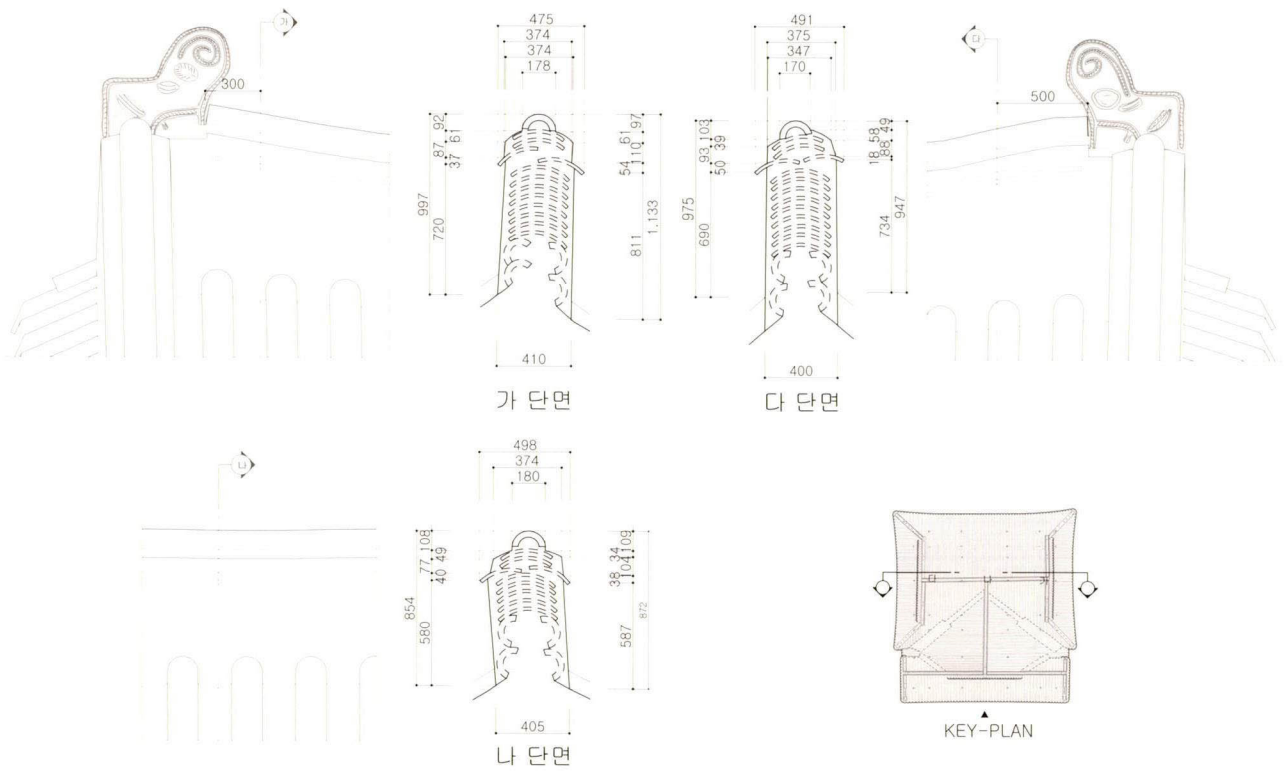
좌측면 합각부 상세도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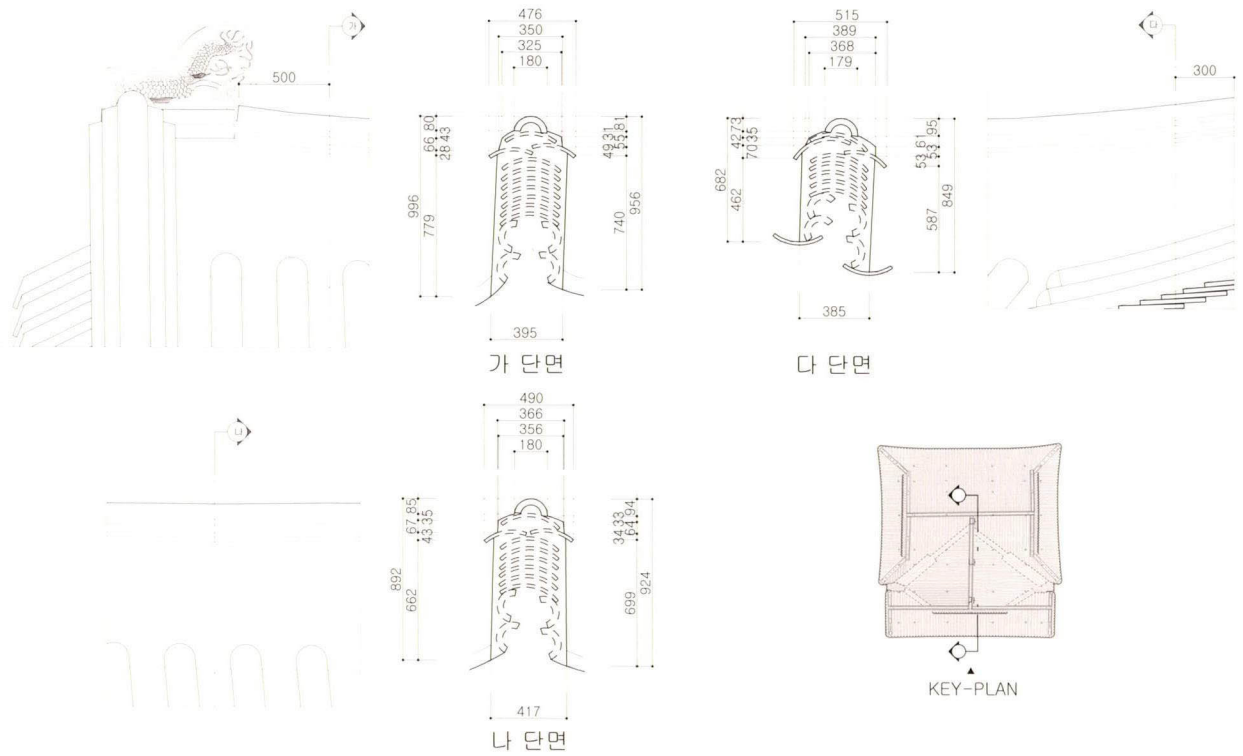


너세와
마함
함
함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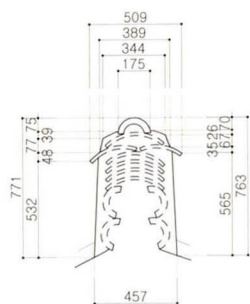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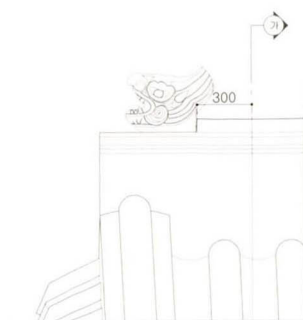


지붕마루 단면 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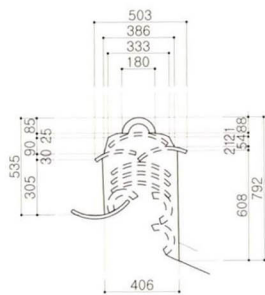


지붕마루 단면 상세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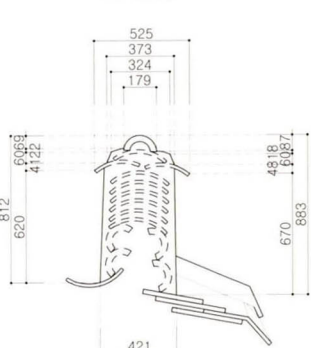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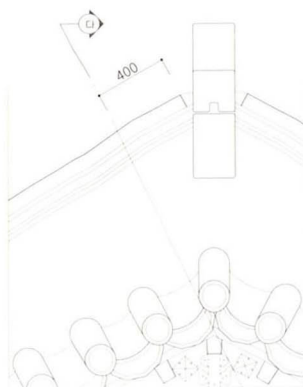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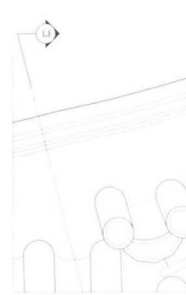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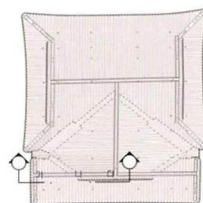
가 단면



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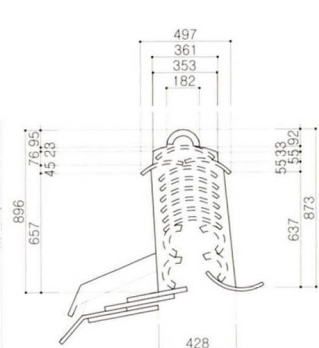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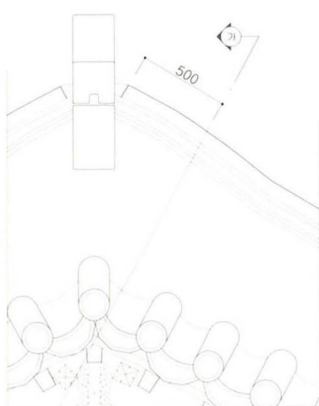


다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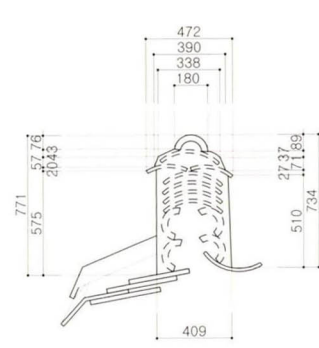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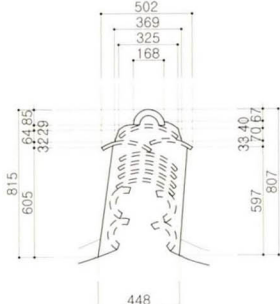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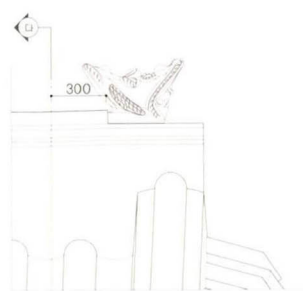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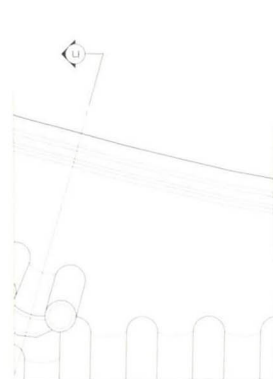
지붕마루 단면 상세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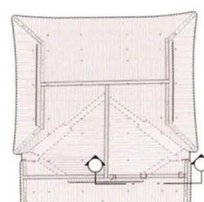
가 단면



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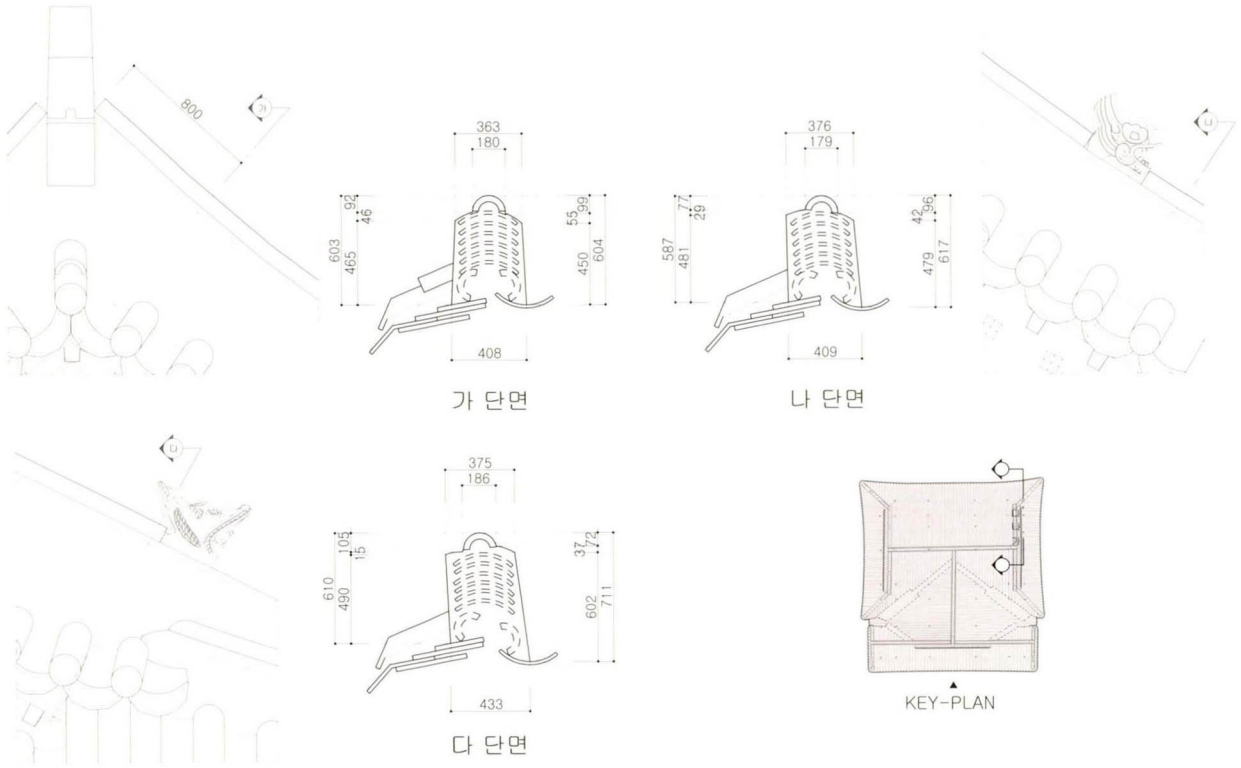
다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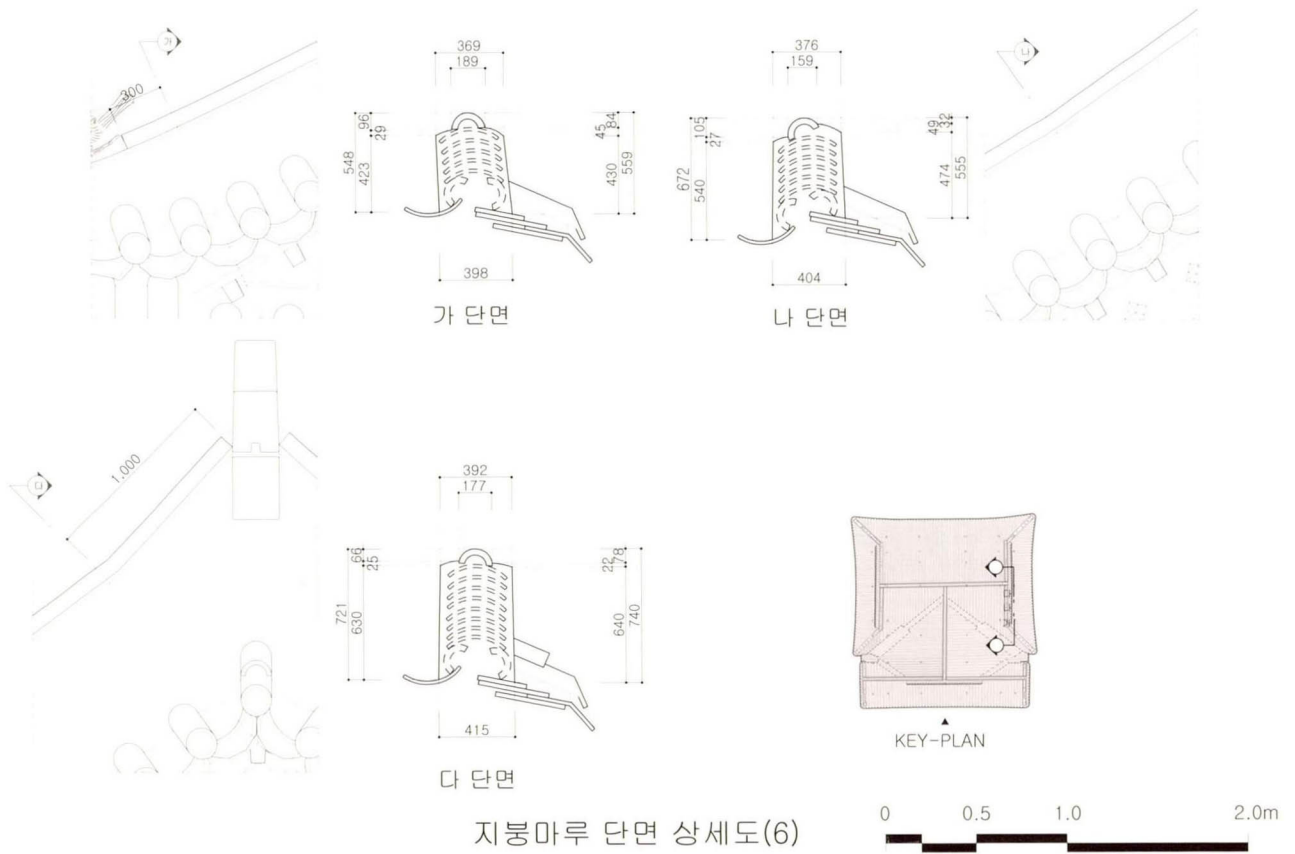
KEY-PLAN

지붕마루 단면 상세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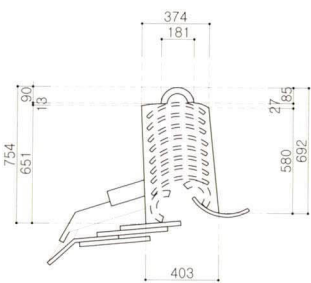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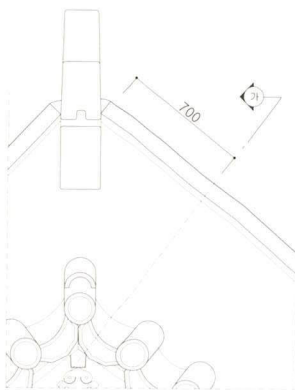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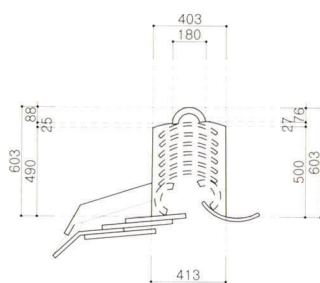
지붕마루 단면 상세도(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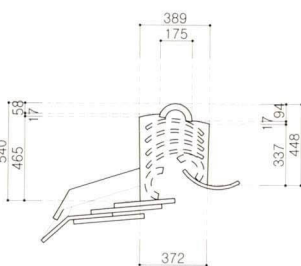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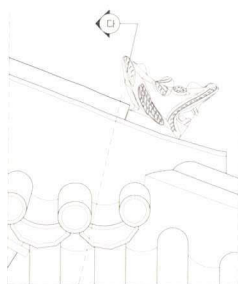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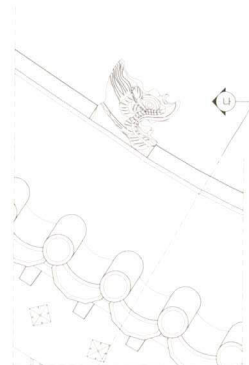
지붕마루 단면 상세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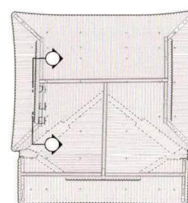
가 단면



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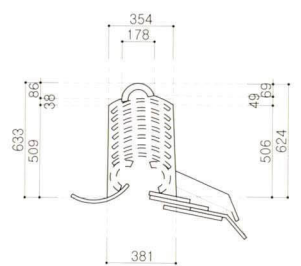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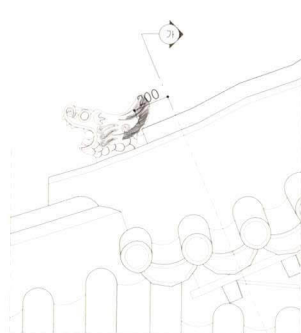


다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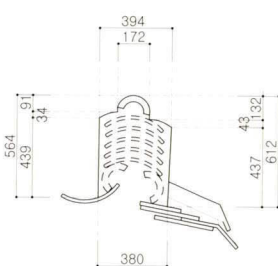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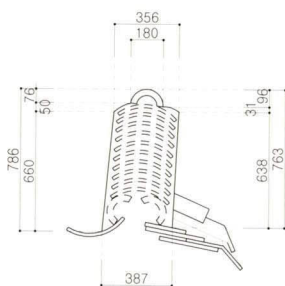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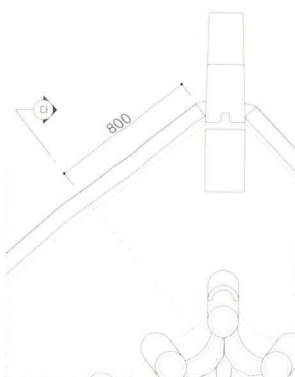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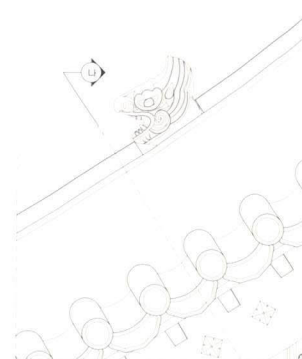
지붕마루 단면 상세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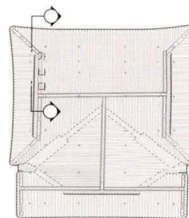
가 단면



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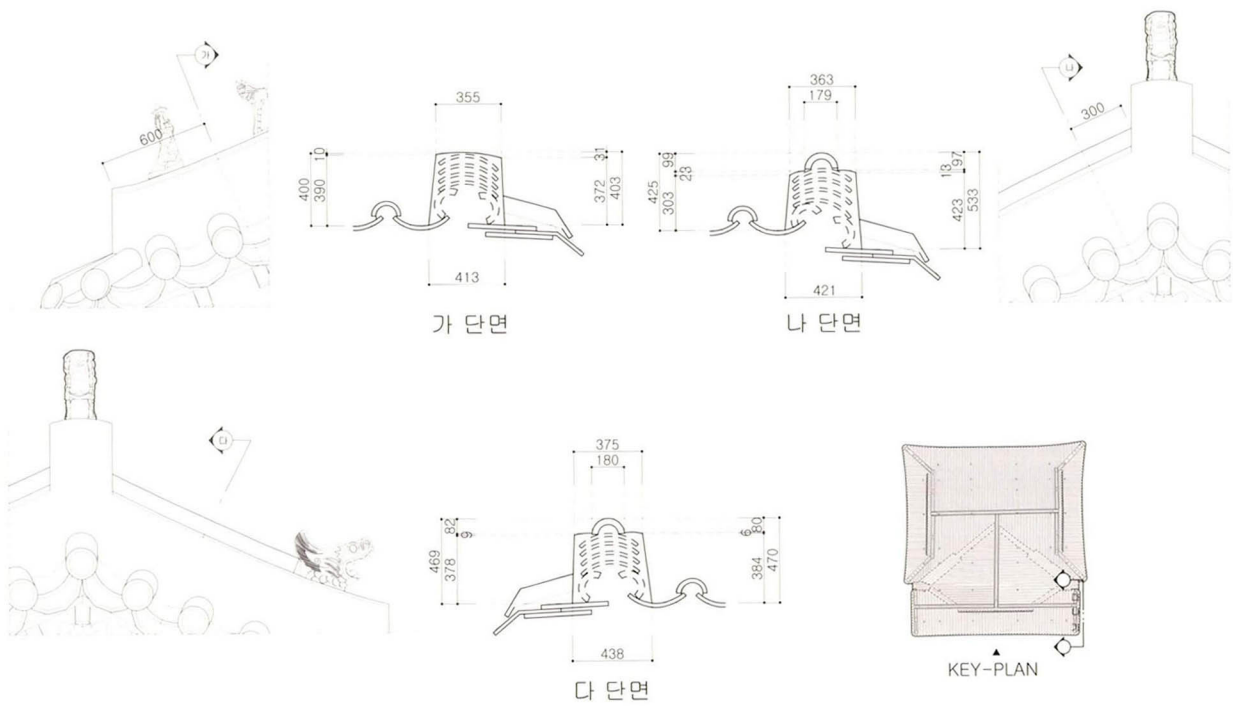
다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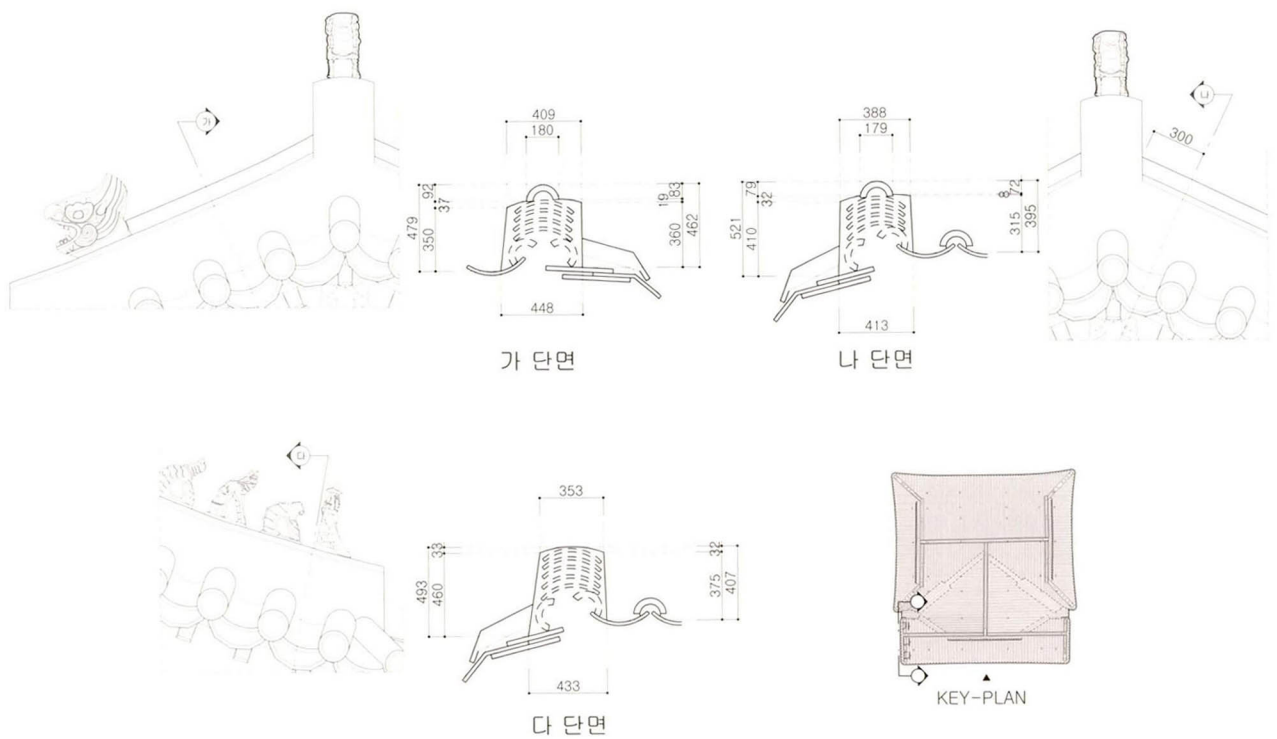
KEY-PLAN

지붕마루 단면 상세도(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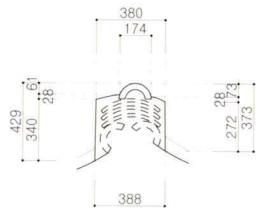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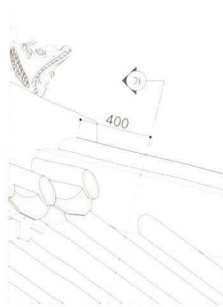


지붕마루 단면 상세도(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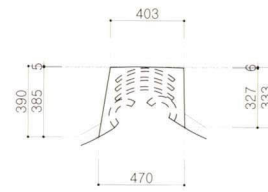


지붕마루 단면 상세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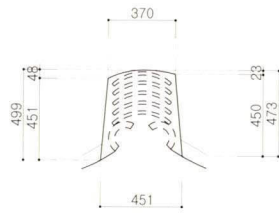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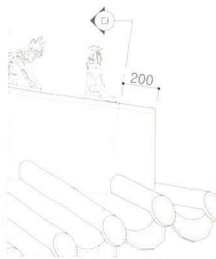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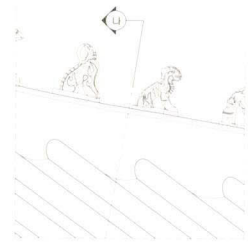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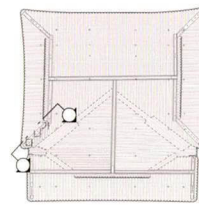
가 단면



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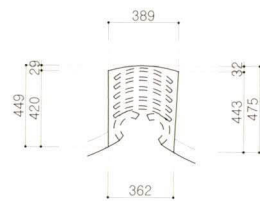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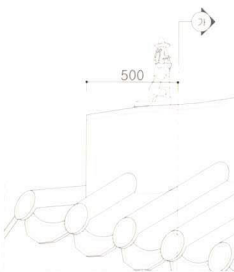


다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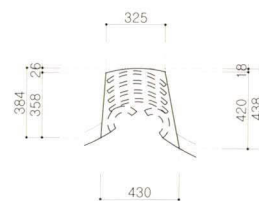


KE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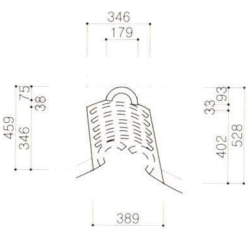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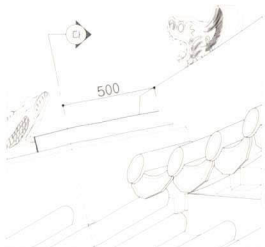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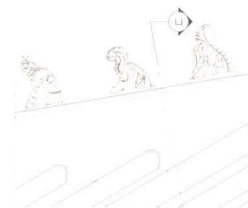
지붕마루 단면 상세도(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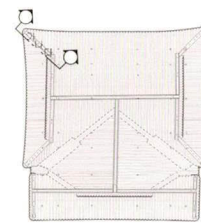
가 단면



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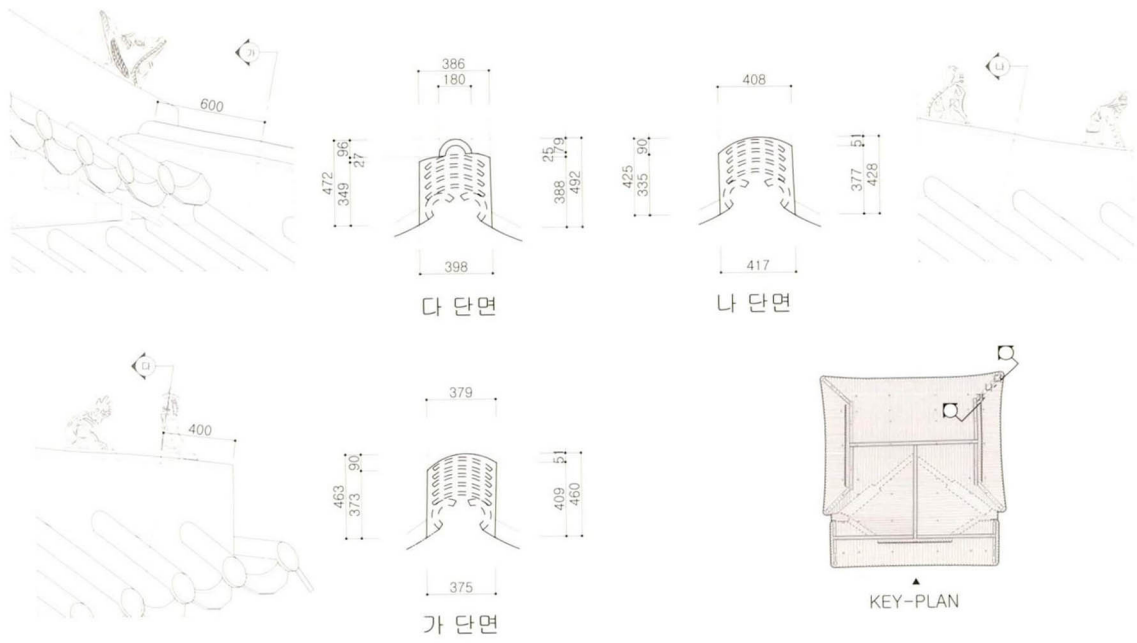
다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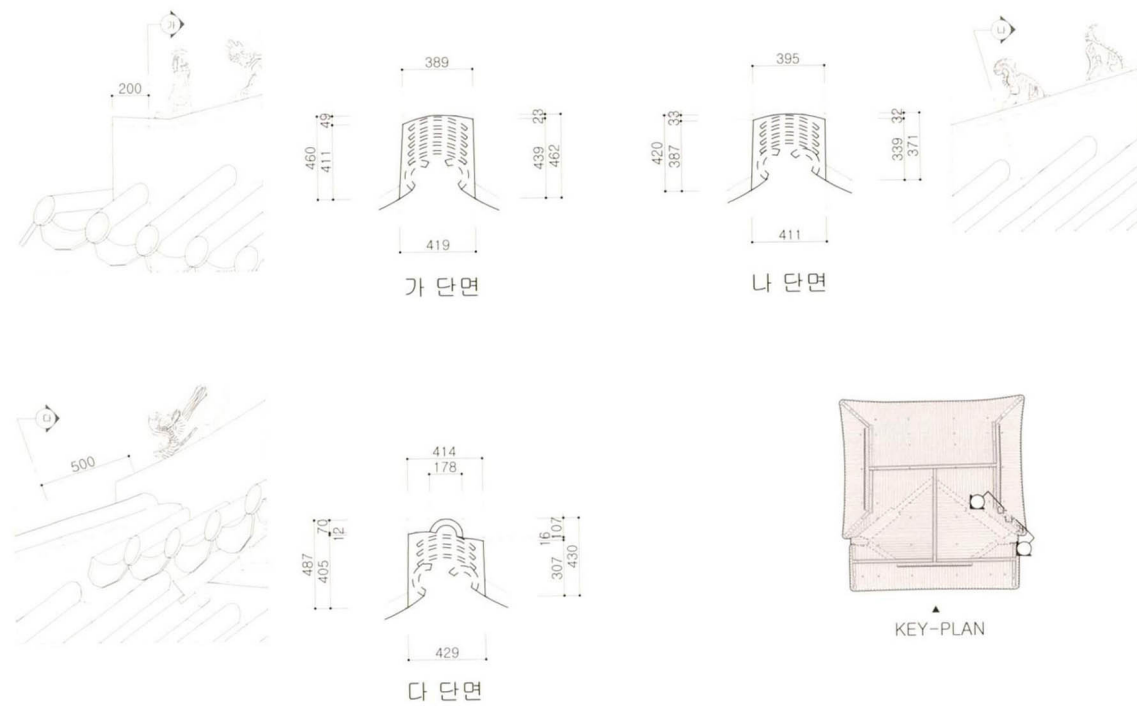
KEY-PLAN

지붕마루 단면 상세도(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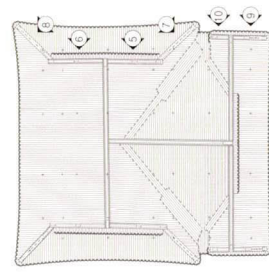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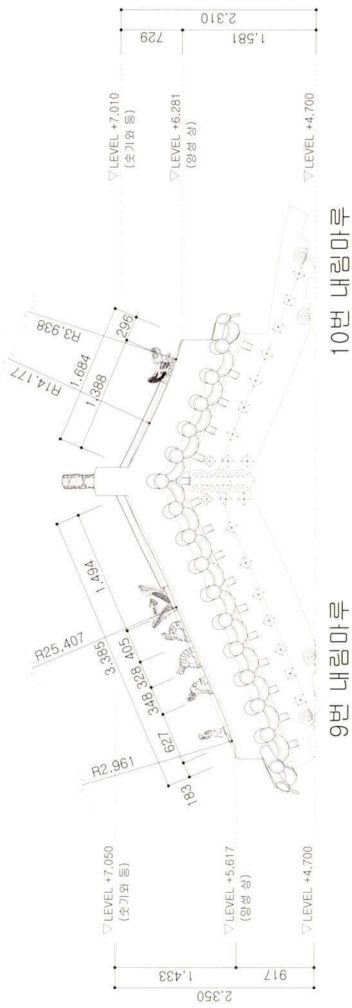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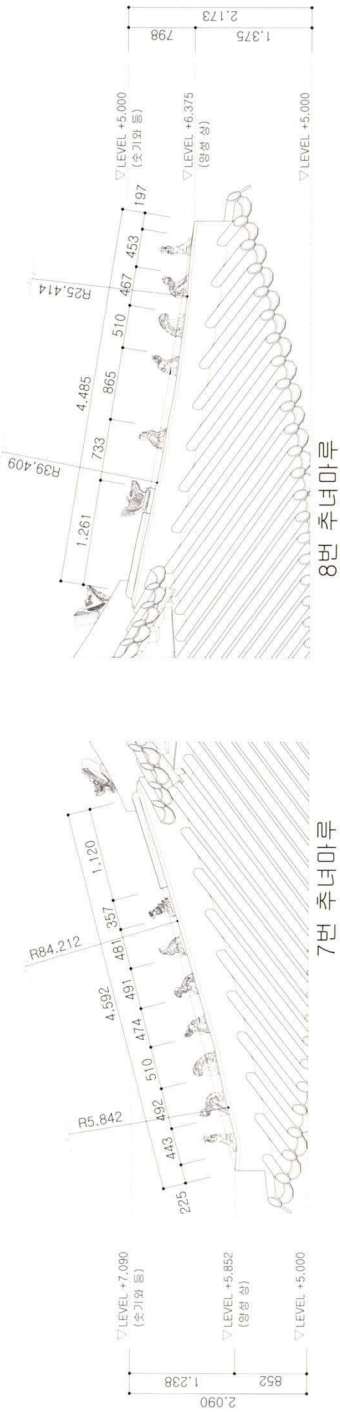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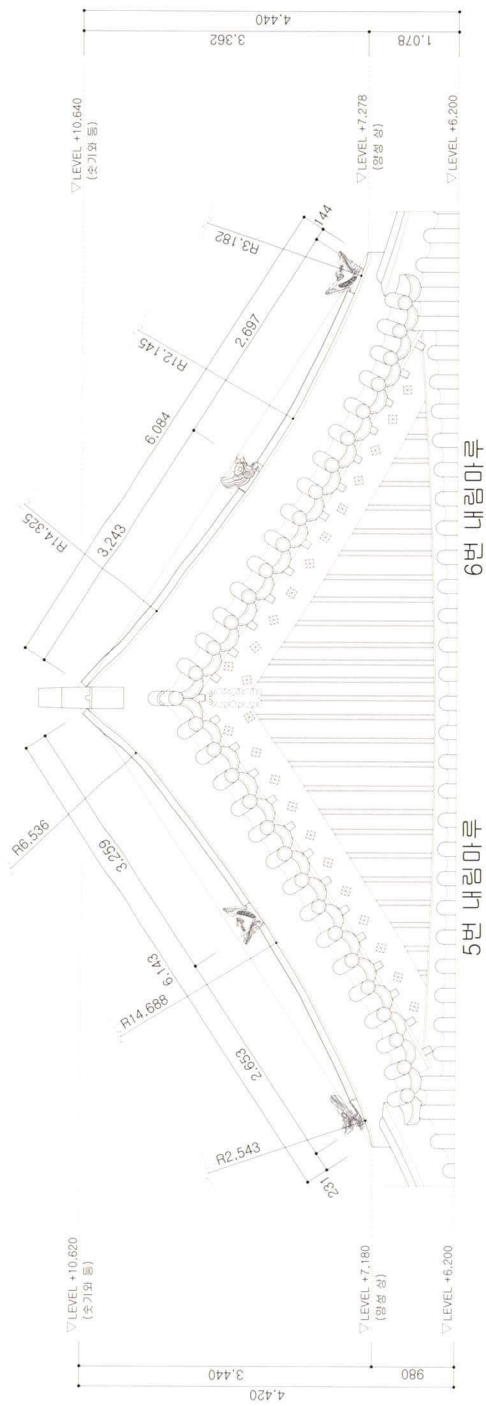


지붕마루 단면 상세도(13)



지붕마루 단면 상세도(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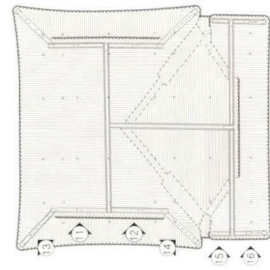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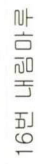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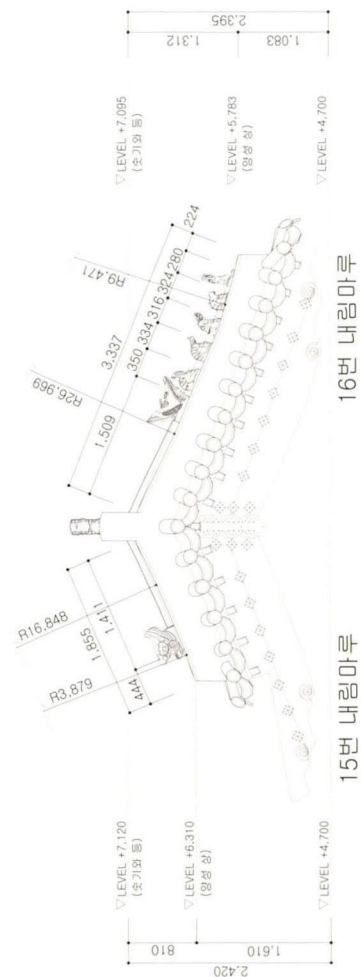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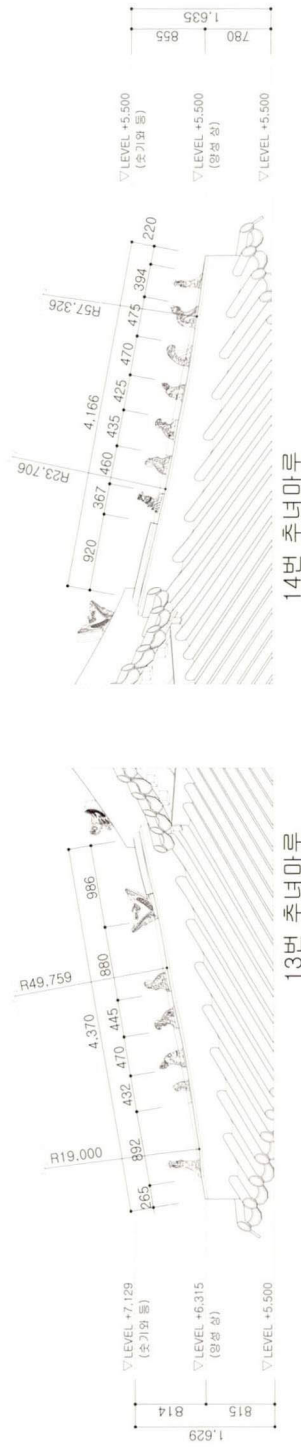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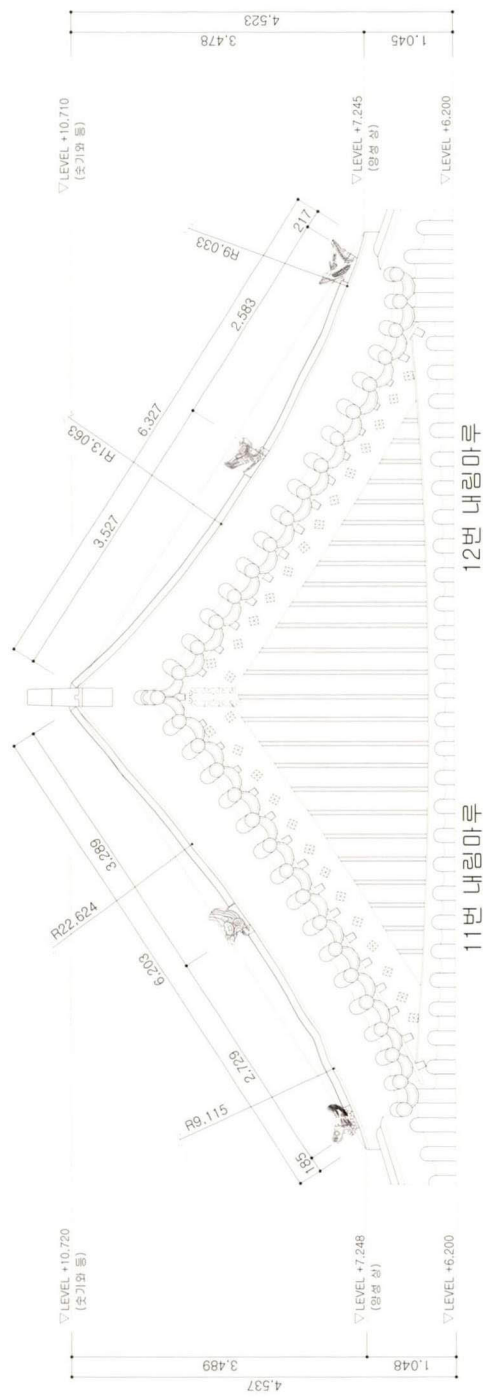
KEY-PLAN

0 1.0 2.0 4.0m

10번 내림마루

9번 내림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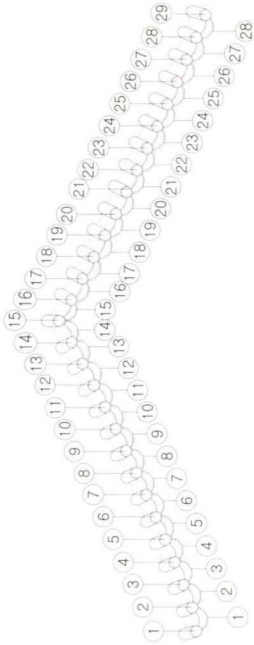
영두·장상 위치 실측도 (1)



0 1.0 2.0 4.0m

(2) 나·키·리·아·강·장·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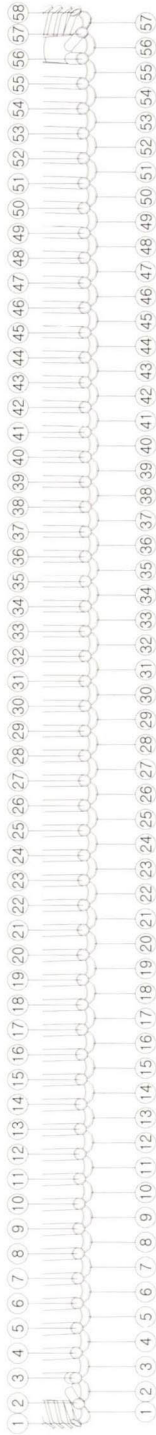
막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문양종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내림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문양종류	C	C	C	B	B	C	B	C	C	C	C	C	B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정면 합각부

막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문양종류	파손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막새번호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파손	파손
문양종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내림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문양종류	파손	B	B	C	C	C	C	C	C	C	C	C	C	B	C	C	C	C	C	C	C	B	B	B	B	C	C	C	C	C
내림새번호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문양종류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B	B	파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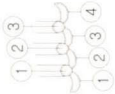
정면 처마부

막새문양	가	나	다	라	내림새문양	A	B	C	D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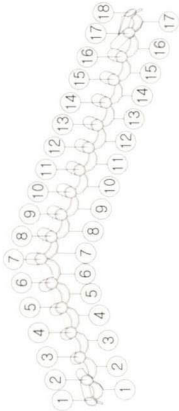
기와문양조사도 (1)



막새번호	1	2	3
문양종류	가	가	가



막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문양종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파손	가	가	가	파손	파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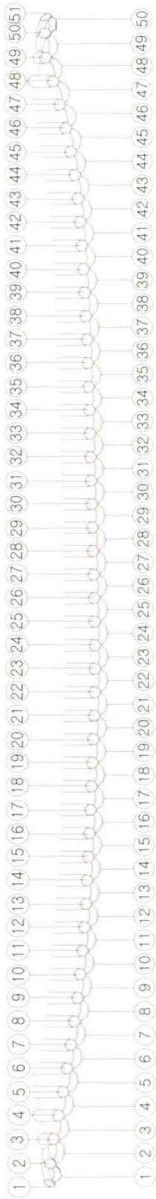
내림새번호	1	2	3	4
문양종류	C	C	C	C

내림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문양종류	C	C	B	B	B	B	B	B	B	B	B	B	B	B	B	파손	파손

좌측 회청부

막새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문양종류	라	다	가	다	다	다	다	다	가	가	다	다	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다	다	다

막새번호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문양종류	다	다	다	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내림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문양종류	A	D	D	D	D	D	D	D	D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내림새번호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문양종류	C	C	C	C	C	C	C	C	C	C	C	D	D	D	D	D	D	D	C	C	C	C	C	C	C

좌측 처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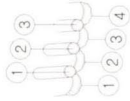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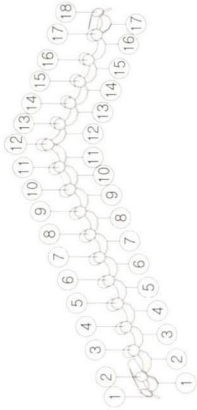
막새문양					
내림새문양					



기와문양조사도 (2)

막새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문양종류	파손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막새번호	①	②	③
문양종류	가	가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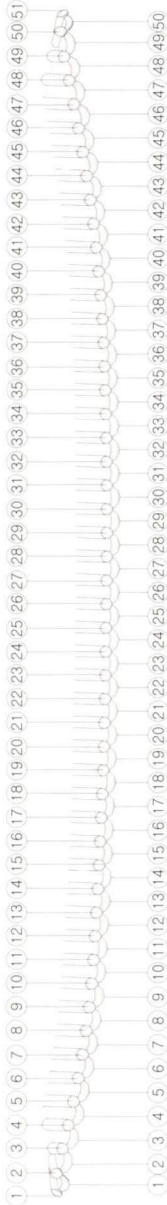


내림새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문양종류	파손	B	C	C	B	B	C	C	B	C	C	C	C	B	C	B	B

내림새번호	①	②	③	④
문양종류	B	B	C	C

우측 바깥부

막새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문양종류	나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가	다	다	다	가	가	가	라
막새번호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다
문양종류	라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가	가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내림새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문양종류	B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파손	D	C	C	C	D	B	C	C	C
내림새번호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문양종류	C	C	C	C	C	C	C	C	파손	C	C	C	C	D	파손	C	C	C	C	C	C	C	C	C	C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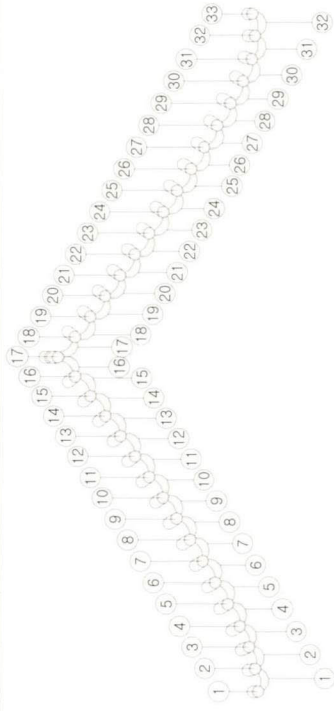
우측 처마부

막새문양	가	나	다	라	내림새문양	A	B	C	D	E
막새문양					내림새문양					

기와문양조사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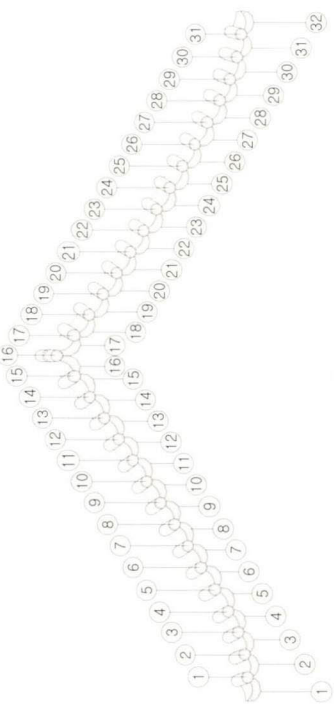
막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문양종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내림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문양종류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좌측합각부

막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문양종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파손	가	가	가	가	가	가	가	파손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내림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문양종류	B	E	E	C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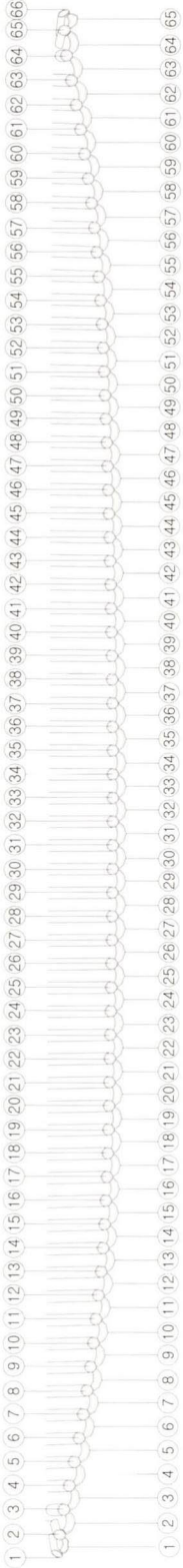
우측합각부

막새문양	가	나	다	라	내림새문양	A	B	C	D	E



기와문양조사도 (4)

막새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문양종류	나	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막새번호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문양종류	나	나	나	나	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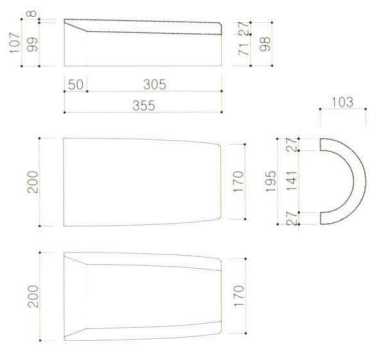
내림새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C	D	D	D	D	D	D	D	C	C	C	C	C	C	C	B	B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B	B	B	
내림새번호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B	B	C	C	C	C	C	C	C	C	B	B	B	B	B	B	B	B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A	A	

배면 처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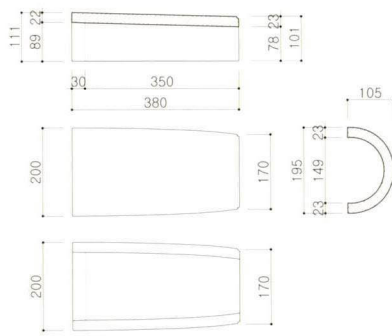
막새문양					
내림새문양	가	나	다	라	라

기와문양조사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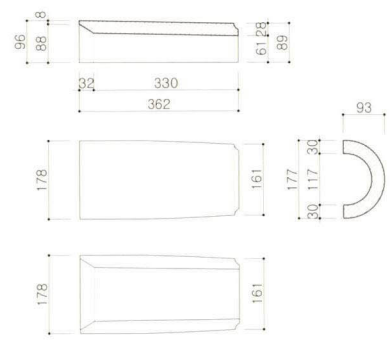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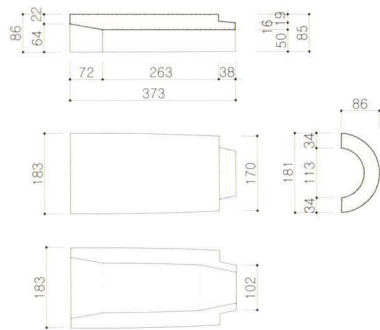
숫기와(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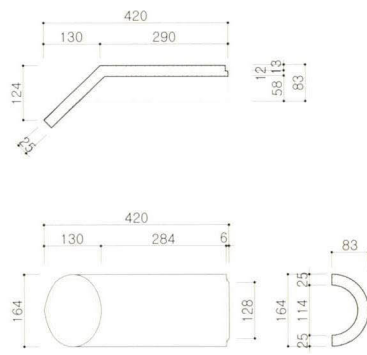
숫기와(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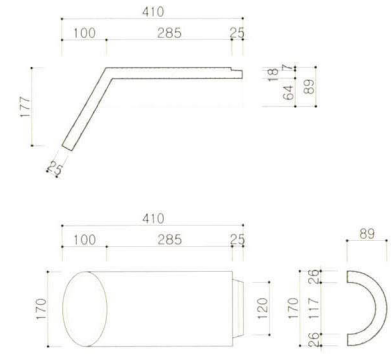
숫기와(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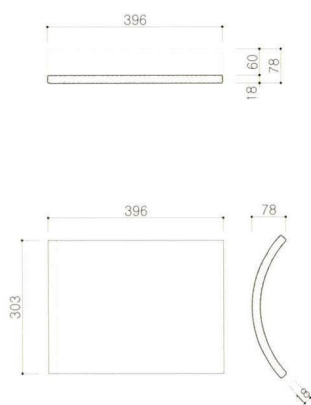
숫기와(신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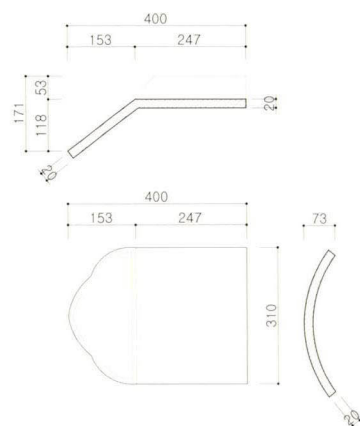
막새(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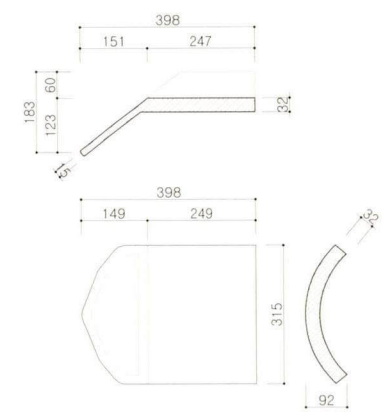
막새(신와)



암기와(신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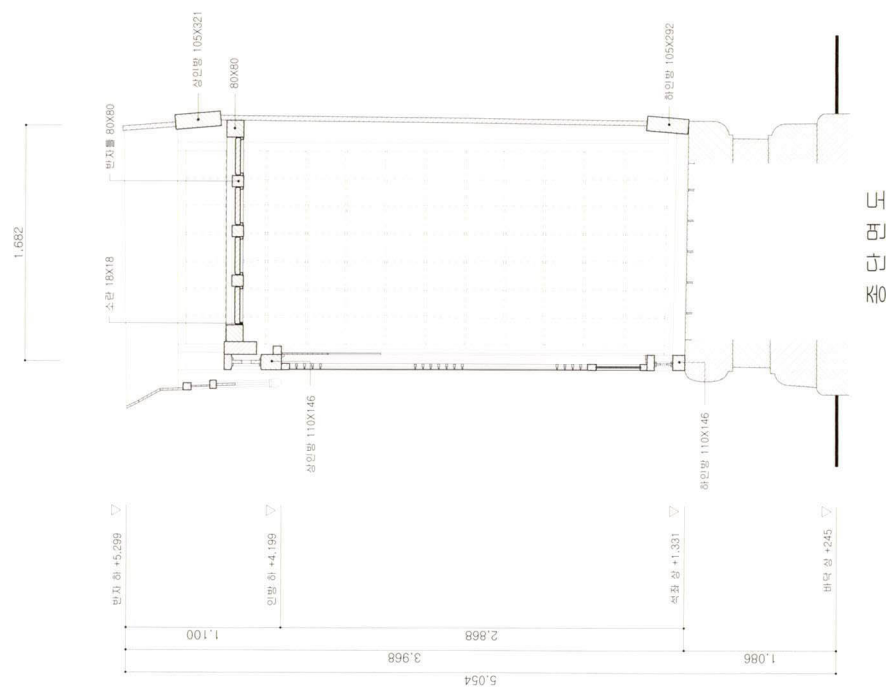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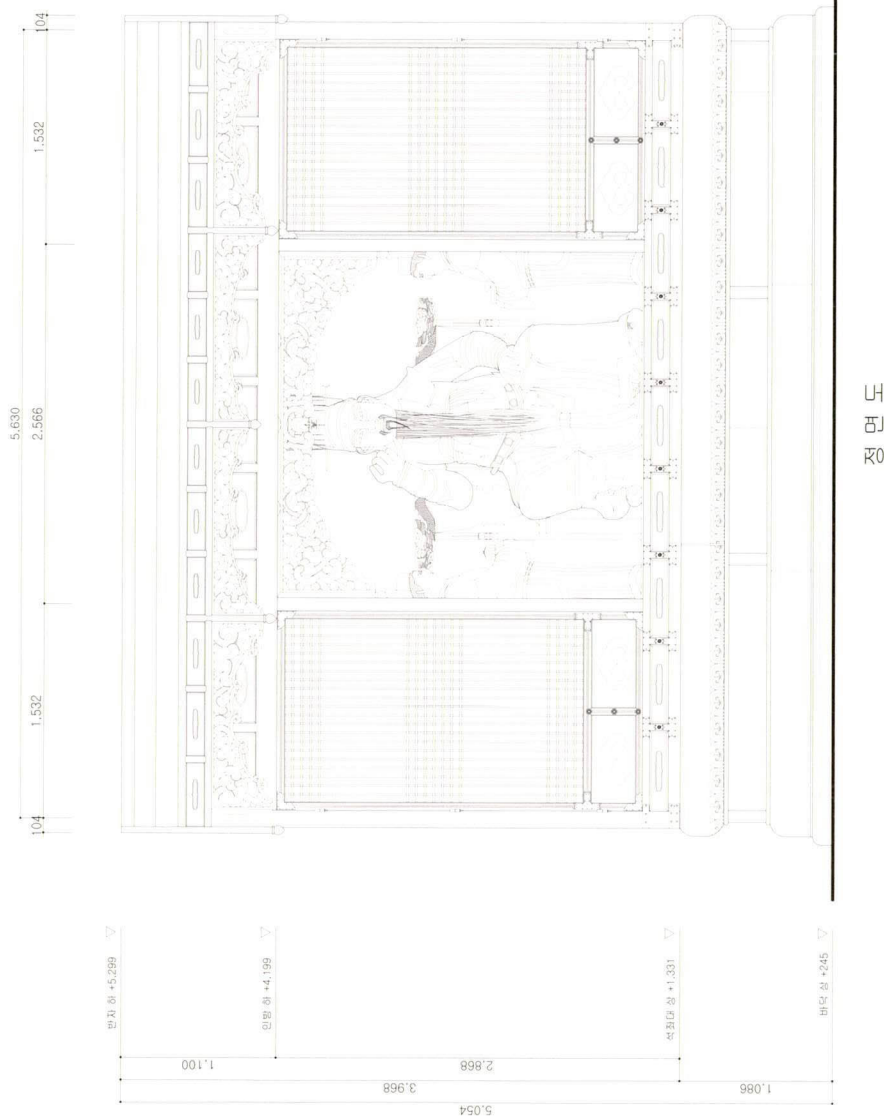
내림새(구와)



내림새(신와)

기와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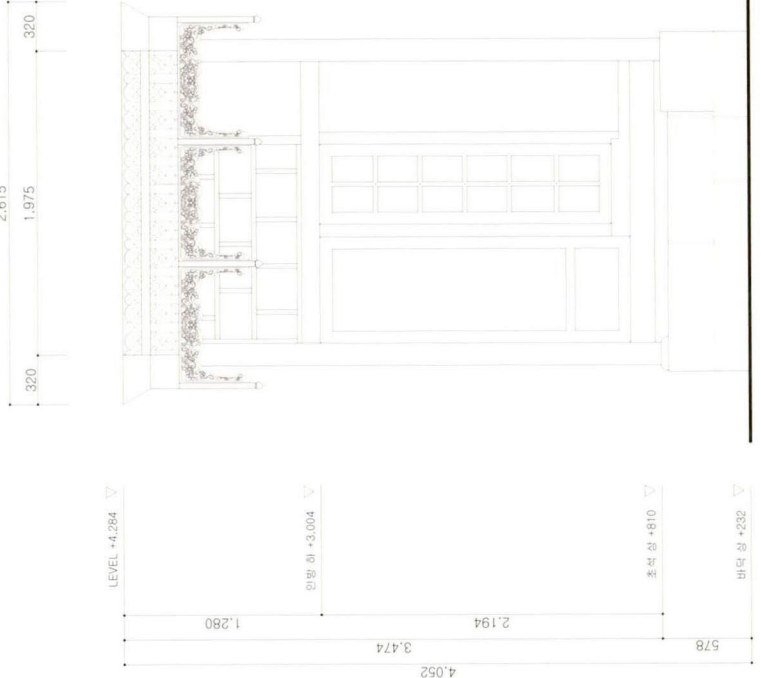
조선왕실생묘관상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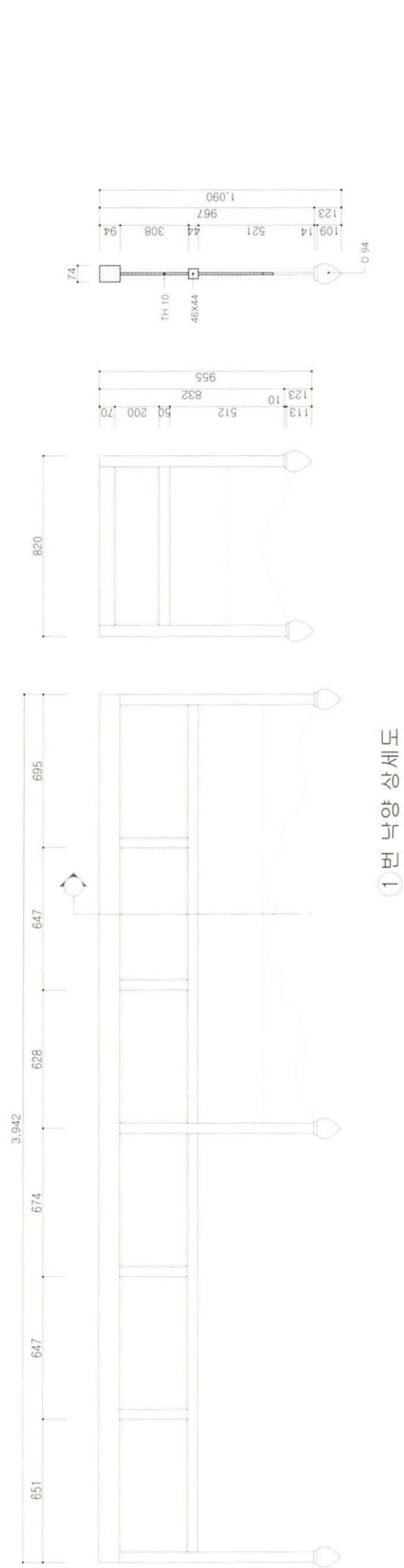


단면



좌측면도





1 東廟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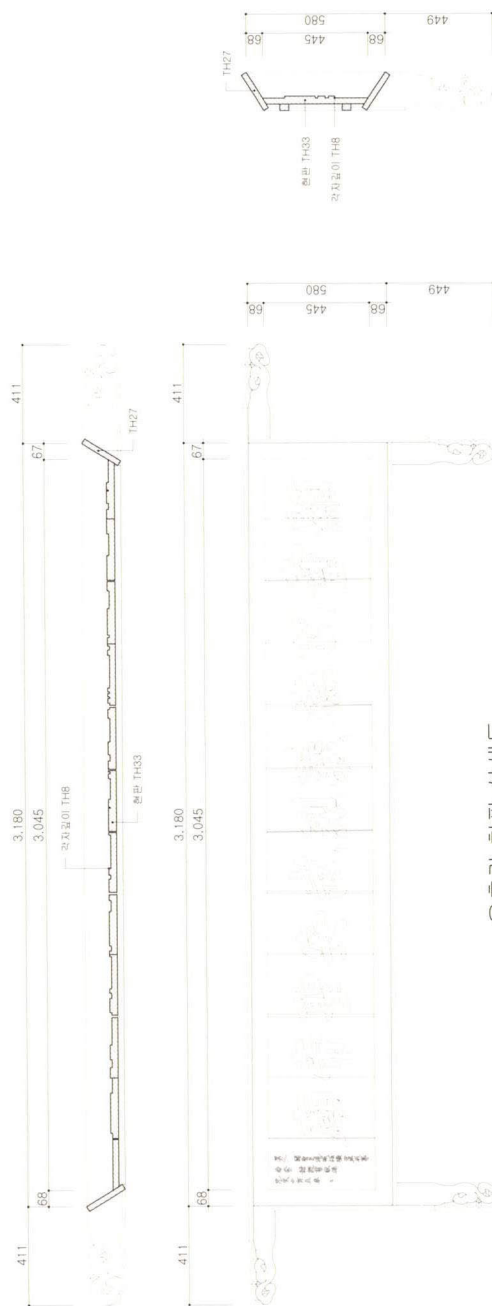
2 東廟 平面圖

東廟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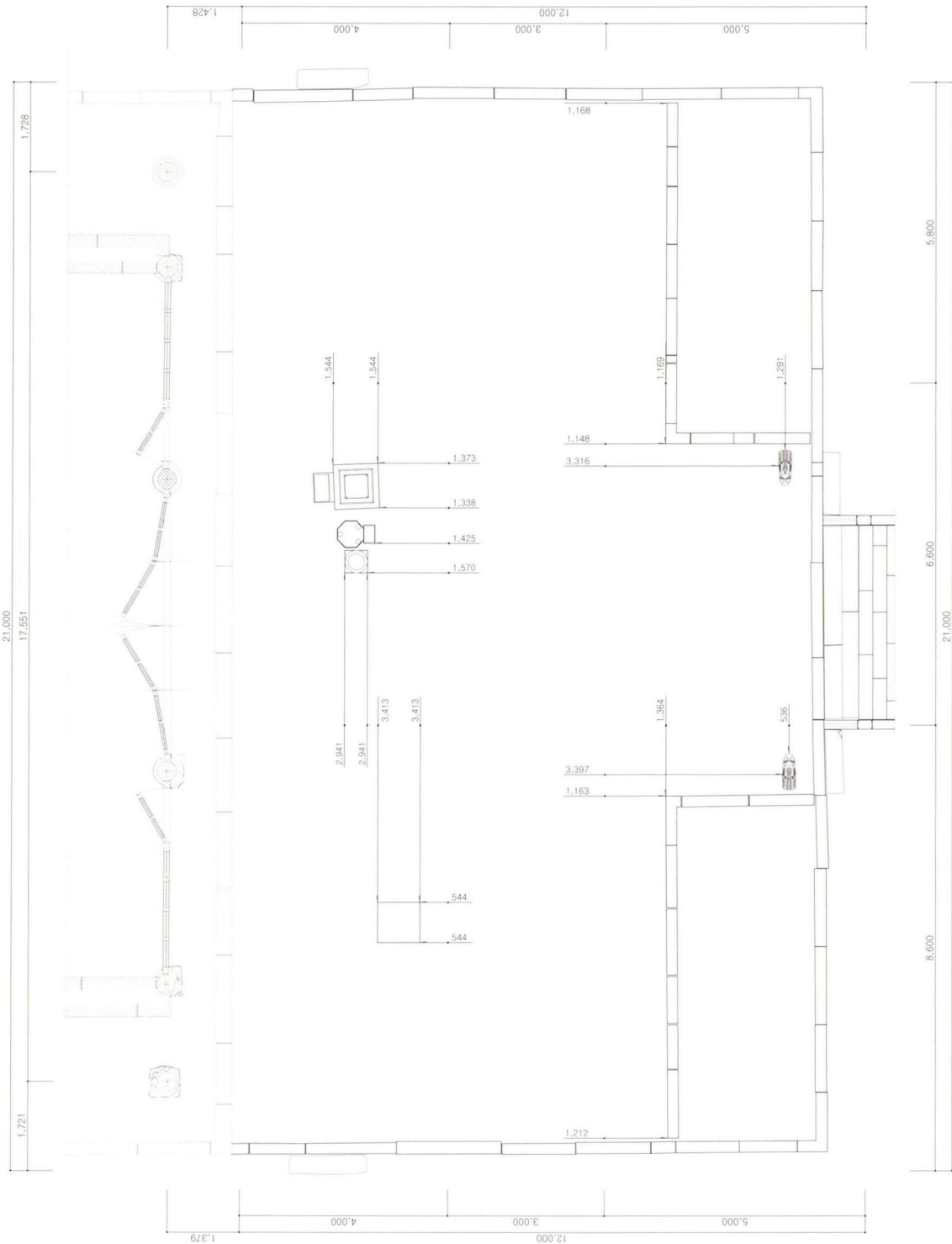
아간 현판 상세도



우측칸 현판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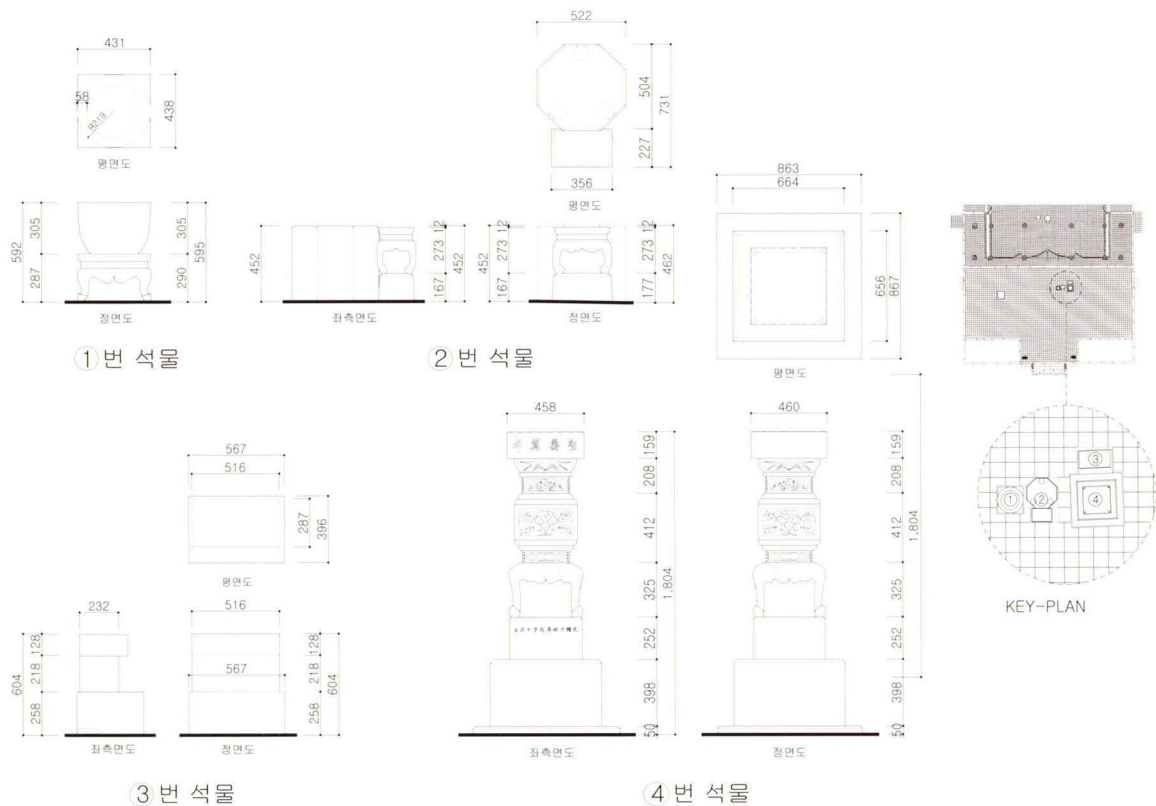
현판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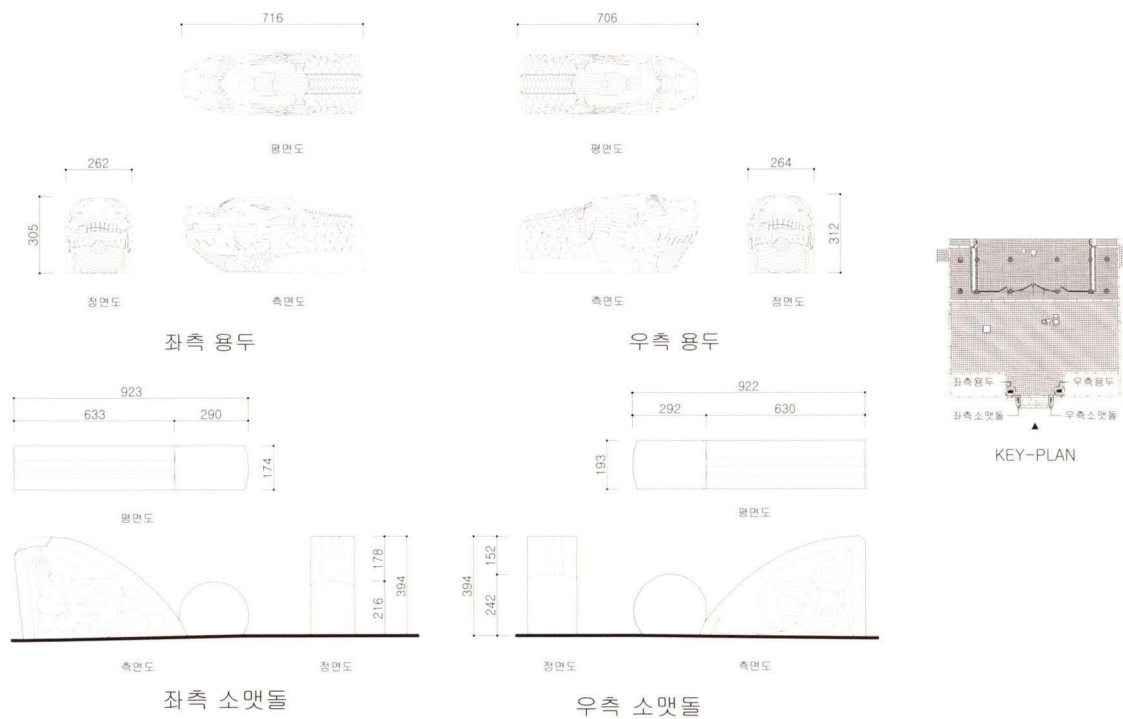


단위: cm
: 건물에 설치·수행된 임의의 기준선에서의 거리

Wel-dae Seok-mul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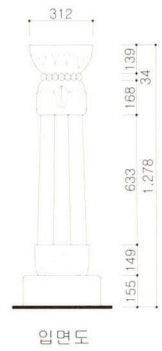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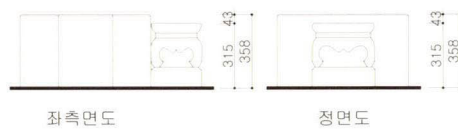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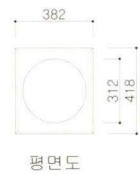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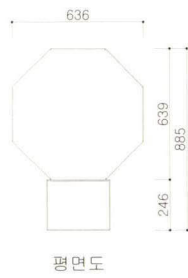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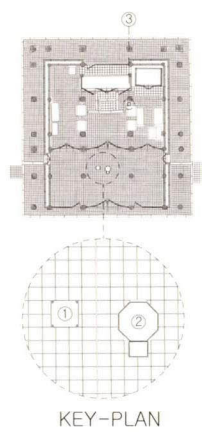


석물 상세도 (1)



석물 상세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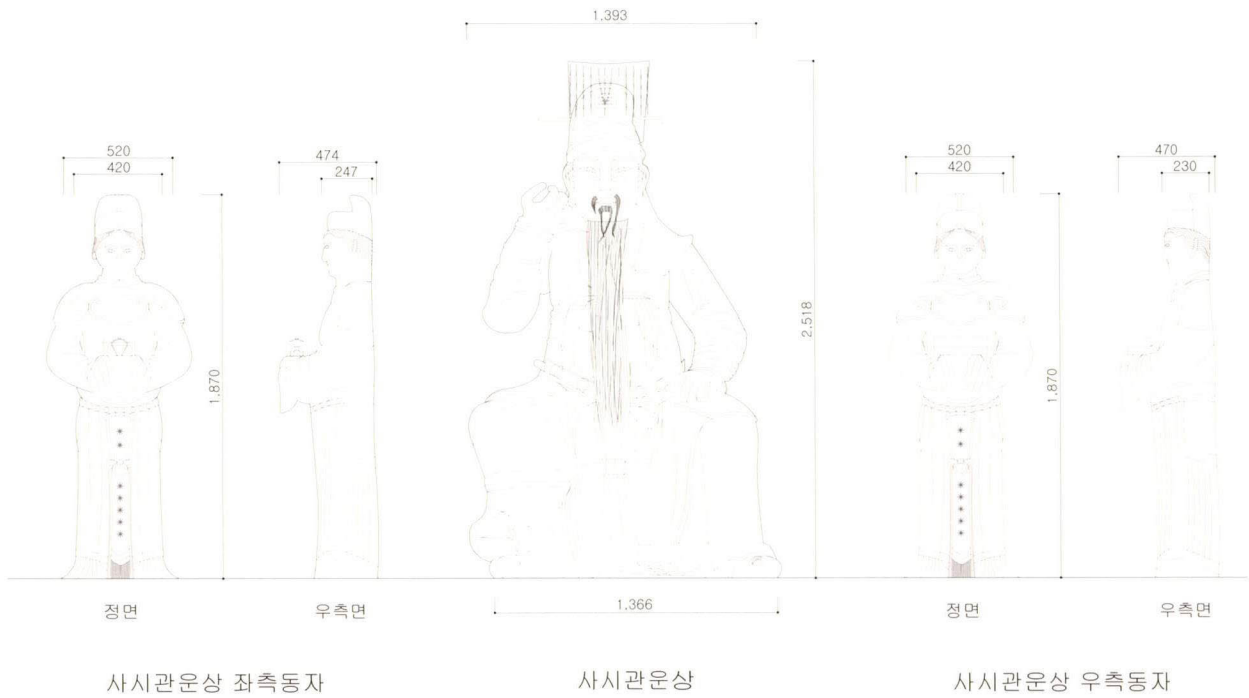


1 번 석물

2 번 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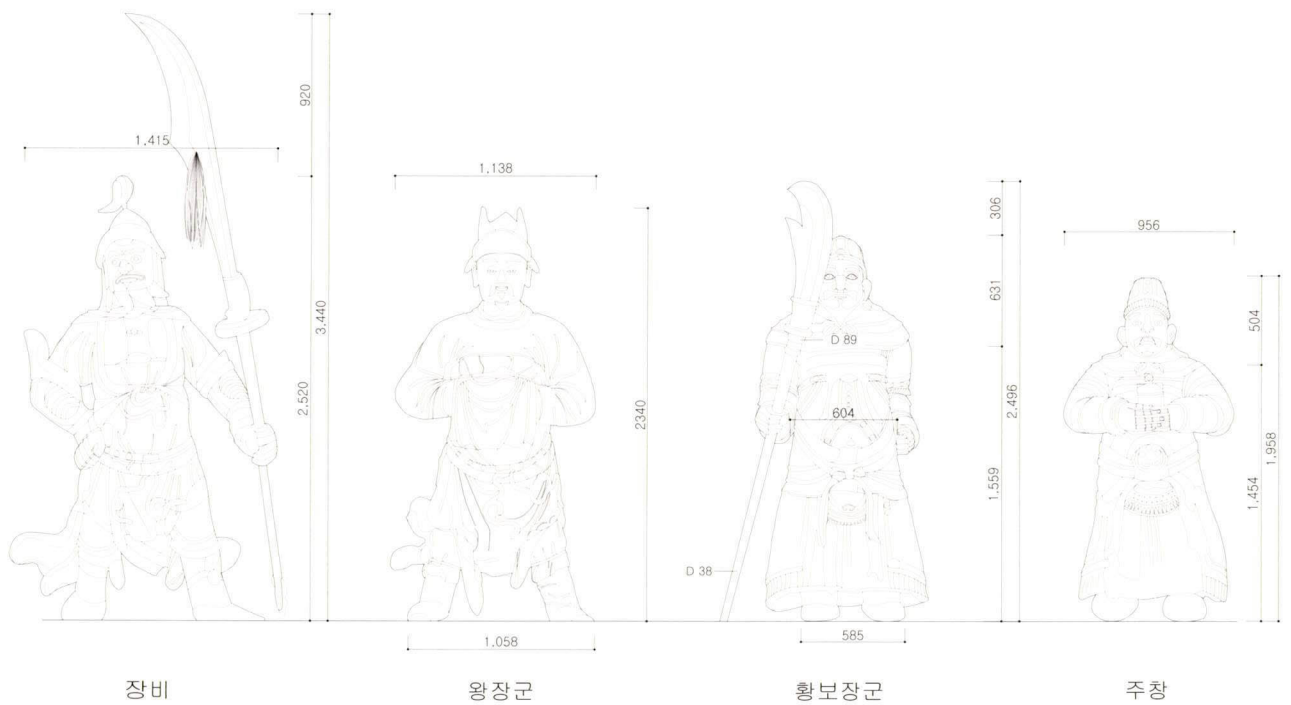
3 번 석물

석물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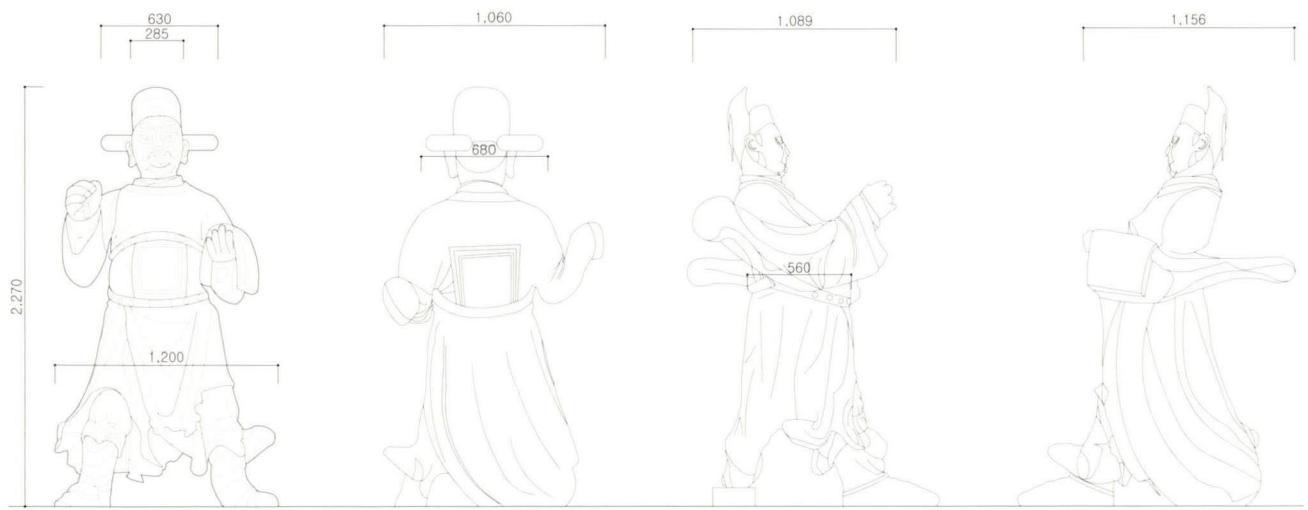
토상 상세도 (1)





토상 상세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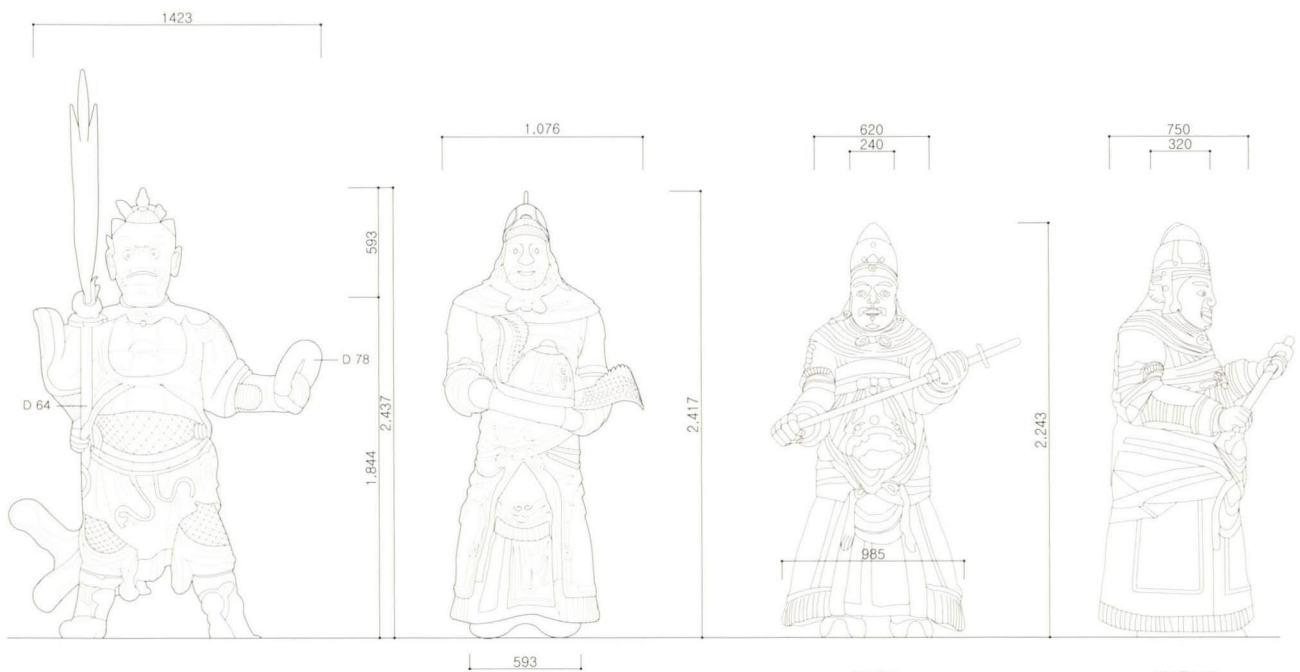
정면

배면

우장군

좌측면

우측면



조자룡

황충

정면

관평

좌측면

토상 상세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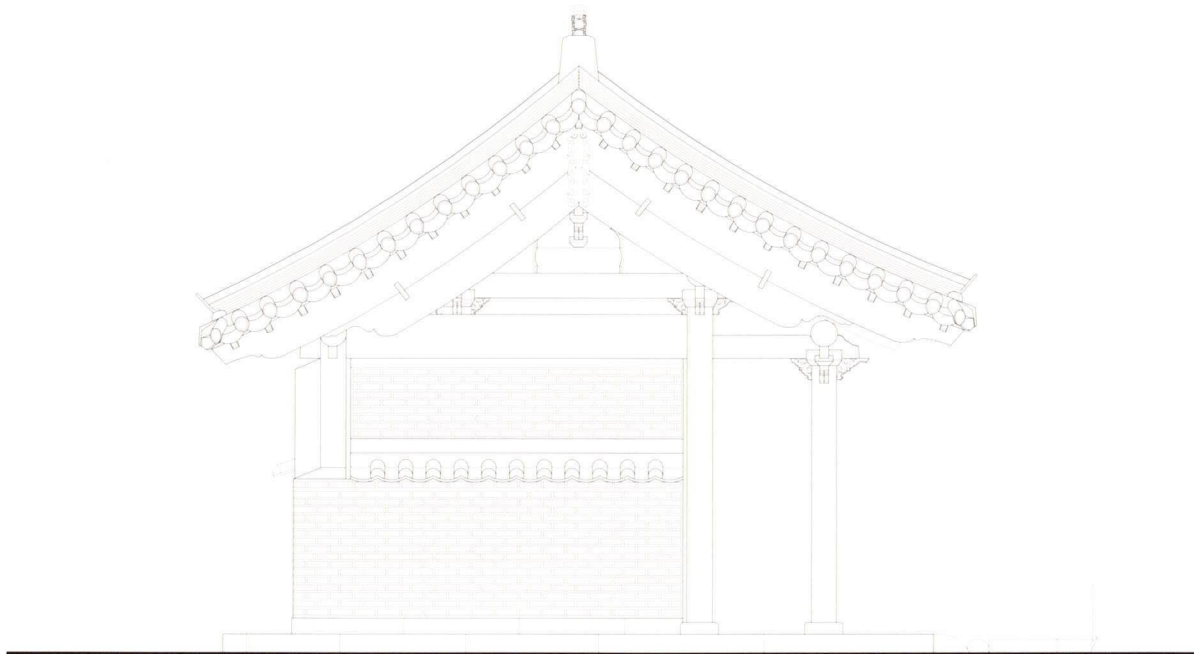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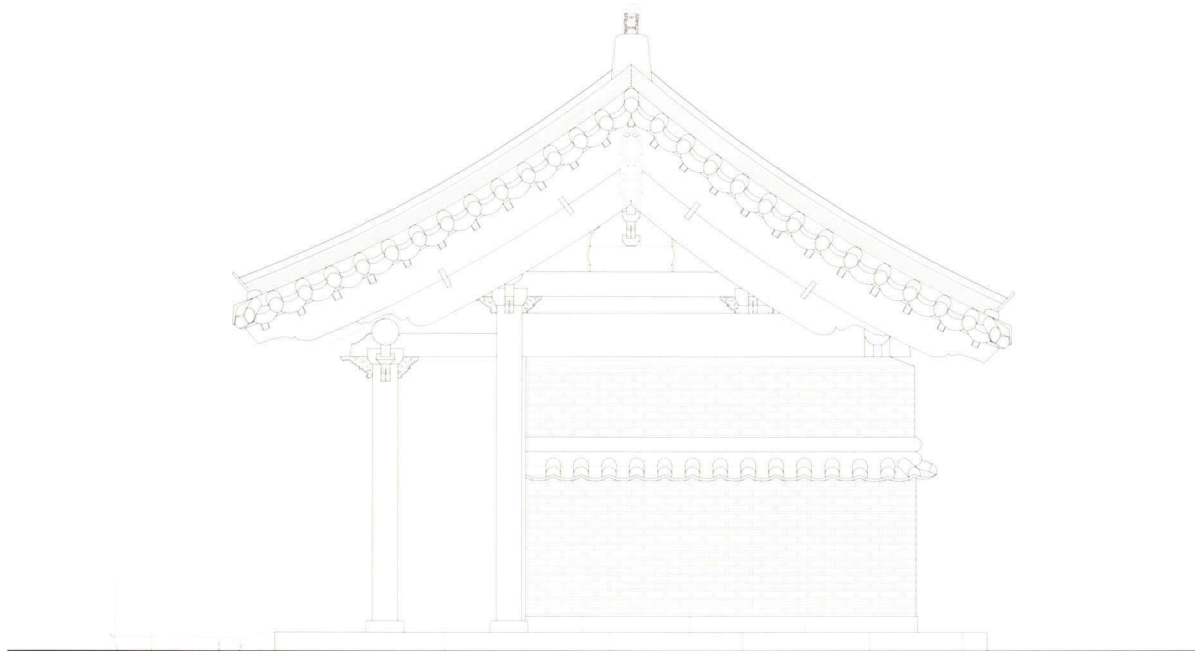


내원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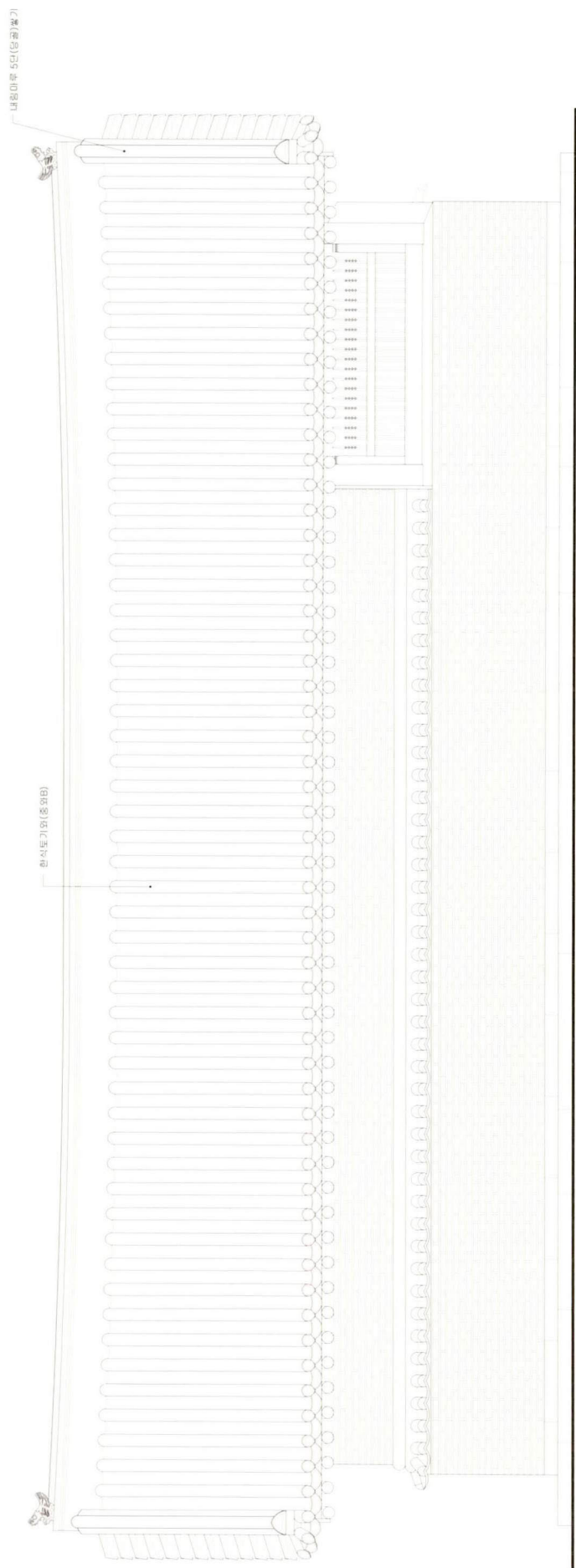
좌 측 면 도



우 측 면 도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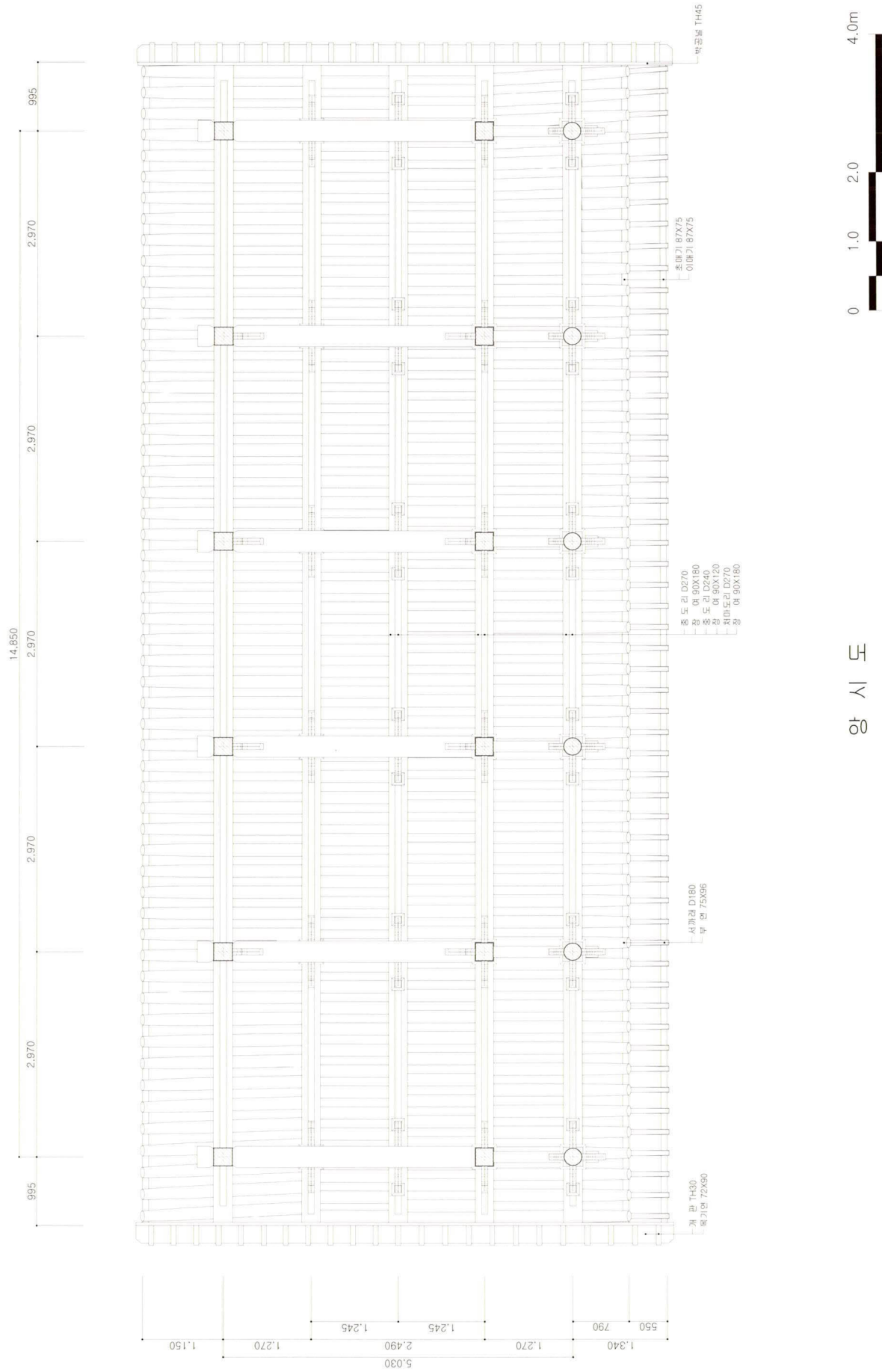




내원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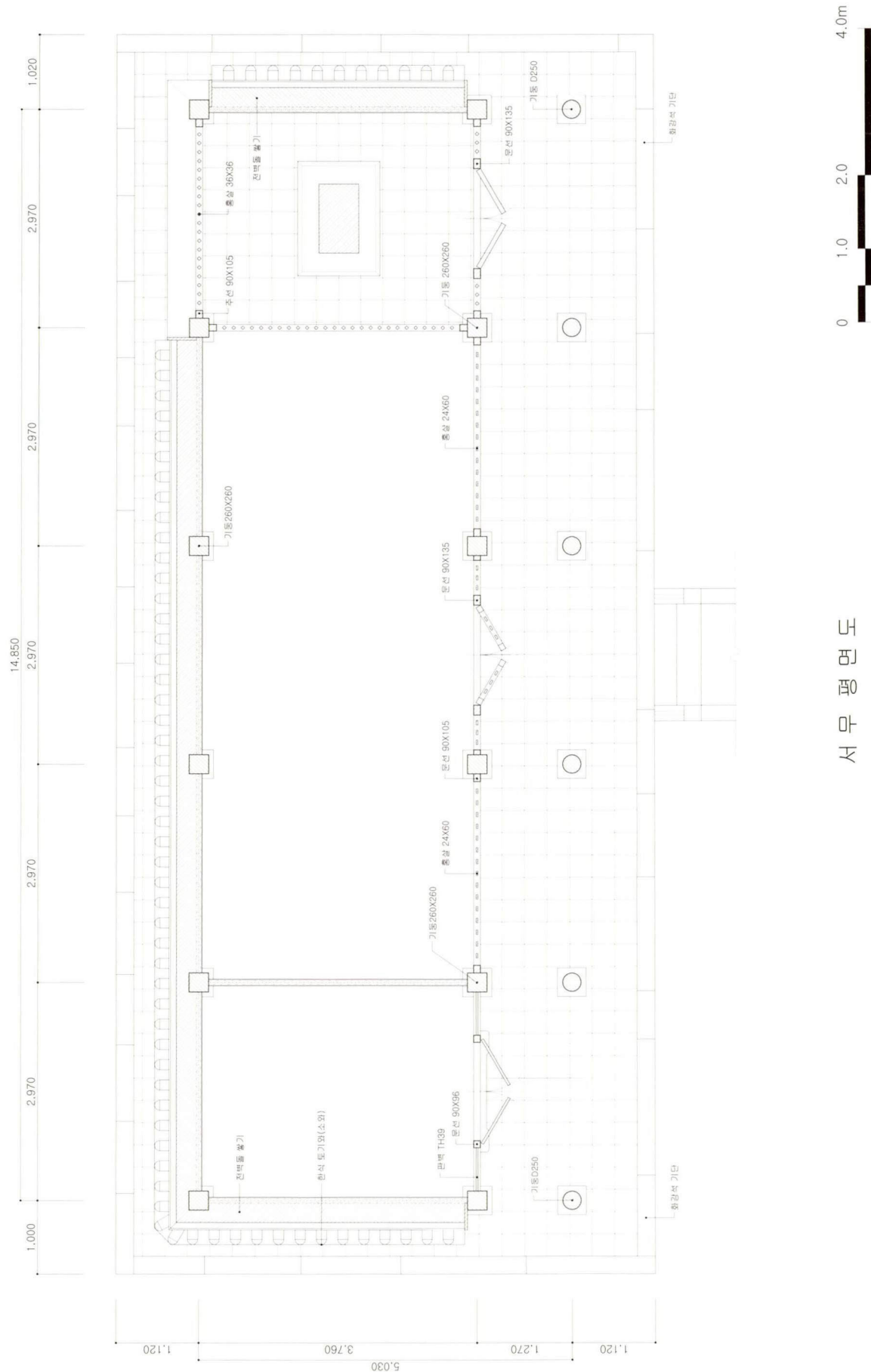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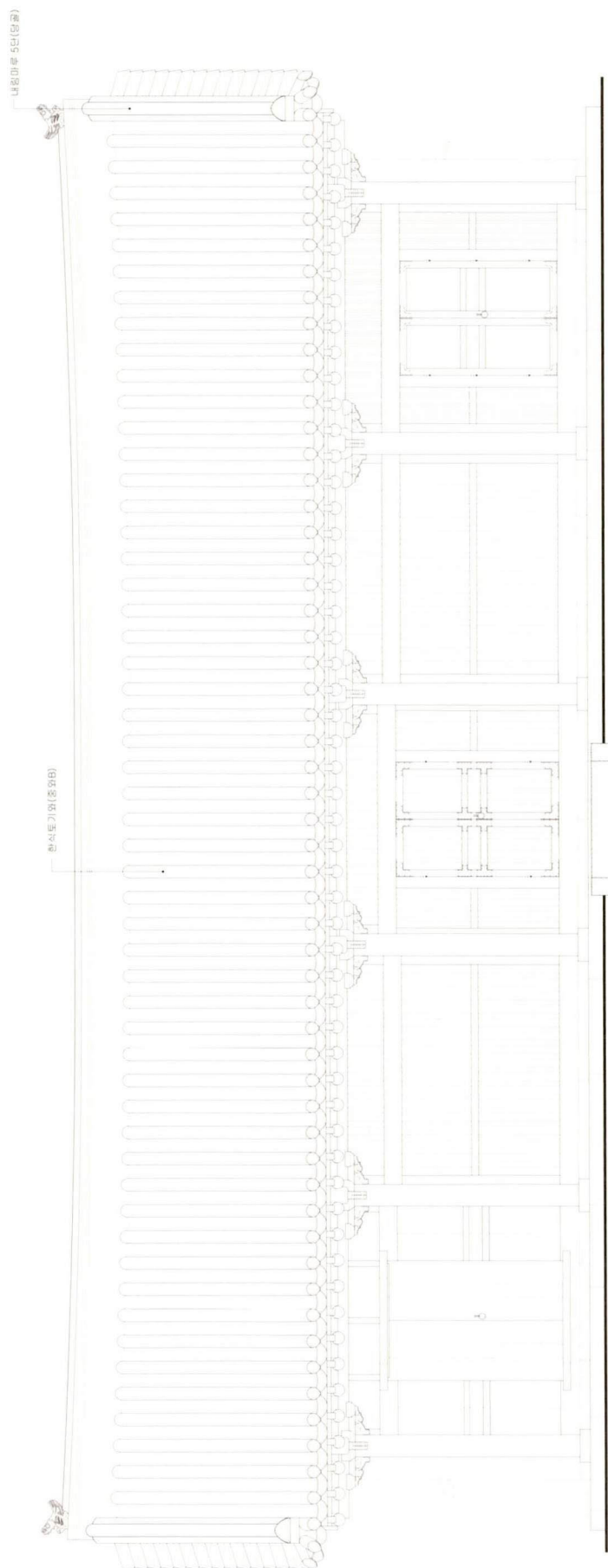




지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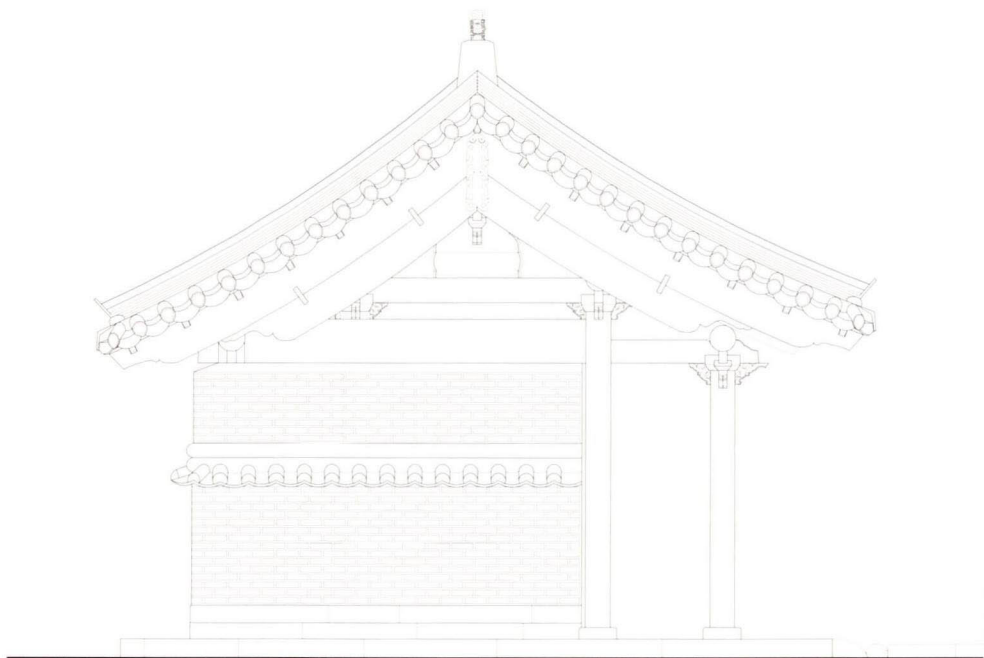


東廟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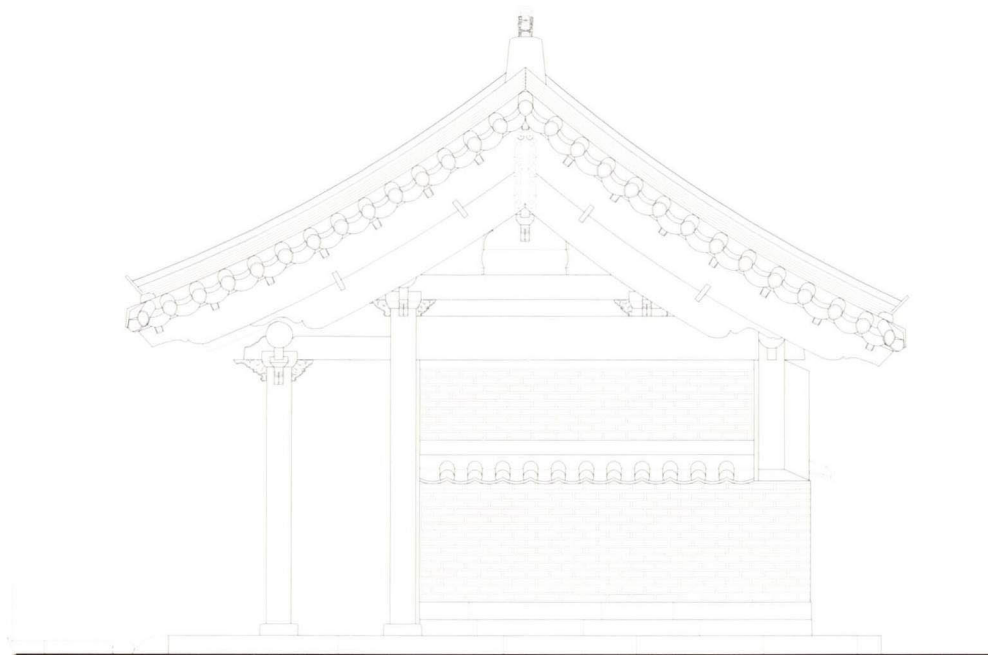


남
면
쪽

0 1.0 2.0 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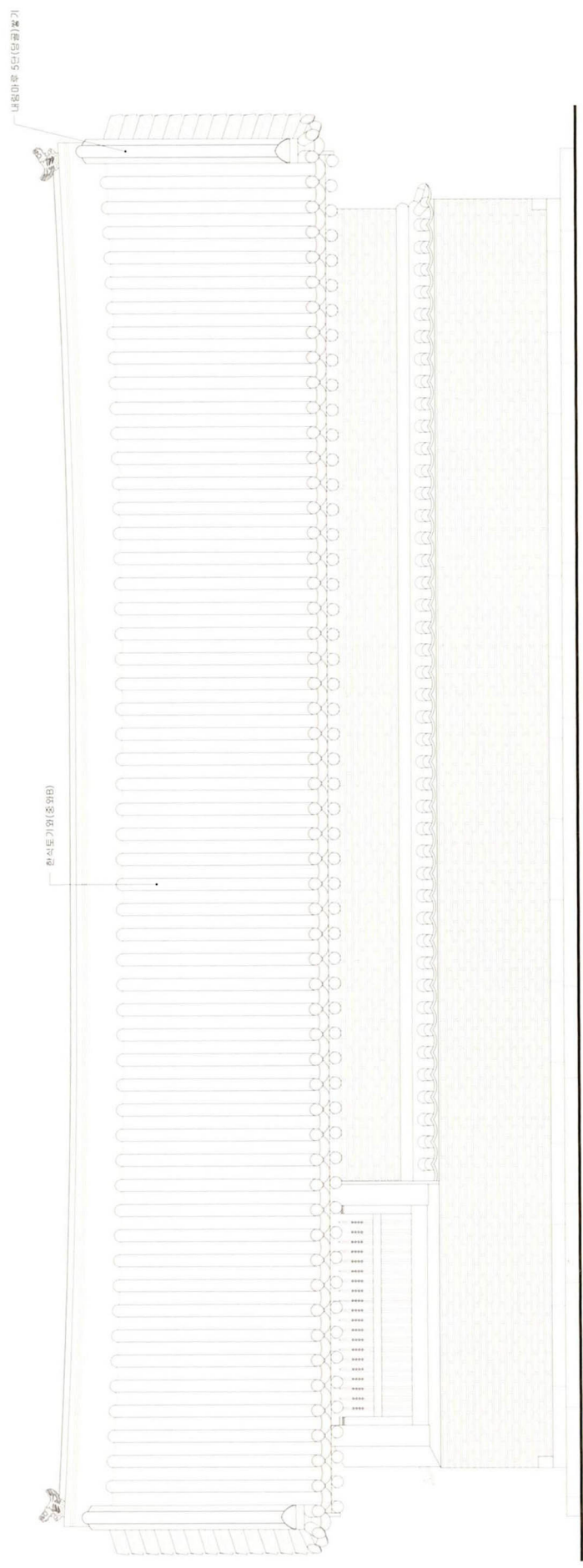


좌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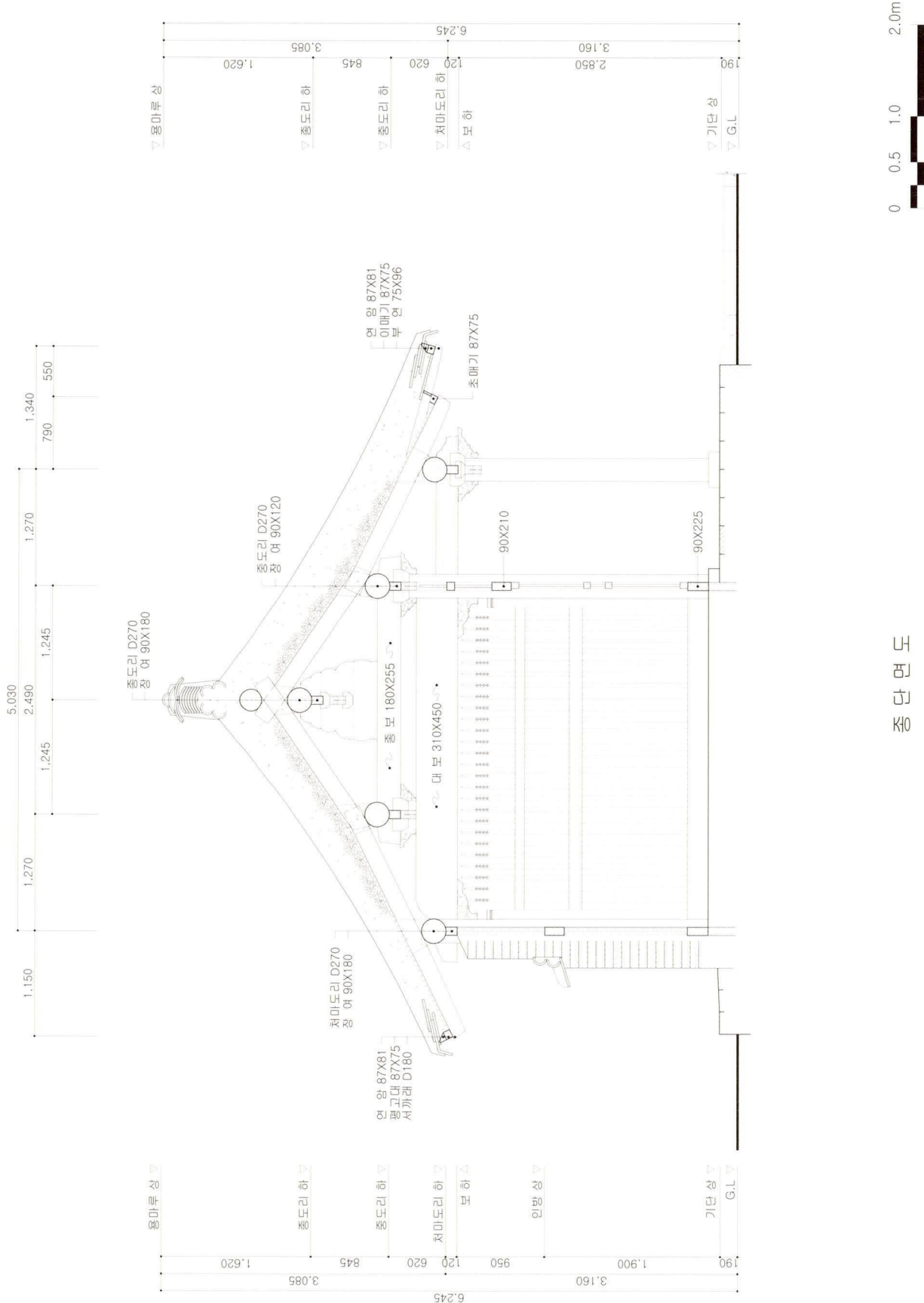


우 측 면 도

0 0.5 1.0 2.0m



내원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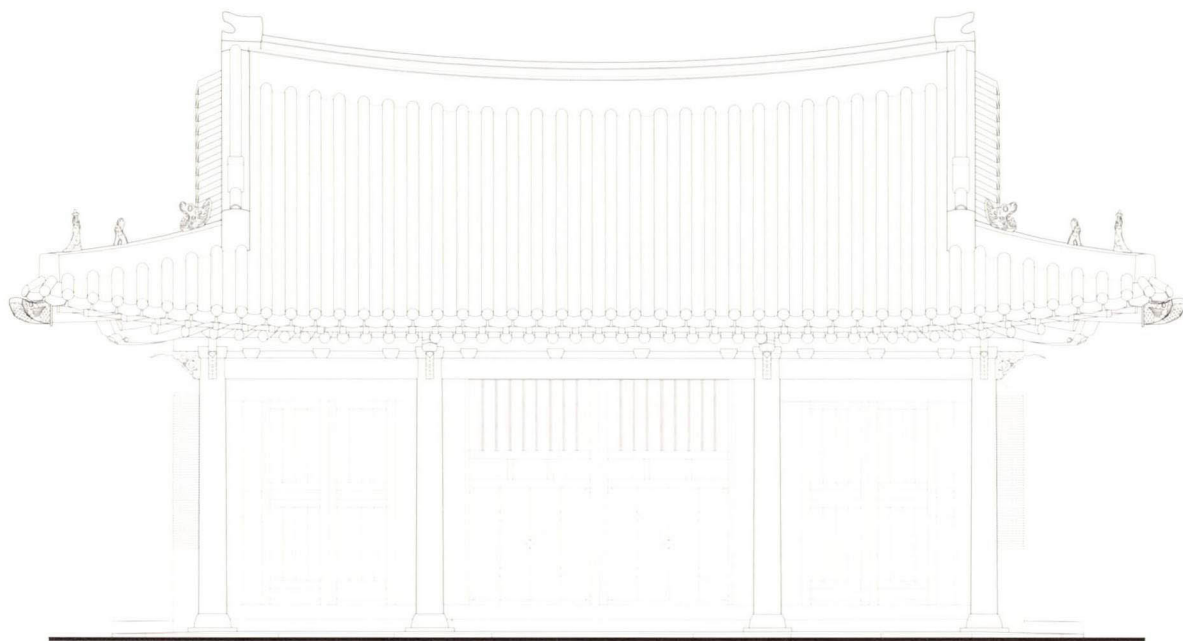
東廟 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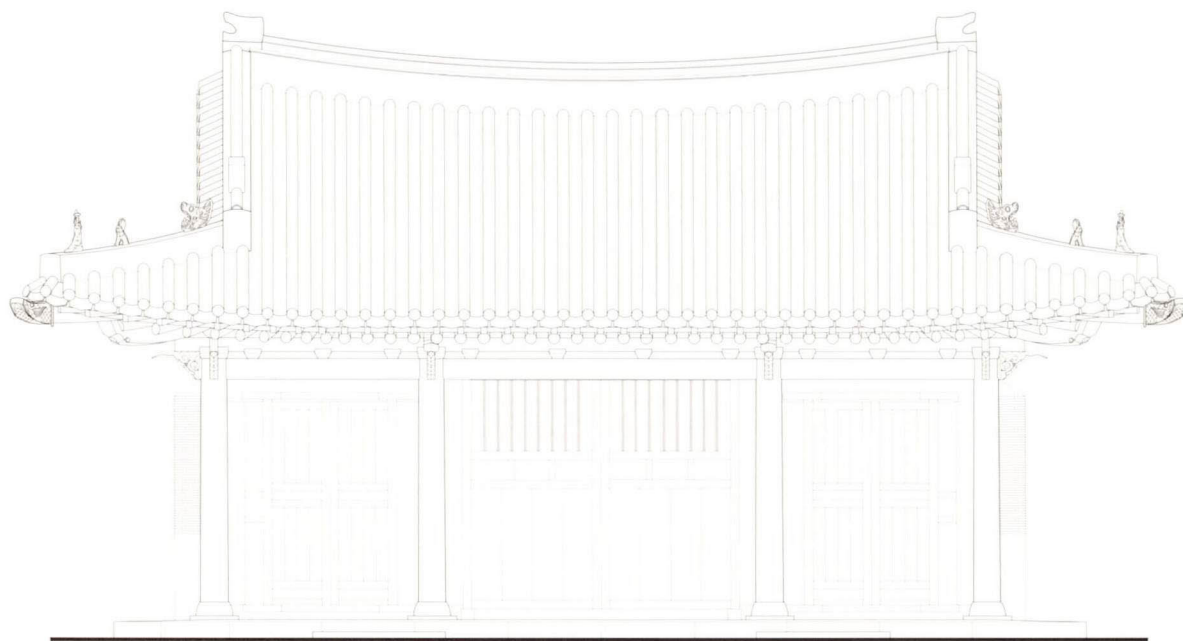


지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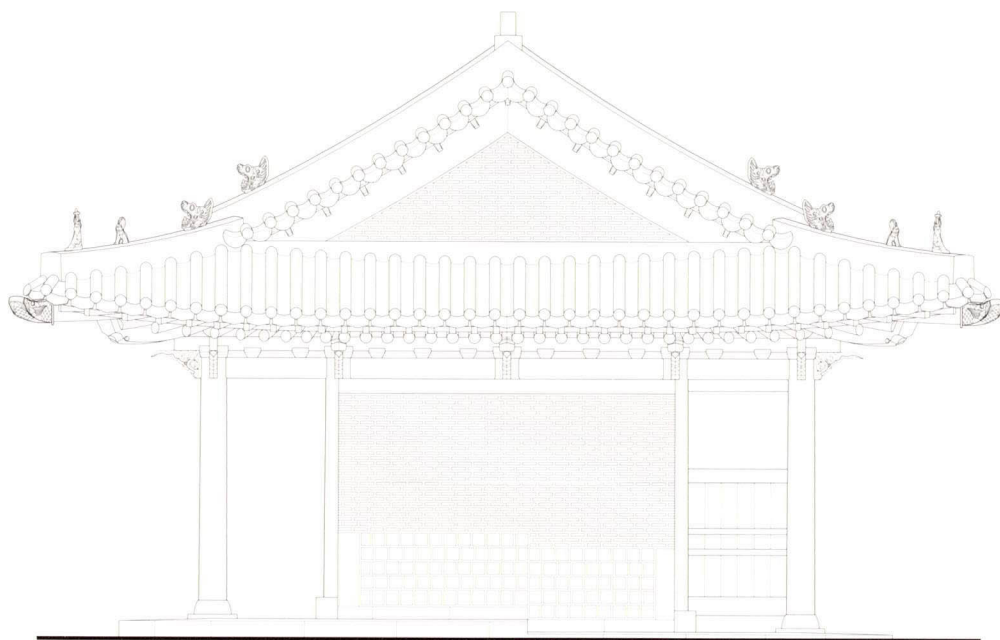


정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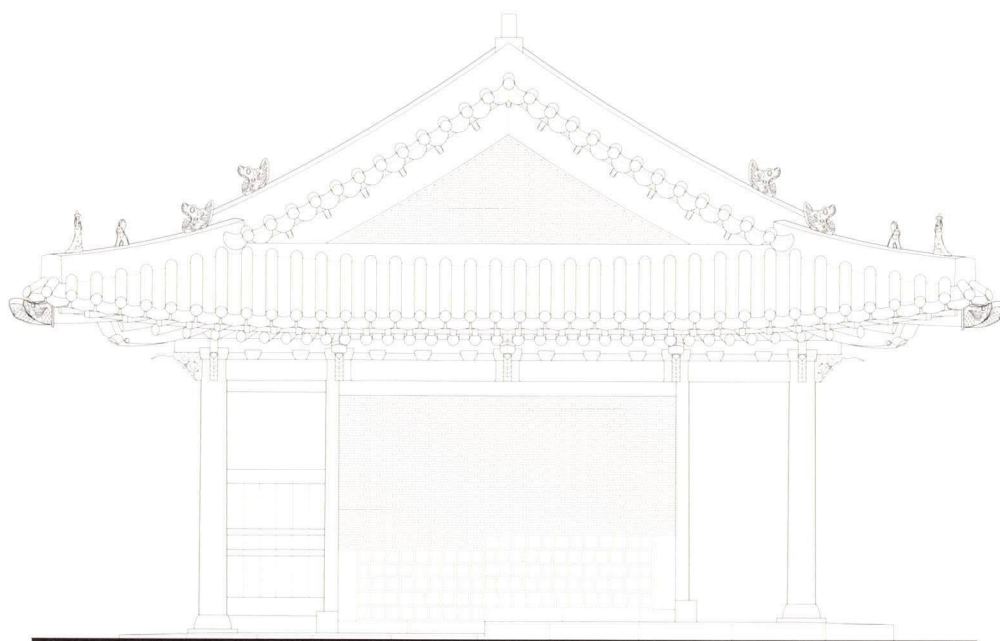


후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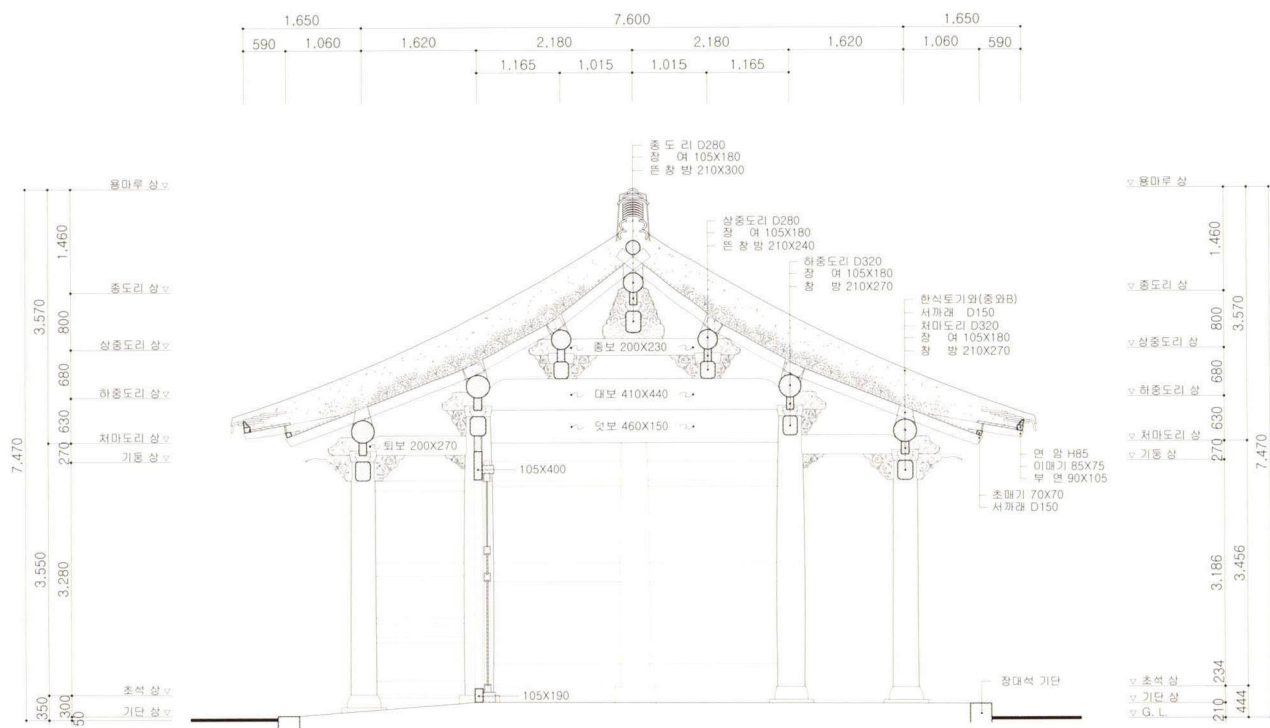


좌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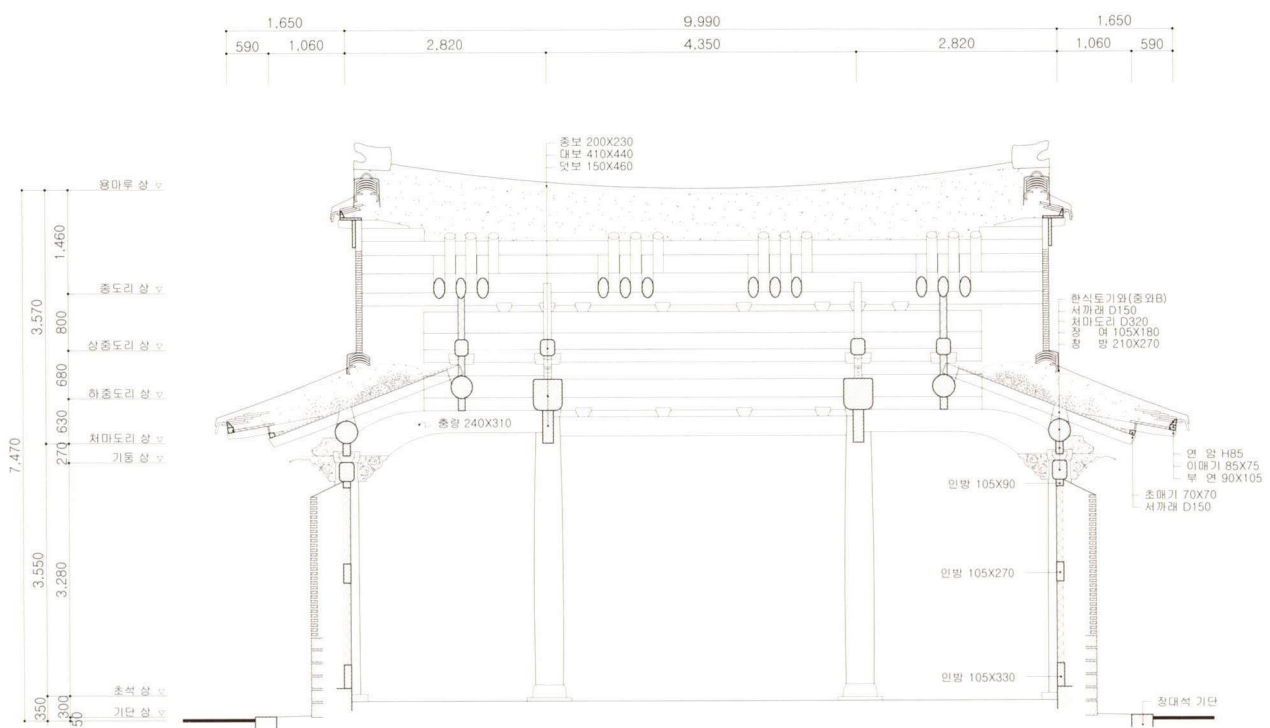


우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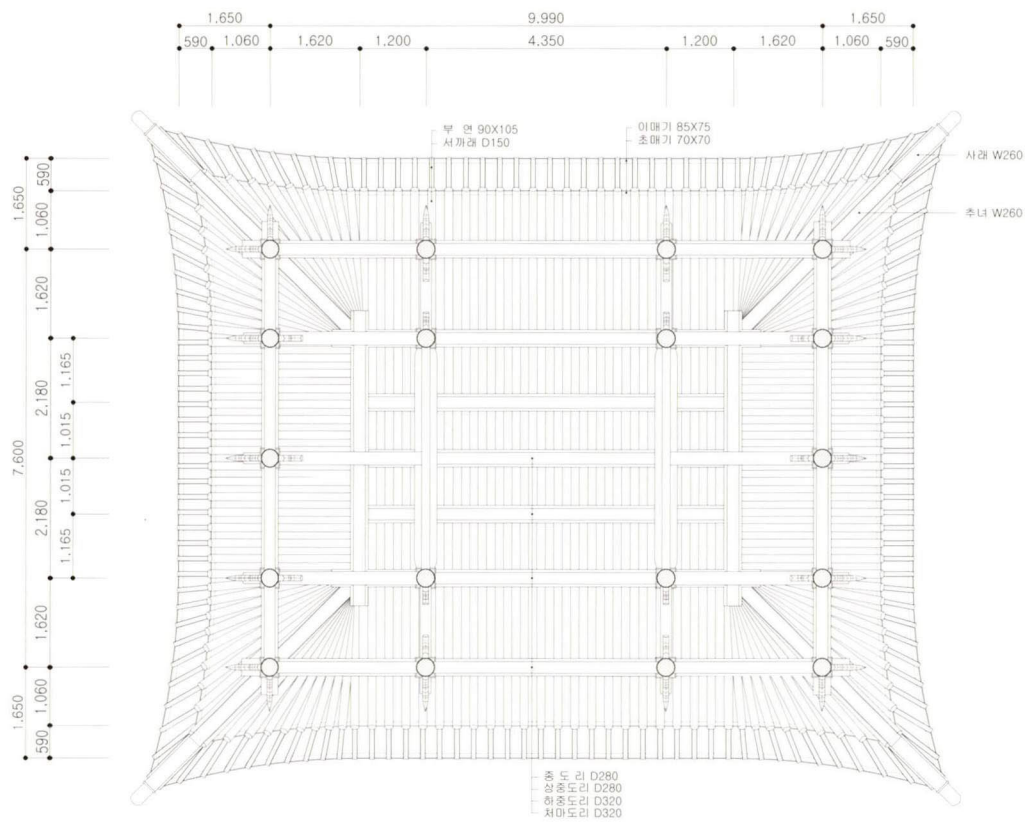


종 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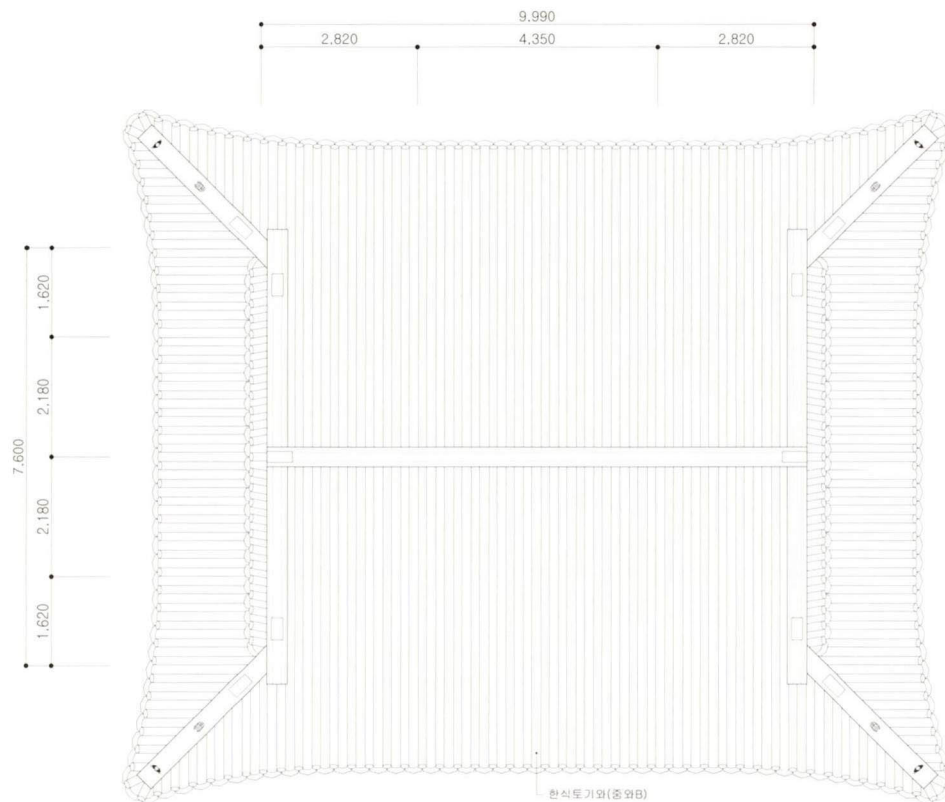


횡 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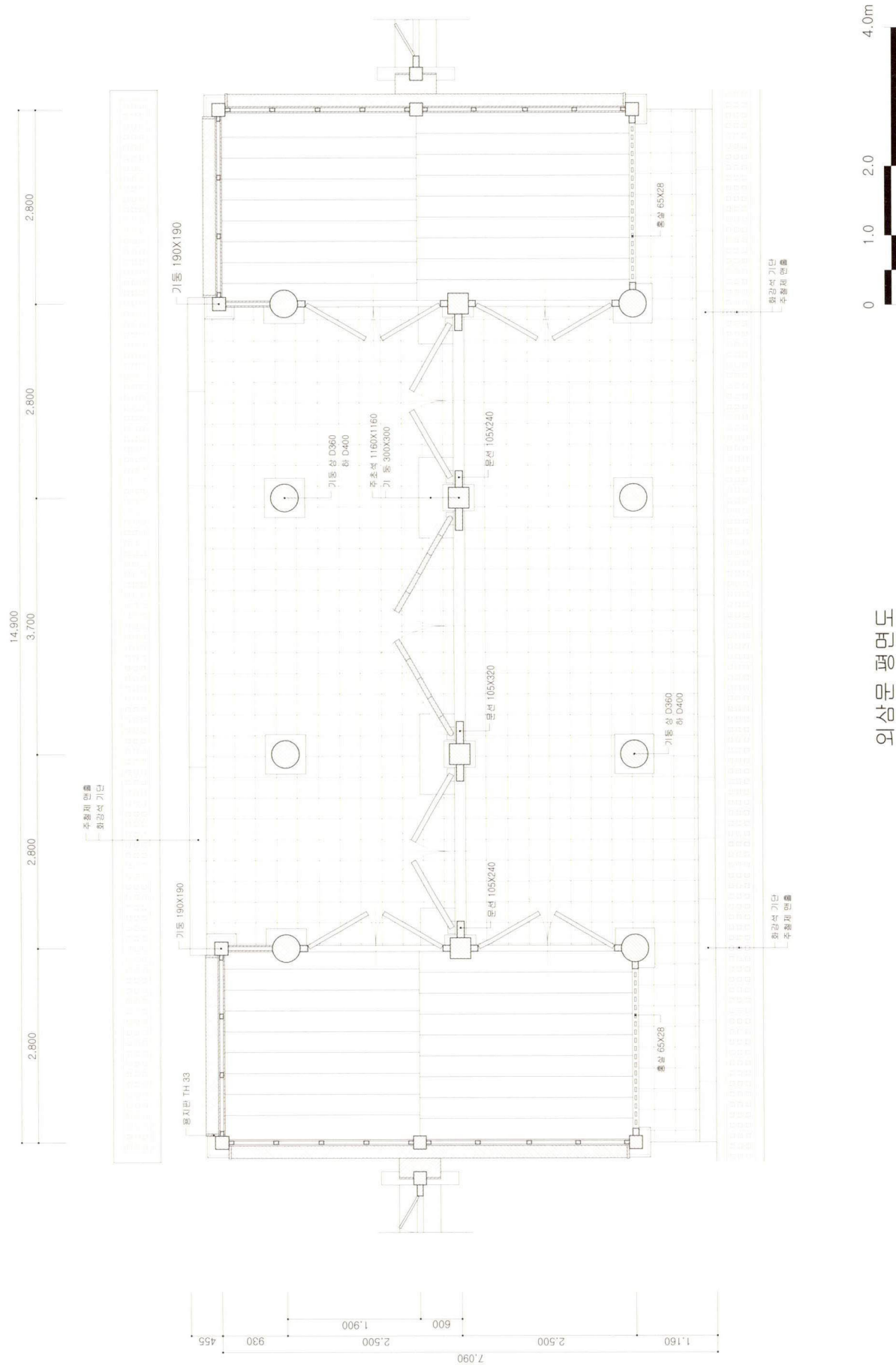


앙 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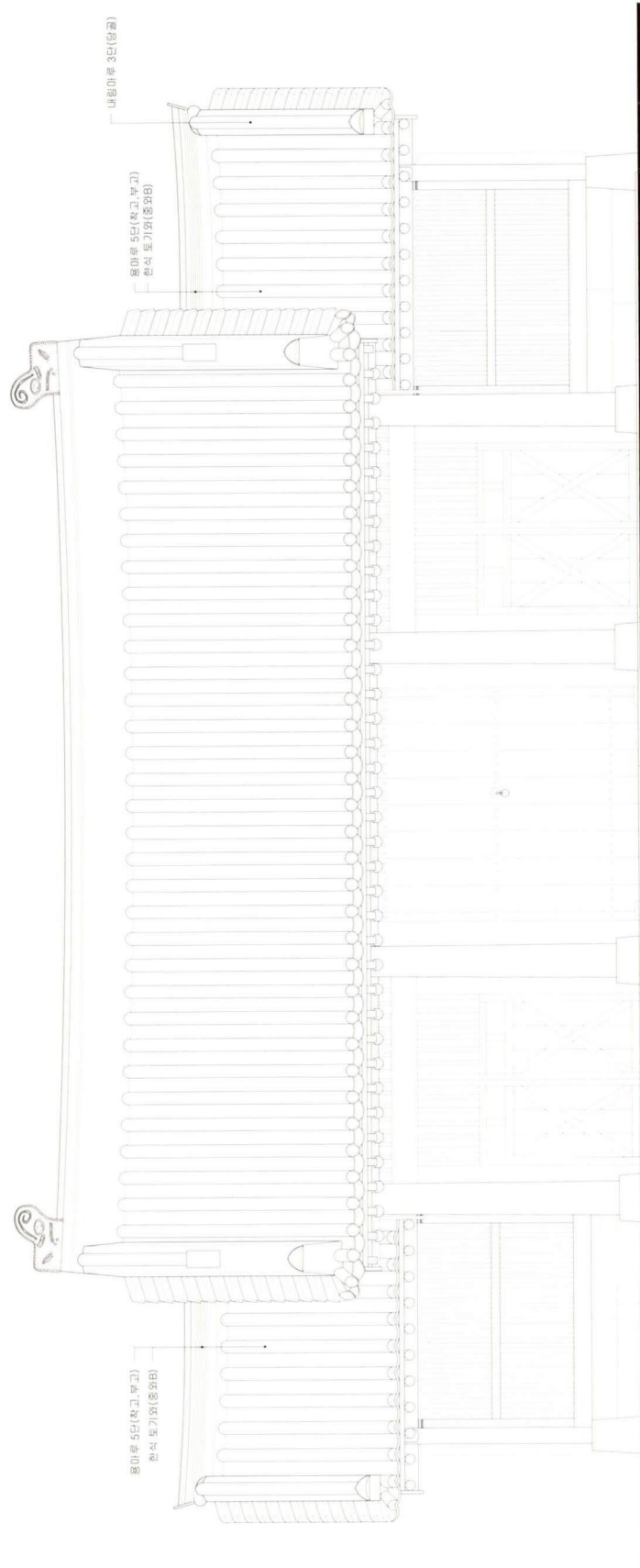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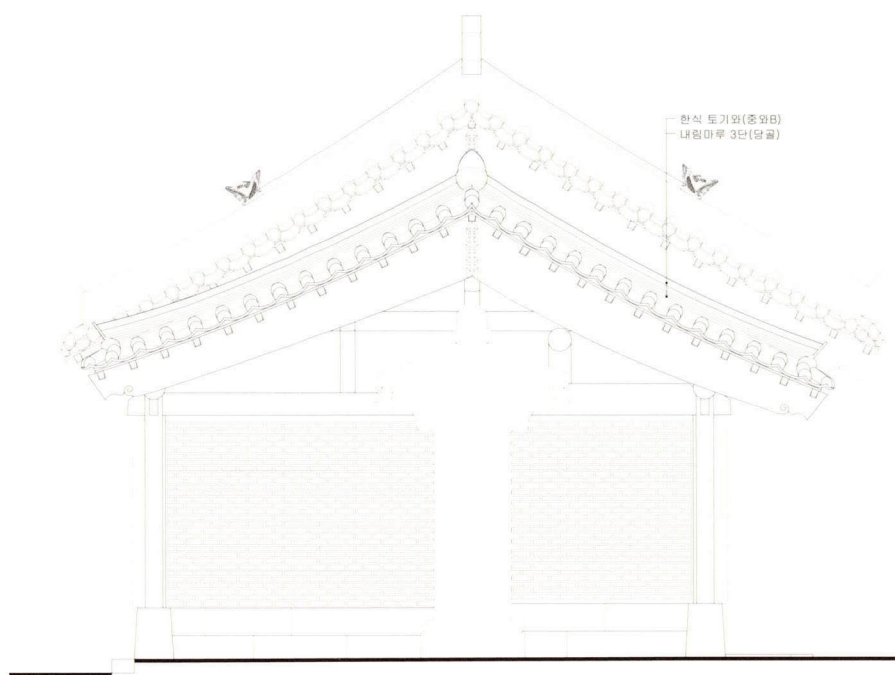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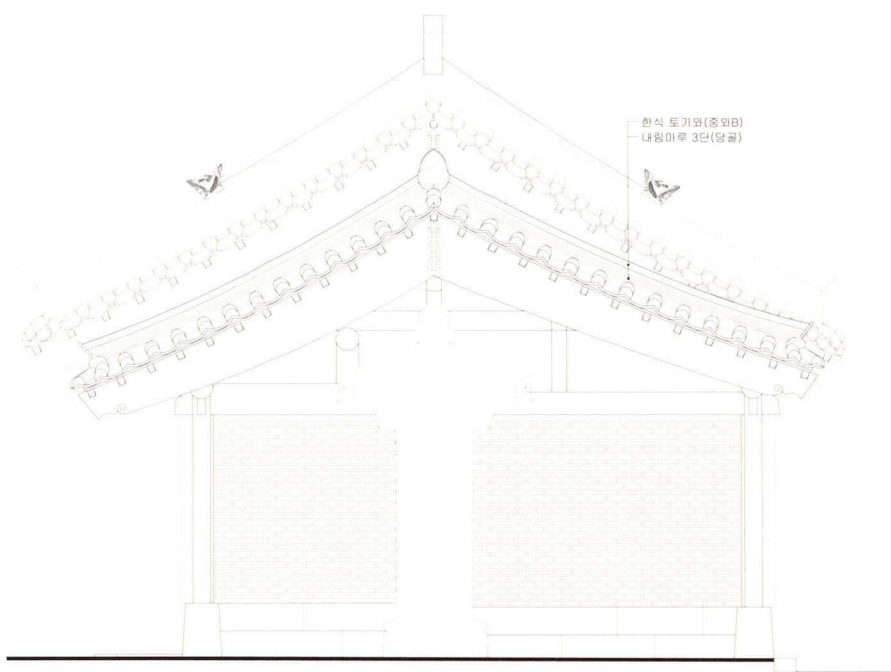
남편의 의상



내
침
마루



좌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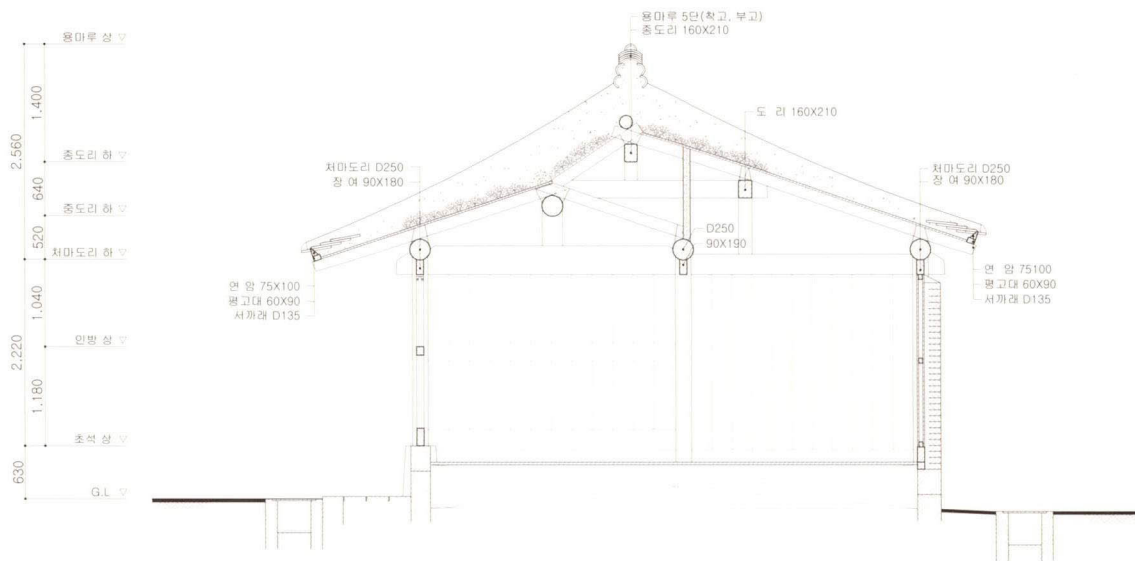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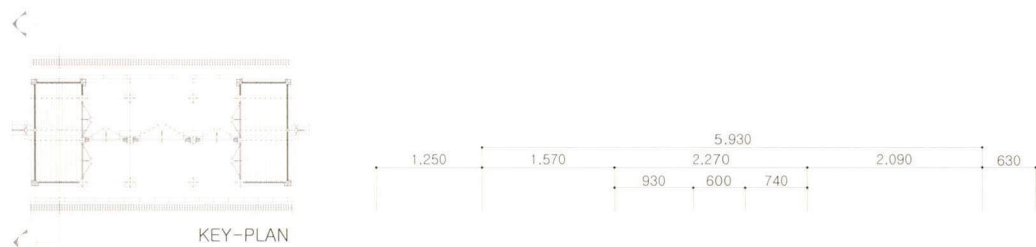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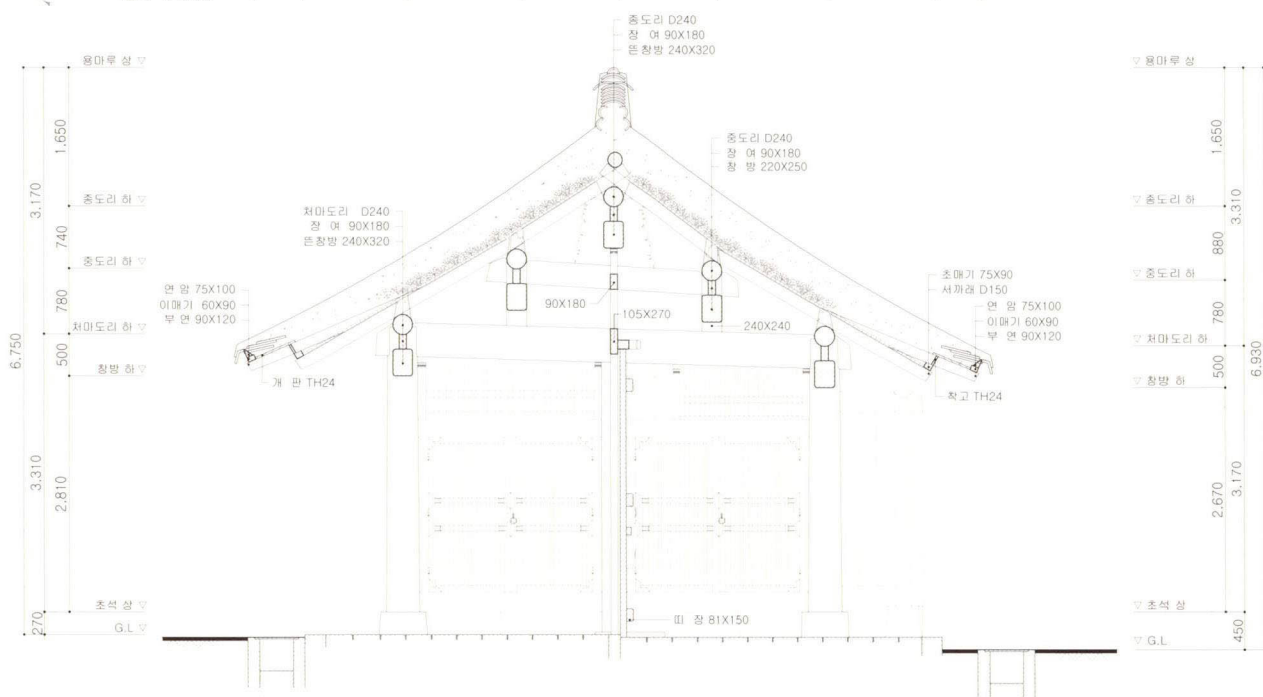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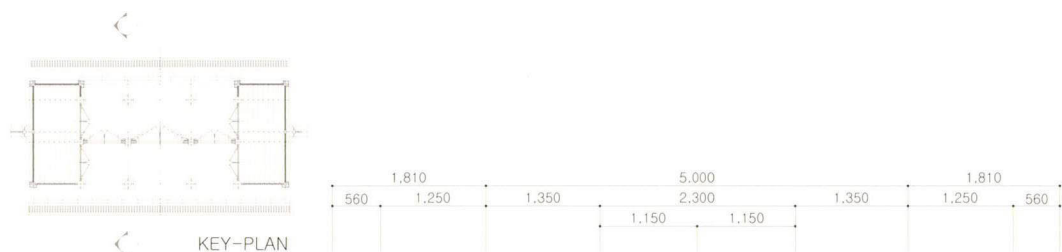


우 측 면 도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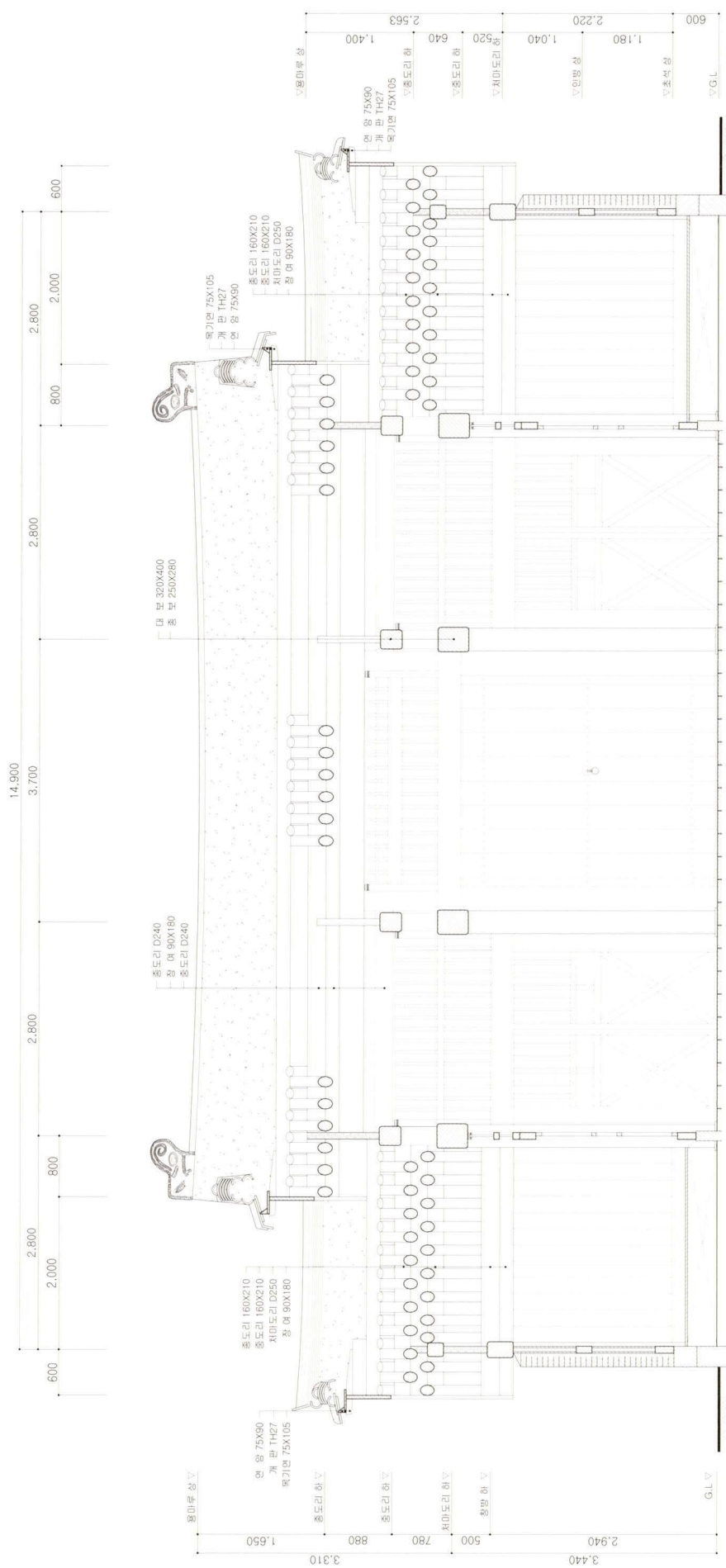


내침마루



중 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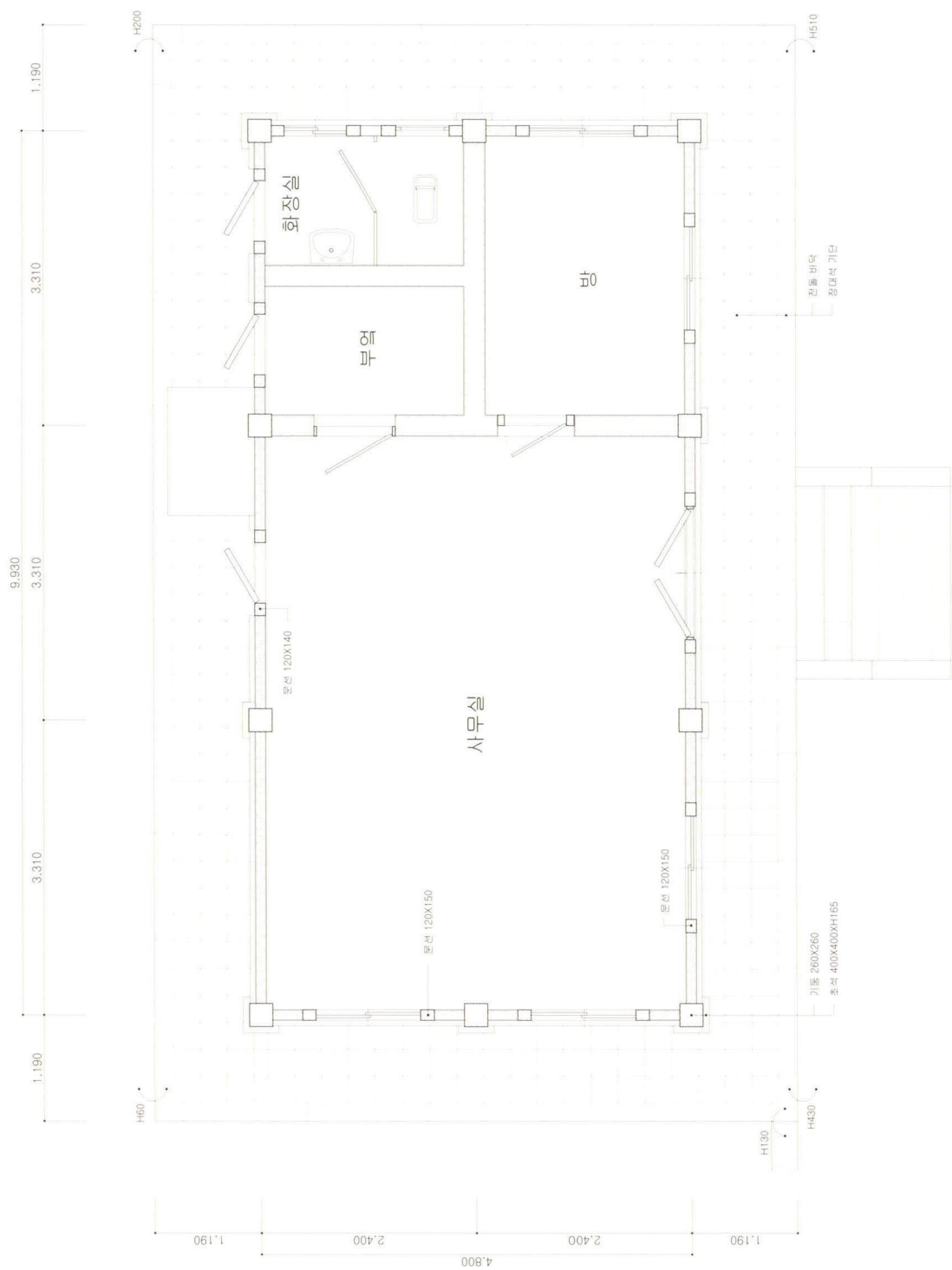


너
ㅍ
ㅈ
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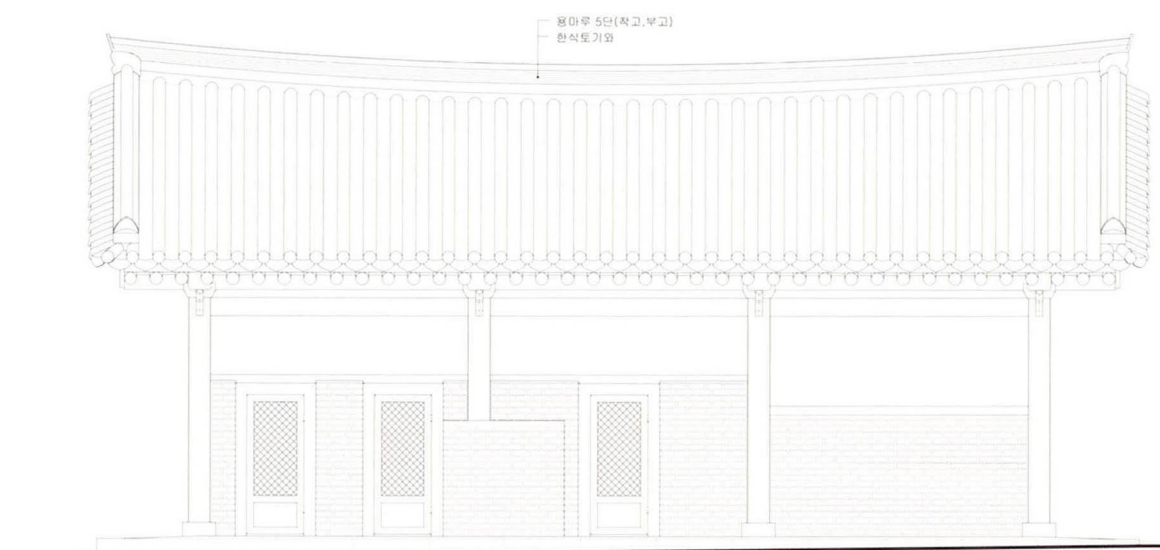
나
하
하
하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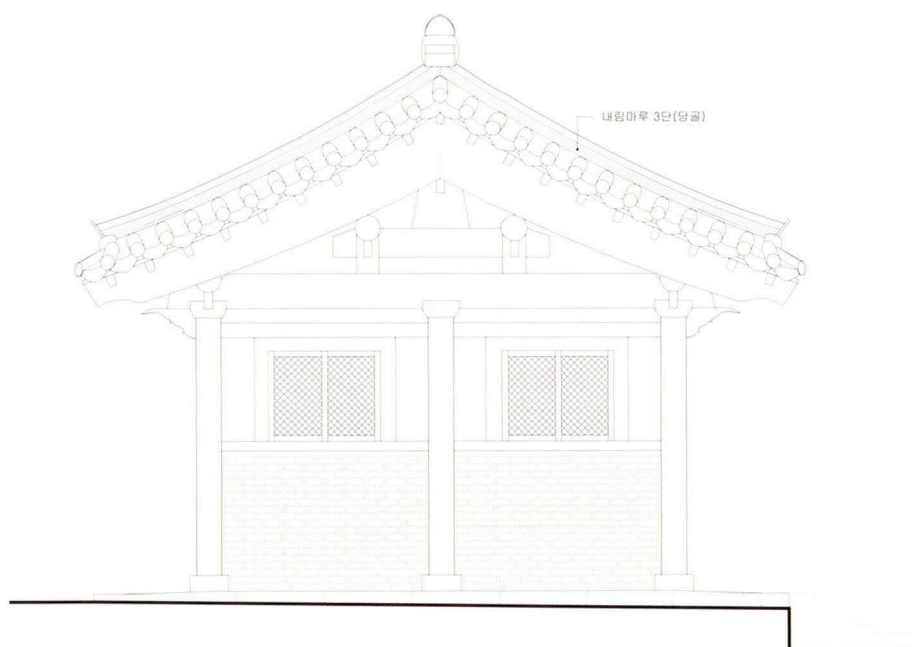


정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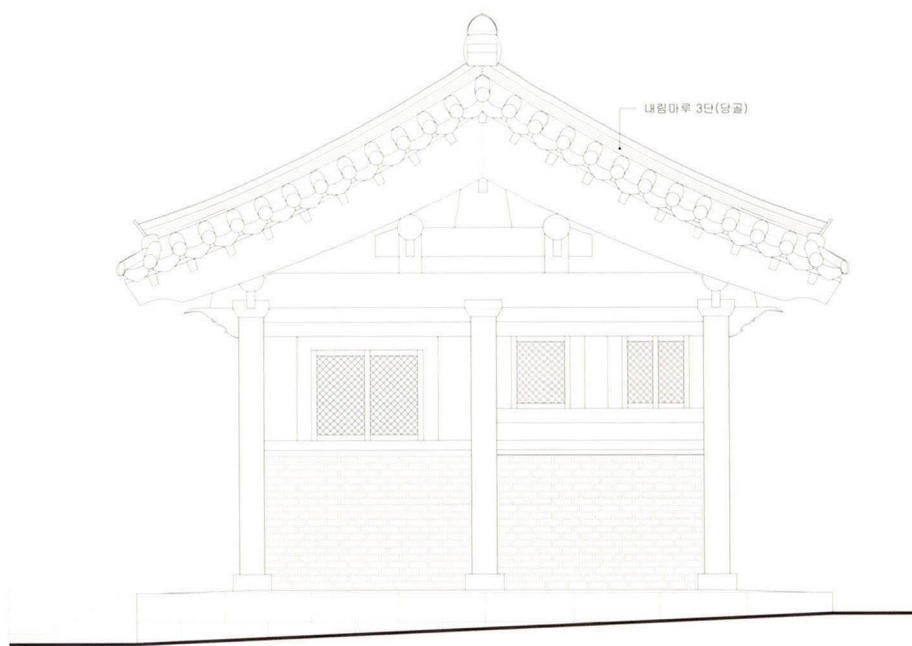


후 면 도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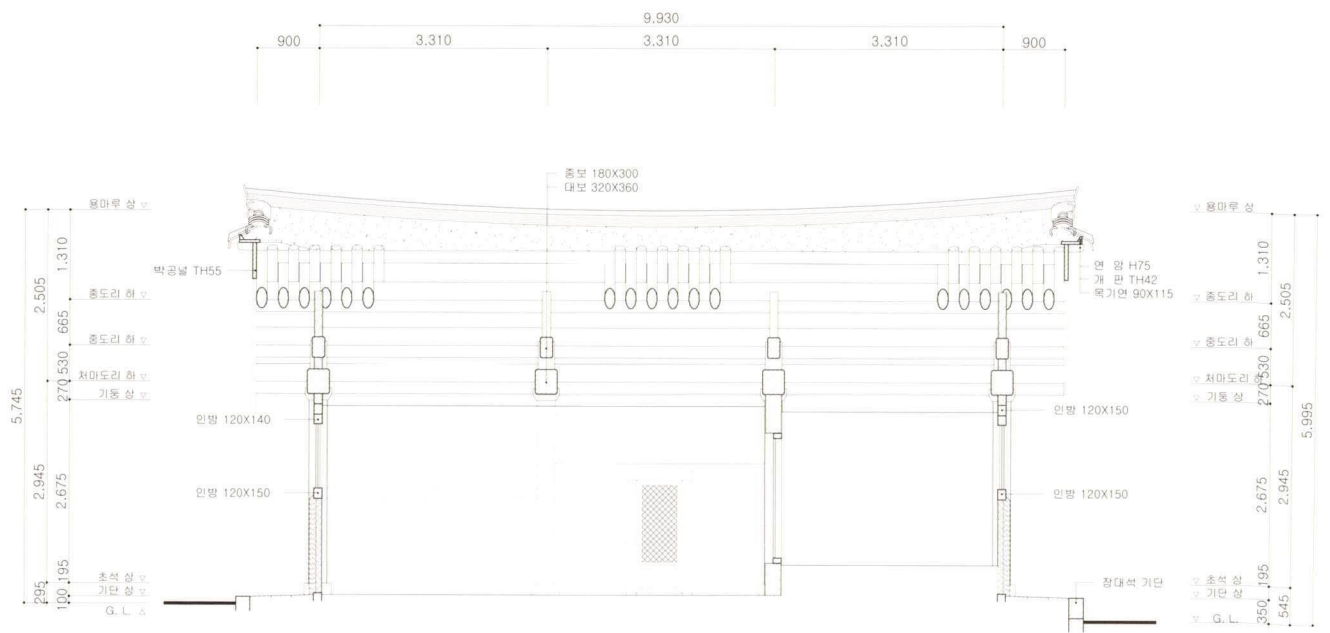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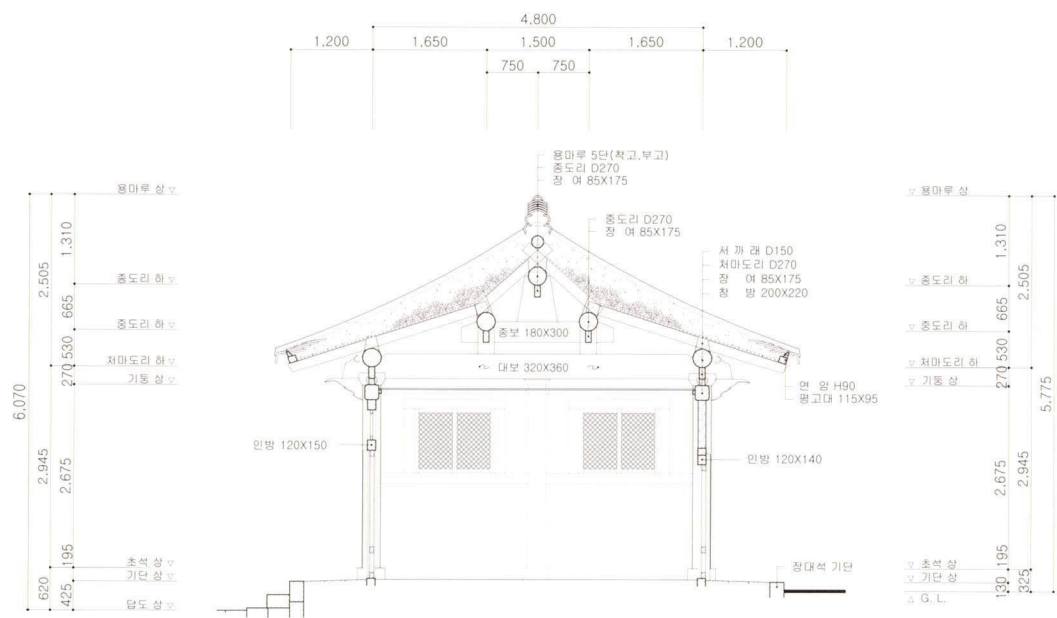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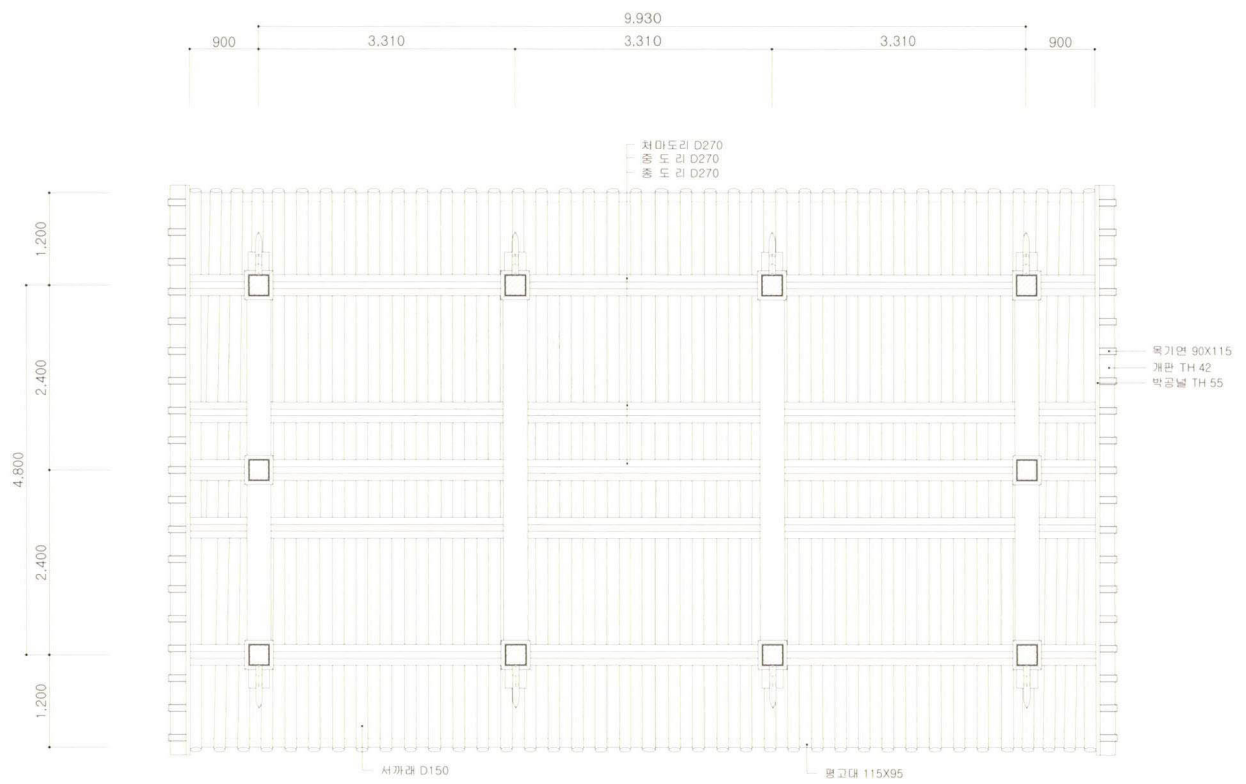
좌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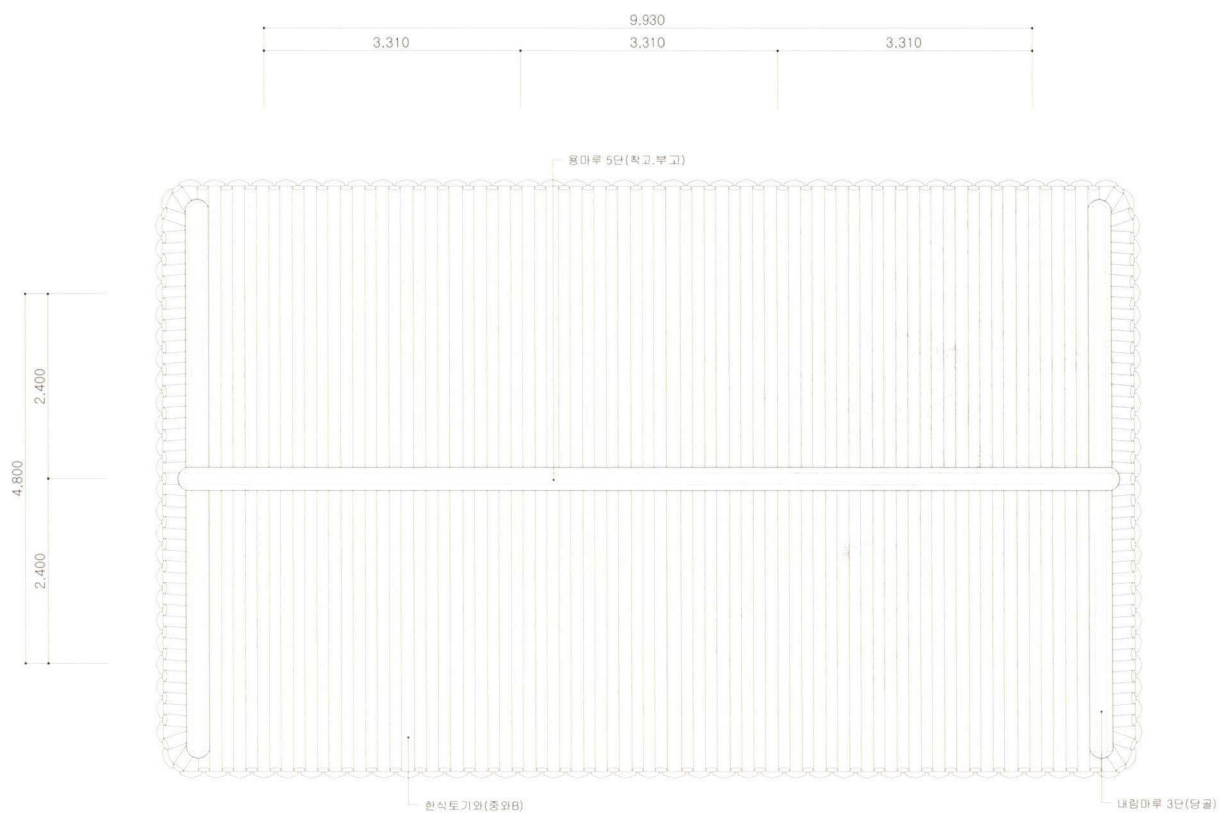
우 측 면 도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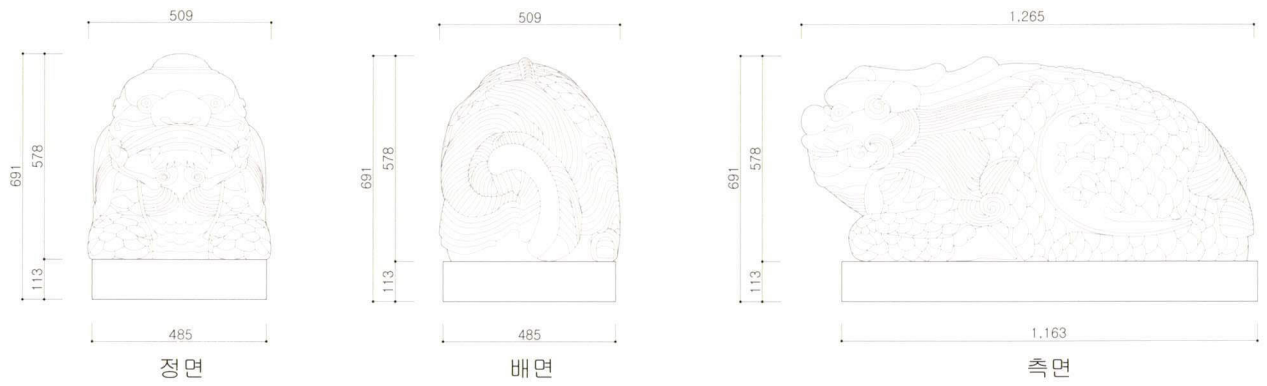


양 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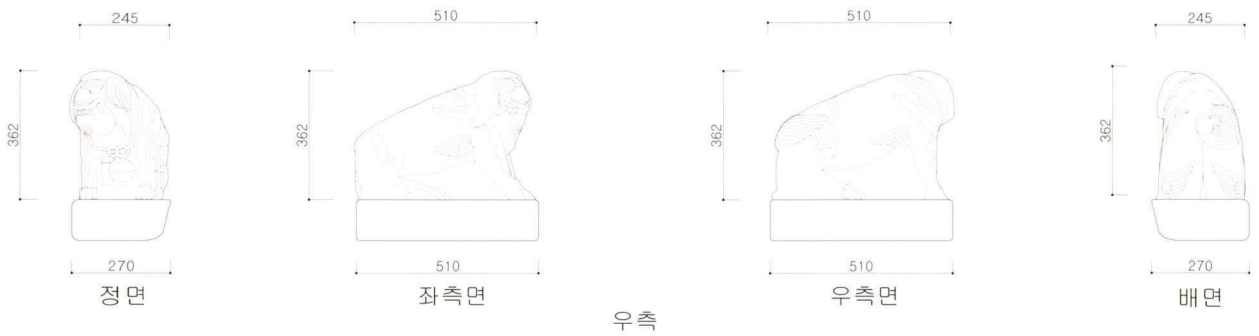


지붕 평면도





화장실 정면측 석물



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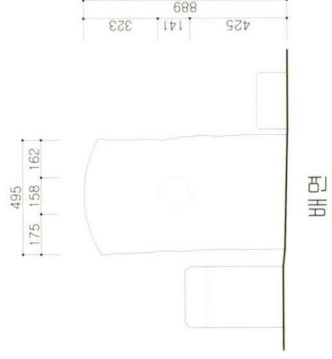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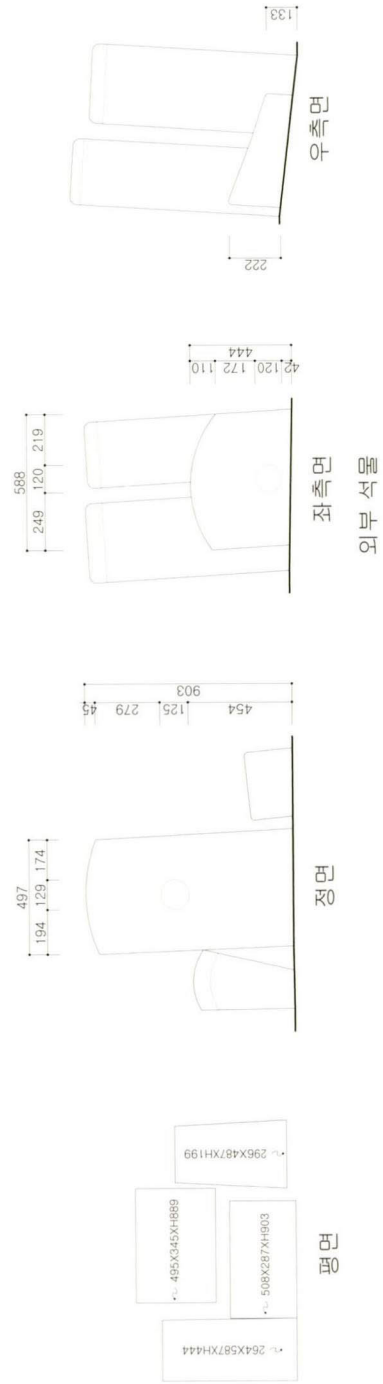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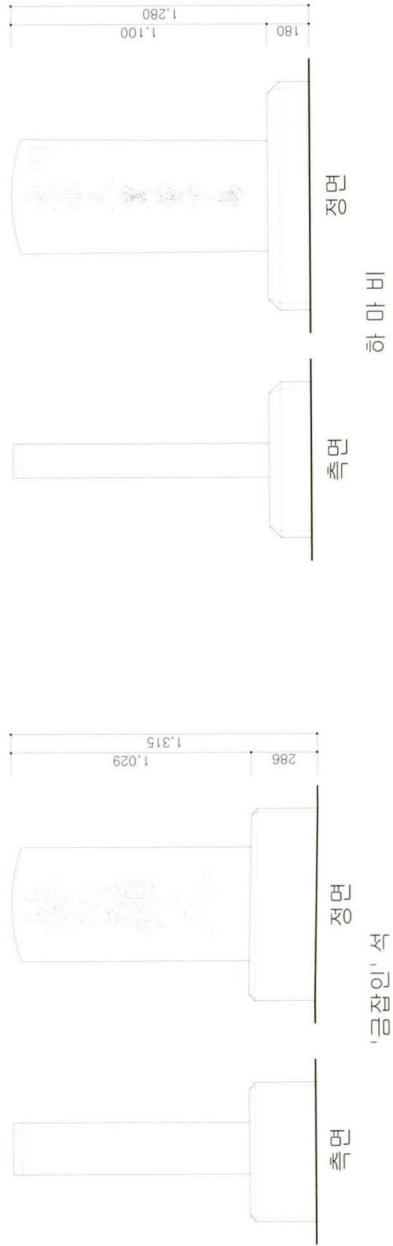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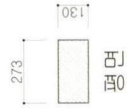


좌측

화장실 정면측 석물

석물 상세도 (1)





석물 상세도 (2)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외부 석물

좌측면

배면

좌측면

좌측면

좌측면



동묘 외부 전경(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묘 내부 전경(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묘 정전 전경(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묘 정전 전경(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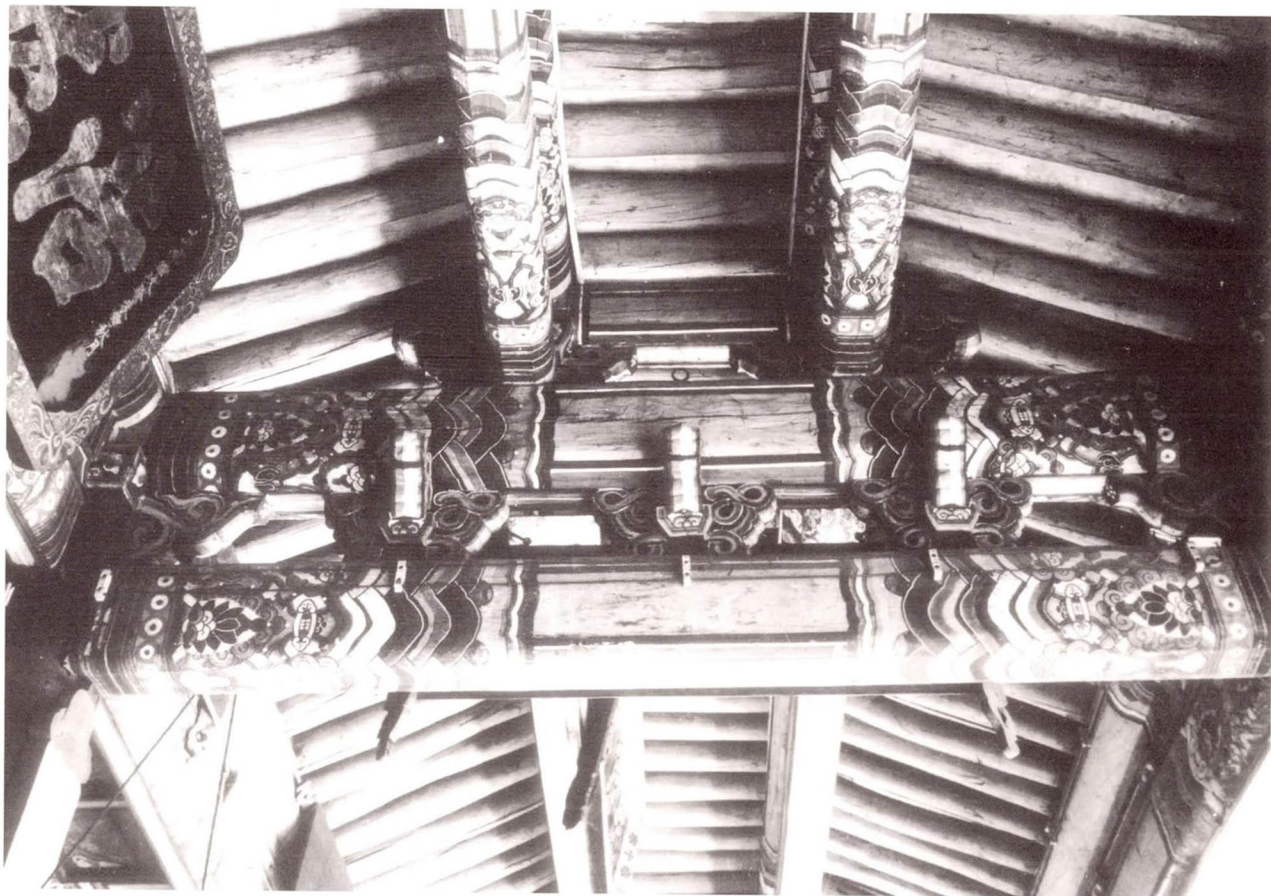
동묘 정전 정측면(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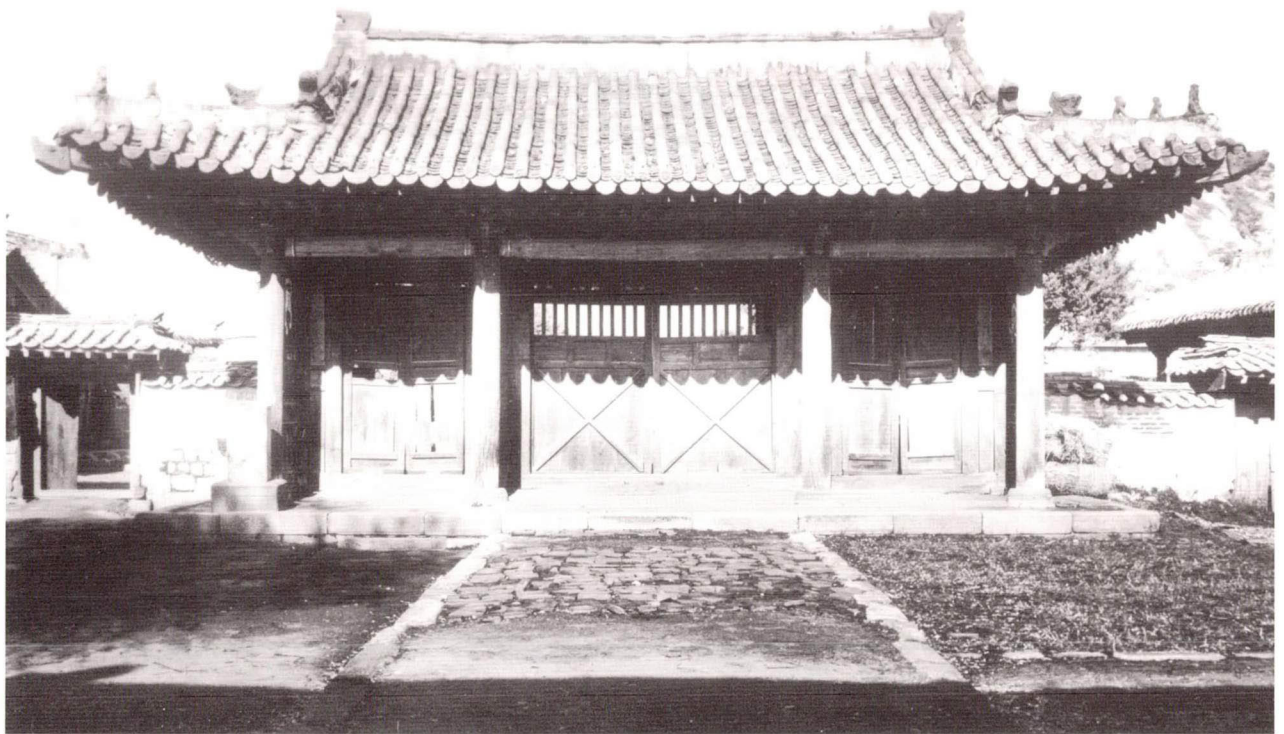
동묘 우측면 전경(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묘 전실 우측 합각부(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묘 정전 전실 천장(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묘 중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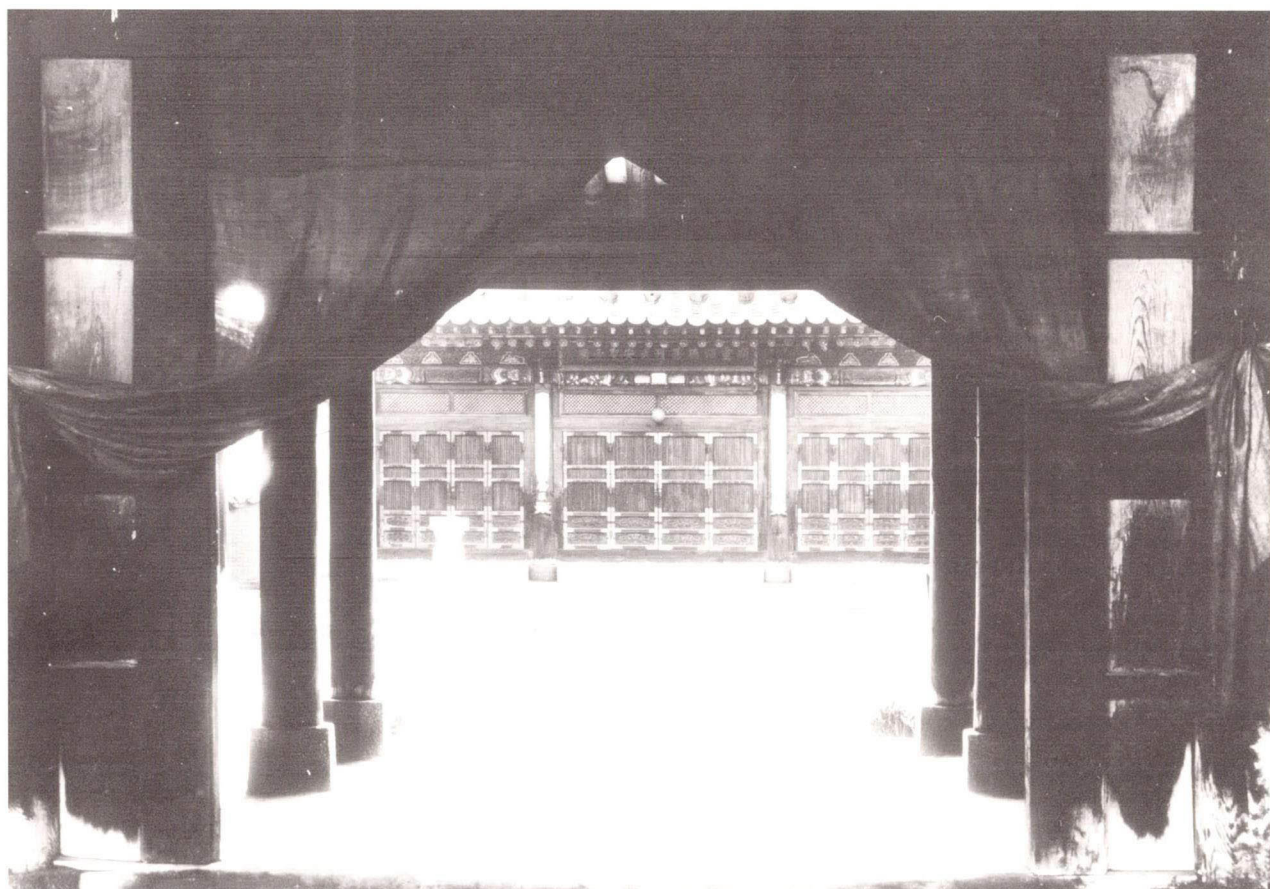
동묘 외문 협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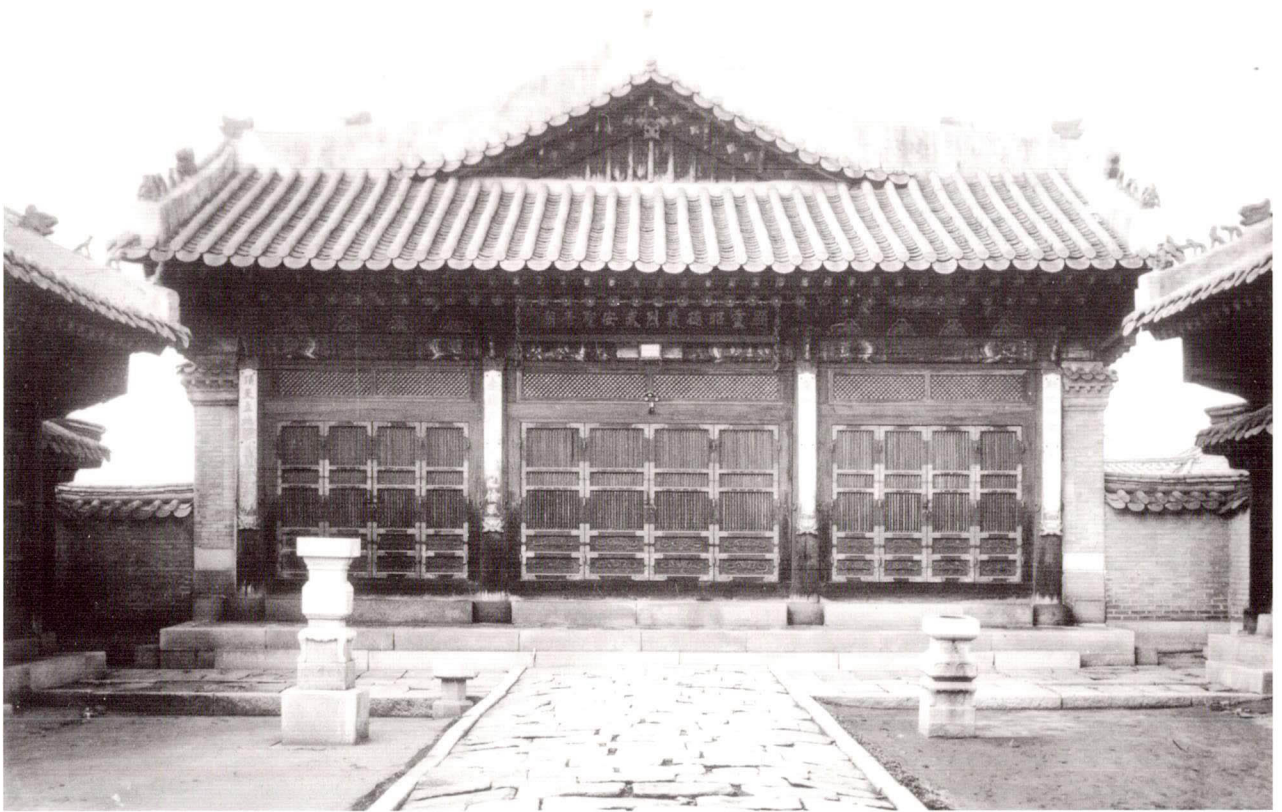
동묘 석자지로명(惜字紙爐銘) 굴뚝(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남묘 전경(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남묘 중문에서 본 정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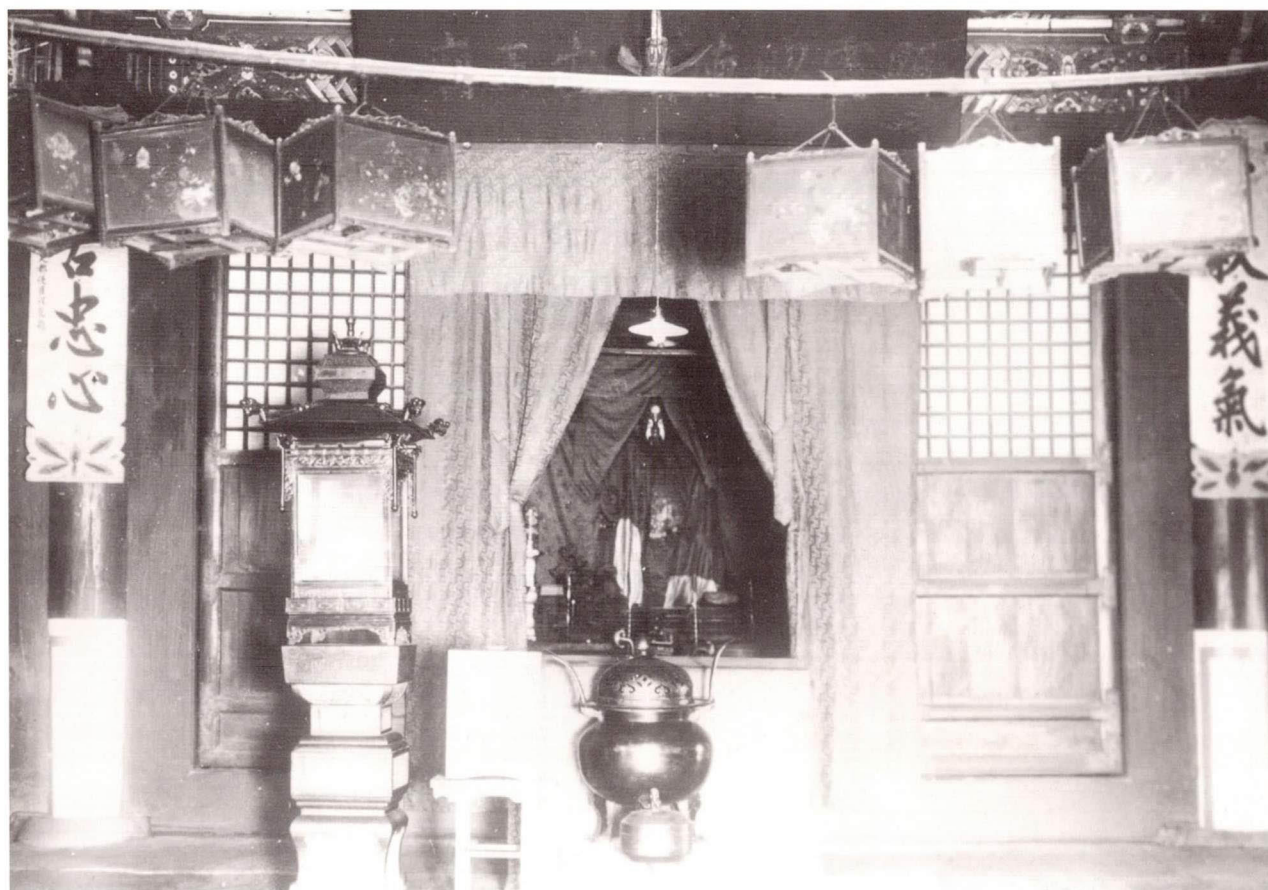
남묘 정전 전면(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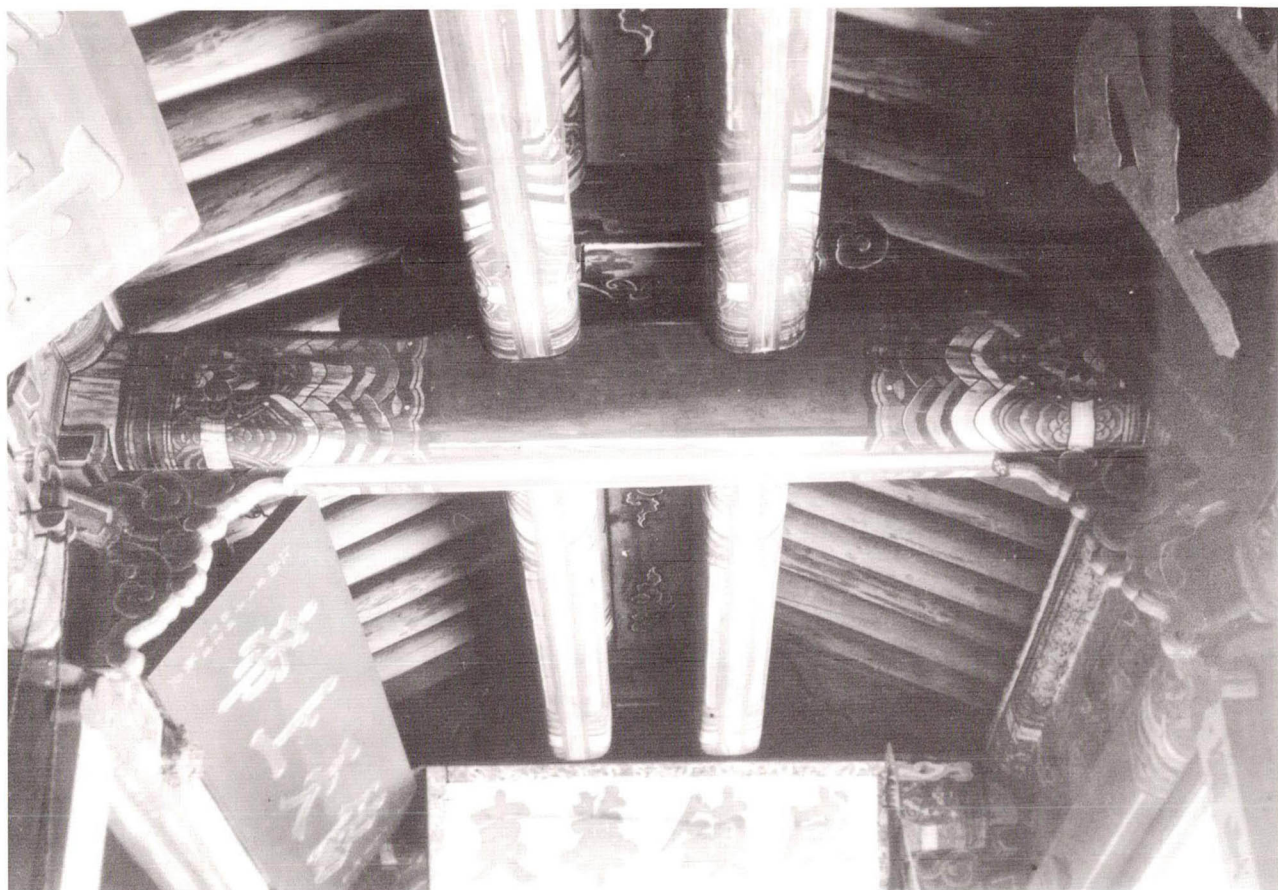
남묘 정전 전면(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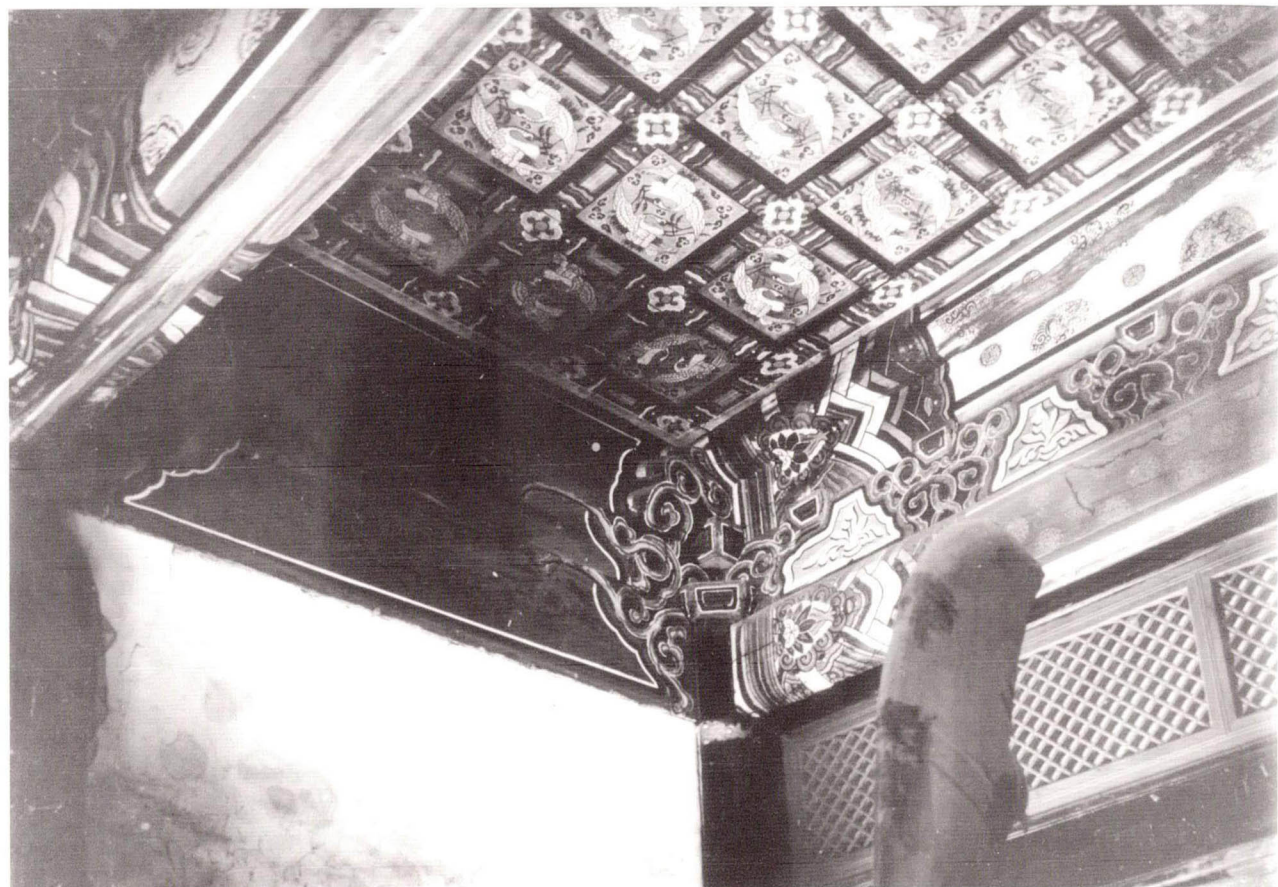
남묘 정전 측면(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남묘 정전 내부(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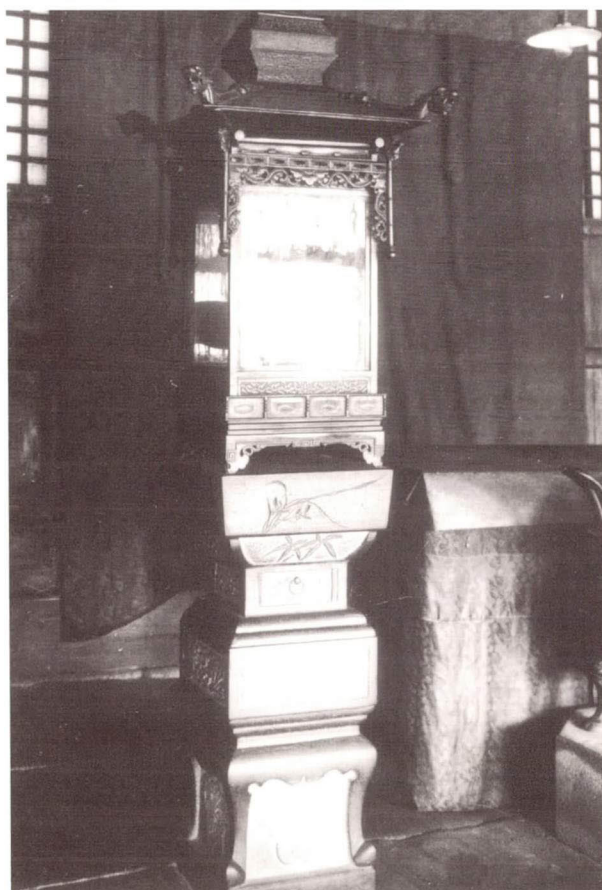
남묘 정전 전실 상부구조(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남묘 천장 및 가구(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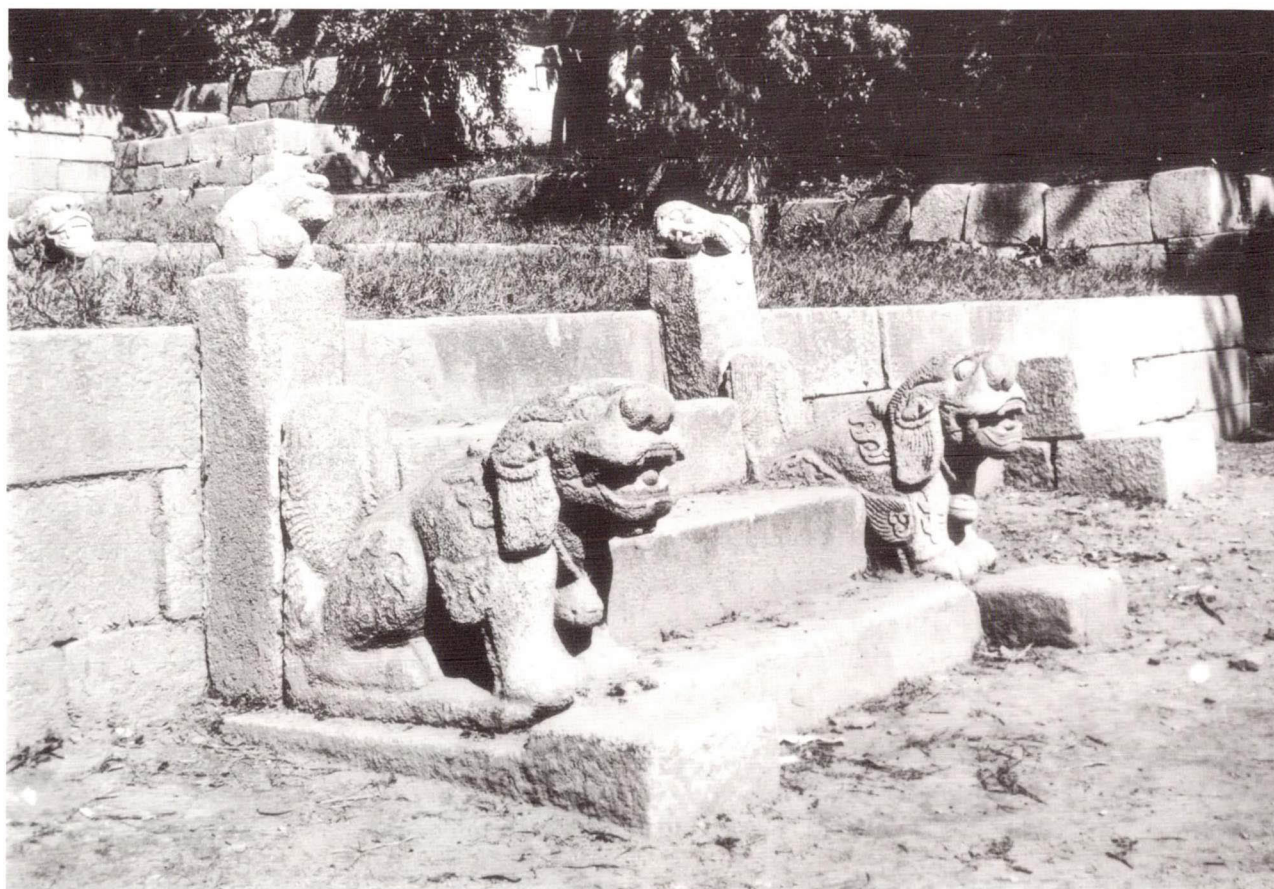
남묘 정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남묘 정전 내부 등명(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남묘 석사자(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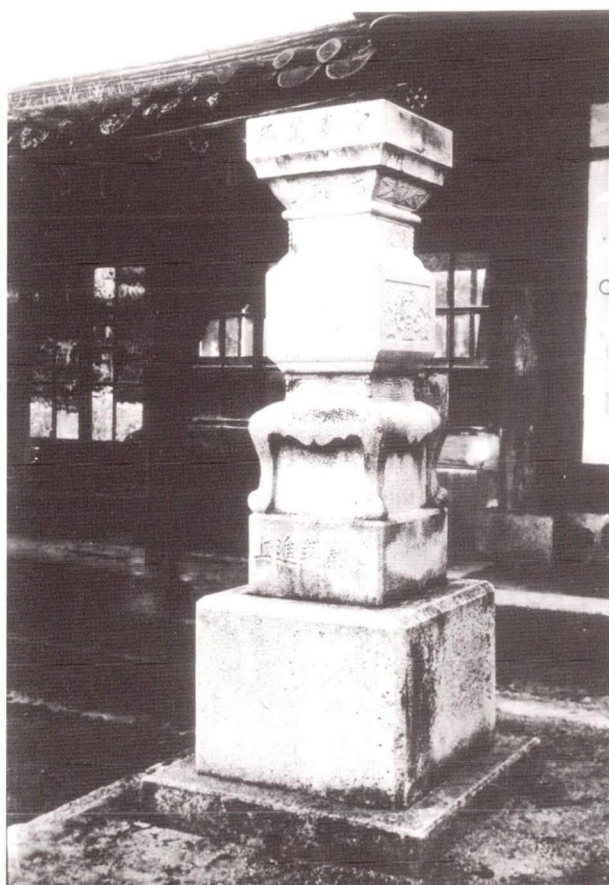
남묘 계단(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북묘 정전 정면(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북묘 비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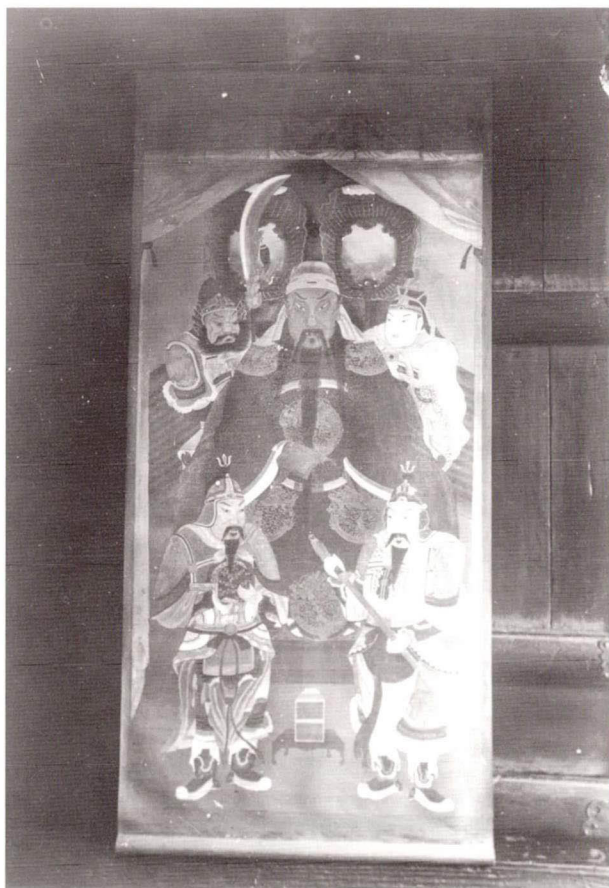
북묘 정전 내부 등룡대석(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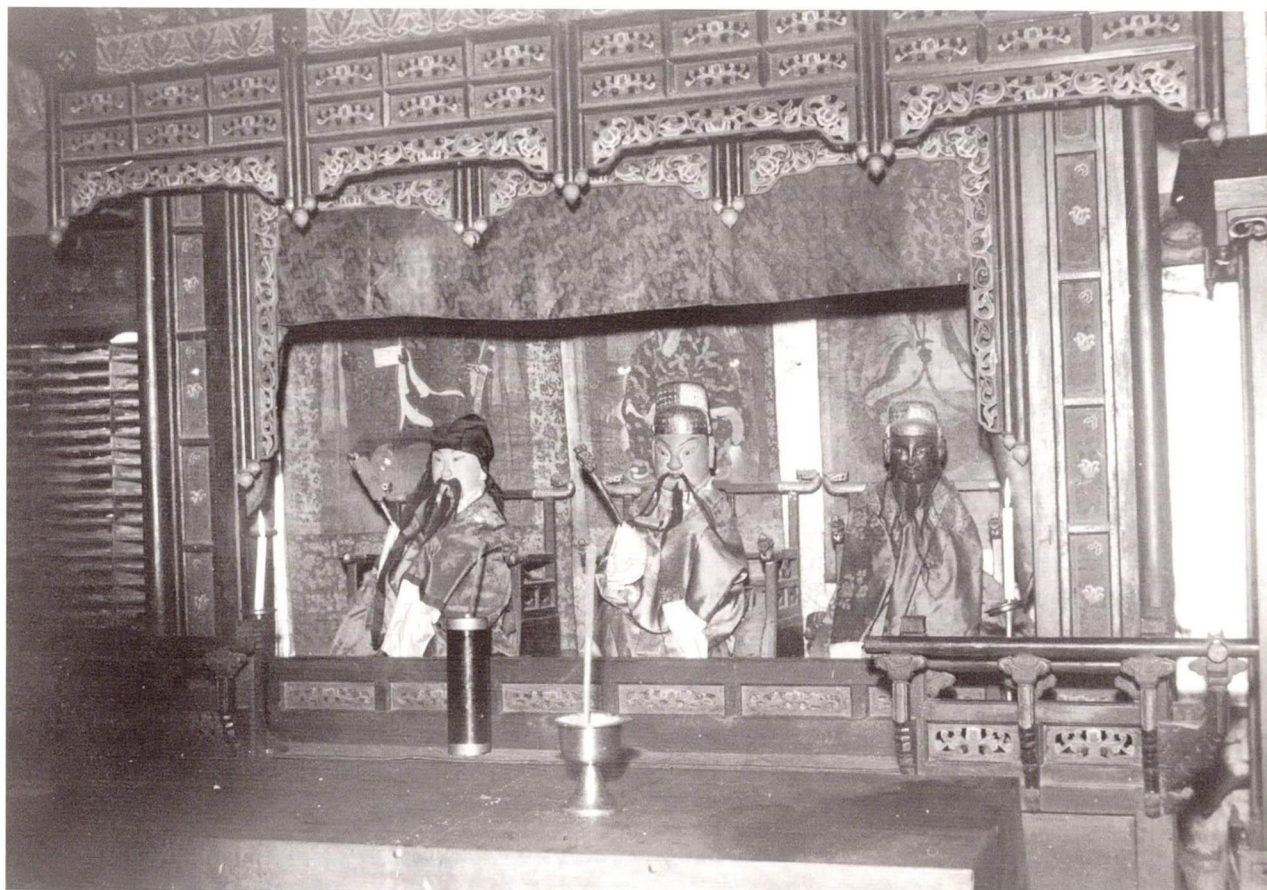
북묘 정전 외부 등룡대석(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북묘 생시관우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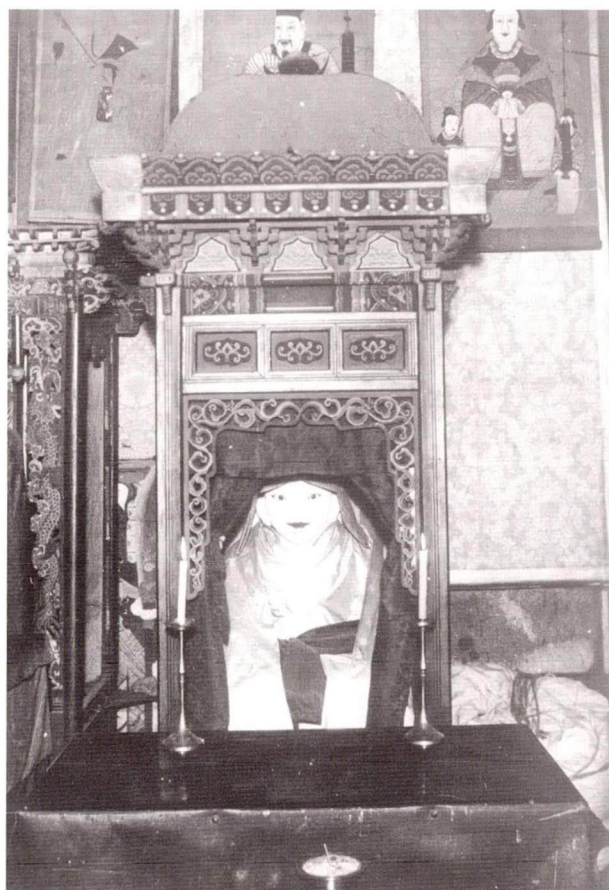
관성영정(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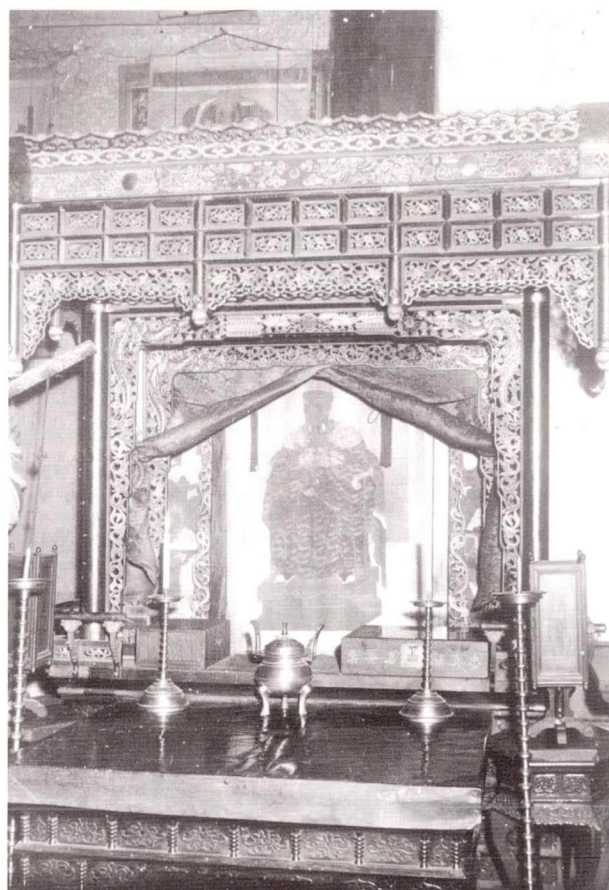
서묘 유비 · 관우 · 장비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묘 사장군 화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묘 옥전대사(측천대사)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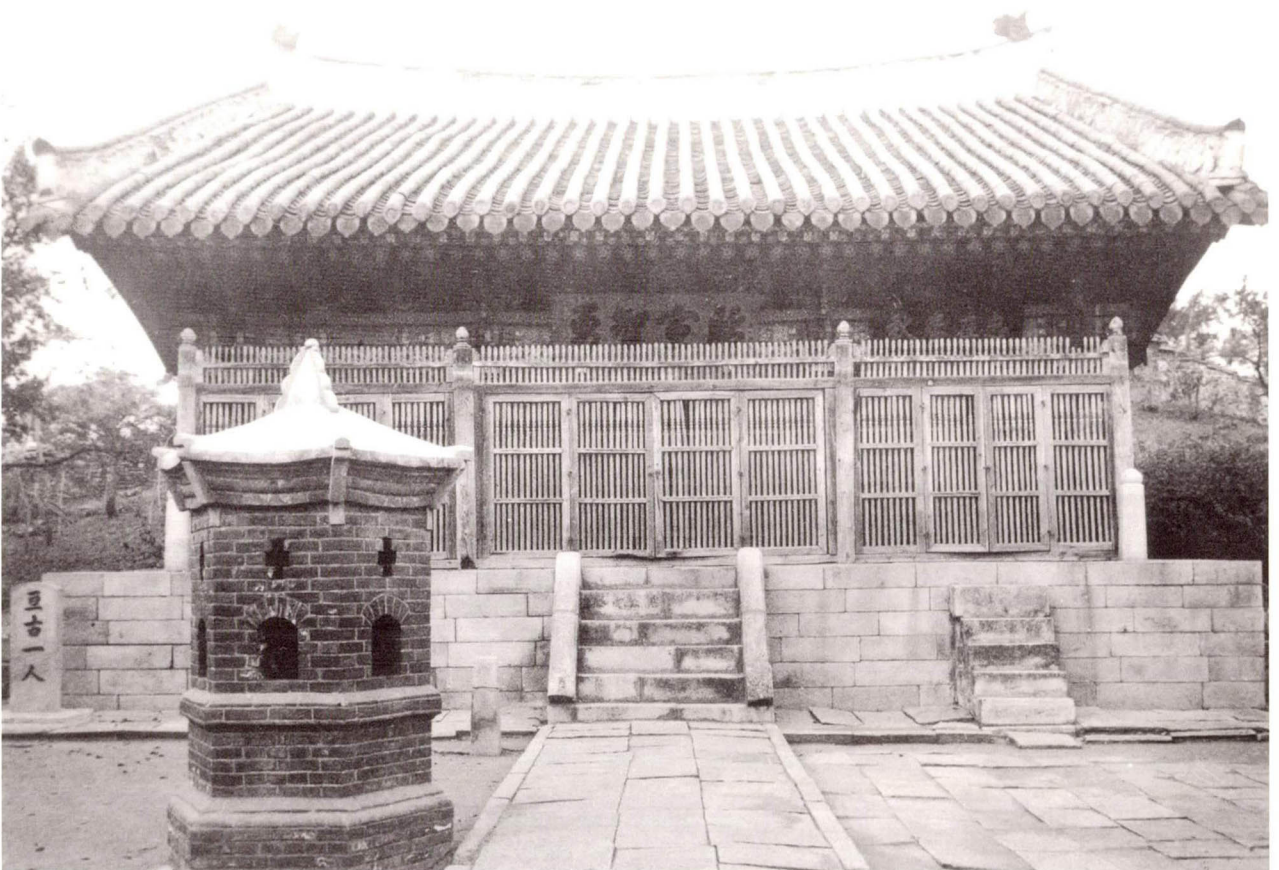
충진사 관성묘(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성주 관왕묘(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성주 관왕묘 정전 전면 처마(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평양 관세묘 정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평양 관제묘 문루(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개성 관제묘 정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전 전경(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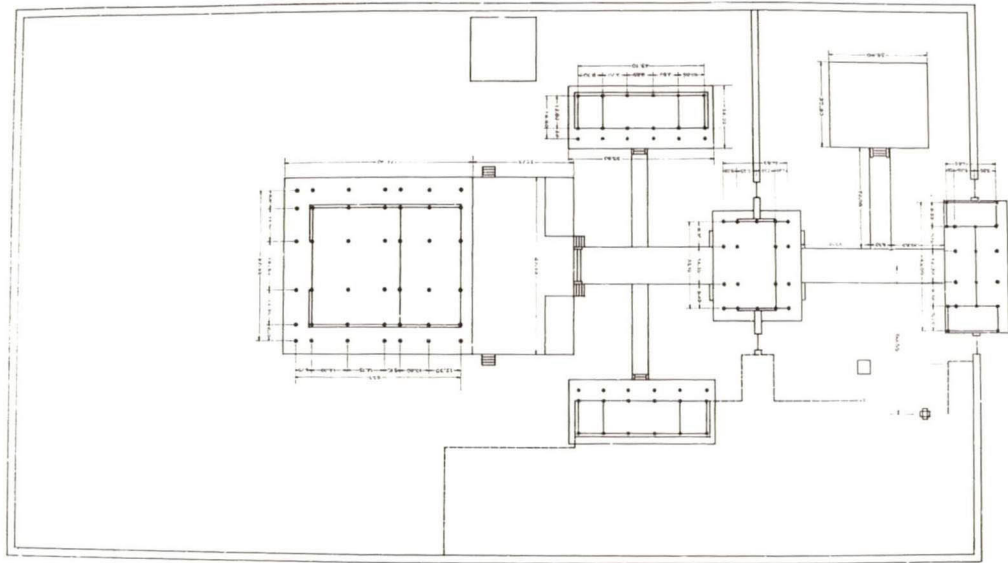
정전 측면 가구(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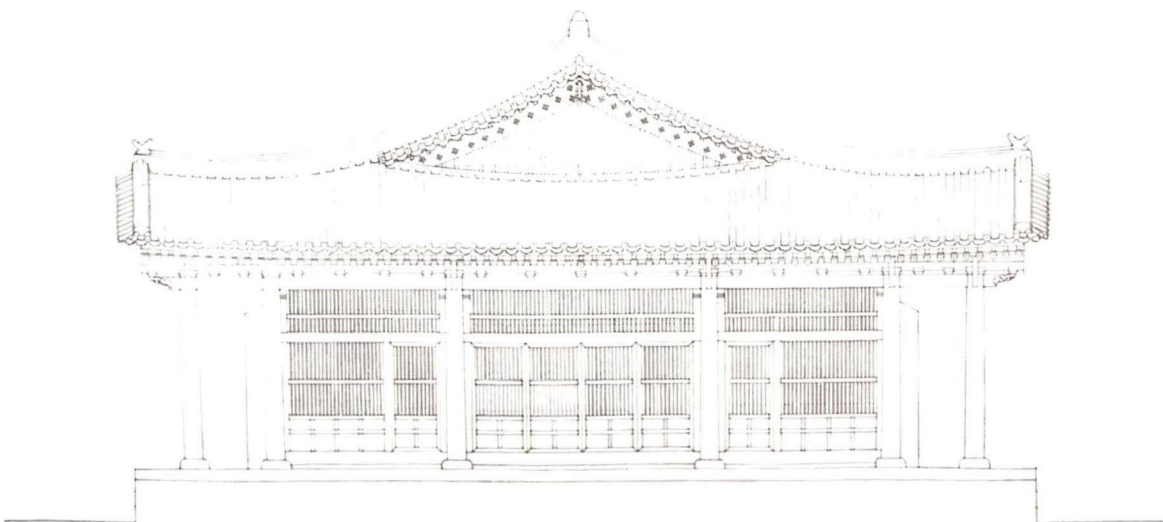
동묘 정전 내부 천장(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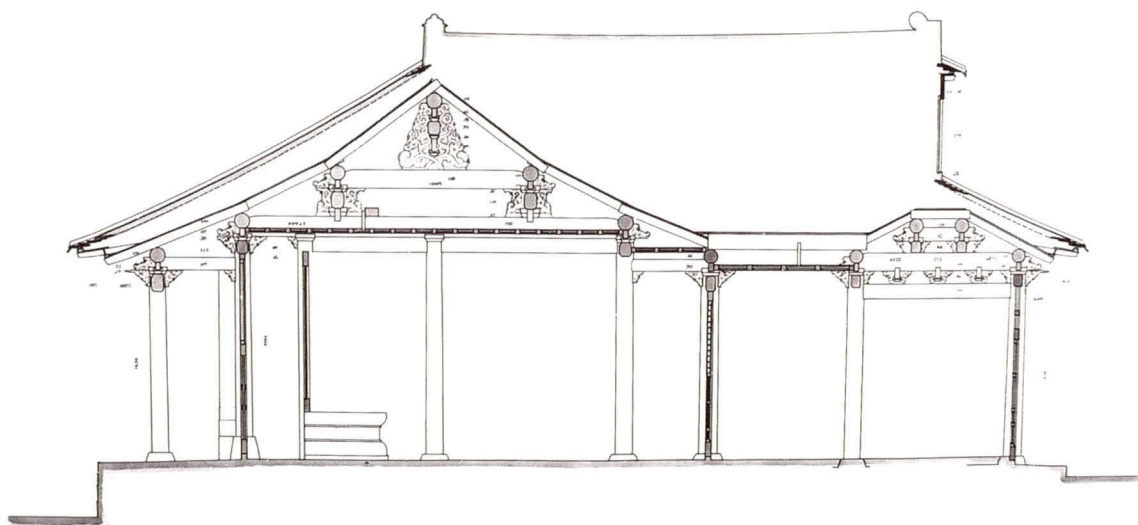
동묘 정전 내부 가구(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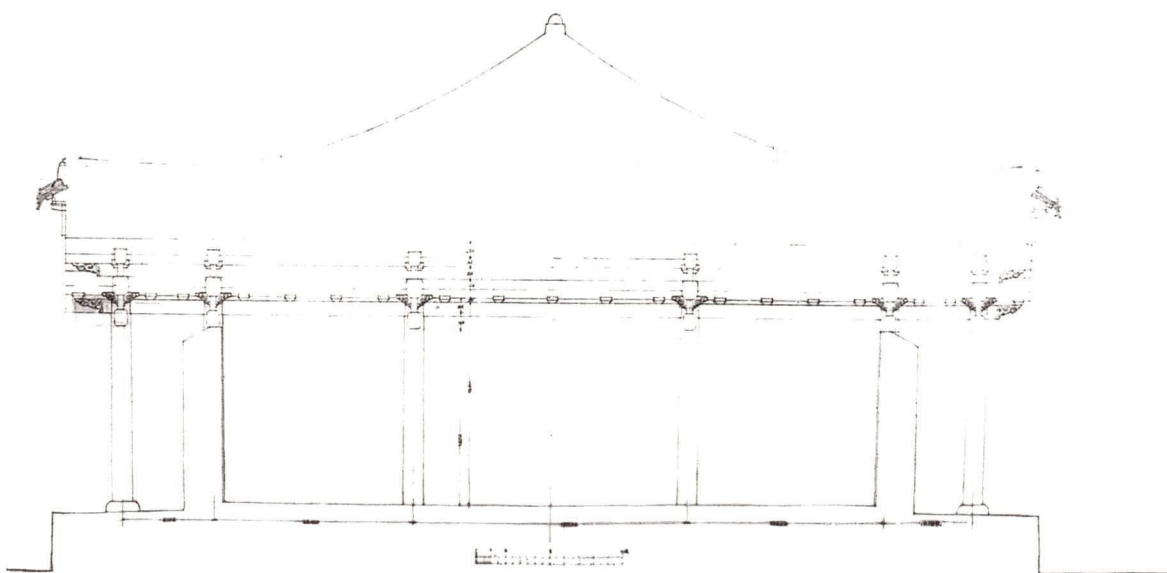
동묘 배치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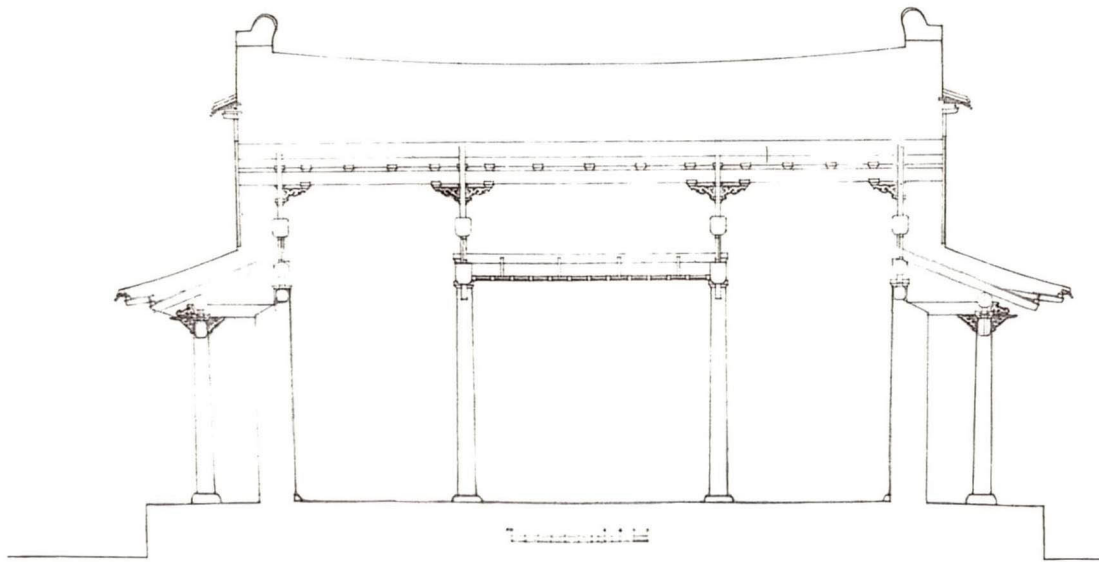
동묘 정전 정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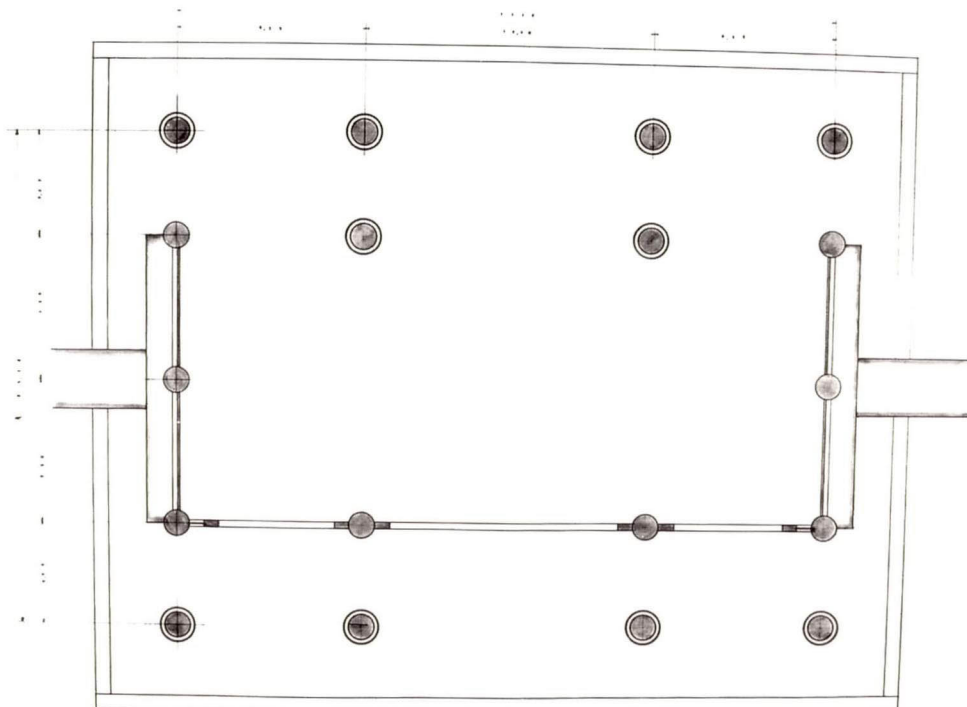
동묘 정전 종단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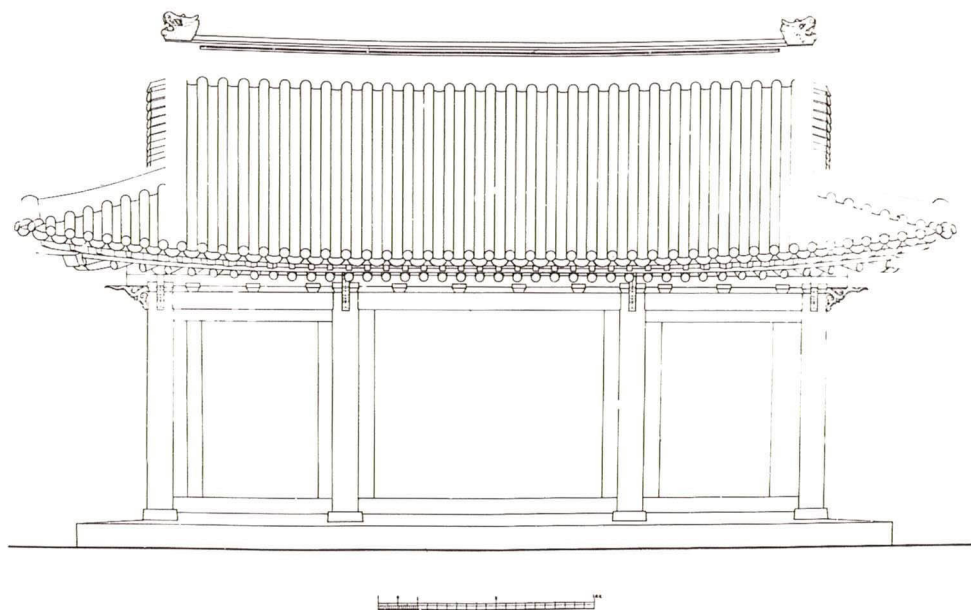
동묘 정전 횡단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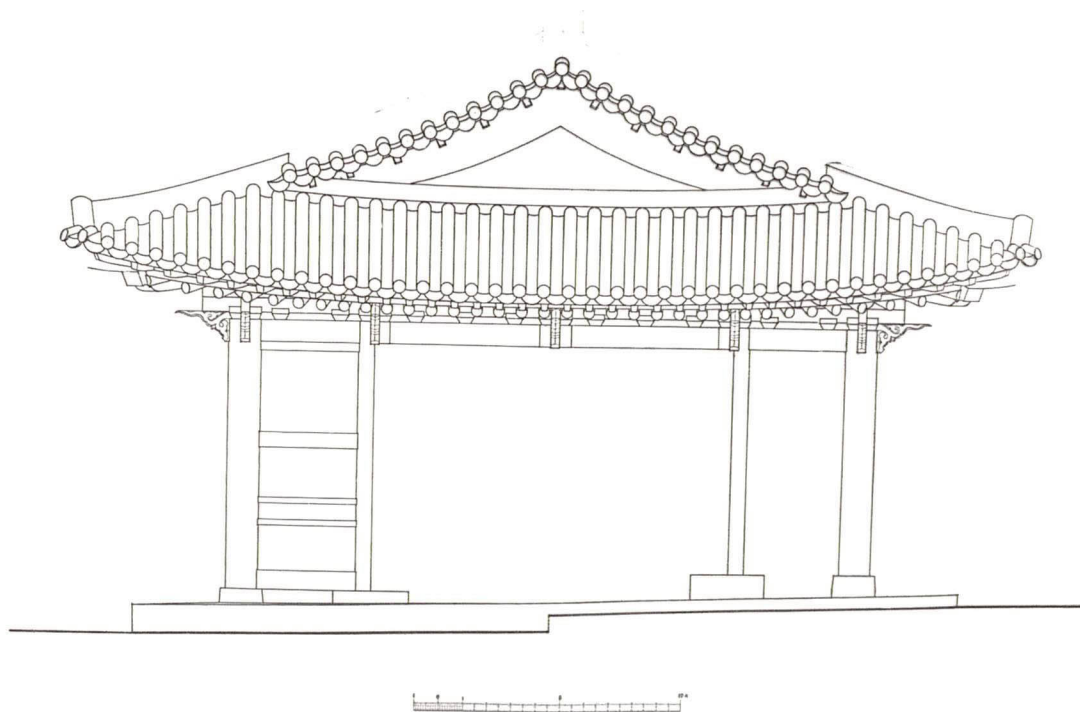
동묘 정전 횡단면도(2)(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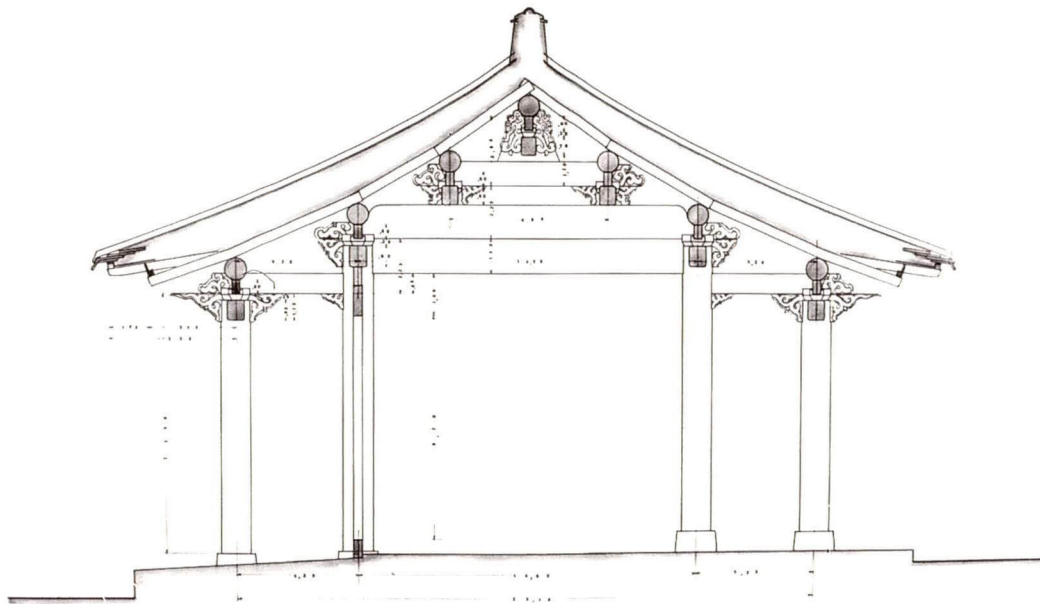
동묘 중문 평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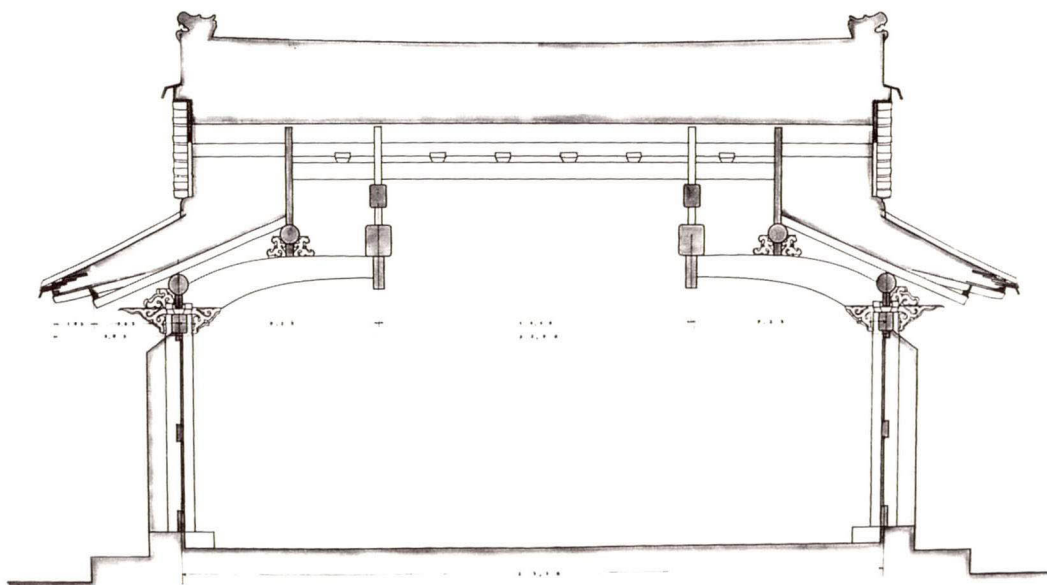
동묘 중문 정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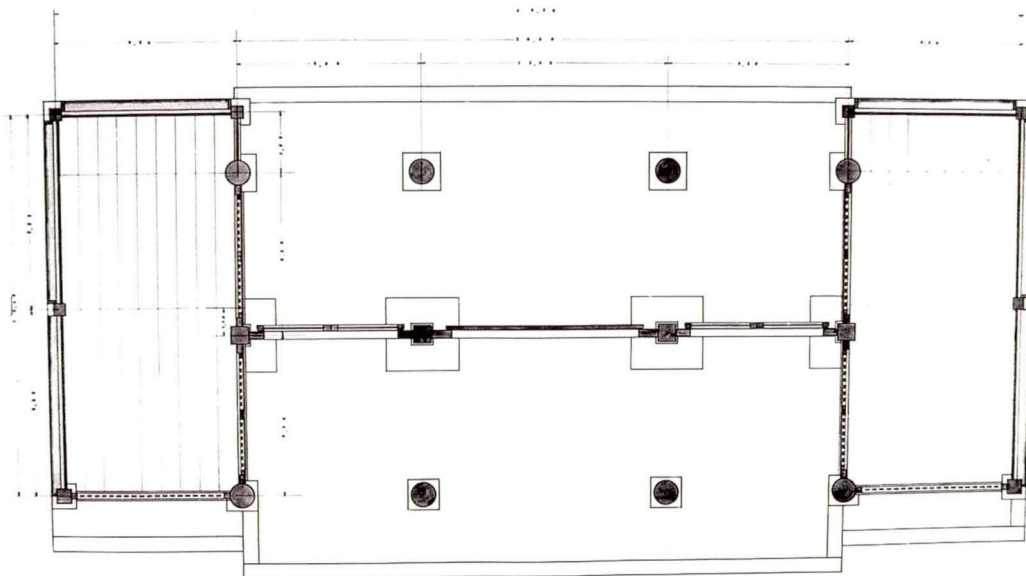
동묘 중문 측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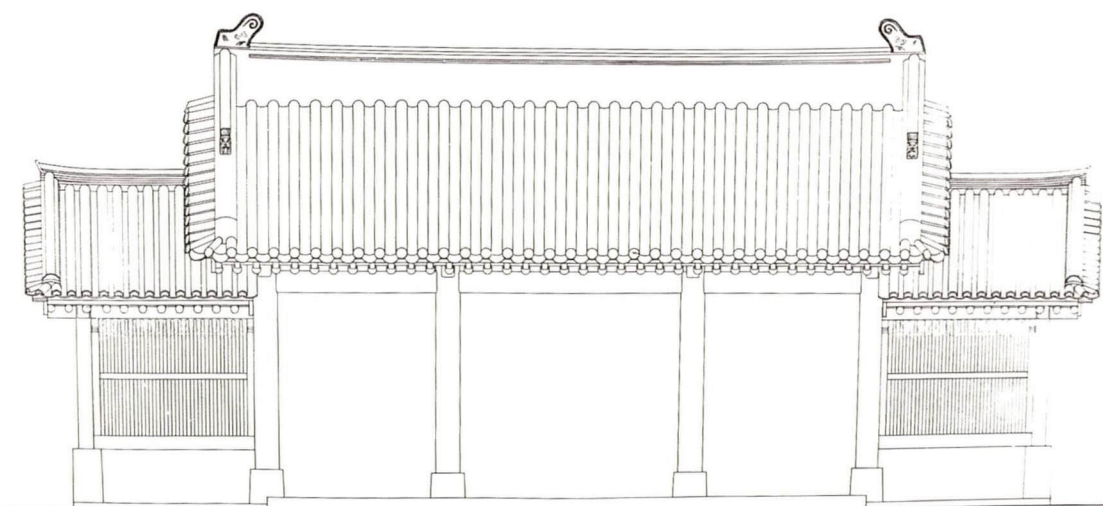
동묘 중문 종단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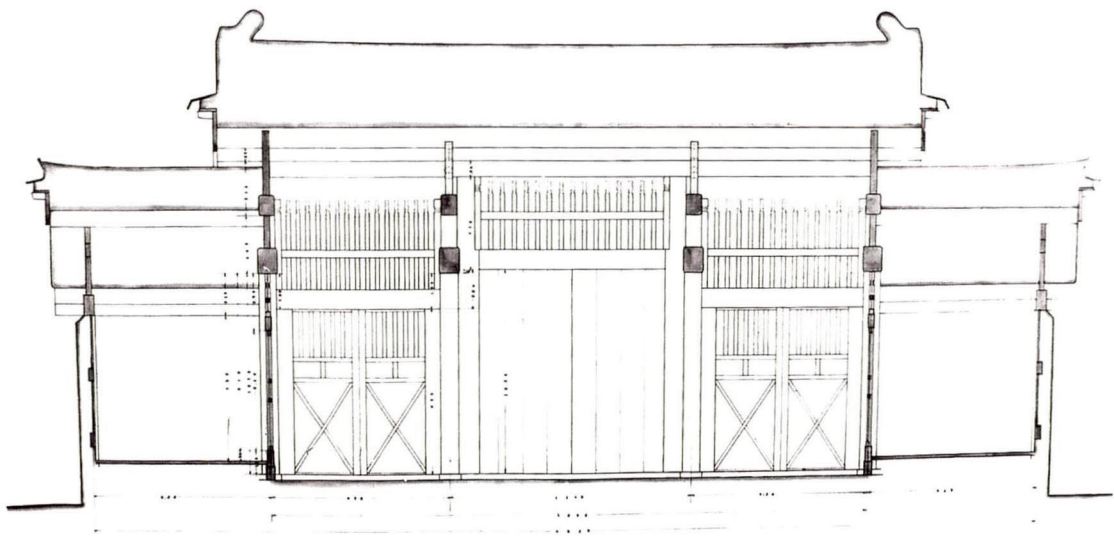
동묘 중문 횡단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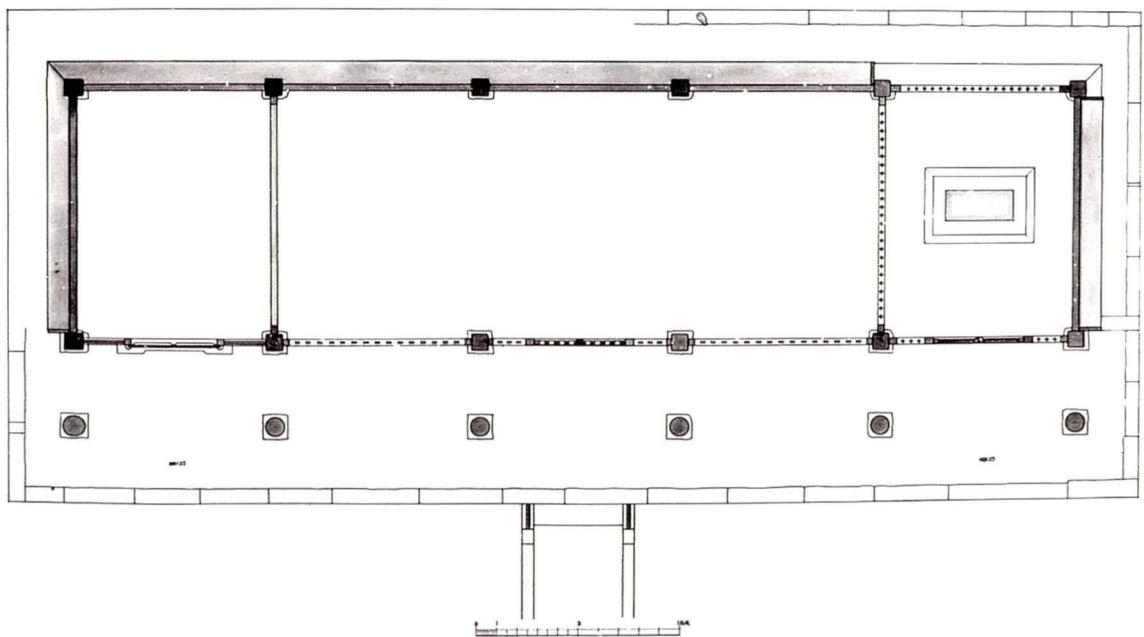
동묘 정문 평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묘 정문 정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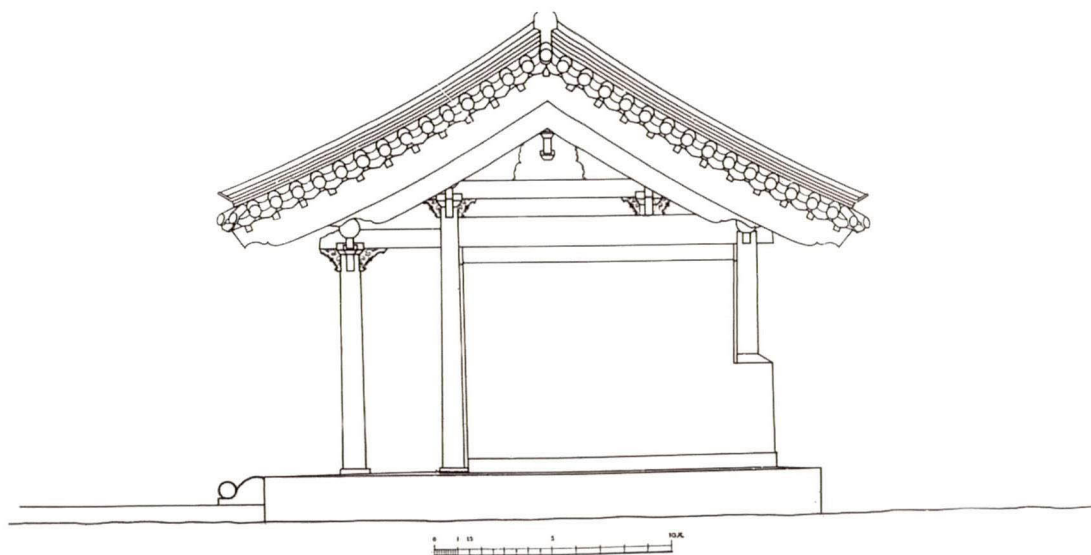
동묘 정문 횡단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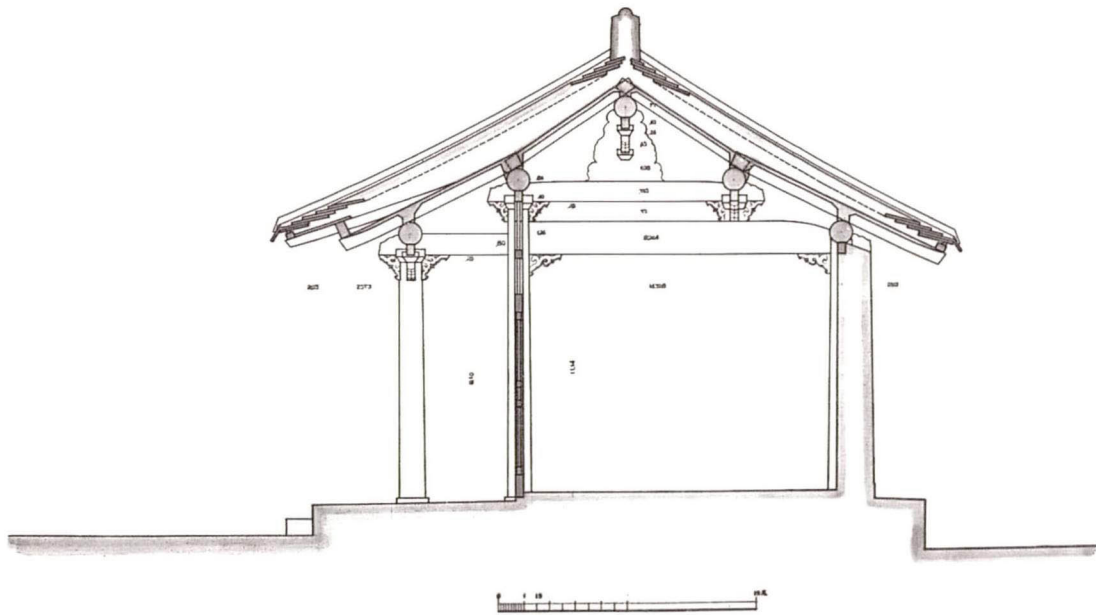
동묘 서문 평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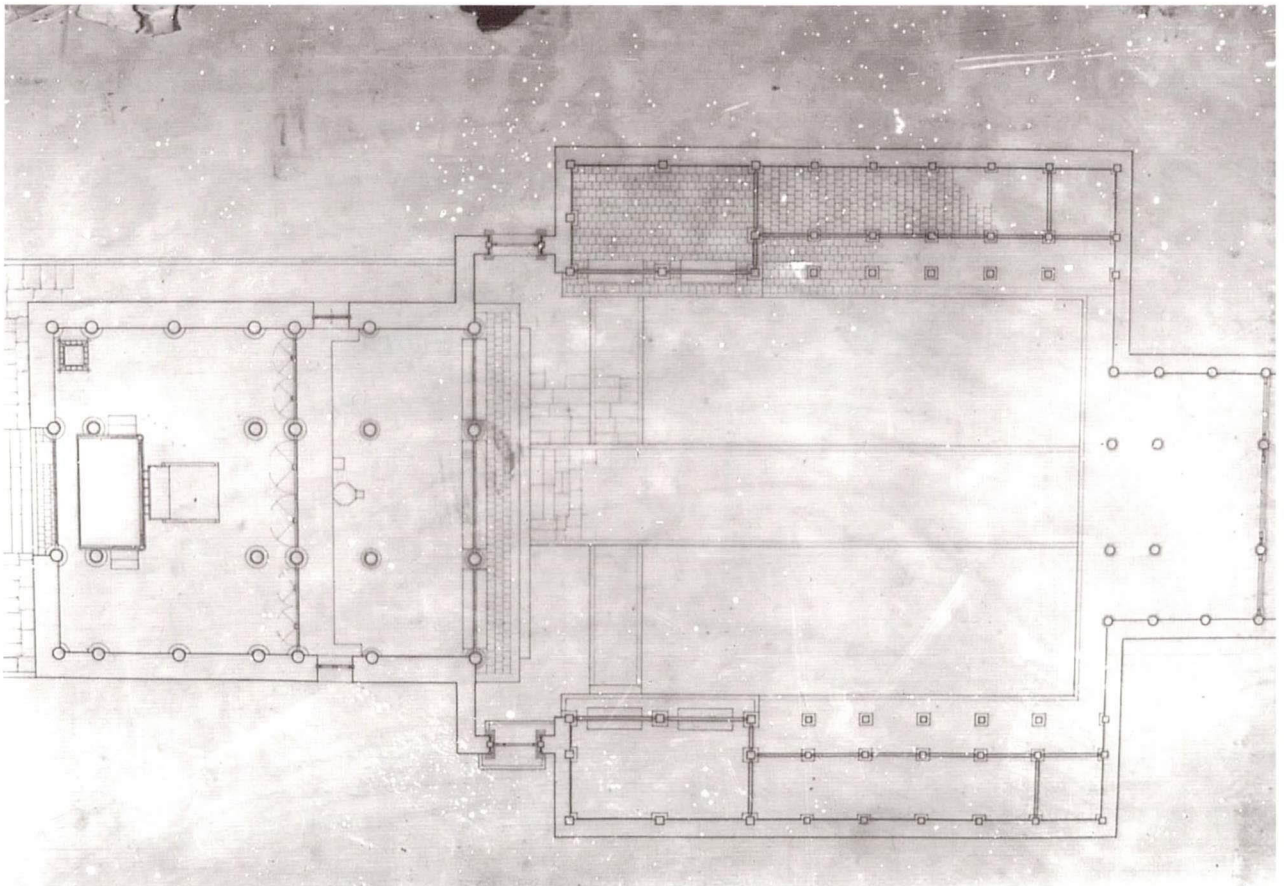
동묘 서문 정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묘 서문 측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묘 동무 종단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남묘 배치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東廟의 建築



부록

동묘 소장유물(東廟 所藏遺物)

전각	유물명칭	제작연대	비고
정 전	사시관우상	1604년	1746년 補修
	생시관우상	1883년	北廟 유물
	장비상	未詳	
	우장군상	未詳	
	왕장군상	未詳	
	조자룡상	未詳	
	황보장군상	19세기 後	北廟 유물
	황충상	19세기 後	
	주창상	19세기 後	
	관평상	19세기 後	
	유비 · 관우 · 장비상	20세기 初	西廟 유물
	옥천대사상	20세기 初	
	사시관우상 우측동자상	未詳	
	사시관우상 좌측동자상	未詳	
동 무	무안왕묘비 (武安王廟碑)	1785년 1900년 再刻	景慕宮, 正祖 御筆 集字
	철제언월도	未詳	2기
	북(鼓)	未詳	3기
서 무	무안왕묘비 (武安王廟碑)	1785년	肅宗, 英祖 御筆 集字
기 타	금잡인석비(禁雜人石碑)	未詳	총 24기
	하마비(下馬碑)	未詳	
	기타 석물 (庭燎臺 外)	未詳	

관우상 및 관왕묘비 해설

1. 관우상(關羽像)

동묘는 임진왜란 이후 1601년(조선 선조 34)에 세운 것으로, 1691년(조선 숙종 17)에 부분적으로 개수하였고, 1739년(조선 영조 15)에 중수하였다.

이 묘는 공자(孔子)를 모시는 문묘(文廟)에 대비하여 무장(武將)을 모시는 무묘(武廟)로 임진왜란 때 참전한 명나라 장군 진린(陳璘)이 부상으로 서울에 머물렀던 곳을 관왕묘로 건립한 것이 시초이다. 1598년에 남관왕묘(南關王廟), 1883년 북묘(北廟), 1902년에 서묘(西廟)가 세워졌으나, 현재 동묘만이 남아 있다.

관우(關羽, 160~219)¹⁾는 중국에서 신격화되어 각 처에 묘사를 지어 제사를 지내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부터 전국의 수개 처²⁾에 세워졌다. 관우의 신격화는 유비, 장비와의 의리와 충성심, 용맹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강한 남성의 표본으로 삼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인들은 무신(武神)과 재신(財神)으로서 민중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관우 이외에 장비(張飛)·제갈공명(諸葛孔明)·조자룡(趙子龍)·황충(黃忠)·강유(姜維)·마초(麻超)·마속(馬



△ 사시관우상



△ 우장군 · 장비상



△ 왕장군 · 조자룡상

1) 관우는 중국 촉한(蜀漢)의 유명한 장수로 자는 운장(雲長)이고 하동(河東) 해항(解梁) 출신이다. 유비(劉備), 장비(張飛)와 결의형제를 맺고 의병을 일으켜 촉한 건국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고 한다. 서진(西晉)의 진수(陳壽)가 삼국지 65권의 정사(正史)인 『삼국지(三國志)』보다 원말명초(元末明初)에 나관중(羅貫中)의 소설인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소개되어 더 유명하다.

2) 관우를 모시는 사당은 안동 관왕묘(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0호)를 비롯하여 수원 · 남원 · 전주묘 등이 남아 있다.

3) 영동 당곡리 십이장신당(충청북도 민속자료 제2호)에는 12장군을 봉안하고 있다.

4) 북묘의 폐사는 1913년 5월에 합사했다는 기록(『경성부사』제1권, 1934)과 대한매일신문 1910년 5월4일자 기사 등이 있는데 전체 기록은 일치하지 않지만 1910년경에 폐사된 것으로 본다.

護)·요화(寥化)·위연(魏延)·비위(費禕)·마축(麻竺) 등의 12장군³⁾을 봉안하기도 한다.

이 정전 내에는 사시 관우상을 중심으로 장비·우장군·왕장군·조자룡상과 생시 관우상을 중심으로는 황보장군·황충·주창·관평·옥천대사·장비·관우·유비상 등 여러 상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복묘와 서묘가 동묘에 합사⁴⁾되면서 함께 봉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의 배치는 잘 알 수 없다. 사시 관우상은 1604년, 생시 관우상은 1883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1604년에 처음 조성된 관우상은 1746년(조선 영조 22)에 일부 소상들을 보수하였다고 한다.

관우상은 의자에 제왕의 모습으로 머리에는 원류관(遠流冠) 쓰고 있다. 큼직한 얼굴에 무르익은 대추와 같은 붉은 얼굴빛, 두 자나 되는 긴 수염, 부리부리한 눈을 묘사하여 영웅적인 기색을 표현하고 있다.⁵⁾ 소조(塑造)에 채색을 하고 얼굴은 금칠을 하였고, 황금빛 옷을 입고 있다. 크기는 높이 2518cm 로 당시 임진왜란 직후의 대대적인 불사건축과 17세기 전반기 대형 소조불상의 조성과 더불어 비교할 만하다. 관우상의 좌우로는 시동(侍童)이 서 있고, 그 앞으로 4구의 장수들이 무기를 들거나 각기 손동작을 짓고 있다.

중국 명(明) 신종(神宗)이 관왕묘의 건립비용과 ‘척견현령소덕왕관공지묘(勅建顯靈昭德關公之廟)’이라는 친필 현판을 보내왔다.⁶⁾ 그러므로 선조는 명의 정치적인 압력에 의하여 농번기를 피하여 동묘를 건립하였는데, 왕실과 관련된 장인에 의한 초상조각으로 짐작된다. 이 관우상은



△ 생시관우상



△ 주창,관평상



△ 황보장군·황충상

5) 관우 형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관왕의 소상(塑像)은 얼굴빛이 무르익은 대추와 같고 수염이 두 자나 되며 눈은 봉(鳳)의 눈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경재, 1993, 『서울定都六百年』 다큐멘터리 1-東大門이 움직인다.)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은 “관왕의 소상은 얼굴이 무르익은 대추빛같이 붉으며 봉(鳳)의 눈에 수염이 늘어져 배를 지났고, 그 위용(偉容)은 장엄(莊嚴)하여 영웅의 기상이 뚜렷하다. 그의 좌편에는 관평(關平)이 시립(侍立)하였고, 우편에는 주창(周倉)이 시립하였는데 살아있는 사람과 흡사하게 엄연한 모습이다. 이날의 대제(大祭)는 관왕의 생신일로서 하늘이 어둡고 비가 쏟아지는 이상(異狀)이 있는 날이며 관왕이 나타나 이를 다스린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날은 천기(天氣)가 청명타가 오후에 풍운이 사면에서 일어나고 대풍이 서북면에서 불어와서 뇌성(雷聲)과 폭우가 섞이어 온누리를 뒤엎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어 중인(衆人)이 모두 기뻐 날뛰며 관왕이 하림(下臨)하였다고 하였다. 묘전(廟前)에는 장우 두 개를 세우고 기를 달았는데 그 글자의 크기가 석가래 만하여 바람이 불어 반공(半空)에 휘날리니 사방에서 이를 우러러 보며 기뻐하였다 (『서울의 전통문화』 제1권, 1983, 서울특별시)

6) 현재 동묘에는 광무 연간(1897~1907년)의 “현령소덕의열무안성제묘(顯靈昭德義烈務安聖帝廟)”라는 현판이 2개 걸려 있다.



△ 옥천대사상



△ 유비 · 관우 · 장비상

임진왜란 직후 새로운 문화의 유입에 의해 조성된 도교적인 초상조각으로 불교조각 이외의 유교 및 도교 조각이 등한시 되었던 점은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대상이다.

2. 관왕묘비(關王廟碑)

동 · 서무에는 2기의 비가 있다. 2기의 비는 숙종(肅宗) · 영조(英祖) · 경모궁(景慕宮, 莊獻世子, 추존 莊祖) · 정조(正祖)의 어필로 '사조어제무안왕묘비(四朝御製武安王廟碑)'라고 불리는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비문의 탁본첩이 소장되어 있다.

관왕묘비는 1785년(조선 정조 9) 11월에 세웠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동묘와 남묘에 장차 두 개의 비를 각각 세우려 한다. 숙종조(肅宗朝)의 어제(御製)와 선조(先朝)의 어제(御製)는 일비(一碑)에 합하여 새기고, 경모궁(景慕宮)의 예제(睿製) 및 내가 지은 것을 한 비에 합하여 새겼다. 대체로 숙종조의 어제는 곧 도상명(圖像銘)으로서 어필족자를 동묘에 봉안하였었다. 그러므로 받들어 가져다가 모각(模刻)하였고, 선조의 어제묘기(御製廟記)는 어필을 집자(集字)하였으며, 경모궁의 예제는 숙종조의 도상명운(圖像銘韻)을 차운(次韻)한 것으로 역시 예필을 집자한 것이다. 소자(小子)는 원운(元韻)을 삼가 차운하여 묘비명을 지은 것으로 모두 규장각(奎章閣)으로 하여금 모사하여 올리게 하였다.”⁷⁾

비문의 내용은 숙종은 관우의 용맹과 충절을 찬양한 글이고, 영조는 동 · 남의 관왕묘를 세우고 신앙을 갖게 된 연혁, 경모궁은 역시 관왕묘 및 관우의 찬양문, 정조는 관우의 용맹과 충의를 찬양한 글이다. 내용은 사대주의 사상이 농후하지만, 조선 후기의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4대 왕(숙종 · 영조 · 경모궁 · 정조)의 친필인 어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의 무안관왕묘비명(武安關王廟碑銘)은 1900년에 세운 것이다.

(이은희)

7) 『正祖實錄』 卷20, 9年 11月 辛酉條

東·西廡 內 碑文

1. 西廡

東廟碑 - 동묘비 번역문¹⁾

〈前面〉

大漢朝忠節武安王贊揚銘

肅宗元孝大王宸章

숙종원효대왕신장

歲在乙亥冬十月上浣題

을해년(숙종 21, 1695) 겨울 10월 상완(上浣)에 쓰다

予歷觀前史英雄豪傑之事 有時乎出爲國效力者 不特止於一二人矣 然而精忠大節 卓然拔萃 昭昭如日月 凜凜若秋霜 閱事蹟而拊髀 曠百世而相感者 豈有如武安王也哉 於乎 當漢業之傾隕 仗大義於草萊 偕劉張而結誼 刑白馬而爲誓 一心如丹 只在帝室 破黃巾而滅呂布 滄七軍而連捷書 使鄴中之老賊 至欲遷都 以避其鋒者 莫非王之威武也 天不助順事乃大謬 蒙遜之詭計得售 江東之鼠輩鳴張 月暈麥城 禍慘臨沮 迢思千載之下 未嘗不盡 傷心而切齒痛恨於碧眼紫髯也於乎 歷代雖遠 我慕愈切 爰圖厥像于縑之中 丹鳳臥蠶 宛若生面 戟髯綠袍 望如風動 坐看春秋 氣象清肅 眞可謂萬古之英傑歟 遂以銘之曰

내가 지난 역사에서 영웅호걸들의 일을 두루 살펴보건대, 시대마다 세상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한 자가 한둘에 그치지 않았으나, 순수한 충성과 큰 절개가 드높아 일월(日月)처럼 빛나고 추상(秋霜)처럼 늠름하여, 그 사적(史蹟)을 읽으면서 허벅지를 치고 백세(百世)뒤에서도 감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어찌 무안왕(武安王)과 같은 분이 있었습니까. 아, 한(漢)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지는 때를 당하여 초야(草野)에서 대의(大義)를 지켜 유비(劉備)·장비(張飛)와 함께 결의(結誼)하고서 백마(白馬)를 잡아 맹세한 일편단심(一片丹心) 오직 한 나라를 부흥(復興)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황건적(黃巾賊)을 격파(擊破)하고 여포(呂布)를 멸(滅)하고, 위(魏)나라의 칠군(七軍)을 익사(溺死)시키고 연이어 승리를 거두어, 업(鄴) 땅의 노적(老賊 : 曹操)으로 하여금 예봉(銳鋒)을 피하기 위해 천도(遷都)하려고까지 하게 한 것이 모두 왕(王)의 위무(威武)가 아님이 없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금석문대관』 제3집, 2000, pp.3-12.

그러나 하늘이 선인(善人)을 돕지 않아 일이 크게 잘못되어, 여몽(呂蒙)과 육손(陸遜)의 간사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강동(江東)의 하찮은 무리들이 활개를 쳐서 맥성(麥城)이 함락되고 임저(臨沮)에서 참혹한 화를 당하셨으니, 아득한 천년뒤에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 벽안자염(碧眼紫髯 : 손권을 지칭)에게 이를 갈며 통한(痛恨)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 연대(年代)가 비록 오래 되었으나 나의 추모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여, 이에 비단에 왕의 초상(肖像)을 그리니, 봉안(鳳眼)에 와잠미(臥蠶眉)는 살아 있는 얼굴같고, 세 갈래 수염에 녹포(綠袍) 입은 모습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고, 앉아서 춘추(春秋)를 읽는 모습은 기상이 맑고 엄숙하였으니, 참으로 만고(萬古)의 영걸(英傑)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銘)합니다.

山岳間氣	산악의 정기(精氣)를 받고 태어난 영웅이라
蓋世英雄	드높은 기개(氣概) 세상을 뒤덮으셨네
出自蒲州	포주(蒲州)에서 나와
從事陣戎	군진(軍陣)에 종사하실 때
祭告天地	천지(天地)에 고하고서
三傑誼同	세 영웅 결의하셨네
力扶帝室	힘을 다해 한실(漢室)을 도우며
仗義秉忠	의리와 충성을 굳게 지킨
丹心炳炳	일편단심 밝게 빛나서
可格蒼穹	하늘을 감격(感激) 시키셨네
千里赤兔	천리를 달리는 적토마와
八十青龍	팔십 근 짜리 청룡도가
蓋亦應時	때 맞추어 나오니
到底望風	가는 곳마다 소문만 듣고도 도망쳤지요
眞烈丈夫	참으로 열렬한 대장부라
如虎如熊	범과 곰처럼 용맹하셨네
達朝明燭	밤새도록 촛불 밝히고서 춘추(春秋)를 읽으시니
大節彌崇	큰 절개 더욱 높으셨고
斬將五關	다섯 관문 수문장(守門將)의 목을 베니
威名日隆	위엄과 명성 날로 드높으셨네
不遠長程	먼길을 멀다 아니하고
尋訪二公	두 분을 찾아가서
果然會合	과연 서로 만난 것은
出至誠中	지성의 발로(發露)이셨네
乃偕諸葛	제갈량(諸葛亮)과 함께
密勿從容	힘을 다해 주선(周旋)하여
坐鎮荊襄	형주(荊州)와 양양(襄陽)을 진압하고

屢樹膚功	누차 큰 공을 세우셨네
漢業幾復	한 나라 기업(基業) 거의 회복하였으나
事不心從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將星一隕	장성이 한번 떨어지니
齋志無窮	품은 뜻 퍼지 못해 무궁한 한(恨) 남기셨네
顯聖玉泉	옥천사(玉泉寺)에 현련(顯靈)하여
魂誅賊蒙	영혼이 여몽(呂蒙)을 죽이시니
毅魄所在	굳센 혼백 계시어서
明靈則通	밝은 영혼 유명(幽明)을 관통하셨네
於焉緬懷	아아 옛일을 회상하니
有淚沾胸	눈물이 흘러 가슴을 적시네
遺像之圖	유상을 그린 것은
寔由予衷	나의 작은 정성이네
瞻仰起敬	우러르니 공경하는 마음 일어
恨不遭逢	만나지 못한 것이 한스럽네
介以景福	큰 복을 내리시어
永佑吾東	우리나라 길이 도우소서

〈後面〉

顯靈昭德武安王廟

현령소덕무안왕묘

英宗顯孝大王御製御筆

영종현효대왕 어제어필

國都漢陽東南有關王廟 一則在崇禮門外 歲丁酉 皇朝欽差東援諸將 因其王之顯靈助戰 各捐物力營建 而我聖祖 亦助費而成 工訖 親臨以拜 一則在興仁門外 歲庚子 萬曆神宗皇帝 以四十白金付撫臣萬世德命立祠 聖祖命有司 又建於此 而皇朝賜其扁號曰 顯靈昭德王關公之廟 其由俱載國乘 其後 我聖考 歷臨是廟也 下詢儀節 而侍從之臣 以揖禮爲請 最後以再拜爲定 尊慕忠義之聖德 藹然於絲綸 而繼述穆廟臨拜之盛禮 猗歟至哉 小子嗣服之後 遵昔年之聖意 始行再拜禮於東南廟 而逮于柔兆攝提南呂之月 省陵而回 又爲歷拜于南廟 此非特興感也 意蓋深矣 因其興慨偶閱故事 乃知皇朝賜號 不勝匪風下泉之心 整衣盥手 書以顯靈昭德武安王墓八字 鐫揭於東南二廟 仍爲躬詣二廟 臨拜而瞻揭 於戲 事雖一舉 追感則三 其一 使皇朝昔年賜號 不泯於來世 而追憶壬辰再造之恩 遙望中州 涕泗沾襟 其一 興感武安王炳日月之忠義 又惟往歲 助天將而護我國 其一 幾百年之後 追踵聖祖故事 復行其禮 反顧涼德 追慕彌切之中 恍然惕然 而又於此有餘意 何則 今因此舉 瞻覽欽差陶通判良性所撰碑 又盛稱關王武勇 而不及於忠義大節 末乃以文宣武安對舉爲二 無乃陶公之意 或未深思而然歟 於戲 武安王忠義 亘于萬古 武安王之前 罕有若武安王者 武安王之後 亦罕

有若武安王者 文武 本無二致 況忠義乎 子夏曰 事君 能致其身 吾必謂之學矣 以此觀之 忠與義 非學而何 且關王 好讀左氏春秋 雖過五關之時 不輟其讀 噫 左傳由於麟經 王嘗好讀此 豈非尊王 慕聖 而陶公之譬喻文武者 抑又不爲周思而然歟 後之人 以今予此舉 若曰 尙武而然 則非予起感欽 慕之本意也 不可不略引陶公碑記中言 以示予意而懸揭 小註之中 有漢二字 其豈闊看乎哉 於戲 揄 王忠義大節之意 專在於此二字 噫 一隅青丘 尙有皇朝 亦如唐宋以後 漢之一字 在於此廟 隨事興 懷 不能自耐云爾

歲 皇朝崇禎紀元後百三年 八月中旬後三日 謹識

국도(國都) 한양(漢陽)의 동쪽과 남쪽에 관왕묘(關王廟)가 있다. 하나는 숭례문(崇禮門) 밖 에 있는데, 정유년(선조 30년, 1597)에 명(明)나라 조정의 명을 받고 우리나라를 구원(救援)하 기 위해 온 여러 장수들이 왕이 현령(顯靈)하여 전쟁을 도운 일로 인해 각각 물자(物資)를 출 연(出捐)하여 지은 것이다. 우리 성조(聖祖)께서도 비용을 대어 도왔으며, 완공된 뒤에는 친히 거동하여 배례(拜禮)를 행하셨다.

하나는 흥인지문(興仁之門) 밖에 있는데, 만력(萬曆) 경자년(선조 33년, 1600)에 신종황제(神 宗皇帝)가 백금(白金) 40근을 무신(撫臣) 만세덕(萬世德)에게 주어 사당(祠堂)을 세우도록 명 하니, 성조(聖祖)께서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또 이곳에 세우게 하셨다. 명나라에서, 「현령소덕 왕관공지묘(顯靈昭德王關公之廟)」라는 편호(扁號)를 내렸는데, 그 사유(事由)는 국승(國乘)에 자세히 실려있다.

그 후에 우리 성고(聖考)께서 이 묘(廟)에 차례로 거동하시어, 의절(儀節)을 하문(下問)하시 니, 시종(侍從)하는 신하가 읍례(揖禮)하기를 청하였으나, 끝내 재배(再拜)하는 예(禮)로 결정 하시어, 충의(忠義)를 존모(尊慕)하는 성덕(聖德)이 성대하게 윤음(綸音)에 나타나고, 목묘(穆 廟, 선조)께서 납시어 배알(拜謁)하신 성대한 예를 계술(繼述)하셨으니 아, 지극하셨도다.

소자(小子)가 즉위한 뒤에 옛날 목묘(穆廟)의 뜻을 따라 비로서 동묘(東廟)와 남묘(南廟)에 재배례(再拜禮)를 행하였고, 병인년(영조 22년, 1746) 8월에 능(陵)을 살리고 돌아올 때 또 남 묘에 들려 배례하였으니, 이는 감회(感懷)가 있어서일 뿐만이 아니라 깊은 뜻이 있어서였다. 일 어나는 감개(感慨)로 인해 우연히 고사(故事)를 열람하고서야 명나라의 사액(賜額)임을 알고 는 명나라를 그리는 마음 금할 수 없어서, 옷깃을 여미고 손을 씻고서, 「현령소덕무안왕묘(顯靈 昭德武安王廟)」여덟자를 써서 현판을 만들어 동묘와 남묘에 걸게 하고, 이어 몸소 두 묘에 나 아가 배알(拜謁)한 다음 현판을 바라보았다.

아아, 일은 비록 한 가지를 거행했으나 추모하는 감회는 세 가지이다. 그 하나는 과거에 명 나라가 내린 편호를 후세(後世)에까지 인멸(湮滅)되지 않게 하고, 임진왜란 때에 나라를 재건 (再建)해 준 은혜를 생각하며 멀리 중국을 바라보노라니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셨던 것이고, 그 하나는 무안왕의 일월(日月)처럼 빛난 충의(忠義)에 감동하고, 또 옛날 명나라의 장수를 도 와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 것이고, 그 하나는 몇백년이 지난 뒤에 성조의 고사(故事)에 따라 다 시 그 예를 행하고서 나의 부덕(不德)을 되돌아보며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한 가운데 두 려운 마음이 들어 불안한 것이다.

그리고도 미진(未盡)한 생각이 있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 지금 이 일로 인해 중국 사신(使臣) 통판(通判) 도양성(陶良性)이 지은 비문을 보건데, 관왕(關王)의 무용(武勇)만을 성대하게 칭송했을 뿐, 그 충의(忠義)의 큰 절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말미(末尾)에는 문선(文宣 ; 공자)와 무안(武安)을 대거(對舉)하여 둘로 만들었으니, 이는 도공(陶公)이 혹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아, 무안왕의 충의는 만고(萬古)에 뻗혔으니, 무안왕 이전에도 같은 이가 드물었고, 무안왕 이후에도 무안왕 같은 이가 드물었다. 문(文)과 무(武)가 본래 두 가지가 아닌데, 하물며 충성과 의리이겠는가.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임금을 섬기되 능히 그 몸을 바치면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이르겠다」하였으니, 이 말로 보면, 충성과 의리가 학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관왕은 좌씨춘추(左氏春秋) 읽기를 좋아하여 다섯 관문을 통과할 때에도 좌전 읽기를 그치지 않았다. 아, 좌전(左傳)은 춘추(春秋)에서 나왔으니, 관왕이 이 책 읽기를 좋아한 것이 어지 왕자(王者)를 존경하고 성인(聖人)을 사모해서가 아니었겠는가. 그런데도 도공(陶公)이 문무(文武)로 비유한 것은 치밀하게 생각지 않아서 그런 것이리라.

후세 사람이 오늘 나의 이 일을 가지고서 만약 「무(武)를 숭상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감동을 일으켜 흠모한 본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도공 비문 중의 말을 인용하여 나의 뜻을 드러내어 판각(板刻)해 걸지 않을 수 없었다. 소주(小註) 가운데 유한(有漢)이라는 두 글자를 어찌 넓은 의미로 보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아, 왕의 충의의 큰 절개를 드러내는 뜻이 오로지 이 두 글자에 있다. 아, 천하의 한 모퉁이에 위치한 우리나라에 오히려 황조(皇朝)가 있는 것이 마치 당송(唐宋) 이후로 한(漢)이라는 한 글자가 이 관왕묘에 있는 것과 같다. 일마다 감회가 일어 스스로 견딜 수가 없노라.

황조(皇朝) 순정(崇禎) 기원후 103년(영조 22년, 1746) 8월 23일 삼가 기록하다.

東廟 則初瞻於昭陽仲秋 受香之途 爲休息入瞻焉 是在潛邸時也 伊後 嗣服後二年春 謁陵之回 以戎衣再瞻 而遵御 製中定制 行再拜禮 後十六年癸亥秋 謁陵之回 復以戎衣瞻拜 而南廟 則壬子秋 拜陵之回 乃初瞻拜 越八年夏 雩壇祈雨而回也 復以袞衣瞻拜 今柔兆秋 拜陵而回 以戎衣又瞻拜 同秋懸揭廟號後 以袞衣遵昔年故事 專行其禮 瞻東廟者三 拜南廟者亦三 而今又拜焉 寔是曠世興慕之意也 二廟 既在東南 今者 揭號 其宜表也 而東南懸揭 其色亦偶合於相生之理 故東廟 菁質紅畫 護以青紗 南廟 黃質青畫 護以紅紗 字皆傳金 是豈徒爲其親筆也哉 寔尊皇朝恩賜之號也 噫 此亦一舉而三意在焉 一則表其東南也 一則取其相生也 一則敬其皇賜也 追記其槩於本記之下云爾

凡事 其宜完備 日後 若或有復鐫之事 則有本然後 可以摹刻 印一本 藏置於江都鼎足山城焉 陶公撰碑所建處 命設閣

동묘(東廟)는 계묘년(경종 3년, 1723) 중추절에 처음 참배(瞻拜)하였다. 이는 수향(受香)하는 길에 휴식하기 위해 들어가 참배한 것인데, 잠저(潛邸)에 있을 때였다. 그 후 즉위한 뒤 2년 봄에 능(陵)을 배알(拜謁)하고 돌아오는 길에 용의(戎衣)차림으로 두 번째 참배하였는데, 이 때는 어제(御製) 중의 정해진 제도에 따라서 재배례(再拜禮)를 행하였다. 그로부터 16년 뒤 계해년(영

조 19년, 1743) 가을에 능을 배알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용의 차림으로 첨배(瞻拜)하였다.

남묘(南廟)는 임자년(영조 8년, 1732) 가을에 능을 배알하고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첨배하였다. 그로부터 8년 뒤 여름에 우단(雩壇)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곤의(袞衣) 차림으로 첨배하였으며, 금년 병인년(영조 22년, 1746) 가을에 능을 배알하고 돌아오는 길에 용의 차림으로 다시 첨배하였다. 동년(同年) 가을에 묘호(廟號 ; 편액)을 걸은 뒤에 곤의 차림으로 옛날 목릉(穆陵)의 고사에 따라 오로지 배알하는 예를 행하였다. 동묘를 첨배한 것이 3번이고 남묘를 첨배한 것도 3번이었는데, 지금 다시 첨배하는 것은 바로 오랫동안 감모(感慕)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묘(廟)가 이미 동쪽과 남쪽에 있으니, 지금 묘호를 거는데 있어서도 동과 남을 표시하는 것이 마땅한데, 동묘와 남묘에 걸은 편액(扁額) 또한 상생(相生)의 이치에 맞았다. 그러므로 동묘는 청색바탕에 홍색으로 그림을 드리고 푸른 갑사를 입혀 보호하였으며, 남묘는 황색 바탕에 청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붉은 갑사를 입혀 보호하였는데, 글자에는 모두 금(金)을 입혔다. 이것이 어찌 친필(親筆)이기 때문이겠는가. 바로 황조(皇朝)가 은사(恩賜)한 묘호를 높이는 뜻이다. 아아, 이 또한 한 가지 일에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으니, 하나는 동과 남의 상징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는 상생의 이치를 취한 것이고, 하나는 황조의 하사를 존경한 것이다. 그 대략을 본기(本記)의 아래에 추가로 기록하였다.

모든 일은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만약 혹시라도 편액(扁額)을 판각(板刻)할 일이 생긴다면 원본(原本)이 있는 뒤에야 모각(模刻)할 수 있으니, 한 장을 인출(印出)해서 강도(江都)의 정족산사고(鼎足山史庫)에 보관하라.

도공(陶公)이 지은 비석을 세운 곳에 비각(碑閣)을 지으라고 명하였다.

2. 東廡

武安王廟碑銘 - 무안왕묘비명 번역문

〈前面〉

武安王廟碑銘

무안왕묘비명

景慕宮睿製睿筆

경모궁예제예필

天地鍾英
 鼎氣雄雄
 功蓋萬禩
 威耀八戎
 盱衡載籍
 侯莫與同
 編裨子雲
 卒伍老忠
 桃園盟血
 直盤皇穹
 恩兄義君
 首腹譬龍
 所征無敵
 海內靡風
 暨亦我旅
 伊貔伊熊
 載揚豐烈
 爲漢之崇
 若唐若宋
 罔不致隆
 皇朝秩典
 爵視王公
 逮我宣祖
 肇祀國中
 袞繪九章
 有儼睟容
 廟楣有刻

천지의 영기(英氣) 모여
 큰 기운 당당도 해라
 그 공로 만년토록 압도하고
 그 위엄 팔용(八戎)에까지 빛났네
 눈치뜨고 온 서적 뒤져봐도
 후(侯)와 같은 이 없어라
 자운(子雲)을 부장으로 삼고
 노장 황충(黃忠)을 막하에 두었네
 도원에서의 맹세는
 솟구쳐 하늘에 서렸고
 은의로 맺어진 형이요 임금
 그 임금의 수족 같았소
 가는 곳마다 대적할 자 없어
 천하가 바람앞에 풀이었소
 더불어 후(侯)의 군사들도
 맹수처럼 용감했네
 비로서 큰 공을 드날리고
 한(漢)나라를 우뚝히 세우셨소
 당나라도 송나라도
 모두들 높여 받들었네
 명(明)나라에서의 벼슬등급
 왕공(王公)과 대등했소
 우리 선조(宣祖) 임금님
 처음으로 도성 안에서 제사하니
 구장(九章)을 수놓은 곤룡포
 위엄있는 얼굴
 사당 기둥에 새겨진 글은

兩聖紀功
小子式欽
先志是從
我銘作詞
以詔無窮
不奮董筆
斬權戮蒙
恭惟冥麻
遂感而通
誕聖顯靈
大德鐫胸
歲一精禋
帕首甲衷
靈如地水
若朝暮逢
冀垂英願
祚我大東

歲壬申 謹撰

〈後面〉

武安王廟碑銘

當宁宸章弘齋

王在帝傍
魄毅神雄
赤驥翠駝
廓掃蠻戎
瓣香拜稽
萬方攸同
誕我肇祀
匪直尙忠
柔牲練日
鐃鼓殷穹
九旒琅瑯

선대의 두 임금의 공을 적은 것
소자(小子)도 경의를 표해
선대의 뜻 따르리라
내 뜻을 노래로 새겨
영원히 전하노라
동호(董狐)의 직필 아니 쓰고도
손권과 여몽을 죽인 것은
아마도 후(侯)의 신명이
감통(感通)한 결과리라
거룩하고 높은 신령
큰 은덕 가슴에 새기고
해마다 한번 제사하니
머리에 띠매고 갑옷 입은 채
신령이시여 지하의 물이
수시로 만나듯이
후(侯)의 영령 나리시여
우리나라 복주소서

임신년(壬申年 : 1752)에 삼가 지음

무안왕묘비명

당저 신장 홍재

천제 결의 왕의 신령
그 기백 굳세고 크도다
적토마에 시퍼런 칼날로
만융(蠻戎)을 소탕했네
향피우고 정하며 받드는 것
온 나라가 같은 바라
우리가 크게 제사함은
그 충성을 높여서 뿐이 아니네
떡하고 희생잡고 날가려 제사할 때
징소리 북소리 하늘을 울리네
아홉 줄 옥구슬 부딪혀 소리내며

決雲駕龍
 況兮儻兮
 肅然有風
 神之降矣
 河魁熊熊
 歆我盼蠶
 格我欽崇
 永懷駿惠
 洵莫與隆
 像配光嶽
 秩邁侯公
 麗牲有石
 于廟之中
 承承奎壁
 載烈象容
 華渚壽丘
 於萬頌功
 神兮錫嘏
 龜筮叶從
 邦享五福
 民無四窮
 顧瞻靡騁
 玄黃晦蒙
 一指風霆
 顯庥冥通
 環庭介士
 豎髮沾胷
 剡剡上下
 弗遐讎衷
 神之迪矣
 如相攀逢
 地久天長
 永食吾東

구름을 헤치고 용을 타고
 언뜻 홀연히
 으스스한 바람일며
 신령이 하강하니
 별들이 번쩍번쩍
 우리가 바치는 정성 흠향하사
 우리의 흠모에 감동했네
 그 큰 은혜 영원히 못잊어
 참으로 그 보다 더 할 수 없네
 모습은 광악(光嶽)과 짝을 이루고
 벼슬은 공후(公侯)보다도 높네
 희생을 매는 돌
 사당 복판에 세워지고
 자자손손 제후되어
 공 세우고 공신되네
 좋은 궁궐에 오래살며
 온갖 공로 찬송하네
 신께서는 복을 내려
 거북 점 시초 점이 모두 길조네
 나라는 오복을 누리고
 백성들은 어려움 없네
 돌아보며 쏠리 듯 달려가니
 하늘도 땅도 아득하고
 바람불고 우뢰치더니
 큰 음덕 어느새 이루어지네
 마당에 둘러선 갑사들
 머리는 치숯고 가슴은 젖어오네
 번쩍번쩍 오르내리는 빛
 오래지 않아 밝아오는 마음
 신령이 떠나가니
 마치 서로 다투어 만나려는 듯
 땅도 끝이 없고 하늘도 가 없듯이
 영원토록 제사하리 우리 동방에

卽阼九年乙巳陽奎撰並篆書
常作 迎送神奠獻樂歌

즉위 9년(정조 9년 : 1785)째인 을사년 11월에 글을 짓 付太
고 아울러 전(篆)을 쓰고, 태상시(太常寺)에 분부하여 영
송신전헌악가(迎送神奠獻樂歌)를 짓게 하였다.

광무 4년(1900) 경자년 음력 6월에 다시 새김

ABSTRACT

The Architecture of Dongmyo

Dongmyo(東廟, Guanyu Temple in the east) is the ritual architecture for Guanyu(關羽, 160~219) who was the famous warlord in ancient China. Guanyu temple has been built when the emperors in many generations in China began to sanctify him as a god for the sake of his royalty and righteousness. The divineness of Guanyu has spreaded to the people then as good as the Confucian shrines especially in the military and the commercial. Apparently Guanyu was a warlord in the one ancient country, but he has been called even a holy emperor or the saint up to the present.

The Guanyu temples in Korea were built in Joseon dynasty by demand of Ming(明) dynasty as a political intention after the war against Japan from 1592 to 1598. While Dongmyo began to be built beyond the Heunginjimun gate(興仁之門) in 1599, there were lots of controversies among the governmental officers for the financial difficulties, a labor shortage and so on. Meanwhile it was completed with delayed construction in 1601. At that time there was another Guanyu temple called Nammyo(南廟) which was located outside the Sungnyemun gate(崇禮門).

According to the historical materials, there were many Guanyu temples not only in Seoul but also in the other provinces. Because the early belief in Guanyu as the god of war had changed to the belief as the god of fortunes, so those belief was more attracted by the people. In the historical record of Seoul which was published in 1934, there were four Guanyu temples in each direction and four more temples regardless of directions. However Guanyu temple in the north(Bukmyo, 北廟) and the west(Seomyo, 西廟) were absorbed into Dongmyo in 1908 and 1909, there are still many Guanyu temples in Seoul at the present. Nammyo was destroyed by fire in 1899 and rebuilt soon, nevertheless it was burnt out again during the Korean war and reconstructed. Now it is moved to Sadang-dong, Dongjak-gu. Moreover there are other temples ; Gwanseongmyo(關聖廟) in Myungnyun-dong, Seongjemyo (聖帝廟) in Bangsan-dong, Wanyongmyo(臥龍廟) in Yejang-dong and Gwanseongmyo(關聖廟) in Jangchung-dong.

Dongmyo is located in 238-1, Sungin-dong, Jongno-gu. It was designated as Treasure No.142 in 1963. It organizes a rectangular territory by surrounded wall like other types of architectural system of Confucian shrine. The central axis which is composed of the main

hall, the middle-gate and the south-gate becomes the main axis whole through Dongmyo, and other buildings are placed bilateral symmetrically however applied not to auxiliary facilities but to major buildings. There is a walking-way connected from the middle-gate to the south-gate in front of the main hall along the main axis, and two flanking halls(dongmu 東廡, seomu 西廡) are placed with facing each other bilaterally.

The main hall(Jeongjeon, 正殿) is five bays wide and six bays deep with supported by the bracket sets of Ikgong(翼工, wing-like) style. It divided extensively into two spaces in plan that one is five by four bays enshrined the statues of Guanyu and the other is for ritual. Furthermore the connecting-path which is five by one bay in plan is included in the space of ceremony. There are arched doors made of granite on each side in the space for the connecting-path. The roof is also divided into two kinds that are a hipped-and-gabled roof on the former space and a gabled roof is on the latter space.

These two different kinds of spaces and roofs are combined together as the one building, so to speak, the main hall represents the architecture of combination with two different types of buildings. Therefore it has a peculiarity that hardly finds the similar types in Korea. The form of it such as the constitution in plan and the structure of roof seem to be influenced on Chinese architecture. Moreover there are galleries around the exterior of main hall which is found the Buddha hall of esoteric Buddhism in Japan.

The stylobate which is finished with the plate-bricks on the upside is also divided into three parts. Seeing from the facade, One is located in front of the main hall for ceremony, another is under the space for ritual and the third is under the space of statues. Each step is getting slightly lower as a step from rear to facade to represent a hierarchy.

The main hall is constituted by the fireproof wall bricked entirely except the facade which is quite unique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There are statues of Guanyu and supplementary characters in the middle of main hall which are placed originally, and other statues of Guanyu which were moved when Bukmyo was absorbed to Dongmyo in the right side and those from Seomyo in the left side of it. Consequently the interior of space which enshrined the statues of main hall looks somewhat casually.

東廟의 建築

원고집필(原稿執筆)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배병선

김덕문

한 욱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이은희

영문번역(英文翻譯)

서울영어체험마을

이경희

사진(寫眞)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한 욱

조은경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

이성구

삼성건축사사무소

편집(編輯)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배병선

남시진

김덕문

강 현

조은경

한 욱

탁경백

심유신

문승현

한주성

채원탁

남창근

실측(實測)

삼성건축사사무소 (2001년)

인쇄일 / 2004. 12. 24

발행일 / 2004. 12. 29

발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집 / (주)뷰랜

인쇄 /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